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 강현모

 용인시립도서관



RE06112

여

백



향토문화자료

13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용인문화원

여

백

발간사

용인 향토문화자료 제11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을 발간하면서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형의 문화재는 세월이 흘러도 그 틀은 남아 후손에게 이어져 가지만, 무형의 문화유산은 일정한 기간이 흘러가면 다시는 이어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문화유산과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유산이 소멸되어가는 지금, 구비전승을 수집, 보존하는 일은 그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우리 고유의 많은 민속과 구비전승이 그만큼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산재한 우리의 무형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서구문화의 횡포 앞에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것보다 남의 것을 선호하는 잠재의식 등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창달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문화유산을 정리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의 구비전승』의 발간 작업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고장 문화 창달에 참고가 되며, 21세기를 향한 용인시민들이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채록에 응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자료 수집과 정리 집필을 맡아주신 용인대학교 박종수 교수님과 강현모 선생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부설 전통문화연구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7년 5월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서문

필자는 지난 해 5월 『내고장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을 용인 향토 문화자료총서 11호로 엮어냈다. 1993년 3월부터 용인시 전역을 발로 뛰 어 채록한 구비전승 일부를 용인문화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엮은 것이다. 다행스럽게 각 분야에서 반응이 좋았다. 한 가지 걱정을 덜고 나니까 다른 걱정이 되는 것이다. 동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구비전승을 발간하는 일이다. 물론 용인문화원에서 계속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예산이 넉넉치 못한 사정을 안 필자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용인문화원에서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용인문화원에 감사를 드린다.

유형문화재는 용인지역의 예를 들더라도 향토문화자료로 많이 발간되고 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자료발굴이 유형문화재보다 덜한 것 같다.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용인시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그만큼 빨리 소멸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수도권의 무형문화재 자료의 발굴이 시급해진다.

주지하는 바 역대 지식층은 한문을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기록하였다. 그 지식층은 전체 국민의 5% 정도의 수밖에 되지 않았으며 1446년 한글 창제 후 한글을 깨친 사람들까지 포함해도 30~40%만이 기록되었다고 볼 때, 60~70%의 전통문화가 구전되고 있는 것이다. 민속학자들이 끊임없이 자료발굴을 하고 있어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많은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인이려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의 것을 찾아 정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같은 것, 옛스러운 것을 찾아 우리 후손과 세계에 알리고 하

는 것이 세계화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옛스러운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조상들의 전승문화를 남겨 놓자는 뜻에서 3~4년에 걸쳐서 용인 전지역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구비전승 자료를 발굴해서 채록하고 정리한 일부를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동원된 학생수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정리된 원고량도 15,000매 이상이 된다. 그 중에서 작년어 이어 2권째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3권을 더 발간해야 용인 전지역이 마무리되는 데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필자는 용인지역에 이어 인접지역인 안성 전지역을 현재 자료 발굴과 정리 중에 있다.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이천 등 경기 전역을 목표로 구비전승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미 정신문화원에서 『한국구비문학대계』를 간행했지만, 전지역 조사라기보다는 선별한 느낌이 있어 필자의 이 작업은 전지역을 구석구석 조사했다는 데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책을 내기까지 오랫동안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용인시의 주민 여러분과 조사보조원으로 직접 조사를 참여하고 원고 정리를 했던 여러 학생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신 태학사 지현구 사장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이 원고가 출판되도록 배려해 준 용인문화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97년 5월
용인대학교 근재 연구실에서
지은이 적음

일러두기

1. 이 자료는 1996년 6월 1일~1997년 3월 20일 사이에 용인시 북부지역인 포곡면과 모현면 내의 전 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채록 정리한 것이다.
2. 개관은 자료발간 대상인 용인시의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지·군지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3. 보고서의 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구비문화대계』의 기술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4. 각 리마다 마을과 제보자에 대한 개관을 하였다.
5. 자료마다 일련번호, 테이프번호, 조사장소, 조사자, 제보자의 성명(나이, 성별) 조사날짜 등을 명시하였다.(단 조사자의 이름이나 나이를 조사하지 못한 자료는 마을별로 제보자 1, 2로 표시하고, 나이는 ?로 표시하여 놓았다.)
6. 자료의 배열은 각 리별로 하여 번호를 붙였으며, 그 리별 배열은 면소재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 원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7.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내용을 일체 가감없이 그대로 활자화하였으며, 와음이나 방언도 그대로 채록하였다.(녹음볼륨은 기록 상태를 최대로 복원시켜 활자화시켰다.)
8. 자료의 본문에서 방언의 설명나 상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은 () 안에 부연 설명하고, 조사자나 청중의 개입은 []로 묶어 표기하였다.
9. 필요한 경우에 생략을 ……로 표시하고, 테이프에서 채록할 수 없는 부분은 [청취불능]이라 표시하였다.
10. 수록 자료의 구체적인 자료 분류는 용인시 전 지역이 조사를 마치고 발간할 때 붙이기로 한다.

목 차

발간사
서 문
알려두기

I. 개관

1. 지역 개관	23
2. 조사 개관	28

II. 포곡면 설화

1. 금어리	3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1) 천성역 (72, 남) 말아가리의 유래	• 41
(2) 천성역 (72, 남) 도깨비에 홀린 사람	• 42
(3) 유원연 (80, 여) 귀신 다리	• 43
(4) 유원연 (80, 여) 귀신 다리에 호랑이를 만난 박수	• 44
(5) 김동선 (57, 남) 금어리의 유래	• 45
(6) 김수산 (50, 남) 산삼을 캔 꿈	• 46
(7) 김수산 (50, 남) 피난지가 있는 용인의 12실	• 47
(8) 김수산 (50, 남) 귀신 웅덩이	• 47
(9) 김용철 (55, 남) 원뿔병의 유래	• 48

- (10) 김용철 (55, 남) 은동곳을 무서워 한 원뿔병 귀신 • 50
 (11) 김용철 (55, 남) 배짱이 작아 이산군수 한 선비 • 51
 (12) 김용철 (55, 남) 삼백 석 나는 묘자리 • 55

2. 둔전리61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이덕재 (64, 남) 둔전리의 유래 • 64
 (2) 김영환 (71, 남) 할미성의 유래(1) • 65
 (3) 이덕재 (64, 남) 할미성의 유래(2) • 66
 (4) 유순봉 (64, 남) 고만이 양반된 내력 • 67
 (5) 유순봉 (80, 남) 메기와 광어의 유래 • 73
 (6) 이봉출 (90, 남) 정씨를 놀리던 명씨 • 75
 (7) 이봉출 (90, 남) 바람을 피우고 바위된 여인 • 77
 (8) 이봉출 (90, 남) 나귀 타고 사라진 전우치 • 79
 (9) 유순봉 (80, 남) 효성을 다한 두껍이 • 81
 (10) 이봉출 (90, 남) 김자점이 역적이 될 줄 안 장인 • 89
 (11) 안정호 (80, 남) 호랑이가 찾아오는 대화산 • 92
 (12) 안정호 (80, 남) 암행어사 박문수 • 93
 (13) 전주이씨 (72, 여) 남편의 죄를 면하게 한 아내 • 94
 (14) 전주이씨 (72, 여) 저승갔다 온 구두쇠 • 96
 (15) 이종우 (69, 남) 모현의 유래 • 98
 (16) 이종우 (69, 남) 도서리 뱃모루의 유래 • 98
 ① 도서리의 유래 • 98
 ② 뱃모루의 유래 • 99

- (17) 황순악 (77, 여) 진정한 친구 • 99
- (18) 황순악 (77, 여) 어머니의 병을 구한 효자 • 100
- (19) 황순악 (77, 여) 복 돌려주고 복받은 사람 • 101
- (20) 황순악 (77, 여) 명당 복 못 받은 살인자 • 102
- (21) 황순악 (77, 여) 단일 백 석 할 명당 • 104
- (22) 황순악 (77, 여) 화적떼 회개시킨 사람 • 105
- (23) 황순악 (77, 여) 수수씨 재판 • 106

4) 민 요

- (1) 성찬근 (71, 남) 백발가 • 107

3. 살계리10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류남례 (82, 여) 꼬마 신랑 • 112
- (2) 류남례 (82, 여) 결혼 첫날밤 • 113
- (3) 류남례 (82, 여) 귀한 흥시감을 구한 효자 • 114
- (4) 류남례 (82, 여) 삼천갑자 동방석의 최후 • 115
- (5) 류남례 (82, 여) 하나님인 아이 • 115
- (6) 류남례 (82, 여) 정성드려야 할 제사밥 • 117
- (7) 류남례 (82, 여) 개암과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 119
- (8) 류남례 (82, 여) 콩쥐 팥쥐 • 120
- (9) 류남례 (82, 여) 상사뱀 • 122
- (10) 류남례 (82, 여) 은혜 깊은 게 • 123
- (11) 채용묵 (78, 남) 명지관 박성의(고시래의 유래) • 123

- (12) 최일순 (69, 여) 신방 옛보기 유래(빼국새 유래) • 125
 (13) 최일순 (69, 여) 개개객 유래 • 126
 (14) 최일순 (69, 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 126
 (15) 최일순 (69, 여) 장님을 끌려 먹은 조카 • 129
 (16) ?구모은 (? , 여) 이방원과 정몽주 • 132
 (17) 최영목 (63, 남) 울곡을 살린 아버지의 정성 • 134
 (18) 최영목 (63, 남) 앞 천기를 못 본 신립 • 138
 (19) 최영목 (63, 남) 앞 천기를 못 본 임경업 • 140
 (20) 최영목 (63, 남) 신랑 플라 시집간 이팔의 어머니 • 141
 (21) 구모은 (? , 여)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 143
 (22) 안종석 (45, 남) 구렁이 독에 눈을 뜬 장님 • 143
 (23) 안종석 (45, 남) 여자가 산소에 가지 않는 유래 • 144
 (24) 우체국장 (? , 남) 뱀을 낳은 과부 • 145
 (25) 안종석 (45, 남) 무학대사와 훌륭한 지관 • 146
 (26) 안종석 (45, 남) 고시래의 유래 • 149
 (27) 안종숙 (66, 여) 도깨비 방망이 • 150
 (28) 최일순 (69, 여) 불알 자지에 묻혀 죽은 여인 • 152
 (29) 안종숙 (66, 여) 방귀를 못 꺾 며느리 • 156
 (30) 최일순 (69, 여) 시집살이 9년 • 157

4. 영문리15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백경희 (76, 여) 갱피 훑는 여인(성황당의 유래) • 162
 (2) 백경희 (76, 여) 황금을 얻은 효성스런 며느리 • 164

- (3) 백경희 (76, 여) 을곡 선생의 총명함 • 165
- (4) 백경희 (76, 여) 고려장 없어진 유래 • 168
- (5) 백경희 (76, 여) 불효가 낳는 불효 • 169
- (6) 조만행 (83, 남) 영문리의 유래 • 170
- (7) 조만행 (83, 남) 냉천리의 유래 • 171
- (8) 조만행 (83, 남) 용인의 명현 • 171
- (9) 조만행 (83, 남) 정포은 근처에 묻힌 민충전 • 172
- (10) 조만행 (83, 남) 수지면에 있는 조광조 서원 • 173
- (11) 조만행 (83, 남) 말 한 마디에 달라진 고기의 양 • 174
- (12) 조만행 (83, 남) 반상을 고집한 대원군 • 175
- (13) 이명자 (61, 여) 방귀 못 똥 며느리 • 175
- (14) 백경희 (76, 여) 장가든 날 나간 영감 • 176
- (15) 이명자 (61, 여) 기차를 처음 본 사람 • 178
- (16) 백경희 (76, 여) 호랑이를 이긴 소 • 179
- (17) 이은복 (53, 남) 할미성 • 180
- (18) 정규완 (82, 남) 허문의 유래 • 181
- (19) 정규완 (82, 남) 마귀성 유래 • 183
- (20) 정규완 (82, 남) 제터골의 유래 • 184

5. 마성리185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이영학 (69, 남) 마성리와 할미성 • 187

- ① 마을 유래 • 187

- ② 할미성의 유래 • 188

- (2) 이영학 (69, 남) 물이 없는 할미성 • 190
- (3) 이영학 (69, 남) 성씨의 관한 한자 • 190
- (4) 이영학 (69, 남) 치마바위 • 192
- (5) 이재봉 (69, 여) 도깨비에 홀린 사람 • 193
- (6) 이영학 (69, 남) 도깨비로 변한 도리깨 장치 • 195
- (7) 이은복 (56, 남) 할미성의 유래 • 195
- (8) 이은복 (56, 남) 배가 다녔던 배모루 고개 • 196
- (9) 정화순 (70, 여)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 197
- (10) 박대석 (79, 남) 호랑이를 처치한 여인 • 198

6. 전대기203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정일재 (75, 남) 9대 후에 일어날 일을 안 이인 • 206
- (2) 정일재 (75, 남) 집안이 흥할라면 • 208
- (3) 정일재 (75, 남) 내 복에 먹고 산다는 셋째딸 • 209
- (4) 정일재 (75, 남) 발복하지 않는 명당 • 213
- (5) 정일재 (75, 남) 금시발복한 명당 • 214
- (6) 김창화 (66, 남) 유점사 53불의 유래 • 216
- (7) 정일재 (75, 남) 부자된 소금장수 • 218
- (8) 정일재 (75, 남) 현 남편을 고발한 이부열녀 • 220
- (9) 정일재 (75, 남) 소도둑 잡은 훌륭한 원님 • 222
- (10) 김창화 (66, 남)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유래 • 223
- (11) 정일재 (75, 남) 조카보다 자식 버려 복 받은 여인 • 224
- (12) 정사덕 (65, 남) 백가지 전설 • 226

- (13) 정사덕 (65, 남) 금시발복과 사패지지 • 227
 (14) 정사덕 (65, 남) 자라혈에 상석하고 망한 집안 • 229
 (15) 정사덕 (65, 남) 김씨네 효자문 • 230
 (16) 정사덕 (65, 남) 피난지 지 금당실의 유래 • 231
 (17) 정동일 (64, 남) 술 향아리를 재치있게 감춘 할머니 • 232

7. 유운길237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금병국 (73, 남) 이완 대장 일화 • 239
 ① 고지식한 한림 선생 • 239
 ② 예지가 있는 이완 장군의 부인 • 240
 ③ 인재 허진을 잡지 못한 이완 • 241
 (2) 금병국 (73, 남) 남이 장군 일화 • 241
 ① 11세에 중국 사신으로 간 남이장군 • 242
 ② 아전 휘어잡은 어린 남이 • 242
 ③ 남이 장군의 최후 • 243
 (3) 금병국 (73, 남) 농부의 옷이 더러운 이유 • 244
 (4) 금병국 (73, 남) 말괄량이 유성룡의 어머니 • 245
 (5) 금병국 (73, 남) 호랑이를 잡은 장사 무송 • 246
 (6) 금병국 (73, 남) 아내 효부로 만든 남편 • 247
 (7) 금병국 (73, 남) 죽을 병든 남편감을 살린 열부 • 248
 (8) 금병국 (73, 남) 도깨비 불 • 252
 (9) 금병국 (73, 남) 첫날밤에 버림 당하고 죽은 처녀 • 253
 (10) 금병국 (73, 남) 싸우는 황소를 물리친 이성계 • 254

- (11) 금병국 (73, 남) 똥을 싸다가 도를 통한 원이대사 • 255
- (12) 이병순 (70대, 여) 거짓말 해 망신 당한 청년 • 256
- (13) 이병순 (70대, 여) 꼬마 신랑의 아량 • 257
- ① 박이 굳어나 • 257
- ② 쇠뿔에 받쳐서 • 259
- (14) 한순봉 (74, 여) 꼬마 신랑 • 260
- (15) 한순봉 (74, 여) 잘 한다 몇 번 • 261
- (16) 이병순 (70대, 여) 새알심을 떠 먹은 팔죽 • 262
- (17) 이병순 (70대, 여) 갈보지 두 말 봄보지 두 말 • 264
- ① 반병어리의 첫날밤 • 264
- ② 들췌 딸의 시집살이 • 265
- (18) 이병순 (70대, 여) 쭉개떡 하나만 • 266
- (19) 이병순 (70대, 여) 미련한 영감 • 268
- (20) 이병순 (70대, 여) 동네 제사를 안 여인 • 268
- (21) 한순봉 (74, 여) 시집 장가 못간 처녀 총각 • 270
- (22) ? (?, 여)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 • 271
- (23) 이병순 (70대, 여) 시어머니를 길들인 며느리 • 272
- (24) 이병순 (70대, 여) 외아들의 버릇 • 276
- (25) 한순봉 (74, 여) 여상주 노릇한 삼 장수 • 276
- (26) 이춘옥 (73, 여) 구렁덩덩 신선비(변형) • 278
- (27) 이병순 (70대, 여) 콩쥐팥쥐 • 280
- (28) 이병순 (70대, 여) 심청의 효도로 눈 뜬 심봉사 • 283
- (29) 이병순 (70대, 여) 바둑돌을 때린 며느리 • 284
- (30) 이병순 (70대, 여) 방귀를 잘 똥 며느리 • 287
- (31) 이병순 (70대, 여) 당나귀가 하품 하나 • 288

4) 민 요

- (1) 한순봉 (74, 여) 님 생각 • 289
- (2) 한순봉 (74, 여) 인생 무상 • 289
- (3) 한순봉 (74, 여) 님 기다림 • 290
- (4) 한순봉 (74, 여) 아이구 아이구 별꼴이야 • 291
- (5) 한순봉 (74, 여) 창부타령 • 291
- (6) 한순봉 (74, 여) 죽은 사람은 못 만나지만 • 292

8. 신원기295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이문규 (69, 남) 느티나무 전설 • 296
- (2) 이재근 (63, 남) 청주 이씨 일화 • 297
 - ① 21대조 능희씨의 일화 • 298
 - ② 조상들의 수난 • 302
 - ③ 조상 산소 찾은 유래 • 303
- (3) 이재근 (63, 남) 피로 무덤을 잡은 김양 • 305
- (4) 이재근 (63, 남) 피가 나온 홍수래의 무덤 • 310
- (5) 이재근 (63, 남) 제사상을 받게 된 하인 • 312
- (6) 이재근 (63, 남) 지관의 말 안 듣고 실명한 사람 • 316
- (7) 이재근 (63, 남) 힘센 장사 스님을 물리친 아이 • 318

4) 민 요

- (1) 이재근 (63, 남) 장부 타령 • 322
- (2) 이재근 (63, 남) 초한가 • 323

Ⅲ. 모현면 설화

1. 초부리327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김봉용 (68, 여) 구렁이의 복수 • 329
- (2) 김봉용 (68, 여) 황희정승의 마지막 유언 • 331
- (3) 김봉용 (68, 여) 초립동이한테 혼난 이여송 • 335
- (4) 김봉용 (68, 여) 명당을 잃은 아들 • 338
- (5) 김봉용 (68, 여) 어머니는 남 • 340
- (6) 김봉용 (68, 여) 고시래의 유래 • 342
- (7) 김봉용 (68, 여) 산삼 동자 • 343
- (8) 조임술 (75, 여)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 345
- (9) 김봉용 (68, 여) 집 지키 구렁이 • 345
- (10) 김봉용 (68, 여) 일만 하다 죽어 개가 된 어머니 • 346
- (11) 김봉용 (68, 여) 저승갔다 온 이야기 • 347
- (12) 조임술 (75, 여) 까치머리가 하얀 이유 • 349
- (13) 김봉용 (68, 여) 은혜 값은 까치(상원사의 종소리) • 349
- (14) 김봉용 (68, 여) 칠월 칠석 생긴 유래 • 352
- (15) 김봉용 (68, 여) 제마무전 • 353
- (16) 권순례 (72, 여) 손순 매아 • 356
- (17) 정문교 (70, 남) 정포은 산소 쓴 유래 • 357
- (18) 정문교 (70, 남) 윤씨들이 잉어를 안 먹는 이유 • 359
- (19) 정문교 (70, 남) 남산골 샌님 • 359

- (20) 정문교 (70, 남) 숙종대왕의 암행 • 360
- (21) 정문교 (70, 남) 은혜깊은 까치 • 363
- (22) 권순례 (72, 여) 만경강을 건너준 뱀 • 364
- (23) 권순례 (72, 여) 은혜 깊은 뱀 • 365
- (24) 정봉해 (79, 남) 은행나무와 주변 지명 • 366
- (25) 정봉해 (79, 남) 지명 전설 • 368
- ① 무쇠전 • 368
- ② 능안 • 368
- ③ 왕구리 • 369
- (26) 정봉해 (79, 남) 정대장 일화 • 370
- (27) 정봉해 (79, 남) 정포은 산소가 있게 된 유래 • 373
- (28) 정봉해 (79, 남) 호랑이가 돌려준 아이 • 375
- (29) 정봉해 (79, 남) 고려장 없어진 유래 • 376
- (30) 정봉해 (79, 남) 처녀 원귀로 망한 신립장군 • 378
- 수수께끼 1 • 387

2. 갈달리38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 (1) 이병호 (78, 남) 홍철이 움터 • 391
- (2) 이병호 (78, 남) 유담의 묘(1) • 391
- (3) 이병호 (78, 남) 유복자 공자의 일화 • 392
- (4) 이병호 (78, 남) 공자 때문에 나쁜 사람 된 도척이 • 394
- (5) 이병호 (78, 남) 방아터령의 내력 • 395
- (6) 이병호 (78, 남) 석술거의 그림 • 397

- (7) 강은실 (68, 여) 호랭이를 끼고 잔 여인 • 397
- (8) 강은실 (68, 여) 유담의 묘(2) • 399
- (9) 강은실 (68, 여) 뼈국새의 유래 • 400
- (10) 강은실 (68, 여) 도깨비 불 • 400
- (11) 김영자 (62, 여) 산신에게 약을 받은 사람 • 402
- (12) 김영자 (62, 여) 하늘까지 닿는 바퀴 도깨비 • 403

4) 민 요

- (1) 이병호 (78, 남) 방아타령 • 404

3. 왕산리405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정석영 (75, 남) 유식한 시둔 혼내준 삼촌 • 407
- (2) 정석영 (75, 남) 똑똑한 색시 길들이기 • 410
- (3) 정석영 (75, 남) 모자란 바보 신랑 • 412
- (4) 윤병찬 (80, 남) 독산의 유래 • 413
- (5) 윤병찬 (80, 남) 매산의 유래 • 414
- (6) 윤병찬 (80, 남) 삼색 실과의 의미 • 415
- (7) 윤병찬 (80, 남) '설을'로 터를 잡은 무학대사 • 415
- (8) 윤병찬 (80, 남) 동양 삼국의 형성 • 418
- (9) 윤병찬 (80, 남) 대국의 사신을 혼낸 꼬마 • 421
- (10) 맹복순 (66, 여)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 423
- (11) 박길한 (58, 남) 들장의 유래 • 424
- (12) 박길한 (58, 남) 경단같은 붉어진 흙 • 425

(13) 박길한 (58, 남) 귀가 밝아지는 동정을 안달은 옷 • 425

(14) 박길한 (58, 남) 꼬마 신랑(남자는 남자) • 426

4. 일산리42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화

(1) 박봉식 (82, 남) 씨내리의 이야기 • 431

(2) 이기창 (71, 남) 남편따라 죽은 열녀 강화 최씨 • 431

(3) 이기창 (71, 남) 열녀 해주 오씨 • 434

(4) 이기창 (71, 남) 열녀 효부 • 435

(5) 이기창 (71, 남) 사람이 죽는 상가집 터 • 436

(6) 이기창 (71, 남) 석왕사의 유래 • 436

① 전주 이씨의 내력 • 437

② 고려말의 상황 • 438

③ 왕 되려는 이성계의 포부 • 439

④ 석왕사의 유래 • 442

(7) 이기창 (71, 남) 이지란과 이성계 • 445

(8) 박윤섭 (80, 남)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 447

(9) 박윤섭 (80, 남) 삼부팔모(三父八母) • 448

(10) 박윤섭 (80, 남) 맹모삼천지교 • 449

(11) 박윤섭 (80, 남) 민녀느리 제도의 잘못 • 450

5. 매산리453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이정희 (71, 여) 호랑이 잡은 지혜 • 455
- (2) 이정희 (71, 여) 호랑이를 만난 아버지 • 456
 - ① 호랑이를 만난 소 • 456
 - ② 개를 업고 도망간 호랑이 • 457
- (3) 이정희 (71, 여) 조정암을 낳은 어머니 • 458
- (4) 이정희 (71, 여) 정몽주 서원과 일화 • 460
- (5) 이정희 (71, 여) 수수깡을 도깨비로 본 사람 • 461
- (6) 정광시 (73, 남)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 • 462
- (7) 정광시 (73, 남) 호랑이가 지켜 준 황효자 • 462

6. 동립리465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이돈 (76, 남) 할아버지를 모면시킨 손자 • 467
- (2) 이돈 (76, 남)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 • 470
- (3) 이돈 (76, 남) 백 일 기도로 얻은 큰 인물 • 472
- (4) 배진선 (94, 남) 정성이 중요한 제사 • 474
- (5) 배진선 (94, 남) 덕 본 지네를 도운 사람 • 475
- (6) 배진선 (94, 남) 원실을 죽이려 한 장희빈 • 480
- (7) 배상준 (88, 남) 뚫린 구멍 뚫은 죄인 • 481
- (8) 배상준 (88, 남) 상부할 팔자 면하게 한 점쟁이 • 484
 - ① 강간 당하고 상부 면한 여인 • 485
 - ② 대낮에 빨가벗고 상부 면한 여인 • 486
- (9) 배상준 (88, 남) 강태공의 일화 • 487

- ① 5대조 후의 일을 안 강태공의 조상 • 487
- ② 무릉도원에서 공부하고 나온 강태공 • 491
- ③ 갱피 훑는 여인 • 492

4) 민 요

- (1) 이돈(76, 남) 복남아 • 495
- (2) 이돈(76, 남) 친구 집을 찾아 • 496

7. 능원지499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정연설(77, 남) 포은 정몽주 • 502
- (2) 정연설(77, 남) 포은 묘소로 인한 능골 • 506
- (3) 김선호(50, 남) 능골에 정씨가 많은 이유 • 507
- (4) 김선호(50, 남) 사랑해야 할 동물 • 509
 - ① 구렁이의 복수 • 509
 - ② 집 나간 고양이 • 510
- (5) 김은식(80, 여) 처녀가 죽은 손각시 • 511
- (6) 김은식(80, 여) 성황당 형겅으로 만든 옷 입고 망한 집 • 511
- (7) 김은식(80, 여) 도깨비의 행패 • 513
- (8) 김은식(80, 여)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1) • 514
- (9) 김은식(80, 여) 시아버지 대신 자식을 준 효부 • 518
- (10) 김은식(80, 여) 효자 정한영 • 521
- (11) 김은식(80, 여) 효심에 감동한 이적 • 522
 - ① 산삼 동자 • 522

② 잉어 구하기 • 522

- (12) 김은식 (80, 여)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2) • 523
- (13) 김은식 (80, 여) 집 지키는 업 구렁이 • 524
- (14) 김정분 (71, 여) 딸을 첩피하게 만든 친정아버지 • 524
- (15) 김정분 (71, 여) 담력이 커 부자된 사람 • 528
- (16) 김언년 (68, 여) 양반집 재산과 바꾼 돌노적 • 529
- (17) 김언년 (68, 여) 처가집 재산을 빼앗은 사위 • 532
- (18) 김정분 (71, 여) 방귀 못 편 며느리(1) • 537
- (19) 김정분 (71, 여) 방귀 못 편 며느리(2) • 538
- (20) 김언년 (68, 여) 양반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종 • 539

8. 오산리543

1) 마을 개관

2) 제보자

3) 설 화

- (1) 김용준 (80, 남) 삼복에 얼음 어는 한양지 • 545
- (2) 김용준 (80, 남) 호랑이 갖어다 준 선물 • 547
- (3) 김용준 (80, 남) 주인 아기를 살린 어씨네 개 무덤 • 553
- (4) 김용준 (80, 남) 형의 말을 따라 부자 된 삼 의형제 • 557
- (5) 신옥자 (53, 남) 죽을 병을 고친 무당굿 • 560

I. 개관

1. 북부지역 지역 개관

가. 포곡면 지역 개관

포곡면(蒲谷面)은 경기도 용인시 북부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면적이 42.05km²이다. 이 중에서 농경지 면적이 9.13km²(21.7%)이고 임야 면적이 26.23km²(62.4%)이며, 대지 면적이 6.5km²(15.5%)이고 기타가 0.19km²(0.4%)로 단연 임야가 많은 면이다. 인구는 1997. 3. 31. 현재 19,220명(남 9,859, 여 9,361)로 인구 증가율이 8%(자연 0.8%, 사회 7.2%)이다. 이 지역의 북쪽으로는 모현면(慕賢面), 서쪽으로는 구성면(驅城面) 남쪽으로 용인시, 남동쪽으로 양지면(陽智面), 동쪽으로 광주군(廣州郡) 도척면(都尺面)과 접한다. 면은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경안천(慶安川)에 의해 동서로 이분된다. 기반암(基盤岩)은 주로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과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동쪽과 서쪽 면계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험하나 중앙부와 남부는 넓은 충적지와 낮은 구릉성(丘陵性) 산지로 되어 비교적 평탄하다.

옛날에는 용인을 포곡향(蒲谷鄕)으로 불러오다가 향을 면으로 고치게 되면서 포곡면이 되었다. 원래는 18개 동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폐합되면서 현재는 삼계리(三溪里) 금어리(金魚里) 둔전리(屯田里) 영문리(英門里) 마성리(麻城里) 전대리(前岱里) 유운리(留雲里) 신원리(新院里) 가실리(稼室里) 등의 9개 리로 개편되었다.

포곡의 지명 유래로는, 포곡을 지나는 경안천 주변에 무수히 많은 창포(菖蒲)가 자생하여 “창포의 고장”이라고 불리워지기 시작한 데서 포곡면이라 명명되었다. 창포는 다생년 화초로 그 줄기에는 9마디의 절이 있어 구절(九節)을 다한다고 하여 옛날 선비들은 충절의 식물로 일컬어 왔으며, 창포즙을 장기간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건망증이 사라지며 불로장수한다 하여 단오절을 기해 창포주와 창포떡을 빚어 노부모에게 공양하는 습속도 있어 도덕적인 충효초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살결을 곱게 하고 머리결을 부드럽게 하는 우리의 전통 로션이 바로 창포를 우린 물 창포수이다. 부녀자들은 단오절에 이 창포수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기도 했다. 창포의 은은한 향내는 이례를 넘겼다 하니 대단한 화장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창포는 관능적인 미인초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병마나 화를 쫓는 주력을 가진 화초이기도 하여 창포 말린 것을 요밀에 깔고 자면, 모기 반대 벼룩 따위의 물것이 접근하지 못할 뿐더러 진통 효과도 있어 일명 제마초(除魔草)라고도 했다.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 감고 창포뿌리로 창포잠(菖蒲簪)이라는 비녀를 만들어 꽂고 주사(朱砂)를 그린 창포를 문전에 붙였던 것도 사람이 자신에게 닥쳐올지 모를 온갖 불운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염원에서였다. 이렇듯 인간에게 유익한 창포가 잊혀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에 다시 한번 창포의 고장을 재현해 영원불멸의 포곡 고장의 역사와 유래를 되살려 후세에 길이 보존하고자 포곡면에서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요 산으로는 성산(城山)을 들 수 있다. 성산(471.5m)은 구성산·석성산·보개산으로 불리는 데, 용인시 유방동·역북동·삼가동·구성면 중리·포곡면 마성리에 접해 있는 데 육중한 산세와 자태가 용인시민 모두에게 영광스러움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산이다. 구성면에서 보면 거대한 경사면의 큰 암벽과 같고, 남쪽이나 북쪽에서 보면 뾰족한 삼각형의 산이다. 동쪽 고속도로나 시내에서 보면 성산은 남성 같은 육중한 힘을 느끼게 하지만 조금씩 가까이 가면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함을 느끼게 하

는 산이다.

문화재로는 보개산성(寶蓋山城)이 있고 마성리에 고분이 있으며, 백련암(白蓮庵) 그리고 전대리에 선사유적지와 선장사지(禪長寺址)가 있다. 신원리에는 고분·입석 등이 있고 한편 포곡면에 소재하는 호암미술관에는 많은 국보·보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포곡 면사무소는 6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공무원 수는 49명(정규직 : 29명)이다. 그리고, 면 내에는 연수 시설이 5개소나 있으며 연간 16만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한편 기업체 수도 93개 업체에 4,34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학교는 3개교에 2,750명이다. 종교시설도 25개소나 된다. 관광시설로는 용인 에버랜드가 있는데, 450만평의 면적 위에 연평균 관광객 수가 무려 1,000만명에 이른다.

지역 특성으로는 영동 고속도로 및 관광 위락단지 유치 지역이며, 계속적인 인구 유입 및 유동인구로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전지역이 토지이용규제와 국토이용 관리 지역이며,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2권역에 해당된다.

대단위 농가소득원 양돈 주산 단지로 162농가에 63,000두이며, 시설 채소 재배는 94농가에 83ha이다.

나. 모현면 지역 개관

모현면(慕賢面)은 경기도 용인시 북쪽 끝에 위치하는 곳으로, 면적이 51.38km² 중에 도시계획 지역이 4.7km²이고 준도시지역이 6.962km²이다. 농림지역은 21.34km², 준농림지역이 18.378km²로 농업이 주생업이다. '96년말 기준 인구 수는 15,664명으로 남자가 8,086명이고 여자가 7,578명으로 남자의 수가 많은 곳이다. 작년에 비해 10.5%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구 수는 5,174가구인데 농가 수가 804이고 비농가 수가 4,370이며 다세대 가구 수는 1,380세대로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비농가 수가 농가 수에 비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모현면은 본래 쇠포면이라 하였다가 고려말 충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묘소를 능원리 문수산에 모신 후 충현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모현면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6개 동리로 관할하여 오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초부리(草茱里) 갈담리(葛潭里) 왕산리(旺山里) 일산리(日山里) 매산리(梅山里) 동림리(東林里) 능원리(陵院里) 오산리(吳山里) 등의 8개 리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현면은 옛부터 어질고 사모하는 현인이 많다고 하여 칭하여 졌으며 안개가 많은 산지대로,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2~3°C 낮아 시설채소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경기도 기념물 1호인 고려말 충신 포은 정몽주 묘소와 유형문화재 9호인 충렬서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고려말 남한산성에서 몽고군과 끝까지 항전하다 장엄하게 숨을 거둔 삼학사의 한 분인 오달재 선생의 위패가 모셔진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이다.

기반암은 대부분 화강암질 편마암이며 중앙부에 위치한 산봉에 의해 동부와 서부의 두 지역으로 크게 나뉜다. 동부는 충적지와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으나 서부는 대부분 험한 산악지를 이룬다. 주요산은 노고봉(老姑峰, 573.6m)·정광산(正光山)·구만이산·법화산(法華山)·문수산(文秀山)·숫돌봉·달기산 등이 있다.

노고봉은 용인의 산 중 제3봉이라 할 수 있다. 용인 시내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광주쪽으로 12km 정도 가면 동북쪽에서 넉넉한 품으로 용인 뜰을 감싸안은 듯한 산을 만난다. 노고봉을 오르려면 왕산리 외국어대학 정문 앞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문에서 남동으로 경운기나 지프가 다닐 수 있는 길로 200m쯤 가면 약수터를 만난다. 약수를 찾는 사람들 틈에서 단맛이 난다는 약수를 마시고, 400~500m쯤 가서 들판이 끝나고 초록빛 소나무 숲으로 오르는 산이다.

문화재로는 모현지석묘(지방기념물 22호), 남구만사우(南九萬祠宇), 이일묘(李鎰墓), 충렬서원(忠烈書院 지방유형문화재 9호), 정몽주선생묘(지방기념물 1호), 정몽주 신도비·향원(享院), 이석형(李石亨) 묘·신도

비, 이시직(李時稷) 묘, 정한영(鄭漢永) 효자비, 오달제(吳達濟) 묘·신도비 등이 있다.

모현면의 지석묘는 북방식 지석묘 2기가 있다. 원래는 ㄷ자형의 석실을 이루고 있었는데 단변석(短邊石) 1매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각각 3개의 판석(板石)이 대형의 개석(蓋石)을 받치고 있다. 개석의 가로는 3.66m, 세로 5.25m, 두께가 75cm이며 지석의 길이는 1.64m, 너비 1.34m이다.

충렬서원은 포은 정몽주의 위패를 모신 서원으로 1576년에 건립했다 한다. 경내에는 정면 3칸, 측면 3칸, 맞배지붕으로 된 대성전(大成殿)과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八作) 지붕의 강당 및 내·외 소슬 3문이 있으며,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다. 이 서원에는 정몽주의 영정 외에 손자보(保) 및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이시직(李時稷)의 신위가 있고, 정몽주의 유간집(遺簡集), 단심가(丹心歌), 편액류 등이 보존되어 있다.

정몽주 선생묘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포은이 순절한 후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운구할 때 상여가 용인군 수지면 경계에 이르자 앞에 세웠던 명정이 바람에 날아가 지금의 묘 위치에 떨어지므로 여기에 장례를 지냈다 한다. 묘역은 약 990㎡(300평)로 담이 있고, 묘 주위에 호석(護石)과 난간을 둘렀으며 묘 앞에는 상석·장명등·향로석·묘비가 있고 양쪽에 망주석·문인석(文人石)과 양석(羊石)이 배치되어 있다.

모현 면사무소는 대지 1,702㎡에 건축면적이 913㎡(사무실 264㎡)로, 향후의 추진계획을 보면 모현 하수처리 현황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역 상수도 급수 계획과 모현 국토 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모현 도시 계획 도로 개설, 건축 허가 관련 사항, 국·공유지 활용 계획, 먼거리 부락 민원서류 발급의 효율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5개소의 학교와, 62개의 기업체 그리고 1개소의 위락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지역의 요충지이다.

2. 북부지역 조사 개관

가. 조사 지역의 선정 배경

용인 지역의 구비문학 조사는 조희웅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 용인문화원에서 간행한 이인영(李仁寧)의 『내고장 옛 이야기』, 용인군에서 기존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간행한 『용인군지』 「구비문학」 편이 있다. 이 중에 집중적이고 본격적인 구비문학 조사 방법론에 따라 보고하였던 『한국구비문학대계』 용인군편(1~9)에는 포곡면의 설화 7편에 민요 2편, 모현면의 민요 6편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번 조사는 용인시의 동부지역에 이어 북부지역인 포곡면과 모현면의 16개 리를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북부지역 구비전승의 조사자료의 간행은 이에 앞서 남부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조사한 적이 있지만, 몇 개 마을의 조사가 미진한 관계로 먼저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부지역에 조사에서 범한 종합적인 조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처음부터 구비문학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에도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녹취하여야 할 많은 조사 보조원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교양강좌로 설강된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를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에게 현장조사 방법론과 현장에서 조사 요령을 수시로 주입시켰다. 그리고 집에서 되도록 많은 전래 동화나 민담을 읽게 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뒤에 용인시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각각 법정 마을에 3~4명을 한 조로 편성하여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마을 조사 담당자들은 선정해 준 마을을 임의대로 모든 행정 마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주어진 5만분의 1 지도상에 나타난 큰 자연마을(행정마을) 1~2개를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유능한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의 주소와 연락 방법

을 확인하여 뒤에 추가 조사에 활용하게 하였다.

이들 조사보조원의 활용은 교양강좌 과목으로 설정된 것이고, 하루 동안의 조사이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만족할만한 것이었다. 즉 이번 조사한 성과는 대학 국문학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술조사보다 풍부하고 훌륭한 것이었으며, 그 성과가 이번의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나. 조사 일시와 개관

이번에 현장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동부지역에 비하여 절반 정도로 줄어든 인원이다.

한국민속학 수강신청자들에 의한 이번 조사는, 이들 조사보조원들에게 1996년 6월 1일 오전 7시 29분 대전발 서울행 기차를 타고 오전 9시까지 수원역에 집합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원역 앞에 현장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하였던 버스를 타고 9시 30분경에 조사지역으로 출발하였다. 버스 속에서 간단하게 조사요령과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선정해 준 지역에서 가까운 지점마다 버스를 내려 주었다. 그리고 조별로 이동하여, 오후 5시까지 현지에서 조사를 마치고 용인터미널로 되돌아 오게 하였다. 이들은 포곡면, 모현면 전 지역과 구성면, 양지면의 일부를 조사하였다.

우선 포곡면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어리를 맡은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는 금어리 윗마을인 3리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아랫쪽 마을인 1리, 그리고 둔전리까지 조사하였다. 금어3리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조사를 못하고, 금어2리에서 이야기를 잘 한다는 천성역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설화 2편을 듣고, 유원연할머니를 길가에서 만나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마을의 가게 앞에서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동선이장에게 설화 1편과 마을 당제를 부활시킨 내용을, 김수산씨에게 산삼을 캔 내력과 설화 3편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온 김용철씨에게 설화 4편을 채록하였다. 그런데 둔전리

까지 내려온 조사자들은 조사량이 부족한 것 같아, 정자나무 밑에서 술을 드신 안정호할아버지에게 설화 2편, 그리고 그 분을 데리러 나온 아내 이정희할머니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논으로 나가는 이종우할아버지에게 지명유래 설화 2편을 채록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황순악할머니를 만나 설화 7편을 채록하였다.

둔전리를 조사한 유영, 조은미, 김민영은 도착하여 마을 북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의 지하에 마련된 재원주택 노인정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여러 할아버지로부터 지명 전설 등 설화 3편과, 성근찬할아버지로부터 민요 백발가 1편을 채록하는데 그쳤다. 노인정에서 소개를 받은 마을 남쪽에 있는 둔전리 노인정에서 유순봉, 이봉출 두 할아버지로부터 서사성이 긴 민담형 설화 7편을 채록하였다.

삼계리를 맡은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은 삼계리에 내려 노인정을 찾아갔으나 운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가게 주인의 소개로 이야기를 잘 한다는 류남례할머니를 댁으로 찾아갔으나 못 만나고, 가게에서 만나 거기에 있는 평상에서 설화 10편을 채록하였다. 가게 주인의 안내로 채용묵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설화 1편을 채록하였을 때, 밖에서 들어온 부인의 안내로 6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최일순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집 주인에게 4편의 설화를 채록하였다. 다시 가게로 나왔을 때 평상에 앉아서 쉬고 있는 최영묵할아버지와 구은모할머니에게 6편의 설화를 채록하게 되었다. 조사자들은 마을의 큰 느티나무 밑에 아저씨들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이장님과 우체국장에게 5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집을 찾아가 최일순과 안중숙씨에게 각각 2편씩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영문리를 조사한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은 둔전리에서 내려, 영문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물어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에 도착하였다. 조사자들은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 분을 소개를 받고, 백경희할머니 댁으로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 주어 설화 5편을 채록하였다. 집을 나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노인정에 찾아가 보니 5~6명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조만행할아버지한테만 설화 7편을 채록하고 말았다. 다시 가게로 나온 조사자들은 주인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였을 때, 백경희 할머니가 나와 이야기판을 형성하면서 5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친 뒤에 마을의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정규완할아버지를, 수술을 하여 쉬고 있는 덕으로 방문을 하여 설화 3편을 채록하고서 조사를 마쳤다.

마성리를 조사한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도 둔전리에서 내린 뒤에 마성리를 물어 물어 찾아갔다. 50여 가구 남짓한 마을은 조용한 분지형 농촌이었다. 조사자들이 마성1리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은 집을 찾아가니 아무도 안 계셨다. 조사자들은 마을의 이집저집을 기웃거리다가 노인 부부가 계신 이영학씨 댁을 방문하여 부부로부터 설화 6편을 채록하고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은복씨댁에 들어가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성1리에서 마성2리로 넘어가서 조사를 하였다. 혼자 계신 정화순 할머니에게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1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계신 박대석할아버지에게 설화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마성리 조사를 마쳤다.

전대리를 맡은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은 둔전리에서 내려 트럭을 얻어 타고 전대리 1구 노인정에 도착하였다. 노인정에는 처음에 세 분이 노인이 계셨는데, 이야기판을 주도적으로 형성한 정일재할아버지에게 설화 9편을 채록하였고, 좀 뒤에 노인정에 오신 김창환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2편의 설화를 구술해 주었다. 그리고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사덕씨는 전화를 받고 오후 2시쯤에 노인정에 와서 설화 5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노인정에서 채록을 마치고 이국영할아버지의 소개로 부동산을 경영하는 정동일할아버지한테 가서 실화적인 이야기 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전대리의 조사를 마쳤다.

유운리의 조사는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이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김성환, 김미영이 가실리라는 마을이 없어진 관계로 합류하게 되었다. 김

성환 김미영은 가실리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묻다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난감하였다. 그래 인근 유운리를 조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유운1리를 찾아가서 경로회장을 맡고 있는 금병국할아버지 댁을 찾아가서 설화 11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한편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은 둔전리에서 버스를 타고 전대리까지 왔다가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유운2리에 도착하였다. 조사자들은 7~8명의 할머니들이 마을 정자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여 쉬고 있는 곳에서 이야기판을 형성하였다. 이때 주도적 역할을 한 이병순할머니를 비롯하여 한순봉, 이춘옥,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 등에게서 설화 20개와 민요 6편을 채록하였다.

신원리를 조사한 신영훈, 이미영, 구정모는 고생을 하며 신원1리에 도착하였다. 마을에 도착한 조사자들은 가게 앞에서 쉬고 있는 이문규씨를 만나 조사하였으나 경계심이 많아 설화 1편을 채록하는데 그쳤다. 조사자들은 신원1리에서의 조사를 포기하고, 신원2리로 자리를 옮겼다. 신원2리에서는 이야기를 잘 한다는 이화영씨댁을 찾아가는 도중에 집안에서 혼자 쉬고 있는 이재근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들어가 이야기를 부탁하자, 반겨주며 이야기를 구술하고 노래를 불러주어, 설화 6편과 민요 2편을 채록하고서는 조사를 마쳤다.

한편 모현면 조사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초부리를 조사한 권대한 이주영, 류태용, 류은숙은 초부3리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잘 한다는 김봉용할머니를 소개받았다. 댁으로 찾아가서 소녀과부의 후회라는 실화적 내용의 삼화 2편을 제외하고 설화 7편을 수록하였다. 가게 앞에서 만난 조임술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채록할 때,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봉용할머니에게 설화 6편과 수수께끼 3개를 더 채록하였고, 조임술할머니에게도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초부3리에서 조사 마친 조사자들은 초부1리로 자리를 옮겨 권순례할머니 댁에서 채록하고 있을 때 정문교할아버지가 물건을 빌리러 왔다가 이야기판을 형성하여 권할머니 3

편, 정문교할아버지 5편의 설화를 수록하였다. 이야기를 잘 해 준다는 정봉해할아버지를 택으로 찾아가서 지명 유래와 내용이 긴 설화 등 7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초부리의 조사를 마쳤다.

갈담리를 조사한 김현정, 장순옥, 신선화는 버스를 내려 노인정을 찾았다. 노인정에 있던 이병호할아버지는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해가 되지 않는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설화 6편과 민요 1편을 해 주어 수록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나와 이야기를 잘 한다는 강은실할머니댁을 찾아가서 4편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조사를 끝낼 무렵에, 이 마을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놀러온 김영자씨에게서 설화 2편을 채록하고서 조사를 마쳤다.

왕산리 조사는 마을이 큰 관계로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과 인접 일산리와 함께 조사할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이 참여하였다. 우선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은 버스에서 내려 면사무소에서 노인정을 소개받고 찾아갔으나 몇 명의 할아버지들 중에 정석영할아버지께서 조사자들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지만 다른 분들의 협조가 없어 설화 3편만을 채록하였다. 노인정에서 소개받은 윤병찬할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겨우 만나 설화 6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쳐야 하였다. 한편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은 왕산리에 내려 왕산4리를 찾아갔다. 도착하였을 때 가게 앞에 3~4명의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하고 있어 맹복순할머니에게 설화 1편, 박길한아저씨에게 설화 4편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소하다가 왕산리에서의 채록하기를 마치고 일산1리로 가서 도로변 큰길가에서 술을 약간 마신 박윤섭할아버지를 만나 설화 4편을 수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일산리를 조사한 이경현, 김선하, 이영아, 김운영 조는 왕산리에서 버스를 내려 걸어서 마을에 도착하였다. 조사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박봉식할아버지 댁에 들러 민속적인 설화 1편과 약간의 민속에 관한 것을 채록하였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퇴임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용인

유도희 회장인 이기창할아버지를 댁으로 찾아가서 효열에 관한 일반론과 예화로 열녀 이야기와 조상에 관한 것 등 6편을 채록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매산리를 조사한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은 왕산리에서 내려 자가용을 얻어 타고 일산리를 거쳐 매산리에 도착하였다. 마을 돌아다니다가 한 할머니가 집안에 계셔 이야기를 부탁하자 처음엔 거절 당하였다. 조사자들은 집안까지 쫓아가서 청하자 5편의 이야기를 구술하여 채록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은 제보자들을 찾아 마을을 헤매고 다녔지만 구하지 못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주차장에 나왔을 때, 버스를 기다리는 정광시할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설화 2편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동림리를 조사한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은 생각보다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여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아보고서 노인정을 찾아갔다. 노인정에 5명의 노인이 계셨는데, 이돈할아버지만 자신이 일제 시대에 고생한 일화들과 더불어 설화 3편과 민요 2편 구술하여 주어 수록하게 되었다. 노인정을 나온 조사자들은 이돈할아버지가 소개해준 분을 찾아 가려다가 가게 앞에서 배진선할아버지를 만나 3편의 설화를 채록하게 되었다. 조사를 마치고 소개받은 할아버지를 찾아갈려고 할 때, 배준상할아버지가 가게 앞에 앉아 있어 3편의 설화를 더 채록한 뒤에 조사를 마쳤다.

능원리를 조사한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는 능원1리에 도착, 이장님의 소개를 받고 찾아가던 곳이 정연설할아버지 댁이었다. 그곳에서 설화 2편을 채록한 뒤, 초등학교에 김선호 교감선생님에게 설화 2편을 채록하였다.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갔으나 공사 중이어서 아무도 없었다. 경로당 뒷편에 7~8명의 할머니들이 화투를 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예산이 고향인 김은식할머니가 구술한 9편의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조사자들은 조사지역을 옮겨 능원2리에 있는 노인정을 찾아가니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부탁하자 김정분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김언년할머니가 받는 등으로 설화 7편을 수록하고서 능원리의

조사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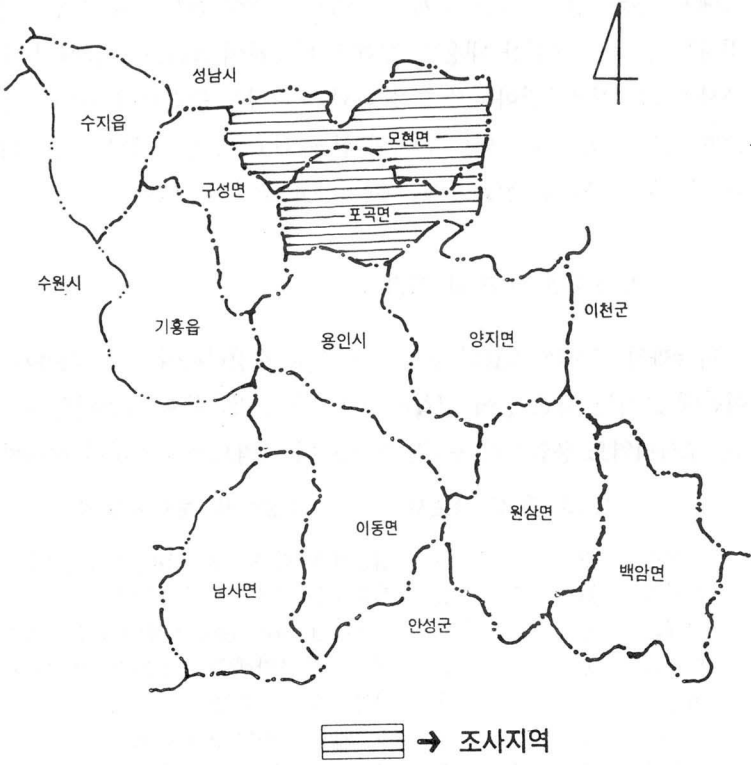
오산리를 조사한 백순일, 안승용, 최용은 마을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김용준할아버지를 소개받고 댁으로 찾아갔다. 천주교 신자인 할아버지는 실제로 체험한 내용의 설화를 비롯하여 4편을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김용준할아버지 댁을 나와 노인정을 들렀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때 마을의 정자나무 밑에 손자와 함께 쉬고 있는 신옥자 아주머니를 만나 무당굿과 관련된 설화 1개를 채록하고 조사를 마쳤다.

다. 조사 자료의 리별 개관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의 총수를 리별로 재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 중에 설화와 민요 등 구비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고, 조사지역도 용인시의 포곡면과 모현면 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설 화 민 요		제보자		주요설화제보자(자료수)	
금어리	12		5	김용철(4)	김수산(3) 유원연(2) 천성억(2)
둔전리	23	1	9	황순악(7)	이봉출(4) 유순봉(3)
삼계리	30		8	류남례(10)	최일순(6) 최영목(4) 안종석(4)
영문리	20		5	백경희(7)	조만행(7) 정규완(3) 이명자(2)
마성리	10		5	이영학(5)	이은복(2)
전대리	17		4	정일재(9)	정사덕(5) 김창화(2)
유운리	31	6	5	이병순(14)	금병국(11) 한봉순(4) 민요(6)
신원리	7	2	2	이재근(6, 민요2)	
초부리	30		5	김봉용(13)	정봉해(7) 정문교(5) 권순례(3)
갈담리	12		3	이병호(6)	강은실(4) 김영자(2)
왕산리	14		4	윤병찬(6)	박길한(4) 정석영(3)
일산리	11		3	이기창(7)	박운섭(4)
매산리	7		2	이정희(5)	정광시(2)
동림리	9	2	3	이돈(3, 민요2)	배전선(3) 배상준(3)
능원리	20		5	김은식(9)	김정분(4) 김언년(3)
오산리	5		2	김용준(4)	
총 계	260	11	70		

조사지역을 지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I. 포곡면

1. 글어리
2. 둔전리
3. 살계리
4. 영훈리
5. 마성리
6. 전대리
7. 유운리
8. 신원리

여

백

1. 금어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금어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어매리와 금천리가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은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계곡을 따라 중간중간에 집들이 모여 있다. 어매실은 매화나무 밑에 고기가 노는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금천은 쇠내강이 흘러 쇠내실이라 부르게 되었다거나, 억새풀이 많아서 새내라고 한 것이 음이 변하여 쇠내가 되었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라고도 한다. 이 쇠내실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웃골짜구니, 동점, 또는 통점골짜구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금어리는 현재 1, 2, 3리가 있는데, 옛 날말로 선혜실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선혜실은 바위 밑에 큰 굴이 있는데, 호랑이 굴이라고도 한다.

마을 동쪽인 광주군, 이천군, 용인군 경계에 명산인 태화산이 있어 산으로 둘러 쌓여 있다. 그곳에 말 대가리가 무쇠로 만들어서 천연적 바위 위에 있었다. 옛날에 누가 이 말 대가리를 언덕 밑으로 떨어뜨려 말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는데, 뒤에 고물장수가 집어 갔다고 한다. 아마 이 마을은 말을 숭상하는 동제를 지냈던 곳이라 여겨진다.

2) 제보자

(1) 천성역(72, 남)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경기도 용인에서만 72년을 살았는데도,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직도 농사일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힘도 꽤 쓰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다며 이야기 하기를 꺼려하였지만, 담배 한 대를 권하니깐 곧바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형이 한 분 계신 데,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2.

(2) 윤원연(80, 여)

박중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님으로 조사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글을 못 배워 아는 것이 없다며 다른 분을 알려 주었는데, 여러가지 이야기를 유도하는 중에 결국에 짧은 이야기 얻게 되었다. 역시 담배를 한 대 권했으나, 담배를 안 피우신다고 하셨다. 머리가 흰 아들과 함께 조그마한 집에서 사시는 제보자는 점심 때가 되었으니 식사를 하고 가라고 말씀까지 하는 인정이 많은 분이였다.

제공자료 : 설화 3~4.

(3) 김동선(57, 남)

박중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마을 조그마한 가게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술을 조금 마신 이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장님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뿐, 전설이나 설화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 아저씨께서는 자신의 지식 자랑, 마을에서의 자신의 위치 등, 자신을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하였다. 조사자들은 나온 목적을 재차 설명하여 화제를 바꾸자, 다른 제보자가 있는 곳을 안다면 그 분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5.

(4) 김수산(50, 남)

박중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 중에서는 가장 젊은 분이다. 아저씨는 말씀을 하실 듯 하면서도 선뜻 꺼내질 못하였다. 조사자들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자 아저씨는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해 주셨다. 이장님이 말씀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제보자는 이야기 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산삼을 캐던 일화와 관련된 것 등을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6~8.

(5) 김용철(55, 남)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아저씨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조사자들이 이장님과 김수산씨에게 이야기를 조사하고 있을 때 와서 조사나온 목적을 묻고는 수고한다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청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제보자는 그 곳에 관한 설화를 많이 알고 계셨다. 말씀하는 모양새가 정말이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조사자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내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9~12.

3) 설화

① 말아가리의 유래

천성역(72,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묻자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조사자가 찾아갔을 때 방 안에서 쉬고 있었는데,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곳의 지명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저 광주하고 저 뭐 이천하고 용인하고 경계인 저 대(태)화산이란게 명산이구, 산은. 또 여기 대화산이라고 있대구, 여기. 여기 지금 안개가 끼서 안 보이는데, 여기 대(태)화산이라고.

그 말아가리가 있는데, 거기 말아가리. 옛날에 무쇠로다 맨들어서 그 말안장 같이 천연적으로 돌맹이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옛날에 누가 떠데 밀어서 언덕 밑창으로 떠데 밀어서 그 말 다리가 부러졌어.

그런 것을 고물, 그때 6·25 난리가 고물보다 여기서 주웠어, 고물 장수가 가져갔다고. 그 그런 것이 있고.

방아골은 대가리가 방아 대가리처럼 생겼다고. 그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시가 말이야. 그 대가리가 산 내용이 내려와서 이렇게 몽치가 방아 대가리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방아골여. 거기가.

[조사자 : 여기 오다가 보니까 큰골이 있던데, 큰골] 큰골은 여기 여기 이쪽 저 금어1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다 큰골이라 하지. 그 산 이름이.[조사자 : 산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아녀, 골도 깊어. 거기가 그래도 거기서. (중간부분 생략)

② 도깨비에 홀린 사람

천성역(72,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옛날에는 호랑이가 나타나 밤에 마실을 못 다녔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도깨비에 관련된 것이 없느냐’고 묻자 생각이 나셨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 그전이, 옛날 판국에는 마, 저녁 마실을 못 댕겼거든. [조사자 : 도깨비 나와, 아니 호랑이 나와서?] 도깨비도 있었지. 왜 없냐.(웃음) [조사자 : 도깨비 어디 나왔고 그런 얘기도?] 몰리지.

인제 도깨비가 어디서 나오는건지. 도깨비 그것 저런 데도 그야말로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말이야. 밤에 인자 밤중에 모두 가니까 별안간

모두 불 환하게 켜져가지고, 그냥 길을 딱 막고 이렇게 해서. [조사자 : 도깨비 누구 흘렸다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도깨비에 흘리면 괜히 참 아무 것도 읊는데, 멀건히 흰하게 길이, 길이 뚫리잖아. 말하자면 그래 가잖나. 이렇게 낮길마냥 가잖여. 멀건히 아무 것도 읊는 데서 그냥 쫓아가는 거야, 모두. 흰하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막 그게 도깨비 흘렸다는 거야.

③ 귀신 다리

유원연(80, 여)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엄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천성역 할아버지 댁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제보자를 찾고 있을 때 만나게 되었다. 제보자는 이곳의 서낭당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조사자들이 '전해 오는 전설이 없느냐'고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시집은 새색시가 밤에, 밤에 나가서 나가가지고, 싸우고 나서 거기가 죽었대. 저기가 물에 가 빠져서. 그 물이 엄청 깊었어. 나와서도 엄청 깊었어.

저기 가면 물이 빙그르 돌, 시퍼런데 애들은 거기 못 가게 허거든, 죽는다고. 그런데 요즘에 장마가 많이 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미꾸져서 그렇게 된 거여.

그래서 빠져 죽은 거여. 그런데 시체는 건져다가 파묻었데. [조사자 : 그럼 거기서 빠져 죽어서 귀신다리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귀신다리라고 그래는 거여. [조사자 : 밤마다 귀신이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옛날이는,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개명이 되서 집도 많고 저기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거기서 귀신이 울었어, 울기는.

그랬는데 밤에 어디 가다 오며는 거기 오기가 서먹서먹 해. [청중 : 서먹서먹 해요. 지금도 그렇데요.] 왜, 왜 그러느냐면 그 물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 물이 하도 많어가지고. 그랬었다고 나 와서도 그랬었어. 그래서 구신다리라고들 그러지.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옛날에는 거기 체사 지내구 그래네서 아무 저기가 읍었는데, 요즘에는 요 몇 해 전부터 자꾸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별안간 쓰러져서 죽구 그러잖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숲을 지금 올부터 또 다시 위허는데 몰러. 괜찮을런지.

④ 귀신 다리에 호랑이를 만난 박수

유원연(80, 여)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마자, 이야기 중에 이 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박수무당이 된 내력담이다.

그러고 저기 저기가, 그녀가 00매부가 몇 살인가. 오십 몇 살인데. 그게 그녀가. 그녀가 여기와서 장가를 들어가는데, 장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 처가집이 여기니깐 밤이면 그전에는 웬 놈의 차가 있어.

자전거나 타고 이렇게 밤이면 처가집에 왔다 가고 그래다가, 거기서 범(호랑이)를 만났어. 범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박수가 되잖아. [청중 : 귀신, 귀신다리에서.] 거기에서 그 다리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뤼 산소자리 보러 당기고, 박수여. 하이튼 박수가 됐어. 지금 그런게 57(살)인가 그렇게 됐어.

[조사자 : 그래 박수가 무엇이예요?] 박수가 저 무당이지. [청중 : 무당, 남자 무당이지.] 저기 저 경 워고, 경 워고 저런디 산소 보러 땡기고, 산소자리 보러 땡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지금 땡기다고 여기.

그래서 그 저기 범이 앉아서 그러드래. 다리 앉아서,

“너는 이 내가 허는대로 가서 해가지고 박수 노릇을 허면은, 박수

당기면서 박수를 허면은 돈을 많이 번다.”

고 그러드래. 그래가지고 범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동기로 그러고는 물러나드라. 그래서 그냥 들이 가서 수정을 해서 돌아댕겨서 그런데, 저 포산소질(?) 허는데 거기 뒤에 산에 물이 있거든. 우물이 있는데 날마다 거기 가서 밤이면 목욕을 하고 그러더니 잘 불(벌)어 먹잖아, 지금. [청중 : 잘 벌어 먹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잘 불어 먹어. 글력도 좋고.

5 금어리의 유래

김동선(57,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유원연 할머니택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가게 앞에 술을 마시고 있는 4~5명의 아저씨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장이 제보자로 선뜻 나서 이 마을의 유래와 서낭당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부활시킨 서낭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여기가 저 쇠 금자 고기 어자 썬단 말이여. 그래서 금어리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 듣기에 그머리 그러며는 옛날 그 뭐, 눈에 거머리, 붙어서 그머리인가 보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했을 꺼야.

그게 아니고 금어리는 쇠 금, 고기 어자 써가지고 금어리야. 마을리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금붕어가 놀던 골짜구니라고 해서 금어리라는 거여. 그러니까 고만큼 이 동네는 물이 맑고 그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사람은 그렇게, 동네의 모든 저기가, 금붕어처럼 노는 곳이라서 해서 금어리라 했데.

내가 알기도, 내도 이 고장에 여기 살지만, 한 20년쯤 살았지만, 그 금어리가 뭐냐 허는 것은 나도 의문이 돼서 많이 물었어. 좀 아는 사람한테, 동네여.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얘기가 금어리는 고기 어자 쓰고 쇠

금자 쓰고 금붕어가 놀던 곳이라 그걸을 표현해가지고 금어리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그머리는 눈에 가서 뭐이나 사람 붙으면 피 빨아먹는게 거머리인가 이진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인자, 그래서 인자 금어리라고 했고,

6 산삼을 캔 꿈

김수산(50,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웅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이장은 마을의 서낭당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는 제보자를 가르키며 산삼을 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주었다. 그래서 제보자에게 산삼을 캔 과정을 듣고, 캐기 전에 어떤 꿈을 꾸었느냐고 하여 들은 것이다.

(산삼을 캔 과정 소개) [조사자 : 전말 밤에 꿈이나 뭐 그런 것 안 꾸셨어요?] 돼지꿈을 꿴지. 그건. [조사자 : 전날이었습니까?] 응. 산돼지 꿈. [조사자 : 그 꿈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자구 있을 땐데, 꿈 꾸는데 뭘 저 산다.

인제 산에 갔는데, 이 앞산을 간겨여 저 산, 저 산. 꿈에 저 산에 가지고 인제 산에 돌아다는데, 돼지가 큰놈의 돼지가 있더라구. 산에 돌아댕겨. 인자 산돼지이지, 그러니까. 산돼지가 크게 돌아댕기길래, 아이 이놈이 인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잡아먹을라고 험하게 아니여, 도망도 안 가고 쫓아댕기더라고.

쫓아댕겨서 싸리가지들 하나 인자 꺾어서, 꿈에 푹푹 몰렸지, 인제 이렇게. 몰고서 인제 집으로 오는거지, 집, 집이, 우리 집이 대문이 읍잖어, 지금 거기 보다싶이. 그때 거기 들어와가지고 있는 들어와가지고 인제 켜어.

딱 켜는디, 그 이튿날 일을 잤고, 일은 간겨지. 그래 일 가가지고 그것 캐가지 넘어와가지고 그것 돈 받은거지.

⑦ 피난지가 있는 용인의 12실

김수산(50,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이곳과 관련된 전설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용인에 그 12실이 있데. 12실. 12실이 있는데, 실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아. 이 동만 이 포곡면만 해더라도 여기는 엄혜실, 저기쪽은 선혜실, 저 자연농원 있는 데는 가실(조사자의 부주의로 녹음 중단.)

그 실자 들어가는 동네가 많아. 그러니까 이 근처의 실자가 여기는 엄혜실, 선혜실, 저 자연농원 그 레벨랜드, [조사자 : 에버랜드!] 애버랜드 거가는 가실, 여작으로는 유실, 저기는 바재실. 여기 용인이 12실이 있는데, 요 근처가 실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저기 뭐여, 저 12실 안에는 난리 나면 피난 고지 하나는 틀림없이 있다는 거여. 그런 전설을 내가 알아요.

⑧ 귀신 웅덩이

김수산(50, 남) / 금어리T 1앞

[금어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먼저 들었던 귀신 다리가 있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조사자가 묻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 위에 저기 구시니 웅덩이고 있는데, 숲이 있는데, 구신 웅덩이인데. 옛날에 고기 저 여기 고을 살던 분에, 잉 큰 부자가 있었는데, 고을 살던 분에 며느리인가 딸인가 하야간 여자거든.

거기서 어떻게 빠져 죽었어, 옛날에. 그래서 아주 거기 귀신 웅덩이

라고 그러는데, 구신 웅덩이 있는데, 여기 위에 그 숲 있는데 있어요.

9 원뚝병의 유래

김용철(55, 남) / 금어리T 1뒤

[금어2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조사자가 조사하고 있는 동안 가게 앞에 왔다가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나누어 주면서 이야기 판에 참가하였다. 제보자의 고향이 충남 청양이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도 어렸을 고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

충청도에 칠갑산이라 다가 나오죠. 칠갑산. 칠갑산하고 정산면(조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중단함) 그, 정산면허고 칠갑산허고 거기 나오는데, 칠갑산 너머, 너머가 아주 큰 곶이 깊어요. 이쪽 짙어고 그런데. 원래 우리 곶이 고 사이가 우리 곶인데, 옛날에 정산면 원이 있었다구. 원. 인자 학생들이게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옛날에 나도 들은 얘기니까.

원이 있는데, 원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약이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안 낫은거야. 이 원이. 안 낫으니까 한 번,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느냐면,

“열네 살 먹은 아가씨를 다려 먹으면 하야 쾌히 낫는다.”

그말이여. 그러니까 이 원이 욕심에서 아 저기를 데리고, 그 아가씨를 말이지 하나 그, 아 그때 권력이면 뭐 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데리고서는 우리 그 정산서 우리 그 동네 넘어가면은 사태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굴을 못가서 그 사태울이라 다가 지끔 천장리 호수라고 지금 막아서 호수가 돼서 그렇지, 그전이는 큰 냇물이었었다구. 우리 어려서 인저 목욕허러 당기구 막 그랬었는데. 그냥 퍼런 아이구 이것 퍼런 물이 막 내려오고 그랬다고요.

아 그런데 데리고서는 여름에 그 칠갑산, 칠갑산 너머로 인자 그 간

거여. 말을 타고 인자 높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뭐 솔단지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인자 우리도 얘기 듣기는, 그 넘어 칠갑산 넘어가면, 후미진 고랑이 있는데, 거기 거기가 약 달여 먹은 고랑이라고, 우리 어려서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면 원이 아가씨, 열네 살 먹은 아가씨를 달여 먹어서, 약 달여 먹은 꼴이라고 그러는데, 그 솔 걸었다는 그 터리는 것도 우리는 그 가서 구경도 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달여 먹고, 칠갑산을 넘어서 그 행열이 인자 오다가 그 사태울이라는 큰 냇가가, 옛날에 인자 다리를 쪼그만게 말하자면 나무로다가 이렇게 났었는데, 거기 오기 직전에 천둥번개가 막, 늦다웁이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번개 해가지고, 쳐가지고서는 그냥 막 쏘내기가 내려서 그 거기 거 막 다리를 건너는데, 큰 물이 치밀어가지고 그 다리가 끊어져서 원이 떠나려간다 이말이여.

떠내려 갔는데, 지금 아무가 봐도, 지금 호수에 묻혀서 그렇지, 그 바위가 말발자국이, 아무가 봐도 말발자국이여, 고기는. 그 쪼그만 다리 밑이는 다리는 읊어졌지만 쪼그만 웅덩이는 말발자국이고, 쪼그만 웅덩이는 우리는 빨가벗고 먹 감었으니까.

“하이 여기 말발자국이라구. 말발자국이라구.”

그랬군. 그래 거기서 뭉쳐내려가지고 그 아래 가면 아주 바위가 큰 놈이 있는데, 이 둘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원뿔병이라고 이러거든. 원이 빠져 죽어서. 거기서 해가지구서 원뿔병이라고. 그래가지구 그 한 가운데는 짙어가지고서는 말이여,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시로만 감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밤이면 말이지 구신이, 구신이 나와가지고 저기 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0 은동곳을 무서워 한 원뚝병 귀신

김용철(55, 남) / 금어리T 1뒤

[금어2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고향인 청양 근처의 전설인 원뚝병에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에 귀신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요청하자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하느냐며 그만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주 말발자국이 아주 뚜렷하게 있고요. [조사자 : 그 말발자국은 원이?] 네. 그 원이 빠져 죽을 때, 그 다리가 떠내려가면서 그 말이 내려뛰어가지고 그랬다는 걸. 그 딛더서 그랬다는 걸 말발자국. 이주 누가 봐도 아주 사진 찍어 가구, 그 우리 어려서 딱 그랬어. 그제. 그제 그제 틀림없이 아주 말 발자국 같어. 우리가 봐도.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인자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원뚝병 거기서 인제 구신이 잘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주 얇은 디서는 목욕을 해도 그 짙은 데는 가지를 못했다고.

그런데 옛날에 노인네들이 황투(상투)를 찼다는거요. 황투, 황투. 대개 황투를 찼고서는 인제 낮이 나무해 갖고 오다가 [조사자 : 황투가 뭐예요?] 황투가 머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조사자 : 네. 상투. 상투를 황투라고 해서. 네 상투.]

그래가지고 거기서 둘이 목욕을 하는데, 한 사람은 좀 짙은 데서 가서 목욕을 하고, 하나는 조금 얇은 디서 목욕을 했는데, 얇은 디서 목욕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인자 목욕을 허다가 그 친구를 보니까, 물속에서 물귀신 손이 나와서 황투를 잡으라고 하, 하다가 도루 내려가고 도루 내려가고 그러드라는 거여. 그래가지고서는 이쪽이 있는 사람이,

“야 이놈아! 그 물귀신이 있다구. 빨리 나와라.”

막 소리를 치니까,

“뭐가 있느냐!”

고 말이여.

“야 이놈아! 빨리 나와라.”

고. 그래갖고 나와서는,

“야 이놈아! 너 인자 황투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못 잡고 못 잡고 그러드라.”

고 그런게. 그 말하자면 그 물구신이 상투를 잡으라고, 잡아서 저기 헐라고 했는데, 이 은을 저기가 무서워 한데요. 그래가지고 이 은동곳을 이 황투에다 끼얹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고 그냥 내려가고 그랬다는 거여. 그렇게 저기가 구신이 있다구, 옛날에 그랬다는 우리 어려서 들은 얘기여.

[조사자 : 그럼 원은 아까 원은 그때 벼락 맞아서, 그때 비 와가지고 거기서 떠내려 가서 죽은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읊던 웅덩이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짙은 저기가 생겼으니까 그때서부터 원뚝뚝. 원 빠져 죽어서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것이고.

[조사자 : 그럼 물귀신이 거의 원이겠네요? 거의 원 혼이라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웃음) 14살 먹은 아가씨를 그 달여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가지구, 그 욕심에. [조사자 : 그러다가 인자 자기만 죽은거죠?] 응. 자기만. 말하자면 벌 받아 죽었다는 얘기와 한가지이지.

㉫ 배짱이 작아 아산군수 한 선비

김용철(55, 남) / 금어리 1뉘

[금어리2] 박종수, 강현도,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충청도 아산 땅에 한 선비가 그 앉아서 이 아주 공부를, 한 학을 어떻게 했는지, 나이가 한 서른 먹도락 이렇게 공부를 했다 이거여. 그래 공부는 지가 생각을 해도 참 많이 배웠는데, 한 번 이 어디 나가본 적이 읊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부를 무수히 허고서도 한 번 나가본 적이 읊으니, 한 번 세상 구경 즘 한 번 나가서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 산 저 산 이렇게 구경 땡기다가 질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짚은 산고랑이 가가지고서는 헤매게 됐거든. 그래 인자를 찾지 못하고 허매고 돌아땡이다가 날이 저물었다나 말여. 그래 깜깜한 밤에 막 이 참 생전 그런데 안 땡기던 사람이 말이여. 그런데 가서 그렇게 허니까 얼마나 그 참 무섭고 저기힐 꺼여. 그런데 아 깜깜한데 한 군데서 불이 반짝반짝 허거든.

“아! 저게 인가의 집인 것 같으니까, 내가 저기 가서 하루 저녁 즘 자고 가야 되겠다.”

고. 이놈이 그냥, 생전 그런데 나가보지 않은 놈이 그냥 거기를 막 기고 막 그냥 허다시피해서 인자 거기를 찾아갔어. 가서 보니까 집이 산마루에 딱 있는데 부엌 한 칸, 방 한 칸, 닥 단칸방 집이여. 그래서 옛날이 이 선비는 찾을라면 이랬다데.

“주인장! 계십니까?”

허고 찾으니까. 하이안 백발노인,

“누구여?”

허면서 문을 여는데,

“하이, 이 밤중에, 이 산중에 누가, 어느 손님이 찾아 오니냐?”

이 말이여.

“아 살기는 아주, 충청도 암디서 사는 사람인데, 이러구 저러구 해서, 와서 질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그래 하루 저녁 쯤 쉬 어갈 수 읊느냐?”

고 허니까.

“참 단칸방인데 잘 디는 읊으나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왔으니, 그냥 손님들 보낼 수는 읊고 하야튼 들어 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할머니가 열어주는 방문을 들어갈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천하의 일색, 아주 아가씨가 말이여, 한 19살 먹은 아가씨가 그 노란 저고리에 이 분홍치마에 입구서는 그냥 머리 땡기, 이 저머리는 따서 이 궁딩이까지 땡기가 말이여 펄렁펄렁하게 내려온 그 아가씨가 손을 앞으로 재배를 하고선, 그 횃대 밑에서 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재배허다시피 아주 공손이 그 저기를 허고 있거든. 그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갈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 때문에 들어갈 수가 읊어서 머뭇머뭇 허니까,

“아이 손님! 뭘 하. 어릉 들어와.”

그래 들어가서는 참 할머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 때문에 주재주재 허고선 옷목에 가서 이렇게 섰으니까,

“하이 손님! 앉으라.”

고 말이여. 그 할머니가 그러드랴 이거여. 그래 저기를 가서, ‘앉으라’고 허니까 어찌튼지 무릎 꿇고 앉았는디. 그 할머니가 허는 말이,

“아무개야!”

“예!”

“이 손님 보니 저녁도 못 먹었것고. 그런니까 시장헐테니 가서 저녁을 차려 와라.”

그러니,

“예”

그러고서는 아가씨 참 그 옷 입은 그 맵새허며, 참 인물허며 세상 자기는 아가씨를 못 봤는디 참 이쁘거든. 참 그런 아가씨는 참 봤어. 이응. 그 마음이 설레이는 판인데, 나가가지고 참 말이여 저녁상을 차려 왔는디 말이여, 참 차려온 솜씨허며, 옛날이는 그 상차려 솜씨 선보러 가도 그런 것 잘 보았다는 거여. 참 잘 차려왔거든. 그래 저녁을 먹고서는 상을 물렸는데, 물리고서는 인저 그 아가씨가 상을 치고 딱 들

어왔는, 들왔어. 그래 할머니가 허는 말이,

“여보게, 젊은 손님!”

“예!”

“나는 오늘 저녁이 불 일이 있어 아무 마을을 지금 갔다가 내일이야 올텐데,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잘 좀 쉬시오.”

그래 어떻게 허.

“예!”

그러고서 할머니가 그냥 가더라 이겨여. 아 들이 인자 그 츠녀허고 저허고 들이란 말이지. 그 외딴 그 저기여. 아 그런데 얼마간 있으니까 그 아가씨가 아름목에다가 이불을, 딱 요를 깔아주고 이불을 펴주면서, “여기서 누우십시오.”

아이 이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것 잠이 와. 그래 두러누워는디 그냥 그 아가씨를 어떻게 쳐다보면 시선이 마주쳐서 그냥 똑바루 쳐다볼 수는 읍고, 눈으로다 하이 빽새(뵈새) 눈으로다 이렇게 쳐다보면 막 이런 저기인데. 이 아가씨도 웃목이다 이것 이불을 죽 피고서는 딱 드리 누웠다 이겨여.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

“아. 한 가지 잊은게 있습니다..”

일어나더니 그 반정그릇, 그 말하자면 그 실패 가우 뭐 이런 뭐이 두는 거저든. 충청도 말로는 반정그릇이라 그러고, 여기는 손그릇이라고 그러고 뭐. 그것도 지방마다 다 달라요, 그게. 거기서 실패를 딱 끄 내더니만, 대개 옛날 그 초가집은 다 문이 마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가 그 문고리 있잖어요. 그 뒷문고리에다 실, 실을 닥 이래서 매더니, 앞 문고리에다 딱 매면서,

“선비님!”

“예!”

“이걸 국경선으로 삼고서 주무십시오.”

그러드라 이겨여. 아 그 말 한 마디에 말이죠. 아이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침범을 허지 말어라 이 말이여. 잉. 아 그래서 인저 침범도 못허고서 그냥 뛰어서 날밤을 샀거든요. 그 침범을 해, 국경선

침범을 했어야 되는데, 침범을 못하고 날밤을 셋어요.

그리고 났는데 번이 새서나 아침을 할 때가 됐는데, 아가씨는 밥을 한다고 나가고. 혼자 참 방에 있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라고 허니까, 그 할머니, 그 백발 할머니가 오시는 거여. 오시더니,

“손님! 잘 쉬었소.”

“예! 잘 쉬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손님! 여기 와 앉어 보오.”

그래 인자 할머니가 이룻목에 앉고, 이 손님은, 이 사람은 웃목이 인자 앉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선비 배짱 보니, 예라 이놈아! 네 배짱 보니까 아산 군수백이 못 치루어 먹, 못 해 먹겠다, 이놈아!”

그러고서 무릎을 탁 치드라 이말이여. 아 그런데 뭐 집이 간 곳이 읍고 넓다란 바위 위에서 잔거여. 이놈이, 참.

“참 허무하다.”

그래가지고서는 참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배운 건 많고 결과적으로 아산 군수, 옛날에 아산 군수 치루어 먹고서 못, 판 것 못 했대요. 그 배짱이 읍어가지고. 그 국경선 침범을 했으면 말이지 그 큰 것도 해 먹을텐데, 배짱이 읍어가지고. 그 노인네가 그러드래.

“네 배짱 보니까 아산 군수백이 못해 먹겠다.”

고. 아산 군수 해 먹었다고.

12 삼백 석 나는 묘자리

김용철(55, 남) / 둔전리T 3앞

[금어2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을 때 또다른 이야기를 자주 해 주라고 청중이 응원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참 지리학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아주 지리 공부는 했디야. 그래가지고서 묘자리 하나 잡아 본 기가 읊어. 그래가지고서는 강원도 금강산이 참 명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릉지, 누릉지 굶어서 말리고 말리고 해가지고 싸서 짚어지고서는 강원도 금강산을 자리를 보러 들어간 거여.

들어가서 아무리 돌아댕겨도 자기가 배운 것 하고는 하나 자리를 못 보겠디다, 못 보겠는 거야. 그 깊은 산을 다 돌아댕기기도 못 보겠드라는 거지. 저녁 때, 하루는 한 장등을 이렇게 딱 해거름에 내려오다 보니까 한 자리를 딱 떨어졌는데, 거기다가만 삼 년 안에 삼백 석 받을 자리야. 아무리 둘러봐도 틀림없다 이말이여. 자기가 배운 학술상으로는,

그래 거기다가 흙을 딱 이렇게 굶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저기 해 놓고서는, 나무를 하나 꺾어서 딱 꽂아서 표시해 놓. 딱 둘러봐도 틀림이 없어요.

“야! 내가 여기 한 자리 인자 봤구나!”

그러고서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내려오다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깊은 산이니까, 낙엽을 인자 굶어올리고 인자 웅기작 허게 인자 파고 인자 거기서 자라고 이렇게 드러누웠는데, 딱 것 모르겠는데 그 아래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거든.

“자아, 내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담은 내 저 아래 내려가서, 저기 가서 하루 저녁 자겠다.”

그러고서는 거기를 기어서 참 내려간 거여.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화전민, 화전민 집인데, 집이 많지 않고 딱 그 깊은 산 곶이기에 한 집이야. 그런데 화전민 집이 뭐 방 한 칸, 부엌 한 칸, 아주 그냥 단칸방이지 뭐여. 올라리도 읊이 사는 집,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주인장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까, 그 젊은 한 30대 총각이 딱 문을 열고서,

“아이, 어느 손님이 깊은 밤중에 여기를 찾아 오셨습니까?”하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 구경하러 왔다가 날이 저물어 이렇게 찾아 왔노라고. 웬만하면 좀 하루 저녁 자고 갈 수 없느냐?”

고 그러니까.

“예, 그 여기를 오셨는데 못 주무시고 간다고 해서야 되겠느냐고. 좀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신데, 어머니한테 여쭙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있다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지,

“아무리 내가 아파도 이 깊은 밤에 여기 그 손님을 어찌게 보내겠느냐. 옷목에서라도 좀 주무시고 가게 허도록 해라.”

“옷목에서라도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염치를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는 아랫목 그 환자로 앉는데, 그 옷목에서 이 사람은 앉었는 거여.

“그래 깊은 밤중에 얼마나 시장하시겠냐?”

고. 이놈이 나가서 저녁을 차려, 해 왔다. 그 화전민이니까 쌀은 읍고요. 보리, 수수, 이팔 뭐 하야간 십곡 잡곡, 잡곡밥을 되는가 되게 해서 그렇게 이 잡곡밥을 해가지고는 수북하게 한 그릇을 퍼 왔는데, 아이 이전 서경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디서는 항음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밥을 거기서 그걸 먹으니까 참 배고픈 김에 꿀맛같이 먹었다 말이여. 이 사람이.

그래 저녁을 먹고서 옷목에서 참 잤어요. 자고서 이 총각이 아침을 허라 나간다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도 일어나가지고선 뒷짐을 짚고선 그 집을 앞으로 왔다갔다 허는다. 그 총각이, 옛날에는 총각도 머리를 땅, 땅다고 그러니깐, 땅가지고선, 땅다구 구러더라구. 그래 저 설거지를 허고선 그 물을 갖다버리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하이얀 그 복을 달았드라 이말이여. 땡기에다가.

‘아! 상을 모시구 있구나!’

이 사람이 생각허기를, ‘여기를 못 만났으면 그래도 하루 저녁 고생을 많이 했을텐데, 여기를 만나서 하루 저녁을 잘 잤다가니, 내일 물어봐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 아버지나 모셔주고 가자.’ 그러고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또,

“아침 먹으라.”

해서, 아침을 대접을 잘 받고나,

“보니까, 상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어디 모셨냐?”

“예!, 저 혼자라 아버지를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모시지를 못했데요.

“아 그러면 내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서 본 자리가, 거기다가 아버지를 모시자.”

“아 그런 자리가 있느냐?”

구 말이여. 옛날에 삼백 석이라면 아주 저 저기하는 자리거든. [청중 : 큰 부자지.] 아 그럼요. 그 아 이 이놈이 시신을 짊어지고, 이 지관 이 사람은 그 연장을 갖고 참 거기를, 그 높은 디를 올라가서, 시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딱 봐도 틀림없이 아주 삼백 석 받을 자리여.

그래서는 거기를 인저 딱 파가지고, 인자 하관시는 나무꾼을 이 도는 걸 봐가지고, 이 시간을 맞추어서 인저 하관을 했어요. 하고 묘를 딱 쓰고서 앞이 가 봐도 틀림 없고, 뒤이 가 봐도 틀림없고. 아주 틀림이 없거든.

“인자 자네는 삼 년 안에 삼백 석을 받아가지고, 참 인자 그리운 것 없이 잘 살테니까, 어머니 잘 모시구 잘 살으라.”

고. 그렇게 하고서 이 사람이 인제 거기서 떠났어. 떠나서 인자 강원도 금강산 일만 일천봉을 다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나올라고 보니까, 그 뒤로는 하나 자리를 못 봤어요. 나올라고 보니까 삼 년이란 세월이 흘러거든요.

“야, 내가 오늘날까지 지리, 지리학 이렇게 많이 하고 했어도 그 한 자리 해준 것 백이 없다 이말여. 그러며는 내가 배은(운)게 맞나 안 맞나, 내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찾아들어간 거여, 이 사람이. 다시 찾아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또 날이 저물어서 밤에 거기를 도착하였

는데, 역시 그렇게 돈 그렇게 아주 화전민 단칸방 그렇게 집이 하나가 그냥 있거든요. 그래 찾으니까 역시 그 총각이 그냥 나온다 이말이여.

그래 이 사람이 깜짝 놀랬어. 왜 그러냐고 지가 봐 준 걸로 헨다 그러면은 삼백 석을 받어서 도회지로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산다고 그러고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여.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고선, 애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그 산소를.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배운대로 틀림이 없는데, 삼백 석을 못 받게 해 주었으니, 지가 배운게 헛게 되었고, 그짓말뻘에 헨게 안 되잖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부 해가지고 쇠용도 읊다.”

그래가지고는,

“에이, 눈 눈을 빼고서, 내가 아주 이 일을 손을 떼겠다.”

그러구선. 나무를 꺾어가지고선 꽃으라고 그러니까, 그 봉분 위 꼭대기에서 하얀 백발 노인,

“허허허 이놈! 너, 왜 눈을 빨라고 그러느냐?”

그러거든. 아 그래 무릎을 탁 꿇고,

“나 사실 약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잡아 주었는데, 삼백 석을 삼백, 삼 년이 지나도 삼백을 못 받으니 내가 거짓말 헨 것뻘에 더 되느냐 이말이여. 그래 내 눈을 빨라고 그러합니다.”

“허허, 니가 보기는 뜨겁게 보는데, 한 가지가 안 됐다.”

이 말이여.

“그게 뭘니까?”

물으니까.

“이 자리는 삼백 석 받을 자리인데, 들오지 못 할 사람이 이 자리를 들어와서 복을 못 받는 거여.”

“그래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 아버지가 암디 암디에서 사는데, 살인을 세 번 허고 들어와서

피신해가지구 여기 와서 몸 피하구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고, 어머니도 지금 병이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짓고, 저놈도 장가도 못하고 죽을 놈여.”

그러드라는 거여. 그래서 그 어 어 게는 못, 게보고 물어 보니까 물론다 이말이여. 그러구서 그 노인네는 사라지고. 그래서 게를 달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둘을 죽은 줄 확실히 아는데, 하나는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고 그러드라는 거여. 그래가지고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데도, 그 세상에 죄를 많이 저가지고 그 복을,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거지. [칭중 : 죄짓고, 좋은 일을 해야지. 죄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지.](일동 웃음) 아무리 좋은 자리를 들어가도 복을 안 주는 걸 뭘.

2. 둔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유명 외 5인 조사 (1996. 6. 1)

둔전리는 용인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5분 정도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도시계획까지 세워진 변화한 마을이다. 마을은 원래 큰 곳이기 때문에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온 마을로, 4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둔전이란 지명은 군졸이나 서리, 관노비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이 소출로 관청이나 국가의 경비를 충당하게한 토지 제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는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역둔토가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현재 시골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금도 여러 곳에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이곳은 두 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층에 있고, 다른 하나는 큰길 남쪽에 있었다.

2) 제보자

(1) 이덕재(64, 남)

박종수, 강현모, 유명,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은 둔전리에 도착하여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하고 찾아갔다. 7~8명의 노인들이 앉아 담소하고 있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조사자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었다. 새마을 동네에서 농사를 짓다가 5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와 수퍼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 3.

(2) 김영환(71, 남)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조사자가 조사나온 목적이 전설인 것을 알고는 이곳에 전승되고 있는 할미성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술을 매우 잘 마신다고 하였으며, 이야기도 착실하게 해 주셨다. 이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오늘날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왔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2.

(3) 유순봉(80, 남)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소개를 받은 건너편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곳 노인정에도 3~4명의 노인들이 담소하고 계셨는데, 조사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조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분이 제보자이다. 제보자는 다른 마을에 태어났으나 향아리 장사를 하면서 떠돌아 다니다가 1920년경 부터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4~5, 9.

(4) 이봉출(90, 남)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유순봉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이야기판에 들어온 분이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가 한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서당을 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농사만을 짓고 살아온 분으로, 현재 아들 삼형제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화목하고 우애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만큼 착실하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6~8, 10.

(5) 안정호(80, 남)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금어리에서 조사하다가 둔전리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금어리를 조사한 분량이 너무 작아 둔전리에서 더 수집하기로 작정하고 노인분들을 찾아나섰다. 지나가는 할머니를 붙잡고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 모른다며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르켜 주어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38년전 충남 공주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한다. 대전에서 왔다는 조사자에게 자식이 대전에 산다면 이야기를 해주셨다. 구술한 이야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됐고, 청취하기도 힘들었다. 청취하는 도중에 할아버지 머리 밑에 1/3정도 남아있는 소주병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백발이 성성하였고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처럼 흰자위만 보였다. 반쯤 걷어올린 바지와 속옷을 입고 계셨다. 성의는 있으셨지만 취기로 인하여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제공자료 : 설화 11~12.

(6) 이정희(72, 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안정호 할아버지의 부인이셨다. 할아버지께서 밖에 나와서 술을 들고 주무셔 집으로 모시고 갈려고 왔다가 조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주셨다. 처음에는 아는 옛날 이야기가 없고 다 잊어버렸다 했으나 조사자가 유도하자 잠시 생각하다 2개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머니의 고향은 충남 당진이라고 하였고 18살에 공주에 있는 안정호 할아버지께 시집을 가서 38년 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오셨다고 한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전주이씨라고만 하였는데, 훗날에 가서 다른 할머니에게 물어보아서 이름을 알았다.

제공자료 : 설화 13~14.

(7) 이종우(69, 남)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우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다 길가에서 이야기 하는 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

게 되었다. 한 분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고, 한 분은 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의 논에 물꼬를 보러 나온 것 같다. 조사자가 접근하여 조사나온 목적을 말하고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모른다면서 안 해주었다. 그레 조사자가 마을 이름에 대한 묻자, 마을 둘래의 산을 짚어가면서 마을의 지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5~16.

(8) 황순악(77, 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시간도 오래되고 하여 둔전리를 떠나 용인시내로 들어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손에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있는 할머니는 이야기를 잘 못할 것 같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청이나 한 번 하자고 할머니께 말을 걸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조사자의 요청을 흔쾌히 응락하고, 옆의 길가에 있는 벽돌에 앉은 그 자리에서 7개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할머니고향은 경북 예천으로, 이곳에 이사오신 지는 3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집에 살고 있으며, 아들집이 평택과 성남에 있어 여기저기 많이 다녔다고 한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을 손주같다며 이야기를 잘 해 주었는데, 1997년 3월에 찾아갔을 때는 돌아가셨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7~23.

3) 설화

① 둔전리의 유래

이덕재(64, 남) / 둔전리T 1앞

[둔전리 재원주택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은 둔전리에 도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아파트의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7~8명의 노인들이 모여 답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협조할 것을 부탁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서 이곳의 지명에

대해 구술하였다.

[조사자 : 그 둔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둔전리 유래가, 예 그전에 저 둔땅이랬어. 둔땅. 지금은 세무소와 한가지예요. 지금에 국가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둔전리에요.

② 할미성의 유래(1)

김영환(71, 남) / 둔전리T 1앞

[둔전리 재원주택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둔전리의 유래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가 이곳에서 전승되는 할미성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저 석성산이 있어. 석성산. 아 거기에 성이 있다고요. 거 무슨 성 무슨 성이야. 저, [청중 : 석성산.] [청중2 : 할미성.] 아 할미성.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성이.

지금 성곽에 남아 있다고.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 어찌 그 성을 어떻게 쌓았는고 하니, 고려, 고려 중엽에 그 저 뭐여, 저 왜 그 성이 쌓였는고 하니, 그 저 행주치마가 있잖아. 행주초마.

이 아낙네들이 행주초마로 갖다 성을 쌓았다는 것예요. 행주치마로. 그래서 말하자면 그것이 뭐여, 이름이 할미, 할머니 성이라고 그러죠. 할미성이라고. 아낙네들이 행주치마 있잖아요. 행주치마 그거를 가지고 쌓았어요. 그 성을 말여죠. 거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말여죠.

③ 할미성의 유래(2)

이덕재(64, 남) / 둔전리T 1앞

[둔전리 재원주택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명,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구술한 할미성의 유래에 대한 구술이 제보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제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들은 구술하는 이야기가 중간에서 시작하는 줄 알고 처음부터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 도사가 얘기하기를, [조사자 :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조사자2 : 처음부터 해 주세요?] 응? [칭중 : 다시, 처음부터.] 글썄 구 년을 가물었는데,

“어떤 아들이고 딸이고 하날 죽어야 용인을(이) 풍년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인제 내기를 시켰어요. 딸은 나막신을 신겨 한양을 댕겨 오고. 아들은 성을 쌓게 했던 말야. 아까 저 형님이 말대로, 행주치마에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 행주치마에다 성을 도와주고. 근데 나막신 신은 딸이 날이 새기 전에 먼저 돌아왔어요.

한 아버지는, 그러니까 구성면 아흔 아홉짐을 훑을 저다 뷚가지고 이게 아흔 아홉봉이래요, 이게. 그래서 아흔 아홉봉인 구성면이 여기가 생겼죠.

그러구나서 인제 딸이 먼저 돌아왔으니까, 천상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차마 못 죽이고, 응 숙달 열흘을 겨냥 있으니까, 뭘니까? 별안간 떡구름이 생기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을 때려서 죽게 했다 이거여.

그러구나서 인제 풍년이 들었다는 얘긴데. 그 전설이 여기 뭐야, 수지면허고 구성면허고 옛날에 건립을 해서 지사를 지냈답니다. 그러고 나 책을 봤어요. 나도 냉중에 안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전설이 이 흔적은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저기.

저기 석성산에, 할미성이. 이쪽이 할미성인가 봐요 그제. 그렇게 돼

서 그 옛날에는 건립을 해서 이 둔전리도 해당이 되고.

④ 고만이 양반된 내력

유순봉(64, 남) / 둔전리 1앞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아파트 노인정에서 소개를 받은 큰길 남쪽의 마을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 노인정에도 3~4명의 노인이 앉아서 담소를 하고 있어,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이때 제보자가 선뜻 나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여기다 대고 허는거여? [조사자 : 네.] 옛날에 말이야 한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남의 종살이만 하. 머슴살이만.

그렇게 하노라고 하는데, 그 권 할아버지가 뭐 일을 암만 잘 해도 '잘 못 한다'고 맨날 지칭구하고 막 때리고 그라.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저 거시기 하지만, 그때는 막 맞아죽어도 꿈쩍 못하는 때여. 그래 인제 일을 하두 시키니까 하다 하다 못 견뎌서, 일을 해도 맞고 안 해도 맞고, 그래서 인제 도망을 갔어.

그저 뭐 사무 그냥 도망을 가는데, 아 느닷없이 소내기가 막 퍼부어가지고선 큰 냇갈가 있는데 건너가지를 못하겠다 이거여. 그래서 그냥 밭을 동동 구르면서 비는 흠뻑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 큰집이 말여 하나 등실등실 떠내려 온단 말여. 장마가 져서. 비가 하도 오니께 인제 떠내려 오는데, 그 지붕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 살리라.”

고 그러더랴. ‘사람 살리라’고 하며 떠내려가는 거여. 그래 그걸 어떻게 건지나. 그래 이 사람이,

“에이그, 기왕이면 남의 종살이 하느니, 물이라도 빠져 죽으면,”

말십 대고선 훌렁 벗고선 막 뛰어들어 간거여. 들어가니께 물살이

세서 막 떠내려 가는데, 거기 가서 인제 그 지붕을, 집을 붙잡고서는 인제 따라 내려가는 거. 사무 내려가다 보니까 큰 다리가 있는데, 다리 가서 툭 걸치더라. 그래 거기서 인제 그,

“사람 살리라.”

고. 하는 사람을 가서 보니까 큰 말만한 처녀더라. 그러니 식구는 다 떠내려 가고. 그 처녀 혼자만 살아서 떠내려 오는데. 지붕 꼭대기서 인제 떠내려 오는데 아 보니까, 건질라고 보니까 말야, 큰 구렁이가 그냥 몸뚱이를 다 감았어. 그 구렁이가 그냥.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라.”

나는 죽으면 말심 대고서 그냥 구렁이 대가리를 그냥 바싹 깨밀었던 말야, 그냥. 그러니까 쪽 피지거든. 그래서 그 처녀를 인제 다리로드 건, 인제 건져냈다 말이야. 건져 노니까, 그 처녀가 그러는 거.

“난 당신 때문에 살았으니까,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은인이라고 그 말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자.”

그러니 이 사람이 사십이나 넘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아 이 사람이 가서 인제 참 어떤 촌락에 들어가니까, 하 어떤 집에서 곡소리가 나. 사람이 죽어서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인제 그 집에를 썩 갔어. 그 알 몸뚱이로 그냥. 아 그러고 가니까,

“구신이 왔다.”

고. 그냥 금방 울던 사람들이 확 흩어져서 도망가더라.

“아 난 사람이라고 말이야. 이 장 느닷없이 큰 비를 만나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니까, 떠내려오다 이렇게 살았는데 좀 살려달라.”

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얀 백발 할머니가,

“아이고, 참 고생 많았다고. 그래 들어 오라.”

고 그러거든. 그래 들어가니까 옷을 내 줘. 처녀도 한 벌 내 주고, 그 사람도 한 벌 내 주고. 그래서 인제 그 놈을 입고,

“밥 먹었느냐?” 고 해서,

“아 밥도 못 먹었다.”

고 허니께. 밥을 해다 주고.

“우리 집에는 지금, 옛날에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삿날이다. 그러니께 제삿밥으로 알고서 먹으라.”

고. 그래 인저 밥을 실컷 먹고서는 무얼로다 보답을 할 게 있으야지. 돈이 있나 뭐 있나. 그러니께 인저 할머니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아직 먹을 식량도 있고, 돈도 뭐 남 그림지 않으니까 이 우리 집에서 며칠 유해 가라.”

고 말여. 그래 거기서 방 한 칸을 내줘서 거기서 사는 겨. 그러니께 이제 장가들은 겨여. 저 그 사람하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다른 디 가면 별 수 있느냐고. 여기 우리 전답도 많으니까 농사 지어서 그 두 내외 실컷 먹고 나머지만 가져 오라.”

는겨. 나머지만. 아 그래 이 사람이 일은 그래도 남의 종살이 했으니까 일은 잘 하지. 그래 그저 거기서 사무 그냥 두 내외가 밭을 파고 논을 갖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었던 말여,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었는데, 아 하루 저녁에는 그 할머니 사는 집이 화재가 났어. 불이 나서는 그냥 아주 폭삭 가라앉았던 말여. 그래 노인네도 죽고, 거기서. 그래 이 사람네만 둘이 살았으니 그 땅이 전부 다 제 땅이여.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 그래니까 이 사람이 인저 부치지 뭐여. 그 수단이. 그 동네는 뭐 살만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한 백여 촌이 다야. 백여 가구가 산단 말야.

아 이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인저, 그 뭐여 타서 죽은 이를 장사를 지내주고, 그 인저 집 뒀던 자리를 다시 보수를 하는 겨. 집을 짓는 거 라구.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니께,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보고 상전이래 그러는 겨. 상전이래구.

그저 뭐든지 와서 상의하고 인제 이러니께 이놈이 글은 못 배웠어도 말은 잘 하던가 봐. 그래 그 사람이 인저 그 동네에서는 아주 추장이야. 추장. 거 두 내외가 그렇게 사는데 동네에서,

“참 우리 동네는 추장님을 잘 만나 잘 만나서, 추장이라면 지금 이 장이나 그런가 봐, 잘 만나서 우리 동네가 인제 괜찮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 아 그래 인제 떠들어 온 놈이 부자로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인제 사는데. 아 임금님이 서울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아무 디서 종살이 하던 놈이 아무디 가서로다 부자로 잘 산다. 그래 가지고 촌장 노릇을 한다.”

“애, 요놈의 자식을 불러다가 돈을 빼고, 아주 이 놈을 옥살이를 시켜야 것이다.”

그러고서는 인제 그 자기, 그 인제 신 저를 지금 그 대신들 한 가지 지 그래. 인제 그런 사람을 정승으로 하나 보내면서,

“아무디 이러 이리한테 가든 고만이라는 사람이 있다. 고만이라는 사람. 이름이 고만이며. 성이 고가고 이름이 만이며. 고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께 그 놈을 잡아 오너라.”

그래 이 사람이 인제 말을 타고서 막 내려 가는데, 그 동네는 인제 얼추 다 갔어. 다 갔는디 느닷없이 그냥 뇌성벽력을 하면서 말여, 큰 천둥을 하더니 비가 막 쏟아지고 막 벼락을 치는 거 그냥. 아 그러니 나갈 수가, 갈 수가 있으야지. 그래 인제 어느 그 마굿간, 참 헛간이로다 인제 들어가서는 떡 있으니께, 조그만한 한 일곱 살이나 여섯 살이나 된 아이가 썩 나오더라. 오더니 이렇게 말을 쳐다보더니,

“이게 암만해도 이게 양반들이 타고 다니는 말인디, 오늘 재수가 없어서 잘못 왔구나!”

그러더라. 아 이 사람이 그래 깜짝 놀라서,

“아이! 너 어떻게 양반 타고 다니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아, 보면 몰르느냐고! 당신도 심부름 오는 거죠?”

“아, 무슨 심부름을 내가 오니? 나 정승이다. 일개 정승이다.”

“정승? 누구 잡으러 왔지?”

“누구를 잡으러 와, 이놈아! 거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아녀, 나는 못 속여. 그 사람을 잡으면 당신 가도 못하고 죽어. 그러니깐 빨리 돌드러 가라.”

고 말여.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거 임금님 말 듣다가는 지가 죽겠고, 그래도 가면은 저는 죽지는 안하거든.

“예이, 돌아 가자.”

고. 그러는 판인데, 그 고만이라는 사람이 낮에 인저 일하고 들어와서 소내기가 쏟아지고 하니깐, 인저 방에서 떡 드러누어 있으니깐 꿈을 꾸는데,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하늘이서 신선이, 신선이 내려와. 말을 타고 내려오더니,

“너, 오늘은 들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꼭 방에서 그냥 있어라. 너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돌려 보내마.”

그러더라. 아 그래서 깜짝 놀래 깨서,

“아, 여보! 나는”

인저 마누라 보고 하는 소리지

“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쩐, 하늘에서 신선이 하나 말을 타고 내려오더니,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 그 사람을 돌려보낼게 너는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

“애이고 그런 걸 다 믿느냐고 말이야. 꿈은 개꿈이라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하던 일을 나가서 해야지 안 된다.”

고. 마누라가 부진부진 나가는 거.

“아, 여보! 나가지 말어.”

“아이 왜, 왜 나가지 말래냐고. 소나기가 인저 그쳤으니깐 간다.”

고. 그래 나가는 거여. 그래 이 사람이,

“아이고, 당신 가면 나도 가야겠다.”

고. 인제 옷을 주어 입고서 또 나가는 거. 나가다 보니깐 금방 또 햇살이 비쳐서 발끈 들은 날이, 느닷없이 또 깜깜해지면서 그냥 베팅을 때리고, 막 베팅치는 소리가 나면서 뇌성벽력을 하거든. 그래서 또 못 나갔어.

못 나가고서 집으로 인저 들어왔는데, 이 저 임금이 보낸 그 사신은

인저 서울로 돌아왔지. 서울로 돌아가서 대궐 안으로 썩 들어서니께,
임금이, 임금한테 가서,

“아뢰오.”

“에, 을 줄 알았다. 너 가다가 어떤 동자 애를 만나가지고서 거기 가
면은 네 죽는다고 하니까 돌아왔지?”

“아 그저 지가 백 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에, 그러면 잘 돌아왔다. 그 고만이란 놈은 세상 없어도 못 잡는다.
그러니께 그놈은 그대로 살게 두고, 너는 거기 가서 못 잡은 대신 벌을
받아라.”

하옥을 시키는 겨. 그래 꼼작 있어? 임금이 그전에는 그저 뭐 임금
말 한 마디면 그만이니께. 그래 거기서 인제 금부도사가 와서 그 옥,
옥에다가니 가뵈다. 아 그런데 사흘을 넘어가도 밥 한 숟갈을 안 줘.
배가 고파 죽겠는디. 그래 정승이,

“에라, 사흘만 굶는 것보다 정승, 산 정승 백년보다 사흘 굶는게 더
나쁘다. 그래서 인제 밥 좀 달라.”

고. 그 옥사장이 보고 사무(계속) 얘기를 하니께,

“아, 이거 내 맘대로 못한다고. 임금님께 상신해 봐서 주라고 하면
준다.”

그래 임금님한테 인제 옥사장이가 가 통지를 한 겨여.

“아무 것이 그 정승이 지금 죽었다고, 사흘을 굶었으니 안 죽었습니
까?”

그러니께. 임금이 있다가 하는 말이,

“그 놈은 나의 명령을 거역한 놈이니까 죽어도 괜찮다.”

그래 인제 돌아와서,

“아이, 임금님이 죽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상에 내가 임금님을 그렇게 위했건만은, 그래 이렇게 굶어 죽이
느냐고 말여. 에이 임금이고 뭐이고 정승이고 나는 필요없다. 죽으면
인제 이대로 죽는 것이다.”

그러고서 인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임금이 낮에 잠을 떠들다 보니께 그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아주 금관을 쓰고 그냥, 용마를 타고 딱 자기 앞에 나타나. 나타나서,

“너는 이 사회에서 임금이지만, 나는 지금 죽어서 하늘 위에 올라가서 천상 그 천국이 있는 신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있으니께, 너 내 명령을 거역하면 너는 죽어.”

임금이 그냥 깜짝 놀랐겠지. 깨서는 거기 하인들을 불러 가지고서,
“빨리 저 옥에 가서 아무 정승 석방하라고 하라.”

그래 인제 그 사람이 인저 석방을 시킨 겨. 가서 임금이 인저 ‘나오라’고 하니께 나왔지. 나와서,

“임금님! 그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니께 임금이,

“아, 여기 당신! 자네 참 고생 많이 했네. 나 임금 노릇을 했어도 자네같이 참 훌륭한 사람은 참 봤네.”

“아, 내가 뭐이 훌륭합니까?”

“자네는 하늘에서 낸 사람이여. 그러니께 나보덤도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주 영의정으로도 아주, 인저 말하자면 한 계급을 높여 줬더라. 그래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임금을 섬기고, 참 끝까지 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그저께 죽었는디 말야. 그냥 돼지 뒷다리를 붙잡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는데, ‘으흐흑 딸랑’하고 가는 걸 나도 봤다구.

그 이게 이것이 끝이여 인저.

5] 메기와 광어의 유래

유순봉(80, 남) / 둔전리T 1왕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는 ‘이건 간단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광어와 메기의 형태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동물담이다.

이건 간단한 거. [조사자 : 네.] 옛날 옛적 갑날 갑자, 옹골 공골 바위 밑에 일흔두 살 먹은 메기가 한 마리 있는데 말이여.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꾸니까 천상에서 밥이 내려오도 같고, 열 놈이 덮힘도 같고, 용상이 좌지함도 같고, 용 쌍용이 여의주를 다툼도 같더라 이거여. 아 참 음지, 양지 별을 씹도 같고.

그래서 꿈을 메기란 놈이, 일흔두 살 먹은 메기, 메기가 꿈을 깨구선 생각하니깐 아주 분명히 용될 꿈이란 그 말여. 그래서 인저 광어가, 광어가 있잖여. 광어라는 것. 광어가 꿈 해몽을 잘 한다고 해서는 그놈한테 꿈 해몽을 해달라고 갔어, 메기가.

“아, 어떻게 꿈을 꾸셨습니까?”

“아 천상에서 밥이 내려오도 같고, 열 놈이 덮힘도 같고, 용상이 좌지함도 같고, 음기, 양기 별을 씹도 같고, 쌍용이 여의주를 다툼도 같더라.”

“그러 참 꿈이, 참 아주 흥합니다.”

그랬어. 광어가.

“왜, 내가 꿈 잘 꿔는데 입마 해몽을 그렇게 하니?”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천상에서 밥이 내려온 것 같은 건 낚시 밥이요. 열 놈이 덮치는 것은 두 손으로다 움켜쥐는 것이요. 용상이 참, 뭐여 용상이 좌지함과 같이라는 것은 큰 그릇에다 담는 것이요. 음기 양기 별을 씹도 같다는 것은 배를 갈라서 이쪽 저쪽 굶는 거라.”

고 그러더라.

“쌍용이 여의주를 다툼도 같다는 것은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먹으라고 권하는 거다.”

그럼, 그 말이 맞지. 그러니까,

“예, 요놈의 자식! 꿈은 잘 꿔는데 해몽을 잘 못한다.”

그말여. 그냥 광어란 놈 국(귀)방머리를 흠뻑 췌렸어. 아 그러니께 눈이 확 돌아가서, 그 광어 보라고 눈 한 쪽이 맨 끝에 있지. 그래서 인저 그렇게 된 거여. 그래서 광어란 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꿈 해몽을 잘 해 주니까 그냥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도록 후려 패거든.

“에이, 요놈의 새끼야! 내가 꿈 해몽을 잘 해 줬는데, 왜 너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서는. 광어 떼거리가 템버가지고서는 메기 뒷 쉬힘을 거둬 쥐고서는 무릎뺍으로다가 그냥, 대가리를 팡팡 지치는 거. 그래서 메기 대가리가 납작하다는 거.(일동 웃음)

6 정씨를 놀리던 명씨

이봉출(90, 남) / 둔전리T 1앞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명,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보자가 생각이 났는지 이야기판에 들어와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각 성씨의 한자로 쓴 글자에서 생긴 형태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옛날에 나귀 정자 정서방 하고 밝을 명자 명서방 하고 두 사람이 친 구간인데, 한 동네 살어. 사는데 이놈의 명서방이 정서방을 맨날 놀려.

“어딜, 내일 내가 갈테니까 나구 좀 타구 가자.”

이래요. 맨날 놀려. 근데 이 정서방은 뭐 분풀이 할 데가 없어. 그래 한 날을 한 대사가 왔어. 대사가 왔는데, 그래 동냥을 참 후히 갖다주고,

“대사님!”

“왜 그래요?”

“나 시방 억울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복을 해야 되겠소?”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럽니까?”

“아, 이 명서방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 나는 맨날 당나구라고 놀리고 ‘타구 가자’ 어째라 이랬는데, 아 이놈의 명서방은 으응 보복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어떡합니까?”

“예, 걱정마시오. 내 오늘 저녁에 보복을 하도록 해 주리다.”

그래 저녁을 잘 대접을 해가지곤 그 집으로, 명서방네 집으로 데리고 갔어. 가서 인제 한참 앉아 얘기하다가, 마침 그 대사하고 명서방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 그래, 그래서 인제 대사가,

“아이고 성이라고 하도 꼴꼴해서, 내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

고 이래지. 이러니까 명서방이,

“거 뭘 그러냐?”고.

“아, 이 성도 하도 꼴꼴해서 그래요.”

“아 꼴꼴하거나 말거나 얘기해 보오.”

그래 이 중이,

“이거 봐요. 우리 어머니가 강안도 살았는데, 아 월정사 중이 와도 좋다. 아 일정사 중이 와도 좋다. 아 그래다가 내가 생겼제요. 아 그래니 어떤 사람의 성을 따를 수가 없어서, 왜 월정사 중 달 월자를 따고, 일정사 중이 왔으니까니 날 일자를 따서, 날일 달월을 한데 붙이니까는 밝을 명자가 되었는데, 그래 나를 명가라고 이래했으니 이거 모듬새가 아 됩니까?”

그래, 아 그래서 이 명가가 아 그만, 그만 정신이 아찔하지. 즈이 성 좋다고 정기를 맨날 노렸는데, 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만 짚룩했다구. 아 정서방이,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모듬새구나!”

하며 보복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

7 바람을 피우고 바위된 여인

이봉출(90, 남) / 둔전리T 1앞뒤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난 것이 상스럽다고 하면서 주저하는 것을 조사자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자 구술하여 준 음담패설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일도 비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스럽고 뭐 그래 이, [조사자 : 괜찮아요. 그런 얘기두요.] 상시러 워도 괜찮어? [조사자 : 예. 그런 얘기도 설화니까.] [조사자2 : 다 옛날 얘기 다 해 주세요.]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강안도 산골 어디에 한 군데 사는 오막집이 있어. 근데 월정사 대사가 강안도 어딜 갔다가, 들어댕기다가 아 오막집에 있는데 가서 날이 깜깜하게 저물었어. 저물었는데 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천상 그 오막집에서 잠을 자야 되었는데, 거 주인을 찾으니까는 바깥주인은 안 나오고 안주인이 나와. 안주인이 나와서,

“아, 대사님! 여 방이 단간방인데, 아 바깥주인은 없고 저 혼자 있는데 어떻게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

“아 예. 아무 상관 읍어요. 뭐 나는 나도, 여자나 한가지요.”

“어째 그래요?”

“예, 아래가 병신이라, 난 뭐 한데서 자도 아무 상관읍테니다.” 이래.

“아, 그러면 주무시고 가시오.”

그래 저녁을 잘 해서 대접을 하고서 아 그래,

“그래 아래가 병신이라니 어째서 그 병신입니까?”

“아니 뭐 별로 병신은 아니고, 그게 너무 커가지고 병신입니다. 뭇 어디 부인네 당체 상관을 헐 수가 없어서 그래 병신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한 번 해 보까요?” 그래,

“어떻게 해 봐요?”

(Tape 뒷면에 계속) [조사자 : 거기 메물, 여자가 메물 범벅 거지요.] 아 그래, 아이 뭐 메물 범벅을 썬 가지고, 썬 이렇게 식혀가지고 들어와서,

“아, 내놓으라.”

고. 그러니 내 놓아.(웃음) 하기가 안 내놓을 수도 읊고 내놓았더니, 거기 다 슬슬 씻었어. 씻어가지고 씻고선 갖다 메물범벅을 내, 내버리고선,

“아, 그 시험을 해 보자.”

고 하니. 시험을 안 해볼 수가 있나? 아 시험을 해 봐야 거뜬하지 뭐. 아 그래 생전에 처음이라 중사, 중도 그런 일을 처음 겪어보고 여자도 처음이라. 아 그래 하루 저녁 잘 지내고 아침을 잘 대접해서 갔어.

인제 중이 에 갔는데, 가다가 어디쯤을 가다가 바위가 넘적한 게 좋은 자리가 있어. 거기가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지나가던 사람이 같이 거기 가서 앉아 쉬게 됐어. 아 이놈의 대사가 아무 소리도 안 했으면 괜찮았는데, 거 잊저녁에 잘 잤다는 얘기를 슬슬 얘길 했네. 그 사람한테다가.

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여자의 남편네라고 그 말여. 아 그러니 그 본인한테도 얘기를 바로 해 줬으니, 아 그 분이 잔뜩 낫지 뭐. 집이를 갔다가, 인제 그 사람은 가고, 대사는 절로 가고 이랬는데. 아 집으로 가서, 분이 나서 대뜸 뭐 어떻게 할 수는 읊고.

“병을 꼭 한 되를 병을 내 보라. 여보! 이거 가지고 가서 술 두 되 사 오오.”

아 병을, 한 되 되는 걸 주고, 두 두 되를 사오래니깐 어떡해. 아 그러니,

“이 한 되 되는 병에다 두 되를 어떻게 사가지고 오오?”

이러니까.

“어 그래, 그럼 메물범벅에다 씻으면 두 되 들어가요.”

아 그, 아 그럼 맹랑하지. 알았지만 아 요거 큰일 났지. 그래 바깥에

병을 들고 서서 마년을 하는거여.

“이거 큰일 났다. 알아서.”

아 그러다 그만, 그만 도섭(변신)을 해서 그냥 동상이 됐어. 바윗돌이 됐어. 병을 들고 그냥 바윗돌이 됐다고. 그 도사가 그렇게 했는 건지 어떻게 됐는지. 그 동상이 서 있다는 거여. 시방도 그 강원도 어디에 음.

⑧ 나귀 타고 사라진 전우치

이봉출(90, 남) / 둔전리T 1위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전우치가 가난한 친구를 도와 주었는데, 그 친구의 욕심으로 관가에 잡히게 되었다. 그때 마지막 소원이라며 그림을 그리고 그 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기래 이런 건 이름을 딱딱 대면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그러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이름을 대지 못하지. [조사자 : 그냥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전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어. 살았는데 살구.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구 그랬는데. 김서방이 엄청 어려워. 근데 전서방은 아주 좋은 도술꾼인데, 그래 전서방이 김서방네 집을 한날은 갔어. 가니까 그 친구가, 아 때도 못 끓이고 그렇게 어렵게 있어. 그래서 이 전서방이 벽장 문틈을 구멍을 쪼그맣게 뚫어줬어.

고리로 돈이 하루 꼭 칠 폰 밖에 안 나와요. 일곱 폰이 나와. 엽전 일곱 폰이 나와. 고거 가지면 고 자기네 식구 겨우 연명해서 먹고 살어. 아 근데 시답지 않아서 한날은 그 구멍을 크게 뚫어줬다. 크게 뚫었더니 아 돈이 많이 쏟아져. 많이 나와.

아 그놈이 엄청 나왔는데, 아 이놈의 관가에서 알았네. 아 관가에서

나라에서 시검(세금) 받으다 놓은 돈방에서 고 고래. 하루에 칠푼씩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는건데, 아 그렇게 그냥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만 다 알구선 찾아나와서 조사해 가지구서 들켰어 그만.

아 그래가지구 문초를 하니까. 음 아이구 뭐지. 그제. 아이구 전우치이여 그제. 하나 전가는 전우치이라는 사람이여. 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니가 이렇게 했냐?” 하니까.

“내 친구 전우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전우치가 그 구녕을 그렇게 쪼금 뚫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했는데 하루 칠 푼 씩 밖에 안 나와서, 그거 가지구 살기가 어려워서 이 구녕을 좀 크게 뚫었더니 그렇게 많이 나왔다.”구.

“그 전우치가 어디에 사느냐?”(웃음)

아 전우치, 안 아르켜 줄 수가 있나?

“어디에 산다.”

고. 전우치 호칠 잡아 왔어. 잡아 오고, 그 김가는 김가 놈도 잡아 가고 갖다 징역을 시키는 거라. 징역을 시키다가 몇 달을 하고 나서, 이제 재판이 다 끝이 나니까 죽인다고 사형이 내렸어.

“들을 죽인다.”

거 마당에다 내다 났는데, 전우치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죽어도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그림이나 한 장 그려 봤으면,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야 그래라.”

종이하고 붓을 갖다 댔어. 갖다 주니까 이놈이 뭘 그리려고 하니라, 수양버드나무 하나 그려 떡 놓고, 거기다 나귀 하나 떡 그려서 놓고서,

“인제 다 그렸느냐?”

“네, 다 그렸습니다.”

전우치 올라 댔어, 당나구를. 올라 타구선 김서방 보고,

“눈치가 있으면 너도 여기 타라.”

둘이 올라 탔네. 올라타곤 슬렁슬렁 간다. 가니깐 이 아전들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가만 뵈었다. 아 그 수양버드나무 그려는데 수풀로 들어가 쑥 들어가고 읊어. 아 아전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종이짜 뿐이지, 어디로다 갔다 말아야. 야, 그래 가지고 어이 또 놓쳤지. 못 붙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있어. 전우치 어머니가 있다고. 또 그래 어머니를 또 붙들어 왔어.

“어머니를 붙들어다 놓으면 전우치가 나올 것이다.”

어머니를 붙들어다가 유치장에다 놓어 났는다, 전우치가 또 나왔어, 인제. 또 붙들렸지. 아 그러니까, (기침)

“아, 아주 뭐 지독하게 해서 죽어야지. 그 놈 여간해서 설잡게다면 안되겠다.”

고. 그냥 가마솥에다 기름을 펄펄 끓여. 펄펄 끓여. 그래 펄펄 끓이는데 전우치가 헐 수 읊이 병을 하나 갖다 놓고선 병속으로 전우치가 들어 갔어. 병속으로 들어 갔다고. 그러니까 아전놈들이 병속으로 들어 갔으니까,

“병을 기름 솥에다 넣으면 죽을 것이다.”

기름 솥에다 넣었다. 넣어서 얼마를 끓이다가 끄냈다고, 그 병을. ‘이제 죽었겠지’ 하고 끄내서, 거 얘기도 이거 거짓말 얘기지. 허허허. 꺼내가지고서 마당에다가 패대기를 쳤네. 거 패대기를 치니까 지름(기름)에 절은 뭐, 그 병이 뭐 산산이 깨져 펄덜. 아 쪼각마다. 너도 전우치, 나도 전우치 소릴 질르거든. 제 그래요.

아 그놈의 전우치는 어디로 가고. 뭐 그러니까 나중엔 할 수 없다고 잡기도 못하고 그냥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끝이 없지.

9] 효성을 다한 두껍이

유순봉(80, 남) / 둔전리T 1취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영,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이야기판을 이봉출 할아버지에게 넘겨주었던 제보자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 스스로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한 외진 가난한 집에 두껍이 한 마리가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 두껍이가 이웃집 판서의 딸과 결혼하였다는 이야기로, 구렁덩딩 신선비가 유사한 동물 둔갑설화의 일종이다.

옛날 옛적에 한 고을에서 한 백여 대촌이 사는데 말이여, 거기 이진사, 김판사가 살어. 진사하고 판사하고.

그런데 김판사는 딸이 3형제 있고, 이진사는 아들도 딸도 하나도 없어. 그런디 김판사네는 살기가 아주 곤란하고 가난하고. 이진사네는 살기는 잘 사는데, 부잔데 슬하에 아들이 없고 딸도 없고 그라. 그 두 내외 사는 것여. 그래서 인저 댜날 두 내외가 인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께, 아주 날마다 그 근심 걱정이지.

그렇게 지내는데, 하루는 이 여름에 보리 방아를 찧어다가니 망사, 저 멍석이다 널고 있으니께, 느닷없이 비가 막 쏟아져서 이 놈을 개서 전부 들여놓고 두 내외가 대청에 앉아서,

“아이고, 우리는 먹을 건 이렇게 많고 돈도 많은데,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이겨 어떻게 사느냐”

고 말야. 한탄을 하고 있는 거여. 아 그러는데 장마, 두꺼비가 말야.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들어 오더라. 그래서,

“아이고, 저 두꺼비 좀 보라.”

고 그러니께. 그 이진사가,

“아이, 그거 잘 키우자.”

고. 그래 두꺼비를 한 마리 사다가 자기네 방이다가니 가까이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 밥을 해서 사무 맥이는 거 그냥. 그러니께 하루 이틀 가면서 점점 커진단 말야. 그러저럭 몇 해를 지냈는데, 하루는 두꺼비가 하는 말이, 인저 이진사 보고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그러는데. 인저 이진사 두 내외 인저 저 두꺼비를 보고 재미를 붙여서 사는데, 두꺼비가 그러거든.

“아빠!”

“왜 그러니?”

“나도 장가갈 때가 됐어요.”

“아 이놈아! 장가갈 때가 됐으면 어떻게 하니? 짝이 있어야 하는데 짝이 없으니 어떻게 하니? 그저 그냥 잘 살아라.”

“아니예요. 때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장가를 보내 주래?”

“아, 이 동네 김판사네 집이 딸이, 큰 딸이 그냥 네, 저 세 명이나 되는데, 아 왜 장가를 못 보내느냐?”고.

“아 임마! 사람으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니? 너는 우리 집에서나 구엽지. 다른 사람들은 너보고 구엽다고 안 해.”

그래. 아 그냥 노다지 그저 먹고 나면 그 소리여. ‘장가 들어 달라’고. 방으로 가면 방으로 쫓아와 얘기하고,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쫓아와서.

“엄마! 나 장가 보내줘요.”

“아 임마! 장가를 어떻게 보내줘?”

“아, 저 김판사 대이 딸이 삼 형젠데 왜 못 보내느냐?”고.

“그럼, 그 딸, 딸들이 시집을 너한테 온다니?”

“아, 이 돈 재산 뭐 그거 잔뜩 있는데, 그 사람네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읊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아, 우리 두꺼비 장가들일테니 딸 좀 하나 달라’고 그래 보시오”

“야 임마! 죽으면 죽었지. 거기 가서 그런 소리는 못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고. 그래 두 내외가 그 두꺼비만 믿고 사는데, ‘거 나간다’고 하니까 거 안 되겠거든.

“그럼, 내가, 내일은 내가 가서 얘기를 하마.”

그래 저 그 이튿날 저 참 안 나오는 말을 가서 하는 거여. 김판사네

집이를 가서, 판사하고 진사하고는 잘 알지 뭐여. 그래 가니께,

“아, 어째 이진사가 우리 집에를 왔소?”

“예. 대감댁에 여쭙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인가 좀 해 보오.”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지금 두꺼비를 키우고 있지 않소.”

“그래. 두꺼비를 키우는데.”

“아, 이놈이 하필이면 김판사댁 따님하고 혼인을 해 달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아주 죽으면 말심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여. 그래니께 김판사가,

“음 그래. 아무리 원 내가 궁하게 살기로 진사가 두꺼비한테 딸을 보내 달라고. 안 된다고 말야. 그런 소리 할려면 당체 우리 집에 얼씬도 말라.”

고. 아 야단을 치거든.

“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인제 돌아왔지. 돌아오니께 두꺼비라는 놈이 지켜 있다가는 저희 아빠가 들어오니깐,

“어떻게 됐어요?”

“야 임마!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 봐도, 죽으면 말심 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판사가 팔팔 쫓다.”

“내일 또 가 보셔요.”

그래서 인제 그 이튿날 나는 못 가니께, 그 인제 지 엄마를 보내는겨.

“가서 그 김판사댁 보고서 잘 좀 얘기 좀 잘 하라.”

고. 그래 이제 여자가 인제 또 갔어, 그 집에를. 가서 김판사 마누라보고,

“아이구, 내가 죽을, 죽으면 말심 대고 한 마디 여쭙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해 보라.”고.

“아 우리 집이 거 두꺼비를 키우잖아요.”

“그래.”

“난 두꺼비만 믿고 사는데, 두꺼비가 하필이면 장가를 가야겠다는디 꼭 김판사댁 따님을 꼭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에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여. 당장 가라고. 그런 소리 할려면 당장 가라.”

고. 그래서,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인저 나올려고 하니께, 김판사네 세째 딸이,

“아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아, 아씨들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두꺼비라는 놈이 이제 몇 해 크니께 장가갈 때가 됐다구, 장가를 보내달라고 해서, ‘게 어디로 장가를 보내 주랴’ 하니께 ‘김판사댁 따님하고 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딸들 셋이 말이며, 큰 딸이 있다가,

“나는 그런 데는 안간다.”

둘째 딸도 있다가,

“원 제길, 사람도 췌는데, 하필 왜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느냐!”

고. 그러니까 세째 딸이 있다가 하는 말이,

“내가 간다.”

고 그랬어.

“내가 갈테니까, 하여간 혼인 날짜나 잘 잡아서 택일이나 하라.”

고 말이며. 아 그러는데 참 진사 마누라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아이 그 지 언니들 둘하고 지 어머니하고는 막 야단을치고,

“이런 순, 너희 여지까지 양반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온 자식들이 어

째 하필 두꺼비한테, 사람한테도 못가고 두꺼비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느냐?고. 우리 인저 망했다.”

이거여. 아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간다’고 그러는 것여. 그래 이제 집을 돌아와서, 하도 기가 막혀서 인저 오니께.

“엄마!”

“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막 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더니마는, 올라고 하니께 그 세째 딸이 너한테 온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그럼 됐다고. 나도 그러지 않아도 세째 딸이 아니면은 장가도 안 갈려고 그랬다.”

고 그러거든. 아 그래서 인제 그 동, 그 동네가 백여 대촌 되는데 소문이 확 퍼졌어.

“김판사댁 세째 딸이 저 이진사댁 두꺼비한테 장가 간다.”

고 말여. 그래 소문이 확 퍼지니께 거 참 창피하거든, 김판사는. 아 그러는데 인저 날짜를 떡 잡아서,

“언제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께.

“앞으로 사흘 안에 하시오.”

아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 인저 김판사댁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

“사실이 이만저만 한데, 삼 일 만이 장가를 온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께.

“나는 그 자식으로 인정도 안하고, 나는 그 자식 읊는 심 델 테니까 맘대로 하라.”

고 그러는 겨. 그러 인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그 소리를 하니께,

“아, 걱정 마시오.”

아 인저 날짜가 돼서 장가를, 참 시집을 인저 와야할 거 아녀. 그러

니까 이놈이 아침을 먹더니,

“아빠!”

“왜 그러니?”

“그 사인교하고 말 한 필만 구해주시요?”

그래 인제 진사는 부자니께 뭐 말 까짓 거 하나 구해기야 힘 안 들지. 게 사인교라고 그 인제 그 가마, 인제 그거 해서,

“아버질랑은 저 가마 타고 오시고, 나는 말 타고 간다.”

고 그러더라.

“그래라. 그래 너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말 타고 가니?”

“아, 글썸 걱정하시오.”

지 엄마 보고서,

“물 좀 뜨뜻하고,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한 한 술만 데우라.”

고. 그래 데워서,

“다 데워 났다.”

그래니까.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사랑방에다가 떠다 놓으라.”

는 겨. 큰 목욕 저 그릇에다가, 욕탕에다가. 그래 그 놈을, 그 하라는 대로 해 주는 거여. 해 주고선,

“아무도 보지 말라고. 그러고선 문 닫고 나가라.”

는 겨. 그래 문 닫고 나갔는데. 암만해도 그것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 엄마가 문틈으로다 바늘을 이렇게 꼭꼭 꽂아가지고서는, 그 바늘 구녕이라도 뵈거든. 그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욕탕으로 쑥 들어가더니만 허물을 쑥 벗는데 보니까, 한다는 아주, 아주 그냥 뭐 미남자여. 어 그렇게 돼 가지고 나오더라. 그러더니,

“엄마! 엄마!”

불르더라.

“왜 그러니?”

“아 거 새신랑 준비해 논 바지 저고리니 모두 다 옷 좀, 관두 복근

하고 가져오라.”

고 그러더라. 아 그래 이제 그게 하도 신기해서 그거를 인제 대번 뭐 그냥 해다준 거여. 주니께 그놈을 떡 입고서 참 초롱을 쓰고 말을 딱 타는데 보 니께 한다는 참 신사거든. 아 그러고서 인저,

“장가 온다. 두꺼비 장가 온다.”

하니께. 동네 사람들이 ‘두꺼비가 장가 온다’고 전부 구경이 왔거든. 거 오는데 보니께, 두꺼비는 읊고 아주 참 미남자가 떡 하니 말을 타고 오거 든.

그래 인제 거기를 김판사네 집에 당도해서 초례청으로다 썩 들어가 니께, 김판사가 아주 쳐다도 안 불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문틈으로 보 니까 한다는 아주 미남자란 말여. 아주 서당 도련님도 그렇게 이쁠 수가 읊어. 아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아 그 언니들은 그 신랑감이 오는 걸 보고선, 그냥 아주 그냥 속이 상해서 말여.

“내가 갈건데 니가 갔다.”

고 말여. 그래가지고 그냥 병이 다 낫어. 그래서 인저 혼인을 떡 초례를 지내고,

“나는 여기서는 하루 저녁 못 자니께 집이로 가겠습니다.”

아 김판사가 보니께 뭐 참 잘 생겼어.

“야, 너는 인물은 잘 생겼는데, 학문은 아느냐?”

“예. 학문은 조금 배운게 있는데 지필묵만 갖다 주시요.”

그래 이제 연필, 뭐여 저 붓하고 먹하고 인저 종이하고 인저 갖다 주었어. 거기다 막 쓰는데 김판사는 배운 거 아무 것도 아니더라.

“야 이런 수가 있구나!”

하구선. 김판사가 그 딸을 여위 여의면은, 두꺼비한테 여우면은 망 신을 당할 줄 알았는데 아 그만한 사위가 읊어. 그래서 그날로 인제 참 실행을 해서 참 바리바리 세워서 그냥 실어가지고서 떡 들어닥쳤는데,

그 돈도 말야 다 이 진사가 당해준 거여. 전부 뭐뭐 하라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메누리 잘 얻고, 아들도 참 효자 아들 두고. 그래으니까 그 김판사는 아주 그 덕분으로다가니 잘 살고. 그리고 그 메누리하고 아들하고는, 두꺼비 그 허물이 읊으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엄청히 하여 그냥. 그렇게 해다 죽었는데 학생들만큼이나 아마 그만 했던가 봐.

그래서 부모에게 효자노릇을 해서 효자문까지 세웠다. 효자, 효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아들 좀 하나 뒀으면 좋겠어. 두꺼비 아들.(웃음)

10 김자점이 역적이 될 줄 안 장인

이봉출(90, 남) / 둔전리 1뒤2앞

[둔전리 둔전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명,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에게 다시 이야기를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역적 김자점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장인 어른이 지인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라 하겠다.

그전에 김자지미(김자점이) 얘기 하나 할까? 김자지미. 자지미가 장가를 유서방네 집에 가 장가를 들었어. 음. 근데 그 자지미가 경성 판사 참 아주 참 것 됐지. 그랬는데 유정승의 따님이 그 김자지미의 마나님이 되는데.

그런데 여태껏 유정승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 그러한 날 이제 참 돌아가실 지경이니까는 그 따님을, 자지미 마나님을 불렀지. 아들 형제 앉혀 놓고 인제 죽을 때를 바라는 건데, 그래 인제 아들이 아버지이 보고,

“아버지! 이제 연만하시니까 그 시우지 자리, 묘자리, 돌아가면 모의 자리, 신우지 자리를 어디,”

이 얘기 참 덜 했다. 처음에 인제 딸네 집을 갔어, 거 친정아버지가. 한 날을 갔는데, 밤참에 술안주를 해 들여왔는데 참 맛있어. 그게 뭔지. 그래 아침에 딸이, 인제 그 친정아버지 주무시는데 와서 문안을 드리러 왔 나왔어.

“그래, 야 잘 잤다. 그 어제 밤참에 그 안주가 뭐 괴긴데 그렇게 맛이 좋으냐?”

“어- 계란을 안은 닭에다 앵겨, 앵겨가지고 한 20일 이렇게 되면 병아리가 다 생기지 뭐. 그럴 적에 그걸 꺼내서 안주를 해 먹는다.”
고 그러더라. 아 그러니 암만 짐승이라도 새끼 까는 걸, 그렇게 몰살을 하니깐 거 죄로 가지 뭐. 그래서 유정승이 집에 와서 거 아들들 보고 그랬어.

“네 누이네 집이라도 통 가지 마라. 아주 의절 해라. 큰일 난다.”

그 안 땡겨. 그 양반은 그 잘 안 됐지. 역적될 줄을 알고 그래요. 그랬는데 인제 그 죽을 때가 돼서, 딸 뭐 아들 모두 불러 앉혀놓고 있었는데,

“그 신우지 자리를 말을 하라.”

니까는, 그 눈을 고요니 떠 보고, 오(외)인이 있어 말을 못한다는 거여.

“오인이 있어서 말을 못 해.”

“아, 오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삼 남매 밖에 더 있습니까?”

“음, 오인이 있어서 못 해.”

이런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출가오인’이라고 자기가 오인이지. 나갔어 인제,

“간다.”

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때서,

“인제 누님도 읊고 그러니 말씀올 하시요.”

이러니까. 그래 인제,

“거 뒷동산이 있는데, 거 솔밭이 딱 내려앉았는데, 꼭대기다가 가부태 복숭나무가 하나 서 있어. 그래 꼭대기 복숭나무 위로 쓰면, 복숭나무

를 한 발치로 가고 위로다 쓰면 왕후가 날 자리여. 임금의 될 자리라. 그리고 그거를 상으로 머리로 가고 아래로다 쓰면 대대 정승한다.”

거 딸이 창문 밖에 가서 다 들었어, 엿을. 그것을. 그래 복숭나무 소리만 들었지, 뭐 위로 쓰면 어때다, 아래로 쓰면. 그 복숭나무 소리, 그 복쇠 (복숭아) 나무를 한복판에 써고 써야겠다 하고 그만 가버렸어, 시집으로.

아 그래 인제 갔는데, 이 유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딸이 밭써 들고 간 모양이다. 그 뭐 죽은 사람, 즈이 시아버지 죽은 묘이 파다가 장사 지내니. 금방 장사지냈지. (Tape 2앞에 계속) [조사자 : 그 이웃 정승이 묘.] 그래서 저 그런,

“아무데 가면 거기 한 자리가 있는데, 내가 죽드래도 거기 갖다 쓰고, 뭐 정승판사 모이면 다 성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이태껏 놓으라고 표색(표석)이나 하나 하라.”

그렇게 일러 주고는 죽었다, 돌아갔단 말이여. 그 돌아가고서 거다 장사, 참 아버지 말대로 갖다 장사지내고 아무 것도 안하고 뭐 모인지 만지 그냥, 뭐라고 ‘백제호의 묘’이라 하나 해 뒀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일러 줬는데 이 김자지미가 그 얘기 듣고 가서 바로 그 날, 그 이튿날로 자기 시아버지 묘이를 파서 거기다 갖다 복숭아나무를 복판을 삼고서 썼어. 쓰니까 뭐 참 부지런하듯 해서 정승 판사 뭐, 뭐 한 끝해서 그만 역적으로 몰렸어.

역적으로 몰려서 삼죽을 떨하게 됐지 뭐. 처가집, 외갓집, 자기네집. 그 뭐 유정승네 묘이를 찾으니까 세상 못 찾아. 잘 해는 묘이만 정승 판사 묘이니까, 석물도 잘 해 놓고 잘 해 놓은 묘이만 찾으니까 읍지. 그래 아들들은 어디로 도망가빠리고.

그 자지미 그 아버지 묘이를 뺏어. 파니까 웃도리는 용이 다 되고, 아랫도리는 용이 안 뻘어. 그래 되다가 말았다는 겨. 그래서 자지미가 점재미가 됐지. 한 끝자락이로 역적이 됐지.

그 지손을 못 찾아서 이제 방을 붙였어. 정부 나라에서.

“인제 잡아도 피해 없이 해 줄테니까 나오라.”

해서, 인자 유정승의 아들들이 나왔어. 나와서 인제 나라에 와서 상소를 해. 그런 얘기를 했어.

“제가 아무개 올시다.”

“그러냐구. 그래 아버지 유정승 모이를 어따가 썼느냐?”

이러니까.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

“아버님이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이렇게 해고, 석물이고 뭐이고 아무 것도 허지 말고, 그리 아버지 함자만 써서 표석이나 하나, 허라’ 고 해서 짓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유정승이 이인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저 정도, 발제 사후(사위)가 역적될 것을 알고, 하여튼 아들들을 그집 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돼가지 정재미가 됐다는 거여. 자지미가 정재미가 됐데. 그만 허.

II 호랑이가 찾아오는 대화산

안정호(80, 남)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둔전리로 내려와 제보자를 찾아다니다가 평상에 누워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고 가서 이야기를 부탁하니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약간 취기가 오른 모습의 제보자는 말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청취하기도 어려웠다.

이놈의 호랑이가 있는데, 꼭 이리 오거든. 어기 독점이 있었어. 30년 전이여. 독점이 있는데 요리 꼭 오 온단 말이여, 저녁이면.

[조사자 : 호랑이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거 옹기굴에 불을 때고 해도 머리, ‘ 짹짹. 짹짹.’ 머리가 있지 짹짹. 그래 이렇게 겁낸다 말이야, 말하자면 대화산이여. 대(태)화산이 저 이산보다 더 커. 저게 저게. 그게 삼군을 찾아오고 있는 산이여. 그게 그 산이.

그런디 호랑이가 꼭 온단 말이여. 그거니께 맨날 잊어버려.

12 암행어사 박문수

안정호(80, 남)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그래 다시 암행어사 이야기를 해 달라 하였더니, 제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번의 내용은 박문수가 어느 집에 가서 여자를 탐하였는데, 그 여자가 쇠귀를 주며 이어 짓게 하였지만 날이 새도록 짓지 못하였다. 뒷날에 여자가 박문수에게 달려들어, 박문수가 쇠귀를 지으라고 하여 쇠귀를 면했다는 이야기이다.

박문수가 어디를 가는데, 날이(이상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 해는 이 저물고, 전이는 오두막집이 있잖어. 그러니께 가다 보니까 인자 이 양반이 고단하니께 좀 주인을 찾아서, 주인 나와. 젊은 여자가 나와. 나오더니,

“글쎄요, 이걸 곤란해요. 방은 하난디 곤란하네요.” 하니.

“이미 해는 떨어졌으니께 어디 주무시고 가야지 어떻 하겠느냐?” 고.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들어간 겨. 거기 들어가서 자는데, 이놈의 바지가 여기와 옆으로 한뼘데기가 이것 환장하겠어. 자다가, 그 아랫목에서 자고, 박문수는 윗목에서 잔다. 자는 실직 한다.

“아이구! 노인 양반이 오늘 고, 고단했나께 봐다.”

고단하고 이려고 뭐 인제 탄 속이 있어서, 이 자지가 일어나니께, 또 한 번 하니께 깨우더라.

“손님! 일어나. 손님! 종을 채워라. 종을 채워라. 이 양반이 인자 어떻게 하는 거여.”

여자가 합법적으로 따지니께 잉, 그래 선서(?) 일어나서. 이 양반이 간단 말이여. 다른 데를 가보니까 또 저물었어. 또 그런 여자가 있어. 요건 여자가 지랄하는 것여. 박문수 박어사가 여자보고 그냥 혼구녕을 주면서,

“종을 채워라.”

고. 그래 다락방이, 다락방에서 꼭 열리면서 칼을, 장두칼을 쥐고 떡 내려 오더라. 그 여자가 싸가지 그런 줄 알고, 그때 박문수가 죽었지. 그런게 살아진게 박문수 박어사가 그러서, 그런게 그 버르장머리가 고치고 이랬 데, 박문수 박어사. 박문수 박어사가.

13 남편의 죄를 면하게 한 아내

이정희(72, 여)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취기가 올라온 앞의 이야기를 구술한 제보자를 모시러 온 할머니이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모시러 왔다가 조사자가 암행어사의 이야기를 부탁하자, 처음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외면하였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한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어사가 출도를 하느디, 출도를 해. 옛날이면 암행어사 출도를 한다 면 이 거지 행세를 허구서 댕기는 거여. 이런데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는게 아니라. 인제 모를, 농군들이 모를 심는데, 암행어사가 출도를 한 거여. 출도를 했는데, 이게 무식한 놈이지. 무식한 놈이 말을 한다는 게.

“아 거시기, 뭐 몇 달 전부터 뭐 의사인지, 주지인지 출도를 한다더니, 어째 아무 소식이 읊다.”

이래서. 모 심으만서. 그렇게 암행어사가 그지 행세를 하고서, 그지 행세를 하고서는 거기를 와서. 썩하니 이제 나쁜 놈들이 있으면은 그 놈들을 처벌을 할려고 한 바퀴를 뺑 도는 거여. 나쁜 놈들이 있나 그걸 알려고. 근데, 이놈이 말 글허게 못된 놈이거든. 그래 인저 암행어사가 그 소릴 들었어. 듣고서는,

“야! 이놈이 나쁜 놈이지. 동네에 나쁜 놈이구나. 이놈을 버릇을 가르켜야 겠다.”

이러구나. 암행어사가 그지 행세를 하고서는 슬슬 땡이다가 자기가 다른 데로 안 갔어. 자기 몸을 거 동네서 의지를 한 거여.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겠다.”

고 허구서. 그러며는 인제 니께 그놈이 그 잘못된 거를 인제 하며는 불기를 막 때려. 이 데려다가 불기를 때리고 처벌을 주는 거여. 그래 인제 버릇을 가리키면 그 동네가, 이제 청년들이 다 그 암전하게 할려고 인제 암행어사가 그렇게 한거여.

그런게 그러구서 난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치를 보내께, 눈치를 보니께 보통 사람이 아니여. 그래 암행어사 출도를 했다는 걸 인자 짐작을 했어. 그러니께,

“아, 이제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인제 걱정을 하는 거여. 이 저 이 사람이, 필시 저 사람이 암행어사인데. 이거 이거 큰일났다 걱정을 하며,

“자네! 이것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사람 큰일 났다.”

구. 그래 이제 속을 썩기고 걱정을 하는데, 그런게 여자가, 임시 피는 여자가 났다는 거여. 그래서 여자들이 인제 얘기가 있어.

“아무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시 그 사람 암행어사 출도를 했는디. 그걸 몰르고서 그렇게 말을 했는디, 저 양반이 아무케도 인제 처벌을 받겠다.”

고 걱정을 허니께. 그 안식구가 하는 말이,

“아, 그러면은 이런 창피를 어떻게 당하는 걸 보느냐. 그러니께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사를 지내자구. 지사를 지내는데 헛 지사를 지내자구 했어. 그래갓구서는 ‘지사 흥정을 해 오라’ 구. 지사 흥정을 다 해오면 동네 으른덜을 전체 제 불러다가 대접을 할 적에,(웃음) 이렇게 으른덜이 있는디 무식한 말허기가 어렵지. 그저 말끝마다 나쁜 말을 쓰라.”

고 했어. 의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산지 좃인지 오늘인께 그저 잡수세요,

잡수세요.”

또 한 집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또,

“자네, 오늘 저녁이 무슨 잔치를 이렇게 했나?”

무어, 무엇을, 무어를 혀.

“예. 어제 저녁이 우리 아버지 재산지 좇인지 지냈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알고 잡수세요. 잡수세요.”

여전히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인제 어려서부터 말투가 그랬다는 걸 여러 사람들이 인증을 해 줬어. 그래가지구서는 그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았고.(웃음) 그래 그 마누라가 피를 내갔구, 그렇게 참 지사를 헛지사를 지내서 동네 으른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잔치를 먹었어. 떡구서는 처벌을 안 받았어. 그 사람 말투가 그렇다는 것을.

14 저승갔다 온 구두쇠

이정희(72, 여)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방금 구술한 이야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면서 또다시 해 달라고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아 그냥 잘 사는데 어떡해 지독해서 생전 누구 뭘 안 주는 거여. 덕을 베풀지 않애. 너무 지독해 갖구. 그래 인자 그지가, 그지가, 그지가 와 갖구,

“밥 좀 달래.”두

“저 가 문 닫으라고. 밥 밥 안 준다고 문 닫으라.”

고 했어. 그래 문을 닫고, 생전 누구 글허게 덕을 베풀은 게 없어. 그러는데 한 번은 떡을 해갖고, 인절미를 해갖고, 인절미를 먹고 하는데, 그지가

와서 그걸 보니께(남편이 술먹는 것을 챙건) 자꾸만 먹어가지고 싶어서,

“그저 나 떡 좀 하나 달라고. 하나만 달라.”

구 그랬어. 그러니께 떡을 인절미를 이렇게 세 개를 던져줬어, 마당에다. 던져주니께 그 떡을 세 개를 집어 먹었어. 그러구서 아무 것도 적덕한 게 없구서는 그 그지 떡 세 개 주, 인제 던져준게 그게 적덕이여.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인제 너무 지독한 양반인게 병석에 누워 있는 거여. 병석에 누워 가지구서는 이제 저승엘 갔어. [조사자 : 죽어서요.] 그려. 이렇게 정신을 놔가지구서 저승 길을 갔어.

저승이 가니께, 인제 공허고 그 죄허고. 이 사람이 공이 얼마나 많은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저울로다가 달더랴, 죽어서. 저승 길 이서도 그냥 지름가마 그냥 설설 끊는데, 그 막 거기다가 지름, 지름가마도 있는데, 죄 많은 사람을 거기다가도 집어쳐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죽어서 그렇게, 그런데 식구들은 다 ‘죽었다’구 울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 그런데 한두 시간 그렇게 저승길을 갔다가 이 사람이 깨어 났어. 깨났어. 깨 나가지고 그 저승길이 가니께 그렇게 남에게 적덕하고 인심 베풀고 착하게 한 것이 그게 공이 많 많고, 나쁜 놈들은 막 지름가마 속이다가도 집어쳐 놓고, 그렇게 죄벌이 많드랴.

그래서 이 사람이 깨나가지고는, 그때 막 그냥 쌀가마니도 인제 헛 풀러가지고서 읊는 사람, 두 말도 주고, 세 말도 주고 아무고 공덕을 베풀었다, 응.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 깨나가지고서. 그래 그런 전설이여. 그렇게 덕을 베풀었어.

[조사자 : 죽었다 깨나가지고서.] 죽었다 깨나가지고. 식구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야단하는디, 두 시간만에 깨나가지고서 인제 이 양반이 이렇게 남에게 인심, 적덕하는 게 큰 공이더라. 내가 이 재산을 이런 걸 남에게 너무 지독한 채허고 인심을 안 베풀었다 그런 거여.

15 모현의 유래

이종우(69, 남)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니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마을의 지형의 유래에 대하여 알려 달라 하니 이야기를 해 주셨다.

정몽주라는 분이 고려 충신 아니여. 문관이거든. 그 분이 여 모현리로 능골이란 데로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그때는 해외로 걸어서 온 거 아니여. 그런게 능골에 기가 그 멈춰가지고 그 왜 행 간계. 그래서 거기다 모셨다고? 그 능골에 정포은 산소가 있는디, 이북 사람도 잘 모르더라구 그래.

능골에 있어. 정풍원 산소. [청중 :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능골에 여기. 그렇지 뭐 그거.

16 도서리 뱃모루의 유래

이종우(69, 남)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도깨비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황당에 걸려 있는 옷가지로 보았다는 실화를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래서 생략하고 뒤에 구술한 이것은 이곳의 지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① 도서리의 유래

도서리 앞에 거기 도래끝이라고 있거든. 산모랭이에. 그 왜 도래 끝이라 하며는 거기가 산 밑인데.

이렇게 휘맥이 짙은데 소를 갖다가 내다 매며는, 송아지는 그 이미
기라고 그게 와서 잡아먹고. [조사자 : 이무기요?] 응 도래만 남아서
도래 끝이라고 거기 현재 있고.

② 뱃모루의 유래

여기도 둔전 앞에 그 배, 여기는 배모루라고 허는디, 배머리. 배를
닷던 데여. 거기 명지꾸리 하나가 다 들어갔는데 인자 뒤편에서 지금
뒤, 건천지수일테지 뒤. 그렇게 된거여.

옛날에는 또 그짓말도 있었지만, 실지가 뱀이 엄청, 이무기니 그런
게 무서워서 물어도 잘 못들어 가구 그랬다구. 물 뱀도 옛날에는 많았
어. 우리 어려서도. 근데 없어졌어, 뱀이. 근데 용같은 건 몰르고.

그리고 성산에 저기 지우(기우)제를 그전이 지내는데, 그 군에서 비
가 안 오며는 군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그냥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오고
그랬어, 그것. 기우제 자리가 있어, 지금 통신대 자리 거긴데. 그런거
지 뒤, 아이 몰러 그것.

17 진정한 친구

황순악(77, 여) / 둔전리 3앞

[둔전리] 박중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도중에 제보자를 만
났다. 검은 봉지를 손에 들고 있는 제보자는 옛날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았지
만, 한 번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쾌히 응락하고 길가 옆의 벽돌에 앉아서 이야기
를 시작하여 주었다.

하도 아들이 친구를 좋다고 밤낮 드나들더래요. 드나든다는데 하도
친구한테 빠져서 댕기니까, 아부지가,

“너 친구가 그렇게 저기 유정하다면 나하고 완전히 한 번 가 보자.”
그랬어.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탱이다 말아가지고, 길 아들에 지켜가지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아들 친구집을.

“야, 야! 어찌다가 내가 살인을 했다. 이거 좀 어떻게 감당 못하겠냐?”

그러니까 아들이 절대로 반대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집에 갔어.

“이 사람아! 내가 어찌다가 일을 이런 저질,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는 말이,

“아, 이 사람아! 우선 들어서 보세.”

어느 친구가 옳은 친구여. [조사자 : 아버님 친구죠. 어서 들어오라고.] 그질로 아들이,

“내 친구는 진짜 우정이 아니고, 응 그 한 사람이라.”

하고서는 딱 그 친구를 그렇게 참말로 동, 저기 제 몸과 같은 친구를 아니고는 사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곤쳐 주드라. 어때.

18 어머니의 병을 구한 효자

황순익(77, 여) / 둔전리T 3앞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는 조사자들에게 “어때” 하고 질문하였다. 조사자들이 아주 좋은 이야기라며 또 다른 이야기를 청하자마자, 곧 이어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대구서 건너오다가 박씨네, 박씨네 집안이라고 그러더라구. 그런데 어머니가 아픈거라, 시어머니가, 아파 누었는데 디게 앓는거야.

“야, 야! 나는 산삼을 한 뿌리 먹었으면 낫겠다.”

그러니까. 아들 이 며느리가 산삼을 어떻게 구해. [조사자 : 그렇죠.] 그래 산삼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새벽달에를 서당에 갔다가 쫓아오는데, 할머니가 그걸 삶아 달리는 거라.

“거기 산삼이니까, 삶 삶아서 달라.”

는 거라. 그러니까 아들, 며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을 놓은 자식이고, 음 부모는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서는 저기 삶았다, 애를. [조사자 : 애 다리랴요?] 아니. 애를 그냥 술에 넣고 삶았다. 삶아서 이래, 자식을 술에 넣고 이 마음이 어떻겠어.

[조사자 : 가슴 아프죠.] 눈을 감고 불만 때는 거라.

때다 보니까 그릇 나중에 아들이 툼툼 오는 거라. 책 보다리를 틀고 서당에 갔다가 그래 오는데, 깜짝 놀라 술을 열어보니 동삼이 동 떠가지고 있더라. [조사자 : 산삼이요?] 응. 그래서로 그걸 먹고 어머니가 나왔더라요. 그만큼 효도가, 예전에는 효도하면 그렇게 받았다는 거여.(웃음)

19 복 돌려주고 복받은 사람

황순악(77, 여) / 둔전리T 3뒤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더 아는 것이 없냐’고 묻자, 제보자는 ‘잠시만 생각해 보자’며 약간을 생각하였다. 잠시 후에 생각이 났는지 다시 구술하였다. 이야기를 길가에서 수록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이 심하였다.

한 사람은 저기 거시기 가가지고 뭐라 저기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 바보 아들이 저기 옛날에는 불을 기름이 있어야 켜잖아. 기름, 기름은 기름을 훔치러 창고에 들어갔어요.

저기 부잣집에 물건을 재 놓는 데를. 그런게 곳간에 들어 갔니까,

어떤 사람이 저기 들어가니까 막 사무를 보더래요. 공간에서. 사무를 봐서로 들어가니까 막 소리소리 지르더래요.

“이 사람, 어 어째 뭐 때문에 여기 들어왔냐?”고.

“우리 아버지 기름 훔치러 왔다.”고.

“이 재산이 네 아버지 재산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이웃에 아무 것이 가 사는데 이름은 모른다, 개가. 얻어 먹고 사는 걸보생이 하나 있는데, 거지가 하나 있는데 개 재산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너 아버지가 우선 맡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바보래도 그게 이상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를 불러왔어요. 불러 와가지고,

“너는 내 수양아들 하자.”

고 하니. 얼마나 좋겠오. 얻어먹고 땀기던 게 부잣집에 ‘수양아들 하자’ 하니까. 그래 수양아들을 해가지고 개가 잘 키와가지고, 공부도 시켜가지고 장가들여 살림 하나 툇 띠어주니도 자기네 거는 그냥 남잖아. 그럴 욕심치고 그냥 다 가지고 있었으면, 개가 다 빼가는 거라. 우리가 이래 몰라 그렇치, 다들 자연으로 다 뺏기게 된데요. 예전사람들은.

지금들은 뭐 저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래 믿고 하니까 미신이 없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래 가지고 양쪽 집이 다 잘 살드래. 게가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못 잇는거라. 왜 못 잇느냐 하면 그 부잣집에서 그렇게 잘해 줬으니까. 원칙은 재산은 게 복인데, 게 복에 재산인데 그렇더래요.(웃음)

20 명당 복 못 받은 살인자

황순약(77, 여) / 둔전리T 3뒤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큰 총각들에게 해 주는 것이 우스운지 이야기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할머니께 또 다시 이야기를 부탁하자, ‘어때’ 하며 다음 이야기를 해 주셨다.

중이 있더라요. 예전에 도승이 지내가다 보니까 어떤 총각이 머리를 풀고 발을 갈더라요. 도시락을 이냥 걸어 놓고. 그런게 가서로 물어봐서 그 중이. 그 도선이란 중이 내려가서 물어 보니면서,

“여보소, 이 총각! 머리를 풀고 일을 하니 왜 일어나고. 그 밥을 달라.”
고 하니까. 그 도시락을 주더라요. 그래 자꾸는 물으니까, 그 사람이,

“아비하고 둘이 그 집이서 나무(남) 집을 살다가, 나무 집에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다.”

는 거여. 죽은 데도 주인이 일을 하라니까 하는 거여. 그래서러 참 좋은 묘, 묘자리를 삼 년 안에 부자가 되는 묘자리를 구해 주고 갔대요. ‘삼 년 후에 이 사람이 부자를 살겠다’ 하고,

“아이 저 묘가 왜 저리 묵었소.”

그러니까. 하는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묘는 어떤 땡땡이가 지나가면서로 잡아주었더니 개가 사흘만에 죽었다.”

고 허요. 그러니 도선이 기가 맥히잖아. 그 산에 올라가서 떡 폐철을 놓고, 떡 퍼놓고 본다. 아무리 봐도 그 산은 명산이라, 그 자리는. 그런데 그래 폐철을 돌을 찍으니 이 저 때려,

“이까짓 거 가지고 남 신세여, 죄의 또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딱 때릴라.”

고. 올려놓니까 산신이 소리를 치더라.

“아니다. 네 폐철이 나쁜게 아니다. 그 애비가 사람을 살인을 했다.”

그러더라요. 그래서라 살인을 한 켜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 자형(좌향)까지 다 가리켜 쫓는데 산산이 자형을 비뚤게 했다는 거다. 그 자릴 들어왔을 자격이 못되는 거라.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을 하면 안 돼. 자손까지 망하니까.

그 지금은 이런 청년들 보면 어떤 사람 무서워요, 나는. 응 학생들도 우리 집에도 이레 넘어다보면,

“뒤흔하는 사람이요.”

그 얘기하면 안 돼잖아. [조사자 : 기표.] 그러니까 살인이고 남한테 해롭게 하면 안 된다 그거여.

㉑ 단일 백 석 할 명당

황순악(77, 여) / 둔전리T 3뒤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유형이라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질로 가다니끼 어떤 총각은 또 머리를 풀고 관을 짚어 지고 산을 올라가도래요, 혼자. 그래서 또 물었더래요. 물으니까, 그 사람 역시도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서 묻으러 혼자 가는 거라. 하도 딱하니까 또 가르켜 줘어.

“저 가서 물어놓고선 막 울으라.”

고 했어.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 그러면 단일 백 석을 한데요. 단일 백 석. 하루에 백 석을, 그 자리는. 그 단일 백 석 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이래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로 그 사람이 인자 관을 갖다 물어 놓고 울었어. 진짜.

울으니까 어떤 참 과부가, 청춘과부가 결혼하지 며 칠 되지 않았는데 신랑이 죽어서 그 사람도 산소에 와서 우는 거라. 그래가고 결합이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와 백 석이, 예전에는 백 석이 부자야. [조사자 : 기표.]

백석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는 백석이라면 참 부자여. 그리 단일 백 석 하드래요. (웃음)

22 화적떼 회개시킨 사람

황순익(77, 여) / 둔전리 T 3위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제보자에게 ‘지금까지 해 주신 이야기가 아주 좋았다’며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잠시 생각한 뒤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도적떼를 회개시킨 오백나한의 변형으로 보인다.

한 사람은 또 저기헌데, 그건 참 짹막헌데. [조사자 : 짹막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화적떼라고 있었대요. 화적떼. 화적떼가 있었는데, 화적떼가 동네 들어오면 그 그만 동네는 다 망치고 간대요.

다 털어가지고 가는데. 그래 이웃지 그 화적떼들, 지금도 깡패들 나쁜 사람들 오면, 그 사람이 밥 해 먹고, 젓 국 끄려 먹는 거 다 한다면서.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대요. 누구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이는데, 어떤 참 못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날 저녁 때 화적떼 들었다고 소리 듣고 청하더라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잡시다.”

구 그러니까. 그래 청해가지구 갔더니, 참 만반진수로 해 놓거라. 그러니까 이 화적떼들이 깜짝 놀란거라. 놀래가지고서나 그러는 거여.

“아유, 서방님! 이게 워젠 일이냐?”

고. 때도 굶는 사람이라, 그래 ‘워젠 일이냐’니까.

“이 사람아! 우리 조상이 예전에 어떻게 했냐고 허면,”

수수 알아요. 수수. [조사자 : 예 알지요.] 수수를 예전에는 그거를 밥 위에 찌셔도 까먹고 그랬요. [조사자 : 빨간 거요.] 응. 그래 수수 앞청으로 빗자루 만드는 거. 그래 이제,

“수수 이삭을, 남의 농사지어 온 걸 하나를, 하나를 그냥 먹었대요. 따 먹었더니 그 죄로 이렇게 못 산다. 아버지가 잘못된 그 나무(남의) 곡식을, 농사 지어서 주인이 먹지 않은 것을 먼저 따 먹었기 때문에 그

죄로 내가 못 산다.”

고. 그 화적떼들이 그 자리에서,

“수수 이삭 한 동가리 까먹었는데 이렇게 자손만대 못 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자손들이 어디 갔나.”

고. 그 자리에서로 회개하고 딱 들어가지고 그래 다 고치더라, 마음음.(웃음) 알았어. 그랬다고 허드라고요.

㉓ 수수씨 재판

황순익(77, 여) / 둔전리T 3뒤

[둔전리] 박종수, 강현모, 김응빈, 이우형, 염재현, 김경희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는 처음에 잘못 생각하였던 점을 반성하며 그저 제보자에게 고마워 할 뿐이다.

그러고 친구간에, 친구가 참 서로, 너는 아들 노으면 서로 며느리 삼기로 하고, 이래 거시기 하고 이려고 했는데. 도대체 한 집은 아 자식을 못 낳,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아들을 8남매나 나가지고 딱 정신 없이 살고.

그러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 애기는 못 놓는 친구가 그 애기 놓는, 잘 놓는 사람한테 가서 신랑을 하루 빌렸어요, 친구를.

“오늘 저녁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인하고 하루밤 동거하라.”

고. 그래 빌렸더니 가서 하룻밤 잤더니, 그만 애가 돼가지고서는 아들을 참말로, 참말로 말도 못하게 잘 낳았어. 그래 낳는데 그 애가 출세를 해가지고, 공부도 잘 하고 출세를 해가지고 딱 이집에는 못 살어서 8남매나 되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도 뭐, 뭐 빌빌하지.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고 허느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친굴 보고,

“이거 발표하겠, 폭로하겠다.”

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애기 놓, 예전엔 그 집도 가서 들어서도 불도 안 켜고 신랑인 줄 알고, 신랑을 몸을 쫓았는데, 그것이 애를 낳았어. 그래 인제 큰 걱정을 앓고 누웠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밥도 안 먹고 앓고 누우니까 칼을 들고, 아무리 물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칼을 들고,

“우리 둘이 죽자고. 안 가르쳐 주면 나는, 나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같이 죽자.”

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다.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걱정 말라고. 아버지, 그것 조금도 걱정 말라.”

고. 그래 인제 판가에 갔어.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일이 있으니, 참 그래 인재 수수가, 수수가 밭에다가 송겨는데, 참 그 씨가 밭에 밭에 떨어져서 수수가 났습니다. 그 이삭을 밭 주인이 먹어야 합니까, 그 수수 씨 주인이 먹어야 합니까?”

하니까니,

“주인이 먹어야 한다. 주인이 먹어야, 밭 주인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로 잘 해결이 됐지.(웃음)

4) 민 요

① 백발가

성찬근(71, 남) / 둔전리T 1앞

[둔전리 재원주택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유명, 조은미, 김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앞 설화 3번의 이야기를 마친 뒤에, 옛날에 불렀던 백발가가 있다고 하여 조사자가 요청하자 음영조로 구술하여 주었다. 노래의 중간 중간에 잊어버려 반복하거나 생각하는 내용을 생략하고 가사만을 나열하였다.

슬프고도 슬프도다

이 세월이 권고한 듯

어이하여 슬프던고.

태산같이 믿었더니

백 년 가업은 못 다해도
 아 청춘 청년들아
 덧없이 가는 세월
 적은 듯 늙은 것이
 소문없이 오는 백발
 청자없이 오는 백발
 이리저리 하여봐도
 일(인)품으로 제일하면
 욕을 허면 한 번 거절하면
 드는 칼을 휘두르면
 소진자의 소견으로
 참 좋은 술을 많이 빚어
 맛난 진수 차려놓고
 할 수 없는 저발 사람
 인생부덕 항소년은
 삼천 갑자 동방석은
 18만년 가던 팽정
 고금같은 이 세상에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이오
 칠팔십을 산다 해도
 창해에 글자 대책
 진시황 분서시에
 입이곳 사정없이
 늙기도 늙거니와
 삼팔(발)같이 귀변머리
 불테기에 있던 살을

백발되니 슬프도다
 백발 노인 웃지 마라
 너는 아니 늙을소냐
 한심하고 슬프도다
 귀 밑에는 은약하고
 발걸음이다 저승이다
 오는 백발 금할소냐
 무안해서 아니올까
 노여움 되어 아니올까
 겁시 나서 아니올까
 달래보면 아니올까
 권하면 아니올까
 빌어보면 아니올까
 사람마다 달려온다
 풍월전에 명담이오
 전생 후생 초문이라
 고금분투 또 있느냐
 촌음같은 인생
 이슬의 양해로다
 일장춘몽 꿈이로다
 가중하다 늙을 노자
 타지 않고 남아 있어
 세상 사람 다 져히네
 문양 자체 늙어구나
 도양당이 쳐 갔으며
 마귀할미 꺾었다.

3. 삼계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삼계리는 포곡면 면사무소가 소재한 곳으로, 용인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10분 가야하는 곳이다. 이 삼계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상곡, 두계리, 도사리를 합하여 이름하였다. 일부에서는 원수골, 승저골, 도사리의 세 시냇물이 한 곳으로 모여 흐른다고 해서 삼계라 유래하였다고 한다. 두개울, 두계울이라 부르는 지역은 원래 흐르던 하천의 이름이었으나, 토사가 쌓여 개울이 막히고 마을이 생겨 그대로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시는 모현면 초부리와 연결하고 있는 곳으로, 안동권씨 권도사가 처음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당곡 또는 상곡은 충북 음성군 당곡 사람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옛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한다.

삼계리는 동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에 하천과 평야가 위치하고 있다. 큰 도로가 남북으로 나 있고, 용인 에버랜드가 들어가는 전대리로 가는 길이 서쪽에 나 있다. 조사자들은 삼계리에 11시에 도착하여 우선 가게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있음직한 노인정을 물어서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가게로 가서 마을에서 옛날 이야기를 잘 하는 분(류남례)을 소개를 받아 집으로 찾아갔지만 역시 안 계셨다. 다른 곳을 찾아보기 위하여 집을 나와 가게 앞에서 망서리고 있을 때, 마침 류남례 할머니가 가게로 와서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설화를 채록하기 시작하였다. 류남례 할머니는 처음에 아는 얘기가 없다며 머뭇거리다가 조사자가 알고 있는 2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주위 청중들이 응원하자 자연스레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제보자의 집과 가게 앞을 오가며 채록할 수 있었다.

2) 제보자

(1) 류남례(82, 여)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마을에 도착한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물어 찾아가 보았만 문이 닫혀 있었다. 가게에 가 마을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분으로 소개를 받은 제보자를 집에 찾아갔지만 안 계셨다. 다른 제보를 소개받기 위하여 가게로 나왔을 때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머뭇거리, 조사자가 먼저 2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응원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수원이 고향이 제보자는 22살에 이곳으로 시집을 온 이후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제보자의 이야기는 친정인 수원에서 들은 것이 많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차량으로 몹시 분주한 곳이어서 소란스러웠지만 차분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는 대체로 단편적인 것으로 길이 매우 짧았다.

제공자료 : 설화 1~10.

(2) 채용묵(78, 남)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류남열 할머니 댁에서 나와 가게집으로 찾아가서 새로운 제보자를 물었다. 그때 가게집 주인 할머니는 조사자들은 인도하여 한 가정집에 가게 되었는데, 찾아간 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그 분은 조사자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로 유도하자, 고시래의 유래에 대해 한 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구술하지 않았다.

제공자료 : 설화 11.

(3) 최일순(69, 여)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채용묵 할아버지 댁에서 채록하고 있을 때 주인 할머니께서 오셨다. 할머니는 조사자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다며 옆집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그 곳에는 6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계셨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제보자였다. 제보자는 올해 효부상을 수상하신 분이였다. 제보자는 성격은 적극적이고 활달하였으며, 조사자들에게 친절하였다. 제보자는 사람에게 붙임성이 좋아 사람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신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2~15, 28, 30.

(4) 최영목(63, 남)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가게 앞에서 채록하고 있을 때, 할머니들 옆에 앉아 쉬고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청하였다. 제보자는 처음에 아는 것이 없으며 사양하다가, 조사자의 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듣고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할머니들의 짧은 이야기에 비하여, 긴 장편적인 것이 특색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제공자료 : 설화 17~20.

(5) 구은모(? , 여)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최일순 할머니댁에서 나와 가게 앞 정자나무 앞으로 왔다. 가게 앞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쉬고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학교에서 가르킨 경력이 있는 분 같았다. 성격은 친절하고 자상하였는데, 이야기도 매우 재미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6, 21.

(6) 안종석(45, 남)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가게 앞에서 최영목씨의 조사를 마치고 또다른 제보자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녔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큰 느티나무 밑에서 5명의 아저씨들이 모여

답소를 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나이는 젊은 편인, 이장님이 선뜻 나서 이야기판에 형성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옛날에 어른들한테 듣기도 많이 하고, 책에서 많이 보았다고 하면서 이야기와 민속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22~23, 25~26.

(7) 안종숙(66, 여)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이장과 우체국장에게 채록이 마치고, 앞에 구연해 주신 최일순 할머니 등이 모여 쉬고 있다는 안종숙씨 맥을 찾아갔다. 그 곳에는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답소하고 있는데, 찾아가니 '또 왔다'고 하면서 반가와 하였다. 제보자는 올해 효부상을 타신 분으로, 이야기를 침착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성격이 차분하고 매사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는 분이였다. 그리고 제보자는 이장님의 누님이기도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27, 29.

3) 설화

① 꼬마 신랑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앞 평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노인정이 달혀 있어, 마을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제보자를 소개받고 집에 찾아갔지만 안 계셨다. 가게로 다시 나왔을 때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머뭇거렸다. 그래서 조사자가 2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응원하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친정인 수원에서 들은 것이라 한다. 조사장소는 마을 사람들과 차량으로 몹시 분주하였지만 차분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그랬는데, 응 신랑이 어리거덩. 그래도,
 “아주머이! 아주머이! 나 누룽지 좀 줘.”
 그러니께, 인저 아무도 읍거덩. 아무도 없는데,
 “이눔우 새끼! 밤낮 아주머이, 아주머이, 누룽지 달란다.”
 구. 그래구 응 호박, 박이 딸 데(때) 됐는디, 지병(집봉)으로 던졌어. 지
 병으로 던졌는데,
 “너는 왜 지병에 가 들어댁기니?”
 그러니께,
 “아이, 박 굳었나 보러왔지.”
 그러드래. 그러드래. 그랬는데 어리다구 늠블 거 아녀. [청중 : 어리
 다고 앓보지 말라 이거지.] 그렇지. 이저 고만이여.

② 결혼 첫날밤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의 민속에 관해 물었다. 이때 결혼에 대
 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첫날밤의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속을 중
 심으로 된 끝부분에 설화의 잔영이 있어 그대로 실었다.

그전엔 일광문 아녀. 그러면 인저 시약시 옷을 어떻게 부치나 고거
 불라고 침으로 요렇게 해고.(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를 찢는 시늉)
 창호지를 찢고 요렇게 디리다 보는 거여. 어떻게 옷을 뺏기나 허구.

그러문 먼점에 왼편쪽 발 먼천 뺏기고, 버선을 먼점 뺏기고. 이 저
 기 비나 꽃은 거 있잖여. 그거를 빼놓고 쪽두리를 뺏기는 거여.

근데 밤새도록 이눔어 신랑이 옷을 안 뺏기거덩. 그러니께 지가 홀
 홀 벗고 자드랴 그거여. 인저 읍져.

③ 귀한 흥시감을 구한 효자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상] 박중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더 이상이 없다’고 사양하는 제보자에게 조사자가 효자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집오기 전에 친정이었던 수원에서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응 한 사람이 어머니가, 지끔은 감이 혼하지,

“감을 먹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깊은 산중이로 감을 구해러 가는 거여. 감을 구해러 가닝께 저 산신령님이 길을 딱 막고,

“아!”

하고 앉았더라. 그래서,

“아이 신령님! 우리 어머니가 감을 잡썬야 산다고 그래서 감을 구해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벌긴 걸 보니께, 새떡(새택)을 잡아먹었어. 여기 목구녕에 가 걸렸어, 산신령님이. 그래서 그거를 손을 너서 꺼내 줬어. 끄내 줬더니 그래도,

“등어리에 가 엮히라.”

고 그래드래. ‘여기 올라 앉으라’고. 그래서 인저 앉으라고 등어리를 내면서 그래니께, 거가 올라탔어. 고 감이 있는 집을 산골, 산골 감이 있는 집을 가 감을 세 개를 얻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응 의형질 맺었어. 신령님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가면은 몸을 감추구. 어딜 갈래면 그 신령님 등어리에다 엮고 가고 그랬어. 그거 밖에 몰러. 그래 어머니가 살었어.

④ 삼천갑자 동방석의 최후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동방석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은 기억력의 한계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구술하였다.

방석, 동방석. 밤낮 응 이 동방석을 붙들러 맹기거덩. 그러니까 개울에다 숯을 빠는 거여, 숯. 숯을 빨어야 밤낮 꺼먹 몰만 나오지. 나와.

그랬는데 아이 암만 붙들래도, 동방석을 붙들래도 안 붙들리거덩. [조사자 : 그래서요?] 그랬는데, 아이 죄 잊어 버렸어. 그랬는데 아이 이늬어 동방석을 붙들을래도 시상 붙들 수가 읍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삼천갑자 동방석을 그 숯을 밤낮 빠니까 당체 붙들을래두 못 붙들었어.

고래가주구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붙드나 그랬더니, 그래두 응 이늬어 숯을 빨다가, 어떻게 개울을 건너다 아이 붙들렸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죽어서, 배쪽을 쥐서 백쪽 했다.

⑤ 하나님 이 된 아이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수수대가 빨갭게 된 이야기의 변형으로 아이가 한 명으로 나타나 있다.

어디 갔다 오는데 호랭이가, 산신령님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옛날 얘기 해란다’ 라고 소리 지름.) 그런데 떡을 해가지고 오는데,

“나 좀 주면 안 잡아 먹지.”

그걸 췌 뺏어 먹었어. 하나 주구, 하나 주구 냈더니, 인저 아무 것도
없지. 그 호랭이가 이,

“나 이 다리 하나를 떼 달라.”

고. 그래 그래서 아이 다리를 떼 주니께 걸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아 그래서 죄 주구 나니께,

“이 팔을 마저 떼 달라.”

팔을 마저 하나를 떼 달라. 떼 주구 냈더니, 떼 주구났더니 이,

“나 고 팔 하나 마저 떼 달라.”

고. 그래서 호랭이가 인저 그럭저럭 죄잡아 먹었어. 엄만 하나를, 가서 명
짜주구 오는데, 가서 그 호랭이를 죄 떼주구 냈더니 인저 몸뚱이까정 다
맥혔어. 그랬는데,

“애들아!”

그 엄마네 집이 가서,

“애들아! 문 열어라.”

“어머님 목소리 아닌데.”

그러니께.(주위 사람에게 더웁다면서 그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함.)
그랬더니,

“아니다. 느이 언니네 가서 명 짜주구 오느라고 목소리까장 변했다.”

“어디 엄마 손인가 이 구녕으로 너 봐.”

그러니께. 그래 아이 느니께 털이 수북해거덩.

“우리 어머니 손이 아닌데. 왜 털이 났어.”

“아니다. 명 짜느라고 셋질 얹아서 그렇다.”

아이 그런데, 응 담구녕으로 이눔어 대가리를 디밀고 들어와서, 애
들을,

“똥 마렵다.”

고 그러니께.

“울(웃)먹에 가 누워라.” 그래서.

“엄마한테 매맞게!”

“괜찮다.” 또,

“저 아랫목에 가 누워라.”

“엄마한테 매맞게!”

그래구 몰래 빠져 나와서 저 낭구로 올라갔어. 느티낭구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응,

“하느님! 하느님! 이래두 죽어야 옳음니까? 살아야 옳음니까? 그러니까 날 살릴래거덩 새 동아줄을 내려 보내구, 날 죽일래문 혼(헌) 동아줄을 내려 보내시오.”

그랬데요. 올라 간거여. 하느님이로 올라 간거여. 그래서 살았는데, 그 호랭이가,

“날 죽일래거덩 혼 동아줄을 내려 보내구.”

고. 쫓아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잡아 먹을라구. 그랬더니 그 동아줄을 타고, 혼 동아줄을 내려 보냈어. 그래가주구 혼 동아줄을 내려 보냈는데, 반쯤 올라가다 이놈의 동아줄이 딱 끊어져가주구, 응 그 쭈시강에 빨건게 호랭이 똥구멍 찢러서 피여, 피. 나 인저 다 했어

6 정성드려야 할 제사밥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성계의 지리산 산신제>와 같은 유형이다.

머리카락이 국에나 밥에나 들어가면 구렁이 들어가고, 또 밥에 돌맹이가 들어가 바위가 들어서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조사자 : 조상님이요?] 죽은 사람 혼이 와서. 안 먹고 가는데.

응 소금장사가, 소금장사가 가다가 저기 날이 저물어서 저런 산속

이렇게 들이 있는 데서, (녹음에 대한 제보자의 대화 생략) 소금장사가 그 모이 새(사이)에서, 썩분인데 모이 새에서 자니께 마누라,

“아니 영감!”

“예!”

“저 우리 밥 좀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께.

“마누라나 갔다 오오.”

그 소금장사가 거기서 자니께 응.

“손님이 오셔서 나는 못갈테니, 영감, 마누라나 갔다 오오.”

영감이 그랬어. 가니께 저 산에 청솔가지를 꺾어다가 그거루 밥을 진겨여. 연기는 나서 눈을 뜰 수는 읍구. 근데 막 밥을 지어서, 밥을 지니께(웃음) 밥을 지니께 그래, 그래가지구 그 언네를 화룻불에다 떼 다박질러서 궁텅이를 제짚어.

“그래, 가서 잘 먹구 오우?”

그렇거구.

“잘 먹는지 못 먹는지, 응 불화로에다 내가 집어쳐 놓구 왔수.”

“그게 무슨 짓이오, 응 그냥 오지.”

영감이 그러니께.

“어떻게 화딱지가 나는지. 응감도 못하고 딸네 집에 가서, 응 딸네 집이 갔더니 냉이죽 한 사발 썰다가 장뽕에다 눈 걸 그걸 먹구 왔소.”

그래거덩.

“그게 무슨 짓이오?”

“뒤, 내 내가침(내일 아침)에 쥐메털(산소에 나는 풀의 일종이라 함.)을 뜯어다가 참기름에다 개서 발르른 금방 낫구 자빠져.”

마누라가 그래드래.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사람이 가보니께, 아침에 지살 지내구 그 모두를 지물들(음식)을 풀어 멕이거든. 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산소에 있는 쥐메털을 뜯어다가 그거를 참기름을 발라서 사흘만에 떨걱떨걱 딱지가 떨어지더라.

인저 다 했어. 그래서 그 언네를 그래서 봤다구.

7 개암과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이야기는 초반에 <도깨비 방망이>로 시작하였다가, 뒷부분에 <우렁 속에서 나온 미인>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저 산에 가서 낭구를 했는데, 이놈어 까암(개암)이 하나 툅 떨어지거덩. [조사자 : 깔비?] 까암. [조사자 : 아! 까암이 무슨 뜻이지.] 까암이라고 있어. 근데 그게 툅 떨어지니께,

“아이구! 이거는 우리 어머니 디리야지.”

또 하나 툅 떨어지니께,

“응, 이거 우리 형님 드려야지.”

또 한 개 툅 떨어지니께,

“이거는 우리 아주머니 디리야지.”

또 하나가 툅 떨어지니께,

“이거는 나 먹구.”

맨끝이로,

“이건 마누라 주구.”

아이 그랬는데. 논두렁을 각으러 갔는데, 베(벼)가 우구시 됐는데,

“이거를 누구허구 먹자구 이걸 가꾸나!”

그랬는데.

“나하구 먹지.”

그래는 거여. 우렁이가. 소라가 그래니께, 인저 그게 아주 또 그러니께, 아이 여전히 그래거덩. 논두렁 밑을 보니께 소라 한 마리가 있어. 그걸 갖다가 물뚜멍에다 놓어. 물뚜멍에다 그랬는데, 아이 어딜 갔다 오면 이쁜 새댁이 나와서 밥을 해가다가 상을 바쳐서 놓구 그래. 그래

서 끌어 안으니께, 인저 지킨거여. 지켰는데, 끌어 안으니께, 그래서,
 “나 때가 안 됐다구. 놔 달라.”
 구. 그래서 그랬고 잘 살다 죽더라.

⑧ 콩쥐 팥쥐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콩쥐와 팥쥐의 이름이 중간과 끝에서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야기는 처녀 적에 수원에서 들었다고 한다.

콩쥐팥쥐가 응 나이 저 어머니하고 서모거덩. 콩쥐팥쥐는 나미(나무) 호미 주구, 의붓딸은 나무 호미를 주구. 또 저기 직그 들어온, 데(제)가 데리고 들어온 딸은 쇠호밀(쇠호미를) 줘어. 가서 쇠호미를 주구 모래발을 즈의 딸은 매라고. 이진 나무 호밀 주구 저런 잔디발을 매는데, 나미 호미가 잘 들어 가느냐 말여.

그래가주구 인저 즈의 어머니 죽은 혼이,
 “얘! 뒷물에 가 손 씻고 앞물에 와 낮 씻구.”

끔은 황소가 내려오더니,
 “뚝 벌기라.”

고 그런거여. 초마를 벌리라구. 그래서 그거를. 그런게 이전 팥쥐는, 콩쥐가 의붓 딸인지 콩쥐가 팥, 나미 호미 준 지가 난 딸인지. 갔는데,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안 열어 주거든. 안 열어 주는데.

“내, 뭐 주께.”

“뭘 줘?”

이 문틈으로 췌 뺏구는, 그때서 열어 준 거여. 열어 줬더니 죄 뺏구

열어 줬는데,

“저기, 나하구 우리 어머니 하구는 우리 오삼촌네 장가 드는데 간다. 너는 저 명석에,”

명석을 한마당을 넣어 놓구. 의붓어머니가 어디든지 달려. 그런데 한마당을 넣어 놓구.

“응, 이거 죄 썩어서 퍼다 붓고, 밀빠진 독에다가 물을 한술 들어다 붓구 오라.”

고 그랬어. 그랬는데, 아이 새가 그 명석으로 하나가 와서 그걸 죄 까놓는 거여. 그 어머니 죽은 혼신이 와서. 근데,

“우여! 우여! 나는 그걸 으퓌해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후루루 날아가는데 꺾대기도 흘랑 날라갔지. 그래서 그걸 독에다 퍼다 붓고. ‘밀빠진 독에 물 한술, 물 한독 여다 붓고 오라.’고 그래서, 그놈으 걸, 아이 그래구 꽃대 신(꽃신)을,

“잔치에 가라.”

고. 그래구 잣다 줬는데. 아이 그걸 신구 응 정말 가마를 타구 올라가니께, “저 콩쥐 온다.”

구. 인저 그랬어. 그랬는데 그 콩쥐가, 콩쥐가,

“응, 나만이 빠 놔.”

그랬는데. 아이 발을 이러구 흔들구 가다 고기에 웅달 우물 하나가 있거덩. 아이 거기다가 신발 한 짝을 빠쳤어. 그랬는데 신발 한 짝을 빠쳤는데, 아이 우뚜머리 대장 그 사람이, 거가 서기가 뻔치니께 가다가,

“저기 좀 가 보자.”

고. 신발 짝을 건졌어, 그 사람이. 우뚜머리 그 장관이. 그랬는데 이걸,

“이 신발 찾는 사람은 내 사랑이라.”

고 그래. 그랬는데 아이 이놈으 거 콩쥐 어머니허구, 팔쥐 어머니 허구 고 거를 샘을 내구, 상관 마누라가 되갔는데. 이 콩쥐가, 팔쥐가 시집을 갔는데, 친정을 왔는데, 즈의 딸을 으 가마솔에다 물을 펄펄 끓여서 그 의붓딸

이 그런거여. 펄펄 끓여 가주구 거기다 집어 놓구 삶았어. [조사자 : 콩쥐를요?] 의붓어머니 딸을.

그랬는데 그 피기를 다 뜯어 맥였어, 어미를. 신세 갚느냐고. 그랬는데 여 모강지만 냉겨서 저 싸서 보리바쿠에다 너서 쫓더니, 그랬기 제 딸 하나를 다 쳐먹구서 나빠서, 어디 고개 넘어가다가 끌려 보니까 제 딸이더라. 그래서 그래서 죽었어. 나 많이 잊어버렸어. (설화력 채록) 그랬더니,

“젓갈 뱃긴(바뀐) 줄은 알아도 기집 뺏긴 지는 모르느냐?”고

“그 소리를 왜 하느냐?”

고. 아이 가니께 이 팔쥐를, 스머가(서모가) 제 딸을 잃겼거든, 얼굴이. 그랬는데 아이 팔쥐(콩쥐의 잘못)를 찍인 거여. 찍여다가 물에다 연못에 다 는거여. 연못에 꽃이 이상시런 꽃이 혼란하게 뿔거덩. 그래서 그거를, 이 고개를 꺾어다가 장농문에다 꽃었더니, 아이 초마자락 달 적마다 쥐뜯어, 그 꽃이. 그래서,

“이눔으 거 뭐냐?”

구. 아궁지에다 또 갖다 놓거덩. 불을 살들라니께 구실(구슬)이 있거덩. 구실이 있어. 그래가주구 잊어버렸어. 그랬는데 그래 그 구실이 있어서, 그걸 갖다 뵈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와. 사람이 나왔어. 거 일 옛날 역사책에도 나올거여. [조사자 : 사람이 누구데요?] 응? [조사자 : 팔쥐?] 응 팔쥐.

9 상사뱀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계앞 평상] 박중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단편적인 것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구, 동 맞은 짝인데. 그 좋아지내는 신랑을 저기다 갖다 묻었어. 그랬는데 빨래를 허러 가니께, 뱀이 구렁이가 되서 어 팬토, 몸에 허는 거 있잖여. 그거를 누가,

“뱀이 오니께, 뉘집으로 갔는데 그거를 푹 뒤집어 썩고 있으라.”

고 그래드래. 니(조사자들을 가리키며)덜 몸빼 하잖여. 그거를. 그랬는데, 와서 들래들래 보고 그냥 스르르 나가더란다. 그러는 수도 있어.

10 은혜 갚은 게

류남례(82,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앞 평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였다.

그이(게), 그이를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이를 잡아왔는데. 안 먹고 이 딸이 도루 강에다 갖다 느꼈어. 강에다 갖다 느꼈더니, 큰 대미(구렁이)가 들어오니께, 그 그이가 췌 나서서 그것두 웬수 갚느라고, 신세 갚느라고 췌 나와서 물어 뜯어서 구렁이가 죽드란다.

[조사자 : 신세 갚은 얘기네요?] 그런 짐승도 그렇게 웬수를 신세를 갚어.

11 명지관 박성익(고시래의 유래)

채용묵(78, 남) / 삼계리T 1앞

[삼계1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류남열할머니에게 더 이상 채록할 수 없어, 다른 제보자를 찾아야 하였다. 그래 가게집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조사자들을 인도하여 한 가정집을 들어가

게 되었다. 집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유도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박성의 도선이, 녹음을 할 것 아니냐? 박성의 도선이가 천하명품 지관인데, 저 어머니를 모실라고, 저 어머니를 좋은 데에 갖다 모실려구, 자리를 잡구 보면 천하대지 자리에, 씨구 보면 빌어먹을 자리여.

그래서 그래서 저 진귀명귀(진계명계: 지명) 외밀들 갖다 자리에 모셨는데, 아 그 산소 박성이 어머니를, 저 도선이 어머니 거기를 그 산소에 갖다 모시구선, 그 뒤루 비가 안 와. 아 비가 안 오길래 이것 어찌랴.

“자! 저 산, 저기 저 모시던 양반이 아마, 무신 이름있는 분인가 보다. 저 산소 모시구서는 비가 이렇게 안 오고, 들이가 흉년이 들고 비가 안 오니 어떡하나. 그런게 저 산소 한 번 좌우로 우(위)해 봐야 것이다.”

그래 인저 밥을 해 왔는데, 밥을 하다가 인자 거기다 갖다 놓고서,
“고시래!”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사방을 떠서, ‘고시래’ 하고 그 산에 절을 하고 우해니까는, 아 그 뒤로 비가 오지 뉘여. 아 비가 와가지고 풍년이 들는데,
“아 옳다. 부인 이름있는 산소라.”

진귀명귀 외밀들, 다 도선 어머니가 진귀명귀 외밀들에 모셨어. 그래서 지관이 인제 박성의가 그 그 지관이며. 명 우리네 최고의 이름난 지관이며. 그 사람이 거기다 산소자리만 잡으면, 그 사람이 산자락 잡으면 부자가 돼. 그 집이 부자가 되야. 산소자리를 잡아주면 참 용해지. 부자가 돼.

그런 옛날 지관이, 시방 옛날 지관 지금 다 읍어졌다. 옛날 그 명품 참 한문 많고 그런 지관이 다 읍어졌어

12 신방 옛보기 유래(뼈국새 유래)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채용묵 할아버지에게 1편을 채록하였을 때, 부인이 오셔서 이야기를 잘 하는 할머니들이 있다며 우리를 옆집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그곳에는 6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집주인인 제보자는 올해 효부상을 수상하신 분이라 했다. 여러 할머니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구연이 이루어졌다.

[칭중 : 아이 쓸데 없는 얘기.] 벗(벗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벗고 들어갔는데 그 진짜 친어머니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참아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여, 이 신부가, 그냥 진짜 신랑이 미련 곰같이 그냥. 빨개 벗겨가주구 진짜 그냥 이 껍데기를 다 벗겼데요. 이 사람의 껍데기를 다 벗겨도,

“아야! 아야!”

하니까는. 그 엄마가,

“아파도 참아야 된다.”

그랬다. 옛날에. 그래 인자 그랬는데 아무 소리 읊어서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신부를 죽였드래잖아. 빨개 벗게서 아주 옷을 벗기는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가주구. 그러니까는, ‘아야, 아야’ 하니까는 그 엄마가, 그 엄마두 미련하지. 그래 응, ‘그래 아파도 참아야 된다’ 그랬다는데.

그리구는 그 뼈국 그래서,

“버국! 버국!”

‘뼈꼭! 뼈꼭!’ 하는게 아니라, ‘버꼭, 버꼭’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구. 그 얘기가, 그런다고 얘기만 들었어 나는.

13 개개객 유래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같은 소화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죽을 썬 놓고 갔는데, 개가 그냥 그걸 쏘아가주구 다 먹어 버렸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죽 썬서 혼자 다 쳐먹었다.”

고. 막 두들기니까,

“개개객.”

하면서 죽였대, 그 매를 맞고. 시어머니가 때리니까는,

“개개객, 개가 먹었다.”

고. ‘개개객’ 하고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청중1 : 그래서 개개개 그러냐!] [청중 :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죽였다고 개개객이여.] ‘개가 먹었는데 나는 안 먹었다’고 그래라 그러더라고.

14 해와 달이 된 오누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에 대해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 친정에서 들었다고 한다.

질쌈하고 배 짜고 그러는 애긴데. 어머니가 인저 아들딸을 둘을 데리고 인저 사는데, 저 고개 넘어로 땡겨, 배를 짜러. 배를 때려 갔다.

베를 매는거 모르지, 집이덜은?(조사자에게) 몰르게 베를 매러 가서,
[청중 : 풀 발르는 거.] 일을 하고 인자 오는데, 거기서 밥을 이렇게
밥이라나 떡이라나 이렇게 싸주더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니
까, 호랭이가 저기,

“그 떡을 저를 주면 안 잡아 먹는다.”

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것을 떡을 주니까는, 인저 한 고개 넘었지. 고개덜
이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그래서 인저는 넘어오니까는, 또 쫓아와가지
고 그냥,

“옷을 벗겨 달라.”

고 그러더래, 옷을. 그래서 하나 벗어 쫓는데, 또 쫓아와서 또,

“벗겨 달라.”

고. 야중에 빨거숭이가 되니까는 그 호랭이가 잡아먹어 버렸어. 그 호랭
이, 그 어머니 그 노인네를. 그래 인저 집으로 오니까는, 인제 그 엄마 옷
을 다 주서 입고 와서,

“아가야! 아가야! 문 열어 다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호랭, 애들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드래. 그러니까는 저기,

“아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같으면 손을 좀 내밀어 보라.”

고 그러니까. 손 호랑이 손이지 뭐.

“우리 엄마 손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 손은 털에, 손에 털이 없다.”

고 그러니까는. 그 저기 호랭이가,

“아이, 이걸 어떡해나?”

그러고는 인자 장, 뒤편 수건을 이렇게 해 가주구 이렇게 디밀으니
까,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저기 문을 열어 쫓대. 열어 주니까는 그 여자애가,

“아우, 나 오줌 매렵다.”

고. 그러니까.

“저기 앉어 누라.”

고 그래드래. 호랑이가. 그래서는,

“아니라고. 나가 눕다.”

고. 그래 둘 애들이 다 올라, 나가가지고 뒤에 그 배낭구라나 무슨 나무에 그 올라 앉았었다. 그런데 고 밑에 가서 웅달샘이 있는데, 아 이놈의 호랑이가 애들 들어올 때를 바라니까 안들어 오걸랑. 그러니까는 그 웅달, 가서 뒤꼇이를 돌아가니까는 웅달샘에서 그 그림자가 내려 비치더라. 그러니까 여자애가, ‘하하하’ 하고 웃어 버렸걸랑. 그러니까는 저 호랑이가,

“아이구 느그들, 어떻게 올라 갔니?”

그러니까는 남자애가,

“저 이웃집에 가서 저 지름을 얻어다가 발르고 올라 왔다.”

고. 그 낭구에다 지름을 발르니까 더 못 올라 가지. 그래서 인자 여자애가,

“아유, 도끼 얻어다가 콧콧 찍고 올라 왔는데.”

그러니까는 도끼를 얻어다가 진짜 찍으니까 올라 오드래. 그래서는 그냥 하느님, 하느님더러.

“하느님! 하느님! 날 살릴라든 저기 저 새 줄, 새 줄에다 새 두레박을 내려달라.”

고. 그러니까는 진짜 두레박을 내려와서 들어서, 그냥 거진 찍고 올라 왔는데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버렸다. 그 남매가. 그러니까 그 호랭이도 응,

“하느님! 하느님! 날 살릴라면은 새 두루박에 새 줄을 내주구. 나 죽일라면 현 두레박에다 내려달라.”

고 그러니까. 이 이놈의 진짜 내려왔는데 보니까는 새 두레박이걸랑. 반쯤 올라가더니 툇 떨어져서 그냥, 에헤 그 수수깁에, 수수깁에가 똥구녕이 팍 찢려서 그 수수깁이 그래서 빨간거래요. 그래서 인자 그 호랭이가 죽었다. 죽었는데 그 남매가 너는 여자더러,

“너는 해가 되고 나는 달이 된다.”

고 그래니까는,

“아니라고. 나는 밤에 밤길 가면 무서우니까 니가 달이 되고, 내가 해가 된다.”

고. 그래서 그 해를 보며는 이렇게 눈이 시잖아. 그 눈이 찢려서 그렇게 눈이 신겨래. 그러구 달은 인자 저기 여자가 되구. 남자는 해가 되구. 끝났어요.

15 장님을 골려 먹은 조카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 스스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한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장님을 데리구 살았대. 장님을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얘기해 줘서 배꼽을 뺏다구. 장님을 데리구 살았는데, 인자 장님을.

옛날에는 이렇게 붓짐 장사 땡졌잖아. 시방은 가게가 있으니깐 붓짐을 안, 이렇게 붓다리 장사가 없지만. 옛날에는 붓다리 장사를 했다고. 이 장님 혼자 두고 인자 붓다리 장사를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파발을 지다(전부) 까집어 났더라. 파발을. 그래서저기 인자 하루는 가면서 그랬다.

“여보! 여보! 당신 오늘 파발에 풀 좀 뽑으라.”

고. 그러니까는 이 장님이 가서 풀을 어떻게 풀을 뽑았는지 뽑으니까는, 조카가 아주 기냥 아주 저기 장냥(장난) 썬 조카가 있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풀 뽑는 쪽 손을 그냥 콕콕콕콕 찢르니깐,

“독사가 내 손 문다.”

고. 그 파발을 다 지퍼겨 놔드래요. 그러니까는 갔다 오니까는, 파발을 지 지퍼겨 놔드라. 그래서는,

“아유, 파발을 매렸더니 왜 이렇게 파발을 지퍼겨 놔느냐?”

고 그러니까는.

“아우구, 독사가 물어서, 그냥 내 손을 물어서 그냥 응 내 독사 잡다가 그랬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하루는 인저 저기 갔다 오니까는 닭을 잡아가지고, 그 조카가 엮고 그냥 뽕뽕뽕뽕 뒷꼴이로 돌아댁기면서 독사를, 인자,

“아저씨! 아저씨! 우리 닭 잡아다가 닭 잡아 먹자.”

고 그러니깐.

“어던니?”

그러니깐.

“저쪽에 저 아래 가면 있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는 닭을 인자 그 장님네 닭장 속에다 손을 넣 준거 야.(웃음) 장님네 닭장 속에다 손을 넣어 주니깐, 닭을 하나 움켰네. 인자 암닭을 큰 거를. 그랬더니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서는 인자 해서는 먹고는 인자 마누라 줄라고 좀 냉겨 놔다. 그래서는 먹고는 냉겨 노니까는, 마누라가 장사갔다 오니까는 저기 그 닭을 해 먹다가 냉겨서 췌대. 그러니까,

“어서, 닭고기는 어서 냐냐?”

고 그러니깐.

“조카가 어디 가서 잡아다 와, 우리가 끓여 먹었다.”

고. 그래서 보니깐 즈이 닭을 잡아다 먹었드래잖아. 마누라가,

“아휴, 오늘은 아무 것도 말고 집에 가만 있으라.”

고 그러니까는.

“그런다.”

고 그러더라. 아 근데 하루는 갔다 오니까 그냥, 웬 상기동에 가서 눈만 빠끔하게 새까만게 그냥 매달려 있드래, 그냥. 상기동에 가서. 아 그래가

지고 이 조카가 또 오늘은 와가지고 그냥. 참 인저 한 가지 빼었다. 명석을 넣어놓고 가면서 그냥,

“명석, 비 오걸랑 채 덮으라.”

고 그랬다. 아 그러니깐 이눔으 조카가 와서 막 솔뿌리로다가, 솔잎사구로다가 막 물을 뿌리니깐,

“아이구! 비가 온다.”

고 명석을 또 다 채 덮어 놔더라. [조사자 : 장님이?] 응. 그래서 마누라가,

“아휴, 명석 멀건날 왜 채 덮었느냐?”

고 그러니깐,

“응. 비가 와서 채 덮었다.”

고 그러더라. 아 그래서 그 이튿날은,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것도 해지 말고.”

그랬더니. 오더니,

“아저씨! 아저씨!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아저씨! 옷 해 논 거 읍어요. 옷 해 놓은 거, 새 거 있걸랑 좀 응 입고, 저기 우리 피난가야 된다.”

고 그러더라. 아 그래서,

“피난을 가. 그래 그래. 나는 수의옷 해 논거뻐에 읍는데 그거라도 입을까?”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이 장님이 그걸 끄내다가 탁 수의옷을 입고는, (웃음) 수의옷을 입고. 옛날에 그 군불 때는 아궁이가 얼마나 커. 굴로 거기서,

“아저씨! 일루 들어가야 피난해지. 응 여기서는 죽는다.”

고 그러더라. 굴뚝에서 인자 불르는 거라, 아저씨를. 아궁이다 드밀어 넣고. 하 부르니까는 저기 꿀뚝 위로 쭈시고 들어가니까 이 눈만 빼놓고는 새까만 그냥, 수의옷이 거 베로 맨튼거잖아. 그거를 입고는 막 쭈시고 나오니까는,

“아저씨! 아저씨! 일로(이리로) 오시라.”

고 그러니까는,

“그래 간다. 간다.”

하면서 골뚱을 쭈시고 나와가지고는, (웃음) 그래 그걸 갖다가 업고 저 뽕뽕뽕 돌아댕기다가 상지등에다가 찡찡 감아서 묶어 놓고는,

“아저씨 밑에가 바로 큰 바다가 있으니깐 꼼짝, 꼼짝거리면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더라.

“아 그려. 그려. 가만 있을께 그려.”

찡찡 감아서는, 아저씨라는 장님을 갖다 그냥 상지등에다 묶어놓고는 그냥 그냥 어디로 가버렸걸랑, 이놈이. 그러니까는 아 장사잖다 오니까는 뭐가 까막까막한 걸 보니깐 자기 영감이드래. 흐- 학,

“아니, 뭐 해고 있느냐?”

고 그러니까는,

“여보! 아 난리가 나서, 시방 난리가 나서 시방 제정 피란을 갔는데, 여가 어딘 줄 아나?”

그러더라.

“아, 여가 어디여 내 집이지.”

그랬더니, 끌러놓고 보니까는 수의옷을 입고 다 버려 놔더라. 그래서 그냥 그냥,

“아이고, 당신 믿고 살다가는 내가 하루도 못 살고 죽는다.”

고 내뺨부렀대. 그러니까는 그 영감 혼자서, 그 조카가 어딴지. 인자 오지도 않지. 그래서 고생하고 살았다고 그러디다.

16 이방원과 정몽주

구모은(? ,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해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최일순 할머니택에서 나와 다시 가게 앞으로 나왔다. 가게 앞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근세 조선을 세우신 태조 아니며. 근세 조선의 셋째 아들 방원이가 무너져 가는 고려의 의의, 궁이 정몽주를 어떻게 하면 자기 저기로다 쓸 수 있을까 하고 정몽주를 만나가지고, 지금 사람 같으면,

“우리 당에 들어 와라.”

이라지.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깊고 학문이 깊었던지, 그렇게 말을 안하고, 술잔을 딱 이렇게 맞추, 옛, 지금 사람들은 인저 건배를 허고 술을 안 허잖아.

그때 방원이란 사람이 정몽주허고 술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방원이란 사람이 술을 입 한 잔 대면서 허는 소리가, 정몽주의 그 속을, 깊은 속을 알아볼 길이 읊어가지고 그 시를 읊었잖아.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성황당 뒷산이라 무너진들 어떠리.
우리도 이러하다 떠나간들 어떠리

이렇게. 그러니까 정몽주가 딱 저기허고, 술잔을 탁 입에 한 모금을 마시면서 또 시를 읊는거야. 그렇다.

이 몸이 죽어서 일 백 번을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읊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그 사람들을 보통으로 헨 말이 오늘날 시가 된 거여.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유식한 학이 이 속에 들었으면 그냥 허는 말이 그렇게 시가 되고, 그냥 허는 말이 그냥 아주 골짜로 뽑아서 말을 되어버렸다.

‘이몸이 죽어 죽어 일 백 번을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임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깊으니까 그 글씨를 하고, 방원이가, '참 고려의 충신이다. 너를 나는 꺾을 자격이 안 된다. 내가 너를 죽이는 수밖엔 없다.' 일허게 결심을 먹었어요, 그 방원이가. 고려 충신을 꺾어야 근세 조선을 세우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에, 지금 말하면 회담한다는 식으로다가,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정몽주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허시는 말씀이,

“너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 갈 사람은 아니잖아. 회의 석상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정몽주 어머니가 얼마나 유식한 여자며는,

까마귀 싸우는 꼴이 백로야 가지를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칠 시기하니
청파에 주의 씻을 몸 더럽일까 하노라

그 정몽주 어머니 아들이 나가는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풍부한 말을 해도, 그 너무도 깊은 깊숙이 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한 마디가 그렇게 의미가 넓어질 수가 있고, 후세에 자신들이 무심코 그 한 말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말을 허게 돼.

그러니게 배우는 것을 열심히 배우면 집이두 이런 나중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여.

17 울곡을 살린 아버지의 정성

최영목(63, 남)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할머니들 옆에 있던 남자분이 있어 이야기를 청하였다. 처음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며 사양하다가, 조사자가 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짧은데 비하여 장편적인 것이 특색으로 보인다.

이울곡 선생이 강원도 정, 강원도 영 있는 곳은 몰르지. 강원도 정 선에서 태어났거덩. 근데 그 아버지가 이원수인데 감사 벼슬을 했어. 그래 인제 개 아버지가 인자 서울로, 어 그 인저 사임당 신씨 아녀. 그 어머니가 이울곡 어머니가.

응 그래 인제 서울로 10년 계약을 해고서 공부를 해러 인저 가서, 공부를 하는 거여. 그 인젠 인저 결혼하고서 바로 갔으니깐 사임당 신씨인데 말이지, 그 마누라가 보고 싶잖어.

근게 한 5년 공부를 해고 중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관령 고개를 넘어야 정선을 가잖어. 인제 산이 크게 있으니깐 거기를 인저 가서 그 밑창에 가서 해가 저물어, 너머가지고 서 말이지.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혼자 사는 이즘마 과부집이 있다 이말여. 그래 거기 들어가서 인저,

“내가 사실 이러구 저러고 해서 서울을 갔다 오는 길인데 길이 저물어서, 옛날 그 호랑이도 많고 그랬지, 밤에.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고 그러니까는.

“주무시라.”

고, 그래 인저 밤새도록 인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12시쯤 되니까는 술상을 근사하게 차려 오드래요. 근저 술을 다 먹고 나니까, 그 여자가,

“자자.”

구 그더드랴. ‘자자’고 그러는데, 널 모레면 색실 가서 만날텐데 거기서 잘수가 읍잖여.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를 인저 물리치고는 인저 갔던 거여. 거기를 넘어서 간거여. 집으로 넘어가가지고 인저 집에 가서 있다

가 사임당 신씨가 말이지,

“서울로 10년 공부 계약을 해고서 갔으면 10년을 채우든지, 과거에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와야지. 와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 하느냐?”

고 말이지. 아 그래 인제 마누라 등살에 도루 인저 서울로 가는데, 아 울적에는 그 과부 이줌마가, 아! 그, 본마누라 생각이 나서 안 했지만, 서울로 가는 길에 한 번 만나보고 갈라고 슬슬 인저 일부러 해 넘어갈 때, 인저 거기를 들어 간겨여. 그래 가지고 인제 거기 가서 찾으니깐, 그 여자가 또 나오드래요.

그래서 나와서 인저 그날도 인저 저녁에 인저 어 12시까지 공부를 했더니깐. 그땐 인저 그 여자가 같이 ‘자자’ 소릴 안해니깐, 이 사람이 이울꼭 아버지가,

“같이 자자.”

고 그랬단 말여.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든.

“틀렸으니 말여, 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을 당신의 저 근사한 위대한 사람을 날 거 같아서 내가 자자고 했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 몸에 벌써 뺏다.”

이말여. 그랬는데 하는 소리가,

“그러나 그 여자가, 그 애가 제대로 못 자랄 거라고. 그런데 개가 열다섯 살 먹는 해에 죽을 거라.”

고 말이지. 아 그래 인저 그 여자한테 매달렸지.

“그럼, 어떻게 죽을 거 알면, 시는 방법도 가리켜 줄 거 아니냐?”

아 그러다, 아 인저 매달리니깐 그 여자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대로 할 수 있느냐?”고.

“아. 해라면 하 해는데, 으뚱게 하는 방법을 가르켜 달라.”

고 하니까.

“그럼, 지금서부터 죽을 사람을 백 명을 살려 줘야지. 그 애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

이말여. 이러더래. 그래 해괴한 말로 참 인저,

“애 그럼, 내가 벼슬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일면 서생이 말이지, 그 댐 서생이라고 그랬지, 글방 선생에 대니는 사람들을. 일개 서생이 어떻게 100명 죽을 사람을 살리느냐? 이러니까는 애, 그거 말고 딴 방법을 가르켜 달라.”

고 그러니까는.

“그럼 말이지, 지금서부터 돌아가가지고, 당신이 이 개가 뭇 살 될 때까지 밤나무 뒤에, 뒷동산에 밤나무 천, 천 주를 길러 노라.”

고 그러드라. 천 주를. 아 그래서 인저 돌아가지고서 인저 부모들한테 얘기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밤나무를 기르는데 낱지, 뭉여 애를. 애를 낳아가지고서는 인저 밤나무배 뒷동산에 정말 커다랗게 이렇게 있구 그러는데, 그야말로 그, 그 낳은 어린애가 뭇 살 되니까는, 그냥 호호백발 된 도사가 말이지 와서 연구를 허더니,

“그 애를, 당신네가 길러 저기가 안되니까는 내가 길러가지고서 줄 테니까는 달라.”

고 그러드라. 애 그러니까는 인저 이 이올곡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 나도 개를, 이 애를 기를만한 공을 쌓는데, 당신이 왜 이 애를 갖, 데려 간다고 그러느냐?”

고 그 말이지. 아 이려고서 야단을 치니깐,

“그럼, 당신이 무슨 공을 쌓냐란 말여. 보자.”

고 그러니까는.

“나도 뒤에 뒷동산에 밤나무 천 주를 길러 왔다.”고.

“그럼, 가 세 보자.”

고. 아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밤나무를 서 보니까는, 천 주를 틀림없이 길러왔는데 999주다 이말여. 응 999주니까는, 천 주가 안 되니까는 어린애를 내줘야 될 판 아녀. 아 그러니깐 그 도사가,

“빨리 내노라.”

고. 이려고 인자 성화를 내니까는, 그 옛날에 저 소를 매면, 뒷동산에 남구에다 소를 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구 그 밤나무가 하나 죽었던 말여.

아 그런데 고 옆에 밤나무 비슷한 놈이 섰다가 말이지,

“나도 밤나무라.”

고 그러더라. 그래 ‘나도 밤나무라’고 그러니깐, 인저 밤나무 아냐. 그래니 켜 천 주를 채웠대는 거여. 천 주를 채워서 채웠으니까는, 이 도사가 그냥 아뭏 소리도 못하고서 그냥 가는데, 저기 가다 보니까는 재주를 서너 번 넘더니 호랭이가 응, 백호가 됐더라. 그게 백호가 되서 가더라.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18 앞 천기를 못 본 신립

최영목(63, 남)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그런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청하자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는 이야기에 앞서 신립장군이 살아왔던 시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구술하였다.

신립장군 있지 신립장군(신립장군에 관한 대화 생략) 이씨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에 달래강에서 전사한 신립장군 있잖아. [조사자 :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여기 가면 저 충주에서.] 그 양반이 젊었을 때 얘긴데, 인저 처가집을 가는 거여.

처가집을 가는데, 해가 저물어 이렇게 보니깐 큰 기와집이 있거던. 큰 기와집이 있어가지고서는 인저 거기를 들어가니깐 응, 처녀가 하나 있더라 말여. 이쁜 처녀가. 그래서 인저,

“여기서 하룻 저녁 자고 가게, 좀 묵고 가게 해, 해 달라.”

고 그러니깐. 그 처녀가 하는 소리가,

“안 된다.”

이말여.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깐.

“호랭이가 날마다 와 가지고서 아 우리 식구들을 물어가서, 오늘은 내 차렌데 당신이 여기서 자다가는 화를 당할 테니깐 안 된다.”

고 그런단 말여. 아 그러니까는 이 장군이거든. 그때도 장군은 활 잘 쏘고 그리는 장군인데. 그래,

“아, 염려 말고 좀 하룻 저녁 자고 가게 해 달라.”

고. 아 그래서 ‘자고 가게 해 달라’고 해서 자는데, 밤 12시쯤이나 1시경이 되니까는 그냥 호랭이가 그냥 큰 백호가 오더래요. 아 그래 신립장군이 그걸 그냥 활로 쏘서 죽인거여. 그래 인제 죽였더니, 죽이고서 인제 그 이튿날 자고서 즈이 처가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좀 자기는 신립장군 때문에 살은 거니까는,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

이거지. ‘데려 가라’ 이말여. 이 처녀가 ‘데려 가라’고 그러니까는, 신립장군이 처갓집에 가는데 어떻게 색시를 데리고 갈 수가 있나. 그거 안되는 거지, 암만 옛날이라도. 아 가니까는 그냥,

“오라부지.”

그러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아 그렇게 돌아보니까는 기와집 지붕 꼭 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칼을 물고서 그냥 떨어져 죽더라는 거여, 그 여자. 그냥 처가집에 가고서 장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깐, 이 장인이 노발대발 해더라는 거여.

“아 이놈아! 여자(남자의 잘못)가 두 기집 못 거느리느냐고 말야. 그 정도 대면 그걸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뒀느냐?”

고. 아 그래가지구선 그 귀신이 말이지, 저기 원한을 품어가지고서 어, 그 사람이 앞 천기를 못 본대는 거여, 신립장군이. 뒷 천기는 봐도 앞 천기는 못 본다.

그래가지구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서, 어 저 조령, 조령 아니냐 조령. 달래강 있는데 거기가 조령인데. 아 왜놈들이 그 조령으로다 넘어오는데, 애 거기서 그냥 올라오는 거 하나씩 쏘 죽이면 되는 건데.

“아 남아답게 거 평야에 가 싸우자.”

고. 조방장이 거기서,

“극구 여기서 지켜야 된다.”

거를. 대장의 그,

“안 된다.”

고 허니가 할 수 있어. 그래 인제 달래강에 거기 와서 탄금대, 이 애긴 들 었을게다 너들. 탄금대. 거기 달래강 거기 와가지구서는 진을 쳤는데, 배수진을 친거여. 배수진. 배수진은 결사대에야, 배수진을 그적에 이기지 못하면 죽는거여. 다 죽는거여.

그래서 배수진을 치구서는 거기서 싸우다가 일본놈들한테 밀려가지 고, 이 사람이 이냥 불이 나니까는 탄금대를 일곱 번을 올라 뛰어댕기 다가 물에 빠져 죽은거야, 거기서. 인제 됐지.

19 앞 천기를 못 본 임경업

최영목(63, 남)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구술하는 동안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 자는 구술하기 앞서 조사자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 대답을 못하자,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나무라기도 하였다.

임경업장군 니들 알지 응. 임경업장군 언제 사람야. 너 학생이 임마, 그래도 대한민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지. 임경업도 몰라. 임경업장 군이 이씨 조선 인조 때 아니냐. 응 인조 16년 병자호란 나가지고선 의주부윤으로 있다가, 거기서 청나라 군사들이 그 사람이 무서우니까 는 의주를 들어서 말이지, 말방울로 전부 띠구선 들어서 서울로 쳐들 어 온거여. 임경업이가, 그 사람이 지키는 걸 돌아가지고선 서울로 쳐 들어 온거여.

그 사람 젊었을 때 애긴데, 에 인자 그 낭구덜 해구 그랬잖어. 낭구 들 했는데, 그때도 그 사람이 장군 기질이 있으니까는, 그냥 저 나뭇꾼 들을 모아놓고 병정놀이를 한 거여. 병정놀이 알지. 병정놀이를 하는데 인저,

“내일을 몇 시까지 여기 집합이다.”

그래니까는. 그랬는데 거기 중에서 인저 과부 아들이 하나 있었어. 과부 아들이. 인제 과부, 과부 아들이, 아들이 하나니까는 저 어무니가 정말 참, 그땐 옛날엔 땡기꼬랭일 땅지. 땡기꼬랭일 정말 참 이쁘게 따고 이래서 해서 내보내느냐고 늦게 집에서 갔단 말여. 근게 지각을 했었요.

지각을 해니켄 임경업장군이 거기서 지게에다가 말야 바로 해가지고 툭 쳐서 죽였어요. 근게 군법 시행한다고. 군법은 뭐 저 명령 어긴 사람 죽는 게, 죽이는 게 군법 시행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구선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임경업장군도 앞 천귀(천기)를 못 본대는 거지. 뒷 천기는 봐도. 짧은 얘기 해가지고 된 얘기여.

20 신랑 골라 시집간 이괄의 어머니

최영목(63, 남)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역시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 중에 뛰어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란 점에서 머리에 떠 올랐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에 선조 때가 아니라 광해, 광해 때지. 광해. 광해 인조반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 이괄이가 저기 문, 동대문인가 때려 바수고 거기 들어갔지.

근데 이괄이가 인제 거기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촌에 말이야, 촌 그 야말로 참 이방인가 이런 벼슬하는 사람인데, 무남독녀 외딸이 있었던

말야. 무남독녀 외딸이 있었는데, 그 집 하인이 이기축여. 이기축. 이름도 몰러. 이름도 몰르고 인저 기축년에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축이라고 한겨여.

그래 옛날에도 이방썸 되면 촌에서, 그래도 에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냐. 아 혼담이 자꾸만 오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딴 사람한테 안 간다고 말이지. 이 사람한테 이 이기축 자기 집 종한테 시집 간다고 그러는 거여.

“종한테 시집 간다.”

고 그러니깐. 그계 정말 참 지아버지 지어머니가 그 승낙을 해나. 그냥 그래가지곤 하루는 지아버지가 그냥 큰 벌을 내릴텐데. 이거 어트카. 저 어 무니가 그냥 금패물을 싸 가지고 싸 주고서는,

“들이 몰리 달아나 살으라.”

고 했어. ‘몰리(멀리) 달아나 살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들이 나와가지구 선 서울 성문 밖에서 술장사를 하는 거여, 술장사. 애 술장사를 했는데, 저 거기 이팔이, 김자겸이 애 그런 정말 참 이 큰 사람이, 으 거그 와서 모이를 하는 거여, 모이를. 어 역적 모이를 하는 거여.

인제 역적 모이를 하는 건대. 아 이팔 마누라도 정말 참, 그 이방의 딸이니깐 공부를 하구 그래가지구선 이팔이를 시킨겨여. 으, 정말 참 옛날에 중국에서 말이지 그 반정 일으켰던 그 문구를 말이지 가져가서,

“이거 가져가서, 어 좀 문구를 좀 해석을 해 달라고 그래라.”

고 그러니깐. 그 역적 모이 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구선, 아 이게 응술집 주모한테 들켰다고. 그래가지구 깰 죽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고. 변명을 해가지구선 살았지, 그 사람이. 살아가지군 그땐 저 공을 세웠어. 이기축이라는 사람이 반정공진회에 들어가지고서는 아, 이 김자겸이는 우물우물 거리고서 얼른 못 가담 해고, 이팔이가 먼저 들어서기를 반정을 성공 했잖어.

21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구모은(? , 여) / 삼계리T 1앞

[삼계1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호랑이에 관해 묻자, 옆에 들고 있던 제보자가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친정 할아버지와 관련된 실화라 말하였다.

있었다는 그것 뿐이여. 얘기할 것은 읍지. [조사자 : 호랑이가 어떻게 했는데요?] 호랑이가 재밌는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에 에 아버지신데, 우리 친할아버지에 아버지신데. 에 활을 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깐 그 선산 밑에 요렇게 사는데, 활을 쏘러 인저 나가실 때 그 선산을 넘어야 되거든. 또 가마타고 가셨다가 올 적에는 인제, 저기 뭐야 또 가마타고 오거든.

그러면 이 가마를 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모 호랑이 앞에 와서 딱 지키고 있단 말여. 그러면 무서워서 으 못 가고 인저 이걸 놓는단 말여. 농면은 할아버지가 인저 내다보믄 호랑이가 딱 있단 말여. 그러면은 그냥 오시는 거여.

“가자.”

그러고. 또 ‘가자’고 그러믄, 줄렁줄렁 따라오는 거여. 해치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그래 와서 대문간에 와가지고선,

“손님 대접 해라.”

이 한 마디 하면은, 호랑이가 개를 한 마리 확 물고 가버렸대. 이건 실화야.

22 구렁이 독에 눈을 뜬 장님

안종석(45, 남) / 삼계리T 1뒤

[삼계1구 느티나무길]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가게에서 최영목씨의 조사를 마치고 또 다른 제보자를 찾아나섰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큰 느티나무 밑에서 5명의 아저씨들이 모여 담소를 하고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장님이 나서 이야기판을 이끌어 갔다.

미처가주구 결혼했는데 낭중에 자기 아내, 옆에 그 제자 하구 눈이 맞아가주구 나가지.

낭중에 인저 그래서 그 구렁이 독을 쏘이면은, 이제 저기 저 구렁이를 삶아, 과 맥이면 이제 죽을 줄 알구, 죽는다 해가지구 구렁이를, 그 저기 저 뭐야 그저 불에다 올려 놓고 돌이, 인제 그 문학 제자하구 나가 도망을 갔는데.

이 장님이 냄새는 나는데, 불러두 자기 부인이 없거든. 그래 더듬더듬 해서 가가주구 그 저 냄비 뚜껑을 확 열으니까, 그 뜨거운 김에 확 췌여저가주구 눈을 번쩍 뜬거야 그게.

㉓ 여자가 산소에 가지 않는 유래

안종석(45, 남) / 삼계리T 1뒤

[삼계1구 느티나무밑]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자신도 옛날 얘기를 들은 것이 많다고 말하였다. 그러다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팔은 남이다>는 유형의 이야기이다.

친정아버지는 정승인데, 시집을 왔는데 되게 못 살았던 말야. 자기 시집에는, 친정은 잘 살구. 근대 이 친정 아버지가 죽어가주구. 인제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지. 먼저 죽어가주구 산이 읊어가주구 이렇게 산소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구. 아마 아무 저기해게 썼나 봐. 애 인저, 애 그게 마음에 걸리구 있었나부지 며느리가.

근대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나라가 하여간 이 풍수지리는 좌

우지간 좋아한단 말야. 중국보다두 우리나라가 더 좋아하거든. 일본보다두 좋아하구.

그런데 이 자기 친정아버지는 대감 대감벼슬을 하구 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산소자리를 좋은 델 잡아가주구 갔는데. 옛날엔 미리 산소자리를 미리 전날 파 놓거든.

근데 딸이 그 자기 시아버지 묘를 잘 써야 자기 집안이 잘 될 거 아냐. 그래서 야밤 새도록 물을 퍼다 뾰다는 거야, 응 그 산소자리 파는 데다가. 그 아침에 가보니까 물이 고여 있거든.

“아래가 물 고인 산소자리는 못 쓴다.”

구. 그래 다른 데다 옮겨서 산소를 쓰게 뾰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제 저 산소, 하얏튼간 딸이 저기 자기 오빠더러,

“우리 시아버지는 산소자리가 옮겨가주구 저 밭담 옆에다 묻었는데, 그 산소자리를 주변은 우리가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거기다 못시켰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구. 근데 낭중에 알고 보니깐, 그 자리가 탐이 나서 물을 밤새도록 퍼다 뾰다는 소문을 알고. 그래 그 후로는,

“여자들은 일체, 에 산소에는 묘에는 디리고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어.

24 뱀을 낳은 과부

우체국장(? , 남) / 삼계리T 1뒤

[삼계1구 느티나무밑]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아혜진 조사 (1996. 6. 1)

마을의 이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보자는 구술할 이야기가 생카이 났는지.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구술하여 주었다.

그 유부녀가, 들어서 야간에 슬그머니 목욕을 하러 갔시요. 목욕을 하러 갔는데, 물이 맑구 목욕을 하는데, 그때 인제 자기네들이 인제 그 걸 이렇게 목욕할 자리를 인제 이렇게 마련을 해 놔죠.

그 인제 목욕을 했는데, 웬 남자하고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이기야. '이상하다. 아니 신랑허구 잠두 안자.'구. 그 과부였었거덩요. 근데 배가 불르니 외갓 남자하구 응 동침이나 헌 줄 알았더니, 그 인제 일단 배가. 그걸 그 천상 분만을 해야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이 나중에 낳고 보니깐 뱀이 여덟 마리가 나오드라 이게야. 아 임신은 해서 인제 분만하는데, 뱀이 여덟 마리가 나오드라.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문, 여자가 밑에서 이 응덩이를 벗고 목욕을 하는 순간에, 그 위서는 산골짜기에서 이 뱀이 사정을 해가주고, 그래가주구 뱀의 그 정자가 인간의 그 난자에게 들어와가주구, 그래서 그 게 임신이 됐다는 겁니다. 나 보니깐 여덟 마리가 나왔더라.

아 이게 역사의 그 전설의 얘긴진 몰라두, 지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5 무학대사와 훌륭한 지관

안중석(45, 남) / 삼계리T 1뒤

[삼계1구 느티나무밑]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해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우체국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지관이나 명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책에서 보거나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는 말이 많지, 인제. 근데 이성계가 인제, 그 이성계가 뭐야, 조선 조선시대 건국혈 적에, 인제 에 한양 원래 개성에서 인제 자기가 그 구테타를 벌린거지.

근데 이 저기 뭐야 한양 도읍지를 옮겨야 할 거 아냐. 거기는 인제 왕건의 터전이구. 그러니까 이 자기 터를 잡으려구, 흠에 그 충청도 계

룡산으로다가 터를 잡으러 갔지. 인제 그거는 인제 아마 여러가지 역사적으로 그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계룡산으로 터를 잡았는데, 이성계의 개국공신 중에는 정도전이란 사람이 있지. 그런데 이제 계룡산으로 터를 잡으려고 거기다가 주춧돌을 다 묻었었는데, 밤중에 그에 선몽하기를,

“아. 이놈! 남의 터에다가 왜 터를 잡느냐? 이 터는 은(언)제구 정가 터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꿈 얘기를 대신들끼리 모아다 놓고 하다보니까는, 개국공신 중에 그러문 정도전이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문 그 사람이 득세할 확률이 많으니깐, 다른 공신들이 인제 반대를 하는 거야, 인제.

그리고 이성계에, 이성계에는 원래가 이성계 부인이 윤씨고, 그 낭중에 저기 본부인이 죽고, 이제 그 낭중에 강씨가 이제 그 왕비가 되지. 이제 강씨가. 그래서 처음에 강씨 아들로다 세자 책봉까지 했던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양 도읍지를 잡으러 다니는데, 애 이 한양을 충청도에서 올라오아서 다른 데다 잡으려고 인제 그 터를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무학대사하고 같이 다녔지, 이성계하고.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한 군데 쭉 가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 장사를 지내는데, 그 산소 자리가 이렇게 보니까는, 하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땅에다 묻는 그 순간을 갖다가 하관이라고 그러는데, 하관만 하든 금방 망할 자리다 이거야, 아주.

그러니까는 그, 인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관이라고 그러구. 풍수지리 보는 사람을 갖다가 지관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 볼 줄 아는 사람이 봤을 적엔, 이걸 웬수진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자리를 누가 잡아줄 사람이 아니란 말야. 장사지내는 거 보니까는 초라하니 이렇게 서민같고. 그래서 그 상주를 불러가 주고 물어봤어.

“당신! 이거 산소자리를 누가 잡아줬느냐?”

그러니까는.

“자기 동네에 사는 어떤 그 조생원이란 사람이 잡이켰다.”

“그래, 그 사람하고 웬수진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

구 그러거덩. 그런게.

“이 자리는 금방 하판만 하면 금방 망할 자리니까, 그러문 저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러니까.

“이것두 간신히 은은 건데, 다른 데로 옮겨갈 돈도 없다.”

그러니까는 이성계하구 같이 가다 그랬으니깐, 이거 사실 너무 난감 하니깐, 돈 천 냥을 쥐 가주구 다른 데를, 그 건너다 보이는 그 자리를 잡이켰어 인제. 그냥 이렇게 뭐 나쁘지 않은 자리를 잡이켰는데. 그리구 그 동네 내려가서 그 조생원이란 사람을 찾아본 거야. 그래구 보니까 있거든, 조생원이. 그래 물어본 거야.

“당신! 그 내가 볼 적에는 하판만 하면 금방 망할 자리인데, 왜 그런 자리를 잡이켰느냐? 그래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걸 잡아주는 사람 같으면 소위 그래도 그 공인인데 응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리는 하판을 하면 망하지마는, 하판 전에 돈 천 냥을 얻어서 다른데로 갈 자리다.”

이거야. 아 그 정도나 알 정도며는 자기보다 낫다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래서 인제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어 이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산소자리를, 자기 산소자리를 되게 좋게 썼을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낭중에 뭐 자기도 왕도 될 수 있는 자리를 있을 정도로 되니까. 거기까지 얘기가 미치니까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한 번, 그럼 당신네 산소 구경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산소 구경을 갔는데, 산소를 가 보니까 아 뭐 크게 되

구 그런 자리는 아니고, 그냥 그저 자손, 자손 번창하고 밥 굶지 않을 만한 그런 자리드라 이거지. 그래서 인자 양지 바르고 그냥 그 정도지 뭐, 그게 뭐 엄청 뭐 무슨 벼슬하고 그런 자리는 하나도 없드라.

그래서 거기서 좀 이성계가 마음을 안심을 좀 하믄서, 한 군데를 쓱 앉을, 무학대사가 앉을라고 그러니깐, 딱 못 앉게 하는거야.

“여기는 그 이 나라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잠깐 앉았다 갈 자리니까 안 된데.”

는 거지. 그래가주구 이성계가 꺾꺾 웃으면서 그 자리를 딱 앉으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이성계를 알아보구, 응 얼렁 와서 앞에 와서 절을 했다는 그 유래가 있지.

26 고시래의 유래

안종석(45, 남) / 삼계리 1뒤

[삼계1구 느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민속에 대해 청중들끼리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제보자는 들판에서 밥을 먹을 때 하는 <고시래의 유래>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 저 왜 이렇게 농사꾼들이 밥을 내다가 먹구. 먹을 적에 밥을 한 술갈씩 떠서,

“고시네”

하구 뿌리는 거 그런 거 봤어? [조사자 : 어 그래요?] [조사자2 : 예. 해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왜 그러느냐믄, 그 이름두 다 잇어 먹었어. 그런건.

어떤 그 과수택 아들이 있는데, 하필 중이 됐어. 외아들인데 중이 되 가주구서, 인제 애 중하다 보니깐 자긴 부모 제사지낼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어느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아 돌아가셨는데, 뭐 이걸 어떻게 자긴 중이니깐 제사를 못 지낸단 말야. 자기. 그러다 보니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꿈에 그 뭐야, 그 인제 그 선몽하기를 뭐 도인이지. 옛날 같으면 꿈에 무슨 뭐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나와서 선몽하기를,

“너는 니 몸이 중이니까, 응 제사도 앞으로 못 지내구 그럴테니까, 두구두구 그 저기 여러 사람이 느이 그 저기를 우हे게 할러므는 그 들 판에다 갖다가 물어라.”

그래가주구 자기 어머니 묘를 갖다가 뭐, 저 전라도가 있는 어디에 있는 들, 진계명계 들이 있다던가 거기에 갖다 묻었대는 거지. 그 부인이 고썬데, 그런데 인제 그 거기다 갖다 묻고서부터는 아 이상하게 농사가 잘 안 되드래. 안 되니까 그 가뭄이 들구. 그래 한 도사가 인제 지나가면서 그 동네 사람한테,

“그럼, 앞으루다가 응, 그러문 밭광주리에다가 밥을 내가문 먼저 먹기 전에 응 ‘고시네’ 하구, 먼저 그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밥을 떠서 동서남북으로 버린 다음에 밥을 먹고 한 번 그렇게 해 보라.”

고. 사람들한테. 인제 그게 사람들은 인제 짝 퍼질 거 아냐. 그래드니 그 농사가 그 잘 되드라는 거지. 그래 그 후로는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그냥 ‘고시래’라는 게 유행어처럼 번져갔다는 거지.

27 도깨비 방망이

안종숙(66, 여) / 삼계리T 1뒤

[삼계1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느티나무 밑에서 채록이 끝나고, 다시 앞에 구연해 주신 최일순 할머니 등이 모여 있다는 안종숙씨 댁을 찾아갔다.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담소하고 있는데, 찾아가니 ‘또 왔다’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효부상을 타고, 이장님의 누님이기도 한 집주인인 제보자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그 도깨비 얘기, 그것두 들었을 거야 아마. 안 들었어?’ 응 그전에 듣기만 했는데, 그 삼국지에 그게 나오더라구. 근데 인제 옛날엔 이렇게 집이 드문드문 있잖어.

그래서 인제 가얌을 따러, 가얌이 산에 있어. 가얌을 인제 따러 산 죽 갔는데, 가서 그걸 따러 땡기다가 보니깐 해가 넘어 갔어. 해가 넘어 갔으니 집에는 돌아오지 못하구. 그래가주구 그냥 이 일개 혼집이 하나 있어서 그 다락에를, 그냥 다락에 들어가서 인제 방에 가서 잘라구 있는데.

이냥 무슨 이냥 응 도깨비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얼릉 다락으로 뛰어 올라갔대. 다락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그냥 금방맹이 은방맹이가 이만큼씩 험게 있더라. 그래가주구 그냥. 응 그렇다믄, 말을 깜박했다.(웃음)

음, 처음에 그 고얌을 따러 갔는데, 그 고얌을 따 기주구.

“아유, 이거는 우리 할머니 드리야겠다.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드리야겠다. 또 이건 인제 우리 엄마 아버지 드리야겠다.”

그렇게 인제 따서 인제 주머니에다 하나를 놓대. 느가주구서는 인제 따다가 그냥,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어두워서 못 오구는 인제 혼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인제 잘라구 들어가서 자는데. 그냥 무슨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그냥 다락으로 올라갔대. 다락으로 올라갔더니 그냥 금방맹이 은방맹이가 그냥 이만큼씩 험게 있더라. 그래가주구는 있는데 그냥 아 도깨비가 그냥,

“금 나라 푹푹! 은 나라 푹푹!”

하고는 몰려 오더라. 그러더니,

“무슨 냄새가 난다.”

구. 그냥 두리번 대더니, 그래두 다락문은 안 열더라. 그래가주구 그 이틀날 그 은방맹이를, 금방맹이를 가주구 가서 그걸 팔아가주구 그냥 부자가 됐대. 그러니깐 한 친구가,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산으로 고얌을 따라 갔다가, 그냥 집이를 저물어서 못 대오고 다락에 들어가 숨었다가는, 거기 가니깐 그렇게 금방맹이 은방맹이가 많아가주구 그걸 가주구 내려와서 그걸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두 인제 그 고얌을 따라 올라갔어, 산에를. 가얌을 따라 올라갔는데 가서는,

“아유, 이저 좋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웃음) 요거는 또 인제 응 우리 저기 우리 인제 처 쥐야겠다. 자식 쥐야겠다.”

그러구는 인제 주머니다가 따놓구서는 인제 그 잤다는 집이를 또 들어갔어. 이 얘가 일부러. 인제 일부러 인제 들어갔는데, 아 인제 가서 잘라구 하니까 무슨 소리가 또 나서, 무서워서 얼른 다락에 들어가 있었다. 아 다락에 가 있으니 금방맹이 은방맹이두 읊구는, 아 도깨비가 오더니,

“우리 금방맹이 은방맹이 훔쳐 가드니 어떤 늑이 또 왔다.”

구. 그냥 다락문을 열구 그냥그냥 잡어냥구, 그루 끌어 내려가주구 그냥 매만 실컷 맞구 왔다.(일동 웃음) 그래서 먼저 그렇게 부자된 사람은 마음이 효성시러워서 그렇게 그런 걸 만나서 그렇게 잘 살구. 응 낭중 간 늑은 마음을 잘못 써서 응, 그렇게 그냥 매만 맞구 왔다, 도깨비한테. 그래 그 집으로 내려 와서 혼났다구 얘기 해더라.

“나는 잤다가 혼났다.”구.

㉨ 불알 자지에 묻혀 죽은 여인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뒤

[삼계1구 안종숙씨택]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미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던 제보자 이야기를 이어 받았다. 이 이야기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모방담의 유형으로 음담패설에 해당한다.

훗과부가 애들을 여러 남매를 데리구 사는데, 하루는 중이 오드래.
중이와서 그 동냥을 쫓더니 안 가고는,

“자구 가겠다.”

구 그러드래요. 그래서는 그냥 이렇게 옛날 뒷산에서 몰래질 하구 사는데,
그냥 ‘자구 가겠다’구 그러드래. 그래서 어디,

“나는 회수간이라도 좀 좋으니까, 회수간이라두 자구 가게 해 달라.”
구 그러드래. 그래서 그 과부, 과부가,

“아유, 어뜨게 회수간에서 주무시냐구. 우리 옷목에서 주무시구 가
라.”

구. 그러구 애들하구 인저, 인저 애들은 이룻목에다 재우구. 자기는 밤새
도록 잠은 안 자구 몰래질을 했다. 몰래질 실 실 이렇게 뽑는 거. 아가씨
들은 모르지만. 몰래질 허는 것 봤지. 민속촌에 가면 그걸 해가주구.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인자 몰래질을 하구. 잠 한숨 안 자고. 그 중은 옷목에서
자구. 애들은 아랫목에서 자구 그랬대.

그랬는데 몰래질을 해놓고 아침을 인자 지어서는, 그냥 갈라구 그러
드래요. 그래서 저기,

“아유, 그냥 가시면 어떡해냐구. 죽이라도 잡숫구 가시라.”

구. 그래서 조반을 지어서 디렸더니,

“뭘, 짚이 있느냐?”

구 묻드래. 그래,

“있다.”

구. 그러니깐,

“가져 오라.”

고 그러드래. 그래서 짚 한 뭇을, 짚 한 뭇을 가지고 가니까 이만한 짚 똥
우리를 틀어주문서 뚜껍까장 해주문서,

“이거를 이따가 나 간 후에 한참 있다가 이걸 열어 보라.”

고. 그래서 그 등우리를 열어 보니까는 쌀이 하나 가득하게 있드래. 그 짚
등어리에 가서. 그래서 그거를 쏙고 또 닫어 놓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쏙

구 쏘구 그래두 가뜩가뜩 채워지드래요. 그래서 아무계든지 독마다 다 채왔대, 쌀을. 그리구 보니깐 이거.

“이 술이, 이 술이 원하는 대로 다 줄테니까, 저기 원 원 뭐든지 생각하는데로 달라구 그러라.”

구 그러드래.

“아휴! 그럼 인제 돈을 좀 물어 봐야겠다. 돈을 좀 달라.”

구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돈이 한 술이 됐드래. 그래가주구 그 과부가 진짜 그냥 애들허구 그냥 어렵게 사는데, 그래서 인자 그렇게 부자가 됐다. 인자 그러니까 고 옆에 있는 사람은 과부가 아니구 영감이 있는데,

“아니 그래,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고. 그러니까는 그러드래.

“아유, 그냥 스님이 한 분이 오셔서 주무시구 그냥 갈라구 그래서, 그냥 옷목에다 재웠더니 그렇게 술을 ‘짚을 한 뭇 가져 오라’고 그러더니 술을 맨들어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

고 그러니까는. 이나가 그냥 저는 과부도 아니데, 그냥그냥 어루 영감이 없는 것처럼 해 놓구는, 중이 진짜 그러구는 ‘3년 만에 온다’구 그러구 갔대요. 그러구 오걸랑 나 좀 잉,

“그이 중이 오걸랑 나를 좀 가르쳐 달라.”

고 그러드래. 인자 3년이 됐는데 진짜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거기를 왔드래, 그 중이.

“참, 이 부자가 되셨다.”

고. 그러면서 애들도 마두(모두) 많이 장성해지구 그랬는데, 그 과, 그 옆, 그 마누라를 일러 쫓대.

“우리집 스님이 왔다.”

구 그러니깐. 그 과부가 혹시나 그 과부하고 좋아해 가주구, 좋아해가주구 그걸 준질 알구, 이놈의 과부가 그날 저녁에는 영감도 갖다 감춰버리구. 그 물래질을 허구 있다가 중이 가서, 자길 데려 간거야. 그냥 뭐 자기가 자신으로 간게 아니구. 데리가 가주구 저녁을 해 잘 대접허구 인제 그

러구는, [청중 : 하룻밤을?]

“하룻밤을 인저 자구 간다.”

구 그러니까는. 이 스민을 끼고 그 막, 이냥 강제로 잔겨라. 그러니까니 이 중이,

“싫다.”

구 해두. 자꾸만 그러니까. 그 중이 아냐. 중이 아니라구. 그 옛날엔 도사가 있잖아. 그 도산데, 이제 그래서는 그냥 밤새도록 끼구는 진짜 영감도 갖다 감춰 버리구 인자 끼구 잤는데, 그 이튿날 인자 갈라구 그래서,

“아휴, 짚 가져올까요?”

그라드라. 그래서,

“짚을 가져 오라.”

구.(일동 웃음) 그러니까 짚을 가져 오라 허니까 짚을 가져 왔네. 가져오니까 짚동우리를 틀어기주구 주면서,

“나 간 뒤로 열어 보라.”

구 그러드래. 아이 간 뒤로 한참 있다 열어 보니까 불알 자지가 그냥 그 솔이로 가득 하드래요 응.(일동 웃음) 불알 자지가. 그러니까,

“너는 이게, 이게 좋아서 허는 거니까 너는 이것만 가지면 만족하다.”

갖다 그냥 울타리 밑에다 쏟고 또 쏟고 보면, 조금 있으면 또 그래. 또 이놈의 것들이 올라가서 그냥 미류나무에 가서 주렁주렁.(일동 웃음)

난 그 얘기를 어떻게 웃었는지. 그 마티네 아주머니가 밤 되면 그런 얘기를 잘 허드라고. 그냥 울타리 밑에다 쏟으면 그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중에는 그냥 그 불알 자지에 묻혀서 죽어버렸대. 이제 끝이야.

29 방구를 못 낀 며느리

안종숙(66, 여) / 삼계리T 1뒤

[삼계1구 제보지대]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번에 제보자가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인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방구를 못껴 거주구 그냥 얼굴이 너래지더라.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노라냐?”

그러니깐.

“방구를 못 꺾서 그렇게 노랳다.”

고 그러드래.

“그러문 너 한 번, 그럼 꺾라.”

그러니깐.

“그러문 어머니는 솔당을 붙들고 있구, 아버님은 방고리를 붙들고 있구. 신랑은 기등을 붙들고 있으라.”

구 그러드래. 그래 인제 시어미가 붙들고 있으니깐. 꾸니깐, 으찌나 씨게 꾸는지 그냥, 시아버지는 문고리를 붙들고 ‘들랑날랑 들랑날랑’ 시어머니는 솔당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열어다 닫았다’ 해구 신랑은 기등을 꺾안구 그냥 ‘빙빙빙 돌구’ 그냥. 그랬더니 낭중에는 인제 죽졌으니까.

“아유! 인제 고만 꾸라구. 고만 꾸라.”

구. 그래가주구 그 방구를 꾸구 나니까, 그제서야 얼굴에 화식이 돌구 사람이 건강해지더라.

30 시집살이 9년

최일순(69, 여) / 삼계리T 1뒤

[삼계1구 안종숙씨댁] 박종수, 강현모, 김수연, 김정현, 이혜진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다시 이야기를 이어받아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는 시집살이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식구가 뭐라고 치자. 남편네가 뭐라고 해도 도를 들이라고도 말을 안해고. 식구가 뭐라고 해도 말을 안해. 독이 말을 할 수가 있어. 말을 못허지.

그러니까 병어리라고, 다 잘하고 다 좋은데 병어리라고 친정에 보낼라고 도로. [청중 : 가매 타서 갔지.] 가매를 태워서 인자 보낼라고, 가매를 태웠는데, 신랑이 인자 데리고 가는 거여. 가마꾼이 가마가 인자 메고 가고. 신랑은 인자 뒤에 따라가는데, 한 고개를 넘으니가는 평이,

“휘다닥!”

허고 넘어가니까, 그것은 동세가 해 봐. 잊어버렸네.

[청중2 : 이 가심 저 가슴 썩는 가심은 저거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청중1 : 이 보리 저 보리 돌리는 보리는 시누를 주고.]

또 시아버지가 덮는 것을 뭐라고 했지.

[청중1 : 이 날개 저 날개 덮는 것은 시아버지를 주고]

또 시어머니는, [청중2 : 시어머니 뭐라고 했던가.] 시어머니는 뭐라고 야단 쳤다야.(웃음) 그리고 갔는데, 신랑이 도로 인제 시댁에를 데리고 왔어. 그 삭시를.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왜 도로 데리고 왔느냐?”

고 그러니까. 신랑이,

“말 그렇게 잘 한다고. 말을 그렇게 잘 허는데 왜 말을 앓는지 모르겠다!”

고 그러니까. 그때사 그러드라.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보내는데, 친 어머니가, 이 돌이 말을 허라면 말을 허라고. 말을 이 돌이 헐걸랑 말을 허라고 그래서 이 돌만 드러다 보면은 말을 안 해서 말을 안 했다.”

고 그러드랴요. 그 색시가. 그래가 그때부터 말을 해가지고 잘 살았다네. 끝났어.

4. 영문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영문리는 용인시내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가 전대리 입구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2분 정도 가면 있는 지역이다. 이 영문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허문, 영곡, 냉천을 합하여 이름을 칭하였다. 허문은 정씨 감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자 물이 말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영곡은 뒷산의 형국 꽃봉우리와 같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냉천은 옛날부터 물이 찬 샘이 있기 때문에 찬샘골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영문리는 6·25때도 부역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조용한 마을이다. 마을 가구수가 5~60호 정도 되는 적은 마을로, 전대리와의 경계에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어 냄새가 심하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착실하여 빨리 돈을 버는 것보다는 충직하게 농사를 지어 밥이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굳게 박혀 있어 공장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그들은 공장이 생겨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인심도 야박해지고 거칠어져 농사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마을 안의 공장이라야 가내 수공업 정도의 공장 밖에 없었다. 이 마을은 악한 사람은 없고 개발이 안되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순진하게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2) 제보자

(1) 백경희(76, 여)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이곳 영문리로 시집을 온 뒤 이곳에서 정착하여 줄곧 살아왔다고 한다. 나이는 꽤 들었지만 정신이 맑아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발음도 정확한 편이었다. 지금은 아들 며느리와 손자 2명과 살고 있는데, 아들 내외는 밖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으므로, 할머니 혼자 집안 일과 손자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성격이 소탈하고 좋아 남과 어울리는 것을 잘 하였다. 처음 보는 조사자들에게도 이야기를 신명이 나서 열심히 하여 주었다. 점심 때 아들이 들어와 밥을 차려주게 되어, 조사자들이 슈퍼마켓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후에 이곳에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5, 14, 16.

(2) 조만행(83,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백경희 할머니 댁에서 나와 노인들이 모여 있다는 노인정을 찾아갔다. 노인정에는 5명의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는데, 제보자는 그 광경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선뜻 응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영문리에서 태어나서 줄곧 정착해 지내왔으며, 요즘은 대부분 노인정에서 친구들과파 시간을 보낸다. 영문리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용한 성격이었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고, 젊었을 때부터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왔다고 한다. 지금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고 밖에 나가 살고 있으며, 부인도 돌아가서 집에 혼자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6~12.

(3) 이명자(61, 여)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노인정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가게 앞으로 나왔다. 그 가게 안에 있는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제보자는 국민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지내다가 이곳 영문리로 시집을 와서 정착해 살았다. 남편이 죽은 후 몇 년 전부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 성격이 활발하였고 남을 많이 배려해 줄 알았다. 지금은 슈퍼마켓 건물 2층에서 장가간 아들 내외와 미혼인 딸과

같이 거주 중이다. 이야기를 청하자 신중하게 몇 분 동안 고려한 후에 시작하였다. 나이에 비해 외모나 목소리가 젊어 보였다.

제공자료 : 설화 13, 15.

(4) 이은보(53,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조사들이 조사하고 있는 수페마켓에 들렀다가 간절한 요청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용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짓으며 살아왔다고 한다. 성격은 소탈하였고, 발음은 정확한 편이었다.

제공자료 : 설화 17.

(5) 정규완(82,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가게에서 조사를 마치고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는 제보자를 댁으로 찾아갔다. 제보자는 용인에서 태어나 이곳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다. 그리고 성장한 뒤에는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다.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하고 영문리 노인회장을 9년째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해서 영문리의 소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자들에게 बे지밀을 대접하면서 친절히 영문리의 유래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제보자는 몇 주 전에 위염 수술로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숨이 차서 구술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였다. 하지만 성격이 침착하여 조용한 말씨로 천천히, 그리고 또렷또렷한 발음으로 설명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8~20.

3) 설화

① 갱피 훑는 여인(성황당의 유래)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앞

[영문리 124번지] 박중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슈퍼마켓에 들렀더니 그곳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잘 하시는 할머니댁을 소개해 주었다.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부탁하니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반기었다. 제보자는 아들 며느리가 낮에 일 나가는 동안 손자 두 명을 보살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 도중 손자들이 떠들며 노는 소리 때문에 좀 어수선 했다. 하지만 끝까지 성의를 갖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어떤 엄마가, 엄마가 시집을 왔는데, 그 집 신랑은 그냥 선비 밤낮 공부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저 엄마가 먹을 게 하나나 있어? 맨날 공부만 하고 이냥 아무 것도, 죽 쑤어 먹을 것도 없어.

저 평택(?) 들녘에서 갱피를 훑었지. 갱피를 훑어서 그걸을 멍석에 다 널어가지구서, 그것을 절구에다 찼어서 인자 갱피 죽을 쑤어서 그 선비를, 공부하는 선비를 이렇게 그 갱피죽 한 그릇을 먹구서 공부만 하는 거야. 이 선비는.

아 그랬더니, 또 훑트러 인저, 그 갱피를 훑트러 나가는 그 순간에, 소나기가 쏟아져서 멍석에다가 훑터다 논게 다 떠밀려 갔지 뭐여. 속 아가지고 그냥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인저, 분가를 한 거여. 딴 데로 또 시집을 갔어.

그랬더니 역시(웃음) 이 선비는, 인저 신랑이 신랑이, 인저 여자는 그렇게 가버리고서 저 혼잔데 어떻게 그냥. 참 죽 쑤 연명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과거를 봤는데, 참 의(어)사가 됐지 뭐야. 이래가지구서 이제 그냥 격양가를 부르면서는 인자 만백성을 다 인제 내려 지도있게 내려오니까. 그 여자는 또, 후가를 가서 또 갱피를 훑터요. 새 색시 보니까 그 여자지.

“저기저기 저 여인은 갱피 훑기 마다더니, 가는데 족족 갱피라”

고. 이러면서 그 여자의 앞을 이제 지나는 거지. 아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니까는 그, 지 신랑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저렇게 장원급제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러니 어떡해. 그래,

“날 데려가 달라.”

고. 그 대성통곡을 하고 쫓아오는 거야. 그랬더니,

“물 한 양푼을 퍼다가 구시장구(?)에다 부었다가, 도로 한 양푼을 쓸어 담아 놓으면 데려갈 거라.”

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물을 한 양푼을 퍼다가 뭐 길바닥에 부으니까 한 방울이라도 어디 있어. 다 땅이 먹어 치웠지. 그러니까 이게,

“기막힌 일이라.”

구. 그 년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조사자 : 말씀하세요?] 자꾸 인자 그 래도,

“그냥 데려다 달라구. 종이로래도 데려다 달라.”

는 거야 인제. 그래서 당신과 나 다시 만나 살기는 그 일과 똑같다는 거지, 이제. 물 한 양푼을 부어가지고 한 방울도 없는 그거와 한 가지니까.

아, 그래서 그냥 지나갔지 뭐. 하두 울면서 종으로래도 데려가 가 달라지 뭐여. 인자 그러니 애걸을 해서 여자가 안 돼서로 저런 고개를 넘는 거야. 인자 그 산신조차 몇 고개를 넘지. 그랬더니 마루에서 삼베 시(셋) 필 인저 던져 줬어 인제. 삼베 시 필을, 인자 이 옷 해 입는 것으로.

“송죽이라 놔서 입구 가시라.”

구. 삼베 시 필을. 그랬더니 그게 인자 삼베가 흠들어져서 그 삼베를 인제, 그것을 선비가 훑어 줘서 인제 선비는 배랭이가 됐대요. 삼복 중에 그렇게 됐지 인저. 배랭이가 되고.

인제 이 사람은 가다가 그냥 울다울다 고개를 다, 그냥 고개 다 올라서서, 식사 시간은 벌써 지났는디, 고개를 올라서다가 죽었어. 그 여자는 인저. 그래서,

“저 여인을 묻어 주고 가야 한다.”

고. 시켜서 무덤에다 묻어 줘서 인저. 그 신체는 인제 선왕(성황)이 됐어.

삼베 시 필은 배랭이가 되고, 신체는 선앙이 되고. 이 한 많은 혼신은 말
이야, 혼신은. 한이 양 쌓이고 그래서 산중으로 땡이는 매미 됐다고.(웃
음) 그래서 사실이야. 그렇게 된 거여.

그 여자가 영혼은 매미가 되고, 신체는 선앙이 되고, 삼베 시 필 던
져준 것은 배랭이 되서, 그렇게 삼복이는 들리는 거여.

2 황금을 얻은 효성스런 며느리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앞

[영문리 124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개가 먹었던 보리쌀로 밥을 해 준 며느리의 효성을 담은 이야기이다.

다른 얘기는 어떤 엄마가, 한도 읊어가지고 그냥 부모 공경할게 읊
잖아. 그래서 인제 땡기다가 보니까, 개가 어디 가서 보리쌀을 먹구서
그걸을 게워 냐어요. 그거를, 그걸 갖다가 그냥 깨끗이 또 닭구 닭구
또 닭아서 인제 그거를 밥을 했어. 개가 게워 놓은 보리쌀을.

밥을 해가지구 조이(죄)가 되니, 참 그 지가 먼저 한 손갈을 먼저
떠 먹고, 개가 게워 놓은 거를 부모를 해서 밥을 해 드리까는. 지금은
걸핏하며 세상이 지금 발전했구 이런 세상이라도 지금은 시어미 시애
미라는 것은 그냥 늙으면 내비리고, 때려 내쫓으니. 여기서 올 겨울에
둘 죽었어. 나 같은 늙은이가. 그래서 선달에 하나 죽고, 사월에 하나
죽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졌다고. 그러니까 그 효부가 그거를 밥
을 해가지고 지가 먼저 한 손갈을 떠 먹고서,

“이 죄를 어떻게 받으랴!”

그랬더니, 하늘에 청천 벽력을, 비가 천지를 뒤집고 그냥 쏟아지더
니, 벼락을 치고 야단을 치는디 마당에 가서,

“저는 조이를 졌으니까, 개가 게워 놓은 거를 부모를, 진지를 해 드

렸으니 죽여 달라.”

고 옆드렸어. 지가 벼락맞아 죽으려고 옆드려 있는 거야, 인제. 아, 그랬더니 날이 개고 인자 그냥 천둥번개도 죽 그치고 그랬어. 그런데 저를 벼락을 안 때리고서는 그냥, 그러고서는 그냥 날이 갠지 뭐여.

그래 그렇게 눈을 떠 보니까는, 마당에도 그냥 빛이 파란 뭐가 있래 더요. 그래서 그걸 주워보니까 황금이더래요. 황금을 준 거야 인제. 그 부모에게 하도 효성스러워서. 그런 얘기도 있고.

③ 율곡 선생의 충명함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앞

[영문리 124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이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이율곡의 어렸을 때 충명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삽화는 대개 장군에게 붙어 그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활용된 삽화이다.

율곡선생님, 율곡선생님 자랄 때에 요럴(손자를 만지며) 적에 말은 안 듣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손자 : 나 공부했어요.] [조사자 : 어렸을 때예요?] 응 장난만 했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참 엄했지. 그래 장난만 치고. 아 그랬더니 저 저기 배우는 책을 다 뜯어서 연을 맨들었어. 애가, 율곡선생이. 그냥 다 연을 맨들어 가지고서는 실을 붙잡아 매가지고 그냥 땡기는다, 연을 띠는 거지.

그래 벼락이 난 거지. 아버지가 들어와서는. 그리고,

“너 그것, 그 연 뜯어서 다시 책을, 저기 책을, 모아서 송곳으로 이걸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걸 송곳으로 되로 책을 매 놓아야지 너 안(매)놓으면 죽인다.”

고. 그냥 호령을 했데요. 그러니까 애가 인자 그걸, 그 연을 죄 뜯어가지

고서는 고대로 책을 도로 모으는데, (웃음) 모으는데 갑자기 벼룩이 있지 뭐여, 벼룩이. [조사자 : 벼룩이요?] 응. 벼룩이. 옛날에는 벼룩, 빈대, 이 그렇게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싹 없지만.

아 그랬더니 그 율곡선생이 인자 송곳으로 그 책을 뚫어, 인자 책을 도로 다시 메다가 벼룩이 뛰니까는 인자 이 송곳으로 벼룩을 잡는거야. 쫓아다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방바닥을 다 다니면서 이 벼룩이 뛰는대로 땡기는 거여. 아 방바닥을 다 뚫어 놔지 뭐 그냥. 그러니 보니까 저, 아버지가 인자 들어와서 보니까 방바닥을 저렇게 망창을 해 놓았는데.

“책 메우라더니 책은 안 메고서 방바닥을 이렇게 뚫어놔으니, 어이 좋아리 맞으라고. 어이 매채하고 인자 매판을 가지고 오라.”

그래 인제 별 수 없어. 별 수 없고, 매판 매채를 갖다가, 아버지 앞에 갖다 놓고,

“종아리를 걷으라.”

고. 그래 썼지.

“너! 왜 이렇게 방바닥을 뚫었냐?”

인자 이렇게 물을 꺼 아니여. 그러니까,

“벼룩 잡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인제,

“벼룩을 잡으면, 왜 방바닥을 뚫어?”

그러니까,

“저것 책 좀 땀라고 송곳으로 이렇게 뚫다가, 그 송곳으로 벼룩 잡느냐고 다 맨들어 놓은 거요.”

그라더라지 뭐야. 그러니까 때리라고 인자 걸었대. ‘어이 때리라’고, 매판에 가 썼지. 그러니까,

“너, 그럼 그 송곳으로 너 벼룩 잡았니?”

그러니까, 잡았대지 뭐야. 그러니까,

“그 벼룩을 못 잡았으면 때리는데, 그 송곳으로 벼룩을 너 잡았으니

까 안 때린다.”

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게 형들이랑, 울곡선생이 형이 있어. 있는데 형이 동생을 데려다 콩을, 콩을 한 가마를, 한 가마니를,

“니 어디, 니들 형제가, 한 가마씩 이렇게 주면서, 이걸 다 세워 놓으라고. 몇 개인가 세워 놓으라.”

고. 그러고서 어딜 가신거야. 아, 그랬더니 울곡선생하고 형하고 인제 그걸 한 가마를 다 세자니 셀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러니까 형은 그걸 쥘 일 센거나 두 되는 셈이나, 세 스 되 셈이나. 그러니 그걸 콩을 한 가마 세워. 그러니 형은 인제 못허는 거지. 그래도 쥘 일 세고 있는거여, 형은.

그랬는데 생전 형, 아버지가 다 세워 놓으라고 했는데, 맥 나가 놀고만 있는거야, 애는. 인제 저 우리 손자 같아요. 저기 이래 놀기만 했지. 그러니까,

“너! 어떻게 헐라고 콩을 안 시고서 그렇게 놀기만 허느냐?”

그러니까.

“아, 내가 설(셀)테야.”

그랬더니, 한 되를 이렇게 퍼 방에다 싹 부어가지고 인제 시는 거지. 한 되를 인제 다 시니까, 암만 암만 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 가마를 다 그냥 싹 끊어서 그 수의 되로다. 꺾 아버지가 들어왔어.

“너, 콩 세라는 거 썼어?”

“썼어요.”

“형은?”

“형은 세 되 세고, 저는 한 가마 다 썼어요.”

“그래, 너 한 가마 세니까 몇 개대?”

암만 암만 숫자가 다 그냥 콩 한 되 센게 얼마데, 두 되면 얼마, 녀 되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이 한 가마를 다 썼다고 그러드래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바치골의 일곱 충신이래요. [조사자 : 머리가 똑똑했나봐요.] 셀려면 하나씩 셀 줄이야 알지. 저런 것들이(손자를 가리키며) 뭘 해.

4 고려장 없어진 유래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앞

[영문리 124번지] 박중수, 강현도,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쁜 며느리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이야기이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칠십만 되면 고려장을 했어. 나, 나 낳기 전전에 갖다가 고려장을 했는데, 칠십만 되면 갖다가. 지계에다 쳐다가. 갖다가 치장을 했어. 산속에 어디다 갖다가 고려장을 했어.

[조사자 : 그런데 얽힌 얘기는 읊어요?] 그런데, 왜 얽힌 얘기가 읊어. 인제 칠십서, 칠십에 이런 이 늙은이 손자가, 손자가 저 따라갔지. 거기 갖다가는, 갖다 할머니 땅 속에다 이렇게 갖다가 들여 놓고서 지계를 내버리고서는 오니까, 이런 손자, (손자에게 하는 말 생략) 그랬더니 저런 손자가 쫓아가서 지계를 내버리고, 할머니를 갖다가 었다가 (어디에다가) 땅 속에다 들여 놓고서 그 아버지가 오니까는, 이만한 손자가,

“왜 지계는 안가지고 가고, 저기다 내버리냐?”

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계는 뭐하니?”

그런게, 애비가 그런게,

“아, 그럼 아버지는 이답에 뭘루다가 쳐다 집어뻘지냐?”(웃음)

그래서 그 아들이 응,

“나도 인제 늙으면 쳐다 내버리고 마련이구나!”

그래가지고 도로 지 어머니를 끄내서 도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장법을 읊었대요. 그래서 순화가 지금도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식한테 얻는거지 꼭 받아요, 그건. 배를 받아, 배를.

⑤ 불효가 낳는 불효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앞

[영문리 124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효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반다시 피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가다가 두 노인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신랑은 청량원인데 이복으로 가빠리고, 그래고 났는데 자식들은 5남맨데, 옛날에는 자식 있는 대로 다 나서 5남맨데.

개들을 두워서 이복에 가니 얼마나 약이 오르고, 시어머니한테 다 보복을 허고,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혀. 아 개들이 자라가지고서 어떤 지지배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그 기지배가 어떠우?”

그러니깐. 지어머니가 아니지, 지지배가 마치고, 저 아니 아들이,

“나두 그러우.”

그러구 나가더니 지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웃음) 지들끼리 지어머니 보이시다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지어머니한테다 해대는 소리가,

“할머니한테 해던 생각 못 했느냐?”

고. 그런 식으로 으시 대더래요. 반드시 내가 한 일 내가 받아요. 그걸 몰르고 행거여. 잘못을, 잘못을 몰르고 하는 거야.

우리가 나무라면, 나무를 그러면 시애미고 시애비를 뿌리가 있잖어. 내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는데, 뿌리를 시애미 시애비를 저다가 삼으로 잘라내 버리면 성실하겠수 안하겠수. 응, 그래. 그거를 분간을 못 하는데 뭐. 그거 지가 사람이여 소척이지. 세상사가 다 이치를 생각하면 그렇게 돼 돌아가는건데, 이 늙은이 소리가,

“울타리에다 걸어놓고 죽는 데.”

잡어. 지회도 차례차례 지꾸 가며 가며 자식 낳고, 또 지가 또 받고 지꾸 또 그 자식이 또 자라가지구. 또 인저 이 늙은이는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데 대대손손이 다 울타리 간격이다가 걸어 놓고 간대. 이 늙은이가. 그러니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부모한테 뜻도 잘못하는 거고. 그렇다는 이치지 뭐.

6 영문리의 유래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앞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백경희 할머니 댁에서 나와 노인정에 노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갔다. 노인정에는 모두 다섯 분의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며 회투를 치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다른 분들은 회투를 치느라고 이를 해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때 회투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제보자에게 다가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영문리라는 유래는 원래 허문이라는 부락이 있고, [조사자 : 허문이요?] 응, 허문. 빌 허자 문 문자. 또 꽃뿌리 영자 골 곡자, 영곡이라는 동네가 있거든, 부락이.

그런데 인저 그것이 고려말에 생겨, 이게 주 거천 공사, 그래서 이저 그거를 참 말하자면, 시방 현에 용인에도 참 말하자면 내사면이라는 걸, 구성 양지면이라고 한거와 마찬가지로, 그래 이걸 부락이 가가이니깐 안불렀다 해서 영문리라고 유래를 맨든거야. [조사자 : 합쳐가지고요?] 응. 합쳐가지고서 영자를 떼고 문자를 떼서 영문리라고 그렇게 맨든거야.

옛날에는 뭐 말하자면 여기 참 말하자면 조상들이 여기와서 인저 부지일 하고, 그런데 인저 말하자면 허문리라는 데가 참 말하자면 나주 정씨에 정감사가 자국의 말하자면 허황같은 애긴데.

이 요 아래 개울 있거든, 큰 내가. 내려서 하도 목이 말라 물을 먹고 나니깐 아주 물이 배짝 말랐다는 거야. 그래서 하도 허무하다고 해서 허문리라고 지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거든. [조사자 : 허문리요.] 응.

그러면 저 영문리라는 데는 말하자면, 그 참 말하자면 조씨네 증시 조가 거기 있는데, 인저 그 지사들, 풍수이라고 그러지. 지사들이 인자 말하자면, 보고서,

“봉우리가 참 아주 연꽃 같다.”

고. 그래서 영곡이라고 인저 지어서 영곡리라고 나오고. 영문리라고 나오 고 이랬다는 거지.

7 냉천리의 유래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앞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한 것이다.

계 여기 인저 소지명은 냉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찰 냉자, 샘 천자. 근대 거기는 말하자면, 고 동네 어구에 아주 샘이, 참 물이 참 잘나는 데가 있어.

시방 거기를 그 샘이 아주 참 유명한데. 그래서 인자 찬 백골이라고 해서 냉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거지.

8 용인의 명현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앞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용인 지역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 생각이 떠올랐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명현이라고 하까. 말하자면 참, 그래도 이름난 참 명현이라고 하면 우선 참 충렬성이라고 하는 정포은 정몽주 선생이 있고.

또 여 정신이 없는데. 아고, 또 그 다음에 인저 신곡서원이라고, 인제 저 수진면 상하리에 조정암(조광조)이라고 그 역사에도 나올꺼야. 그 서원이 있고. 그리고 인저 정 말하자면 예전에 아직도 서원이, 정자가 있거든.

9 정포은 근처에 묻힌 민충전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앞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곳 용인에서 낳은 고려 말의 인물인 민충전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민충전. [청중 : 민충전.] 민충전이라고 것두 참 충신의 한 사람이 지.(담배불을 붙이며) 그래서 그 가천리 고향 부근은, 어찌 정포은 한 군데 자리에 썼느냐.

정말 참 그 낭반 내력을 대충 얘기하라면, 그 아버지가 아 태조의, 말하자면 매부란 말이야. 그러니깐 생질이거든, 아 태조에. 근대,

“고려, 난 충신이니깐, 고려 신하니깐 아, 인조(이조의 잘못된 듯)에서는 그냥 벼슬 안 한다.”

그러고 아버지하고 강원도 양양 가서 참 부모를 모시고, 그 아 태조가 진지를, 참 벼슬을 시키기 위해서 몇 번씩 불러도 안 가고. 그래서 인저 개성양에 와서 정신이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뭐냐면,

“나는 참 원래 살아서도 같은 참 친구고 동료니깐 정포은 정몽주하

고 같이 한 데에 물어다오.”

말이지. 그런 유언을 남겼대. 그래서 정포은 하고 한데다. [청중 : 고 근방에.] 고 근방이지. 말하자면 바로 근방.

10 수지면에 있는 조광조 서원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앞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용인군 수지면에 있는 조광조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 저 신곡서원에 조정암같은 분은, 사실은 아주 조정암 그 저 거시기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참 열렬한 아주 충신이었는데, 간신배한테 물러서는 그래 결국 저 광주리는 데로 참 구향(귀향)을 가셨단 말이야. 구향을. 구향을 가셨는데 결국 가니까, 인제 나중에 끝끝내 구향을 보냈어도 간신배들이, “이거 기냥 두면 나중에 후한이 있으니깐 안 된다.”

이래서 사약을 내렸거든. 그래 사약을 받으셨어. 그러자 인자 그 후에 어느 대왕 시절인가, 대왕이 다시 인제 갈리는 바람에, 이걸 참 말하자면 조정암은 조광존데, 이름이 광조.

“조광조는 참 그럴 사람이 아니다. 충신이다.”

그래서 다시 참 말하자면 복귀하고서 정암이라는 그 시호를 내리고서, 여기 서원을 지어주고 나라서 그런 일을 했어. [조사자 : 그러면 조광조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렇지.

그 조광조 한 분만 위해서. 말하자면 서원을 세우고 나라에서 그때 말하자면, 다 인제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인제 그 지사 지낼만한 그 재정을 주는 거거든.

㉠ 말 한 마디에 달라진 고기의 양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뒤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반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천한 고기 백정에게 말 한 마디에 따라 그 돌아오는 고기 양이 다름을 알려주는 이야기이다.

여기 용인이라는게 참 군소재지에(녹음되지 않은 부분) 얘기 해. 김 사길이라고 참 백정이 살았거든. 근대 피길 가서 사는데, ‘여보게 사’ 그 이름이 사길이라고 그랬는데, 피기 파는 사람이.

“사길이! 고, 피기 한 근 주게.”

이러문. 참 말근 피기를 죄끔 주고.

“김주사! 피기 한 근 주게.”

이러문. 피기를 좋은 피기를 많이 주더라 이거야.

그래서 인저, 양반이 가서,

“얘, 사길아! 너 우째 아무개 피기는 그렇게 많고 내 피기는 적으냐?”

따지니깐.

“아이고 셋님도! 그건, 이젠 사길이가 준 피기고, 그건 김주사가 준 피기 아니냐?”

응. 그렇게 말하자면 얘길했다는 거야. 그게 그 보통 얘기 하니깐, 그래 시방은 그전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깐 참 말하자면, 참 말하자면 그런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그게 여기는 아주 유래로 전해 내려오는 얘기야 말이야.

[청중 : 문제는 예전에 너무 따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이 옛날에 너무 따졌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고생을 한 거라는 얘기지. 그걸 상하 개념도 따져가지구 발전을 못한다는 거야.]

반상의 구별이나 상하 구별이 너무 심했거든. 너무 심했어.

12 반상을 고집한 대원군

조만행(83, 남) / 영문리T 1위

[영문2리 경로당]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만난 초기에 녹음을 하였던 내용인데, 나중에 녹음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불량하였고, 내용도 일부가 녹음되지 않아 다시 부탁하였다. 제보자는 웃음만 보 이시고 재차 구술하여 주어서 녹음한 것이다.

대원군이라는 건 누구나 하면 영종대왕의, 참 영조대왕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걸 극구 반대하는 거야. 시방 그래서 저녁마다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깐 그 참, 응 대원군 끝끝내 그냥 그 참 반상(班常)을 그 어 떻게든 그 억지로 하라고 그러고. 그 일부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그걸 타파를 하려고 드는거야.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저녁마다.

근디 그 대원군이 끝끝내 그걸 반대하구 아주, 그리고 그 몇몇 편을 모아설레문에 아주 참 역모를 하댔어. 역모를 땃(무엇)이나 하면 지금의 말하자면 역적이지. 역적모이 하려는 이런 예가 있더라구.

13 방귀 못 똥 며느리

이명자(61, 여) / 영문리T 1위

[영문1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나와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슈퍼마켓에서 채 록하게 되었다. 가게 안에서 채록하기 때문에 이야기 도중 손님이 들어오며 이야기 가 끊겨 이야기의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변에 청중들이 많 이 구경을 하고 있어 제보자가 상당히 어색하게 여겼다.

옛날에 옛날에(웃음) 참 말 할러니깐 안 되네. [청중 : 그냥 나한테,

옛날에.] 어느 처녀가 시골 나무꾼한테 시집을 갔는데. [청중 : 응.]
그냥 얼굴이 자꾸 노래지는 거야. [청중 : 왜?] 살수록. 글썸, 살아갈
수록 얼굴이 노래져서 시아버지랑 시부모님들이,

“너는 어째 이렇게 얼굴이 노래지느냐?”

고. 자꾸 물어 보는거야. 신랑도 그렇게 물어봐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그 내용을 얘기를 앓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한 달은 그냥
이저 죽었으니깐 인저 표현을 하는데,

“왜 그랬나니깐? 병이 들었나, 왜 그랬냐?”니깐.

“방구를 못 꺼가지고 그게 병이 되서,”

그렇게 저저 해서.

“방구를 인제 꺼라고. 마음 놓고 꺼라.”

고 얘기해 줬대. 짧아. 그래 인제 그랬는데 이 여자가,

“시아버지는 문지방을 붙잡으라. 신랑은 기둥을 붙잡어라. 시어머니
보고는 소두방을 눌러라.”

이래더래. 그래더니 방구를 끼는데 집안이 들석들석 하도록 꺾대.
그래고서는 얼굴이 제 색이 돌아와가지고 잘 살다 죽었다.(웃음)

14 장가든 날 나간 영감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뒤

[영문1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슈퍼마켓에서 녹음을 하고 있을 때 앞에 구술하여 준 적이 있는 제보자가 아이
를 데리고 나왔다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다. 제보자는 집에 들어온 아들의 밥을
차려 주고서 나왔다고 하였다.

촌구석에 시집을 왔더니 신랑이, 신랑이 저기 뭐 장가들어 놓고 밤
에 나갔어. 그런 얘기 들었소?

집 나가서 구 년이 됐어. 구 년이 됐는데, 그 시어머니를 인저 시어

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바느질 품을 팔구. 증말 그거 발로 밟는 저런 방아를(손으로 모양을 표시하며) 짚어가치고 품을 팔아서 그 어, 시어머니 봉양을 했대구.

그래 봉양을 했는데, 그래 돌아갈려구 병환이 들었는데, 동지 슬달에 눈이 많은데, 눈이 글썽하게 오는데, 사박골 사는 그 소리는 할머니 되야 해 주지. 그랬는데 병환이 들었는데, 그냥 저런(손끝으로 마을 뒷산을 가리키며) 뒷동산으로 낫을 가지고 가서 생솔가지를 따서, 시어머니 인저 이렇게 돌아갈라고 하는데 방이 뜻뜻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불을 때는데 점점점점 찾아들어 가더라. 시어머니가 점점점 목숨이 찾아 들어가, 죽을라고. 그래서 이 불을 때구, 생솔가지 한, 한 아궁이를 해서 쳐 넣고서는,

“어머님!”

“왜?”

또 인저 또 있다 때다가 아주 돌아가시지 않게, 어이 때서 뭘 담어다 놓구서 인저 그 불라구. 게 또,

“어머님!”

“왜?”(목소리를 작게하며)

또 이, 그냥 있다 점점점점 인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구. 죽으라 사라 그냥 그 청솔가지를 그냥 붙쳐서 불을 땀으니, 불 때서는 화기를 따라서 다시 들어가서는,

“어머님!”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라. 인제 목소리가 찾아들어 가지구. 아! 그러는데 그냥 바깥에서 눈이 그냥 오는데, 인저 바깥에서 눈이 오는데,

“다닥, 다닥, 다닥, 다닥.”(발로 바닥을 구르며)

소리가 나더래유.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돼서. 그래 인저 할머니지 뭐, 인저. 인저 시어머니는 인저 그냥 지금 운명을 하시는데, 내다보시자 구 년 만에 신랑이 왔드래요.(웃음) 들어 스테래지유. 그래서 인제, 뚜껑을 열고,

“그냥 어머니 돌아가실라구 그런다.”

구. 그, 이 그냥 이들이 오니까는 그냥 팔쪽 넘어가드래유. 그래서 인저 종신을 본 거유 인저. 구 년 만에 와서. 그랬는데 이것말 그 개울 거기, 거기 를 집이를 오느라구. 집이가 오구, 집이를 오느라구 오는데, 그 개울을 건너는데 하얀 물이 그냥 뿌리쳐 많이 내려오는데 그냥 거기를 건너는 거여.

그랬더니 그냥 뒷동만한 구랭이가 감아올라 오더라유. 그 인저 어머니 그렇구. 그렇게 맥내는 혼저 그렇게 그냥 신랑두 없는 그 부모를 모시구 그렇게 고생을 हे구 그랬는데, 구랭이가 감아올리더니 여기 와서 (팔뚝을 치며) 이려고 허드래요. 그냥 키를 넘보는 거유. 그, 이 뭐 속 절없이 그 구랭이헌티 잡아 먹히야 허졌지 인저. 이 물 속에서.

인저 물속에서 물을 건너는데, 이질말 물속에서. 도리없이 잡아 먹히게 생겼지 어땡하. 그래서 모자를 벗어서 구랭이 대가리를 그냥 요렇게 싸가지고, (손으로 싸는 시늉) 그냥 입으루다 깨밀어서 그냥 그냥 바셔지도록 깨밀었데요.

그랬더니 그냥 확 풀어지더니 저 모래 밭에서 그냥 탁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꺾동 떨어지는 소리를 하더라. 그래구선 인저 집이 들어온 거여, 집이 인저. 그저 인저 장례를 모시구, 어머니 갖다가 모시구서가 봤대.

그거 필경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냥 피를 그냥 이 한 동이는 토하구 죽었더라. 그 구랭이가 그것도 얘기유.

15 기차를 처음 본 사람

이명자(61, 여) / 영문리T 1뒤

[영문1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바로 이어서 구술해 준 것이다. 이것은 기차가 처음 생겼을 때의 일화로, 실제로 있음직한 실화적인 내용이다.

내가 헐게요. 철로가 처음 생기는데, 그 난 몇 년도 애긴지는 몰러. 그냥 들은 얘기지. [청중 : 그것두 나 어려서 그 철길 닦은 거여.]

그 저기 철로가 처음 생겨 가지구 인제 개통을 해서 기차가 처음 갔는데, 생전 그것들을, 생전 그것덜을 못 봤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물고 보러 인저 논애를 가셨다가 저 시커먼 늪이, 까다란 늪이(웃음) 꺼면 연기를 푹푹 폼으며 그냥 오더라. 그래서

“저게 뭐가.”

하구 보니까. 그냥 말두 못허게 기다란 늪이 시커먼 연기를 폼구 오는 걸 인제 쳐다보구 있을라니께, 그냥,

“짱-”

허니 소리를 질르더라. 그래서 그 뭐, 문식이 아버지가 집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 바지 안에 똥 조금 샀을 텐데.”

그러더라.(웃음)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거지.(청중 웃음)

16 호랑이를 이긴 소

백경희(76, 여) / 영문리T 1뒤

[영문리 가게]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사람들에게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민담에서 보여지는 이것이다.

이 가마실서, 그 효자문 있는 데서, [조사자 : 가마실이요?] 응 효자문. 호랭이가 나타났대잖어. 소가 마차를 끌구 오는데. 그랬더니 이 소허구 호랭이허구 붙었어 인저.

그러는디 인저 저기 사렘이 그냥 쇠다리를 이렇게 꼭 붙잡구, 호랭이허구 소허구 이렇게 붙어서(팔을 크게 벌려 싸움을 하는 몸짓을 하

며) 싸움을 하는데, 뒷다리에 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워땡게 싸우던지 그냥 말두 못허지. 인제 호랭이허구 소허구.

그랬는데 인이가(이 사람이) 그냥 고계 견디다 못해, 견디다 못해 마차를 끌고 갔던 이가 인제 돌아갔대잖어. 그랬더니 결국은 소가 이겼대.

그래구선 돌아와서 그냥 다 집을 죄 부수더라, 소가.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끝을 안 보구 들어와서 그랬다는 데여. 거기가. [청중 : 효자문이요?] 응, 효자문 있는 데가. 가마실 사람이.

17 할미성

이은복(53, 남) / 영문리T 1위

[영문리 가게] 박종수, 강현도,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슈퍼마켓에 채록하고 있을 때, 이곳에 잠시 들렀다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조사자들의 간절하게 요청을 하였다. 제보자는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한참 생각하다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는 마을 부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다.

그게 저 할미성이 말여. 예, 고려, 고려 때인지 몽고족이라고 있었지 왜? 옛날에 응! 몽고족이 쳐들어 왔을 적에 그 할미성을 쌓았다는 얘기여. 응? [조사자 : 예.] 몽고족이니까는 고려 말기나 응? 저기 뭐 이조 초기 정도 될 테지. 응?

하튼 고려 땔 거여. 이조 때면 또 얼마 되질 않잖나? 응? [조사자 : 고려 때예요?] 고려 때지? 고려 땔텐데. 하튼 나도 거기 그 쪽으로 나무를 그전에 해러 땡기고 그랬었어. 이, 이것만 해요.(가게문의 문짝을 가리키며) 이 문짝만한 놈의 그, 그 돌을 가다가 착착 쌓아 올려간, 보니까는 거 참 성이 크지는 않은데. 해면 그래두 우리가 볼 적에는 커요. 응?

그래 한쪽은 헐리구 그랬더라구. 그래서 그게 고려 때 뭐여, 말기나

중기나 해뜬 고려 땀 거여. 그게 거 뭐, 몽고족 들오구 그럴 때, 고려 때 아냐? 그게 하루 저녁에 할머니들이 응? [조사자 : 할머니들이요?] 응. 할머니들이 그걸 갖다 쌓다는 거여.

그래가지고 지금꺼정 유래로 내려온 말이 할미성이라는 거여, 저게. 할미성. 응. 아직꺼정 할미성이라구 내려와 있지. [청중 : 할미가 쌓았디야. 마귀 할머니가.] 그게 전설이지 뭐, 전설. 전설밖에 되지 않는 데, 그래 내가 붙적이는 마귀 할머니들이 쌓았다는 말두 있고. 몽고족 그 침입 때, 몽고족들이 침입했을 때, 저기 뭐 이쪽 수원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간 급히 쓴 문장이여.

성도 쌓기를 우리 남한산성 같은 데는 견고하게 잘 쌓았는데, 여기는 남한산성 정도의 성같이 쌓지를 못 했다고. 그렇지. 견고히 쌓지 못한 것을 보니 급히 쓴 문장이여. (제보자는 성을 쌓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귀 할머니가 쌓을 리가 없고 부녀자들이 함께 쌓았을 것이라 함.)

18 허문의 유래

정규원(82, 남) / 영문리T 1위

[영문리 112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퇴직 후에는 영문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 동네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야기를 수월하게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위염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몹시 힘들어 하였다.

여기가 왜 영문리가 됐느냐 하면, 여기여 부락이 허문이라는 터 허자에 이걸 빌려서, 흙 토를 넣으면 터 허자가 되거든.

이 여기가 허문리라고 허는 덴데, 이 허문이라는 그 허문 그 문자가 왜 붙었나 하면은 어, 내 12대 할아버지가 대사헌, 이조 시절에 대사헌을 지내신 양반인데. 이 그 양반이 임금을 모시고 저리 참 피난 나가

시다가 도중에서 작고를 하셨어. 그래가지구 임시 가장(假葬)을 했다가 이리로 모셔 왔거든. 가마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요 바로 지금 등생이 넘어.

영문리라는 건 요기, 요 산 요기, 요 저기, 저 등그런산 요 경계 이렇게 해서 도랑을 타구설랑은 그게 인저 전대리 영문리 이렇게 됐는데.

인저 허문에 대한 얘기를 허라니깐 얘긴데. 허문이라는 데가 그,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되는 분이 팔도 감사를 지내셨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 충정이라는 저기를 시호를 내줘서. 그렇게 해서 충정공이라고도 하지.

인저 보통 일반들은 말허는 건 팔도를 땀기면 감사를 허시겠다. 팔도감사. 그 분이 말하자면 팔도 감사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여기 산소야. 그러니까 그 임난 때 돌아가셨다는 양반이. 그래 임시 가장을 했다가 이리루다가 나중에, 예 이장을 해 오신 분인데, 내게 12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팔도 감사 할아버지라는 양반이 여기 더러 좀 땀기셨던 모양이야, 그전에. 그 양반이 기골이 아주 장대허시고, 해가지고 참 잡숫는 것도 소소허게 잡숫는 분이 아니셔. 그 인저 뭐라 장사감 머리라고 해서 인저. 관찰사가 그 왜 감사 거시기 밑에 관찰사잖아. 관찰사라고 있잖어. 그 관찰사 되시려 그, 허신 양반인데.

예, 그 분이 여길 오셨다 허두 공암 뿔(물을) 다 대셨다. 뷰어서. 그 시 시나물이 시장 잡순거지. 예전에 시장허니까. 그래구선 이래 목이 말러 그 개울 여울목에 물이 내려오는게 선찰았던 모양이여. 그걸 따시고 나니깐 물이 끊어졌거든. 그래,

“하두 허무하다.”

구 해서. 허문이라는 그 토 허자 그 문 문자를 써서 그게 전설로 내려오는 걸루 그렇게 내가 알구 있는데, 확실히 내가 그것 모르지 인저. 꼭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인저 그분의 예, 그러니깐 대사헌 할아버지는 그 아드님이, 네째 아

드님인데 요기 가마실 요렇게 갈려면 바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될려고 하는 건데, 그 신도비가 있어.

그 허문이라는 데가 그렇게 허무했다. 그러구 저 위에 올라가면 열골 영골이라구 있어. 영골.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영자 알지, 꽃부리 영자. 그리구 인자 문, 문 저기 문자지. 그러니까 영 아니 골 꼭자 영국이라고, 그래 영국. 허문해서 영문리라 인제 그런 내력을 이렇게 여기가 그렇게 됐고. 특이하게 여기 별다른 거시기는 뭐 사적이 없고. 예전에 그 여기 위치가 좋다고 해가지고, 요 근래 저 아래 갈담리, 모현면 갈담리라고 있거덩. 그리고 파담이라 허는다. 거기 터 지명 그러는ندی,

요기허고, 허문하고 갈담리를, 어 말하자면 일 허문 이 파담이라구, 어 말하자면 좌치가 좋다고 해서 인저 그렇게 전설은 내려오는 건데. 이 여기 그렇게 크게 무슨 영문리에 대한 별다른 그 사적에 대한 거시기는 없구.

19 마귀성 유래

정규원(82, 남) / 영문리T 1뒤

[영문리 112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 조상의 신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이 근처의 지명에 대해 묻자, 생각하시다 구술하여 준 것이다.

양쪽에 그게 성산 이봉진허고, 여그는 그 태산 노구선 그 거시기를 허는다, 마성 인터체인지 시방 톨게이트 있잖아? 거 표 파는데. 고기가 마귀 할멈이 점령을 허구 있던 데고. 이쪽에는 마귀 할아버지가 인저 그 성산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서로 경쟁을 해서 어 성을 쌓어. 그 인저 그 노고산 있는 성도 쌓고, 인저 성산도 쌓고 그랬는데. 그 사적이 남아 있어. 그 저 동

문턱이 있고, 또 노고산 저쪽에는 그 돌로 쌓은 저기 있는데, 치마폭에 날러다가 쌓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작엔(웃음) 남자 괴춤에 이렇게 해서 안고 가서 쌓았다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이 성산이라는 데가 그 석성산이란게, 그 성이 있는게, 시방 유래가 옳던게 아니고 현재 있어, 성이.

20 제터골의 유래

정규원(82, 남) / 영문리T 1뒤

[영문리 112번지] 박종수, 강현모, 김미영, 박상경, 조민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지명에 관한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시방 저 그 군인들 있는데, 그 밑에 지터골이라고 있어. [조사자 : 지터골이요?] 제사 지내는 제터. 그 제터가 있는데, 그제 날이 가물면 기우제 지내는 저게 있는데 거기가 넓거든.

그렇게 넓었으니깐 저게 드루(드러) 누워 있으면 사방에 보이는 게 아무 것도 없어. 하늘 밖에 없지.(웃음) 그래가지구 거기 제터골이라고 했는데. 그 제사를 거기다가,

“누가 제 자리 위를 묘이를 쓰면 이 날이 가문다.”

고. 해가지고 그 뭐 파낸 자국 있고. 뭐 그전 꼭 여기서 저기 허면 부락민들이 가서 거기다 지, 지사를 기우제를 지내구 그랬다구. 근데 이즘에는 거기 가지두 못하구 뭐, 기우제 같은 거 지내지두 앓구 그러니까 고건 문제가 다르구.

5. 마성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마성리는 포곡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로 용인 에버랜드를 들어갈 수 있는 영동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곳은 용인시에서 영문리를 지나 차로 5분 정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성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마가리와 성저리를 합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석성산의 보개산성과 할미산성이 있는 마을이다. 마가리는 할미가 성을 쌓았다는 할미성 밑에 있어 마가실이라고 하고, 성저는 성산 석성 밑에 있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성밑이라고 한다.

조사자들은 오후가 되어 마성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주말 오후라 그런지 원래 그런 것인지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빛만 내려쬐일 뿐, 마을은 너무도 조용하였다. 얼마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는데, 농번기라서 모두 일을 나갔기 때문이다. 마성리의 가구수는 대략 50여 가구였고, 청년층은 없었고 거의가 노년층이었다. 이 마을은 앞으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형 농촌이었다. 경기도 짙은 나뭇남도 진상하였다는 설이 있듯이 이 마을의 산업은 논농사가 주이다. 마을을 잇는 버스도 2~3시간에 한 대씩 들어올 정도로 도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대화가 이루어져 개량형 가구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2) 제보자

(1) 이영학(69, 남)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마성1리에 도착하여 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빨간 기와집의 할머니가 이야기를 잘 한다고 소개하여 찾아갔으나 안 계셨다.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는 분을 묻자 제보자택을 알려 주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제보자의 집을 들어가 보니 할머니와 함께 계셨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자식들은 출가하여 밖으로 나가 살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의 부인 이재봉(69)도 이야기 한 편을 구술하여 주었는데, 기흥읍 신갈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온 다음에 겪은 시집살이 한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4, 6.

(2) 이은복(56, 남)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이영학 할아버지택을 나와서 마을 돌아다니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만난 분이다. 조사자들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곳의 전설인 할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이야기기 생각날 듯 한데 생각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7~8.

(3) 박대석(79, 남)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마성2리 정화순 댁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제보자의 댁을 찾아가게 되었다. 집에는 제보자와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곧바로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처음에 조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보고 거절하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해 주는 점으로 보아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보자는 용인시 원산면 박곡리에서 사시다가 6~7년전에 이곳으로 이사왔는데, 이 동네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시는 분으로 통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10.

3) 설화

① 마성리와 할미성

이영학(69, 남) / 마성리 T 1앞

[마성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한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였다. 빨간 기와집의 할머니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안 계셨다. 그래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제보자의 집을 들어가 보니 할머니와 함께 계셨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① 마을 유래

내가 얘기 한 마디 허졌어. 여가 원래 삼전이여 삼전, 삼전부락, [조사자 : 삼전부락요?] 응. 근데 인제 여기가 마성1리인데, 마성리가 이제 3개 부락이라서 저기는 마가실, 여기는 삼전, 여기는 성리. 여기는 삼전, 삼전.

인제 저 인제 저 행정상 말하자면 인저 리 단위로서나 분할이 되어 있지. 3개 리로다가. 마성리.(다른 옛날 이야기를 제보자에게 요구) 여기가 용인군이 용인시가 됐다고요. 그래 여가 인제 용인시 포곡면 마성리. 동(洞)이 아직 안 됐어요, 여기가. 그리고 인자 그 전에 옛날에 노인네들, 난 이자 전전해서 들은 얘기지.

여 삼전이 요기 인자 2리가, 요기 그리고 인자 여기가 1리여, 마성1리. 2리가 마가실, 마가실. 그리고 3리가 인자 성밀, 아니 성저, 그러니까 성저 성밀자 밀 저자 성저여. 그래 여가 여기 성이, 산이 이제 성산 이거든요. 석성산이지 원래. 이 인제 지도상으로는 석성산으로 나온다고. 그 때 인자 우리네가 부를 적에는 인제 약하게 불려서 성산, 성산 그러지. 성밀이 성저여, 인자 한문자로 쓰자면. 그러니까 성저 부락2리, 3리, 여가1리.

② 할미성의 유래

그래 뭐 유래 얘기, 뭐 옛날 유래 얘기라는 건 저 여기 삼전리는 발서이, 가운데 집이 세 채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삼전이라고 그랬고.

마가실은 저기 저 마가실 뒤에 그 인제 할미산이라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말하자면 그 성을 쌓았다고 해서 그 할미성여. 그 성이 시방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흔적이. 그 성밑에서 그 성이 쌓은 그게 시방 그 흔적이 있고. 무너져 나간거지.

그래 인자 마가실은 인자 마귀 할머니가 인자 쌓았다고 해서 그건 인제 그게, 인제 그 성이 마귀 할머니, 마귀 할머니가 쌓았다는 거야. 그래서 인제 마가실을 그래서 마가실이 되었다고 얘기가 그거고.

성밑선 여기 성밑에 산다니까 성밑이 된거고.(주인 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심.) [조사자 : 거기 얽힌 무슨 얘기같은 거 없어요?] 얽힌 얘기 나는 몰라요. 거 뭐 옛날에 노인네들한테 들은 얘기 죄다(전부) 까 먹고 난 또 모르지 뭐. [조사자 :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근데 인자 뭐, 마귀 할머니가 살았다고 하는데, 뭐 마귀 할머니가 옛날에 딸하고 아들하고 나 났는데, 다 장수라고 장수. 장수라는게 뭐냐면 옛날에 말이지. 왜 장수 이리잖아. 뭐 전장터 나가서 싸움하고 그런 걸 장군. 옛날엔 장군을 갖다가 장수라고 그랬지. 그게 인제 왜냐하면, 예 아들, 딸들이 시기하는 거여.

“니가 잘 났니?”

“내가 잘 났니.”

그래 인제 딸을 죽이기 위해, 딸을 죽일라구 인제 피를 쓴거지. 그 할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니까. 서로 인제 아무 때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인제 어느 놈이 하나 죽어야 한 놈이 살꺼거든. 그래가지고선 말이지 뭐 아들은 말이지 나막신을 신겨서 뭐,

“어딜 갔다 오라.”

고 그러고. 딸보고는 말이지, 딸하고 들이 쌓았다는 거지, 이 할미성. 그래 저 아들이 갔다 올 동안에 이 성을 다 쌓다는 거야. 왜냐? 아들이 늦게 가서 아들이 죽었잖아. 아들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

그래 이 마가실이 인데 그 마귀 할머니가 쌓다고 해서 이게. 야 저기 저 성 이름은 몰르고 그게 언제 언제 쌓았는 지도 여 유래도 몰라요. 언제적 성인지. 옛날에 쌓았다던데, 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노인네들도 어느 시절에 쌓았는지 어느 시기에 쌓았는지 그걸 몰른다고.

[조사자 : 그리고 처녀성인가 무슨 그런 얘기가.] 여긴 처녀성이 여긴 없어요. 천녀성은 저기 있지 뭐여. 이동면, 이동면에 거기 처녀성 있다고 그러데. 여기 얘기 달라요.

여기 여 석성산이라는 건 성산 그것도, 이제 어느 시절 짠 건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네가 가 보면 그 성터가 말이지 시방 현재께 남아 있다고 그 주위에.(물이 없는 할미성 부분임)

할미성, 할미성, 할미성 그러는 것이 마귀 할머니가 쌓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할미성이라 그러는 거여. 그 그래 인저 돌을 보면은, 후기에 쌓은 여기 수원성 같은 것은 말이지. 인재 참 이조, 이 중엽에 쌓은 거기 때문에 그 돌을 다 정을 때려서 말이지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쌓았지만, 이거는 이 돌을 주워다는 걸 보면은 그냥 이런 막돌이에요, 막돌.

근데 쌓은 거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개미도 제대로 못 올라가게 쌓았어. 그래 인저 뭐 마귀 할머니가 쌓았다니깐 인재 우리네야 달르지 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신이라 그럴까, 그런 조화로다 쌓은거지 뭐.

여기도 그래 여기도 동문이라고 있었는데, 이 돌을 다듬어서 인재 이 돌을 이렇게 문같이 해 놓 놨었는데, 요즈음 말인지 그 뭐 젊은 사람들이 말이지 힘자랑인지 뭔지 한다고 해서 죄다 굴러 그 내버리고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그것도 문을 쌓았는데 그 쌓은 정면 보면 기가 막히게 쌓았지. 옛날 사람이 그러고 보면 재주가 좋아요.

② 물이 없는 할미성

이영학(69, 남) / 마성리T 1앞

[마성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주었다. 옆에 계신 할머니와 함께 들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의 할미성 이야기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독립시킨 것이다.

난 옛날에 노인네들이 얘기하는데, 양쪽으로다가 성을 쌓긴 쌓는데 전장을 못했다는 거여. 왜냐하면 전장하기 위해서 성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읍어가지고 패했다는 거여, 거기서. 물이 읍어가지고. 물이 있어야 되거든, 성안에 말이지. 거기서 생활을 헬라면 첫째는 물이거던. 물이 읍어가지고 여기서 성 쌓아가지고선 실패를 했다는 거여.

[조사자 : 그게 어느 시대입니까?] 근데 어느 시대인지 그걸 아는 사람이 읍시요. 응 그걸 몰러. 그건 물론 고구려 적일테지. 뭐 여기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었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용인이 고구려 땅이었었으니까, 고구려 때일꺼예요 아마.

③ 성씨의 관한 한자

이영학(69, 남) / 마성리T 1앞

[마성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효자 이야기를 묻자, '그것은 없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옛날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나쁜 것만 남는다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한자를 가지고 성씨를 비난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 옛날에 글자 가지고, 한문자 가지고서는 말이지, 인자 그 성자 가지고, 여기 저 성자 가지고 왜, 인저 성들 가지고 욱들 하는게 있다고. 왜 송나라 송자 있잖아. 송서방 여기 누구 있어? 송씨 있어? [조사자 : 제가 송씨거든요.] 송씨가 말이지. 그런 건 한문자 풀이 가지고 말이지 서로 농들 하고 그러지, 그런 거 얘기지 뭐.

[조사자 : 송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송자? 송서방네가 그 중에, 중의 손이라고 말이지. 옛날에 인자 송서방네 보고 인저 농담삼아 욱들하고 그렇게 했지. [조사자 : 어떻게 욱했는데요.] 거 내 그런 거 얘기하면 뭘 해. [조사자 : 얘기 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고 저 이 뽕나무 상자가 있어. 그렇게 인자 뭐여. 남구(나무)에서 뭐 나팔부는 자가 인자 무슨 자냐 그러면, 그 뽕나무 상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 [조사자 : 나무 목자에다,] 아니 또 우자 세 개에다, [조사자 : 아, 또 우자.] 또 우자.(한자를 쓰기 위해 잠시 중단) 이게 뽕나무, 뽕나무 상자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 그게 나팔부는, 아니 나무에서 나팔부는 자가 무슨 자냐 하면 말이지, 옛날에는 한문 배우면서 이런 재담 가지고서 옛날에 한문을 배웠다는 거야.

(조사자 성씨에 대해 다시 묻자 해주심) 또 뭐이가 있더라. 그게 서로 성씨 가지고. 그전에 오얏 이자 이씨 아니여. 내가 이쨌네. 그게 나무 밑에 뭐 아들 자자 아니여. 그게 거 왜냐하면 말이여 저 그거 욱을 할려면 말이여, 그 어떻게 열여덟 놈의 아들이라고 말이지. 그게 왜냐하면 말이지 왜 쌍말로다선 못된 말소리 하잖아. 십팔이 뭐여? 그렇게 욱하고. 그 왜냐하면 이 성가지고 욱들 많이하고, 그 농이지 농.

그게 인자 나라 정자 있잖아. [조사자 : 나라 정자요?] 응 나라 정자. 왜 나라 정자 정서방들이 많잖아. 이게 나라 정자를 갖다가서는 (쓰면서) 이게 원래 나라 정자거든, 이게. 이게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정서방들이 싫어한다는 거여. 그래서 시방들 쓰지. 이렇게 이렇게 써야만 정서방들이 화를 안 낸다는 거여. [조사자 : 왜, 화를 안 내요?] 그래 이 정서방네들 보고 뭐라고 그래? 당나귀라 그러지, 당나귀. 당나귀 서방이라고. 그런 이게 은근히 당나귀 같지. 요 이게 빨,

요게 꼬리에, 머리에 수염난 거 같잖아. 요걸 가지고 몸뚱이를 만드는 거지 이거. 이거. 이걸 갖다 잘 묘사해서 잘 그리면 당나귀 같아 보인다고. 그래 이걸 이렇게 원래 정자는 이 자여. 그 이렇게 쓰면 정서방들이 싫어한다는 거여. 거 이렇게 써야 좋아한다고. 그런 그게 있어.

옛날에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자 거기서 나온거여 이게. 그래서 이제 정서방 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하면 의례 정서방이거든. 그 글자가 이렇게 생겨서 당나귀라는 거여. 뭐 사람이 당나귀처럼 생겨서 당나귀가 아니여. 이 정서방은 당나귀라고 현잖어.

4 치마바위

이영학(69, 남) / 마성리 T 1앞

[마성리 제보자 맥]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조사를 나온 목적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때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치마바위에 대해 할아버지에게 묻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청중 : 거 시방 치마 바위, 치마로 갖다 돌 쌓아서 만든 얘기 그런 거나 해 줘요.] [조사자 : 그런 얘기 해 주세요?] 치마바위. 치마바위라고 저, 그래 인자 성저(성밀에) 거기 가면 절이 그전에 암자가 거기 있었 있었시오.

그런 거기 이자 치마바위가, 치마바위가 있는데, 먼데서 보면 치마 두른 것 같이 바위가 거기 있었시오. 엄청 크지. 바위가 말이지 뭐 이 집채 보덤 더 크지. 그래 인자 치마 두른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치마바위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 가 보구서 얘기들 해야지 그제 뭐.

근데 여기 뭐 산신당에서 뭐 산신두 있구. 여 여기가 명산이예요. 이게 이 산이 이래도 이거 쪼만해두 산이 명산이라. 그 저 시방 이 저 재터풀이라구 해가지고서는 저 군부대가, 통신대가 앉았어.

거기가 그 재밋골이 옛날이 가물면은 가서 천제 지내구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저 시방 부대가 앉았다구, 옛날에 소 잡아놓고, 여긴 소, 소 잡아서 대갈이 갖다 놓구선 제사 지냈다구.

치마바우는 그게 너머서 보면 말이지 그냥 치마 두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치마바워지. 왜냐하면 이 바우들이 크더란게 쥘채만한 게 그러니까, 이 저 두 개가 얹혀 있다구. 여기 하나 있구 이 위에 또 하나 있구. 그 인저 그 둘레가, 이 여 둘레가 말이지 꼭 치마끈 두른 것같이 보이구. 그 밑에가 치마 두른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치마바워여. 바위가 그렇게 생겼으니깐 치마바워지.

[조사자 : 그러니까 뭐 치마로 해서 쌓은게 아니구요?] 아냐. 치마 두른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인자 치마바워라구 하는 거야. [조사자 : 근데 거기에 얹힌 얘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언제 쌓았는지.] 그 그건 못들었어. 그 그건 읊어. 썬게 아냐. 그건 저절루 그렇게 천연적으러다가 생긴거지.

[청중 : 치마, 치마 앞에다가 담아다가 쌓은 거라매.] 아니 그건 할미성. [청중 : 할미성이.] 할미성이 글썽 말이지, 그게 미꾸 할머니가 말이지 치마폭, 치마폭에 말이지 저 돌을 주워다 쌓다고 해서 그게 치마바워여. 아 저 저 할미성, 응 할미성

5 도깨비에 홀린 사람

이재봉(69, 여) / 마성리 T 1앞

[마성리 제보자 맥]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을 시작하였다. 이 할머니는 용인군 기흥읍 신갈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와서 시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도중에 이 이야기를 구술하게 되었다.

[조사자 : 뭐에 홀리셨는 데요? 도깨비에 홀리셨다면서요?] 그래, 그래 가지구 인저 딸 딸을 불러 오래요. 딸이 두 명인데, 인저 손녀 딸 까지 인자 셋이지. 인저 한 분은 큰 양반은 송골 사시구, 이 저 둘째 양반은 저기 이천 사시거던. 가 불러 오래문 가서 불러와야 베기지, 안 불러오고는 못 베겨요. 그러던 인저 그 낭반 불러다가 인저 또 불러오면은, 그 낭반 저 왔다가 가면은 또,

“작은 딸 불러 오라.”

작은 딸 인저 불러 오면, ‘큰 딸을 불러와라.’ 맨날 이렇게 ‘손녀 딸 불러 와라’ 이러다가, 한 번은 저기 저 산골 마을, 우리 집안네 인자 제사 지내러 가는데, 거긴 가서 거실 뒤편 저 저, 거기 가서 떡을 얻어 오래요, 노인네가.(웃음)

그래 거기서 지양 지내러 가다가, 가는데 인저 걸어서 갔어, 거기를. 해 넘어가기 전에 갔는데, 아 개울을 이렇게 개울 개울을 건너가야 되 거던.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냥 개울이 아니구 환하게 그냥 큰 신 장로가 되더라구. 그래 인저 그 길로만 따라갔잖어, 길. 길로만 따라가 니깐 길이 안 나오는 거여, 꼭. 원 가는 길이 아니구 자꾸 딴 길로만 가지더라구.

그래 밤새도록 그 개울벌을 헤미고 돌아다니다가 다 밝은데 에, 인저 그때는 저기여 차가 귀했어. 새벽녘에 인저 이 저 차불이 비치더라구. 그리구 차불에 비치는 걸 보구서는 그 가만히 서서 향을 하니깐, 그 차 오는 걸 보구 생각하니까는 괜히 내가 그 개울, 개울에서 지냈 지, 엉뚱한데 가서.

그래 그 인저 차불에 비치는 걸 보구서는 찾아 찾아 나가가지구, 갈 데는 못 가구 탄집, 탄집에 가설랑은 내가 아는 집이 자구서는, 잠깐 그 그집에 가서 들어앉았다가시리 갔다가 왔어, 글썸. 그렇게 우리 할 아버님이 이상해요. 이상한 양반이야.

6 도깨비로 변한 도리깨 장치

이영학(69, 남) / 마성리T 1앞

[마성1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치자, 같은 도깨비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옛날에는 여기 숲이 많았었지. 인제 거기를 오는데, 구척 장승같은 놈이 그냥 붙들고 안 놓는거야. 시비를 걸더라구, 구척 장승같은 놈이.

그 인제 밤새도록 그냥 그거한테 말이지 흘려서 말이지, 그냥 아카시아 나무 숲속을 말이지 헤맨거여. 거기서 날 샌거여. 그래 이 나중에 보니깐 도리깨 장치가 말이지, 이렇게 돌아, 속을 썩이드래, 도리깨 장치가.

7 할미성의 유래

이은복(56, 남) / 마성리T 1앞

[마성1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이영학 할아버지택을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만난 분이다. 조사자들은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이곳의 전설인 할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이야기가 생각날 듯한데 생각 이 나지 않는다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저기 뭐 할미성에 그 대한 유래 유래라고 할까, 그 뭐 저기 확실한 건 알 수 없고.

어 저게 신라 말엽인지 인제 고려 말엽인지 내 그런 건 확실한 건 잘 몰라요. 그때 성을 쌓았다는 것인데, 가면은 지금 성이, 하튼 우리 네가 생각하기 어려운 돌로, 지금 성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쩌금 혈

어지고 그랬는데, 하영턴 이거보담도 더, 이거 이 대문 기둥보다도 큰 걸 갖다가 이렇게 착착 쌓단 말이야.

그걸 누가 쌓았느냐고 하면은 옛날에 뭐 몽고, 몽고족일테지. 이 몽고족이 침입 당시에, 에 침입 당시에 인저 그걸 난리를 갖다가 방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쌓았는데, 할머니들이 치마폭으로 쌓았다는 얘기가, 응. 그래서 뭐 그거 할미성이라고 그러는데.

거 뭐 할미성, 아무리 말이 그렇지, 암만 옛날에 할머니들이 힘이 세고 장사들이라도 그거 할머니들 쌓았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얘기가. 그런데 거 유래 전설로는 할미성이라고 내려와요, 응.

성 그 둘레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저어 여기서 저 자연농원 틀게이트, 어 틀게이트 있는데 바로 뒤에는, 뒤에가 거기 할미성이라고. 성이 우리, 내가 현, 실제로 그쪽으로 나무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것 백이로 아는 게 읍지.

8 배가 다녔던 배모루 고개

이은복(56, 남) / 마성리T 1앞

[마성1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의 할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가지를 유도하였다. 조사자가 효자 효부 이야기를 물었지만 없다고 하였다. 그래 다시 흥수 이야기를 물자. 이곳의 지명 중에 배가 다녔다는 고개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로요 들어오는 데 보면은 자연농원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 위로 해서 줄루(저기로) 자연농원으로 들어가는 데가 지름길이 있는데, 저 고개 있는데 배모루 고개예요. [조사자 : 예, 거기에 얽힌 얘기 좀 해 주세요?]

배모루 고개가 왜 배모루 고개로 되었냐면은, [조사자 : 배-?] 배모루. [조사자 : 배모루요.] 응 배모루여. 지금 배모루 고개라고 그러

구. 예날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말도 배모루고.

그게 왜 배모루 고개냐고 하면은, 임술년인가 임술년 장마 전인가, 옛날에는 글루 배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여.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 물바다였겠지, 임술년 장마. 임술년 장마 전 얘기일 꺼야. 임술년 장마야 그거 몇 년 됐어요. 한 잘 해야 한 70~80년전 그뻘에 안 되었던 말이야. 임술년이.

그러니까는 그 전 얘기일꺼야. 여기가 물바다가, 임술년 장마에 그렇게 물바다가 될 리는 읍다고. 응. 그런데 배가 응 글로 다녔다니까지는 뗏목같은 게 다녔을 거라구. 응 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개 배모루로 해. 물줄기가 말이야 이게 돌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시늉을 내면서) 배가 이렇게 돌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가 무척 깊어요. 깊어가지고 사람도 여름에 수영들을 해다가 보면, 목욕이지, 사람 여러 명 빠져 죽었어요. [조사자 : 예, 거기에 귀신같은 게 있나요?] 귀신이 뭐 있다는 얘기지. 귀신이 있다는 얘긴데 지금 귀신이 어디 있어요.

9]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정화순(70, 여) / 마성리T 1앞

[마성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마성1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마성2리로 찾아갔다. 마성2리를 찾아가 노인인 있는 집을 무작정하고 들어가서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씨에 대한 것, 전쟁에 대한 것 등이 많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수족을 못 쓰고 그러면 그냥, 그냥 갖다가, 저기 구멍이를 파고 갖다가 그냥 산 사람을, 산 할머니를 갖다가 집어 넣고, 그냥 먹을 거 많이 해다 거기다 놓고 이러구서는 그냥 집어 넣고 나온대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런 일이 있어서, 거 할머니가 그거 다 잡수면 돌아간다구.

그러구 또 한 할머니는, 인제 딴 사람인데. 인제 고려장을 허러 지 아버지가 죄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가니깐, 지고 갔는데 요만한 애가 절렁절렁 좃아 가더래.

그래서 고려장을 허고서내 지게를 거기다 내버리고 왔다는면. 저기 죄 아버지가 내버리고 오니깐 그 애가,

“왜, 아버지! 그 지게를 안 가지고 가세요?”

그랬다. 그래서,

“그 지게 가지고 뭐 하니?”

그러니깐.

“이 다음에 아버지도 늙으면 갖다 고려장 해야지유?”

그러더래. 그래서 이 고려장이 없어졌다네.(웃음)

10 호랑이를 처치한 여인

박대석(79, 남) / 마성리T 1앞

[마성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송혜진, 최은희, 강희중 조사 (1996. 6. 1)

앞 제보자의 집에서 나와 마을 돌아다니다가 제보자의 댁을 찾아가게 되었다. 집에는 제보자와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이야기를 부탁하자 곧바로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처음에 조사자가 녹음하는 것을 보고 거절하다 해 주신 것이다. 용인시 원산면 박곡리에서 사시다가 6~7년전에 이곳으로 이사는 제보자는, 이 동네에서 이야기를 잘 해 주시는 분으로 통하였다. 이 이야기는 10살 정도에 박곡리에서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저기 강원도 저 큰 산골에들 가면 말여, 전에 강원도 산골에 들어갔는데, 거 강원도는 십 리 이십 리 가서 집 한 채 씩 있었대 전엔. 그래가지구 인제 해는 거웃거웃 넘어가는데 말여, 그냥 암만 인가를 살피봐두 없더래. 그냥 오밤중은 됐나봐 야마. 그런데 불이 반짝바짝 하더

래. 그래 들어가 보니깐, 젊은 여자 혼자 통곡을 하고 있더라. 그래,
“왜 그러냐?”

고 하니깐 말여. 그게 인저 들어가니깐,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밥을 한 상
줘서, 해서 줘서 인자 먹고 앉았는데 하는 말이 말여,

“왜? 혼자 사느냐?”

고 하니깐 말여.

“세 식구 살었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내 남편하구 세 식구가 살었는
데, (아버님)돌아갔다.”

말여. 그 아랫목에 보니깐 시체가 있더라.(할머니 웃음) 그게 인저,
“신랑 어디 갔느냐?”

고 그러니깐.

“몇 십 리 장, 상포 훈(홍)장 하러 갔다.”

그러더라. 근데 여자 하는 수가,

“오다가 무슨 변을 당한 것 같다.”

구 그러더라.

“그 인저 신랑을 찾으러 가야 할텐데, 여서 송장을 지킬라우. 일루
어디루 가서 우리 신랑을 데리구 올라우.”

그러더라. 그래 시체 지키는 것두 무서워서,

“같이 가자.”

구 그랬대.

“그래 열랑 하나, 햇불 하나 준비하라.”

구 해서. 준비해서,

“이걸 들구 가자.”

구 그러더라. 이 어디쯤 한참 가니까, 호랭이가 자기 신랑을 뜯어 먹구 있
는데,

“저거 우리 신랑인데, 저거 어떻게 하느냐?”

구. 그 인저 햇불을 데구 이렇게 이렇게 이냥 들이대니까, 호랭이가 좀 물
러나더라.

“그래 이 송장을 안올라오. 햇불을 들고 쫓아올라오.”(칭중웃음)
그것두 나가 봐야,

“아, 나 송장을 들어도, 송장을 짊어지고 가겠다.”

구 그러더래. 그래 인저 그 그 나그네가 인저 송장을 짊어지고, 그 인저 부인네를 햇불로다가 호랭이를 쫓고 이렇게 집에 막 왔는데, 인저 그 두 신체를 인저 방에다 놔잖어? [칭중 : 그 인저 통곡할 노릇이네.]

근데 호랭이가 그걸 인저 놓쳐서 분해서 말여, 호랭이 쩡지를 그 문 구멍에다 넣어가지구 헤지며 들어오더래.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그 인저 그 여자가 이래 있어서, 화로에다가 인저 숯불을 그냥 이글이글 해놓은 그 쇧꼬챙이를 저기 해가지구 말여, 달궈가지구, 빨갱게 달궈가지구. 그래 인저 호랭이 쩡지, 쩡지가 들어가지구 휘휘 저으니깐 말여,

“저 호랭이 쩡지를 쥐구선 문을 뺏다 두 다리루 버팅기구선 잡어데 리구 있으라.”

구 그러더래. 그래가지구 인저 쇧꼬챙이를 빨갱게 달궈가지구 그냥 똥구녕인지 뭔지 인자 딱 찌르는데. 그냥,

“영!”

하구. 인저 저쪽 나가 도망치면서 그냥 그 배갈에 또 암놈이 하나 있었다. 두 놈이 와 가지구. 그래 두 놈을 물어 죽여가지구 그냥 두 놈이 다 죽었더라데, 아침에 나와 보니깐. [조사자 : 그럼 이게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예요?] 갚았지. 그래가지구 인저,

“호랭이 꺾질을 베끼라.”

구 그러더래. 거 돌을 베껴니깐, 지금 그때 돈이루 팔아도 큰 돈이지 뭐. [조사자 : 호랭이 가죽요?] 응.

“그래 여기서 나하구 살라우 안 살라우?”

그러는데,

“나, 못 살겠다.”

구.(웃음) 그러더래. [조사자 : 나그네가요?] 응. 그런데 인저 저 마당에

다냥 장작을 후, 잔뜩 쌓아놓구선, ‘안 산다’구 그러니깐 말이여 장작을 한 수북히 싸놓구서는 불을 질러가지구선 그냥, 치마루다가 얼굴을 개리곤 그계 불속으로 그 여자가 죽었대.

[조사자 : 그거 왜 죽은 거예요? 그럼요, 같이 안 산다고 했으니깐요?] [청중 : 아녀 혼자 살 수 없으니깐.] [조사자 : 혼자 살 수 없으니깐요?] 응. 그런 얘긴 내 들었어. [청중 : 좋은 얘기 들었네.]

그래 인저 그 남자는 그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가서 부자로서 잘 살았대. [조사자 : 그것 왜 남자가 갖고 가요? 부인이 가져야지.] 응? [조사자 : 가죽을 부인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요?] [조사자2 : 여자는 죽었잖아.] [조사자 : 여자는 죽었나.] 그 여자는 은인이라구 말여.

“난 죽지만, 당신은 이것 가지구가선 잘 살라.”

구 그런거지 뭐. 그렇잖아? 나는 죽었을망정 보은을 한다 이거지.

여

백

6. 전대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전대리는 포곡면에서 가장 큰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新袋, 前串, 斧谷의 세 동네를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관은 옛날 노인들의 얘기로 '앞꼬지'라 하는데, 예전에 악한 사람이 악하게 굴었거나, 또 앞으로 돌아나온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은 농번기가 끝난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골 고유의 정겨움과 신선함과 함께 약간 도시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몇 개의 효자문을 발견할 수 있어 마을이 지나온 역사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그리고 마을 한 가운데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기도 했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수가 좋아 명경지수라고도 불리었는데, 옛날 이름 높은 정몽주 선생, 조광조 선생이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에버랜드 등 여러 관광 산업이 발달하면서 많이 어지럽게 변해가고 있었다.

포곡면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전대리는 시골 마을답지 않게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행정구역은 전대리1구와 2구로 나뉘어졌는데, 우리가 조사한 마을은 전대리1구 마을이었다. 이 마을은 예전엔 약 70여 가구가 살았는데, 용인이 '시'로 승격되고 자연농원(에버랜드)가 건설되면서 여러 곳의 사람들이 들어와 지금은 300여 가구가 산다고 한다.

조사자 일행은 중간에 트럭을 얻어 타고 전대리1구 노인정에 도착한 것은 11시 30분쯤이었다. 처음 노인정에 들렀을 때는 노인들이 없어 걱정하였는데, 조금 뒤에 세 분의 할아버지가 오셨다. 처음에는 약간 꺼리는 듯한 인상이었지만, 답사의 취지를 듣고 흥미를 느끼시는 듯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아버지의 수가 늘

어났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야기판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할아버지들은 조사자들에게 점심 식사까지 대접해 주었다.

2) 제보자

(1) 정일재(75, 남)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체구가 작고 선량해 보이면서 아주 자상하신 분이였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남양군도로 대동아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미국 본토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해방되고 1년 후에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화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동네에서는 모범이 되는 어른이였다. 또한 동네의 크고 작은 일을 잘 마무리 하시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제보자는 항상,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남의 덕, 조상 덕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며, 조사자 일행에게 항상 바르고 착하게 살라는 교훈적인 말씀과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다. 제보자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구술한 분으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1~5, 7~9, 11.

(2) 김창화(66, 남)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달리 북한이 고향인 분이였다. 옛날에 산판에서 일을 할 때는 목마를 운전하기도 하였으며,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한때는 월남전에 참가하셨는데, 이때 다쳐 몸이 약간 불편하신 상태라고 하였다. 제보자는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남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첫인상은 검은 빨테 안경과 이복 말씨의 강한 억양 때문에 다가서기가 힘들었지만, 의외로 다정다감 하시며 친절하였다. 제보자는 12시 30분 쯤에 오셨다가 조사자의 답사 동기를 들고 자기 고

향에 대한 전설이라며 의자에 앉아 편안히 구술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6, 10.

(3) 정사덕(65, 남)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이곳에 13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로,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을 지켜 온 분이다. 주업인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마을의 전설이라든지 유래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셨다. 제보자는 동네에서 이야기꾼으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며, 옛날 사람답지 않게 신세대적 감각을 가지고 계셨다. 또한 할아버지는 인자하고 친절하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계셨다. 현재 할아버지는 전대리1구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계셨다. 2시쯤에 연락을 받고은 제보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칠판을 이용하여 이해를 도모하여 주었다. 제보자가 이야기 하는 동안은 점심 식사를 하러 집에 간 노인들이 있어 몇 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를 끝마친 할아버지는 쇼파에 누워서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11~16.

(4) 정동일(64, 남)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제보자를 만나게 된 동기는 이국영 할아버지의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동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보자는 노인정의 옆에 있는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었다. 옛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을 받아서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조리있게 잘 하였다. 현재 부동산을 경영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약간 엄격하고 고지식하게 보이는 인상이지만, 조사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친할머니가 행한 일화를 이야기 해 주었는데, 옛날 이야기와 유사한 측면에 있어 실었다. 제보자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을 방바닥에 앉아 들었다.

제공자료 : 설화 17.

3) 설화

① 9대 후에 일어날 일을 안 이인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전대리1구 노인정에 도착하여 만난 제보자는 체구가 작고 선량해 보이는 분이였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곳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제보자는 넓은 국량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해결사라는 칭호를 받을만큼 동네의 크고 작은 일을 잘 마무리 하였다.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자신의 포로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무서운 이야기를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즉 도깨비나 귀신에 관해 이야기 하다 해 주신 것이다.

[조사자 :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다고.] 화장실에는 있다는 거지. 시방도 있다는 거여. 화장실에서 그렇게 사람이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허는 거여, 그것. 대개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람은 100% 그냥 죽는 거여. [조사자 : 왜요?] 뭐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는 거지. 그런게 귀신이 뭐냐 허면은 탄데 갈데 읍고, 나쁜병을 가진 화장실에 가야 사람이 다가오기 마련이지 아니여, 거기는. 하루에 몇 번 드나들기 마련 아니여.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다는 거여.

[조사자 : 근데 화장실에서 귀신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다거나 죽은 사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있지. 화장, 화장실, 어떤 사람은 응 화장실에 가 가지구 응 그냥 죽었다 이거여. 죽었는데 옛날에 그냥, 화장실에 가서 죽었으니까 이것은 탄 사람이 다투, 그 다투명을 썼어. 말하자면 사춘인가, 몇 춘 되는가 하는 사람이 누명을 썼어. 저 탄데 가 살다가 그 집 화장실에 가 죽었거든 그래. 누명을 썼어. 그래 그 할아버지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것이 나타날 것이라.”

구 말여. 죄진 게. 그래 무슨 요그만한 함을 하나 해 주었다는 거여. [조

사자 : 함요?] 응. 저 아버지, 저 아, 저 손자한테다가.

“이것을 언제꺼정이던지 대 물려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언제든지 부를 적에, 응 관에서 부를 적에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력 저력 8년이 됐다는 거여. 8년. 8대 8년이 되었다는 거여. 그래 8년이 8대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선대니께 200년, 한 200년 되는 거지. 8대는 삼팔은 24, 240년이지.

“고 때가 이제 부를 테니까 가져 가라.”

고 이려더라.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인저 뭐 잘못 해가지고 불르드라, 원 원이. 그지 원이지, 그전이는. 원이 불려서 가지고 가서 인제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가서 이 뜰안에 가서 붙들고선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 오라.”

고 하더라. 그래 들어가지도 않고 있드라 그냥. 있는데, 원이 뛰어나와서,

“뭘 가지구 왔는지 입마! 들어 오라.”

구 말이여. 이런 나온 새 그 집이 그냥 몽게졌어 그냥. 그 병원 그 저 원의 집이. [조사자 : 왜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원이 살 때다 이거여. 그 거 아니면 그 애도 죽구 원도 죽을텐데. 그 관 아니면는. 관이 아니면 죽을텐데, 그 들고간 그것이, 원은 뛰여 그거 땀에 살았다 이거여 그냥.

[조사자 : 원요?] 응. [조사자 : 원이 뭐예요?] 원이 그 나라의 왕이여. [조사자 : 원님!] 원님. 응. 그래 그것때미 살아가지고서. 이것 나온 새 그 대들보가, 그래서 풀떡 무너졌다 이거여. 그래 와서 이걸. 이걸 원이 보니까는 이 사람이 살린 거잖아. 원을 살린거다 이거여. 그러니까 원이,

“이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두 너 살려줘야 된다.”

그말이여. 그래 그 길로다 그 사람을 내 보낸 것여 그냥. 죄의 없었어. 조일(죄)이 없는 데도 그렇게 당헌 거여. 그런게 조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두 살구, 그 사람도 다 살었다 이거여. 그런 얘기두 더러 있긴 있지.

사람은 조일을 지면 언젠가는 밤에구 낮에구 땀길 때 겹이 나지만, 조일 안 진 사람은 겹이 나는게 없어. 그런게 세상은 조일 짓지 말구, 언젠가는 좋으나 그러나 사람은 남에게, 여자들은 남에게 맨여 살면, 그러면 그냥 하루에 밥 세끼 먹고.

② 집안이 흥할라면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조사자가 효자담, 전생담에 묻자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묘자리를 잘 잡아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 못한 얘기 없느냐'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그 있잖아요 할아버지! 묘자리를 잘 쓰면 집안이 성하고, 잘못 쓰면 자손이 다 안 되고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혹시 할아버지 사시면서 그런 것 경험하신 것 없어요? 어느 집이 되게 잘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뭐 누구 묘자리를 어따 썼다가, 어따 이장 했는데 갑자기 망하더라. 이것 이런 경우.]

그것은 그것이 얘기가 있는데, 이 요기에 이동면이라고. 혼자서 살아 왔다 이겨여. 그런 때 손님들이 많이 온다 이겨여 그냥.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할머니 때까지는 그 남포군을 잘 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젊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이겨여.

하도 장강(계속) 들어 오니까, 밥 해 대는 것이 그냥 귀찮다 이겨야. 시방처럼 전기 발술이 있으면 괜찮은데, 옛날 불 때사 하니까 귀찮다 이겨여.

그 한날은 중이 오니, 왔다 이겨여. 중이 오니까는,
“손님 좀 못 오게 허는 방식이 있, 읍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 있다.”

고 그러더라.

“뭐냐?”

고 허니까.

“여기다, 이 뒤에 요기, 요기 있는데, 여기다 뭐 좀, 뭐 좀 날마다 그냥 해 놓고 그러며는 참 3년만 지나가면 손님이 짝 끊겨진다.”

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제. 망할라구 그러는 거지. 손님이 장간 와야지 사람의 집은 손님이 와야 되는 거지. 손님이 하나도 안 오니깐 거지네 집이란 손님이 안 와. 그래 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망했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

[조사자 : 중 말씀 들어갔고.] 응 그래. 그러니깐 세상살이가 다 사람살이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뭐 때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

③ 내 복에 먹고 산다는 셋째딸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와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복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 산골에서 하도 어렵게 산다 이거여. 어렵게 사니까. 그때 지어머니 허구 지아버지와 둘이 산다 이거여, 지어머니 허구. 그러니까 그 아들 허구 둘이 살아.

근디 둘이 사는데 날마다 숯무지를 해 먹고 산다 이거여. [조사자 : 네?] 숯무지. [조사자 : 숯무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여. 그러니까 참나무를 비어서 숯을 굽는 것을 숯무지 허는 거여 그제. 그걸 해먹고 살아.

그런데 한 사람의 그 뭐냐 딸이 셋이 있는데. 큰 딸이 허는 얘기가 뭐냐면,

“넌 누구 덕으로 먹구 살으냐?” 니깐.

“아버지 덕으로 먹구 살어요.”

그러구. 또 또 그 둘째 보고 하니까,

“나도 아버지 덕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고. 막내딸 보고선,

“너 누구 덕에 먹고 사니?” 하니까.

“누구 덕에 먹구 살어. 내 덕에 먹고 살지 누구 덕에 먹구 사느냐?”

말여. 그러니까 께쌌다구 그 딸을 내쫓았어. 딸을 내쫓여서 그냥 옷 보따리를 싸 주고서. 한없이 산골을 갔다 이겨여.

가는데 그 어머니 허구 아들 허구 그 사는데 거기 갔다 이겨여. 가가지구선 솟무지를 허더라 이겨여 그냥. 그런데 사람같이 앉지 그냥. 기어 들어가. 지붕도 이런 그냥 지풀(짚)이 이은게 아니라, 그 옥새 산에 옥새로 집을 짓어 이은 거 있잖아. 그 쪽에서 살더라 이겨여 이냥.

그 하루는 떡 허니 집을 쪽 보니까, 지 엄마가 밥을 가져가구,

“가져 오라.”

구 하더라. 그래 나가서 한 그릇 이고서,

“가져 간다.”

구 허니깐.

“아직 너는 못 가져 간다구. 길두 험험게 못 간다.”

그 말여. 그래 그러니깐.

“아녀. 내가 가져 간다.”

구 말여. 가 보니깐 이 솟가마라는 것이 커요.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들이 앉아서 들이 들어가도 더 되야. 그런데 요기 이 앞에 가 보니 들 인데, 이 들이 금뎡이더랴. 금이더랴. 그래 금이니깐 그 여자가,

“여보! 이거 솟무지 허지 말고 그 돌을 빼가지구 가자.”

구 그래. ‘빼가지고 가자’ 구 그랬다는 거여. 빼가지고 가자 허니깐,

“아이 여보! 이거 우리 응 밥줄인데, 이걸 왜 빼가지구 가느냐?”

얘기여. 아 그래서 그냥 탁, 그러니까 말이여 생전 여자 귀경도 못 허든 아가씨가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빼가지구 갔어유 그냥. 빼가지구 가서,

“이것을 짚어지고 한없이 가라구 말여. 가면 어떤 사람이 사자구 허는 사람이 있을 거라.”

고 그래. 그래서 짚어지구 갔단 말여. 가니깐은 어떤 사람이,

“사자.”

구 그러더라. ‘사자’ 구 그러는디 돈을 아마 시방, 그때는 엽전이니깐 소에다 말에다 실어 즐만큼 준 돈양이여. 그러니까,

“아이구!”

그랬더라. ‘아이구’ 그러니깐.

“적으냐구 말여. 더 주랴?”

그러더라. 그래 더 주더라. 그래 그냥 더 줘서 그냥 그 말에다 실어서 그 집에 갖다 줬다 이거여 그냥.

근데 저 산골에 갖다 주구 왔어. 그래 이놈은 그래가지구선 어쩔 줄 모르고, 생전 돈 구경두 못허구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냥. 그런게 여자가 그러더라.

“이 아래 내려가면, 동네에 내려가면 집 허구 땅 허구 파는 사람이 있을꺼요 말이요. 있으면 갖다가 계약, 계약 허라.”

구. 그래 딱 내려가니까는, 계약할라니깐 옛날 부자집이 하나 나오더라 이거여 그냥. 아 집두 좋구 이주 좋은 집이 참 땅두 많구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여. 그러니깐,

“계약 허라.”

구 그냥. 그래 가 얘기를 하니깐은,

“딴 사는 사람이 산다면, 네가 산다면 싸게 준다.”

이거여 그냥. [조사자 : 부자집이서요?] 그렇지. 워낙 살 사람이 아니니깐. 살 사람이 같으면 모르지만, 살 사람이 아니니깐. 하두 어렵게

사는 놈이 무슨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니가 사면 싸게 준다.”

구 허는 얘기에. 그래 얘기를 허니깐 싸게 줬다 이거여. 그래 돈을 다 치루구선, 그 사람이 내려가서 종꺼정 두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저 식모지. 그 여자로 여기래면, 그, 여기 식모 두고 이렇게 해서 산다 이거여. 아 부자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인자 언젠가는 직 아버지가 살다가 보면 궁해서 얻어 먹으러 맵기는 것이란 걸 그 사람은 알었어. 벌써 알구 있는 거여 그냥. 그냥 올 거를 다 해 놓고 인저, 거지가 오면 내다 보구 내다 보구 그러더라.

그 몇 해만 있으니까, 누가 와 찾, 얻어 먹으러 왔더라. 그래 문구녕이다 딸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지 아버지더라 그게. 그래 인제 가서 그 저 일꾼 시켜서,

“사랑으루다 들어가시라구 그래라.”

이래. 들어가서 참 식사 잘 허구 앉았는데,

“가 목간 물 데어다 드려서 목간 좀 시키라.”

구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그지가 깜짝 놀랄 수밖에 더 있어. 어떻게 그지를 목간까지 허냐 이거여. 아 그래 목간까지 할 수밖에. 그렇다고 조금 있으면 보선을 저 모시를 갖다 주더라. 아 시방은 까짓것, 옛날에는 아 그냥 명주옷이라면 최고 좋은 거 아녀. 아 그거로 해서 한 벌 싹 갖다 주더라. 갖다 줘서 입히니까, 뭐 옛날 지 아버지가 직어머니 한 가지여. 그러니 나중에 얼마 있다 들어가서, 인자 지 딸이 들어가서 녀죽 절하니깐,

“생전 내 앞에 절 할 사람이 없는데, 어쩐 절이냐?” 하니깐.

“에 지가 아무게 직에 아버지께서 ‘내 덕에 먹구 산다’ 구 한, 그러구 나온 지가 막내 딸이에요.”

이래 가지구 나와선 응 그 부재가 되었다는 거여 그게. 그런 일도 있긴 있어 그게. [조사자 : 최후에 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랑 같이 산거지.

그러니까 이 열 식구가 살어두, 한 사람 복이면 열 식구가 다 잘 먹

고 살게 마련이여. 복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여. 이 사람이 복이 뭐냐면 이 아가씨들도 그렇지만, 요즘 복이 있어야 저 남편 복이 있어야 되구, 돈 복이 있어야 되구, 다 복을 타야 살게 마련이여. 암만 돈 복 못 탄 사람은 암만 재주를 가서 부려두, 돈이 한쪽에서 들어오면, 여기 100원 넣으면 200원짜리 나가는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니까 남한테 항상 잘 허구 살면은 그 복이 온다는 거지.

④ 발복하지 않는 명당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일상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라도 해 달라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의 복에 관해 설명하다가 구술한 예화이다. 즉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잘 못 했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그 강원도에서 어떤 사람이 즈 아버지 허구 참 이렇게 세 식구가 사는데, 지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여. 죽었는데 그냥 그 지관이, 지나가던 지관이 세 명이 갔다 이거여. 그 지관이라면 뭐 풍수지. [조사자 : 그렇지요?] 응. 지관이라 건 풍수를 가지고 지관이라고 혀. 그런데 세 명이 가는데 죽어서 있다 이거여.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집이라 이거여. 인자 지(자기)들, 돈 좀 지들이 내가지구선, 그 저 거기서 밥 먹구 장사 치뤄 준 거여. 장사 치뤘는데 그 자리가 아주 그냥 부자자리를 그냥, 금시발복 자리를 가서 잡아다 준 것이 셋이 잡아서 주었는데.

아이 잡아 주고선 왔는데, 몇 해, 한 5년 만에 갔다 오니까는 밤낮 그집이 그대로 살더라 이거여 그냥. 부자될 자리인데도 금방네 집이 어려워. 그래 와 가지고서 물어 봤어.

“사람이 어떻게 됐는데, 여기 자리가, 묘자리가 천하대지 자리이고, 이렇게 부자될 자리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인자 물으니까는 거기서 그러드라,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은 그 안 될 것입니다.”

그러더라.

“그 왜 그러냐?”

구 그러니깐.

“그 사람이 젊어서 살인을 했다구 그러더라. 음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신체가 시방 옆드려 졌다.”

구 허더라. 옆어 졌다구. 이렇게 뒤로 허는 것을 옆드려 졌다구 그러드라. 그 집안 자기가 도를 못 닦았기 때문에 그런거여 그제. 그제 도를 못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잘 쓰면은 나가는 복이 다강(전부) 들어오게끔 돼 있고. 마음을 나쁘게 쓰면 복이 그 저 복이 자꾸만 험하게 오게 되어 있지. 그래 그런 일도 있다는 거여, 그제.

⑤ 금시발복한 명당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의 명당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곧바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시방, 옛날에 시방 얘기 한 번 해 볼까. 옛날에 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단 들어 지어머니와 아들허구 들어 사는데, 지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이거여. 갖다 묻으면서 그 풍수가 하는 얘기가,

“저 사흘안에 부자되는 거로 해 줘. 그냥 어 부자되고 마누라 얻는

거로 해 줘. 그냥 좋은 만대여화지기 같은 거 해 줘?”

“사흘 안에 부자되고 마누라 얻는 걸로 해 달라.”

고 허더라. 그러니까 인저 장사를 치르고서는, 그 이튿, 오늘 치루었으면
고 내일 아침쯤, 그 근너 마을에 있는데 마을집이 과부집이더라 이거여.
과부집인데 부자로 살어. 그 가 가지구서 인저,

“저 아무게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니깐,

“너, 누구냐?” 허니깐,

“집에서 왔다.”

구 그러니깐,

“그 시방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방해서 장사치르구. 손님이 하나 왔는데 먹을게 없고 해서 그런게 쌀이나 댓되 주십시오. 한 말 섬을 댓 되 달라.”

고 그랬다 말이여. 그러니까 그 과부가,

“들어 오라.”

구 허더라. 그냥 그래. ‘하! 들어 오라’고 하니까, 들어 갈 수 있어? 옷도 누추허지 그런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주질주질 하니까.

“아! 들어 오라.”

구. 그래 들어가서 기냥 밥도 잘 해 주구, 그냥 옷을 한 벌 주면서, 쌀을 한 가마 주면서,

“가져 가라.”

구 그러더라.

“가져 가고. 있다 오라.”

고 그러더라. 아! 그게 금시발복자리야 그게. 그래 근처에 가서 그 여편네 얻고, 땅도 그냥 얻고 집도 좋은 것 얻고 그래서 그게 금시발복여 그게.

그런데, 금시발복은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는 거라구. 그래 사람은 금시발복이라는 것은 당, 자기 대를 못 간다는 이거지. [조사자 : 자기 대요?] 응 자기 대라면 내가 생전에 못 간다 이거지. 그러니깐 그렇게

금시발복 자리 하지 말구, 꾸준히 걸어 나가서 나 평생 살만큼 산다는 게 좋은 거지. 금방, [조사자 : 사흘만에 부자되고 이르는 것.] 영 그 좋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덤도 아가씨들도 어디 가면, 돈이 있는 사람 바로 가지 말구, 꾸준히 노력있는 사람. [조사자 : 그러 사람 어떻게 알아요?] 알지. 이 사람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귀염성도 있고, 또 오래 명 길고 명 짧고 이런 것 보면은 뭐냐면 인중이라는 게, 이게 인중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좀 크고, 귀가 좀 크고, 귀가 이렇게 된 사람은 그건 복이 적은 사람이고, 귀가 이렇게 내려 왔다가 콧밥이 좀 있구 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

대부분 그렇게 봐, 우리 보기는. 그러니깐 이 돈 많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길거나 그러면 못 주고, 돈이 조금 있어도 자기 노력이 있고 바지런 한 사람은 여자 하나는 굶기지 않아.

6 유점사 53분의 유래

김창화(66, 남) / 전대리1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정일재 할아버지에게 4~5편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조사자들이 조사 목적을 설명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제보자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복한이 고향이 제보자는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다가 3년 전에 이곳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월남전에 참가하였으며, 지금 몸이 약간 불편하신 상태였다. 제보자의 첫 인상은 검은 뿔테 안경과 이북 말씨의 강한 억양 때문에 다가서기가 힘들었지만, 의외로 다정다감하시고 친절하셨다. 이 할아버지는 12시 30분 쯤에 오셨는데, 조사자들의 답사 동기를 듣고 자기 고향에 대한 전설이라며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말씀하셨다.

학교 다닐 적에는 그 절에 대한 불교, 그때는 그- 에- 학교 다닐 적에는 그 뭐냐면, 그 왜정 때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찰이야. 그래서 사립학교지. ‘시시이쿠노가꾸로’를 땡기는데, 거기에서 전설을

들은 것은, 그 저 그 부채 53불이란 부채에 연금했다는 얘기만 듣고 그랬지.

[조사자 :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암 그럼 그게 유점사를 지금 갈라보면, 금강산 유점사라는 게 지금은 TV에 안 나오더라구. 저쪽 외금강만이 나오고. 거기는 저 사람들의 밀봉 교육대로 해서 아주 그냥 아무 사람도 접근을 안 하는가 봐.

근데 거기를 올라가서 10리를, 개산령이라는 데가 있어. 개가 자고 올라갔다 너무 멀어서 그래서 개산령이야. 아흔 아홉 구부인데, 거기를 올라가서 거기서 도로를 또 닦고, 그렇게 들어가 한 10리, 한 4km를 들어가면 인제 그 도로는 차길이 땡기게 되 있는데.

차는 어떻게 되 있느냐면, 옛날에는 술개미 기계라는 게 있지. 지금은 케이블카 같은 거지.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대로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오고 이런 케이블카를 맨들어서 차를 뜯어서 거기서 달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차가 땡기구 그랬다구. 그런데 그 도로를 못 닦아가지고 개산령에.

근데 그 절터가 유점사 절터가 연못이야, 전부. 연못. 연못이 몇 개 있었는데, 에 거기 용이 있었는데요.. 용이 있었는데 53불이란 부채가 거길 와 보니까 터가 너무 좋아서, (웃음) 용허고 내기를 해서 터를 뺏기 했는데, 그래 용들은,

“먼저 용을 썬라. 다 수를 썬라.”

허니까. 느릅나무가 크게 하나 있었는데, 그 꼭대기서 53불이란 부채가 앉았어. 그러니까 이 용이 느릅나무를 썬 뽑아서 까꾸로 뽑아놨다구. 그러니까 이 53불은 다시 뿌래기(뿌리)에 올라 앉아서, 불 화(火)자를 썬서 물에다 집어 넣으니까! 에- (웃음). 물이 버글버글 끓었다 이거여.

그래서 용이 도망가고 그 53불이 거기에다 절을 지었어. 그때 그래 나두 거기 가 봤는데, 그 53불 있는 부채 그 법당 안에는 마루를 이렇게 밑을 뒤지면 거기가 연못이야. 연못 위에도 절을 지었어요. 유점사는.

유점사 유래는 그렇게 되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 느릅나무 뿌래기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곳에 꽃방석을 요렇게 맨들고 53불이 란게 요만한 부채에서 요만한 것까지 쓴세 개, 그게 53불이야. 쓴세 개를 전부 얹, 이렇게 해 놔드라구. 거기에다 음~ 그런 유점사의 전 설.

[조사자 : 그럼, 그건 유점사가 고성군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옛날에는 고성군인데, 지금은 이북이 되 있어서 지금은 못 들어가지. 고성군 백천교리라는 대야. 거기가 백천교리.

7 부자된 소금장수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위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 김창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판에서 물러 앉아 있던 제보자에게 효자에 관한 얘기를 하자 ‘없다’고 하였다. 그래 다시 소금장수에 대해 묻자 구 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하두 어려우니까 인자 소금을, 소금장사를 했어. 인자 소금을 짚어지구선 기냥 여기가 되면, 아무 소금을 한없이 기냥 팔러 나갔다 이거여.

한없이 팔러 나가서는 있는데, 어디 팔러 갔다가 어디 근처 산골에 들어가서 외딴집이 만났다 이거여 그냥. 그래 어두우니까 불이 반짝반짝 하니까, 하얀 노인네가 혼자 있드랴. 남자가 있더라 이거여. 그것이 말하자면 그게 지금 사람이 아니지 따지고 보자면. 그래 인자 가서,

“자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수는 있는데, 잘 수가 있을까?”

그러더라. 그렇거나 그 이튿날까지 자는 거다 이거여. 밥을 얻어 먹

구 자는데, 노인네가 새끼를 비비적 비비적 자꾸 이렇게 꼬더라 이겨여 그냥. [조사자 : 새끼를 파요?] 응. 새끼를 꼬더니 망을 이케 만드더라 이겨여. 망을 멩기러 가지고 오더니. 인자 얼마 있으니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하게 멩긴디 한 밤중중 됐는데,

“여기 좀 들어 앉아 보라.”

구 하더라. 그래 들어 앉았다 이겨여. 들어 앉으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망탱이를 해 가지구 저 들구 갔더라 이겨여. 그 사람이 들구 가다가 큰 산중에 올라가서 소나무 웅덩(웅이)에도 이렇게 성한 게 아니고, 삭다리같은 데다 걸어 놓은 거여 그게. 걸어 놓아가지고선 그냥 있다 이겨여 그냥.

헌데 그 늙은이가 간 뒤로는 호랭이가 그냥 한 대여섯 마리가 와서 그냥, 오더라 이겨여 그냥.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요려고 있는 거지 그냥. 꼬불뜨리고 있는 거지 이냥. 가만 있는 거여.

아! 가만 있으니까는 이놈의 호랭이가 경충 뛰어오르고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그 밑에다가 창을 이렇게 해 놔드라. 창. 창이니까 이렇게 호랭이가 경충 뛰어서 떨어지는 바람에 찢리고 찢리고 그러드라. 그렇게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잡아가지고 호랭이가 한 너덧 마리 닭질, 아마 가지도 못하고서 죽었다 이겨여.

이케 이놈은 무서우니까 그냥 잔뜩 요려고 오그리고 있는 거지 뭐. 호랑이 보기만 해도, 애기만 해도 그런데, 호랭이를 딱질을 했으니 지가 안 무서울 수 있어. 그래 앞드려 있으니까 그냥, 날이 훤히게 먼동이 뜨더라 이겨여. 그게 인저 뭐 그 하얀 늙은이가 오더니,

“어! 뭐 볼 일 잘 했군!”

이러더라 이겨여. 그래 ‘볼 일 잘 했군’ 그러면서 집이 가지고 허듯이 호랭이를 가져가서 그것을 빗겨서 그 주더라 이겨여. 그래 그것을 가져가서, 팔아가지고선 참 뭐 잘 살진 못해도,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그러니까는 이웃의 한 놈이,

“어떻게 해서 그 저 소금장수가 밥을 저기 밥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고 묻더라 이거여. 그러니깐 그 친구지간이니까, 그 얘길 한거여. 음,

“사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니라.”

고. 그러니깐 그래 이놈도 인제 그 얘길을 듣고서, 인자 혼자 소금을 짚어 지고 인자 한없이 가서 그곳을 갔다 이거여 그냥. 아! 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놈이 추적거리지만 안 해도 홍보텔데, 새끼 끈대를 얘길을 허니까,

“새끼 안 꼬냐?”

고 그러더라 또. 그러니마 이 필리 저 필리 해서 새끼를 또 인제 망아지를 해서 걸고서 왔는데, 그 호랭이가 오니까 좋아서 이래 추적(움직)거리(렸)다 이거여 그냥. 추적거리는 덕분에 그냥 그 온지가 떡 부러졌지 뭐야. 그래 떨어졌다 이거여. 그래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로다 그냥 아주 세월을 그냥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8 현 남편을 고발한 이부열녀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 이야기도 도덕적으로 덕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 약간 변형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옛날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참 뭐 하지만, 옛날엔 약장사가 있지 않았었어. 이 저 약을 갖다 뵈다가 가을에 돈 받는 게 있어. 시방 쌀로 받는 게 있고, 벼(벼)로 받는 게 있어서, 옛날엔 그 참이(참외) 같은 것도 이 무루치라 하는 것이 뭐냐면, 참이를 사먹고 가을에 가 벼 한 말 주거나 보리 때가 보리를 한 말 주는 걸 무루치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옛날엔 약장수가 한 놈 있는데, 약을 땀이면서 많이 팔았다 이거여 그냥. 많이 팔았는디 가을에 인저 수금을 나가는 거지. 가을에 수금을 가고 수금을 가고 그러다가, 한 날은 수금을 가서 오지도 않는다 이거여 그냥. 그래 수금을 가서두 20일 되도 안 와. 한 달이 되도 안 온다 이거여 그냥.

[조사자 : 약장사가요?] 응. 돈 벌었으면 걷으러 간거지 그게. 걷으러 가서 그런게 오지도 않는다 이거여. 그러한 20일이 되도 안 오니까는 무슨 사고가 난 거다 이거여 그냥. 그래도 안 오면 안 오는 줄만 알고 그냥 있는 거지 뭐.

근데 그 즉시 뭐냐 허면은 그 동네 사람이 쫓아가서 돈 받아가지고 오는제. 그 돌팍으로 때려 죽인거여. [조사자 : 아! 돈 훔칠려고요?] 그렇지. 시방 같으면 뭐 허지만, 그전이는 그냥 덤풀살이가 이 따위이고, 길도 읍고 고개길이니까 그냥 이 아래서 미행하다 죽였어. 근데 그 걸 몰랐어요 그걸.

그걸 몰랐는데, 이력저력 한 3년간 살았다 이거여 그냥. 3년간 살다가 그 약장사 마누라를 그놈이 데리고 살았다 이거여 그냥. 약장사가 데리고 산거여. [조사자 :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요?] 살인한 사람의 마누라를 데리고 산거여 그게. 그 해 언젠가는 인제 이렇게 고놈의 그 래도 머리 속은 노다지(계속) 있지만.

인제 바느질을 혀. 그 옛날 바느질 하잖아. 인두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혀고 있는데, 이놈이 잠꼬대를 하더라. [조사자 : 잠꼬대요?] 응. [조사자 : 무슨 소리요?] 영. ‘나쁜 지식, 좋은 지식’ 그래 잠꼬대를 허드라. 그러니 여자가 거기서 그 좀 자면서, 자는 걸 보고 있는데, 그 걸 잠꼬대를 하니 얼마나 징혈꺼냐 이런 얘기여.

그 괴씸한 새끼. 그 새끼 그 저 응 만약 죄 남편을 죽이고 여편네까지 뺏어서 데리고 사니, 돈까지 뺏어서 사니 그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 꺼고, 그 놈은 마음이 나쁠꺼냐 이거여.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응 그 뺏이 가서, 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

고, 그놈을 잡아다가 그냥. [조사자 : 누가 애길 한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애길 했지? 피씸하니까. 살면서두 애길한 거여 그게, 살면서. 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국량이 넓어야 하는데, 그건 웅색해서 그런게 있고.

9] 소도둑 잡은 훌륭한 원님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난듯이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 이야기도 원님의 재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시방 그전에 소를 잡아 먹은 놈이 하나 있다 이거여. 근데 누가 잡아 먹었는지 모른다 이거여 그냥. 이것 여주 이천 얘기여. [조사자 : 여주 이천요?] 응. [조사자 : 할아버지! 이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여주 이천이 여기 멀지 않아. [조사자 : 언제쯤 들으신 얘기예요?]

그건 그 성은 옛날인데, 저 뿔이 소가 하나 없어졌다 이거여 그냥. 그 소가 없어졌으니깐 그 원님이, 원이 책임이 있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말하자면 시방 경찰과 같은 것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깐 그,
“잡아 들여라.”

이런 얘기여. 그 저 나라에서 잡아 들이라 하니까, 그 어떻게 잡아 들이는 수가 그냥 없지 않느냐 이거여. 그래가지구 그 놈이, 그 놈이, 그 원이 하는 얘기가, 하여간 그 근처 그 사람을 다 그냥 부른거여. 그 여주 이천 사람을 다 불러가지구선,

“너희가 말하자면 콩, 이란 박, 바가지다 콩을, 이렇게 박아지다 들고 가서,”

소가 콩을 좋아 하잖어. 좋아 하잖어. 그러니까 콩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댄 사람은 다 먹으러 오는데, 이것 이틀테면 한 놈한테, 이놈 가지, 가니깐 소가 피해가더라 이거여. 아이구 소가 피해가니까는, 그 누른네가 나니까 피해가는 거지. 쇠냄새가 나니까. 그래 피해가더라. 그래 인제 댄 놈 다 인저 그날 그 발표도 안 허구 다 지나보내구선 난 중에,

“그 아무개 오느라.”

말이여. 그 이름을 다 적을 거 아니여. 그러니까 ‘아무개 오라’고 대번 잡아서 얘길 하니까. 그케 소 도둑놈을 그렇게 해서 잡더라, 잡은 것두.

그 여간 사람 같으면 그 연구 못허는 거 아녀. 그래 시방 같으면 뭐 그냥 조사할 텐데, 그땐 그런 것도 안 허구 그냥 바가지에다 콩 들고 지나가면 이렇게 냄새가 나니까, 소가 이렇게 외면한 다음에, 그런게 그 놈을 붙잡아서 거기 저길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데 나가서는 국량이 넓은 사람이야. 그 너무 웅색한 사람은 그케 잘 안 되는 거지 그케.

⑩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유래

김창화(66, 남) / 전대리T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정일재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만 하다가 구술하여 주었다. 이 제보자는 앞에서 한 번 이야기 판에 참가하였다가 뒤에서 계속 듣기만 하였다. 그러던 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사람이 개만 못하다’ 우리 노인들 얘기하는데, (이상은 녹음이 지워짐) 그런데 입장에 따라서, 개가 자꾸 남자를 물고 ‘자꾸 오라’고 끌고 가더라, 개가. 그래서 개가 그 끌려가는대로 가니까, 얘기가 거기 있드라 그 말이여. 영 그래 가져와서 그 일꾼한테 그 물어 보고, 물어 보니까,

“자기 그냥 갖다 놓았다. 작은 엄마, 그 사람이 이렇게 갖다 버리라고 해서 버릴 수 없어서 거기다 놓았다.”

그러드래. 그래가지고(웃음) 이 여자를, 여자는 법이 읊잖어요. 개한테 비단 옷을 해 입히고 끌고 대니고, 그 여자는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주 조리를 돌랐(돌렸)대. 온 동네 땡기면서 이렇게. [청중 : 맞아. 맞아.]

이런 여자를 보고 개만도 못하다 이게 그거야.

11 조카보다 자식 버려 복 받은 여인

정일재(75, 남) / 전대리T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 제보자의 구술을 마치자마자 수록한 것이다.

내가 한 마디 더 할까? [조사자 : 예!] 더 하는게 뭐이냐면 옛날에 전쟁났다 이거여. 전쟁이 났는데 피난 간다 이거여. 피난 가는데 자기 아들 하나 하구 조카하고, 그 자기 두 내외하구 넷이 가는 거여 그냥.

괜히 보따리를 이구 짊어지구 이러니까는, 애가 들이니까는 참 피곤하다 이 얘가지. 그래 얼마쯤 가다 가다가 인제 고생이 되니까는 그 영감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애를 하나 내버리고 갑시다.”

이런 얘기여.

“그럼, 내빌면 누굴 버리느냐?”

이러니까는, 자기 조카 내버린다는 이거여.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린 나면 자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응 조카를 어떻게 내버리고 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말이야. 이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깐 역시 그것도 참 여자 말이 옳은 얘기다 이거여 그냥. 그래 옳으니까는,

“아이, 그것도 부인 말이 맞는군!”

이래선, 인저 그러고선 그 애를 고목나무 밑창에다 놓고선, 자기 아들을 놓고 인자 자기 조키를 업고 간거여. 그래 아마 갔다가 몇 달 되나, 아마 한 서너 달 되며 인제 올, 올러오게 됐어 그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죽었나 살었나 한 번 거기 가 본다 고 갔었요. 가 보니까 애가 자기 데리고 간 것보다 더 포동포동하고 살도 찌고 있다 이거여 그냥.

아니!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여. 애는 뭐가 뭐를, 뭐가 어떻게 먹고 뭘 어떻게 살었나 이런 얘기여. 그런데 그 호랑이라는 짐승이 그렇게 닭 갖다 물어다 맥이구. [조사자 : 호랑이가요?] 응 호랑이가 물어다 먹이고, 저녁이는 추우니까 품고 자구 이래가서 길렀다 이거여.

그때 와서 여자와 남자가 허는 얘기가, 이게 우리 자식을 내버리고 갔으니 그렇지, 우리 조카 자식을 내버렸으면 당신도 죽구, 우리두 죽구 조카 새끼두 다 죽었을, 다 죽을, 넷이 다 죽을 것인데, 여자가 그 맘 한 가지 잘 쓴 것으로 해서 그것이 그냥 다 살어서 와서 다 잘 살더라 이거여.

그러니깐 사람은 그 맘은 하나 가지를 잘 쓰면 언제나 복이 나갔던 복이 기어들어오게 되 있는 거이여. 그제 어찌 누구나 그렇게 되면 자식 저 내버린다고 허졌어, 조카 자식 버린다고 허지. 근데 여자가 그중 무던헌 사람이라,

“그 여보! 무슨 소리여. 우리는 나면 자식 아니야 말이여. 우리 자식을 내버리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 어찌게 조카 자식을 어찌게 내버리고 가느냐?”

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둘 다 길러 가지고 살드래요. 그러니깐 사람은 때에 따라서 그 그런 마음을 곱게 쓰면, 다 하늘이 바라다 보고 저 뚫이 보게 되 있는 거여.

12 백가지 전설

정사덕(65, 남) / 전대리1 1위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이야기꾼으로 소문난 제보자는 연락을 받고 2시쯤 노인정에 오셨다. 조사자들은 제보자 주위에 둘러앉아 녹음을 준비하였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13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다. 노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제보자는 동네에서 이야기꾼으로 통하는데, 이야기 도중에 철판을 이용하여 이해를 도모했다. 제보자가 이야기 하는 동안에 점심을 먹기 위하여 집으로 몇 명의 돌아가서 주위는 한산하였다. 그리고 식사를 끝마친 할아버지들은 소파에 누워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전대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뭐 백가지. 여기 백가지가 있어, 우리 동네에. 이 백가지가 왜 백가지라고 했느냐? 하이 요런 저러한 전설이 있어. 저 백가지가 왜 백가지냐, 응 그 백가지가. 백가지가 어디냐면 요기 삼군사에, 삼군사 항공대가 여기 삼 항공대가 여기 와 있다고. 항공대 있는 데가 백가지라고 그래. [조사자 : 어디요?] 백가지. 요기 삼 항공대 있는 자리가 백가지여. [조사자 : 삼 항공대요?] 삼 항공대가 들어 왔지. 응 그것이 왜 백가지냐. 저기 상계리 산을 김해김씨가 돌아갔는데, 제(지)관이 와서 그 자리를 보는데, 저 우리 동네에 한고개라고 있어. 한고개, 탁고개라는 데가 있어.

그래 거기 와서 나무가 울창하게 섰으니까 자리를 모를 꺼 아냐. 거기 가서도 모를 꺼 아녀. 가서 보고 자기 두루마기를 나무에 걸어 놓고, 다시 산에 가서 거기를 내려다 보고. 잘못 되었으면 또 와서 또 보고, 잘못 났으면 또 가서 보고 한 것이 그 양반이 자리를 잡았다 이거여.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다 자리를 잡고 이 양반이,

“하관시가 언제냐?”

인자 상주네가 물으니까, [조사자 : 하관시?] 하관시. 하관이야 사람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 하관이라고 한다고. 하관시를 물으니까,

“이 질로 철모를 쓴 사람이 지나가거든 하관을 하거라.”

그랬다고. 응 그래 철모 쓴 사람이 거기를, 철모 쓴 사람이 거기를 왜 지나가. 촌부가 일을 하는데, 술동이 술땀이를 이렇게 이구 가는데, 그 위에 술뚜껑에 이렇게 덮어 놓은 것이 그게 철모야. 그래 그 여자가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관을 했는데, 파는데 거길 파는데 돌이 싹 깔렸거든. 그러니까 만상주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이 돌 위에다 묻느냐?”

그러니까. 돌 위에 놓으니깐

“한 광장을 더 내려가지고서 파라. 저 광중을 지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깐 그 사람들이 곡괭이로다가 쪼갠는데, 거기에서 백학이 날라와서 하나는 눈이, 눈을 찍혀서, 눈을 찍혀서 하나 날라온 것이 바로 저 백가지라는 동네에 와서 안착을 했고. 그래서 여기 명당이 하나 있다는 거여. 근데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전설은 김해김씨네가 누대를 내려오면서 눈 물(멸)은 애꾸가 하나 나온다는 거야. 그래 김해김씨네가 이 눈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이 밋 대에 가서 하나씩 나와요. 거짓말인지 진짜로 말하지. 이 그게 우리네, 우리 동네의 전설, 그런 전설 밖에 없어.

13 금시발복과 사패지지

정사덕(65, 남) / 전대리T 1뒤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의 또 다른 전설을 부탁하자 해 주신 것이다. 이곳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성씨인 목씨와 정씨 집안의 흥망에 대한 것이었다.

옛날에 여기서 살다가 목씨네가 살았어요. [조사자 : 목씨요?] 목씨네. 목씨네가 살았는데, 이 뒤가 전수(다) 목씨네 산이야. 그런데 목씨네가 사는데, 저 위에 정정승이라고 있어. 검을게 정자 정가. 정승이

사는데,

“사폐지지를 원하느냐? 금시발복을 원하느냐?”

목씨에게 물었다구. 응. 사폐지지는 내려가면서 대가 나가 벼슬하고 이 지역을 지켜 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 사폐지지야. [조사자 : 사폐지지요?] 응. 그런데 금시발복은 뭐냐. 금시발복은 내가 그냥 별안간 돈이 생겨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여. 응. 그러한 자리가 있는데, 어느 자리를 택하냐 했는데, 그 목씨네에서 금시발복을 택했다구. 게 갖다 쓰고, 삼오(삼우)께 지내려 가는데 금덩어리를 주었대요.

아! 그러니까 금시발복을 한거여 그냥. 그 금시발복, 그 금을 얻어는데, 그걸 갖다가 부자로 잘 사는데, 그 목씨네는 전혀 망하고 지금 정씨네는 김을게 정씨네는 사폐지지에다 갖다 모셨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 아! 그건 정씨네 산이 아녀. 응. 아! 목씨네 산이라구.

거기나 여기나 하는 건데, 그냥 정씨네가 와서 말여, 옛날에 말여 그냥 걸립패라고 해서 두드리며 여기서 놀은 거여, 밤에. 응. 밤에 걸립패를 두드린게는 사람들이 그냥 그 걸립패 구경을 다 나간거지 뭐여. 그런 바람에 거기다, 거기다 그냥 묘를 쓴 거여. 정씨네는, 밤에. 지금도 정씨네는 불 일어내는 거여. 또 묘자리도 좋고, 또 거기다 묘막도 짓고, 거기 후세들이 그렇게 잘 되어나가는 거야. 응.

그런데 목씨네는 씨가 말라 버렸어. 금시발복 자리를 원했는데 씨가 말랐다고. 목씨네 묘이는 묵는 거 많아. 거기 큰 산소들 거의 목씨네 묘인데. 고려한 고려한 전설들. 그게 나쁜 얘기지. [조사자 : 상관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목씨네서 사폐지지를 원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나가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 안하고 금방 나만 배부르면 산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목씨네는 망한거지.

그 요 뒷산이 전주(전부) 목씨네 산이었어. [조사자 : 지금도요?] 지금은 목씨네 어디가 구경 할래야 읍어. 어디가 사는 지도 몰라. 다 없어졌어. 그래 그러한 그러한 얘기.

14 자라혈에 상석하고 망한 집안

정사덕(65, 남) / 전대리 T 1위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처럼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관의 말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여기 광주 가는 고속도로가 났지. 응 고속도로가 났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죽 들어 내려오던 얘기가. 후손만 가면 죽는 거여. 그래서 후손이 안 와. 거기를. 그런데 이번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 묘이가 잉졌어.

그래 거기가 무슨 혈이냐. 그리고 그 후손이 왜 망하냐. 자라혈에다 갔다가 그냥 후손들이 잘 사니께 그냥, [조사자 : 자라혈이 뭐예요?] 아니 자라혈에다 갔다 썼는데, 거기다 망두석, 뭐 비경 주석 이걸 가져다 세웠단 말이여. 그런게 이 자라목을 짹짹 눌렀으니까, 그 놈의 자라모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그걸 못 못하고, 후손이 오면은 후손이 멀하게 되는 거지.

그래 옛날 전설에, 지관의 말은 지금은 전부 미신이라 그러잖아. [조사자 : 지관의 말이?] 지관의 말이 그랬었는데, 지관의 말을 무시 못한다는 얘기가. 응. 지금 현, 현실의 실정을 봐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나한테 득된 일이 하나도 읍거든. 전수 했지.

그래서 지관의 말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교회를 믿고 무진 이렇게 맹겼으면은, 물론 그것 그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러졌지만은. 옛날 지관의 말을 무시해서 잘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읍대는 거여. 그래서 앞으로래도 그러한 상황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지 하는 우리 포원여.

15 김씨네 효자문

정사덕(65, 남) / 전대리T 1뒤2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묻자 전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던 효자문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저기 효자문이 있어. [조사자 : 그 효자문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기긴 다 망한 놈의 걸. [청중 : 다 쓸어져 있어.] 다 쓸어진 놈의 걸. 그까짓 걸 알 필요가 있어. [조사자 : 왜 효자문이에요?] 김해김씨네 효자문이야.

[조사자 : 왜 효자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무슨 어버이날, 무슨(Tape 2앞 계속) 효자가 효자가 효자문이 지금, 지금은 어버이날 면장이 면장이 상두 주고. 뭐 어 군수가 상두 주고 도지사가 상을 줘서 효자 효부를 했지마는. 옛날에는 국가원수 이 나라를 총책임자 왕이, 왕이 하사를 해야 효자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효자문을 국가에서 저 준거야.

근데 저 효자는 효부, 효자문을 왜 나오게 됐느냐. 어머니가 사는데, 저 어머니가 사는데 머리에 이가 꼬이고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손으로 잡고 손으로 잡고. 옛날 약이 있어 손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병이 들어누워 있는 노인 늙은이를 머리에 이가 그냥 들벽 들벽 헨거지 뭐. 그러니까 그 자기 시어머니 머리에다가 가서 대고, 자기 어머니한테다가 갖다 대고선 '그 이가 내 머리로 옮겨 와라' 이거야. 우리 어머니 머리에 가지 말고.

그렇게 노인부모를 지성 지극이로다가 모시니까, 이것이 말이 자꾸 퍼져나간거지. 응 말이 퍼져나가서 그것이 한 입 근너, 두 입 근너 자꾸 가서 왕한테 인저 보고를 헨거지. 하니까 왕이,

“참 기특하구나!”

그래 돌아가니까,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에 사는 김씨네한테로다가 효자상을 내려주신 거여. 그래서 여기다 효자문을 짓고, 저 효자문이 언제 있는 거는 우리는 기억도 못 해는 거여, 응. 그러니까 저 효자가 문 지어진 거는 한 3, 400년 됐다고 봐야겠지 뭐.

16] 피난지 지 금당실의 유래

정사덕(65, 남) / 전대리 2앞

[전대리1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곳 마을의 지명에 대해서 청중들끼리 대화를 시작하였다. 이때 청중의 한 사람인 정상만씨가 금당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해 구술한 것이다.

[정상만 : 여기 이걸 금당실이라는 이것 이것 해 주었다 이것. 금당실. 금당실이라는 게 인제 옛날부터 금당실이라고 내려 왔는데, 지금 뭔가 허면 자연농원이 여기 와서 이게 여기 와서 있어요. 이게 아주 금당실이라는게 그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가 있는 거여.

옛날에도 금당실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금당실, 그런데 자연농원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제일 돈을 받아온 곳이여. 돈이 덩어리가 됐지 않았느냐 이거여. 그게 하나 유명한 거여. 옛날부터도 그게 뭔가 있지 않았느냐. 금당실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금당실이라고 해가지고 금이, 그래도 해가지고 금도 많이 캐고 그랬는데, 금은 몇 년 캐고 그랬는데 금이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농원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제일 큰 인제 금꽃여, 금. 금꽃이라 이거여. 한국 돈을 다 여기서 받아 먹는다는 거여.]

우리나라에 말야. 우리나라에 이게 옛날의 옛날에 전설이야. 저 금

당실. 이 용인군에 실이 12실이 있는데, 응. 12실 안에 난리가 나도 피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저 실 속에 들어 있대는 거여, 어. 응.

예를 들어 저기 금당실, 무슨 가실 응, 뭐 가마실 응, 지장실, 어매실, 하영튼 12실이 있는데, 저 실 가운데에 피난지가 어디에 있대는 거여. 12실 가운데에 그게 전설이야. 응.

[청중 : 포곡면에 12실이 있는데, 고 한 군데가 난리가 나도 참 거기를 가면.] [조사자 : 어딘 데요?] 어딘지 모르지. 12실 안에 피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 했는데. 12실이어.

17 술 향아리를 재치있게 감춘 할머니

정동일(64, 남) / 전대리T 2앞

[전대리1구 부동산] 박종수, 강현모, 구미영, 김영주, 김은정 조사 (1996. 6. 1)

정동일 할아버지는 노인정 옆에 있는 부동산을 경영하고 계셨다. 옛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을 받으셔서 예의도 바르고 말씀도 조리있게 잘 하셨다. 현재 하고 계신 부동산 경영에 만족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였다. 약간 엄격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청취하는 우리들에 있어 편안하게 틀을 수 있게 하셨다.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아버지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구술하시고 우리는 빙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옛날 내가 어려서인데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그 옛날 노인으로는 그뻐 에~ 참 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지. 그런데 그때 노인으로는 그래도 아마 글을 많이 배우신 분이었나 봐.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래 이 양반이 그때 인저 술 조사라고 있시오. 잉. 왜정 때 술 조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용인군에 세무소 전매국이 용인에 다 있었시오. 그래 인제 이게 육이오 사변 나고 수원으로 뺏긴거지, 실지 이 각 기관이 용인군에 다 있었시오.

그 당시 용인 세무소에서 그때 세무소에서 술 조사를 나가는 사람들

은 보통 그 당시 자전거를 타고 20명씩 내지 한 40명씩 그렇게 몰려 댕겨요, 한 번에. 그래 우리집에서 이렇게 대청에서 보면, 면사무소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는게 보여요.

그래 인저 술 조사가 들어오는구나 하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자 직감적으로 느끼시고서는, 방에 술 항아리가 있는 것을 술을, 항아리를 들어다가 마, 마당 복판에 놔시오. 마당복판에 놓고 방석이라고 있지. 체 체를 이렇게 떡 응, 떡을 헨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가루를 이루며는 체로다 치기 위해서. 마당 복판에다 술 항아리를 놓고 그 위에다가 그 방석을 얹혀 놓고 체를 갖다 놓고, 쌀을 한 되 가량 갖다가 그 뭐야 음, 절구, 절구에다가 놓구 물을 부어 놓고 생쌀을 뺩신거야.

그러니까 쟁쌀을 뺩고 계신데, 술 조사가 그냥 우르르 다 닥쳤는데, 에 뭐 집에 들어오니까 술내는 뭐 대단히 나지. 그래 인제 누구한테 세무소로 신고를 다 했거야. 우리 집에 술 있대는 거를. 그래서 술 조사들이 그래 인저 집을 뭐 수체, 뭐 옛날 잣가리 뭐 양해고 뭐 다 뒤져도 아무 것도 읍지. 나오는데 읍지. 그러니까 이내들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고 그냥 한 30여 명이 와 가지고 집을 싹 뒤고 뭐 으개 그릇이고 뭐 천장고 뒤고 다 보고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그네들이,

“할머니! 이 술 감추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쇼. 응, 단 댁에서 해 잡수는 거는 아예 세무소에서 인정을 해 줄테니, 그 감추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

고 그랬어. 그래,

“그 비법을 응, 무신 감추는 사람이 비법이 있겠느냐, 그러믄 정히 그렇태믄 내가 있는 걸 가르쳐 드릴테니 각서를 쓰시오.”

그래 인저 지필묵을 인저 응, 우리 어머니더러 가져 오라고 하셔 가지고 당신이 인저 쓰고 싶으신대로 붓을 딱 붙들고 응, 창호지에다 쪽 쓰고 써서 놓고서는,

“보쇼.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래니까.

“어이, 됐습니다.”

그래니까.

“그럼, 손바닥에 응 손바닥 도장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용인세무소에서, 그러구 그 단서로다 옆에다가 ‘술을 이 맥에서는 해 먹어두 조사를 앓기루 아주 각서 조항에다가 그걸 넣었대요. 그래노쿠 술 향아리 응,

“그래 어디 술 향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할머니가 꺄꺄 웃으시며,

“그래 당신들이 무신 조사를 하고 다니시는 거요. 당신 앞에 있는 데, 그래 당신 앞에 있는 걸 모르고 그래 뭘 찾으오 다니시는 거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발끝에 있거든. 그,

“선생님이 발로 한 번 앞뒤로 밟을 한 번 내밀어 보쇼.”

그래 밟에 탁 닿는게 향아리란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술이나 실컷 먹구 가도록 해 주쇼.”

그래드라.

“그래 사랑에, 사랑으로 들어가쇼.”

그때 우리가, 보통 그때는 죽두 먹기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는 잘 살았어. 그때 내가 어려서두 나는 죽이래는 것을 몰르고 살은 사람이여. 그래 인저 사랑이로 앓쳐놓고, 집에서 인저 고기 있는 거 인저 뭐 요새 사람들이든 뭐 뭐 기가 맥히게 요리를 해서 내졌지만, 그저 옛날 시골식으로 해서 한상을 해서 사랑방에다 그냥 이 약주술이 빨강게 기냥 응 빨간 약술을 기냥 그 저 물동이 있지. 물동이에다 하나 퍼다가 놓구서는,

“잡수쇼. 뭐 여러 분이니까 주전자로 대접은 할 수 없고 이렇게들 해서, 여 아낙네가 들어가서 술을 따라준다는 건 예가 아니니까 그냥 들 잡수쇼.”

그랬대요. 그래니까 그 그 사람 관세과장이래는 사람이 인저, 술을 지금두 세무소 관세과란 것이 있지. 관세과장. 관세과장이래는 사람이,

“참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술 조사가 오는데 술항아리를 으뜨케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주 그래고 묻드래. 그래,

“으째피 들킬건대 그제 알, 여자 응 얄은 소견에 한 번 피헬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 번 시험해 본 거다.”

그런 말씀을 해셨대. 그래더니 그 후서부터는 우리 집이 술 해 먹는 것, 이웃에서 누가 응 찢러도 우리 집이 술 조사가 안 왔대요.(웃음)

여

백

7. 유운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유운리는 용인 에버랜드 정문 동쪽에 있는 전대리와 신원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유실과 소운을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실은 유후란 사람이 처음으로 마을을 이루었다고 유후실란 것이 변한 것이다. 소운은 동네의 전나무 숲에 황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았는데, 구름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송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우촌은 유운3리로, 현재 에버랜드의 사택이 지어져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은 포곡면의 한 복판에 위치한 마을로, 에버랜드가 생기면서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그곳에 의지하여 생활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을 원래 맡은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자 일행은 유운2리에서 조사를 하였다. 마을의 가게 앞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서 7~8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담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할머니들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가실리를 맡은 김성환, 권미영 팀은 가실리가 에버랜드 안에 마을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인접 마을이 이곳 유운1리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2) 제보자

(1) 음병국(73, 남)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가실리 마을을 찾았으나, 자연농원(에버랜드)이 안에 포함되어 없어진 마을이 되는 인근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 이곳저곳을 탐문하여 없어진 사실을 알고는 이웃 마을인 유운1리를 답사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조사자들이 마을을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묻자, 마을 경로회장인 금병국 할아버지를 소개하여 주었다. 조사자들은 제보자 댁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기흥면 신고매리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살아오다가 7년 전에 이곳에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어렸을 때 서당을 다닌 것이 전부라는 제보자는 6남매를 길러 전부 출가시켜 내보내고 지금은 큰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11.

(2) 이병순(70대, 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이 전대리에 버스를 갈아타고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의 가게 앞의 정자나무에 밑에 있는 노인정에 할머니들이 7~8명이 모여 담소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제보자 선뜻 나서며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다음에 이곳에 살아온 마을 이장님인 이강국씨에 의하면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과 같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치면, 옛날 사람들은 행동에 대해 미련하다고 자주 말하였으며, 배우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는 대체로 사람이 살아가는 의의에 대해 것이 많다.

제공자료 : 설화 12, 13, 16~20, 23, 24, 27~31.

(3) 한봉순(74, 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변의 할머니들이 영근할머니라고 소개하여 주었다. 그 이름은 1997년 4월에 이장님의 소개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야기를 거절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그래 간단히 술을 사서 대접을 하자, 노래를 하면서 이야기만은 거절하였다. 그래 조사자와 옆의 할머니들이 여러 차례 권유하자 겨우 이야기를 하나 해 줄 정도이었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할 때에

남자분이 지나가자 이야기를 중단하는 마음이 여린 점도 있다. 그리고 제보자는 돌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면서 노래를 하였으며, 나이에 비하여 건강한 편이었다. 이 제보자는 3남1녀의 자녀들은 다 출가하였으며, 현재 큰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14, 15, 21, 25, 민요 1~6.

(4) 이춘옥(74, 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다른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만 계셨다. 그러다 영근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판에 들어와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용인시 포곡면 전대리에서 이곳 유운리로 시집을 와서 가사일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26.

3) 설화

① 이완 대장 일화

금병국(73, 남) / 유운리 T 1앞

[유운리 경로회장택]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답사지역을 가실리로 설정하고 찾아 갔으나, 그 마을은 자연농원(에버랜드)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없어진 마을이 되었다. 조사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실리를 탐문하여, 겨우 마을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이웃 마을인 유운리를 답사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유운리를 찾아가 경로회장이신 금병국 할아버지 댁을 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반가운 일이라며 스스럼없이 구술하여 주었다.

① 고지식한 한람 선생

그 나라에서 북벌을 하실려고 이완희(이완), 그러니까 참 한람 선

생을 임금님이 부르셨더라고요 그 불러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현세에 맞지 않더라고요 영.

그러니까 그 은금보화를 잔뜩 써서라며는 이게 한 보따리를 드리니까 무거워서 가지고 오시지를 못하고, 오시다가 그 모래더미에다가 물어 놓고, 한람 선생이 여기에 돈을 물어 놓고서,

“자식을 보낼 테니까 내일 찾으러 오겠다.”

고. 그래 써서 말뚝을 꽂아놓고서. 그래 인제 집에 가서 그 자질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구 아버님! 세상에 그냥이나 오시지. 이게 게다가 게 아무가 임금님이 은금보화를 주셔가지고 오다가 무거워서 물어 놓고 오시음, 게 그 꺼내갔지 이때 두웠잖나?”

고 그러니까.

“천하 고안놈, 이놈! 제하자(諸下者) 유구무언(有口無言), 여러 잔 소리 하지 말고 가지고 오라.”

고. 그러 허고서 꺼내 갔더라고요. 그 있으며는 그게 역사적으로, 그- 저가 역사적으로 그 아무 은금보화 주었다는 그 저가 있을텐데, 그것도 옳구. 그냥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

② 예지가 있는 이완 장군의 부인

또 이완이 대장을 불러갖고, 불렀는데 인저 문관 옷을 입고 다니시니까. 그 부인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어째 당신이 무관이지 문 문관이시요? 왜 문관 옷을 입고 나오시요?”

그게 속에다 무관 옷을 입고 문관 옷을 겹에 입고, 그래 인저 그래 갖고 대궐을 들어가니까, 인저 그 부인 하시는 말씀이,

“전진, 전진만 하지, 절대 후퇴는 마시오.”

이렇게 부탁을 험게니께, 그래 어쨌든 전진만 해 들어가는데, 가슴에다 화살이 확 꽂이더라고요. 그래 화십이 확 꽂이니까, 그래도 그냥 불

문하고 전진만 해 들어가니까,

“왈 장군이라.”

고. 그게 정답을 하니까, 참 정답을 맞도록 현세에 맞도록 하고. 그래 인저 앞으로 북벌을 허자는 의논을 하고 나오셨더라고

③ 인재 허진을 잡지 못한 이완

“그래 서울 장안에 인재가 누가 있느냐?”

“아이, 참 김부재가 참 인재더라.”

고. 게 그대로 물으니까,

“허진이 남산 밑창에 있는데, 그가 인재라.”

고. 인자 헌직은 중국 사람인데 망명해 나온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이한테 찾아갔더니, 이완이 대장이 찾아 갔더니,

“이 한국에서 문명대가집 딸을 주면 북벌하겠다.”

고 그래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 문명대가가 망명해 나온 사람을 줄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 못 주고, 그래 대답을 못하고. 입을 딱 벌리 그러니까, 입을 다무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뭐여. 그러니까 입을 딱 벌리드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로 말을 못하고, 그냥 이완이 대장은 집으로 와서 부인에게 (말하니까),

“아이고, 그 우리도 문명대가(가) 아니냐고. 내 딸 주고 사위 삼자고 하고 북벌하지 그러냐?”

고. 올라가 보니까, 집에다가 불을 놓고 그냥 도망 가서 영 못 만났더라 얘기여.(웃음)

② 남이 장군 일화

금병국(73, 남) / 유운리 1 앞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유도하려고 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야기를 잘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조리있게 구술하여 주었다.

① 11세에 중국 사신으로 간 남이장군

게 남이장군, 남이장군이 그 십일 세에 중국 사신을 가셨드라더래요. 그래 따라 간거지요. 자기 을신네가 난 병이 나서 또 대신 가는데, 그 따라 가셨드래든지 어째든지. 그런데 십일 세에 가설라무는, 중국 가서는,

“그 못, 대관 자손들 하고 놀라.”

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일 세니까 어린애들 아마 예닐곱 살 칠팔 내지 팔구 세 아마 십 세 안에 되는 애들하고 놀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지.

“남아 십일 세에 출발하니, 이 못 놀겠다.”(웃음)

고. 그러니까 이 저 어른들 하고 상대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그 대관들이 모여서 있는데, 땀을 철철 흘려도 옷을 안 벗으시더래요.

“그래 어찌 옷을 안 벗느냐?”

고 그러니까.

“내 일생에 심 출세하기 전에 안 벗는다.”

고. 그런게 그러드라고. 그러니까 이 대인은.

② 아전 휘어잡은 어린 남이

그래 십오 세에 비장날일을 나가는데, 비장날일이 아마 지금으로 치면 내무과장 부군수인 모양이여.

그리고 아전속들. [조사자 : 무슨 속들?] 그래 아전속들이란 경찰관이란 말이여. 그래 인제 경찰관. [조사자 : 경찰관이요?] 응. [조사자 : 경찰관 판직 이름?]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인자 늙은이들 인자 노인

들이 한 오십 되고 사십에서도, 십오 세에 비장날일을 하니까 놀리고 장난했던 말이야. 그래 게 놀리고 그러니까, 게 맘이 안 좋으니까,

“일 년 자란 수수깁을, 수수깁 그 기다란 수수깁을 가지고 꺾어가지고 오라고. 그 도포자락에 이것을 꾸기지 말고 고대로 넣으라.”

고. 그러니 자기는,(웃음) 이 십오 세에 그러니까 자기를 놀리니까 그 저기 허니까 그 후로는 절을 하고 당체 못 놀리더라. 그래서 잘 정치를 하고 돌아 왔더라는데요.

③ 남이 장군의 최후

게 ~

백두산성은 마두지요
두만강수는 우망우라
남아일심 미평국하니
수제특제는 대장부라

남이장군께 근데 그러고는 이십오 세에 몰릴 때, 그게 유재광(유지광)한테 몰렸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웃음) 얘기지. 그러니 옛날 얘기겠어. 유썬 안 계시니까.

그래 유재광이한테 몰려서, 팔 다리 뼈가 부러지고, 주리를 틀려서 부러지고 그러니까, 강순이 영의정이 그 그를 끊었다는데 끊고. 그래 강순이 아니 이 유재광이가 모는데.

물 적에 영의정이, 미평국이라고 그런 걸 미득국이라고 저기해서 몰았다는데, 그걸 원 자기가 꺼냈으니까, 그대로 말을 하는 그 변명을 해주었으면, 주릴 틀려 뼈가 안 부러지고 그랬을텐데. 그래니까 유재광이, 아니 강순이 영의정이 미워서,

“강순이가 전부 시킨거라.”

고. 근게 그때 강순일 그때 강순일 목을 칠 수가 있나. 그때 국부 국흔허 고 현 사람인데. 그게 모르지 그런 사람 이야기 듣고.

③ 농부의 웃이 더러운 이유

금병국(73, 남) / 유운리T 1앞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조사자가 ‘아무 이야기나 다 된다’고 하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야기는 시골 사람이 털털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도회지 사람들의 무관심을 비판하고 있다.

참 근데 지금 내 모를 심다가 왔는데, 모를 심다 왔는데 모를. 근데 옛날에 그 우장화 입고 그러고 모를 낼 때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 저거 무슨 짐승이나?”고.

“아, 모쟁이라.”고.

“모쟁이 고기도 먹느냐?”

고.(일동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일을 많이 허니. 그런데 그래도 농사군이더라고 허니 말이여. 농사군이 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먹는 걸 멍기는 사람이니까 그저. 그런게 그 놈의 멍기는 것 죄(전부), 죄다 그렇게 많아요. 공장에서 멍기는 것도, 죄 멍기는 사람은 웃도 버리고 망하고.

애기도 길러 봐요. 애기도 그 얼마나 그 좋아서 기르는 건 아니야 그거. 귀여워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그래도 기르고. 그것도 공장 쪽이여. 애기 기르는 것도. 그것 참 이야기여.

4 말팔랑이 유성룡의 어머니

금병국(73, 남) / 유운리 1앞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집안 내력과 일상사에 대해 말씀을 하였다. 그때 조사자가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에 대해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하였다. 그러자 조사자는 ‘대인들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소소한 것은 기록되지 않았다’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성룡의 어머니에게 변형된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의 삽화가 결구되어 있다.

유성룡씨(아버지)가 인저 그 장가들고 그럴 나이가 됐는데, 혼차(혼처)가 영 없어요. 그래 유성룡씨 어르신께서요. 그래 또 색시집에서는 유성룡 어머니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말팔랑이라. 그러니 처녀 총각이 데려가고 데려오는 사람, 그 데려올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 전해 오니까 할 수 없이. 인저 그 유성룡 어머니 되시는 분이 시집을 오셔서, 그 어떻게 각시다이가만 그 시집을 오지 않고, 그 색시는 말팔랑이라서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해서. 그래서 아 시집을 인제 와가지고, 인제 사당차례를 가는데,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한님(심부름 하는 사람)도 오지 말고, 아무도 오지 말고 나 혼자 가서 사당차례를 하고 오겠다.”
고. 그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 그냥 황을 많이 가지고 가서 황에다가 그냥 그 각시다에가 그 사당차례 가는데, 거기 가서 그냥 불을 질러라고 황을 많이 가지고, 인자 불을 지르고 그냥 흥치마 자락에 뛰어 내려와 그냥. 뛰어 내려오니까,

“저것 참 팔랑이라고 허더니, 팔랑은 참 대단한 팔랑이라.”
고. 뛰어오니 말이여. 그냥 연기가 팡팡팡팡 제 터져 확 타버렸어요. 저 그랬는데 일 년이 지나자, 아들을 그 옥동자를 탄생했는데,

“너, 내 집에다 불을 놓았으니까 네 자식은 내 잡아가겠다.”

그거야. 그래 ‘가져 가라’고 문을 열고 확 집어 던져 주었다는 거야.

“가져 가라.”

고. 그 게 가져 가라고 그러니까, 그 게 가져갔다는 거지. 그러니 그게 뭐 피덩어리 집어 던지면 뭐 아무렇게 안 죽을거냐 말야. 문밖으로 확 집어 던지면 옛날에 그랬다는 거구. 둘째로 또 저기 했더니 또,

“잡아간다.”

고 하나까.

“삼을 몬데기 전에 못 잡아간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못잡아 갔다는 거지.

근데 그 양반이 둘째로 태어나서, 유성룡씨가 임진 10년 독상을 하셨다는데, 영의정 10년 독상을 하셨다는 데여. 그런 몸에서도 그렇게 좋으신 아들이 탄생했다는 거.

(조사자 : 이순신 장군 천거하신 분이시죠, 그 분이. 유성룡 대감님이. 그때 임진왜란 때 영의정 하시고?) 유성, 아니 저 누구 올곡이요? [조사자 : 아니 유성룡?] 유성룡씨는, 근게 유성룡씨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10년 독상을 하셨다는 거지, 영의정을.

5 호랑이를 잡은 장사 무송

금병국(73, 남) / 유운리 1뒤

[유운리 경로회장택]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성계의 일화 등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하여 주었는데, 녹음기의 고장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마친 후에 조사자가 헐센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해 준 것이다.

장사더라는 데요. 어느 고개를, 아마 강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고개를 넘는데, 그 고개를 꼭 넘으면 호랑이를 꼭 만난대요.

근데 언제나 철장을 들고 당겨. 그 장사 철장을 들고 다니는데, 술을 세 대접을 자시고, 네 대접 다섯 대접을 자시더라요. 그래 여기서

그 주모가,

“여기서 이 주막에서 쉬어서 내일 가지지요 해도, 그 고개는 언제나 꼭 호랑이가 있으니 큰일 난다.”

고. 그냥 부득불, 부득불하고 넘어 가더래요, 넘어 가. 게 넘어 가서는 그 철장으로다 호랑이를 때려 잡아 놓았더래요. 아 무심이가. 그래 무송이 그렇게 장사더라는 얘기데요. 역시 무송이가 어떤 뉘 자손인지 그것을 그것도 모르니 말이여.(웃음) [조사자 : 무섭어요?] 무송이라고 그러는데요.

6] 아내 효부로 만든 남편

금병국(73, 남) / 유운리 1위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의 집안 내력을 말하고 일상사에 대해 말하였다. 조사자가 이것 저것을 물어보는 도중에, 집안에 윤이 들어 며느리를 얻어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 아들이 어딜 갔다 오 오던 날, 그 부인더러,

“아이 참 늙은이를 살찌우니까 참 값이 무값이 나가더라고. 금값이 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살 좀 찌워서 그걸 팔자고 말이여.(일동웃음) 팔아서 우리도 부자 좀 되자.”고.

“아이고, 어떻게 살을 찌우며는 부자가 되냐?”고.

“그저 잘 먹이라고. 잘 먹이면 살 찌워서 그러며는 무값이 되더라고 말이야. 우리도 부자될 수 있다. 농사 안 지어도 잘 살 수 있다.”

고. 아 그러니까 인저 밤도 구워서 대접을 하고. 그냥 뭐 좋은 건 그냥 자꾸 갖다 다 자꾸 대접을 하여. 살찌라고 그러니 어쨌든 자꾸 갖다가 대접을 해.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애들도 잘 봐 주고. 그전에는 안 봐 주었던 말이야. 애들도 잘 봐 주고 업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아버지 인저 갖다 팔면 돈 좀 받겠다고 말이야. 돈 좀 받

겠으니까 갖다 팔자.”

고 그러니까.

“아이 애기도, 애들도 잘 봐 주니, 이제 팔지 말자.”

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갖다 팔자.”

그래도 못 팔겠더라고요.(웃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 인제 건강하시게도 되고, 몸도 저기 또 자기 자손을 잘 봐 주니까. 손자니까 또 귀엽고 잘 봐 주고, 또 자기 잘 대접 허니까 잘 봐 주고 해서. 그래서 시아버님도 공경을 잘 하고, 그 효도도 받고 그랬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서로에 자손에 정과 부모의 정과 다 합해서 그 이룩해야 그게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하나가 좀 좋다고 해서 하나가 비뚤어져 나가는 동시에는, 안 그게 영 좋아질 수가 영 옳는 일이란 말 이야. 그런게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이 사람살이 나가는 그 길이여.

7 죽을 병든 남편감을 살린 열부

금병국(73, 남) / 유운리T 1취

[유운리 경로회장택]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하였다.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또 하나 해 줄께’ 하면서 구술한 것이다.

또 옛날 애기 또 해 줄께. 광씨문가에 보면은 효자가 저 그 열녀가 있는데, 그 지금으로 치면 약혼을 해 놓고,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중인데.

“참 신랑이 병이 들어서 기지사경이니까 파혼을 하자고 말이여. 다 큰대로 색시 시집을 가라.”

고. 그러니까(웃음) 지금은 뭐 약혼을 해 놓거나 말거나 그까짓 놈의 거 어떻게 되면 또 판대로 가고 이런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세

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년, 복이 없는 년이니까 죽으라.”

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으라고,

“너, 이년 죽어야 한다.”

고. 방에다 가두어 놓았버려 그냥. 가두어 놔서, 가두어 놓고 이젠 이리니, 죽으라 그러니 그 부인은, 일꾼이라고 해니 그전이는 종이라고, 옛날에 종. 지금은 일꾼이라고. 근데 문구멍을 뚫고서는 밥을 몽쳐서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이걸 먹고, 응 또 들여다 보면 영 몇 칠을, 열흘이 있다도 안 죽고, 스무날이 있다도 안 죽고.

“요년! 요거 안 죽고 영 있다.”

고. 그러니 어떻하냐 말이야. 모영 영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으라고 가둬 놓으니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

“에이 이발 쟤장 죽으나 사나 하는 수 없다.”

고 말이야. 남복을 맹글어 입고 신랑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신랑집을 찾아갔더니 신랑 어른신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같이 글 배운 동접인데, 그 좀 만나야겠다.”

고. 안 된다 이거여.

“애들은 애들 죽은 거 보는 거 아니라고. 못 본다.”

고. 그래 못 본다고 허니까, 그러니,

“아이 못 볼게 뭐 있습니까?”

그 죽으나 사나 만나 보러 온 사람인데. 남복을 입고 그냥 뜰에 앉아서 안 가. 가래도 앉고 안 가요, 안 가. 그래 뭐 죽으나 사나 이판사판이니까, 와서 죽으나 사나 만나볼려고 온 사람인데 같거냐 말이야. 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뜰에 가 앉아 그 어두워도 안 가. 이 이놈이 어두워도 안 가고 허니까 어떻게 하나.

“점심도 굶고 이러니까 가야지, 안 가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나?” 허니까.

“아! 그전에 글 같이 배우고 그러던 동접인데, 그걸 못 보고 가면

말이 되냐고. 절대 보고 가야 한다.”

고. 그래 들어가더니 가슴에다 손을 놓고 발을 붙잡고 앉았어, 그냥. 그래 밤을 새워. 그러니까 뭐 너 죽으면 나 죽기 죽지는 판인데 뭐. 그 집에서는 뭐 수운(수운)을, 시운을 가지고 가서 그냥 물을 떠다 놓고, 한 대접 타서 그냥 농 밑에 넣고선 죽으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냥 시운을 한 대접을 타 놓고 있는데, 그 그냥 그 내중병이더라요. 내중병이 저기 해서 저기 허니까, 그냥 기대다가 그냥 그 농 밑창에 물이 있으니까, 그냥 한 대접 들여 마셨더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탁 터져서 그냥 피가 그냥 마루바닥에 피 토해서 그냥, 그냥 시운을 먹으니까. 그냥 독약을 먹으니까 냅대 터져서 그냥 방바닥, 피 토해서 그냥 그래 그 의사가 사랑방에 와 있고,

“피(를) 토했다.”

고 하니까.

“이제 살았다.”

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튿날도 안 가고. 그 그래 가느냔 말이야, 또 안 가지. 집에 가면 뭘 해느냐 말이야. 또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병은 다 고쳤으니까, 이제 개를 잡아서 보 보양만 시켜서 그렇게 허면 괜찮다고. 병은 다 나왔다.”

고. 의사가 그래. 이제 개를 잡아서 보양을 시키고. 그래 색시보고,

“가라.”

고 그러니까. 몇 칠 만에 간다고 그러는데,

“인제 가겠습니다.”

하는데. 명주를 한 필을 주니까,

“이거 명주 한 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 신랑 아버지 되는 양반에게 먹을 갈아 가지고,

“여기다 인장을 하나 찍어 달라고. 인장이나 하나 찍어 달라고. 나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돈도 필요 없고, 명주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읊는 사람이라고. 그런게 인장을 하나 꼭 찍어 달라.”
 고. 해서 고놈을 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집에 왔지 뭐야. 왔는데, 집에
 와도 그거 뭐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하루바삐 죽을 것만 바라니 어떠한
 말이야. 그러니깐 그러자, 이제 그 병을 다, 고 인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나아지니까 도로,

“다른 데로 시집을 안 갔으면, 도로 내 집으로 보내라.”

고. 또 종을 그 저기해서 보냈더라고요.

“이, 내 딸은 행실이 불충분해서 못 보낸다.”

고. 그래 갔어. 그러니까 그랬는디 인저 그런디 청해가지고 날 택일 했는
 데, 색시 집에서 아무 준비도 안했더라고요, 가니까요 혼행을 해가지고 차
 려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하고, 우선 마중도 안 나오고, 그전에는 등용을
 들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등용 들고 나오는 건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
 꽤 앉아다간 그 주막에서 그 술을, 그 하인들 허고 대접을 허고. 주모가
 하는 말이,

“샤시는 좋겠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원유(이유)이냐?”

그러곤, 그러니께 뭐 양반 집에서 옛날에야, 주모라는 거는 옛날 중
 인들 거 뭐 천인이니까 거 뭐 불기 치는 거는,

“그게 무슨 원인이냐? 색시는 좋겠냐가 무슨 조건이냐?”

그거 또 뭐 조건이 있는 데다 그런 말을 하니까. 있구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기 치고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를 죄(전부) 했다는 거여.
 그래 게 인제 그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샤시 인장을 그때 내놓더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뭐, 뭐 백 사람 천 사람 말해 봤데자 거기 보증
 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거기 인장이 있으니까. 그 신랑 아버지 신랑
 어머니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에, 관계 없다.”

고 말이야. 여기 인장이 있는데 다 보증이 되어 있는 거 아냐. 거 벌써 다

찍어 놓은게 있는데요. 거 누가 백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다녔다고 해도 그건 신랑집에서 믿는 거란 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근께 믿고서 혼인을 하고.

8] 도깨비 불

금병국(73, 남) / 유운리T 2앞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조사자가 무서운 도깨비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자, 구술하여 주신 것이다.

왜정시대에는 도깨비 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 그말이야. 이 전 기불이 밝으니까 도깨비가 옅어진 모양이야. 그때는 그 개울 개울보다 산에도 그렇더라 말이야. 불이 요강탱이같은 것이 쭉 나갔다 쭉 왔다 허는데, 지금은 없더라 말이야.

[조사자 : 거기에 얹힌 얘지요. 경험한 사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더라 그말이야. 게 내가 전, 저 영동에 살 적에, 그 위 방죽이, 원천 방죽이, 방죽이 그 위가 들어서 몽쳐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 원천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원천 거기서 논 닷 마지기짜리에 참외를 심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그냥,

“첼픽! 첼퍼덕!”

하더라 말이야. 비는 그냥 뭐 쏟아져 밖밖에 나가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 이게 무슨 일인지 당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도깨비가 그랬는지 어쨌는지 사람이 많았으면 죽었을런지, 죽었던지 말 했다는 소문도 났을텐데, ‘첼픽첼픽’ 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현지에서 내가 들었던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개울께고 장마질 때 이니까 그런 건지, 불기 죽쳐,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고. 아이고! 아이고! 죽는다.”

고. 이렇게 소리가 지금은 읊더란 그말이야. 그게 지금은 없더란 그 말이야. 나 그거, 그게 지금으로 치면 한 40년, 그때 보니까 그런, 그게 좀 나가 불려고 그러는데, 세상 비가 쏟아지니 나가 볼 수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 나가 불려고 해도, 우리 도깨비 불 좀 보면 쫓아다니면서 본다.

확 갔다가 없어지고, 확 갔다가 없어지고 그런지. 그래 쪽 갔다가 쪽 갔다가 요렇게 앞에 왔다가 갔다. 물이 눈에 시퍼렇게 있는데, 쪽 물 위로 쪽 나갔다 쪽 왔다 그러는데 그래.

이놈게 도깨비가 참 이상하게 밤새 이지랄 하니, 이놈의 것 조금 가 불려니, 비가 그냥 쏟아지고 개울물이 막 넘고 그러는데 영 나갈 수가 있어야 나가는데, 우산이 있고 하면 한 번 나가보고 싶은데, 못 나가 봤어. 도대체 뭐가 그랬는지. 도깨비가, 그래 도깨비가 그런 것 같아.

⑨ 첫날밤에 버림 당하고 죽은 처녀

금병국(73, 남) / 유운리 2앞

[유운리 경로회장택]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조사자가 다시 무서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천석군이 이 용인에 사셨는데,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되고 있는건데. 천석군이 살았는데, 이 동네가 아니고 이동면인데. 이동면 대지에서 그가 그 색시가 뇨젯(?)을 땀기고 이러다가, 서울 사람이다가 데려 갔는데.

게 첫날 저녁에는, 첫날 저녁에 꾸며서 들어가면 그 나오지 않고, 그냥 밝어야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서울서 친구 녀석이 차 타고 와서는, 그냥 택시를 타고 와서는,

“아무개! 놀러 나오라.”

고 말이야. 아 그러니까 니가 그냥 툭툭 털고 나와 버려. 나와서는 그놈들이랑 들어서 그냥 택시 타고 내빼어. 그러니까 부자고 그 유력하신 분이,

“이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 말이야. 그래 첫날 저녁에 이놈! 신방을 꾸며다서 그저 나가. 어딜 니 맘대로 놀러 가는게 말이 되냐?”

고. 걱정을 하니까, 그 되지 못하는 놈 그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서울 부자들 그 아무렇게나, 그 아니꼬운 놈은 아니꼬운 소리 쳤다고.

“니딸, 니딸이 잘 데리고 살라.”

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 그 딸의 체면이 무엇이 되느냐 말이야. 사위란 놈이, ‘니딸 니가 데리고 살라’고 이놈들이 그냥 내빼더라. 그렇니까 그가 화가 어떻게 그냥,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산 넘어 주막 근처에서 약을 먹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

그 후에 그 각시가 선각시가 되어가지고 그냥 디리(무척) 말썽을 부렸어. (웃음) 그래 경을 읽고 어떻게 별짓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 에 지금은 그런 것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며, 지금은.

근게 오십 년 전 그때 이야기여 그제. 지금은 그런 것 읊다라 그 말이야. [조사자 : 오십 전 얘기에요?] 예. 오십 년 전 얘기지. 지금 그런 것 읊어요. 이 세상엔 절대로 읊다 그 말이야. 귀신이 저기해서 집안 식구들 알리거나 어따 불을 놓다거나 그런 짓을 하고 다녔지. 지금은 읊다 그말이야.

⑩ 싸우는 황소를 물리친 이성계

금병국(73, 남) / 유운리 2앞

[유운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동물들의 눈에 불을 쓴 것에 대해 계속 이어서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주었다.

태조대왕이 어렸을 때, 자랄을 적에 그 책 보고 저기여. 그 보면 칙 빈(?)이 황소, 그 빨을 이렇게 자, 그런게 소가 그냥 함흥 시장에서 싸움을 허고 그냥 막 그러니까,

“불잡을 사람이 있느냐?”

고 그러니까. 그 빨을 쥐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허리가 끌려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물러나드래요. 싸우던 놈이 빨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장사 모르게 조심음, 중심을 넘겨가진 거래요.

“아 누구의 자제가 저렇게 장사냐?”

“그 임(이)자춘의 자제라.”고

“아 그가 그렇게 장사냐?”

고.(웃음 : 이후 단편적인 서술을 생략함) 그래 일부는 그랬다가 고려 때, 중국이루 쳐들어 가다가는 활이 휘고, 활이 등지고. 근게,

“활을 이 안간간게 전쟁을 못허것다고. 두려워 가지고.”

고려를 무찌르고 왕이 되고 그랬다는 것 아니여. 그러니 중간에 그 양반 계시고.

㉠ 똥을 싸다가 도를 통한 원이대사

금병국(73, 남) / 유윤리 2 앞

[유윤리 경로회장대] 박종수, 강현모, 김성환, 권미영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조사자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이날 답사를 마쳤다.

원이대사가 게 이 식전 저자 아침에 나가서 돌아댁기다 보니까, 참 세상사가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더래요. 그래서 또 집엘 와설라무니 대변을 보니까, 그 새똥에 그냥 구더기가 덜벅덜벅 들어 덤비드래요. 게 이,

“모든 이치가 한 가지로구나!”

그래 그 구더기가 새똥을 파 먹는 것 그걸을 보고 도통을 했다는데 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 다 먹고 살라고 즉, 움직이는 거지. 먹고 살라고 하지.

시장엘 나가 보아도 그렇고,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그 미물도 이렇게 먹고 살라고 새똥에 들어 덤비드래요. 그것을 보고 도통을 했는데.(웃음)

12 거짓말 해 망신 당한 청년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이 이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의 정자나무에 밑에 있는 노인정에는 할머니들이 7~8명이 모여 있었다. 그래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제보자 선뜻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마치면 옛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자주 말하였으며, 배우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아래 이야기는 이습우화에 나오는 것 중의 하나이다.

옛날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저기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잘 한대요. 그래서 인제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사랑방에서 새끼 꼬시잖아. 그러니까는 저는 저 그냥 까부느라고 한 소리지.

“아유, 늑대 보라.”

고. 그냥 악을 쓰니까는, 그냥 사랑방 할아버지들이 다 떠(뛰어) 나오신 거야 그냥. 아 저 찌자 늑대가 애를 물어 가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인제 나와 보니까는, 이놈이 깔깔 웃고 그냥 저거 허니까는 노인네가 화가 났지 뭐여. 아 인저 그래서,

“아, 고놈 참 맹랑하다고 말이여. 그렇게 늙은이들을 속였다.”

고. 노인네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셨는데, 고 다음날 저녁에 또 인저,

“늑대 보라.”

고. 소릴 질르니까 할아버지들이,

“저놈! 저.”

진짜 인저 늑대를 만난거야, 그날은. 진짜 늑대를 만났는데 죽을 사정에, 그냥 개 저기 늑대가 애를 그냥 어깨 넘어로 이리 떠넘고 저리 떠넘고 허는데. 인저 그냥,

“사람 살리라고. 늑대가 있다.”

고. 악을 악을 쓰니까는, 그때는 할아버지들 내다보지 않으셨대는 거여. 그렇게 그것말은 해며는, 한 번 그것말을 해며는 죽어도 그만이라고. 누가 내다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글세 그것말을 해고.

13 꼬마 신랑의 아랑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 3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와 구분하지 않고 구술하였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실겠다.

① 박이 굶어나

그 옛날에 인저 그냥 시집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시집을 가셨는데, 아주 그냥 키는 쪼그맣고 나이 뭐 열네 살 열세 살에 시집을 갔으니까, 그냥 옛날엔 이런 파마도 아니고 쪽을 찌가지고 그냥 땡기며는, 청년들이 보고,

“아휴, 까치가 막대기 물고 간다.”

고.(조사자 웃음) 쪽진게, 그 비녀 깎게 그게 우습지 뭐여. 이런 쪼만 것들이 비녀 끼고 데니니까니, ‘까치가 막대기 물고 간다’고. 인저는 시집을 갔는데, 아 인저 신랑은 나이가 많아요? 신랑은 나이가 많고 색시는

나이가 적은데.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인저 발엘 나가시면서,
 “애야! 나 저기 가서 발 땀테니까, 밥 좀 해 가지고 나와라.”
 그러니까는,
 “네!”

그러고서는, 대답해고선 밥을 해는데, 신랑이 나이가 어리니까 부엌
 을 들여다 보고선,

“아집마! 누렁 누렁지 좀 굵어 달라.”

고. 그러니까는,

“아, 요놈오 새끼! 누렁지 굵어 줄게 어딴냐!”

고. 그냥 저기 신랑을 그냥 때렸단 말이여. 아니 때린게 아냐. 집어서 지
 붕에다 확 이렇게 지치렸(던졌)다구. [조사자 : 신랑을요?] 응. 신랑은 즉
 구 색시는 크니까. 아 인제 그래서 지치렸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안 내오
 니까는, 들어오니까는, 저기 아들이 지붕 위에서 어정어정 돌아댱기거등.

그런데 옛날엔 바가지 있잖어 왜. 이런 저기. [조사자 : 박으로 만
 든 거.] 응. 박 박아지, 쪽바가지 인저 박넝쿨 이렇게 올린 지붕에다
 인저 치트려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정어정 내려올 수가 읍으니까.
 쪼그만게 내려올 수가 읍으니까 돌아댱기니까, 지 어머니가 와, 오니
 까는 지붕에 있거든, 아들이. 그래서,

“너! 왜 거가 돌아댱기니?”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여. 왜냐 해며는, ‘색시가 이렇게 집어던져서
 여기 와 있다’고 기렸으면 그 색시가 혼나는건대,

“저기 색시가 바가지 굳었나 보라고. 그래서 어-(웃음) 지붕엘 올라
 왔는데 엄마 내려갈 수가 없다.”

구. 그래서 인저 내려봐 줬다구. 엄마가,

“아, 그러냐.”

구. 인제 이러구 내려 보냈지. 인제 그래 그래서 면했단 말이여. 아 그러
 니까 인저 색시 생각에,

“아휴! 그래도 맹랑하구나! 그래도 참 하늘같은 서방님이라.”

고. 인저 그때서부터은 인저 서방님 대접을 해주는 거여. 저 저 저기 현 걸 모면을 했시니까.

② 쇠뿔에 받쳐서

아 그랬는데. [청중 : 옛날엔 신랑이 나이가 많고, 아니 저기 색시가 많고.] 색시가 나이가 많고, 신랑이 나이 적은 걸 그렇게 장갈 들었어.

아니 인저 발을 또 매러갔는데, 발을 매다가 그냥 아 그냥 색시가 이냥 신랑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호미로다 이냥 이렇게 꼭 머리를 찍었는데, 그냥 큰 피가 그냥 뱉다 빠치거덩.

아 그래서 인저 쑥을 뜬어서, 그 옆에서 본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제 쳐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제 즈 엄마가 또 왔지 뭐여. 왔는데,

“아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터졌니?”

그러니까는.

“아무게네 소허구 아무게네 소허구 싸우는데, 그거를 말리러 갔다가 쇠뿔에 받쳐서 깨졌다.”

구. 그렇게 옛날에 나이가 그렇게, 참 신랑이 어려도 색시를 그렇게 덮어 갔데오. 그래 지금같은 고지꼴테로여.

“아! 저년이 저기 호미루 때렸다.”

고. 그럴 꺼 아니여.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 마음이 그렇게 듬직해가지구, 그렇게 그냥 참 색시가 호미루다 찍었는데두 ‘아무게네 소허구 아무게네 소허구 싸우는데 말리다가 그랬데’는 거여.

그래 저기 사람이 그렇게 남자가 쪼끄메 보여도 그렇게 속이 깊데는 거여. 여자 속보더. [조사자 : 예, 옛날에는 남자가 더 나이가 어렸나 봐요, 신랑이요?] [청중 : 응. 그래 뭐 저 꼬마 신랑, 그 영화에도 나오잖어. 그 색시는 나이가 차구. 신랑은 어린 신랑은 그렇게 해서 참 살았어.]

14 꼬마 신랑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약간 대접한 술을 드시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앞에서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부탁하자,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조사자와 옆의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해 주신 것이다.

시어머니허구 시아버니는, [청중 : 그봐 나와잖어.] 시어머니허구 시아버니는 인자 둘이, [청중 : 술 접수신 것여. 인자 나오는 거여.] 응. 갔는데, 일 갔는 발에 일허러 발 매러 갔는데, 똑똑히 들어. 발 매러 갔는데, 저기 인자 짐을 땀는데, 시아버니 시어머니가 짐을 땀었는데. 인자 신랑이 죄까허거든. 응 쪼깐한데 인자 죄 으른들이 와야 밥을 먹잖우, 해 놓고. 그런데 아 이놈이의 신랑이 뽕일처럼 인자, 시약시가 인지, (청중들의 이야기와 상관 없는 대화 생략.)

샅시 인자 베를 인자 ‘딸각딸각’ 뒷문을 열어 놓고, 점심을 차려 놓고 ‘딸각딸각’ 짚게, 아주 인자 신랑이, 쪼끄만한 신랑이 뽕일 땅 쳐서,

“배 고파 죽겼어. 인자 밥 줘 줘. 밥 줘 줘.”

“으른들이 와야만 응 내가 점심을 드리지, 으른들이 읍시 내가 밥을 어트게 주겠느냐. 으른들 오면 먹는다.”

고. 아 그러거든. 아 그냥 뽕일 치면서, 하두 속을 씨겨서, ‘애이 이놈’ 베를 딸각딸각 허면서,

“애이, 염병혈 놈의 새끼가 이렇게 속을 씨기냐!”

구. 광묘로 그냥 [조사자 : 아이구.] 확 던진게 장독이 특 깨졌거든. 그러니께 장이 질질질질 흘러거든. 그러니께로 인자 색시는 이냥 쫓겨갔단 말여, 장독이 흘렀으니께. 신랑이 일러버리면 어떻게 해. 쪼껴난다고. 옛날엔 그랬어. 인자 뽕일치란께,

“이년아! 응 이 구녕 밀가루 있음께 밀가루로 틀여 막으라구. 장독을 틀여 막으라.”

구. 장이 이렇게 질질 흘른께 그냥 틀어막은께, 틀어막은께 괜찮거든. 인자 죽었구나 인자 색시는,

“난 인제 오늘 썩겨난다.”

[청중 : 신랑이 일러는가?] 그런데 다 죽게 생겼드라, 삭시가. 그랬는디 인자 신랑이 인자 현다는 소리가, 아버지 엄니가 오는데,

“엄마! 엄마! 엄니! 엄니! 내가 새가 많아서 새총으로다가 장독께서 장독 깨뜨려서, 밀가루다 틀여 막아서.”

그렇게 덮어 가더라. 덮어 가서는 인자 덮어 가더라. 그런데 저녁에 설거지를 하는데 신랑이,

“호차릴 하나 가지고 우리 방으로, 니 방으로 오라.”

고 허드라. 허잖데로 했지 뭐, 어떻게 해.

“나가, 제가 잘못 했어요.”

걸어 붙이고, 걸어 붙이고 인자 이렇게 있다는 인자, 시약시는 빈들 빈들 토슬토슬 허거든.

“어이, 어디 때리전니 아깝다.”

그러구나, 안 때리구는 저녁에 자서 그날 아들 낳어. 그날 저녁이 자서.(조사자들 웃음) [청중 : 신랑이 그렇게 야단해도.] 그런께 천치라구 그 으습게 볼게 아니라구, 그렇게 덮어간 거 봐.

15 잘 한다 몇 번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리] 박중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고 ‘더 이상 못하’ 하던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요청하자 구술을 시작하였다. 이때 마을 아저씨들이 지나가자 이야기를 중단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성과 관련된 것이다.

시방 가면 못쓴게 점심 때 가야 한다구. 하 그런게 아잇 아잇구 가만 있어.(아저씨 두 분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중단 ; 일동 웃음)[청중 : 아이구 해여.] 응. 그래서 인자 아 자꾸 더덕풀 장정이 날더러 기운 신게 자꾸 덤벼. [청중 : 새악시는 젊은니께 좋다는 이거지.] 응.

그런게 인저 시아버지는 새끼를 대문 앞에께 꼬구.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는 그냥 수제비를 뜯다는고 떠어. 수제비 뜨는데, 뜯데 아 시아버지는 새끼를 꼬는데 거기서 옆에서 허거든.

“그,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라구. 좋은 거 배웠으니까 여기서 해야 한다.”

구. 시아버지 옆에서 허거든. 응 아들이. 아 시아버지는,

“아이구! 잘 한다. 좋은 거 배웠다. 아 잘 한다 한 번, 잘 한다 두 번, 잘 한다 세 번, 잘 한다 네 번.”

또 시어머니는,

“아구! 너덜 잘 배웠구나! 잘 자꾸나.”

(일동 웃음)염병, 여기루 부뚜막으로다 하얗게 뿌렸어. 막 좋아가지구. [청중 : 수제비 쭈다가. 수제비 쭈다가.] 영.

“잘 한다. 잘 한다. 잘 한다. 잘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아버지는,

“잘 한다 두 번, 잘 한다 시 번, 잘 한다 네 번, 잘 한다 다섯 번.”

그러더래요. 안 해, 인자 그 넣어려.(일동 웃음) 아이구 이자 그만 하, 힘들어 죽것네.

16 새알심을 떠 먹은 팔죽

이병순(70대, 여) / 유윤리T 3뒤

[유윤리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힘들어 못하겠다고 하자, 제보자가 이야기판에 끼어 들었다. 이 이야기는 앞의 것과 비슷한 음담패설의 일종이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 아주 여자헌티 안 가서, 몰라서, 어려서. 팔 죽을 쑤어 먹었다야. 그런디 어떤 이가. [청중 : 아이구! 그만 혀. 말 같지 않은디 군소리 듣거네, 인자.] 아이구 그런 얘기를 해 달래요. 그 구녕 넣으면, 넣는게 속 들어갔다야.

“아이구! 이거 봐라. 이거 좋은 것인가 봐라. 오지게.”

옛날에 친치가 장갈 들었는데 얘기를 낳대요. 얘기를 낳는데 영감이 그 얘기를 낳는 걸, 그걸 보고서 그 방엘 안 들어가더라. 그 색시방에 틀. 얘기 낳는 걸 보고서.

“그래, 왜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는.

“거기 빠지면 죽지 않냐구. 빠지면 죽지 않냐구. 그 애가 나온 그 자리 들어가 빠지면 죽는다.”

구. 인자 그러니까는, 그러구선 영 안 들어가니까, 이웃집 노인네가 그 얘기 엄마더러 그랬데.

“오늘 저녁 팔죽 쑤워가지구, 웅심이(새알심)를 해 놓아가지고 나를 부르라.”

구. 그걸 꿰여가지구 응 그래서 인저 부르니까. 그 할머니가,

“신랑하고 겸상을 해 달라.”

고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겸상을, 팔을 쑤워가지고 겸상을 이렇게 해주니까는 노인네가 팔죽을 떠 잡수시면서, 웅심을 이렇게 떠 잡수면서,

“아유! 그 저기 웅심이 뜬 자리가 얘기난 보지 오므라드는 듯 하는 구나!”

그랬다. 그래니까는,

“아구, 그게 오므라 드냐?”

구 그러니까.

“아, 그렇다구. 오므라 든다.”

구. 그러니까는 그날 저녁 때부터 들어가 잤데는 거여.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천치니까는. ‘애기난 구녁에 빠져 죽는다’구 애 하나 낳구는 못 들어가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는 이웃 할머니가 또 붙여준 거야. 또 그렇게 웅심을 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허니까.

“아, 그러냐!”

구. 그래면서 그날 저녁부터 들어가 잤데는 거 아니여. 에이 아들이. [조사자 : 재미 있어요.](일동 웃음)

17 갈보지 두 말 봄보지 두 말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뒤

[유운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의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앞 이야기와 구별을 하지 않고 연속하여 구술하였다.

① 반병어리의 첫날밤

인저 딸이 3형제데, 큰딸은 아주 참 잘 나구 그냥 참 저기 하는데, 일두 잘 허구. 시집가서 시집살이도 잘 해구 사는데. 둘째 딸두 시집가서 그렇게 잘 허구 사는데. 셋째 딸이 병어리야.

병어린데 시집을 인자 시집을 갔는데, 첫날밤을 치루는데 인자 시집가서 첫날밤을 치루는데, 장모두 병어리, 딸도 병어리, 사위도 병어리. 인저 병어리가 병어리끼리 인저 결혼을 헨거라.

그러니까는 인저 그 첫날밤을 치루는데, 인저 문구녕을 저기 뚫고 들여다 보는게,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 봐요. [청중 : 그래서 들여다 받거여.] 그래 그렇게 문구녕으로 뚫고 들여다 보니까는, 저 그 엄마

가 저 다 얘기를 해 줘어도. 병어리는 다 통하는 거 통하는게 있잖여.

그러니깐 인자 첫날밤에 색시옷을 벗끼구. 인저 그렇게 데리구 자는 거 그걸 다 가르쳐 줘다구. 그러니까는 인자 옷을 다 벗끼고서 이렇게, 이렇게 뉘니까는, 색시를 이렇게 뉘으니까는 저기 바깥에서 엄마가 들려다 보고서,

“부꺼! 부꺼! 부꺼! 부꺼!”

그러니까는. 인저 ‘부꺼, 부꺼, 부꺼,’는 불 끄라구. 인저 반병어리니까는 인자. ‘부꺼. 부꺼. 부꺼.’ 그러니깐. 저 그 딸이 허는 소리가, “세시 다 반벼.”

이러드랴. 셋이 다 반병어리다 이거여.(일동 웃음) ‘부꺼 부꺼 부꺼’ 하니까는, [청중 : 세시 다 반병어리까는.] 응. 그러니깐 엄마도 병어리, 사위도 병어리, 딸도 병어리.

② 둘째 딸의 시집살이

그런데 둘째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냥 어려워. 어려워서 인저 먹을 게 없구, 이런 옷이, 그냥 옷을 한 번 해 입으면 그냥 떨어질 때까지 입는거야. 그전에 그 광목치마 저고리를. 떨어질 때까지 입는 것인데 옷두 읊구 먹을 양식두 읊구. 시집을 갔는데.

그러니까는 친정에다 편지를 했데우. 뭐라구 편지를 했느냐며는. 그 게 글을 잘못 쓰며는 그게 망신을 허는 거 아니여. 그래 저기 그 딸이 편지 쓰기를,

“아버지! 갈보지 두 말, 봄보지 두 말. 앓으면 박, 스면 박.”

그게 무슨 뜻이냐며는, 봄 보리 두 말, 가을 보리 두 말 보내 달라구, 먹구 살게. 그리고 인자 ‘앓으면 박, 스면 박’은 인저 이 민영(무명) 치마 저고리가 해 입은게, 아주 그냥 떨어지도록 입으니까 앓져두, 삭였으니까 이게 그냥 늙었으니까, 앓으면 폭 찢겨지구 스면 폭 찢겨지니까, ‘갈보지 두 말 봄보지 두 말. 앓으면 박, 스면 박.’ 그렇게 써

서 편질 보내서.

옛날 노인네들이 옛날에 이 핵교들을 못댕긴 노인네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노인네들도 핵교 못 댕졌어요. 근데 그런 뜻이로 해서 ‘기집애 공부 가르키며는 시집살이 심하다’ 구 편지해구, ‘못 살겠다’ 구 편지해구 기래기 때문에 핵교도 안가르켰데는 거여. 그렇게 미련한 거여, 옛날 노인네들이. 그렇게 미련했다구 옛날에.

그러니까 그 글이, 글을 잘못 써서, ‘가을 보리 두 말, 봄 보리 두 말’이 ‘갈보지 두 말, 봄보지 두 말’이 되구. 인자 옷을 입어서, 이게 한 번 해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입으니까, 읊으니까 ‘얕으면 북, 스면 북’ 그냥 찌져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게 살었다구, 그냥 사는게.

18 썩개떡 하나만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앞의 것과 구분없이 계속하여 구술한 것이다. 이는 아마 미련한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 스스로 생각해 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의 끝부분이 탈락된 변형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옛날에 또 사는데, 개떡장사를 해먹고 살았어. 개떡장사를. 썩개떡 그걸.

인저 썩개떡 장사를 해먹고 사는데, 그 썩개떡을 이고선 고개 넘어를 가서 팔구 오구 팔구 오구 그랬다구. 그러니까 인저 애덜만 집에다 두고는, 썩개떡을 해다 팔아서 인자 벌어다 믹, 믹여 살리는건데.

아 한 번은 인저 고개 너머를 넘어오는데, 호랭이가 쫓어오지 뭐여. 호랭이가 쫓어오면서 저기 잡아먹을라고 그래까능.

“아유! 이렇게 집이다 애들을 두구 내가 이거를 해서 벌어먹고 사는

데, 날 잡아 먹으면 우리 애들이 직(다) 굶어 죽는다.”니까는.

“썩개떡 하나 주며는 안 잡아 먹지.”

그러더랴. 그래서 인저 개떡을 하나 줬대. 그러니까는 그거 먹고 나서 또 잡아 먹을라고.

“아이구! 나를 잡아 먹으면은 우리 아들, 애들이 어떻게 사느냐?”
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러더래. 아 인저 그래서 그 개떡을 하나씩 하나씩 주다 보니까는 인저 그냥 다 줬지 뭐여. 그러니까 인저 집을 왔는데, 호랭이가 그 집 문 앞에 가서, 옛날에 호랭이도 말을 했대오. 그러니까,

“아가! 아가! 문 열어라.”

그러니까는. 저기 이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지 엄마 목소리가 아니거덩. 그러니까는.

“아가! 아가! 문 열어.”

그러니까는 인저,

“엄마 목소리가 아니라.”

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저기 문 열어 주며는 내가 들어가서 저기 한다.”

구. 그러니까는 인저,

“그러면 손을 디밀어 보라구. 엄마 손을 내가 아니까, 엄마 손을 디밀어 보라.”

구. 그러니까는 호랭이 손을 썩 디밀으니까는 인저 다를 꺼 아니여. 그서,

“왜, 엄마 손이 이렇게 생겼느냐?”

고 그러니까는.

“개떡 맨드느냐구. 그게 묻어서 그렇다.”

구. 옛날에 호랭이가 그렇게 말을 했데우, 그렇게. 그래서 그 엄마가 개떡 장사를 해서, 개떡은 호랭이한테 다 빼기구. 호랭이가 집이까지 쫓겨와가지구 그렇게 성가시게 굴었는데. 옛날에. 그래서 이냥 애덜만 집이다 뵈

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해구선 또 넘어갔다구.

19 미련한 영감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앞 이야기와 구분없이 계속하여 구술한 것인데, 아마도 호랑이와 미련한 사람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다.

가을이 됐단 말이여 인저. 가을이 되가지구 김장을 했는데, 무를 바깥에서, 마누라는 무를 다듬는 거여. 김장을 헬라구. 인저 달밤에 인저 앉여서 무를 다듬으니까, 호랭이 불이 이냥 환하게 이렇게 비치거든.

태양같이 환하게 비치는데, (오토바이 소리로 잘 들리 않음) 영감님은 방에 앉아서 인저 애덜을 데리구 방에 있는데, 호랭이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는 아 이 마누라가 그냥 무서워 죽것잖어. 이저 불이 비치니까는 문을 잡아 당기니까는, 영감님이 안에서 문고리를 잡아 당기더라.

“아 그래, 당신만 살겨냐?”

고. 그냥 문을 그냥 확 잡아당기구는 인자 들어가니까는, 바깥에는 마누라는 호랭이가 잡아가도록 글썽 문을 그냥 안에서 영감이 잡아당기구 안 열어 주더래요.

옛날엔 그렇게 미련했다고. 아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미련헌 세상을 살은 거여.

20 동네 제사를 안 여인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는 옛날에 어려운 살림살이와 무식하게 살았다는 일상적인 일화에 대해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조사자가 제사에 관한 물자, 청중이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청중 : 제사밥 좀, 그 얘기 좀 해 달라고 해요?] 그래 옛날에 그래 이냥, 아주 노인네 한 분이 이냥 동네 지사, 생일 뭐 이걸 그냥 아주 다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야, 얻어 잡술라고. 그래 그냥 머리속에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자 한날은 그냥,

“저기 저 놈에 늙은이 골려야겠다.”

그러고 한 집에서 그냥 밤새도록 불을 켜 놔데는구먼. 그랬더니,

“저 집이 오늘 지삿날도 아닌데, 저렇게 밤새도록 불을 켜 놔으니 저 이상해다.”

이놈의 늙은이가 밤새도록 지삿밥 가져올 때를 기다리다 못 잡순 거 아니여. 그래 그여(결국) 궁금해가지고 그 이튿날 가서,

“여보게! 자네네 왜 엿저녁에 불을 켜 놔나?”

그래니까.

“아이, 엿저녁에 개가 새끼를 낳어요.”

“아 그럼 그렇지. 지삿날은 아닌데 우짤지 밤새도록 불을 켜 놔어.”

아 인저 그랬는데, 한 집이는 지사를 지내고는 지삿밥을 가지고 가니까는, 옛날에는 이우제(이웃) 노인네들 계시면 지사 지내고서 밥을 갖다 대접했다구. 그전엔 어려우니까. 지금은 누가 갖다 주는 것두 귀찮잖어, 자다가.

그래 옛날에 인자 지사를 지내구 지삿밥을 가지구 가니까는, 그 시(세)모시 치마적삼이 그 좀 환하게 잘 보여. 그러니까 인저 그놈의 자다가는 지삿밥을 별안간에 이구 와서,

“지삿밥 가져왔다.”

니까는. 지금 마냥 전기불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등잔불 켜 놔어두 그냥,

아이 이 자던 여자가 그냥 급해니까는 그냥 모시 헛치마를 입고 나오니까는 다 들여다 보이지 뭐여. 아 이 저 지삿밥 가지고 간 사람이 그냥 우서 죽겠지 뭐여. 아 밥을 가지고 갔는데. 지삿밥을 가지고 갔는데 그냥 급해니까 속옷도 못 입고 그냥, 훗치마에다 모시치마 이것 곁에 둘루구 나오구. 불빛에 비치니 죄 들여다 보이지.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우, 옛날에는. [청중 : 빨가벗고 살았다고.]

㉑ 시집 장가 못간 처녀 총각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 할머니들이 옛날과 현재의 생활을 비교하는 대화로 이어졌다. 이때 조사자는 영근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계속 졸랐다. 그러자 제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주변의 권유로 구술하였다.

이웃집 새악시가 시집을 못가는 거여. 그냥 아주 그냥 시집을 못가니까는, 또 이웃집 총각이 장가를 못가는 거여. 그러니까,

“너는 이를 안 닦아서 장가를 못 든다.”

그러니까는. 또 그 저 색시집이지. 색시 엄마는,

“너는 팔뚝에 때를 안 닦아서 시집을 못 간다.”

이웃집 총각을 이렇게 쳐다보구.

“저기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러구 팔뚝을 보이니까는, 신랑은 이히이히(할머니께서 이를 보이시며 총각을 흉내냄.) (일동 웃음)

22 사나운 아내 길들이기

? (? , 여) / 유윤리 3권

[유윤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같은 우스개 소리라 생각이 났는지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 옛날에, [청중 : 여봐 그러니까 누가 사건을 걸어야 나온다니까.] 하두 이웃지 색시가 억척스러워서 누가 딜여가질 않거든. 색시가 억척스러워서 누가 데려가지 않아. 하튼 이웃 총각이,

“엄니, 엄니! 아무개 허구 나 좀 중신, 결혼해 달라.”니게론.

“아휴! 그걸 데려다 뭐 혀. 억척스러워서 워떻게 그거 데려가니?”

그렇게로.

“걱정 말구 중신만 해서 짝만 맞춰 달라.”

구 그러더라. 그래서 인저 이웃이 이우진디, 그냥 시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데려다가,

“깍진 걸, 어떻게 그걸 데리고 사나!”

한탄도 했는디, 그 아들이 자꾸 장가들여 달라는디 어떻게 해. 그래 장가를 들었수. 들었는데, [청중 : 장가를 들었군.] 응 들었어.

응 인저 옛날에 원삼 쪽두리 쓰고, 인자 일자로 된 고쟁이 입었는데, 근데 인저 신랑이 왕창 벗고는 그냥, 인저 색시 곤히 자는 자리야 그냥 준거니 가 똥을 썼다우. 고쟁이에 넣어 놓았다고. 넣어 똥똥 똥똥서 넣더니, 인저 아침이 새벽이 가서 인자 시어미 시아빠 단배해야 할 꺼 아니우, 자리 피구. 자리는 절을 하는디 똥이, 넣어. [청중 : 옛날에는 주무실 때 절허구, 아침으로 절 했다우.] 응.

“여보! 여보게! 일어나우 당신 일어나우. 어른들 있음게 가서 인사해야 할 꺼 아니유?”

그렇게로. 아 똥이 똑 떨어지거던.

“아이구 구려. 어쩐 일이여. 아이구 구려! 아이구 구려! 어쩐 여보, 당신이 알구 내나 알지, 통 소문 안 낼게. 당신이 고됐구려 그러. 아침이 쪽두리 엷고 찌고 고돼서, 그래서 똥을 싹 줄 몰랐구랴.”

아 그런데 똥이 똑 떨어진게로, ‘당신이 알구 내나 알까. 그걸 식전에 갖다 내가 슬쩍 감출게 아무 걱정 말라’ 구 그러드라. 그래 그냥 서방이 신랑이 그러니까는 꿈쩍 못했잖아. 그 벌추를 감춘 이후로는? [조사자 : 그렇죠.] 응.

그래서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시늉. 똥 얘기 할까 봐서. 똥 싸서. [청중 : 똥 얘기 할까 봐서?] 에. 죽는 시늉을 해갖고서 신랑 허자는대로 허는 거여. 죽으라면 죽는 시늉허구 그냥. 또 그게 무서워서, 시집살이를 하니계론 옛날에는 쫓겨 가유, 그러며는. 아 그래 인저 환갑들어 왔단 말이여. 응.

“여보게! 내가 당신이 아주 꺾져서 내가 아주 그냥 그런 수단을 꾸며가지고 그렇 썬우.”

그러니까는.

“요놈 보라.”

구. 그러구 상투를 쓱 뽑어 놓더라구. 상투를 쓱 뽑아 놓더라오. (일동 웃음) [조사자 : 신랑 상투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시집살이 허구 말 한 마디 못했느냐?”

구. [청중 : 앵.] 응. 그런 얘기도 있우. 그냥 상투를 쓱 뽑더라구.

“요놈에 늙은이! 내가 누구 때문에 시집살이허구 말 한 마디 못했느냐?”

구.(일동 웃음) 그러더랴오. [청중 : 옛날에 그렇게 미련했어.]

㉓ 시어머니를 길들인 며느리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취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듣는 중에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나운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를 못견디고 며느리들이 쫓겨나는 집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고쳐 살았다는 한 며느리 이야기이다.

옛날에 한 사람이, 옛날 얘기 자꾸해 줘야지. 옛날에 한 사람이 시집을 참 갈라고 그러는데, 이냥 그집이 메누리가 얻었다 하면 쫓겨나는 집이여. 시어머니가 하두 억세가지구. 아 그런데 이웃집 새악신데,
“나, 저 집으로 시집을 보내 달라.”

구. 그 친정 어머니더러.

“나, 저 집이 가서 꼭 시집살이허구 살아야겠다.”

구 그러니까는. 친정 어머니가 허는 소리가,

“야, 이년아! 그 집이 메누리 은었다 하면 쫓겨나는 집인데, 너 어떻게 가서 부지허구 살을라구 그리루 시집을 가냐?”

그래니까는.

“아 걱정하지 말구 시집을 보내 달라.”

구. 아 이저 시집을, 그 집으로 보냈다구.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밥은 며느리를 시켜서 하는데, 지누니콩 그 콩나물 기르는 지누니콩을 밥에다 뒤서 하는데, 가만히 새색씨가 보니까, 밥을 푸는 걸 보니까는 지기 식구 들 밥은 다 참 쌀밥으로다 이렇게 해서 푸고, 지누니콩만 그냥 딱지닥지 그냥 메느리 밥을 푸구푸구 그러더랴. 한 두서너 끼 그러더랴. 그래서,

“아 요놈오 늙은이! 버릇을 가르쳐 줘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고는 인저 고 다음날 또 밥을 했는디, 또 여전히 자기네 밥을 다 푸고 며느리 밥은 찌꺼기루다가 그 지누니콩만 밥을 퍼 주더랴. 그래서 그중 시어머니 떡살을 대짝 울며 들면서,

“요놈오 늙은이! 지금도 고 버릇을 고냥 허느냐?”

고. 그냥 그냥 부엌바닥에다 그냥 붕(?)가심을 그냥 짓찌 논겨여, 메쳐가 지구. [칭중 : 메느리가 인자?] 메느리가. 새색시가. 그래니까는 그냥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자빠져가지구,

“이 저 새 메누리년이 시애미 친다.”

구. 그냥 악을, 악을 쓰구 소릴 질르거던. 그래니까는 시아버지도 방에 있다가는,

“하휴! 저거 또 사홀도 안 돼서 며느리 잡는군!”

또 인저 그래지. 또 인저 집안 식구가 다 그래는 거지 뭐여, 응. ‘며느리 얻은 지 사홀두 안 되서 잡는 거라’ 구. 아이 저 그래 꼼짝없이 시애미가 당헌거라. 아 새 메누리가 뭐 설마 떡살 견어들어서 패기 쳤으리니 생각을 안 허는거지.

아 가만히 보니깐 밥을 꼭 고통게 푸거던. 그냥 쌀밥은 저희 식구꺼 다 싹 푸구는, 며느리 끼는 그냥 지누니콩만, 콩나물 콩 안친 거 몽양 고통 퍼주는 거야. [청중 : 고통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청중2 : 그 옛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많았데.] [청중3 : 미련혀. 미련해서 그랴.]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 요놈오 늙은이! 옛날에 그래서 메느리 다 내쫓았다.”

구. 그 말이어. 그냥 떡살을 견어들어서 부엌바닥에다 패겨치구 몇 번 밟어노니까는,

“이 이년이! 새며느리 년이! 사람, 시애미 쳐서 죽인다.”

구. 악을 악을 쓰니까는,

“아구, 또 사람 잡는다.”

구. 식구가 내다보지도 안더랴. 그래니 뭐 할 수 있어, 당했지. 메누리한테. 그래서 인저, 그냥 메누리가 인저 식구들이 나오니까 훌쩍훌쩍 울구 썼거던.

“그래 아가! 아가! 왜 그래니?”

시아버지가 그래니깐.

“그저 그냥 어머니가 저렇게 그냥, 그냥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 저랬으니 어떻게 허면 좋냐구. 이 집도 못 살구 가겠다.”

구. 그냥 훌쩍훌쩍 우니까는,

“아니다. 그 워낙 저렇게 저런 승질인 줄 우리 식구가 다 아니까는 그냥 아무 걱정 해지 마라.”

그래니까는 아 메누리한테 칭찬을 해구, 그냥 워낙 저런 사람이라고 그래거던. 그래니까는 아 저 그러구 친구들이 들어갔다고. 메누리 달래 놓고 인저 들어 잤었어.

“요년! 요 앙큼스러운 년아! 영 나를 그렇게 놓고서, 나를 그렇게 못된 구덩이다가 빠쳤냐?”

구. 그래더니 광 열쇠를 내주더래요. 옛날엔 이렇게 광에다가 쌀 항아리 이런 거 두고서 이렇게 장거 놓구선 그걸 먹었거든. 그러니깐 그 광 열쇠를, 며느리를 열쇠 끄래미를 주면서,

“이건 쌀 항아리구, 이건 콩 항아리구, 이건 팥 항아리구.”

뭐 이진, 이진 죄 가르쳐 주면서,

“요년! 요 앙큼시런 년아! 요년아! 나를 이렇게 못된 구덩이다가 빠쳤느냐?”

구. 꼼짝 못허구 살드라, 시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많했대, 시어머니가. [청중 : 말두 마. 말두 마. 옛날에 막 패여, 며느리를.] 새 메누리가 사람 쳤으리라고 생각허졌어.

“아 새 메누리가 사람 쳤다구. 나 죽는다.”

구. 악을 악을 쓰니깐.

“저, 사람 또 잡는구나!”

시아버지가 아 인저 식구들이 그랬대.(청중의 일부가 돌아감)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꺾구선 살았다는 거 아니여. 그러니 사람이 의견 있구 약어야지. 그래 그 시어머니(를) 이겼다는 거 아니여. 그래가지구 그냥 광 열쇠를 그냥 뺏겼다는 거 아니여.

옛날엔 그런게 많했대, 노인네들이. 옛날에 그냥 바느질을 해머는 잘못 한다고 그냥 인두루 지지가면서, 그냥 ‘너희 집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라’고 못 쓰게 하였다. [조사자 : 아아 설마.] [청중들 : 그럼.]

24 외아들의 버릇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 이야기를 마치고, 앞에서와 같이 남자들에게 속박 당하고 사는 것이 여자들의 미련할 때문이란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옛날에 일반적으로 행하였던 설화라기보다는 민속에 해당하는 실화일 것 같다.

그러면 인자 외아들인데, 아들은 이런 알뜰배기라고 지금 색시들은 잘 모를 꺼여. 요만한 뜯배기라. 알뜰배기라구 요고만헌 게 있어.

고기다가 아들은 밥을 해 주구. 메느리 허구 인저 시어머니 허구는 우거지 쓰른 죽을 썬서 먹구. 그래 뒤 아들이 밥만 먹구 살아 버릇해서 제 입만 아는 거여. 제 입만, 신랑이. 그래 인저 색시가 그 밥이 얼마나 먹고 싶것어. [청중 : 아!]

그러게 옛날에는 그렇게 미련허구, 사람이 그렇게 며느리를 들볶구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래 우리네 시대, 지금은 옛날같지 않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것어.

25 여상주 노릇한 삼 장수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이야기판을 떠나겠다던 제보자는 1~2편의 노래를 마치고,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것 좀 보오. 삼장수가 둘인데, 삼장사 돌아댕기면선 삼장사 하는 데, 하루는 삼을 팔구서는 이집 가서, '재와 달래' 두 안재워 주고. 저

집 가서 ‘재워 달래’ 두. 어느 집 가서는,

“아이구! 우리 삼장산데 어디 가서 잘 수 있으면, 안 재워 주니 어
투게 허면 좋겠느냐?” 구 그러.

“우리는 우리 아버님 혼처(혼자) 홀아버님데, 그 밖이는 읍고 방이
그러니, 그러니 그 방에서 잘라면 자라.” 구.

“그럼, 옷목에서 자구 가지요.”

그랬거든.(웃음) [칭중 : 잘 때가 없으니까 홀애비 방에 가 잤지.]
응. 잤거든. 한참 있으니까 이놈의 영감이 그냥, 그때 요 위애가 여편
네 둘이 자닝계론, 여가 이렇게 남지시 일어나는 거여. 그래더니 실며
시 올라와.

“요놈의 늙은이가 무슨 행동을 허냐?”

구. 발로 뽀씩 차니께 벌렁 자빠져.

“요놈에 영감! 망할 짓 같으니라.”

구. 덜커덕 넘어, 허니께 넘어지거덩. 그런게 그러니 이 노인네가 성이 나
서 죽었던 말이여. 그러니 이 두 마누라가 아들더러, [칭중 : 옛날에 볼
사람 못 보면 죽어.]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겐,

“당신때메 돌아가셨으니겐, 당신들이 보고, 당신들은 이 장사 다 지
내구 가라.”

구. 악담을 쓰며 쇠대(열쇠)를 씌우고 장옷을 입히구. 그러구 ‘곡을 허라’
구, 그 아들이.

“당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께, 당신 때문에 그런게, 어서 곡
허라.”

구. 옷을 죄 다 입히구, 상옷을 여기 다 길게 입히거든. 한 년은

“아이구! 아이구!” 그런게,

“아유 별꼴이여. 그런게 말이여. 그런게 말이여”

그런게 말이여.(일동 웃음)

“아이구, 아이구! 별꼴이여! 별꼴이여!”

“그런게 말이여! 그런게 말이여!”

그러더라구. 그러구선 삼모를 쓰구, 삼오(삼우)까지 보고는, 다 허구는 그 삼 다 사구, 노자까정 그런 보내드랴. 보내구선,

“명일 지사 지내러, 어디냐?”

구. 주소까지 물었어.

“내가 꼭 올테니까. 안식구랑.”

확을 따른 재미로, 아들 있응께, 그래 집이라는 것을 어땡고, 그렇게 똥이 빠지게 도망가구. 삼 사서, 다 샀지. 삼 다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병순 : 삼 팔러 갔다가 장사 지내구 간겨여. 그계 일어나 가지구 죽어서. 금계 그 여, 그 여자 둘이 자니까는 훌애비가 그냥 환장을 허지 뒤여. 근데 그냥 여자들이 안 받아주니까는 그냥, 그계 숙원이 일어나가지구 죽는다구. 그러니까 인자 아들들이 장사를, 당신 때문에 죽었으니까 지내구 가라 그거지. 그래가지구 그렇게 그랬단 소리여.]

26 구렁덩덩 신선비(변형)

이춘옥(73, 여) / 유운리T 4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노래를 마치고 영근 할머니가 돌아가자, 옆에서 이야기만 듣고 계시던 제보자가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이야기판으로 끼어들었다. 이 이야기는 앞부분이 구렁덩덩신선비로 시작하여 끝부분이 콩쥐팥쥐로 끝을 맺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할께. [청중 : 대리 하나 보지. 영근 할머니 가니까.](일동 웃음) 옛날에, 옛날에 딸 오 형제를 두었어요. 부잣집이서. 딸 오 형제를 두었는데, 인저 만딸 보구,

“구렁덩덩 선비한테루 너 시집 갈래.”

그러니까.

“아이구! 누가 구렁이한테 가느냐구. 안 간다.”

구 그러거든. 둘째 딸 보구 또 불려서,

“너 구렁덩덩 선비한테 시집 갈래?”

그러니까.

“아이구! 내가 구렁이한테 왜 가냐?”

구 그러거든. 원 또 역시 그래. 또 셋째 딸 보구도 또 역시 그랬어.

“구렁이한테 시집 갈래?”

그러니까. 안 간대는 거여. 그러구 니째 딸 불려서,

“구렁덩덩 선비한테 시집 갈래.”

그러니까. [청중 : 구렁덩덩이 뭐여?] 구렁이. 구렁이.

“안 간다.”

고. 또 날뛰거든. 인제 막내 딸 또 불렀어. 인제 막내 딸, 다섯째 딸.

“너 구렁덩덩 선비한테 시집 갈래.”

“간다.”

구 그러거든. 그건 간데, 막내 딸요. 그래 갔어. 구렁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인자 결혼을 했어, 구렁이하고. 구렁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해구 인자 첫날밤을 잘려구 들어가서 재주를 훌떡훌떡 세 번을 넘거든. 그래니까, [청중 : 구렁이가?] 구렁이가.

아유 참 아주 선비도, 선비도 그런 선비가 어땀어요. [청중 : 옛날 이는 그랬디야.] 영. 참 이쁘게 잘 나서 잘 디야. 그래서 잘 나서 아주 이렇게 임금돈양, 임금 노릇을 해구 살거든, 그러니 구렁이가.

그러니까 인제 언니들이 샘이 나서 그냥, ‘어뜨게 저 놈의 걸 죽이나’ 하고, 그냥 이제 마음을 주고 있는 거야. 동생을 직일라구. 지가 갈라구. 그 구렁이한테 시집을 지가 갈라구. 인제 한날은, 인제 가서 언니,

“저 연못가에로 눌러잡수다.”

그러드랴. 그러니까 인제 종, 언니들이 와서 ‘가자’니까 쫓아갔어요, 연못을. 그래 연못에 덜컥 지재버려 죽였어요, 그 동생을. [청중 : 그 다시 살아날 수 있을텐데.] 그래가지구 직였는데, 그게 인제 그 연

꽃으로 이렇게 태어났어. 또 도로 연꽃으로 살어 나온거지. 살어 나왔는데, 그걸 인저 꺾어, 그러구 형년이 그 동생 념편허구 가 사는거야. 그 어떻게 그냥 아주 저 태근이야. [청중 : 죽은, 죽은 줄 알구.] 응. 안 죽은 걸 죽은 것처럼.

지가 가서 저 색시 노릇을 해는 거여. 그 그랬는데, 저 그 연꽃을 피어서 아주 이뻐서, 연꽃이 이뻐서 인저 꺾어다가 이렇게 방문 있는데 이렇게 폼아 났어요. 그 연꽃을 폼아 났는더니, 그런게 형년이 인제 그 걸 베(보)기 싫어서 갖다가 아궁이에다 쳐 넣거던, 꽃을 또.

꽃을 쳐 넣는데, 인제 구슬이 됐어요. 구슬이 됐어, 그 탔으니까. 그 언니가, 또 인저 구슬이 돼서 이렇게 파랗게 이쁘게 구슬이 돼서. 그랬는데 인저 부엌이 설강 밑에 가 있다가, 그저 밥상을 차려서 인저 신랑을 여전히 차려다 놓거든, 이렇게.

그런게 인저 다 나가서 저가락을 바꿔 났어. 그래서 인저,

“하 이상도 해라. 왜 젓가락이 자꾸 바뀌나?”

인제 신랑이 끄러고 있는디, [청중1 : 영혼이, 영혼이 그런 거여.] 응. 신랑이 자꾸, 젓가락이 바뀌어졌거든. 그래서. ‘이상해다’ 그러니께.

“지집 바뀐진 모르구, 젓갈 바뀐 지는 아나?”

또 그래거든. 여전히 그런 소리가 들려. 이 저 신랑 귀에. 그 그계 또 그저 원안(원한)이 되서, 구슬이 되가지구 거기서 또 태어나가지구 된거여, 그계. 옛날에 그랬다구, 딸 딸 오 형제가, [청중2 : 형제간에 혈육이 틀리지만.] 그래 그렇게, [청중 : 샘이 나서.] 응. 샘이 나서.

[청중1 : 샘이 나서 콩쥐팍팍도 그렇잖아요.] 콩쥐팍팍 모양. 인자 그렇게 생긴거여. 구렁이가 돼가지고. 아이구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27 콩쥐팍쥐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4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자 그 끝부분이 콩쥐팥쥐와 같다는 점에서 생각이 났는지, 제보자는 곧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콩쥐팥쥐두 그렇게, 그냥 스모가 그렇게 그냥 즈이딸 임금한테 시집 보낼라구 작전을 쓴 거 아니여. [청중 : 그래.] 그냥 콩쥐는 인물이 이쁘구, 팥쥐는 스모에 딸인데 그냥 파팍 얹것데. 얼굴이 그냥 새까맣고 서 얹것는데, 인저 나라에서 그냥 그저,

“그 임금님 색시 자리를 뽑는다.”

하구 소문이 나니깐 자기딸을 보낼라구. 그러니까 인저 콩쥐더러는 즈그 그저 그 의붓어머니가 그러는 거지

“밀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하나 채우고 와라. 너는 거기 참석할래 머는.”

그니 밀빠진 항아리가 물이 차것수. 밀이 깨진 항아리가. 그러니까는 ‘엉엉’ 물을 퍼다 붓다가는 울고 앓어 있으니까는, 두꺼비가 엉금 엉금 기어오더니,

“아가! 아가! 너, 왜 우니?”

옛날엔 그렇게 짐승들이 얘기 말을 했데유. 그래서, ‘아가, 아가, 너 왜 우니.’ 그러니까는

“아이구! 저기 잔치에 가야 헐텐데. 이렇게 그냥 우리 엄마가 물을 이 항아리에다가 채우고 오렸는데, 이렇게 물이 자꾸 새니 어떻게 허면 좋으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 옆드릴 테니까 물을 퍼담어 부라.”

구. 그래서 이저 물을 하나 퍼다 붓구선 인저 그 잔치에 갔어요. 그 잔치에 갔는데, 콩쥐는 인물두 이쁘구 그냥 마음두 착해구. 팥쥐는 인물두 बे기싫게 생기고 마음이 또 안 좋구. 저 그 스모에 딸인데. 그랬는데 이저 거기서 임금님이 인저 색시더러 다 모아다 뵈는데,

“꽃중에 무슨 꽃이 좋은고?”

그래니까는. 나는 무슨 ‘진달래가 좋아요’ ‘개나리가 좋아요.’ 뭐.

‘국화가 좋아요.’ 뭐 또, ‘목단꽃이 좋아요’ 그냥 그 가지 각색이지 뭐. 아가씨들이 모인 데서. 그래니까는 콩쥐가 해는 소리가,

“아휴, 뭐 꽃 중에는 목화꽃이 제일 좋다.”

구. 그 숨 맨드는 그 목화꽃. 그래니까.

“아, 그래냐구. 그래서 이 아 저 색시를 그 옷을 입혀라.”

그랬어. 아 그래서 그 옷을 인저, 이 나라에서 나온 옷을 입히니깐, 아 얼마나 이뻐. 그냥 그냥 고 신발두 신키구 그냥 그러니까 이쁘지 뭐여. 그러니까 서모가 샘이 나잖어. 자기 딸은 밭게 생키구 거길 못 뽑혔으니까.

“아이 저년을 그냥 어뜨게든지 해서 고 신발을 뺏겨서, 옷을 뺏겨서 자기 딸을 입히구, 저 인저 신발을 뺏겨 신어.”

아 신발이 맞아야 신지. 발이 크고 적고 해니까 그래 맞것수. 아 그랬는데 나라에 이 저 들어갔는데, 그 콩쥐는,

“너는 저 이거 입구선 저리 비켜나구.”

팔쥐를 들여 보낼라구 했어. 아 이놈에 신발이 맞아야지. [청중 : 신발이 안 맞지.] 신발이 안 맞지. 아 인제 그래니까는 아 그만 빠꾸를 당했다구. 그래 인저 콩쥐가 그 임금님한테로 시집을 간겨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스모가 배가 아퍼가지구 그냥, 배가 아퍼가지구 그렇게 그냥 그 자기 딸을 그로 시집을 보낼라구 그냥 애를 쓰는데두 얼굴도 엷것지, 꺼멍지, 신발도 안 맞지, 옷도 안 맞지, 옷은 적지. 바꿔 입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콩쥐가 그렇게 서모손에 자랐어도, 그렇게 그냥 아주 좋은 임금 자리루다가 시집을 가서 왕비 노릇을 허다가 죽었데요. [청중 : 옛날엔 그랬잖어요.] 그런게 마음을 잘 써야지. 남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응 자기딸은 그냥 저기 허구, 내 딸만 그냥 좋게 헬라구 그랬잖어. 아이구 그래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마음이 나쁜 사람이 많었다구. [청중 : 시방이나 그때나 마음을 잘 써야지. 맘을 빼뚫면 그 죄를 금방 받어요.]

28 심청의 효도로 눈 뜬 심봉사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 4앞

[유운2리] 박중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마음을 올바르게 쓰면 복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그러게 심청이두 그러잖어. 심청이두 그냥. [청중 : 심청이는 뭐 효성이 여간 아니잖어.] 심청이는 참 효성이 지극해구 그냥. 아버지가, 앞 못 보는 아버지 맨날 모시구 살다가, 뽕덕 애미를 얻었잖어, 서모를. 그 책에도 다 나오지.

그래 그 뽕덕 애미를 얻어가지구 그냥 가게마다 외상을 지구 그냥. 어디든지 가서 외상을 지구 그냥. 진짜 ‘뽕덕애미 외상값 지듯 한다’구, 노인네들이 옛날에 그랬잖아. [조사자 : 아아 응.] 그랬는데 그 심봉사는 눈이 어두니까는, 그냥 해다 주는데루 먹기나 했지 외상값 있는지 뭐 있는지 뭘 알아. 아 그런데 딸이 그냥 효성 지극해 가지구,

“그 의백미 3백 석이며는 느 아버지 눈을 뜬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몸을 팔았잖어. 의백미 삼백 석 뱃사공한테 가서 의백미 삼백 석에, 인저 그 참 자기 몸을 팔아서 인저 아버지한테는 인저 얘기도 안헌거지 인저. 얘기 안해구 인저 가는 날 음식을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음식을 진수성찬 차려서 아버지를 대접을 극진히 허구. 참 절을 해구서 그냥 이렇게,

“불효! 불효! 저기 자기는 불효녀라구. 이렇게 아버지 그냥 오래오래 만수무강 해구 살으시라구. 눈 뜨구서 이 세상을 보구서 살으시라.”고. 그래구는 그냥 참 아버지한테다 이러구는, 뱃전에 가서 그냥 뱃사공 그 배를 타구서 가다가 그냥 앞치마를 이렇게 쓰구서는 물이다 턱 빠졌잖어. 빠지구서 구해 줬잖어. 구해 줬지. 그 참 심청이가 워낙이 마음이 착해구 그래가지구, 구해 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왕비 노릇을 하는데, 그냥

나라에서 인저 그 참 심청이를 그냥 그 왕비루다가 세웠잖어.

그랬는데 아 그냥 뭐야, 그 그지 잔치를 했어요. 그지 잔치를 해야 자기 아버지를 찾잖어. 그랬더니 그냥 심봉사가 진짜, 그 그냥 나라에 잔치하는데 찾아 갔다구. 찾아 가니까는 그냥 심청이가 다 살펴봐도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래더니 심봉사가 진짜 왔단 말이여.

“그래 귀밑에 때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다.”

구. 그 딸허구 그냥 부둥켜 안구 춤을 추구 좋아했잖어. [청중 : 그래 눈이 막 떨어져버리고.] 그래가지구 그냥 ‘심청이라’ 구 그러니까.

“아이구! 니가 청이냐?”

구. 그냥 눈이 딱 떨어졌다는 거 아니여.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며는, 자기한테도 복이 돌아가는 거여. 옛날에는 그랬다구.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어. 지금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는데두. 지금도 효자상 타는 사람두 많구. TV에 나오는 것 보면 그렇게 잘 해는 사람두 많구, 잘못 해는 사람두 많구 그러더라구.

㉨ 바둑돌을 때린 며느리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4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TV에서 나온 효자상을 탄 사람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여 주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방귀를 못 뀌어 고생한 며느리’에 대해 묻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시집살이에 대한 것으로 병어리, 소경, 귀머거리 각 삼년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중간 부분에 삽입된 방구 잘 뀌 며느리 이야기를 뒤에 독립시켰다.

[조사자 : 며느리가 방구 못 뀌서 병 걸린 얘기도 있잖아요?] 응.

옛날에 시집을 가는데 시어머니가 병어리 돼서 삼 년, 눈 어둡서 삼

년, 이렇게 귀 먹어서 삼 년, 이렇게 석 삼 년을 살으리구 했데요. 그랬더니,

“차라리 그럼 말을 해지 말리구 했다?”

근데 시집을 가는데, 이렇게 넷물께로 시집을 이렇게 건너가게 됐는데, 요만한 비독들 하나를 시어머니가, 아니 저 친정 어머니가 딸을 주면서,

“이 돌맹이가 말을 허거던 니가 말을 해야지, 이 돌맹이 말 하기 전에 니가 말을 하면 그 시집을 못 산다.”

이저 그래니까는 그 딸이, 그저 옛날 새악시들은 그렇게 순종 했는데는 그 뜻이지. 그냥 통 말을 안해는 거야. 이 색시가 ‘얼굴이 누렇게 미나리 꽃이 피여야 된다’ 구 그랬데. 친정어머니가.

그러니까 삼 년, 삼 년, 삼 년, 석삼 년이니까 구 년 아니여. 그냥 그 돌맹이가 말할 때를 바라니 말을 해나. 신랑이 말을 시키니 말을 해나, 시어머니가 말을 시키니 말을 허나. 뭐 그냥 그 일만 열심히, 시상에 내 부릴게 없이 잘 해는 거야. 반찬두 잘 해구. 그냥 바느질두 잘 해구 그냥. 사람 해는 행동두 그렇게 잘 해구. 그러는데 이 색시가 말을 안 해니까는 병어린 줄 아는 거여. 그 집이서는. 그러니까는 시집에서는 하두 답답해니까.

“병어리허구 어떻게 사느냐. 니가 일생을. 그래니까는 꺼먹 소리(소름) 태워서 보내자.”

옛날에는 며누리 꺼먹 소 태워 보냈데요. 이렇게 돌려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 소릴 들은거여. 구 년째 되는 해지. 구 년째 되는데, 구 년을 말을 앓했으니 얼마나 죽것어. [칭중 : 말이 있잖어.] 석 삼 년을 말을 안 해구 살은 거야.

그랬더니 한날 저녁이는, 이저 내일 모레는 보낼 날인데, 날짜를 잡어서 인저 그냥 좋은 소까장 다 이렇게 얻어 났는데, 방에서 그냥 뭇 틱 때리구는 느껴가면서 울면서,

“너! 왜 말을 안 해느냐구. 니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말을 못 해잖느냐구. 엄마 말 너 해거든 말 해리구 했는데 왜 말을 안 해야냐?”

구. 자 막대기, 옛날엔 이 바느질 헐라면 자가 있었다구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자가 있었는데 그걸루 툭 때리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서, 내가 이 착한 시집을 못 살구 찌꺼가게 해느냐?”

구. 그렇게 사뭇 서럽게 울더라유. 그 메누리가. 아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어떻게 인저 그 소리를, 사람 소리가 나니까는 이렇게 문구녕으로 들여다 봤데. 뭘 뭘 짓을 해나 허구. 보니까는 그냥 요만한 바둑돌을 그 자 막대기로 툭 때리며는 필떡 뛰어가며는,

“너 뛰어가며는 안 때릴 줄 아냐구. 어서 말해라.”

구. 그냥 바둑돌을 툭 때리며는, 툭 뛰어가며는, ‘너 뛰어가며는 안 맞을 줄 아냐’ 구. 이래구는 그냥 바둑돌을 가지구 그냥 느껴가면서 울드라. ‘이렇게 착한 시집을 못살구 내가 찌꺼가게 됐다’ 구. 아 그러니까는 인저 그냥 신랑이 그냥 얼마나 반가워. 그냥 그 말을 해는 사람을 병어린 줄 알구 쫓어 보낼리구 그랬으니. 그래서 그냥 어머니를 가서 손목 끌구 와서,
“이것 좀 보시라.”

구. 그러니까는 아 문구녕으로 들여다 보니까는, 그 느껴가면서 울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착한 시집을 못 살구 쫓겨가지 않느냐구. 너 왜 말을 않느냐?”

구. 돌맹이가 말 해우. 그런게 옛날에는 그렇게 착했다구. 응 부모가 해라는데로 순종을 헨거야, 그게. 그랬더니 그냥 남편허구 시어머니허구 와서 손목을 붙잡고,

“우리가 백 번 죽을 죄를 잘못 했다.”

구. 그냥 그냥 그래면서 그 며느리를 붙들구 울었데는 거여. 그래가지구 그 시집을 잘 살다 죽었데. 그래 그렇게 옛날 색시들은 부모 말을 그렇게 순종을 헨거여. 그냥 바둑돌을 때리니 말을 했느냐 말이여. ‘그러니 너 말을 안 해서 나 착한 시집을 못 살구 쫓겨가지 않느냐!’ (방귀 잘 똥 면느리 이야기 생략)

아이구 그래 지금은 눈 어두워서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을 살것어. 어유 그래 그렇게 바둑들을 때리면서, ‘니가 말을 안 해 니까 착한 시집 못 살구 쪼껴 간다.’는 거 아니여. 그래니까 그냥 시어머니허구 신랑허구 가서 손을 붙잡구, ‘잘못 했다’구. 그냥 그래구는 잘 살다 죽었데는 거여. 옛날에.

그러게 사람이 착해머는 뜻이 있는 거여. 그래서 착해니까는 그 돌맹이 친절 어머니 넣어 주면서 그러는 바람에, 친절 어머니 말에 순종 현거지. 그래가지고는 살었대. 그래 예날에 그냥 시집가서 저기 쪼껴가구, 만약에 딸이 집이 온데두, ‘죽어두 그집 울타이 밑 구녕이 가서 죽으라.’구 도로 쪼껴 보냈지. 지끔은 친절 어머니가 오랜(오라고 한)대. 못살 것대면 오랜대. [청중 : 왜 오라고 했을까?] 아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

30 방귀를 잘 낀 며느리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4앞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하는 중간 부분에 삽화로 구술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이야기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시켜 실었다. 할머니들은 이 뒤에 오늘날 시집살이에 대해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었다.

그 다음에 인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그냥 얼굴에 누런꽃이 피드래. 그래서 ‘너! 왜 그렇게,’ 거시기 우리 메누리는 병이 들었다구. 병이 들었다구,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냐?”

구. 그러니까 며느리더러 불러 봤데.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노랑게 노란꽃이 피느냐구. 너 무슨 병이 있지 않느냐?”께.

“아이 그렇게 아니라, 저는 그냥 방귀를 못 꺼서 그래요.”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그럼, 방구를 한 번 어디 쓱낀 께 보라.”

그랬다. 그래니까는, ‘그러며는 어머니는 솔당꼭지를 붙들구, 붙들구 있으라’ 구 그러더라. 또 ‘시아버지는 상지등을 붙들구. 신랑은 문지방을 붙들구.’ 그리고 있는데, 그냥 ‘방구를 니 마음껏 께 보라’ 고 허니까 그냥 방구를 그냥 뉘다 줄방구를 누니까, 놀래가지구 그냥 시어머니가 솔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시아버지가 상지등을 끼구는 그냥 뽕뽕뽕뽕 들구. 또 신랑은 그냥 문지방을 지구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구 나니까는 얼굴이 누랑꽃이 가시드라구. 그렇게 옛날엔 미련했다니까. [조사자 : 아아 그 동안 참었으면.] 방구 낀 걸 못 참어서.

31 당나귀가 하품 하나

이병순(70대, 여) / 유운리T 4앞

[유운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할머니들은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의 시집살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옆에 귀가 좀 어두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옆에 귀가 어두우신 할아버지를 보시며) 저 할아버지는 우리가 암만 지결였어도 당나귀 하품을 했는지, 말을 했는지도 몰러, 잔뜩 잡셨거든. 당나귀 하품. 그런데 저기 망녕 노인네가 당나귀를 저기다 댔는데 그냥, 그냥 당나귀가

“꽝!꽝!”

대구 우이까는.

“애야, 메누라! 저 당나귀가 왜 이렇게 하품 해냐?”

이랬다는 거 아니여.(조사자 웃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애야! 저

당나귀가 왜 이렇게 하품 해냐?’고. 그런데 귀가 어두우면은, 무슨 소리가 안 들리며는 어느 때 좋은 적도 있지마는 어찌거나 답답하지. 답답하고 저런 노인네고 얘기 헐라며는 대판 싸우는 것 같잖어. 떠들어야지.

4) 민요

① 님 생각

한순봉(74, 여) / 유윤리T 3악

[유윤리2]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고 시집살이 노래나 이야기, 전쟁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 동네에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제보자와 다른 마을의 할머니 두 분이 오셨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소주 한 잔을 드셨지만 좀처럼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노래만 몇 편 불러 주었다. 이때 이 마을 아저씨께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다.

만나 보세 만나 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 보세
담 너머 달 뜰 때 보거나 좋은데
요 내맘 달 뜰 것 어디로 가나

② 인생 무상

한순봉(74, 여) / 유윤리T 3악

[유윤리2]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의 노래를 마치고 제보자에게 요청하자, 주변의 할머니들도 ‘오동남구’를 불러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처녀한테 그런 것은 못 해야’ 하곤 처음에는 곡조를 맞추어 부르다가 뒤에는 남송조를 구술하여 주었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우리 인생 늙고 보니 앓던 새도 안 앓고

낭구도 고목이 되는 앓던 새도 안 앓구
우리 인생은 늙으니께 오던 님이 다 떨어졌다.

3 님 기다림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중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이야기를 마치고 나자 제보자는 집에 가겠다고 조사자들에게 인사를 하고서 부른 노래이다. 떠나면서 부르던 노래를 채록하게 되었다. 중간중간의 조사자나 청중이 개입한 것은 생략하고 가사를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불이 꺼지면 내가 불어줄께
고여(?)까지만 참어 주오

후타리 꺾어면 나온다더니
향량사 다 부셔도 왜 이렇게 안 나온다.

담 넘어 달 떨어 때 폭(퍽)이나 좋은데
요 내맘 달 떴거 어찌하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그렇게 만나보세.

[이병순 : 옛날에 연애를 아주까리 정자나무 밑에서 걸었다는 거여. 그러니까, '만나보세 만나보세 또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

세'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여.)

4 아이구 아이구 별꼴이야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여상주 노릇을 한 삼 정수> 이야기를 마치고, 그 속에 삽입된 노래를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불렀기 때문에 이를 독립시켜 기재하게 되었다.

아이구 아이구 별꼴이여
그런게 말이여 그런게 말이여
아이구 아구 별꼴이여

[조사자 : 그러게나 말이여 그러게나 말이여.]

5 창부타령

한순봉(74, 여) / 유운리T 3뒤

[유운2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노래를 마치고 계속하여 불러준 노래이다. 한 할머니께서 기름을 치니까 나온다는 식으로 말을 하자, 이곳저곳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제보자는 옛날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소리가 안 나오다며 부른 것으로, 중간에 조사나 청중이 개입한 내용을 생략하고 사설만 중심으로 기재하였다.

후(울)타리 꺾어먼 나온다더니
행랑사 다 부셔도 왜 이렇게 안 나온가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가지를 마라 놀자 하니

<한순봉>

송주 바람은 쓸쓸헌디
 구경조차도 슬피우네
 열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 〉

간다드니 왜 또 왔나
 울구나 갈꺼를 왜 또 왔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를 왜 생겼나
 널리리 널리리 널리리야 〈한순봉〉

간다드니 왜 또 왔나
 울구나 갈꺼를 왜 또 왔나
 널리리 널리리 널리리야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를 왜 생겼나 〈한순봉〉

⑥ 죽은 사람은 못 만나지만

한순봉(74, 여) / 유윤리T 4악

[유윤리] 박종수, 강현모, 이은희, 박지연, 김일환 조사 (1996. 6. 1)

앞 노래를 마친 제보자는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키면서 부른 노래이다. 제보자는 주변의 할머니가 ‘자꾸 하라고 보챌다’고 화를 내면서도 속으로 즐기시는 듯 하였으며, 노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노래의 아래 부분 가사는 상투가가 아닌 이야기판을 떠나는 자신의 상황을 즉흥적으로 부른 것이다.

죽은 사람은 못만나지만은
산 사람은 만나지

작은 메느리는 주고
석탄 박탄 타는데
연기두 짐(김)두 안 나오네
에헤로야 로야

〈한순봉〉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요내 가슴에 수심도 많고

〈이병순〉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지금 가면 언제 또 만나나

산 사람은 또 만나구 또 만나 보내
죽은 사람은 못 만나지만

〈한순봉〉

여

백

8. 신원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신원리는 포곡면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북쪽은 모현면 매산리와 접혀 있다. 이 신원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벼밭(상, 하우촌), 양달밭, 선장, 논골 등을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곳은 여관에 해당하는 원을 세우기 위하여 터를 닦았던 곳이라 하여 새원터라 불러오다가 마을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양달밭은 남쪽이 탁 트여 햇볕이 잘 드는 동리라 붙여진 이름이고, 벼밭은 들판의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선장은 선장사나 선장사가 있는 곳이라서 유래된 명칭인 것 같다. 조사자들은 11시경에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 근처에 내려 이 마을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이 마을은 현재 양돈을 많이 하고 있어서, 돼지 사육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파리가 많이 있었다. 농가들은 전원주택으로 보일만큼 깨끗하고 부농이라는 인상이 풍겼다. 신원리는 용인 이씨가 가장 살고 있으며, 전의 이씨는 신원2리에 많이 거주하고, 전주 이씨는 신원 4리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노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양반들이 거주하였던 곳이라 말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보였다.

2) 제보자

(1) 이문규(69, 남)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신원리에 도착하였을 때 슈퍼마켓 앞에서 쉬고 있었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다.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는 듯하다가 구술하여 주었다. 얼굴은 햇빛에 탄 구릿빛 피부에, 약간 흙이 묻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계셨다. 외모는 약간은 찌푸린 듯한 인상으로, 이야기 도중에 지꾸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거 녹음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구술하는 중간에 '근데'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곤 하였으며, 마다마디 반복해서 말하곤 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

(2) 이재근(63, 남)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신원1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잘 하신다는 신원2리의 이화영씨를 찾아 가던 중 집에서 쉬고 있는 제보자를 발견하고 들어가 이야기를 청하였다. 제보자는 마침 심심하던 차 였던지 흔쾌히 응락하면서, 할머니가 없어 조사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였다. 그리고는 조사자들에게 음료수와 맥주를 주기도 하였다. 제보자는 이곳에서 태어나 농사를 지어오다가, 오래 전에 용인 자연농원(에버랜드) 수목관리인으로 있었다. 현재 관절염으로 휴직 중이었으며, 학교 교육은 일정시대에 산습소 4년과 한문 서당을 1년 다닌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무척 활발하고 말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비교적 깨끗한 복장에 킬킬한 말씨로 구술하여 듣기에 편하였다. 구술하는 도중에 때때로 '인저'라는 말을 넣어서 말씀하시고, 약간 허공을 보면서 생각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와 노래가 매우 많이 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구술하여 준 것은 전설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2~7, 민요 1~2.

3) 설화

① 느티나무 전설

이문규(69, 남) / 신원리T 1와

[신원1리 슈퍼마켓 앞]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차를 얻어 타고 내린 곳은 신원리였다. 마을 가게 앞에 제보자가 앉아 쉬고 있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청하였다.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여,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 묻자 구술해 준 것이다. 이곳에서 태어난 제보자는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들어온 것이라 한다.

저기 저 느티나무가 한 500년 묵은 나무여.(얘기를 중단하여 조사자가 구술해 줄 것을 부탁함.) 근데 내 느티나무에 대해서 전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할께. 이 느티나무가 500년 묵었거던. 근데 우리 선조가 저 저 자양공 할아버지라고 계시거던. 옛날에 저 이, 저 이순신 장군하고 전 투두 허시고.

그 낭반이 저걸 나무하고 그 바위 돌이 있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장수분이거던 그 분이. 나한테 13대 할아버지인데, 그 낭반이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시고, 바닷물은 겨드랑이에다 끼어다가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셨데. 전설에 그렇게 내려오던데, 여기.

에- 이봐! 여기서 얘기 좀 허구 가.(옆의 할아버지를 보고 잡으셨지만 바쁘시다며 그냥 가셨다.) 이일 장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전설이 있거던. [조사자 : 이일 장군이요?] 응. 이일 장군. 나한테 13대거던, 그 낭반이. 우리 윗때 조상이신데.

② 청주 이씨 일화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앞

[신원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신원리에서 이야기를 잘 한다는 신원2리의 이화영씨를 찾아가다가 집에 쉬고 있는 제보자를 만났다. 제보자는 심심하던지 조사자를 반갑게 맞아 주면서 제보자의 집안 내력에 대해 구술하였다. 이 집안의 내력은 친할아버지께서 들려 주신 것으로, 설화적인 내용이 있어 수록하겠다.

① 21대조 능희씨의 일화

[조사자 : 언제 오셨는데요, 이 동네에?] 이 동네? 아이구 오래다. 이 동 이 동네 험하게 같으면 청주 이가인데.

고려 왕건 태조가 어 인저, 저기 수그러들고, 이조 이성계가 아 인저 등국이라는 거는 임금 자리에 오른다는 말여. 등국을 할 때 이성계 허고 사돈간 되시는 분이 내게 21대조 할아버지여. 그래 인자 저기 능자 하자 되시는 능희씨데, 그 능희씨는 이조 초기 이성계가 임금이 올르면서 영희정을 하셨어.

1년간 영희(영의)정을 허시다, 그 영희정의 아들님이 내게 20대조 할아버지신데, 이성계의 부마가 되셨어. 그래 인저 자격이 하도 잘 생기고, 인저 그 이성계가 인저 태조, 인저 태조대왕 이성계, 이 저기 다섯째 아들 방원이 태종대왕 그 낭반허고 인저 처남 남매간이고 하니깐, 이성계를 도우면서 인저 부마 되시고, 또 다섯째 처남을 인저 대신 해서 방원이가 저기 세번째 임금이거든. 이 이 태조. 태 정종대왕이 즉위 3년을 허구서는, 인저 동생 다섯째 동생이 방원인데, 그 낭반이 인저 저기 임금으로 기실 적에도 이 낭반이 인자 부마로다 계셨어.

아 이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여? [조사자 : 예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백제 사람이었어, 저기. 저- 삼국시대에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충청도 홍성, 충남 홍성에서 자리잡고 있다가, 그 인저 허- 인저 6대조 되는 분이 친천 미역소로다가 인저 오셨어. 미역소로다가 오셔 가지고 인저 거기다 인저 우리가 청주 이(李)가라고 인저 본을 얻어가지고서는, 고려.

고려 말에 저기 왕건 태조가 인저 스구러들면서 이성계가 인저 어- 최영장군이 고려말에 제일 으뜸가는 대장이셨지? 그래 이저 이성계는 부대장이셨다구. 그래 우리나라가 아- 저기 고려 땅에 저기, 고려 땅이로다가 엄청 많이 중국 땅에 많이 영립이 되 있는데, 그거를 최영장군이 저어 되 찾을라구, 우리나라를 되 찾으라구 들어가다가 이성계가

한 초막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7월판인데, 그 어떻게 비바람이 장마가 치는데, 최영장군이 그 저기 두만강을 못 건너 가고서는 기냥 그냥 잠시 진을 치고 있는데. 허! 그냥 비가 막 퍼붓고, 기냥 하늘이 못 들어가게 허니까, 이성계가 큰 부장이루다가 그 낭반이 인저 그 주모, 그 식당 아줌마한테 그 낭반이 도움을 받은 거여.

거 쉬염이 이성계 용 쉬염인데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셔서 손을 코 앞에서부터 땅바닥까지 내리시며 수염 모양을 그림.) 앉으며는 이성계가 쉬염이 땅에 이렇게(땅을 짚으시며) 척 달, 달 달 정도였었는데, 그런데 거 사람도 그렇잖어.

저 저기 뭐 대장할 꺼 같으면, 부하들이 확- 휘어싸고 그냥 뭐 그냥 다 수발을 들어주고 이래는 거 아녀. 벌, 참 벌이나 뭐 이런 것도 마 찬가지구. 그 장수벌이 안 보이도록 둘러싸고 그래는게, 그 옛날부터 특례 아녀.

그런데 그 이성계 그 주무시고 계신 주막에, 그 주모가 이 무척 용한 아줌마였던가 봐. 그래서 이 요기 요렇게 쉬염이 요기 이렇게 싸고 있는데, 요기 쉬염이 용쉬염이라고 두 가닥이 이렇게 축 내려오는 건데, 놓으며? 이렇게 또르르 말려서(조사자 웃음) 일루다 들어가는 거여 그럼 안 보이는 거지. 그래군 이 손에 임금 왕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성계가 항시 이 손바닥을 남한테 안 보였다는 거여.

그랬는데 아 그 주모가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을 이렇게(주먹을 쥐어보이셨다) 쥐고 자거든? 그래 이렇게 퍼 주모가 보니까,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시며) 임금 왕자가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의 왕을 해 먹을 인물인데 중국을 쳐들어 가면은 죽을 사람이라. 그래서 거 쉬염을 하나,

“장군님! 장군님!”

하고. 노리개로다가 이렇게 인저 접대를 허고 그러다가 그 하나를 쑥 뽑았대요. 아 그랬더니 칼을, 칼을 뽑더니,

“죽인다.”

구. 아 그래서,

“왜 그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쳐들어 가시며는, 중국에 가시면 승리도 못하시고 돌아가실테니까 되쳐서 공명왕을, 고려 공명왕을 쳐가지구 이 임금을 임금을 허시라.”

고. 그래가지고 그냥 최영장군은 그냥 그 그 강께서, 그냥 중국 쳐들어 갈라고 할 적에, 그 낭반은 개성, 개성 도움지로다가 그 고려 말 때 그 도움지 서울이었었는데 글루 되쳐나온 거여. 그래 공명왕을 항복을 받고서는.

그때 그 신하가, 그때 정포은 정몽주 그 낭반이 영의정 이었었데요. 영의정이 임금 담(다음)이거든. 그랬었는데 영의정도 포섭을 해서 자기네 부하를 삼을라고 인제 이성계가 허고 하니까는, 이 그 정포은이 절대로 말을 안 들은거지. 그래서 지금 그 낭반은 몇 백 년이 지나서도 그 청백하고 임금, 한 임금을 섬겼다고 해가지구,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든지 천수 그리 인자 소풍들을 가서 인제 그냥 묵념들을 허고 그래. 그래는 그 훌륭한 분이였었구. 그 저기 뭐여 최영장군두 뭐 노장이니까는 뭐 혼자 힘을 쓰나. 군사는 이성계가 많이 해서 벌써 서울을 점령을 해구. 이래 이래가지구.

그때에 이성계허구 제일 친했던 분이 이능희씨라고 우리 21대조 할아버지라구. 그 낭반이 이성계허구 참 친절허신, 막역간이래는 것은 친절한 친구를 갖다 얘기하는 거라구.

그런데 그 으음 능희씨 할아버지가 인저 조선조 인저 이조 초기, 조선조 초기에 정승을 한 1년을 하셨어. 그러다가 인저 그 낭반 아드님이 내게 20대조 할아버지가 장가를 문화 유씨네 가서 장가를 들으셨는데, 자격이 하두 잘 나고, 우리는 오부재(오 부자) 분이구, 태조대왕을 이성계는 팔부재, 구부재 분이었어. 그랬는데 우리가 자격이 하두 잘 났으니까, 오부재분이 그 정승이 21대조 할아버지는 정승을 주구. 우리 20대조 할아버지는 문하 유씨네 가서 장가를 들어 첫축(첫째) 부인이 있어도, 이성계가 우리 21대조 할아버지 그 능희 그 할아버지를 불

러가지구,

“여보게! 아 우리딸 그 우리 큰 딸 자네 네 며느리 갖다 삼어.”

그래니까,

“아, 이미 우린 아 저- 장가들어 가지구 소생이 있구 그랬는데, 어떻게 아- 자네 딸을 갖다가 메누릴 삼나?”

구. 그래니까, 임금이었으니깐 마음대로다가 그냥 의(어)명이라는게, 의명이라는게 임금이 말씀하시는 게 의명이라구. 그래서 임금이 구혼허닌가는 아 그 어쩔 수 없지.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20대조 할아버지가 임금 따님을 데리다 장가를 들으신 거여.

그러는디, 문하 유씨 할머니는, 그 뭐 공주 할머니가 작은 마나님이라도 들어오시는데 거기 더 버티고 있어 봐야 큰 대우 못 받을테니까, 공주 할머니 들어오신 시집 오시는 날 자기가 손수 걸어서 나가셨대는 거여. 그래 나가서 가지고서는 에이 기냥 물에가 빠져 돌아가셨는디, 나가신 기록만 있고 족보에 돌아가셨는 데는 사유도 없이, 기냥 어디가 돌아가셨을 테지. 양반의 부인이 뭐 행차 뭐 다른 데루다 지금 문하 시집을 가셨겠어? 그래가지구서는 그 공주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그 낭만은 소생을 못 나셨어. 공주 할머니는.

그래 우리가 문하 유씨 소생인데, 예- 지금 내가 20대가 내려오도록 그래구서는 20대가 내려오도록 산소가 여기 계신 거여. 공주 할머니허구, 부마 내게 20대조 할아버지허구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 상선장 그 자리가 산소 자리가 자자오향이여. 자자오향에다 모시고, 어- 이조 육백년이 흘렀는데.

이 낭만의 아우님은 군수공이라 진천파로다가 떨어져 계시고. 이 낭만은 경숙공파로다 우리가 이전 경숙공파구. 그리고 한 분은 자격이 잘 못나셨는지 배실을 못하셨더라구. 그러구 막내분이 막내분이 청평 부원군이라구, 그 태조 이성계의 셋, 다섯째 아드님 방원의 사위가 또 된거여, 방원의 사위가. 그래 청평 부원군이라고 아주 문언이 아주 두꺼웁고 총명허셔가꾸 그 옛날에 성균관 유럽에서 아주 학자로다가 계

시키고 그랬는데. 그 낭반이 청평 부원군이라고 저 양주군 진권면 용정리에 산소가 계시.

② 초상들의 수난

그래 그래구서는 예- 그 때에 방원이, 이성계 방원이를 도와가지구 서는 그 이 옛날로 말하자면은 군사혁명 때, 지금 박대통령 군사혁명 때 김종필씨 모냥 그런 역할을 우리 할아버지들이 허신 분이기 때민에, 그 각 유림에서 유림이래는 건, 성균관이래는 건 지금 어- 고등고시 패스한 그런 분들이었어. 그 유림에서 성균관 진사 자격을 딴 사람들은 지금 고등고시 패스나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여. 그런데 인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등수만 뽑아 놓고서는 정부에서 불러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성균관 진사 그 인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구.

그랬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군사혁명이루다가 쿠데타에 협조해서 이성계 방원이를 도운 사람들이니께는 우리 부채를 찍이라구. 능희씨 할아버지하구, 이혜 쑥 애자며 쑥 애자 사랑 애자 위에 초도현 자가 쑥 애자라구. 산소가 이 위에 지금 용인군 지방문화재루다가 그-, 27호 저기 문화재를 받아가지고 지금 비문이 서 있어, 저 우에. 신두(신도) 비문하구. 그럴 적에, 예

“능희하고 이애하구는 찍어야 한다.”

구. 정부에서 그 성균관 그 진사 뽑아논 그 유림들이 하나, 둘인가? 뭐 전국에 그냥 조선 팔도의 유림들이 다 그냥 ‘거기 부채를 찍어야 한다’ 구 그래니깐, 태조 이성계가 임금이 될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오부채 분허구 저기 구부채 분허구 손을 깨물어서 피로다가 혈서를 썼어.

“우리가 잘 되면은 너희 너희 구부채를 안 안 찍인다. 우리 구부채가 잘 되면은 너희 오부채를 안 죽인 안 죽인다. 죽는 것만큼은 서로 간에 도와 주자.”

그랬는데. 이성계네는 임금을 허구, 우리는 정승을 허구. 으흠 뭐여!

저 부마는 됐지만은 나중에 아 지금 전두환씨나 노태우씨 그런 쪽이 난겨여, 우리가. 그런데,

“정히 그렇다면 나라에, 저기 백성들이 정히 그렇게 원하다면은 구(귀)향을 보내졌다.”

구. 그래가지구 능희 할아버지가 충청북도 진천 문백면, 진천군 문백면 사향리로다가 저 무지한 산골이여. 글루다가 구향을 보내고, 구향을 보내 구. 이 이에 할아버지는 경기도, 경기도 포천 고량포로다가, 포천군 고량포로다가 구향을 보낸겨여.

그랬는데 인전 연세가 많구 그러니까는, 진천으로다가 구향보낸 능희 할아버지가 산에서 그냥 그 뭐 신하는 하나 쫓아갔겠지 뭐. 식사 대접하는 그런 뭐 수양(수행)원은 쫓아갔겠지만 ‘거기서 돌아갔다’고 인저 서울로다가, 서울 대궐로다가 기별이 오니까는 나라에서 했던 어찌 됐든지, 공신은 공신이니까 나라에서 그냥 장례를 지내준 거여. 그래 구향갔다가 방면도 안 되고 기냥 돌아간거라구. 그래 그렇지만은 이조 이성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방원이가 사장 으른(어른) 폭이지. 그러니까 장례를 모셔 드렸구.

③ 조상 산소 찾는 유래

이 낭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을 고량포에서 일루다가 집으루다가 방면을 한거라구. 그래 그래가지구 우리가 이 산소를 7대를, 우리가 자손이 잘 안되가지구 7대를 이 산소를 못 찾았어.

못 찾았었는데, 어떻게 찾게 되느냐구.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이진사라는 분이, 그 용허시고 그랬는데, 한 이조 한 오백 년, 백 년 됐어, 산소 찾은 지가. 산소: 그냥 낭구가, 산속에 이렇게 굽은 낭구가 치고(자라고), 산소를 잃어버렸는데. 청주 한서방네들이 그 산을 봐준다구 묘지기로다가 있다가, 우리가 하두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네 산이라고 다 그냥 거기다 산소를 쓰고, 그냥 모두 산을 묵이고 그랬더라구.

그랬는데 이진사라, 이진사라는 분이 강화에서 살으시다가 이루다가 인저 매사냥을 오신 거. 그 인저 그 꿩 잡고 그러는 때. 그거를 인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선비니까는 이렇게 이루다 산소가 계시고 못 찾는다니까 이루 들어오셨다가 여기서 글방 선생님이로다가 몇몇 해를 계시고 그랬는데, 저 뭐여,

“부, 부원군 산소 있는데 낭구를 가자고. 낭구를 가자.”

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원군 산소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는 그 산소, 산소를 찾을까 봐.

“아 그런 일이 읍다고. 그러니 부원군이 어디가 있느냐?”

고. 이렇게 허고 그래서, 이 낭반이 여기서 글방 선생이로다가, 그 집터가 지금도 있어. 그 살으신 집터가. [조사자 : 이진사 그 분이 집터에 사신 거예요?] 그렇지. 한 백 년 전인데, 그 집터가 있어.

그랬는데 산소를 어떻게 매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인저 산소 찾으라고 이렇게 왔다갔다, 인자 산이루 매를 가지고 대니시는데, 매가 넓다 꿩을 쫓아서 매가 내리 쫓혔는데, 쫓아가 봐 보니까 꿩을 잡었어. 그래 인저 꿩을 이렇게 뺏었지. 인저 그건 뺏는 거여.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산소가 묵었는데, 비석이 우리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거여. 낭구는 이런게(한 아름을 표시하며) 들어섰어도. 그래서 산소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 법이 읍고, 무법 무법 천지니까, 그 청주 한씨네에서 숫자도 많고, 그 여기서 인저 살았으니까 권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산소를 찾기를 무척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도 못 찾고.

인저 우리 인자 집안들이 잘 많지도 않은 집안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99년이 8(98)년이 되었어, 지금. 98년이 됐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무척 힘이 쎈 장사셨어. 그래 우리가 이 상태에서 20대조 내려오면서 그 파가 인저 거기서 작은 아들 파로다가 우리가 황해도 연안, 연안, 연백이루다가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 한 분이 연안 군

수를 허시고서는 베슬을 못 했어요. 상놈이여, 아주 우리가 옛날로 옛날루 말하자면.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장사시니깐, 거기선 논밭을 죄 팔 아가지구, 산소를 찾으려구 허신 거, 싸움하는 데는 일등이니까. 그래 이게 타도 타관에 선생님 한 분은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여기서 이것만큼은 우리 산이다. 우리 산이다. 이 산소 이 산소가 사패지기 이성계가 이만큼을 떼어준 거니까 이거는 우리 해다.”

그래 이 아래 내려가면은 큰 느티나무가 있어. 그 돌맹이가 엄청 큰 돌맹이가 있다구. 그때 거기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게 아무게네 사패라.”

고 했으면 그 표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느티나무 하나 심어 놓고 돌맹이 하나 세워 놓고, ‘이 안으루는 다 이에 사패다.’ 이렇게 태조대왕 부재분이, 태종 저기 이방원이 허고 저 준겨여.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밋 대를 그냥 산소를 잊어빠리고 그러니깐, 다른 다른 성들이 와서 죄 점령을 허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산만 26정 차지 허고 있었어. 산만. 그랬다가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산만 찾은 거여, 26정을 찾은 거여. 그냥 주 먹으로다 막 두드려 가며 그냥 빼어가지고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생략함)

③ 피로 무덤을 잡은 김양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뒤

[신원2리 제보지대]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며 지체하였다. 그래 조사가 이곳의 전설이나 아무 이야기도 좋다고 하자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과 친할아버지께 들은 것이라 한다.

[조사자 : 얘기 하세요. 무슨 유래요?] 김양이라는 유래가 김양이, 용인 이 지금은 용인이라고 그래지? [조사자 : 어 지금 여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어.

지금은 용인군이지만 그전에는 김양 김양군이였었어. 김양장. 그 인저 군이 구성군이 있었는데, 김 김양에는 용인군이 요 저- 용인군이루다가 승격이 된 지가 어 몇 십 년 안 되는 거여. 한 어 한 70년, 용인군이루다가 된 지가, 저기 구성군이루다가 되 있다가.

그래가지군 김양이라는 유래가 사람의 이름이여, 김양이. 그 김양이라는 분이 옛날에 무척 어려웠었는데, 성이 김씨여. 거 이름은 양이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그 상주가 아들이 3형제였었어. 그랬는데 산소자리를 지관, 지관을 모셔다가 봐서 산소를 모셔야 할텐데, 지관은 만날 수가 있어야지. 가세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구서는 그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아주 장사였었어, 힘이. 그랬는데 흙, 그 아버지가 돌아가 가지구 지관을 못 으더서. 인저 못 못 모셔가지고, 장례를 못 지내고서는 초봉(초분)이래는게 있지. 초봉. 풀을 벼다가 마당 옆이다가 이렇게 인저 돌음을 놓구서는 아버지를 거기다 인저 내다 모시구, 거기다가 인저 초봉이라고 풀루다가 비 안 맞게시리 인저 이렇게 저 지봉을 해구. 인저 거기다가 자리를 피고 명석을 피고 거적을 피고 인자, 에 초하루 보름이루다가 삭망을 지내고 땅에다가 갖다 모실 때까지 거기서 그렇게 한거여. 옛날에는 다 덜.

그랬는데 그 막내 아들이, 힘이 썩 장사니까는 서울 가서 그 때 도선이래는 지관을 어떻게 그냥 강제로래도 그냥 모시구 올라구, 미, 미, 무 무명이라고 그 한 끝을, 무명 한 필을 허리에다가 돌르구서는 서울을 간거여. 대궐 대궐 안을 들어 간거여. 그랬는데 그때 나라에서 무슨 임금님 산소 자리를 잡으라구 인저 지관이 왔다갔다 허구. 거긴 거 나라에서만 쓰는 지관이여. 거 도선이래는 분은.

그래가지군 흙, 그 그분을 만날라구는 이 힘센 막내아들이 서울 대궐문에 가서 밥만 으더 먹으며는 거기 가서 기웃거리는데, 얼굴을 알

어? 뭐 그냥 참 모르니까는 몇 달 몇 칠을 거기 가서 있는데.

그 몸이 약했는데, 그 낭반이 도선이라는 분이. 신체가 약한 분이 나오는데 그 낭반이 지관 걸거던. 그러니까 냅다 그냥 팔뚝기를 잡아다려서 그냥 엮구서는 그냥, 그냥 팔을 붙잡고 한 손이루다 무명끈을 끌러 가지구서는 그냥, 그 지관을 그냥 엮은 걸 그냥 애기 엮듯이 그냥 휘휘 감아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온거야, 그냥. 그랬는데 여기 하야꿀(지명) 모탱이라고 그 김양 근처에 하야꿀 모탱이 거기다가,

“이 자식!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쥐여버려야 하는건데, 그냥 그냥 살려 둔다.”

고. 그냥 그 낭구에다가 그냥 그 무명을 그냥 클(끌)러가지고서는 그냥 칭칭 감어 놓구서는, 자기네 형이 자는 방이로다가 와서 불른거여.

“형님! 형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도선이를 지금 엮어다가 거 아무데 그 낭구(나무)에다 붙들어 매 놔는데, 그 눈에 가는 척허고서는, 봄철인데 아이 기침을 ‘카각’ 하면서 그리 지나가면 ‘사람 좀 살려 달라’고 그랴 거라고. 도선이가 그 래며는 거 데려다가 저 흰죽을 좀 썬서 대접을 하고, 아주 불을 뜨뜻이 때구 잘 좀 후회 대접을 하라구. 그럼 정신차려서 갈 적에 그 인저 인사조로다가, 형님이 건을 쓰고 인저 계시니까 사연 사연을 물으며는, 그때 가서 인저 ‘그 산소 자리, 지관을 못 만나서 산소를 못 쓰고 초봉을 모셔노 났다’고 그래라.”

구. 고 아 근데 형이, 참 형이 그 눈을 가는 척 허구서는 그리 가니깐,

“아 여보슈! 여보슈! 사람 좀 살리라.”

고 그래거든. 아 그래서,

“아, 그 이게 웬 일이여, 이게. 아휴 어떤 망할 놈이 이 아주 사람 못 할 짓을 했군.”

자기 동상이 한 일인데.(일동 웃음) 짜구 인제 그런거여. 아 그래

인제 풀러가지구 엽구 들어와서, 하 그 불을 뜨뜻이 때구 그냥 수족(手足)을 주물러 주구. 이래구 아 후히 대접을 해서 그 이튿날 아 인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간다.”

구 하니까.

“아휴! 그러시냐?”

구. 거 건을 썩고 땡기니까는,

“아 누구 상을 당하셨는데, 아 그렇게 건을 썩고 땡기슈?”

그 그래니까, 그 큰 형 허는 말이,

“아, 저 부친 상을 당했는데, 그 아버지를 갖다 부친이라고 그러지? 어 부친상을 당했는데, (파리를 계속 잡으면서) 아 장례를 못 모시고 있다고. 지관을 못 만나서 못 모시고 있다.”

고. 그래니까,

“아 그러냐구. 거 내가 한 자리 잡어주고 갈테니, 그 저, 저 연장을 가지고 거 따라 오라.”

고. 한없이 한참 가더니,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음) [조사자 : 한참 가더니요.] 그래 가더니,

“여기다가 한 자리를 잡아 줄테니까 쓰라.”

고. 해서 그 인제 동네 사람들이 인제 친절한 사람, 이웃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장례 준비를 허는데, 거기다가 인제 하관을 하고 산소를 다 썼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때서 곡을 허고 올러온 거여.

“거 아들이 몇이나?”

고. 지관이 물어볼 적에,

“들빡에 없다.”

고 그랬는데. 아 모이를 다 썼는데, 아들이 막 울면서 올라오거던. 그래,

“저 사람은 누구냐?”

그래니깐,

“막내라.”

그라.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업구 뛰어온 사람이여. 그래서 하두 분해서, 하두 분해서 그 늪만 안 되게, 막내만 안 되게 할라구,

“산소를 이렇게 줌(좁) 좌향을 틀어서 해야 한다.”

고. 인저 때 입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틀으라'고 그래니깐, 이 사람이 오더니만 팔뚝기를 걷어붙이고 허는 말이, 허이 아, 부 분금이라고 그러는 거여. 그거를 이렇게 틀라고 허는 거를.

“아, 틀긴 멀(뿔) 틀어! 에게 못허.”

아, 그냥 막 그냥 아 목일 부리거든. 그러더니마는,

“선생님! 잘못 했다.”

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냥 아주 굴복을 허는거여.

“우리 가세가 이렇게 어렵고 권세도 읍고. 그래서 선 선생님 같은 분을 한 번 모셔 모셔다가 산소자리 한 번 얻을라고 으더서 끌려고 했다가 이렇게 그냥 무리한 죄를 범했으니 그저 꺾여주셔도 좋다.”

고 허니까는. 그때 가서 어떻게여.

“아 과연 그렇게 돼 됐느냐?”

고. 그랬는데 그 산소를 썰 적에 그게 파(잘못)여.

“부자가 되게 해 주랴? 저기 알선급제가 돼게 해 주랴?”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해 달라.”

고 그런거여. 알선급제가 나며는 부자는 제절로 되는 거 아니여, 그냥. 그런데 그때 그냥 밥이 그리우니까 부자부터 되게 해 달라고 이랬단 말야. 그래 부자는 그냥 아주 머 그냥 손도 많이 늘고 부자는 되는데, 아 이놈의 출세를 해야지.

그랬는데 그 용인의 김씨들이, 김양이 그 돌아간 분이 김양이여. 김양. 그래서 김양장에 간다고 그래는데. 김씨 그 자손들은 김양장에 간 데지 앓고, 그냥 장에 간다고 그랬지. 김양이가 자기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김양이 그래서 김양이 생긴거라구.

그랬는데 그 집안들이 숫자가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서는 출세들은

못했어도, 그렇게 숫자들이 많고 그랬는데. 해방되고선 대한청년단 그 씨름터, 씨름터 맨든다고 그 산소자리가 파였다고 그라. 그래 해방되고. 그 그런 유래도 있고. 그 유래는 인저 끝난거야.

④ 피가 나온 홍수래의 무덤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뒤

[신원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뒤에 실은 민요를 마친 후에, 조사자들이 테이프의 양을 채워야 한다고 걱정을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시핀의 잠터 전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삼시도의 장사인 홍수래 전설과 관련되어 있어 조사자가 제목을 바꾸어 붙인 것이다. 제보자는 젊었을 때 동네의 어른들한테 듣고, 직접 현장에 가 보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조, 이조 중엽 얘긴데, (물건을 빌리려 온 아주머니와 대화 생략) 그렇게 됐어. 이조 중엽, 중엽 얘긴데. 예- 홍수래라고 여기 저 용인군 모현면 일산이래는데 묘가 거기 계시다구.

그랬는데 그 묘지기가, 묘지기가 어- 한 분 거기 산소 밑창에서 사는데. 정승이여. 거 모의가, 홍수래 묘의라구, 정승이 돌아가서 모의를 썼는데 산소자리가 기가 맥히게 좋은 자리여. 이렇게 손, 손 형국이 됐어. 이렇게 손, 왼손 형국이 됐는데, 여기다 썼는데 그렇게 묘이 자리가 좋은데. 남양 홍신편에 홍수래라고 정승이 돌아가서 거기다 쓰구 그 아들이 또 정승이여.

그랬는데 그때 어떤 대왕인지 이조 때 대왕인데, 그 대왕이 똑똑치 않으니까, 그 이가 임금을 몰아내구서는 용상에 가 앉은거여. 그 용상에 가 앉으면, 보통 예- 대가 세지 않으면은 놀래 죽는데는 거여.

그런데 그 용상에 가서 앉아서 임금노릇을 할려구. 그러는데 잠시 앉았다가 그냥 그 나라에서 버거지가 나가지곤 그 저 뭐여, 수래를 태

워서 그냥 그 저 뭐여 수레를 태워서 그냥 한강 백사장으로다가 사향(형)을 시킬라구 나가는데, 그 산소 지키는 묘지기 꿈에 그냥 아유 그 모의에서 요런 소리가 나는 거여.

“아유! 이걸 어떡 하나? 아유! 이걸 어떡 하나? 아유! 이걸 어떡 하나?”

모의에서 그런 근심스런 소리를 허는 거여. 그래니까는 묘지기가 내 뻐, 그냥 그 똑섬 서울 사는데, 인제 그 대감댁이. 그냥 밤이루다가 뻐 거여. 그냥 뛰 들어가니까 그 대감 내외가 그 수레에 탄 거여. 그 소가 끄는 수레에 타구서는 역적이루다 몰려서 이렇게 나목대기 집을 진 거 기다가 가두구서는 그 역졸들이 인제 소를 몰고 나갈 판인데. 아, 가서 그냥,

“대감!”

허니까는 그것 뭐 귀에나 들리나. 그래 대감의 부인도 그 수레에다 태워가지구서는 백사장이루다가 갈려구 그러는데. 그냥 뭐 말도 못 허 구서는 돌아섰지 뭐.

그래 그 백사장에 가서 췌이고 났는데, 그 모의 자리가 그렇게 좋아 가지구서는 그 역적이 난거여. 임금이 나다시피 한거지 뭐여. 그냥 그 모의자리가 좋아가지군.

그랬는데 그 동네가 그 동네가 한 심십호 사는데, 그 재숫굿을 해도 거기 가서, 그 산소 앞에 가서 고사를 허구서는 굿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려는 그냥 별을 받아. 그래서 옛날에 그냥 그 귀신들 믿고 그럴 적에는, 그냥 저녁에 가만히 이렇게 드러누어 있으면은 그 거기 묻힌 대감이 말 타구 땡기는 소리가, 말 발굽소리가,

“덜그락! 덜그락! 덜그락!”

난데는 거여. 그냥 비가 올라고 날이 굿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말 발굽소리가 나구 말소리가 나구 그러니까.

그 모의 자리가 하두 좋아가지군 역적이 나구 그러니까, 나라에서 산소 뒤 여기를 잘랐어. 기냥 파 났는데 거기서 피가 그냥 펑펑 쏟아졌대는 거여, 그냥. 피가 그냥.

그래 그 아래 지금 광주군이 됐는데, 시편이 장이 썼어. 시편의 장터라구 거기 인제 그 할아버지들 뭐 아저씨들이 오일장을 썼는데, 그 거길 찢르니까 피가 났다 그 기냥 평평 쏟아져서 내리 흘러서 그냥, 그 장꾼들이 그냥 다 도망을 갔대는 거여. 그냥 피가 흘러서 그냥 냇물 모양 내려오니깐 장꾼이 다 도망을 가구. 그래 그 피가 흘러서 장, 장이 깨졌다구 시편이 장터라구 그래.

그 지금을 그 장터가 광주, 광주읍에 가서 장터가 됐는데. 거기 조금 더 내려가서 그렇게 그 전설이 그렇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⑤ 제사상을 받게 된 하인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뒤2앞

[신원2리 제보지대]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면서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제목을 <광산김씨 이야기>라고 하였는데, 하인들도 제사상을 받게 된 유래담의 내용이 중요하여 제목을 바꾸어 붙였다.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처럼 젊어서 동네 어른들이나 친할아버지한테 듣기도 하고, 셋째 매형이 그 집안 출신이라 듣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고 광산 정씨라구 그래. 그랬는데 전라도 광주 광주를 갖다가 광산이라고 지금은 광주시라고 그래지.

그 광주 정씨들이 배실을 허러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로 오셨다가 배실을 가서 저기 알선급제를 해가지구 고향이투 안 내려가구선 여기 광주군 옥포면 추자리라는 데서 이 낭반이 안착을 해, 주저앉아서 거기서 살으신 거여.

그랬는데 그 낭반이 에 이조 때 정승을 허셨어. 그 정승을 허셔가지구 거기가 묻혀셨는데, 돌아가셔서 가지구. 그래 그 묘지기가 산소 밑 창에 살게 되 있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마는.

나라에서 묘지기를 하나, 산소 잘 지키래는 묘지기를 한 사람을 살게 논밭을 해 주고, 또 추수를 해가지구 그 낭반의 제사를 채리고, 가을이면, 이래러는 묘지기 하인을 인저 거기다 한 사람 살게 해 났단 말여.

근데, 한 날은 이 사람이 제삿날인데, 깜박 정신을 잃고서는 제삿날 그 대감집은 천호동에 살았었는데, 천호동 그 거기다 살았었는데 그 제삿날을 잊어버리구서는 이 사람이, 제삿날 안 간 거여. 그 묘지기 하인이.

그랬는데, 아, 얼핏 생각을 허니, 자다가 생각을 허니까 그날이 자기네 상전이라고 그래. 옛날에 높은 사람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상전이라고 그러는 거여. 아, 어, 상전 제삿날인데 안 간 거여.

아 그래, 근저 그냥, 그 전에 그 하인들은 팔셀 많이 받았어. 그래가 꾸서는 그냥 볼기를 맞고 호령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아 인저 그냥 죽을 판이 났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상전집 천호동을 그냥 가는 거여, 그냥 그.

아, 그런데 거길 가니깐, 거반 다 인저 그 대감님네 집이를, 인저 상전 집을 인저 거반 다 가니깐, 저 그냥 새벽녘인데 그냥 햇불을 해서 그냥 사룻거 가마가 나오는 거여 그냥. 이렇게 보니깐 자기 대감 혼신이 타고선 제사를 잡습구 혼신이 나오는 거여. 아 그래니깐 그냥 땅에 엎드려서 굴복을 헌거지. 그냥 가마 앞에서 그냥 굴복을 허고 있으니까,

“애애! 너 어째 그렇게 늦었니?”

“예, 늦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인저 허니깐,

“예, 그게 아니고, 너 잘 만났다. 저기 가서 젊은 대감보고 저, 예 이걸 좀 전해라.”

근데 밤을 한 톨을 이 도포자락에서, 그 대감이 제삿 잡수시고 산수(산소)로다 도로 오는 거여. 그런데 밤을 한 톨 이렇게 도포자락에서 끄내서 그 하인을 주는 거여.

“이걸 갖다가 정표로다가, 증표로다가 너의 젊은 대감을 드려야. 그 밤 고인 데서 한 톨을 빼온 거니까 그 정표, 증표가 될꺼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나를 만났다고 그래라. 그런데 날 내가 죽어서 너희 대감마님이,”

마님은 여자를 갖다 말허는 거여. 대감의 부인을 갖다 대감마님이래는 거는. 대감 나오리는 인저 남자 대감을 갖다 말허는 거구. 그런데 나, 나 죽어서 옥찌환이라구, 옥찌환이라구 그 보물이여. 사실은 그 부잣집에서는 가지구 있는 그 옥찌환인데,

“이것을 가슴에다가, 염할 짝에 가슴에다가 넣 쫘던건데, 이걸 갖다가 대감마님을 보여줘야 네가 나를 만냈다는 것을 알지, 니가 거짓말한다고 헐테니까 이거하구 밤하구 가지고 가서 대감마님한테 내놔라.”

이러거든. 그래 이 사람이 그냥 그걸 가지고 새벽녘에 그 대감집이 를 가니깐, 그 옛날에는 제사를 차려가지구 아침에 밝음에 철상을 했지. 제사 다 지냈다고 헐어서 웬겨 놓는게 철상이라구 허는 건데. 상을 웬긴다고 철수한다고 허는 건데, 철상을 안허곤 그때까지 두엇대는 거여. 그래서,

“대감님! 대감님! 지가 정신이 바해서어 노대감 기고날을 잊어버리고 새벽녘해서 알고서 이렇게 부랴사라 뛰어, 뛰어오는 중에 아무 데서 노대감님을 만났습니다.”

“예, 이 사람아! 만나긴 돌아가신 분을 자네가 어떻게 만나나.”

“아닙니다요. 저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가 뭔가?”

“그 밤을, 도포에서 밤을 한 톨을 주셔서 가지구 왔는데, 밤을 이 한 톨 가운데서 빼신 데가 있다구 그러시더라.”

구. 그래 보니깐 밤 한 톨 뺀 데가 있거든.

“아, 이게 틀림없이 우리 아버님을 만나긴 만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저기, 노대감마님께서 젊은 대감마님께서

저, 노대감님 돌아가셔서 염습을 할 적에 가슴에다가 옥찌환을 넣어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그” (Tape 2앞에 계속)

그래 만났다고 하니깐, 그때는 자기 아버지 그 돌아가서 염습할 적에 가슴에다가 옥찌환을 넣어드렸던 걸 내놔. 밤 한 톨 너의 쪽 뺨겨, 그 자리에 한 톨이 비 비인 거, 그거마저,

“아휴! 그거 우리 아버지를 증말 참 혼신을 만났었네 그라!”

“예, 그랬습니다. 근데 당부가 하나 계셨습니다.”

“그 당부가 뭐라고 그래시던?”

그래니까,

“그 대감을, ‘제삿상을 차려서 당신 혼자는 그렇게 많이 맞만 제시던 잡습구 가시는데, 당신을 미구 가는 하인들은 그냥 상을 안해 놔가지구는 빠빠치 굶어서 나를 미구 가니, 너희 대감을 가서 뵈구 다음서 부터는 하인들 먹을 상두 제삿날이면 차려 놔 달라구 가서 여쭈라,’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듣구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다음 기고 때는 하인들 상두 옆에다 차려놔야 그 사람들도 굶지를 앓고 먹고 간다구 해서 지가 이렇게 문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니깐,

“아! 과연 우리 아브지가 오셨다 가시는 혼신이 나를 일깨워 줄라구 이 사람한테 몸을 빌려가지구 아마 이렇게 허셨나보다.”

하구. 그 이듬서부터는 하인두 잡술 거를, 상을 따루 봐서 그래서 제삿상 옆이다가 차려놓고 제사를 올린 데는 지금 전설이 있는데, 여기서 한, 한 5키로, 5키로 가면 거 산소가 계시다구. 그 [조사자 : 음-.]

그래 광주 정씨네서는 대감 산소라고 이렇게 일키려 내려왔고, 또 광주 정씨에 현인 감을 현자 저 실을 재자 되는 분이 내 셋째 매형님이 되셔. 그래 내 사돈이 되는데 그런 전설이 있어.

⑥ 지관의 말 안 듣고 실명한 사람

이재근(63, 남) / 신원리T 2앞

[신원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서 좀 쉬고 싶다고 말하는 제보자에게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간청하자 구슬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지관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구슬하여 주었는데, 젊어서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조사자 : 또 해주세요?] 아 좀 쉬야지.(조사자 웃음) 참, 많지. 많은데 인저 그만 할래요. [조사자 : 아- 해 주세요.] 자꾸 해요? [조사자1 : 네, 살려 주세요.] [조사자2 : 다른 얘기더라도 그냥 재미있는 거 해 주세요. 처녀귀신……] [조사자1 : 아니 귀신 얘기도 괜찮고, 아무 얘기라도 다 좋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또 또 허지 그럼. 이번 이번에도 산소 얘기여.

어 남씨가 의령 남씨가 있어. 의령군, 의령군이 지금 나는 청주 이 가라고, 충청도 청주로, 저 능성군이라고 능성 구씨고. 또 연안이라고 황해도 연안이 있어. 그래고 지금 저기 매울 신자 쓰신 데는 분이 그 군이 어딘 지를 내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거든? 그런데 의령 남씨가 계신데, 요기 그 산소가 올해 파였어. 올해. 좀 아쉬운 점이 있지.

그 산소를 쓸 적에 상주가, 상제가 아들이 3형제데 그 지관을 디려서 산소 자리를 잡을, 잡을 적에 그 산소 자리가 자라혈이여. 여기서 3키로 뺏에 안 돼. 자라혈인데 그 지관이 하는 소리가,

“여기를 파며는 아들 형제 보고, 삼 형제 보고 파며는. 석 자만 파며는 돌맹이가 나올테니까 이렇게 ‘득득’ 돌맹이가 나와 굵을 테이니까 거기에다 산소를 쓰라고, 산소를 쓰되,”

하관이라는 것은 시체를 땅에 모실 적에가 하관시라고 허는 거여.

“그런데 하관시는 무쇠 두멍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때 하관 하라.”

그랬단 말여. 그랬는데 아이, 참 땅을 파니깐 돌맹이가 ‘드룩드룩’ 하는 소리가 나. 그런데 큰 아들서부터 둘째아들꺼정은 그대로다가,
“지관 말씀대로다가 쓰자.”

그랬는데. 아 막내, 막내 상제가,

“아 그게 될 말이냐고. 아버지를 돌맹이에다 올려놓느냐고. 안 된다.”

고. 그게 우겨 가지곤 위로 형제가 지고서는, 그 돌맹이를 이렇게 뜨(떠) 들으니까, 금붕어가 빨간 물에서 금붕어가 노는 거여. 그 밑창이 연못이여.

“하 이걸 어떻게 허면 좋으냐?”

고. 근데 금붕어 한 마리가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는 펄펄 뛰다가, 그래 피기가 펄펄 뛰잖여? 그랬는데 눈 하나가 이렇게 빠졌어, 금붕어가.

그랬는데 도로 거기다가 넣고서는 돌맹이로 닫고 하관식을 헐라고 그러는데, 하관시가 무쇠 두멍을 끼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랬는데 다 저녁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질팽이에다가 소당을 하나 덮어가지고 가는 아줌마가 있었던 말이여.

“아! 때는 이뎨가부다.”

하고. 그때 하관을 모셨어. 안창 안장을 해 드린거지. 그랬는데 그 산소를 써고서는, 그 지관 지관 선생님이가 허는 말이,

“여기에다 쓰면 급제도 날 꺼고, 또 어 재산도 많이 늘을 꺼고 허니깐, 재산이 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석물이라는 거는, 돌로데가 물건을 맨들어서 세우지 말라는 것여. 석물을 해서 세우지 말아라. 자라혈이니가 자라가 대가리를 이렇게 번쩍 들고(제보자가 머리 드는 흉내를 내며.) 물에서 나왔을 적에 그런 형국인데, 거기다가 돌맹이를 해서 뭐 상돌 이렇게 촛대석을 해 세우며는 모가지를 늘르며는 그 자손들이 출세를 못 한다.”

그랬는데 아 기냥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으니까, 거기다가 상돌허구 이렇게 바쳐서 거기다 제사지내는 그 상돌을 해 놓고, 촛대석을 해 세

왔어. 우리도 많이 보는 거지 뭐.

그런 뒤로는 출세가 읊다는 거여. 그래군 대대로다가 그 눈이 하나 씩 멀어, 그 자손이. 그 금붕어가 눈이 하나 결사 지나가고, 그 지금까지도 그렇게 눈이 하나가 애꾸가 난다는 거여. 그 집안에서 대대로다가.

그랬는데 이번에 애 용인서 4차선이 광주로다가 해서 성남으로다가 풀리면서, 그 산소가 패였다고 아깝게. 그런 자리가 그래 그런 전설도 또 내가 큰 확실히 뭐 요새 요그서 3키로 밖에 안돼. 빙경서 모탕이라고, 으 그런 전설이 하나 또 있어.

⑦ 힘센 장사 스님을 물리친 아이

이재근(63, 남) / 신원리T 2앞

[신원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또 하나 해도 되느냐’고 하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들은 제보자가 이야기를 구술하느라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신원리 조사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것도 지관에 관련된 이야기로 짚어서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그래도 나빠? 뭐여, 또 해야 돼? [조사자 : 네.(웃음)] 아이 이것 할아버지를 아주 징역을 시키네. [조사자 : 그러고.]

그래구 이씨 조선이 될라고 혈 적에 고려, 고려, 고려 때의 정승여. 그 낭반도 의령 남쨌네, 남정승이라고 여기 파담리라고 있어. 아가씨 들 건너오던 그 밀창 동네여.

그런데 그 동네서 남정승이 살았는데, 그 살으셨는데 그때 이씨 조선이 인제 될라고 혈 적엔데, 그 남정승이 여기서 큰 부자로 잘 살고 모두 허니까, 그 남정승이 세도는 그렇게 좋은데, 고 큰 고개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남정승에 손자가 장가를 가는데, 그 장서리 고개라는 델 중들이, 스님들이 그냥 그 좋은 데서 기냥 기도를 하구, 모두 그러다가 먹을 게 없구 그러니까, 기운은 시구 그러니까는, 행인이 지나가며는 기냥 가마구 뭐구, 기냥 행인에게 ‘돈 내 노라’고 허구, 기냥 때려 주구. 모두 이렇게 해서 그 길이 큰길인데, 당체 주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여.

하지만 남정승이래두 법은 모르고 주먹은 가깝다구. 법은 나중이구 주먹으로 먼저 때리면 법은 나중이라구. 그래서 법은 모르고 주먹은 가깝다 이라는 말인데. 아 왜 그 이튿날 손자 가마를 태워서 장가를 드리려 보내야 헐텐데, 그 하인들허구. 근데 그 중들이 벌써 거그에 와서,

“누구네 큰일이 났다.”

하니까는. 먹을 재리(자리) 났다고, 거기 와서 또 행악을 헐러는 허는 거여. 그런데 저녁 때 열두 살 먹은 아이가 하나 와서,

“대감댁에서 풀이나 벼(베)다 주고, 소나 거두, 거두고 일 해면 어떡 허겠느냐?”

구 그래거든. 그러니까,

“아, 정히 그랬다며는 우리 집에서 소나 쇠죽이나 썬워 주고 밥이나 먹고 그래라.”

그래거든.

“예, 고맙습니다.”

허구 있는데, 그 남정승이 내일 그 혼행 차려서 갈 그 근심 걱정을 허는 거여. ‘아, 이걸 어떡해 허면 좋단 말여.’ 혼잣말로.

“아, 이걸 어떡해 허면, 이 이게 이놈들을 이걸 말릴 수가 있나?”

그래니까. 그 열두 살 먹은 아이가,

“아, 대감님! 뭘 그래십니까?”

“너나, 알 것 없구!”

(제보자가 건네준 맥주를 만지작거리자)그 맥주들 안 마셔? 목 말른

데.(조사자 웃음) 마시지.

“아, 그런데, 아 뭘, 뭘 아, 대감님 뭘 그러십니까?”

그러시거든. 그래거든. 그러니까,

“아, 너나 알 것 읍구.”

“아, 저 좀 아르켜 주세요. 아, 저 좀 아르켜 주세요. 지가 알면 안 될게 뭐 있겠습니까?”

“너는 알 것 읍다.”

“아이, 좀 아르켜 달라.”구.

“아, 그래 났(내일), 났 저 도련님 신환, 신희, 저 신행을 차려 가시, 가시는데, 아무대 그 장서리 고개라는데 그 중놈들이 그냥 길을 막고 행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말릴 수가 읍구나.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는 거라.”

고 하니까.

“아이, 그걸 뭘 그러십니까. 지가 그 버릇을 가르킬테니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그 열두 살 먹은 애가 그 무지한 장수들을 어떻게 스님들을 막어. 그러니까,

“아유, 원, 뭘 별소리가 많다.”

고 하니까.

“아닙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지가 가서 해결을 짓고 오겠습니다.”

아, 자꾸 그래거든.

“아, 그럼 그래. 니 그 분부를 내릴테니, 니가 가서 해결을 허구 오너라.”

“네!”

그래고서는 떠나거든, 그 얼마 안 돼. 거기서 한 4기로, 한 10리 밖에 안 되는데. 그 절에를 간겨여. 그 절에 가니까 그 스님들이 바둑덜, 장기덜 이렇게 두곤, 책덜을 보고 이래는데, 아 과연 그냥 뭐 깝지통갈

은 사람들인데, 눈이 그냥 장수들이니까 그냥 눈꼬리가 치켜져 올라가고 모두들 그랬는데.

“아! 저의 남대감께서 내일 일을 생각하시고 채 내려오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아 분부들덜 들으셔야 하시지 않겠느냐?”

고 허니까. 아 그 중들이 돌아다 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말 같지도 않은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 징징 울면서,

“저의 대감님 분부가 계신데, 스님들 내려덜 가지죠. 가지죠.”

그래곤, 울어도 돌아다 보지도 않는 거여. 아, 그러니켄 자꾸 울면서 그 뜰땃들을 그냥 크 무지한 걸 그냥, 굴러다가 그냥 그 뜰땃들을 쌓는데, 그래곤 절을 비는데, 아 그 뜰땃들을 이렇게 꼭꼭 눌러면서,

“저의 대감님 분부가 계셔서 꼭들 내려가셔야 헐 텐데요.”

라고. 이렇게 돌맹이를 꼭꼭 눌러는데, (제보자 방바닥을 향해 손가락으로 누르는 시늉을 하며.) 그 스님들이 보기에는 이 돌맹이가 우리네 흙 이렇게 꼭꼭 눌러서 손 들어가 듯 돌맹이가 쭉쭉 들어가 보이는 거여. 그래니까 제일 오야(우두머리) 스님이,

“애들아! 내려 가자.”

그래, 제(제일) 오야, 제 으시되는 사람이, 자기가 돌맹이를 눌러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개가 놀르는거년 기냥 쭉쭉 들어가 보이는 거여. 아 그래니까,

“애들아! 어이 내려 가자. 대감님 분부가 계신다던데 내려 가자.”

고. 오야가 그 한 마디 하니까.

“예! 예!”

허고 제의하시거던. 그래서 열두 살 먹은 애가 거, 스님덜을 죄 데리고 내려온 거여. 내려와서 대감, 대감님네 바깥 마당에 가서 채 엎드려는 거여. 그냥,

“죽여 주십소사.”

하구 기냥. 아 그래니까 그 대감이,

“천해 발직한 놈들 같으니, 어서 중놈들이 아이 그 행인을 그렇게

괴롭히구, 이놈들 그냥 살아남을 줄 아느냐고? 단칼에 전부 그냥 베 죽일 놈들이라.”

구. 호령을 하고서는,

“다시는 너 목숨을 살려줄테니, 거기서 제 흠어져 떠나야지, 거기 또 있다가는 아주 느덜 아주 다 죽을 줄로 알으라.”

고 하니깐.

“그저 목숨만 살려 달라.”

고. 그냥 산산히 벌고서는 제들 올라가서 그 절을 떠나는데, 암산이 바위가 한 100평 되는 바위래요. 그 바위를, 그 바위에서 물이 나는데 그 바위를 이렇게 뚫구서는 거기서 그 물이 쏟는 거를 보고 그렇게 기운들이 신건데, 이 사람덜이 자기네 밥 그릇, 그 유기 그릇, 놋쇠, 그 놋쇠 그릇을 다 그 우물에다 갖다 쏟아붓구서는 큰 돌맹이를 굴러다간 그걸 그냥 털커덕 덮었대요. 그래곤 중들은 제 떠났는데.

그 후에 벌써 600년이 흘른거니까 위치가 어딘 지도 몰라. 그 절이 있던 데는 지금도 얘기들이 있어. 그런데 그 날 좋은 날은 거기서 그 가만히 들으며는 바윗돌 밑창에서 그 그릇이 이렇게 떠서(제보자 손을 위로 들며) 돌아댕기다가 부딪치는 소리가 ‘달그락 달그락’ 허는 소리가 났대는 그런 전설이 있어.

그 관창이라구 하는데 관창. 절터라구 하는데 절터가 무지무지하다구 그랴. 지금도 그 절터가 있다구 그랴. 그런 전설이 하나 있어.

4) 민요

① 장부 타령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뒤

[신원2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에서 김양이 전설(김량장터 전설)을 마치고 이야기판에서 물러나려고 하였다. 그래 조사자가 노래도 좋다고 말하자, 제보자는 상투가와 지경달기 노래 등의 노래들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 조사자가 그런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그런 노래를 불러도 될 것인가를 의심하면서 불러 주었다. 노래는 옛날에 동네 어른들이 한두 번 부르면 흥기가 좋아 다 알아 배웠다고 한다.

그것 외람되게 그걸 해서 될까? 그냥 저기 노랫가락 하지.

얼씨구나 - 절씨구려	태평성대가 여기도다
천하일색 양귀비는	인물이 고와도 죽었구려
천하무적 속성(석순?)이는	돈이 많어두 죽었는데
육국을 달래던 서진이는	염라대왕은 못 달랬구려
통일천하 진시왕이	아방궁을 높이 짓고
장생불사를 허라허구	만리장성을 둘러쌓구
동남동녀 오백길을	삼신산으로 보냈는데
소식조차 둔절허구려	인생가 왔다가 가는구려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들	한 번 죽음을 못 면하구
이 모양 이 꼴로 놀다 갑니다.	

② 초한가

이재근(63, 남) / 신원리T 1위

[신원2리 제보자택] 박중수, 강현모, 구정모, 신여훈, 이미영 조사 (1996. 6. 1)

앞의 노래를 마치고 다른 노래를 부탁하자 불러 준 것이다. 앞의 노래보다 더 자신있게 불러 주었는데, 제보자는 노래를 마치고 '노래 시늬만 냈다'고 말하였다. 제보자는 이 노래도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었던 것을 기억력이 좋아서 암기하고 있다. 가 배운 것이라 한다.

허허 청춘 벗님네야

초한성부 들어보소

선민지심이 으뜸이라두
 구리산 지면에다 대진을 둘러치고
 천하병마 모원수는
 대장배 높이 앓어
 영양성부 험한 길과 뺑성 구백 리는
 골골마다 매복이라
 패왕을 유인혈제
 기명산 추야월에
 팔천제자 흩어질제
 구추구추 깊은 밤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변방 갱님 사지 중에
 너의 패왕 쇠진혈제
 저 탐을 구지 잇고
 천금같이 중한 몸이
 호생호사 거는 마음
 너희들은 무슨 일로

한백옥의 십만대병
 초패왕을 잡으려 혈제
 절지 교묘한 진이라.
 천하지후 호령혈제
 거리거리 복병이요.
 요괴마는 인자거늘
 상 잘 놓는 장자방은
 옥통수를 슬피 붙어
 그 노래에 하여슬 제
 하날 높고 달 밝은제
 개개소 도움는 듯
 정부 사는 저 문사야.
 전장허면 죽을 깨라
 날랜 칼을 뽑이드니
 전장고혼 되겠구나
 사람마다 있건마는
 죽기를 즐기느냐

III. 모현면

1. 초부리
2. 갈달리
3. 왕산리
4. 일산리
5. 매산리
6. 동림리
7. 능원리
8. 오산리

여

백

1. 초부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모현면 초부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초하리와 부곡이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용인시내에서 버스로 20분 정도인 북쪽의 모현면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은 상부곡, 하부곡, 하초하, 상초하, 초현 등 자연마을이 모여 현재 1~4리까지 4개의 행정마을이 나뉘어져 있다. 원래의 동네는 3리와 4리가 있는 지역이며, 1리 2리는 최근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한다. 3, 4리 마을 모습은 마을 중앙에 400년과 200년 정도 된 큰 보호수를 기준으로 개천을 끼고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농촌지역이지만 최근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전원적인 농촌의 풍경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에 지네가 많았다고 하며, 마을 뒤는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준다.

2) 제보자

(1) 김봉용(68, 여)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김봉용 할머니는 경주 김가로 본명은 동윤이라 했다. 용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17세 때 이 마을로 시집와서 41년간 계속 살아 왔다고 한다. 어릴 적에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동네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머리는 하얗게 변하였지만, 연세에 비해 상당히 젊어 보였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다 잊어서

모른다고 주저하다가, 하던 빨래를 마치고 조사자들을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여 주었다. 일단 구연을 시작하자 7개 정도의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보자는 아들이 들어오자 점심을 차려주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조사자들이 가게 앞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6개를 더 구술하여 주는 타고난 이야기꾼 같은 인상을 받았다.

제공자료 : 설화 1~7, 9~11, 13~15, 수수께끼 3.

(2) 조임술(75, 여)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조임술 할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편도 아니고, 말도 조리있게 하거나 재미있게 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김봉용 할머니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구술하는 동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유도해 주곤 하였다. 연세에 비해 정정한 편이며, 종교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였다. 고향은 경기도 양평으로, 23살에 이 마을로 시집을 와서 계속 살아 왔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8, 12.

(3) 정문교(70, 남)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서울 남산 근처 광희동(을지로 6가)에 살다가 오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유학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았다. 조사자가 아무 이야기나 상판없다고 하였으나, 무언가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주로 교훈적인 것으로 이끌어 갔다. 칠순 노인같지 않게 검은 머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약간 마르고 키는 큰 편이었다. 말투는 약간 투박하지만 발음은 정확하고 또렷해서 알아듣기가 좋았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해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7~21.

(4) 천승혜(72, 여)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원래 경기도 원당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6.25 난리에 전주로 이사 해서 살다가 할아버지를 만나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제보자는 『명심보감』에 있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 『명심보감』을 비롯해 한문 공부를 한 것 같았다. 또한 72세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정정하였고, 풍채가 좋은 편이었다. 혼자 집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사자들에게 처음에 이야기를 안하여 주려다가 『명심보감』에 실려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 잠시 집에 들린 정문교 할아버지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고 간 후에야, 옛날에는 많이 기억하였는데 다 잊어버렸다며 옛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음은 정확한 편이라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었고, 친절하게 해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6, 22~23.

(5) 정봉해(79, 남)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몸집이 왜소하고 말랐는데, 그냥 보기에도 충충하고 아직 건강해 보였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서 증조부 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보자는 근처의 지명이나 얽힌 전설 등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옛날에 면장을 했었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면장님 덕'으로 부르고 있었다. 제보자는 교훈적이고 사실에 의거한 이야기만이 의미가 있지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하려고 하였지만, 조사자가 여러 차례 간청하자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기억력이 뛰어난 것 같았고 말 솜씨도 있었다. 목소리도 알아듣기 편안하고 설득조의 말투와 조사자들에게 가끔 질문까지 해가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갔다.

제공자료 : 설화 24~30.

3) 설화

① 구렁이의 복수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처음에는 아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주저하였다. 빨래를 마치고 난 후에 조사자를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청하였다. 조사자가 제보자 덕 마루에서 앉아 구렁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면 유도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실내가 조용해서 차분히 구연에 몰입할 수 있었다.

옛날에 물고를 보러 갔는데, 눈에 물고를 보러 갔는데, 그 이렇게 물고를 막으려면 띠(띠)를 띠서 이렇게 물고를 갖다가 막거든. 그런데 이렇게 띠를 요렇게 해서 띠가지고서, 왜 눈에 물 흘러내는 그 이렇게 고랑이 있잖아.

거기서 물고를 돌아 놀(농으)려면 그냥 띠를 띠서 고(거)기를 갖다 어렵게 막아야 되는데, 띠를 띠서 이렇게 쳐들으니까 큰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세 도막이 났더라. 그래 세 도막이가 났는데, 세 도막이 난 것을 그냥 집어던지고서 이냥 말았대요.

게 집으로 왔는데, 그날부터 얘기가 있더라. 게 얘기가 있어서 낳는데 아들만 삼 형제를 낳았대. 게서 아들 삼 형제를 낳아가지고서는 인자 그 아들 삼 형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다 컸는데, 어느 날인가 그냥 한날 그냥 갑자기 삼 형제가 다 죽더라, 그냥. 그 다 죽으니까, 그 삼 형제를 그냥 어떻게? 그런게 인자 그냥. 그걸 이렇게 상여에다 해서 미고서 가는데,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가 쫓아가면서 듣자니까, 아버지인지 누구인가 딴 사람 사람인지 상여 민, 민 사람이 들었겠지. 그런데 쫓아가면서 듣자니까 그러더라. 그 상여 안에서,

“얘들아, 우리가 우리 웬수 다 갚았겠지. 이만하면 웬수 다 갚아졌겠지.”

그러더라. 그랬는데 짐이를 오니까, 그냥 어머니는 그냥 데굴데굴 굴러가면서 인제 막 울고. 그 아들들때미 그냥 막, 낙심 그냥 실망을 허고선 인자 아들 삼 형제가 한날 다 죽었으니. 실망할 여지가 여지 뿐이여, 그냥 죽어도 참 선찮지. 그래서 막 울고 인제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남편더러 그러더라,

“아, 당신은 어째 그렇게 무정하냐고. 자식들이 셋이 한꺼번에 죽어도 어째 그래 눈도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 가슴

이 아파서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어째 당신은 그렇게 눈도 안 깜짝거리느냐?”

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는 말이 이러더라.

“그러면 저기 세숫대에다가 물을 좀 떠다 놓으라.”

고. 그래 ‘물을 좀 떠다 놓으라’고 그래갖고, 물을 떠다가 세수대에다 해서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기침을 몇 번 짹짹 허다니 가래침을 딱 뱉는데, 그냥 시뻘건 선지 핏덩이가 넘어오더라. 그러니까 그러드래. ‘당신은’, 아내더러,

“당신은 암만 썩고, 슬프고 저기 했어도 이런 정도는 아니잖냐? 내가 말은 안해도 나도 속이 다 이렇게 썩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해더라.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 그래서 그게 뭣이야, 저기 그런게 옛날 전설이지 뭐. 전설 전설인데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어디 가서 그렇게 큰 구렁이를 잡은 것이 있으며는 잡아죽이지 말라.”

고.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안 믿으셨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신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 그런게 그런 소리도 듣고, [조사자 : 구렁이가, 토막난 구렁이 그렇게 아들로 이렇게.] 그렇지. 그게 아들로다가 변신해서 임신이 되갓구 인제 원수를 갚은거지.

② 황희정승의 마지막 유언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이어서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의 구술에 흥미를 느끼었는지 웃으면서 하였는데, 집안에서 구술하여 분위기는 차분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잊어버렸어. 듣고 보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나라에 관한 얘긴데. 옛날에 황해 황정승이란 있잖아.

그 황정승 소리 들었었지만, 그 황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앞날을 천 년을 앞을 내다보고 저기 현 사람이래요. 그러는데, 사람이 인제 어떻게 가난한지 몰라, 정승 벼슬을 해도 가난해. 가난해 가지고 그냥 먹을게 없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부산서, 무슨 전라도에서, 무슨 저 평양에서 다 그 먼 데에서 이렇게 제기, 그 이렇게 구실, 땅 구실이 있지. 지금은 그 세금이라고 그러잖아. 그 옛날에는 그제 구실이라고 했어, 그거를. 그런데 그 땅 구실을 옛날에는 조도 가지고 오고, 수수도 가지고 오고, 메밀도 가지고 오고, 계란도 가지고 오고 뭐, 그 어려우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가져오는데.

그 계란은 가져오면은, 그 천 리 길에서 가져오다가 다 썩잖아. 개 지금은 차로다가 운반해지만, 옛날에는 차가 있어요? 그저 저기 저 소한테다가 길마를 얹혀가지고, 그 길마의 양쪽에다 이렇게 그 길마 뵈나 몰라. [조사자 : 길마가 뭐예요?] 소 등어리에 이렇게 얹어서 짐 실는게 있어요. [조사자 : 아, 짐 싣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요?]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로다가 양 쪽이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여. 그럼은 이게 소 등어리에 가서 인제 얹혀지고, 여기다가 양쪽 여기다가 짐을 실어, 그래 그러는 길마가 있는데.

그 길마에다가인가 계란을 싣고 오며는 다 썩지. 그래서 왜 저기 그래서 속담이 있잖아?

“곤 달걀 지고 성 밑에 못 간다.”

고. 그러는 속담도 있지. (일동 웃음) 그러는데 그 ‘곤 달걀 지고 성 밑에 못 간다’는 원인이 나라에서 곤 달걀을 뭘 하. 아 나라의 임금님이, 그런게 참 좋은 거나 진상해다 받치면 먹고 그랬는데, 임금님이 썩은 달걀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 밑에 가지 못하고 버린데.

버리며는 그 황해 황정승이 그런 나라에서 버리는 그 못 먹고 버린 거나 주어다 먹고 그랬데요. 그리고 절대로 나라에 피해를 안 끼치고 나라의 국록을 안 먹고. 정승벼슬을 했어, 했어도 그렇게 강직하게 살았는데. 아주 대꼬챙이 같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인자 그 정신(정승의 잘못된 발음)이 돌아갔어. 인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정신이 돌아가지고 인제 얼마 지났는데. 저 중국에서, 그때는 중국하고 서로 노제지국이라고 그래갖고, 형제라고 그래갖구 서로 땡기구 그랬잖아. 그런데 그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쳐들어 올려고,

“인제 황희 황정승이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는 이제 저기 조선으로 쳐들어가두 될 꺼다.”

그러니까 내 조선의 그전 지금은 대한이라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조선이라고 했어요.

“조선의 인재가 남았나 봐 보라.”

고. 그래갖고 무슨 짐승을 한 쫘테. 무슨 짐승을 하나 쥐가지고 어떻게 생긴 짐승인지는 몰르지. 그런데 짐승을 하나 쥐가지고서는,

“이것을 키워서, 이름을 지어서 와라.”

그래갖고 대한민국에다가. 인제 우리 조선에다 내 보낸거야 그거를. 그랬더니 그 짐승을 가져왔는데 세상 것을 다 주어도 안 먹었어. 세상 걸 다 주어도 안 먹었어. 고기를 쥐도 안 먹고, 밥을 쥐도 안 먹어. 무슨 아무 걸 갖다 주어도 안 먹었으니까, 그 임금이 큰일 났거든.

근데 그 때가 그 임금 적에가 어떤 임금인지는 내가 인제 그걸 잊어 버렸어. 그랬는데 그 임금이 어떻게 고종 황제 때문가 어째튼 청나라 허고 이렇게 저기 서루 다투고 그럴 때거든. 그럴 땐데 그래서 그 인제 짐승을 길러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을 지어줄 희망이 없는 거야. 길을 희망이 없고, 암만 좋은 걸 갖다 주어도, 쥐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임금님이 하두 답답하니까,

“네! 황해 황정승 집에 가서, 에 황정승이 돌아갈 적에, 임종시에 무

어고 유언을 남겼는고 가 들어보고 오너라.”

그러하고 인제 충신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인제 충신들이 거기를 황정승에 집을 가가지고 보니까, 왔아서 보니까 저녁에 왔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시는게 허술했는지. 그래서,

“황정승이 임종시에 무어라고 유언을 남기셨나 폐하께서 저기 가서 들어 알아 오라고 그러셨다.”

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황정승 부인이 허는 말이,

“아무 말씀도 없고, 임종시에 ‘소첩 등은 어떻게 해라고 돌아가시느냐?’ 고 그러니까, 저기 정승께서 해시는 말씀이 ‘공득이는 낮거미를 먹고 살려고.’ 그 소리 한 마디 백이는 안 하셨다.”

고 그러드라. 그래 인자 임금한테 가서,

“다른 말은 없고 ‘공득이는 낮거미만 먹고 살려고’ 그 소리 한 마디 백이는 남긴게 없다.”

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낮거미를 잡아다 쥐 보라.”

고. 그 왜 이런 벽에, 옛날 집 벽에 하얗게 이렇게 거미들이 집 짓는 거 있지? 그 속에 들은 것을 낮거미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래서 인자 ‘그 낮거미를 잡아다 쥐 보라’ 하니까. 아 그러면 낮거미를 잡아 주니까 그걸 덜 킁덜킁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방을 부쳤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광고를 부친거지. 방을 부치고 하는 말이,

“저기 낮거미를 잡아와라.”

그래 그냥 삼천 리 강산에다가 다 방을 부치네. 옛날엔 삼천 리 아 니여. 그래 삼천 리 강산에 다 방을 부쳐가지고서는 인제 그 낮거미를 잡아서 인제 해다가 그놈의 걸 엄청 크게 인제 길러가지고서는 ‘공득이’라고 말, 이름을 저서 인제 중국에다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아이구! 아직도 인재가, 조선에 아직도 인재가 남았구나!”

그러구서는 못 쳐들어 왔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고. [조사자 : 저기 그러면, 아까 소첩 등은 뭐인가요?] 응? 소첩. [조사자 : 말씀하신 거, 그게 뭐예요?] ‘소첩 등은 뭘 먹고 살려고, 뭘 먹고 살라고 대감님 돌아가시느냐고 그러니까, ‘공득이나 낮거미나 먹고 살려고’ 그러고(웃음) 했다.

3] 초립동이한테 혼난 이여송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리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이 이야기도 앞의 황희 정승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었다. 아마도 앞의 이야기와 같이 중국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이야기 생각이 난 것 같다. 그리고 구술에도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래 인제, 그래고 또 해. 그때가 어느 때인가도 몰르겠네. 응 내가 인제 얘기도 안하고 그냥 담어두니까 자꾸 잊어버려지네. 그런데 인자 중국에서 또 옛날에, 이거는 또 딴 얘기에요.

옛날에 인제 저기를 천기를 보니까, 천문학자가 천기를 보니까 조선에 명인이 삼 쌍태를 해, 했더라. 삼 쌍태면 셋을 한꺼번에 삼 쌍태를 한거야 임신을. [조사자 : 조선에?] 응. 조선에. 그래서,

“삼 쌍태를 했다.”

고 그러면서, 인제 임금한테다, 옛날에는 중국 천자, 천자는 하늘 밑에 하나.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제왕. 그랬는데 그 중국 천자한테 가서 그 천문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럼 그러냐구. 그러면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내라구. 사신을 보내서 저기 그 중국 뭐냐, 조선에 있는 삼 쌍태 한 그 여자를 사신으로 보내라.”

구 그랬어요. 사신으로 보내라니까, 그냥 어떻게 천자가 그렇게 하니까

제왕이 뭐 도리 읍지. 그러니까 그 삼 쌍태 한 여인을 중국으로다 사신으로 보냈어요. 개서 보냈더니, 그 중국에서 애기를 낳은거야.

낳는데 삼 형제여. 아들만 삼 형제. 그 아들 삼 형제를 낳는데, 하나는 큰 아들은 이여송이, 둘째 아들은 이여몽이, 에 세째 아들은 이여백이. 개서 삼 쌍태를 해서 삼 삼 형제를 낳는데, 그 인제 우리 임, 아니여 임진왜란 때가 아니여. 고 전인가. 청나라에서 쳐들어 올 때 그랬나 봐.

아마 청나라에서 쳐들어 올 때 그랬는데, 그 인제 쳐들어 오니까, 우리 조선이 인자 미약하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미약하지. 그런게 미약하니깐 군사도 그렇고, 참 인제는 많다고 해도 항상 미약한거여. 그랬는데 에 삼, 그 뭐여. 저기를 쳐들어, 청나라에서 쳐들어 오니까 중국에다가 구한병을 청한거야.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고. 구한병을 청하니까, 하필 온다는게 그 이여송이 선봉이 온거여. 이여송이가 선봉이 되서 되서 왔는데, 와가지고 그때 와서 승리를 했데요. 그 조선이 승리를 해서 에 이겼는데, 이기고서는, 이겨놓고서는 이여송이가 가만히 산, 산세를 둘러보니까, 산 마다 땡기면서 산세를 둘러보니까 명인이 수도 읍이 날 산세더래. [조사자 : 조선에요?] 우리 조선에. 그래 인제 명인이 그렇게 수도 읍이 날 산세고, 그렇게 산세가 좋고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에-, 인제 여기가 제 조상의 고향인 것도 몰르고, 지 엄마의 고향인, 고국인 것도 몰르고 그런거지. 그래가지고서 인제 이 사람이 자기에 그 창검을 옛날에는 창검이라고 그러잖어. 그 창검을 빼가지고서는 그냥, 칼을 빼가지고 산마다 다 다니면서 산혈을 질렀대.

그 옛날에 그 명인들은 그 산혈이, 어느 혈이 어떻게 되면 무슨 장수가 나고 그걸 다 안데요. 장수들은 그러는데. 그 산혈마다 다 땡기면서 혈을 질르다가, 오대산에 들어가서 혈을 질르는데, 오대산을 들어가서 산혈을 냅다 질르니까 그냥 피 두 줄기가 그냥 하늘로 뻗데 뻗치드래. 그래는 바람에, 그러고 칼이 푹 뿌러지드래요, 중등이. 그런게

이 사람이 그냥 기절을 한거야, 인제. 거기서 정신을 잃고 한 동안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얼마인가 깨어나가지고,

“대단히 이상도 하다. 여태까지 산혈을 땀기면서 질러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가?”

그리고 인제 죄 땀기면서 산혈을 구경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는 자기 5대조 할아버지 분묘의 혈을 가서 질렀다네. 그러니까 그냥. 5대조 할아버지 산소가 잘 들어가지고 자기가 삼 쌍태를 했는데, 그 혈을 가서 질른거여. 그런게 죄 혈을 질른거지 뭐 말하자면. 그래서 그 죄 혈을 질러 놓고서는 인제 이 사람이,

“이까짓 것 우리 5대조 할아버지 산혈도 질렀는데, 이왕이면 그냥 다 땀기면서, 전국을 다 땀기면서 질른다.”

구. 그러고서 전국을 방방곡곡을 뒹져서 다 땀기면서 질러다가, 전라도 뭐야 결국은 뭐여 저기 저 이런 평민들이 말할 적이는 지리산이라고 그러거든. 그런게 그 책에 저기 하면 지이산이라고 그 했다. 지이산이 맞는 거여, 지리산이 맞는 거여. 그래 그 지리산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인제 그 중등 부러진 칼을 가지고 냅다, 거기서 그냥 혈을 질러려고 팔을 냅다 치켜들으니까 그냥, 큰 바위 위에서 조그만 초립동이 아기가 그냥 오흘스더니 하는 말이 그러드래요.

“하이 네가 이놈! 중국에서 구한병으로 나온 아무개, 이여송이가 아니냐?”

고. 천둥같이 혼령을 하더래. 그래는데 그걸을 칼로 그 사람을 치래도 팔은 움직여지지도 않고, 쫓아갈라고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다 땅에 붙고 웅작달짝도 못하더래. 그래 그냥 그 꾸지람을 다 듣고 있는 거야. 천둥같은 호령을 다 듣고 있는거야. 듣고 있는데,

“이놈! 이여송 네놈! 네가 여기다가 혈을 질르며는 죽고 남지 못할 거니까. 빨리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팔 니리고 니 본국으로 돌아가라.”

고. 천둥같이 호령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젠 겁이 나서, 그 인제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서 가라’니까, 그저서 발이 떨어지더라. 그래 그저서 발이 떨어지고 팔이 내려지고. 그래가지고서 인제 나와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다가 그 들 닦아서 돌아다 보니까 바위 위에는 아무 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우리 조선에 산혈을 그때 다 그렇게 해서, 질러가지고 지리, 지리산 하나만 저거를 못질렀대요, 혈을. 그래서 우리 조선 산마다 다 그렇게 혈 질르고 지리산 하나만 그래서, 전라도에서 인재들이 많이 난다고들 그래요. 개 저기 머리좋은 사람들 전라도에서 많이 나잖아요. 개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대요.

게 그랬지. 또 일본사람이 와 가지고, 일본이 득세해 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서 이 산혈마다, 그 북어에다가 북어에다가 마른 북어 있잖아. 그 마른 북어에다가 일곱 매를 묶어가지고 다 산혈마다 다 갖다가 파묻고, 다 혈을 또 질러왔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래 명인이 못낳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들이 읊잖아요. [조사자 : 지금 빼어내는 작업 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 예? [조사자 : 빼내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 산혈 그렇게 질러 놓은게 천 년이 돼야 다시 그 응기가 다시 돈대.

4 명당을 잃은 아들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다고 한다.

그러고 뭐 또 얘기 한 마디는 또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러드라.

“아이 나는 죽거랑은 저 개울 쪽에다 갖다가 물어 달라.”

고. ‘개울 쪽에다 갖다가 물어 달라’고 그러드래.

“개울 쪽에 아무데고 덮푸생이 밀창에다 나를 갖다가 물어 달라.”

고. 그래서 인자 아버지 말씀이니까 인제 저기 그냥 들은거여, 그걸. 승을 허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인제 거기다 물을 지관을 데리고 가서 인자 파는데, 지관을 디리고 가서 이렇게 파니까 큰 암반쪽같은 그냥 바윗돌이 쭉 깔렸드랴. 그러는데 판게서리 요 발목뼈이 안 올라 오드랴. 그러는데,

“거기가 물어 묻으라.”

인자 아버지가 그런 거니까, 거기다 아버지 장사를 모셔야 할텐데, 깊이 파야할텐데, 개울섭이고, 그 얇이 파면은 신체가 떠내려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더 깊이 팔래니까, 지관이 이응 못파게 하더래. 그래, “왜 못 파게 했느냐?”

고 허니까,

“이걸 파면은 못 쓰니까 파지 마라. 그냥 여기다 모시고, 흙을 긁어다가 흙을 긁어 이렇게 모아서 덮어라.”

자꾸 그러드랴. 그러니까 인자 상주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깊이 파서 저기 아버지를 깊이 무셔, 모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얇이 모시느냐? 그러면 만약에 장마가 지며는 아버지가 떠내려 가면 어떻게느냐?”

고. 그러면서 자꾸만 거길 파. 그래 이냥 작업해는 사람들더러 그냥,

“파라고, 내가 파라면 파라.”

고. 그러고 인자 호령을 허니까, 그 일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저기로다가 곡괭이 있지. 곡괭이로 한 번 내리치니까는, 그 돌이 그냥 팍 깨지면서 이냥 땅바닥으로 딱 가라 앉드랴.

가라앉는데 보니까, 그 밀창이 그냥 물이드랴, 그 밀이. 그 바위돌 밀이. 그냥 물인데 거기 금붕어가 그냥 얼마나 이쁜 금붕어가 그렇게 놀고 있더니, 그 바위돌이 딱 깨져서 거기 들어가서, 이 공기가 들어가

니까는 그 금붕어가 다 죽드라.

그래가지고서 거기다 장사를 못 지내고, 장사를, 그렇게 되면 장사를 지내도 못 쓴데. 그래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 뭐 짧지 뭐. [조사자 : 안 깬었야. 그것이 명당이었는데?] 물론 명당이, 명당이었는데.

5 어머니는 남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명당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준 것이다.

그래 인제 그렇다. 또 인제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딸은 시집을 보냈는데, 인제 뭐야. 딸은 시집을 보낸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마누라를,

“당신은 좀 나가 있으라고. 나가 있으라.”

고 그러드라. 그러니까는 인제 나가가지고, 임종을 헐텐데, 임종을 헌텐데, ‘나가 있으라’고 허거든. 그래 인제, ‘왜 나를 임종시에 왜 나를 내보냐?’ 싶어서 마루라가 나가가지고 창문 밑창에서 들으니까, 아 남편이 아 들더러,

“저기 내가 죽거랑은 부엌에 살강 밑에다가 거길 파고서 나를 묻어다오. 그리고 다른 데다기는 헛장사를 지내라.”

그래 빈 판을 갖다가 묻으래.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어달라고. 그러니까는 아 이놈의 저기를 그냥 다 들었지 뭐야, 마루라가. 그러니까 창문 밑창에서 그 마누라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아들이 인자 아버지더러,

“아버지! 왜 그러면 어머니를 왜 나가시라고 그래셨어요?”

그러니까,

“야! 니 어머니는 외인이 아니냐!”

그러드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니 어머니는 외인이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 거다.”

그러드라. 그래가지고서 장사를 인자 살강 밑을 파고서 인자 장사를 아들이 몰래 지냈지 뭐여. 그래 몰래 지내고서 인자 헛장사를 탄 디다가 갖다 관을 해서 인자 헛(헛)장사를 갖다 지냈는데, 이놈의 어머니가 다 들었으니까 그것 폭로가 된거지 뭐여. 그래 폭로가 돼가지고 그걸 관가를 들어가게 돼잖어. 그래 관가를 들어가니까, 관가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절대 아니라.”

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살강 밑을 갖다가, 옛날에 그 부엌에 이런 살강이라고, 저 지킴은 이런 차단스(서랍장)가 있지만, 옛날에는 불 때는 부엌에, [조사자 : 아궁이로 이렇게,] 응. 그런 불 때는 부엌에다가시리. 부엌이 있고, 그 옆이다가 이 그릇간이라고 이렇게 칩을 때서 이렇게 해서 지어놓은게 있는데.

그 살강 밑이다 묻으라고 해서, 거기다 인자 묻었는데. 백 일이 됐다나 봐. 아마 백 일. 백 일이 됐는, 백 일이 쪼금 안 됐다나 봐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묻으면은, 거 거기 명당짜리네. 명당짜리가 자기가 죽어도 저기가 된데요. 무슨 장수가 된데요. 장수가 돼서 나오는 거래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렇게 돼가지고서 인자 딱 관가에서 나와서 저기를 그냥 인자 봤어요. 그래 인자 군사를 시켜서는 인자 봤는데. 파가지고서 보니까 벌써 다 환생이 됐드라, 그 아버지가. 다 환생이 돼가지고서 그 뭐여 저기를 그냥, 그 죽은 몸이 다시 환생이 돼가지고서 장수로다가

변신을 해서 환생되더라요.

그랬ندی 이냥 그걸 파내니까 이냥, 그냥 썰어져 빠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래 저기 어머니는, 어머니는 성이 각각이라 외인이야. 어머니는 그런게.

[조사자 : 어머니는 남이다.] 예. 어머니는 남이래. 그러니까 남편 허고도 살다가 암만 친해도 뭐야, 친하고 잉꼬 부부하고 해도 남편허고 살다가 이혼허고 돌아서면 그만이잖어. 그러니깐 남이래. 딸도 남이구, 그래 그런 말이 있어.

6 고시래의 유래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

[초부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짧어. 나가면은, 그 이렇게 일꾼들 밥해서 이구 가잖어요. 이구 가면은 그 이렇게 먼저 밥을 떠서,

“고시래!”

그래잖어. 그 고시래가 아니고 ‘고씨네’래. [조사자 : 고씨네요?] 그 고시래가 아니고 고씨네래. 그 왜, 그는 왜 그러느냐면은, 그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 고씨의 아버지가 저기 돌아가면서,

“나는 죽결랑 아무데 아무개네 집, 그 아무데 가면 그 무슨 집이 있는데, 그 굴뚝을 파고서 그 굴뚝 밑에다 묻어 달라.”

고 그러드래. 굴뚝. 그래 이게 굴뚝이 있는데, 그 굴, 불을 때면은 여기로 다가 이렇게 굴을 타고 나와서 여기서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가 명당자리라고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래. 그래 묻어달래니까는 이냥, 저기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말이니까, 아버지 그것도 유언인데.

그러니까 이냥 아버지가 인자 나중에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지게에다 지고 가서, 그 굴뚝을 인자 호미로다 달그닥 거리고 파서 거기다 묻었데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묻어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허고 나니까, 인자 아들은 그냥 인자 망해진 거여.

인자 그거를 알게 되었잖아. 그래 인자 고씨의 아버지를 거기다가 그렇게 인자 장사지낸 것을 알게 되니까는, 아 그지에서는 가만히 있을 거여. 동네 사람은 가만히 있을 거여. 그러니까 그냥 밭도 못 붙이게 내쫓아 버린거지, 뭐여. 내쫓으니까 그 뭐여 저기 그 고씨가 뭐여 얻어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들에서 일 해는 사람들이, [조사자 : 아하 쫓겨난 고씨 먹으라고.] 응. 그러니까 그냥 조상도 못 받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냥 그 밥 한 손갈씩 떠서 그냥,

“고시래!”

허는 거지. 그게 고시래가 아니고,

“고씨네 먹어라.”

그러는 거래. 그게.(일동 웃음)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조사자 : 고씨네가 고시래 똥다고요?] 응 고씨네가 고시래 똥거라고.

7 산삼 동자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앞뒤

[초부리3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효자나 효부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해 준 것이다.

그 얘기는 못 듣고, 저기 저거 소리는 들었어요. 한 번 뭐여 저기,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냥 집이 엄청 가난하더라. 그래 가난한데, 그 가난한 집에서 만날 밤이면 밤낮없이 바느질을 하고 그랬는데.

밤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자니까, 저기 뭐여 저기가 조그만 애기가, 빨갭게 빨간 애기가 들어오더라. [조사자 : 빨간 옷을 입은 애기가요?] 아니, 그냥 빨개벗은 애기가, 그 인형같은 그런 애기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 애기가 들어와서 인제 이야기를 해고 이래다가, 또 인제 시간이 되면 가고.

그래 이냥 몇 번을 그러더라. 그래서 새댁이 하도 이상스러워서 그 빨간 애기 다리에다 명주실을, 실을 매주었는데요, 발목에다. [청취불능] 실은 매쳤는데 그 애기가 가면서 예,

“잘 있으라.”

고. 그리고 가면서, 저기 아이구 가면서(Tape1 뒷면에 계속) 인자 저기 밤에 자니까,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에 아무개! 가서 아무 낭구 밑을 파 보라.”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것을 하루 저녁은 그냥 지나고, 또 그 이튿날 또 그렇게 그 할아버지가 와서 또 일러주더라.

“거길 가서 파 보라.”

고. 그러는데도 또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흘 연거푸 사흘을 꿈에 보더라. 그 똑같은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무데 가서 너,’ 사흘 저녁이는데,

“아무데 가서, 너! 왜 그 낭구 밑을 파보라니까 왜, 너 말을 안 듣느냐?”

고 그러더라. 근데 그 실 매준 것은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하도 이상스러워 인제 이 사람이 실을 따라서 간겨. 실을 따라서 가니까 뒤동산에, 뒤동산에로다 올라갔더라.

올라가지고 그 낭구 밑창에 가서, 무슨 이런 저기 쪼그만 저기가 있는데, 싹이 있는데 그 싹에다. 싹에 가서 실이 매여 있더라. 그래 그걸 캐니까 산삼이더라. 그래가지고 그집 그게 산삼 한 뿌래기 캐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옛날에 산삼이라면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산삼이라면 다 좋아했잖아. 그래 산삼 캐어가지고 인자 큰 부자가 되어 살았더라고요.

8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꽃감

조임술(75, 여) / 초부리T 1뒤

[초부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제보자를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만나 구술을 부탁하였다. 워낙 아는 것이 없으면서 사양하다가 ‘이것 망신 당하는 거 아니여?’라 하면서 들려 준 것이다. 이야기를 잘 하는 편도 아니었고, 길 옆에 있는 구멍가게라 주위가 산만했다.

호랑이 잡은 것은 어린애가 울잖아. 호랑이가 그집에 들어와서 그 애를 저기 할라고 하니까 그 애가 울거덩, 그러니까 호랑이가, 옛날에는 인자 담도 뛰어넘고 그랬거든. 그랬는데 인제 애가 우니까,

“꽃감 즐겁게 울지 마라. 꽃감 즐겁게 울지 마라.”

그러거든. 꽃감이란게 응 저기 꽃감 즐겁게 울지 마란게는 꽃감이 엄칭, 호랑이가 그 사람 집에, 그를 잡으러 왔는데,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보다. 꽃감이 나보다 더 무섭길래 애가 안 울지.”

이러고. 자기가 도망을 가는 거야, 그게. 그래서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섭다.’ 이렇게 내여온 말이 그 말여. 딴게 아니여.(웃음) 해고 우섭고 싱겁지 뭐여, 그렇게 말 헛거고.

9 집 지킴 구렁이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뒤

[초부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식사를 마치고 가게에 나온 제보자에게 이야기 해 줄 것을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임술 할머니가 옆에서 이야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길가의 구멍가게에서 구술하는 탓에 실내에서 구연할 때 보다는 산만한 분위기였다.

물방간이라고 돌아가면, [조사자 : 물레방아?] 응 물레방아. 돌아가면서 쪼는거여. 그런데 그 왜, 참 옛날에는 귀달린 구랭이가, [조사자 : 이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귀달린 구랭이가 나타나요, 집붕 위에서.

집붕 위에서 나타나는 걸을 가만 두면 되는데 그걸 죽인거여. 죽이고 나니까 방아, 거기가 그 집이 아주 탁 망하는 거여. 그래서 이런 데도 큰 구랭이는 사람을, 죽을 사람만 몰지 죽지 않을 사람은 안 문데는 거여. 그래서 옛날에 여기 구랭이가 그 그렇다는 것, 귀구랭이가 있대는 거여.

그 집, 이 집 사람들이 이 집 지금 교회를 믿는 줄은 몰라도 말이오, 집이서들(조사자를 지칭).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지킴이래는 것이 있는 거여. 그러한 지킴들. [조사자 : 집 신?] 응. 신도들은 다 신, 이 지킴이래는 게 있는 거여.

그 꿈자리 망해면은 꿈에서 해몽, 저기 되지 않우. 그러더니 거기서 망허더니 오늘 이렇다. 언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다. 그 꿈택 했다. 지금 참 말로는 뭐 귀신 마귀가 어디 있느냐 해도 다 지킴이 있고, 있는 거여.

10 일만 하다 죽어 개가 된 어머니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뒤

[초부리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것을 부탁하자 구술한 것이다.

있잖아. 구경이란 못 가고, 헌데 어딜 가니까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 그래 인자 개 한 마리 갖다가 집에다 가서 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저기가 되거든? 엄니가 되거든? 도섭이여. 하 그래서,

“하 이상도 허다.”

개가 그래서, 묘에 가며는, 지어머니 묘에 가며는 거기에 가서 환인이 되어 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여, 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보니까, 저기하고 허니까는,

“참 내가 집만 지키느라고, 집만 지키다가 인제 개가 된거여.”

그제 인제 그 개가 딸네 집에도 가고. 그래서 그 개, 개가 돼서 아들이, 그 개를, 그 딸네 집으로 가니까, 누나네 가니까는,

“안 왔다.”

이거여. 그 개가. 그러면 어딜 갔나 하고 어디로 가니까, 참 선에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있다가도 저기 해데, 도섭을 했어. 어머니여. 어머니 환상이 되어져 있길래. 근데 집을 오면 또 개가 되여. 또 와가지고 개 노릇을 하고 있다가서, 그 아들이 효자여.

“사방팔방 다 그냥 안맹긴 데가, 우리 어머니가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개가 되었다.”

고. 그걸 저기 혀. 뭐여. [조사자 : 개를 다니며 구경시키는 거요?] 영. 지고서. [조사자 : 망태기에?] 망태기에 지고서 그렇게 매일 사방팔방을 구경을 다 하곤 어머니 산소 앞에 갖다 놓으면서,

“어머니! 이제 저기 구경 다 하셨습니다.”

하니까는. 저기가 되더라고. 환생 해가지고 죽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개를 죽으니까 물어놓고, 이제 집에 오니까 그런 저기가 되더라고? 그래서 개를 먹을 때는, 개 먹으면 어떤 때는 개가 어렵다는 것 아니예요?(청중들 웃음) 그래서 그런 거여. 그래서 개가 되고.

II 저승갔다 온 이야기

김봉용(88, 여) / 초부리T 1위

[초부3리 가계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개에 관련된 것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사람이 죽었제. 그래 내가 인자 죽었잖아. 내가 죽었는데 까무러 친 거야, 이걸. 근데 저승을 간 거예요. 저승엘 갔는데 참 거기서,

“일찍 왔다.”

고. 그러면서 강아지 하나를 줘요. [조사자 : 강아지름요?] 강아지를 하나 주니까,

“강아지 가지고서는 너의 집을 가라.”

고 가는데. 강아지를 가지고서는 어 나는 졸졸졸 그냥 개 쫓아오는데, 이 개가 다리 외나무를 건너니까 탐방 빠지거던. 그 탐방 빠지니까 나도 깜짝 놀라 깐거야. 나도 깜짝 놀래 깨니까는 사람 다 모였지. 엄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돌아갔다고. 다 모여가지고 버거지를 치는데, 눈을 뜨니까, ‘그 왜 그러냐?’ 어머니,

“왜 이러들 이렇게들 그러느냐?”니까,

“사실이 이만저만해서 그랬습니다.” 하니까.

“저승길이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전설에 내려오는 그 얘기여. 왜 그러는고 그래서 산거고. [조사자 :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구경도 하고 이러란 얘기지요?] 영. [청중 : 그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구경 자꾸 시켜 드려. 자주 시켜드려. [청중 : 그러면 나는 제법 구경했으니까 개는 안 되것구만. 외국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것 개는 안 되것어.](웃음) 나도 안돼. [청중2 : 근데 사람이 죽어서 개 되는 게 좋은데.] [청중 : 개가 되어 좋은 게 뭐여?] 아니여.

그 아버지가 엄니가 돌아가나. 엄니라나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귀신을 쫓, 귀신보는 사람이 쫓아가니까 그냥 전부 사람한테로 가고 그러더라. 그래 또 쫓고 못하게 하고, 소한테 가도 안 되고 하니까, 개하고는 개한테 정말 참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이렇게 만나는 거야. 왜 고려느냐면. 환생, 개로 환생된다면은, 이 환생이 쉬 빨리 된데요. 개는 빨리 죽으니까.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개로 태어나는게 회전이 빨르더랜거지. 이 세상으로 돌아가 오는, [조사자 : 윤회가.] 윤회가

빨리 다가온데. 그러니까 개면 어때? 난 나중에 개가 되어도 그냥 좋으니 될려. 남자도 될려.

12 까치머리가 하얀 이유

조임술(75, 여) / 초부리T 1위

[초부리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한 동안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제보자가 이야기를 이었다. 제보자는 <칠월칠석> 이야기와 <은혜깊은 까치> 이야기를 혼동하고 있었다.

칠월 칠석날 칠성할머니, 칠성할아버지 만나는 날이여. [조사자 : 칠월 칠석날요?] 응 칠월 칠석. 음력 칠월 칠석에.

그렇게 만날 때는 인제, 그 칠월에 봐요. 그때 여섯날부터 까마귀가 읊어요. 까막 까치가 하나도 읊어. 까치, 까치가 하나도 읊고.

그 칠석날 지나서는 머리가 하얘요. 개 칠성네 할머니 할아버지, 칠월 칠석날에 그 만나게 다리 놓느라고. 그래서 다리 놔 주고 거래. 은혜 깊느라고 종을 쳤대는 거여. 그게 그 까치가. 그래서 여기가(머리를 만지며) 하얗데요. 그렇지.(칭중 웃음) [조사자 :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어진 거요. 까치가.] 영.

13 은혜 깊은 까치(상원사의 종소리)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위

[초부리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하나로 묶어 구술하자, 그 이야기가 틀리다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그게 아니여. [청중 : 그럼 뭐여.] [청중 : 그래 거기서 이렇게 대화 해 가며 해. 모자라는 것은.] 종 친다는 것 칠성이, [청중 : 칠성여.] 아니여. 아니고.

까치가 종 친 거는 어느 저기 뭐 과학자, 아니 과거보러 간 유생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데, 서울로 가는데 저기 옛날에는 차가 읍니까 걸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저기를, 뭐여. 어느 깊은 산골에를 이렇게 가다가 길이, 길이 맥혀서 저물기는 하고, 길이 맥혀서 인가가 읍으니까 인제, 인가를 구했으면 좋은데 두리번 두리번 하니까, 그 사이로다가 저기 반짝하는 불빛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저기를 가서 주인장을 찾으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래. 그 예쁜 아가씨가 나오니까 아가씨더러,

“여기 하루 저녁쯤 자고 갈 수 없냐?”

고 그러니까.

“아이. 자고 가라.”

고 기뻐하면서 ‘자구 가라’고 하더래. 그래서 인제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는데, 자다고 보니까 자기를 죽일려고 그러더래. 그게 뱀인데. [청중2 : 구렁이지, 그건.] [청중1 : 그건 뱀이지. 이 까치는 칠월 칠석여.] 아이 글썽 가만히 있어 봐. 그래서 인제 죽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는 몇 시가 되며는, 몇 시까지 너를 죽이고, 몇 시가 되면 니가 그때까지만 안 죽으면 너는 산다.”

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 인제 이 남자가, 그 아내도 있고 부모도 계시고 그런데, 아 깊은 산중에서 그렇게 뵈으니까 얼마나 당황해. 그래 당황하니까 인자 아 참, 자신 자기 속으로 인자 그냥 근심을 해는 거야. 그 근심을 해면서,

“아, 내가 오늘 저녁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말면, 처자식과 부모는 어떻하나?”

그래 이려고서나 인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 ‘네가 그 몇 시가 지나가면 살고, 몇 시 안에 저어기 네가 죽게 되면 아주 영 죽는 거라’고

그러는데, 고 새벽 몇 시라나 새벽 네 시라나? 그렇게 된다니 봐. 그런데 그 시간 안에, 그 시간이 되면 죽는다니까,

“그 시간 안에 난데없는 중,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려는 살고, 네가 살 운이면은 그 종소리가 들리면 살고, 그 종소리가 안, 몇 시까지 안 들리면은 너는 죽는다.”

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 종소리가 인제 뭐 이런 깊은 밤에 들릴 리는 옹고, ‘아, 꼼짝없이 내가 죽겠구나.’ 하고. 인자 근심을 하고 있는찬데, 난데없는 종소리가 나더래. 난데없는 종소리가 나니까는 계집이 이를 갈면서, ‘내가’ 계집이 그 뱀인데, 뱀인데, 남편을 죽였데, 그 남자가. [청중 : 구렁이여. 구렁이.] 그 남자가 그 뱀이(의) 남편을 죽인거라요. 그래 죽었는데 그 뱀이 인자 그 죽인 뱀에 아낸데, 근데 그러니까 인제 사람으로 일으면 여자지. 그 여잔데 원수를, 남편의 원수를 갚을라고. 원수를 갚을라고 그렇게 그것 변색을 한건데, 거기에 얼켜 들어 간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아 난데없이 종소리가 나니까, 아 이 여자도 당황한 거여. 그 밤에 그 종소리가 날 일은 없는데. 그래 당황해가지고서,

“아, 네가 천운이라구, 너는 너는 천운이지, 이 밤에 이 시간에는 종소리 날 시간이 아닌데 이 종소리가 들리니까. 네가 너를 꼭 죽여야 내 남편의 원수를 갚는데, 너를 못 죽이니까 내가 그냥 간다.”

그러고는 하더래. 그래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면, 왜 그 남편을 죽였냐며는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디를 이렇게 어느 산중을 가니까, 그 산중에 까치가 죽어라고 그냥 짓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가 보니까, 뱀이 까치를 물고 잡아 먹을라고 까치를 물고 안 놔주더래. 그러니까 그 뱀을 활로다 썬서 죽였대 이거여. 그래 인자 그 여자의 남편이라야 이거야. [조사자 : 그 죽은 뱀이.] 응 죽은 뱀이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죽었는데, 과거를 보고서 오다가 집에

인자 갈 길인데, 오다가시리 그 뭐여. 무인지경에서 집을 못 만나 산 산고랑탱이서. 지금은 산꼴짜고니에도 다 집이 있지만, 옛날에는 집도 읍잖아, 그 두메 산골이고. 그러는데 인자 불빛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갔더니 그 여자를 만난거야. 그 유인한 거지 뭐여.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인제 그렇게 종소리가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 날이 새서,

“이상하다. 종소리를, 종을 누가 울렸나?”

그러고. 거기 그 종간 밀창애를 가니까, 까치가 종 세 번을 울리고 서는 직 대가리가 부서져서 죽었데요. 그렇게 까치가 그 뱀한테 죽을려는 것을 살려줬더니, 그 은혜를 그렇게 갚고 죽더라요. 그게 그런 말이지.

14 칠월 칠석 생김 유래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위

[초부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까치가 종을 울렸다는 앞의 이야기에 대한 구술을 마치고 나서, 제보자와 조임술 할머니가 까치가 다리를 놓은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차에 이어진 이야기다.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이다.

칠석날도 다리 놔 주는 거여. [조사자 : 칠석날 무슨?] 칠석날 다리 놔주는 거여. [조사자 : 그 칠석날 얘기를 다시.] 그 칠월 칠석날 그 까치가 다리 놔주는 거여. [청중2 : 다리 놔 주는 거, 저 뭐여. 저 나무까쟁이 이런 나무까쟁이 그거 물어다가 이자 이렇게 엮어서 그게 다리는 거여.] 글썸 하이간 다리 놔준데. [조사자 : 이유없이 그러지는 않을 걸 아니예요?] [청중2 : 아니 글썸, 그러니까 그 칠성 할아버지 칠성할머니 만나기 위해서. 그 글썸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오잖아. 비가 온, 칠월칠석 날에는 조금이라도 온다는 거지. 그게 그래. 그래서 만나서 칠성 할아버지의 눈물이 난다는 거여.]

옛날에 천상에서 선녀 선관인데, 선녀 선관끼리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데요. 죄를 저가지고서, 인자 아마 그 천상에서도 선녀 선관끼리 지금 허는 말로다가 아마 연애를 걸었나 보지.(일동웃음)

그런게 그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읊는건데, 그러니까 죄 아녀. 그래가지고 이 여기로다가 인자 내칠라고 인제 저기를 하는데, 그 선녀 선관끼리 인자 탄로 났다 이거여.

탄로 나갔고 그 인자 그 은하수 있잖어. 은하수. 은하수 건너편에 놓고 하나는, 하나는 이편에다 놓고. 그러더니 띠어 났으니, 그 은하수를 건너야 헐틴디 만날 길이 읊잖어. 만날 그것만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울고, 남편은 이네를 바라보고 울고.

그렇게 바라보고 우는데, 이 까치들이 가서 그 은하수 다리를 나무데기, 그 저기 왜 나무데기 그 공간이 있잖어. 마른 공간. 그런 것을 그 오랜 전설에 있는 까치가, 까막 까치가 그 막대기를 물어다가 그걸을 엮어서 그 은하수 다리를 났다는 것 아녀여.

그래서 저기를 딛고서 건너가고 건너오고. 서로 중간에서 만나서, 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다 건너오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만나는거지. 그래 중간에서 만나서, 서로 만나서 눈물들만 흘리고서는 인자 도로 등 다면 그날이 흘러간데.

[조사자 : 그래서 칠석날 비가 오는 거여요?] 예. 그래서 그게 칠석날, [조사자 : 흘리는 눈물이.] 예. 그래서 그기 칠성 할아버지 칠성 할머니 눈물이라는 거여. 그래서 그런게 그 얘기이지. 종작 얘기는 그게 당치도 않은 것이지. 왜 종소리가 거기에 왜 들어가어. [청중 : 글썽, 나도 몰라. 나이가 연세도 많으면 황수면 그런 거야.] (조사자 웃음)

15 제마무전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뒤

[초부3리 가게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칠석날 까치가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옛날에 책에서 읽은 것인데 잊어서 할라나 모른다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혼자서 하였다.

그런게 제마무전이란 책이 있거든. 옛날에 소설책인데 [조사자 : 제마무전?] 제마무전. 제마무 전.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제마무여, 이름이.

제마무인데, 그 제마무라는 사람이 그냥 가난해요. 이런 산골에서 가난한 집 농부에 자제로서,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냥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저기를 안 시켜 줘, 과거를 못 보게 해.

그냥 과거를 못 보게 하니까는, 그 남자가 그제 한이 되서, 한이 맺어서 과거를 하러 보러 가면은 그냥 빈부의 자식이라고 떨어뜨리고. 과거를 못 보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이냥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가슴에 한이 맺힌 것이여.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서 이 남자가, 이 남자가 인제 한날은 그냥 제 발로다가 몇 발 되는 그냥, 그냥 저기에다 두루마리에다가 원정서 썼어.

진정서가 아니고 원정서. 원정서를 거기다가 몇 발 되는 두루마리에다가 원정서를 써서 그걸을 착착 도로 접어가지고 거기에다 불을 대려서, 불을 붙혀가지고서는 이냥 이렇게 이냥 날렸거든. 그래 하늘로 이렇게 날렸는데, 그 원정서가 저승에까지 도달했더래요.

그냥 저승에까지 도달해가지고서 저승에서 그걸 보니까, 옥황상제가 그거를 봤어. 보니까 참 한이 맺힌 글이거든.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 제마무가 죽었데요. 또 제마무가 그 원정서를 써서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그러는 거야,

“내가 죽결랑 삼 년 동안 손도 대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두래. 이불을 덮어서 그냥 놔두래.”

뒤편을 알았던지. 그래서 이불을 덮어놓고 그냥 사람도 들어오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갖다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래 그냥. 그러고서 그냥 죽었어. 죽었는데 그 원정서는 인자 하늘 나라를 간겨여.

그래 하늘 나라에 가가지고서는 인제 있는 옥황상제가 그걸 참 본거여. 보니까 참 기막힌 사연이더라 이거여. 참 기가 맥힌 사연을 보고서는 인제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데, 그 머슴이 인제 하늘 나라의 저승에 갔잖아. 저승에를 갔는데, 이 사람이 저승을 가 가지고서는 하늘 나라 옥황상제 앞에 가니까, 옥황상제가 하는 말이,

“너는 저승, 저기 저승에 가서 문서장을 넣기는 네가 채판관이 되어 갖고, 그런니까 저승에 무엇라고 그러지. 그거를. 무슨 대왕 [조사자 : 염라대왕.]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이 되어갖고 그 문서장을 넘기고서, 삼백 년 동안을 죽은 혼신이 환생을 못했는데. 삼백 년을.”

삼백 년 동안을 죽을 혼신이 저기 환생을 못 했으니까. 그 채판관이, “저거나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서 그 환생을 못 시켰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삼백 년 동안 환생 못한 영혼을 환생을 시켜라.”

이거여. ‘환생을 시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젠 저승으로 갔데요. 저승으로 가서 채판관의 그 문서장을 자기 인제 붙들고는 인제 삼 년을 그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전부 환생을 시켜서,

“너는 어디로 가서, 네 혼은 어디 가서 뭐여 김아무개로 가서 뭐로 태어나고 이름은 뭐다. 너는 박아무개 집으로 가서 이름은 뭐고, 너는 뭐가 되서 앞으로다가 무슨 장수가 되라. 누구 손에 죽었으니까 너는 일에 지상에서 환생해서 그 사람을 가 죽여라.”

다 이것을 삼 년 동안, 삼 년이 저승에서는 사흘이래요. 사흘 동안을 그거를, 문서를 다 마친 거여. 인자 마쳤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초초패 초패왕이라 있어요. 초패왕 시절에서부터 삼백 년을 내리 환생이 안된 거여. 그래가지고 그 초패왕 시절부터 모은 혼령이 저 왜 저기 저 장비, 관우, 유현덕 있지? 그 때가 그냥 조조, 무슨 조자량, 무슨 제갈공명, 그때 얼마나 많은 장수가 났어요. 중국에.

그런데 그때 제마무가 천상 뭐여, 저승에를 가서 그 혼 삼백 년 묵은 혼을 다 한꺼번에 그냥 처리를 했더라요. 문서장을 넘겨가며. 그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리가지고 그 때 삼국지 그 삼국지에, 삼국지를 읽어 봤어요. 그 삼국지를 보면 나 삼국지를 몇 번 봤거든.

옛날에. 삼국지를 보면은, 보면은 삼국지에 장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잖아! 그 장수들이 제마무가 가서 다 그게 저 한거래. 이것은 전설로도 가만은 볼 수 없는 거여. 또 현실로도 짐작할 수 없는 거야. 뭐여. [조사자 : 알쏭달쏭.] 알쏭달쏭 허지. 그러는데 그래갖고서는 인제 그 제마무가 그렇게 하고서는 저기를 펜을 던졌데. 펜을 던지면서,

“에이, 이런 짓을 못해고서, 이렇게 삼백 년 동안 묵혔나!”

고. 그러고서 인제 던지고서 옥황상제 앞이루 되루 가니까. 옥황상제가,

“너는 아직 여기 들어올 때가 아니니까, 너는 다시 나가라.”

그러고서는 저기를 하얀 신개(흰개)를 한 마리 주더래. 주면서 개를 한 마리 주면서,

“너는 팔, 뭐 팔십 몇 살이 너의 운명이니까 저기 그때나 들어오라.”

고. 그러면서 개를 한 마리 주더래. 그래서 그 개를 안고 오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오다가, 요놈의 개가 그냥 외나무 다리로 풍당 빠졌어. 그 빠지는 바람에 깜짝 놀래 깨니까 자기가 켜겨여. 그런데 3년이 됐데.

3년이 됐는데, 살도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그때 지금처럼 무슨 알콜, 이런 약품 소독이나 했나 뭐? 참 이상한 괴상한 일이잖아.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내려온 뒤에 자기도 다시 과거를 보고.

그 인제 뭐냐 자기 내려와서 과거 다시 보고 그럴 때는, 이미 벌써 정권이 뒤바뀌여 가지고, 다시 빈부격차를 그렇게 별로 안가졌나 봐요. 그 래가지고 가서 저기가 된거라고.(이후 삼국에 관련된 부분은 생략함)

16 손순 매아

권순례(72, 여) / 초부리T 2앞

[초부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초부리의 제보자 댁에 도착하여 효자 효부 이야기를 요청하자, 제보자는 잘 모른다고 하다가 해 준 것이다.

저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 아들은 아버지가, 할머니가 기신데 아들을 길렀어. 손주가 손주가 할아버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 저급 진지상 반찬을 놓으며는 애가 철모르게 먹을라고 했었데. 아이 부부간에 이랬어.

“아이구 자식은 낳으면 또 자식이고, 이 우리를 갖다가 버리자.”

고. 그래갖고 엮고 가서 땅에다 파고 이렇게 묻었어. 그런데,

“아버지! 내 밭고락 아파다.”

고 자꾸 울드래요. 그러면서,

“그럼 아이구! 돌맹이 빼주고 도로 묻겠다.”

고. 그리고 도로 아들을 팠데. 파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요만한 놈이 있드래.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갖고 와가지고 손주도 도로, 그 애도 도로 데리고 와가지고 부자로, 뭐 부모 잘 모시고 효도하고 잘 살았데.

그래서 얘기는 부모를 효심, 생각하면은 각골 효도, 효도로다가. 그래 명심보감에서 나온, 근게 그 얘기여. 책이 명심보감에서 나온 거라고.

17 정포은 산소 쓴 유래

정문교(70,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권순례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정문교 할아버지께서 농약통을 얻으러 오셨다. 그러자 할머니가 ‘저 분이 이야기를 잘 하신다’면서 정문교 할아버지에게 해 달라고 하라 하였다. 조사자가 부탁드리자 제보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에 있는 정몽주의 산소에 얽힌 전설이다.

정몽주 정포은이 말야. 개성 선죽교에서 돌아가셨는데. 개성 선죽교에서 저 이방원이한테, 이방원이한테 돌아갔는데 말야.

그때 어디로 모시느냐 할 거 같으면 저 경상도 영천으로 가서 모시는 길인데. 그러면은 왜 정포은 산소가 모현면 능월(능원)리에 있는

냐?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저 명정이라는 것, 명정이라는 걸 가져 갑니다. 예전엔 저 상여가 나갈 적에, 뭐 이렇게 들고 말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어디가 날라 갔느냐면 난데없이 바람이, 그 경상도까지 쪽 그 기차도 없고 뭐 자동차도 읊을 때니까 상여가 이렇게 가는 길인데, 저 풍(풍덕천)동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그 대나무 영정이 말야 부러져서 말야. 막 바람에 휘날린단 말야. 바람에 휘날리니,

“이상하다.”

말야. 모든 사람들이 마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임금이 돌아가면, 임금이 돌아가셨으면은 뭐가 있냐 할 꺼 같으면은 장래도감이라고 해서 정 2품 이상이 도감을 했지만서도, 이 양반은 이제 이조 때니까는 으, 이, 이조 초기. 저 누구냐 할 거 같으면. 애, 오, 태조 대왕이 말야 등극한 다음이니까는 뭐 그렇게 까지는 안하지만서도 그래도 워낙 고려에 충신이고 성리학에 대가시고 효자시고 허니까 말야. 정포은을 잡을래야 잡을 지를 못한다 말야.

그러니깐 결국 이방원이 정포은을 거기서, 첩퇴로 가서 쳐서 개성 선죽교에서. 거기서 인제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으로 모시는데, 그 영정이 부러지면서 말야. 대가 부러지면서 영정이 썩 거기서부터 몇 십리를 날려.

그래 그 영정을 따라가 보니깐,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깐 바로 능월리 그 자리가 딱 가서 명정이 떨어졌어요. 거기다 갔다가 정포은 산소를 지금 모셨는데, 시방 학생들 모든 유럽들이 거기 와서 참배를 해요. 이 정포은한테.

그 정포은이란 분은 누구냐, 물론 다들 잘들 알겠지만서도,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란 말야. 그러구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란 것보담도, 마 세계적인, 세계가 아닌 세기적이야. 그런 분이니깐 지금도 선죽교에 가면 피다리가 그냥 있어요. 피다리가. 그때 그 첩퇴맞은 것이.

18 윤씨들이 잉어를 안 먹는 이유

정문교(70,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권순례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위의 이야기를 끝내고 간다는 것을 조금만 더 해달라고 조르자, 이 성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옛날에 다른 마을에서 들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 대략 이 윤씨들이, 윤씨가 뭐 안 헐 것 같으며는 잉어를 안 먹어요. 잉어. 물고기 잉어를 안 먹어요. 온, 그 내근 근 지끔두, 지끔두 윤씨들은 안 먹어, 시방도 안 먹어. 건 뭐 전설이 아니고 시방도 안 먹어요.

그럼 고려 때 그 윤관 장군 여진족 있는 텔 들어 갔어. 들어 갔는데 윤관장군 또 역시 아마 늘 학교에서 배워서 알려야. 윤관장군 역시도 명장이고 문인이었지. 그 명장이고 문인이었었는데.

그 양반이 갔다가 저기 가서 저 뭐냐, 여진족 이쪽에 들어가서 탐,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지. 탐정. 으 지형 탐험을 허다가 들켰단 말야.

그래 어디냐 할 거 같으면 두만강을 건너오는데 건너올 수가 없단 말야, 배도 없구. 그러니깐 말야. 그래 꼭 잡혀 죽겠는데, 난데없이 잉어가 나타났어요. 잉어가 큰 잉어가 솟아 잉어를 등에 업고선 건너왔단 말야.

그래 지금도 윤씨는 잉어를 안 먹어요. 지금 나가서 당장 윤씨 물어봐서 잉어먹는 꼴을 같으며는 안 먹어요. 아 그건, 그건 실지야.

19 남산골 샌님

정문교(70,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권순례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묻다가 서울 남산 근처에서 살았다는 말을 하기에,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예전 남산골에 관련된 것을 구술하여 주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인 것 같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양반제도와 유교에 대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이야기이다.

북촌은 현재 가서 뭘 잡은 사람들이나 할 거 같으며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북촌에 살고. 거기서 인제 마 지금 말하자면 숙청 당했다고 그럴까? 어, 숙청 당했다고 그럴까? 그 사람들 양반 행세하던 사람들 숙청당한 사람들 남산으로 모였었어. 마 그래서 남산골, 남산골 쉰님 이야.

그러면 북촌은 누가 살았냐 헐 거 같으면, 그 당시에 인제 마 판 판 판서여, 아니 영의정이며 판서 그런 사람이 살았다가. 거기서 당쟁으로 인해서 당쟁, 당쟁으로 인해서 몰락할 거 같으면 남산골로 그냥 또 쫓겨나는 거야.(웃음)

어, 인제 새로 예를 들어서 남인이 득세했다가 서인이 득세하지 않았어. 남인이 득세할 제 서인들은 모조리 다 그냥 남산골로 그냥 쫓겨가는 거야. 뭐 살 길이 막연하니깐. 그렇다고서 양반이란 것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예전서부터 돼먹질 않았어요.

그래 저 곁 불이라 그래요. 곁불을 안 쬐다고 그래요. 그냥 우들우들 떨어요. 체면이야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이 나라를 말살시킨 썩어빠진 유학 정신이었었어. 그렇다고 해서 난 유교를 말야 썩어 빠졌다고 해도 좀더 혁신할 건 혁신해야 돼요.

20 속종대왕의 암행

정문교(70,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권순례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계속한 이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는 앞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숙종대왕의 암행이란 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아 독립시켰다.

숙종임금이 야행을 잘 돌아 댕겼어요, 숙종이말야. 그 즉 말허자면 밤에 혼자서 순시를 잘 댕겼어요. 그래 남산골에 하도 참 그렇게 응 퇴 패한 양반네들이 많다 해서 남산골에 이렇게 쪽 줌 돌아댕겨 본단 말야. 보니까 한 사람이 그냥 가서 기도를 허구 있어. 나무에다 놓구 말야. 응,

“뭇를 헐 거 같으면은 우리 집이 까치집을 짓게 해 주십쇼, 우리 집이 까치집을 짓게 해 주십쇼!”

헌단 말여. 근데 어떤 한 관상쟁이가 뭐라고 해나 헐 거 같으며는,

“당신네 이 나무에 말야 까치가 와서 집만 지면 당신은 다시 또 복직을 헐 수 있소.”

그러니깐 말야. 애 애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까치가 와서 그집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아니란 말야. 해 숙종이 가만히 보니깐 허 그것 참 허안헌 사람이란 말야. 그런데 그러구 또 들어가서는 아 또 책을 읽는데 낭낭허게 책을 읽고, 그 새벽이 되니깐은 저이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혼자 홀로 계신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요렇게 만져 보고선 말야,

“아유, 추우신가 보다.”

허구. 또 나가서 불을 때구 말야.

“효심이 기가 백헌데, 결국 까치집을 안 짓는구나!”

허구선. 그 이튿날 궁에다가 몰래 내시를 시켜가지구서,

“까치집을 하나 지어 줘라. 으 거기다가. 으 까치집을 하나 쟈 줘라, 참 효심이 기가 백허더라.”

으 그 하늘에서 내렸어. 그를. 그래. 아 그래 인제 밤에 몰래 가서 까치집을 이렇게 맨들어 놓구 보니까 아이,

“그러구서, 그 선비가 허는 것을 가만히 좀 지켜 보라.”

허니까. 몰래 가서 숨어 보니까,

‘하, 우리집 까치집 있다고. 벌써부터 참 좋은 일 있다.’

고 이런단 말야. 아이 그러더니,

“그래, 너 오늘밤 새벽녘에, 새벽이 되기 전에 그 집이 쌀 한 스펀 허구 비단을 좀 몇 필 갖다 놔 줘라.”

으. 아 임금에 명이니까 갖다 그 앞이 노니깐. 아 나가 보니깐 증말 쌀이 있구, 어 비단이 있구 그렇단 말야.

“하, 까치 어찌 까치집을 짓더니, 증말 참 이렇게 잘 됐구나!”

그러면서 즈 어머니한테, 그 밥을 먼점 저가지고선 올리고선 이제 관아에 가서 말야

“아! 웬 사람이 우리 집에 쌀을 갖다 댔으니깐 이걸 난 도둑질 험게 아니라고 말야.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허구서. 관아에 가서 얘기, 얘기를 했단 말여. 그러니깐 아 임금이 벌써 내려보낸 거니까,

“어허, 그럼 자네가 그 까치집을 논 줄, 좀 짓길 원했는데, 까치가 와서 아마 그 갖다는 모양일세. 먹어라.”

이런단 말야. 그래 배고픈게 이걸 실컷 먹었어요. 그거 참 몇날 며칠 뭐 죽만, 죽이라도 끄리면 즈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즈히는 참 굶다시피 했단 말야. 아 이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먹었든지 아 배탈이 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임금이 가서 첩지를 냈단 말야.

“아 그놈, 불러들여라.”

응 어디 한 자리 줄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말이야. 그런데, 한데,

“아, 가 보니 죽었습니다.”

그거여. 그래 임금이 툅툅 웃으시면서 허는 소리가,

“그래 모든 게 하늘의 뜻이다. 으 어떻게 인제서부터 살만 허니까 그렇게 죽었는가? 그 사람, 으 그러나 효심이 지극허니 장사를 잘 지내 줘라”

는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효도는 으뜸으로나 사람은 틀림이 없어.

㉑ 은혜값은 까치

정문교(70,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권순례덕]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위의 이야기는 효에 대한 것이고, 이번 이야기는 의리에 대한 것이라 말씀하면서 마지막 입을 여러 번 강조하고 구술하였다. 이야기를 더 해주셔야 한다고 했지만, '사람이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지 미루면 안된다'며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서 더 이상은 거절하였다. 그 대신에 겨울에 다시 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의리에 대한 얘기에. 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어떤 선비가 이렇게 참 과거길을, 과거를 보러 갔던지 어디를 보러 갔던지 간에 산길을 가는데, 까치가 처량하게 막 울어. 까치집 있는 데서 말여. 그래 이상허다구 썩 보니깐, 아 뱀이 그냥 까치집을 그냥 날름날름 거린단 말야.

그래 선비니까 활, 활두 읍구 아무 것도 읍스니깐 말야, 나무를 꺾어가지고선 그냥 쫓아올라가선 뱀을 그냥 죽여버렸어. 아 죽이고서는 한참 저 그 뱀을 죽이니깐, 까치는 푸드득 거리면서 그냥 날라갔단 말야. 아 그래 인제 해 널떡해서 어스름한데, 웬 절간이 있어서 절간을 썩 들어가서,

“나 좀 채워 달라.”

니깐. 사람이 아무도 읍어.

“아하, 그래도 아 읍스니깐 다행이로구나!”

허면서, 안에 들어가 자는데, 선비가 자는데 아하 갑자기 그냥 밤중에 그냥 읍 그 가슴이 답답하구 말야. 그냥 목이 그냥 조인단 말야. 그래 이렇게 뜯 보니깐, 아 뱀이 말야 그냥 어실렁어실렁 그냥 위에 몸을 감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나?”

고. 그냥 버티니깐 영 되지가 앓어. 그러니깐 풀리지가 앓어. 그래 뱀이

히는 소리가,

“내가 누군지 아는가? 응 니가 나, 니가 나, 나를 아까 잡아 죽인 내가 뱀이다. 구렁이다. 으, 널 내가 죽여야겠다.”

“아니 나, 그러든 너는 까치집 올라간 건 잘 잘 헨 것이냐?”

허니깐 말야,

“아 그야, 내가 거 까치 알들을 먹을라고 내가 올라간건데, 넌 내 삶을 막았어.”

응. 이 또 이 선비가 히는 소리가,

“얘기한다. 까치도 이게 이게 동, 이 생명 생명체인데, 구태여 그걸 또 잡아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니깐.

“난 까치를 잡아먹겠끔 되 있는 거다.” 그거여.

“그럼, 맞는 소리다. 그럼 내가 사는 방향이 옳느냐?” 하니깐.

“어허, 한 가지 있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

구렁이가 하는 소리가,

“이 종이, 절에 종탑인데, 이 종이 올리면 너는 살어.”

그런단 말야. 아 그런데 난데 없이 종이 그냥 팡-, 팡, 팡 울린단 말야. 아 그러니 뱀이 슬그머니 읊어져 버렸어. 허두 ‘이상하다.’ 허구선 날이 밝아서 가보니까 그 까치가 종에다가 피를 흘리구 죽었는데. 종을 가서 들이 받은거야. 으 그래서 그 살렸어.

지금 세상은 내 나한테 신세 입었다고 해서 지 몸 희생시키는 놈들 읊어. 예전엔 그마만큼 그렇게 서로 신의가 있었구, 신뢰가 있었던단 말야.(웃음)

22 만경강을 건너준 뱀

권순례(72, 여) / 초부리T 2앞

[초부리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지금까지 방관자의 입장으로 계시던 제보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자 할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고려장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이 이야기를 친할아버지에게 직접 들었다고 한다.

(전라북도) 부안군이라는 디가 그 바다가 있어, 바다. 명, 맨경강이라는 지기, 그 강, 그 물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너가지를 못허게 생겼다. 이리도 못 건너가고 저리도 못 건너가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는디, 물이 많은게 못 건너 갔지. 못 건너 가겠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래서 아 그 똑으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러니까. 큰 이따만(양손을 크게 벌리시면서) 구렁이가 나오더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드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내 이 목을 깎 꺾안으문, 꺾안고 가자.”

고 그러드랴. 그 그러니까 그가 목을 이렇게 깎 꺾안고 있으니까는. 귀도 막 이렇게 달, 귀를 잡고 이렇게 딱 붙어갖고 매달렸었었으니까 강을 건너 주드래요.

그런게 옛날에. 그것도 오래 됐어. 내가 외(어)려서 그건 얘기 들었다고.

㉓ 은혜 깊은 뱀

권순례(72, 여) / 초부리T 2앞

[초부리 자택]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간청하여 얻어 낸 이야기인데, 제보자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한문 서당을 댕기는다 맨날 고개를 넘어가르는, 거기 고개 넘어가른

고만쫘 가문은 거시기가 꼭 소변이 마렵드랴. 그래서 소변을 싸고 싸고.

인자 거기서 허고 또 가고 가고 그랬는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했는다, 그 그 배암이 거기서 살면서 그 소변을 받아먹고 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뭘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구랭이가 그 은혜를 갚어 줘서 안 죽고 살었다는, 살었다.

24 은행나무와 주변 지명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웅,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이웃 집 어른들에게 물어 물어 찾아온 제보자의 집 앞에는 큰 은행나무가 서 있고, 산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집이었다.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집 앞에는 300년에서 270년 정도 되는 보호목인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이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이다.

그게 연대를 몰라. 그제 노인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 뭐 어느 대왕적에, 어느 대왕적에, 에 어떤 판서, 옛날에 판서 허믄 지금은 치른 장관급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이 서울에서 벼슬을 살다가 늦게 낙향을 헨거여. 늙게 인지, 현직에서 물러나서,

“어디 조용헌 시골 가서 살아 보리라.”

허구. 그 낭반이 택헌 데가 여기여. 여기 지금 밭이 있지.(집앞 은행나무 옆으로 밭이 있음) 여가 한 700평 넘어, 밭이. 애, 거기다가 집을 졌어. 어 그러니깐 뭐 장관급 출신인이구, 늙어 참 퇴역했으니깐 상당히 재벌도 있을테지, 재산도. 그럴 꺼 아녀. [조사자 : 그렇죠.]

그래 여기와서 집을 짓는데, 뭐 옛날모양 초가집은 질 수가 없구, 기와집을 지야 되겠는데. 애, 여기 기와 공장두 없구, 또 먼데 있다가 허더래도 지끔모양 뭐 수송할 수가 없잔여. 교통, 운반허기가 어렵구.

이러니깐 이리 건너가면 밭이 있어요. 거 이름을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기와밭' 그런다구. 거기 가 보니깐 그, 누구 전문가를 데려다 보니깐,

“이 흙이 기와 굴(구울)만한 흙이다.”

으 그래 거기다 기와 공장을 차린거여. 여기다 집 한 채 짓기 위해서 어. 알겠어. 저기가 그 기와공장 차려가지고 기와를 봤는데. 으 지금까지 내려오기를 그 밭 이름이 '기와밭'이여, 그대로. 또 가보든 그 기와 이렇게 굽다가 삐투러지고 잘못된 것 내비린 것이 거기 군데군데 땅 속에서 캐 나온다구. 어 그런 걸로 미뤄봐선 확실한 게 아니냐. 그래 여기다 기와집을 지었어.

옛날엔 기와집을 짓는데 어뜨게 짓는고 허면, 이걸 집을 다 안채 짓고 사랑채 짓고. 알겠어. 애 지끔같이 단순하게 대문 하나 내서 쑥 들어가는 데가 아녀. 큰 대문 있구, 또 들어가서 쪼꾸만 대문 있구, 그 다음 또 작은 대문 있구. 적어도 문을 3번, 4번 거쳐야 본체에 들어가. 그렇게 겹겹이 대문이 있는 거여. 그래 큰대문, 솟을대문, 뭐 이런다구. 중문 그런다구.

저기다 집을 지구 살았대. 어느 판서대감이. 애 그 분이 얼마 뒤 몇 해를 사셨는지 모르지만. 현대 앞에다, 자기 문 양쪽에다 말이지 뭐 나무를 하나 심어, 심구 싶거던. 그래 그때 심은 나무가 이 은행나무 두 주. 그래 바로 여 들어갈 거 같으면, 대문, 큰 대문여. 그 이 앞에 논이 있어. 그래 지금까지 일르기를 그 '대문밖에 논'이다. 문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논이 있으니깐 '대문밖논'이라 허는 것이 지금까지 불루구 내려와.

애 해서 그 분이 살었는데, 그게 뭐 얼마 몇 해 사셨는지 모르지만, 얼마 살다가 뭐 다른 데로 아마 이주를 헌 모양여. 뭐 큰 기와집인데 말이지. 애 누가 촌에서 말이지, 읍은 사람이 그런 집을 살 수도 없구. 그럴 꺼 아녀. 애, 그러니깐 뭐 이런 촌에서 말이지. 그런 큰, 큰 기와집이 말이지 이게 무용지물이란 말야. 거저나 준대문 모르지만 거저 쥐도 관리허기가 어려워. 없는 사람은. 그런게 그 집을 결국은 허 헐.

“이게 안되겠다.”

해서 이게 헐은 거여. 헐면 재목은 다시 옮겨다가 다른 데다가 옮겨질 수가 있거든. 으, 애, 알았어. 그래가지구, 여기가(집뒤를 가르키시며) 우리 두꼐인데, 그레 밭을 맨들라니깐 말이지 재목은 다 가자 갔지만, 애 다른 데다 옮겨질라구. 기와는 실어갈 수가 없으니깐 애 전부 내비려서 이런 본택으로 가게 되면, 그 땅속 파른 기와가 많이 나와, 거기서두. 으 그런 유래가 있어.

25 지명 전설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앞

[초부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환,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마을 주변에 관련된 지명전설을 설명하여 주었다.

① 무쇠전

‘무쇠전’이라고 그러다구, 무쇠정. 옛날에 이 술같은 것 다 무쇠로 끓는 거여. 우리 그 밥술 있잖아. 이런 거. 에 그때 이 자리 매는 고도래들로 말이지. 돌로 맨든 것도 있지만, 그 잘 헐래만 말이야 무쇠로다가 이쁘게 군다구. 누가 알아. 고도래들이 뭐 줄 알아. 자리 매는데. 뭐 그러한 효험이 있었어. 거기서.

뭐 그게 몇 백 년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옮겨졌어. 그레 지금까지도 거기가, 거기가 뭐냐 허면 ‘무쇠전’ 그러다고.

② 능안

임금이 뭐 돌아가실 적이 됐는데, 이것 좋은 자리를 택하여야지 않

느냐. 영 그래 전국에서 유명한 참 제(지)관들을 불러다가, 영,
“자리가 있냐 보라.”

이거여. 그래 저기 와서 능을 잡았어. 능을. 에 그래 여기가. 그래 저기가. 저 골짜기 올라가게 되면, 내 어느 시절까지는 몰라.(기침)
[조사자 : 저쪽에는 능이 지끔까지 있어요?] 아니 읍지. 그런데 그 사람 뿐이여. 나라에서 여러 사람을 뽑아서 각처에 파견해 보내는 거니깐. 그래 다음 사람이 오더니,

“그것 좋지 않다.”

이거여. 그것 능짜리가 되겠느냐 이거여. 그래 자리만 정했다 무했는데, 지끔까지 능안 그런다고. [조사자 : 지명 이름이요?] 그래.

③ 왕구리

모현리서 여기 이 산너머 가면 갈담리라구 그래. 그 짝끔 지나가면 왕 왕살이(왕산리)라구 있어. 면 소재지여. 거기가 왕구리하구 그래지, 왕구리. 으 에, 거기 와서 능을 잡은 거여. 그 참 쓸만허다 이거여.

“나랏님이 돌아가면 산소 쓸만한 자리다.”

거기다 능을 정했어. 뭐 돌아간데 정한데 아니라 미리, 미리 정해놓는 거여. 그래 지관이 딱 자릴 잡어 놓구,

“참 좋다.”

이거여. 어. 임금님 돌아가시면 갖다가 모실만한 자리다 이렇게 본 거여. 그나 인제 저 동네, 누구 보구 물었.

“그래, 이 동네 이름이 뭐요?”

이거여. 그럴꺼 아녀. 동네 이름이 누가 그럴테지.

“이 동네 이름이 왕구리라.”

그런거여.

“뭐, 왕구리라. 애 이거 안 되겠다.”

이거여. [조사자 : 왜요?] 왕을 구류한담 말이 안 되잖어. 동네 이

름 자체가 그러니깐. 거기 단 나라 임금님이 돌아가시든 말여, 거다 자릴 쓸라구 정해 났는데, ‘동네 이름이 뭐요’ 허구 물으니까 ‘왕굴이라’구 그런단 말여. ‘이거 안된다’ 이거여. 왕을 구류허다니 되는 얘기냐 이거여. 어, 어, 그래 거기두 정했다 물렸어.

26 정대장 일화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앞뒤

[초부리1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계속 지역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하였다. 왕구리란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하다가 이곳에서 태어난 정대장에 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랬다가 뭐 한 이백년 된데, 그 정도에 그 왕구리 거기 출신 정대장 얘기. 내 그 낭반 이름을 잊어 버렸어. 정대장이라고 있어. 정대장.

그래 뭐 나라에서 임금님을 돌아가든 모실라구 했던 자리니까 좋은 자리 아녀. 그래 그러니깐 뭐 정대장이 인저 돌아간디 거기다 썼어. 정대장 나라 임금님 돌아가든 산소를 쓸라던 자리를 인자 동네 이름이 방금 얘기헌대로 왕구리라 허니까 좋지 않다, 동네 이름이. 그래가지고 안 썼는데 그래 정대장이,

“에, 뭐 자린 존 자리 아니냐? 나 죽겨들랑 거기다 묻어 달라.”

지금도 뭐 정대장 산소가 있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이고 허면은 그 무관여, 무관. 그래 옛날엔 무관, 무관. 지금도 그렇잖어. 에 원부터 무과 시험 봐가지구 등과 했으니깐, 그래가지고 인제 뭐 정대장이 된 거여. 어, 하기가 뭐, 자기가 뭐 무관이니깐 노상 말 타고 활 쓰고 옛날엔 그거밖에 더 있어. 창 쓰고 창 가지고 뭐 휘둘르고 칼 쓰고 그러는 거 아녀. 그것 장군들이 허는 그 무술이거든. 날마다 무술 연습을 허는데, 자구 나면 말 달리고 뭐 활 쓰고 칼 쓰고 그러는 거여. 그래 장군이니까 그런 거 헐껴 아니여. [조사자 : 그렇죠.]

그런데, 거기 어느 중놈이 지나가. 중. 그 옛날에는 뭐 대사라고 그러지. 중놈이 탁 바람을 질머지고 목탁을 들구서 지나가는데. 그래 활을 활 쏘거여. 그러면 뭐 백 미터 이삼백 미터 날러가서 딱 활기 쫓쳐. 그래 뭐 표시판이 있잔어? [조사자 : 그렇죠.] 그러고서 쏘는 거여. 그래 아무 디나 쏘는게 아니라, 그래 과녁을 맞히야잔어. 그래 딱 쫓치거든. 그럼 그걸 중놈이 지나.

“야 인마! 너 이리 와. 가서 저 화촉 빼 오너라.”

이거여. 으, 뭐 아이 보통 오백 미터 육백 미터 나가서 쫓친 노무 거 주워 오래내. 아니 그러니 어느 영이라고 가서 안 주어 와. 가서 주어 다 주워 오지. 그럼 딱 썩 그냥. 그럼 또 주어 와. 아니 이노무 중놈이 해는 넘어가는데, 노상 그러니 갈 수가 있어야지. 애 중놈 뿐이 아녀. 거기 누가 지나가든 쏘 거가 집어 오랜 거여. 만일에 거역하테면 기냥 뭐여 으.

“이놈! 저 말 안 듣는다.”

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장군인데 말이지, 보통 사람이 그거 당할 수가 없잔어. 그러니깐,

“네! 네!”

하고서. 그래서 사람이 안 가. 아 글루 가다가 활만 쏘고 ‘그거 집어 오너라’ 또 쏘고,

“집어 오너라.”

문. 자기 잡이도 못 가고. 그노무 심부름만 헌단 말여. 알었어? 아 그러니깐 중놈이 가는 놈을 아주,

“너 인마! 너 저거 주어 와. 가서 저거 꼬치야 얹으니까 빼 와. 가서 빼 와.”

아 딱 쏘구서,

“또 가서 빼 와.”

아이 뭐 해넘어 갈 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화가 났지, 중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 여보! 지금 나도 갈 길이 먼데 번번이 이게 뭐니까?”

“이놈! 뭐여. 말 안들어, 어?”

그러군 아마 뭐 완력을 썼나부지. 원래 장군감이니깐 뭐 완력 쓸 거
아냐.

“아, 이거 어따대고 완력이냐?”

이거여. 아 그래 맞붙은 거여. 해 보이거여.

“당신 뭐냐 이거여. 왜 가는 놈을 가지고 못 가게 속세기냐?”

이거여. 아 그 짝 해보니까, 아구 자기 수론 못 당해요. 더 장사여,
그 놈이. [조사자 : 중이요?] 그래 중놈이. 뭐 자기 힘 가지곤 뭐 전혀
당할 도리가 읊어. 어이 그러니깐 장군쫄 되는 사람이 중놈한테 기운
을 못 당한다니 이거 첩피허잔어? [조사자 : 그렇죠.] 아 소문나면 어
떡하.

“아, 그 정대장 머리가 중놈한테 꼼짝도 못 하드라.”

그 소문 나는 날이든 자기 얼굴이 뭐가 되야. 어 아닌게 아니라 원
래 기운에 모질라.

“내 잘못했다. 가라, 그냥.”

알겠어. 그 놈이 그럴 적에,

“여보 당신! 앞으로도 누구 행인 지나면 그러지 말라 이거여. 이게
무슨 행악이냐?”

이거여. 으 아 이 놈이, 중놈이 인제 바랑을 질머지고 가는 거여. 가
는데 뒤에서 그냥 갈긴 거여, 활로다가. 그래 중놈 그걸 몰랐어요. 으
돌아서 가니깐, ‘가라’니 갈 꺼 아녀. 가는 놈 뒤에서 그냥 활로다 쏘니
깐 여기가 쫓혔지. (Tape2 뒷면에 계속) 그래서 그 중놈이 죽었지.

그래 중놈이 저 죽을 주는 모르는 거야, 응. 또 그때미는 말이지 그
까짓 중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누가 눈도 하나 안 깜짝 거려. 한 여나
른 죽여도 괜잖어, 그때는. 판국이 그라. 아 죽어도 장군쫄 되는 사람
이 중놈 하나 죽이었다구 누가 문제도 안 삼어. 그래 그 놈이 애매하게
죽었지.

그래서 거기다 갖다 묻었어. 그게 그 정장군이 돌아간 뒤에 산소 밑

에가다 지금 중 무덤인데, 지금도 중 무덤이 있어. 뭐 이런 걸 봐선 확실해야. 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 생(상)투여. 으 이 한카레가 생투 딱 하난데, 에 옛날 소 갖다 맬라면은 이 바가, 큰 바가 있어. 들판에 맬라면은 길기 매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풀 뜯어 먹으라 이겨여. 그럴 거 아녀? [조사자 : 그렇죠.] 해. 그 낭반이 여기다 상투다 그 한 대여섯 발 되는 것 길지. 달아, 달고 뛰여. [조사자 : 정대장이요?] 그래. 뛰면 이 바가 뻥힌다는 거여. 아 기 땅에 안 끌려가고 원래. [조사자2 : 빨라요?] 원래 빠르니깐. 그런 얘기.

옛날에 12칸 허면 행량은 제일 큰잔여. 지금도 그렇지만 12칸, 옛날에는 인자 초가집이니깐 셋가래가 있잖어. 셋가래 있지. [청중 : 요 요 저거 석가래 저 뭐여?] 석가래.

끝이 요 요만백이 앓돼. 그 짜른 데가. 요것 쥐고 딱 올라서서 쥐, 쥐고 그 집 쥐(주위)를 몇 바퀴를 도느냐 허면 12바퀴를 돈데. 12바퀴를. 아이 보통 사람 같으면 단 2칸도, 2칸이 뛰여. 석가래 들도 못 건너가서 떨어져.

뭐 그러헌, [조사자 : 장사였다 얘기죠?] 아아! 장군들이야 그렇지 뭐. 옛날에 장군쫘 되면, 지금 장군과는 달리. 우선 심(힉)이 세고 말이지.

27 정포은 산소가 있게 된 유래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뒤

[초부리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역시 주변에 있는 정포은 산소가 생각이 났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여기 정포은 산소가 계시지요. 응 포은 선생. 그 양반 유명한 양반

이지. 고려 충신이요 앵, 그 양반의 학덕이 말이지 당대에서는 그 양반 따라갈 사람이 없어. 알겠어.

그런데 그 양반이 인제 개성 선죽교에서 돌아갔지. 나중에 태종대왕 된 분여. 방원이한테 맞아 죽은 거여, 영. 뭐 그 양반은 그때 죽은 줄 안 거여. 그것 모른 분 아녀. 그런데 선죽교 다리 건너갈 적에 그기가 자기 절명일을 알아. 뭐 방원이 나 죽일 거다 이거여. 철퇴로다가 쳐서 영. 이것 내 운명이다 이거여. 그래 피할 필요가 없다 이거여. 그래 버젓이 걸어가는 거여. 그래 다리께 숨었다가 지나가는 것 여기(뒷통수를 가르키며) 때려서 돌아가지 않았어. 포은 선생이.

그 양반이 저 경상도 영주분여, 고향이. 그래 개성서 인제 생여를 모시고 인제 그 몇 일을 가야지. 차가 가는 것 같으면, 그 미(매)고 가는 것 말이지 한 뭐 열흘 쯤 가야, 저 경상도 영동 같은지 몰라. 앵. 그래 유명한 분이고, 아마 돌아갔어도 말이지.

그런데 인제 여러 군중이 인제 그 양반 모시고 가는데, 여기 수지면이라 있어, 용인군에. 거기쯤 딱 오니까 말이지, 그 명정이라고 있지, 명정 알아. [조사자 : 명정. 명정 알아요, 깃발.] 그래 깃발. 가랑 '학생부군 뭐 지구' '이 누구누구' 해서 들고 가잖아.

참 명정이 확 날라가는 거여. 휘호리 바람에. 앵 그러니 공중에 날러. 한없이. 수지면에서 거기까지가 아마 한 20리도 넘어. 그래 거기 그냥 날라가는 거여. 참 이상한 일 아니여. 그래 그 명정을 그 사람들다 지구 쫓아간 거여. 그랬더니 능월리 가서 딱 떨어져. 고기서 딱 꽃치더라 이거여. 그 명정이.

그래 와서 그 지관이 딱 와서 보니까 천하대지여. 아주 뭐 아주 이름 있는 자리여. 그러자 벌써 그 원래 유명한 분이라 하느님의 지시에 의해 말이어 명정이 날른 거여.

“니 왜 영동까지 모시고 가느냐 이거여. 저 모현 가면 능골이 있지. 가면 그 양반 모실 좋은 자리가 있다.”

이거여. 그래 확 날러간 거여, 명정이. 그래 여기 와 딱 꽃혔어. 그래 그거만 보고서 미고 온거여. 와서 보니까 자리가 유명한 좋은 자리여. 그래 거기다 그 양반 뭘 충열서원허고 인제 서원 모셨고 그랬지.

28 호랑이가 돌려준 아이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뒤

[초부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이 이야기는 실화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그 아이가 살아 있으며, 나이는 한 90대 후반 정도로 서울에서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

하여간 뭐 이만한 어린네여. 어머니가 이제 밭매러 갔어. 식구다 농사짓고 허니깐 여자도 가서 밭매고 할 거 아녀. 그니깐 즈 엄마 쫓아가서 옆에가 앉았는 거여. [조사자 : 그 애기가?] 그래. 즈 엄마 이렇게 밭을 매고.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 어. 아 근대 보니깐 왜 웬 걸. 어린네 그 옆에 있어 노는 걸 봤는데 온데 간데 읍어. 어린네가.

“아, 그 어디 갔나?”

찾아 봐도 영 눈에 안 뜨여, 어.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 지는데, 아 요만한 어린네가 온데 간데 읍잖아. 아 인제 야단 났지. 집에 가서 말이지,

“아니 밭에 어린네가 데리고 옆에서 놀았는데, 나 밭맬 동안에 것 노는 걸 봤는데 다 매고 보니깐 어린네가 읍다.”

이거여. 으 아 거 그러니께 밤이 벌써 어두웠어. 그러니깐 동네에서 어떻하. 그때 마침 후레쉬도 없고 말이지. 그냥 뭐 햇불 들고 동네가 뭐 그 동네 한 열댓 집 밖에 안 되야. 동네가 크두 아녀. 그 산으로다 죄 돌아다니는 거여.

“그 어디 산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으 그리고 해 넘어가기 전에 온데간데 읍어졌으니깐. 그러니까 뭐 그 근방을 찾아도 못 찾았어. 어린애가 어디로 갔는지 읍어. 기냥 뭐 그냥 동네분들이 찾다가 밤에 깊고 허니까 어떡하. 집으로 왔지.

“이상하다.”

그거여. 그래 아침에 인저 밝으며, 밤에 뭐 보여? 어디가 있는지!
그저 아침에 또 간거여. 그 근처 다 오드니,

“요 근방에 있을 거 아니냐?”

으 근데 보니깐 그 어디 솔뽕 밑에 이라고 있어, 어린애가. [조사자 : 어디 있다고요?] 솔뽕 밑에. 나무 밑에 요러구 있어. 울두 앓고. 으 그럼 밤을 찬이슬이 내리고 밤이 지나는데 상당히 뜰(떨) 거 아녀? 추워서. 추우면 떨고 있을 거란 말여. 근데 가 보니깐 몸이 따뜻해. 으 그때,

“이것 이상하잖냐?”

이거여. 누가 품고 있다가 놓고 간거여. 으 그래서 호랑이가 와서 품었다는 얘기여. 어린애가 있으니깐 말이지. 밤에. 그 잘적에 말이지 चु잡어. 응 그러니깐 말이지 호랑이가 와서 이렇게 품은 거여, 응. 자기 새끼 품듯. 그래 그 따뜻하게 그냥 뭐 밤을 지낸거여. 날이 훤히 밝으니까 호랑이가,

“이제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하구서 이제 호랭이는, 그러니깐 품고 있다가 사람들이 인저 너두(떠들고) 내고 올라오니깐 어디 비켜낸거지. 으. 그러게 어린네 말짱하여. 어디 다친 데도 어디 찢린 데도 없구 말이지. 그냥 몸이 따뜻하여. 아 그 뭐 품었다가 놓고 간게 몸이 따뜻할 거 아녀? [조사자 : 그렇죠.]

“야! 이거 하늘이 난 애다. 이놈 이 다음에 크면 잘 될 거다.”

이게 그랬어. [조사자 : 그 사람 지금 뭐해요?] 그렇진 않아도 뭐 무슨 전문대학 나왔던가. 그리고 직장 다닌다고 그러더문.

29 고려장 없어진 유래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뒤

[초부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계속 옛날 이야기는 더 이상 안된다고 하면서, 조금은 교훈적인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애비하고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아들허구 인제 자기하고 그 아버지 째어지고, 지게에다가 째어지고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렇게 뭐 며칠 거기서 살다 죽게 움을 만들어 놓고 그러구서 온 거여. 오는데 애 그렇게 뭐 인제 시작이지. 지고간 지게는 그냥 내빼리구.

“아버지! 왜 그냥 지게를 내빼리구 가?”

으 아들이.

“거 뭘 허니? 할아버지 저다 내빼린 것 말이여. 그것 못 써. 내뿌려야지.”

“아니지. 아니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또 저다 내버릴 거 아녀, 내가. 그런게 지게 지고 가야지.”

알았어. 응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지금, 그런데 맘은 불안하지. 갖다가 아버지를 내빼리고 오는데 마음이 좋을 리는 읍지 으. 그러니까 그 지게까지 내버린 거여. 그랬더니 아들이 말이지,

“아버지! 왜 지게 내빼려, 지고 가야지.”

“왜 저다 뭘 해. 이놈아! 지게는?”

“아이 아버지가 늙어서 또 저다 내버려야 하잖어, 내가 잉.”

그래서 그게 소문나고 그랬지. 그래 그때부터 그거 없어졌다. 나라에서 그 뭐 금, 금헌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뭐, 그렇구나! 이거 뭐 아버지가 뭐 귀찮다고 뭐 내버리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거 아녀. 그래 나도 그렇게 될 거 아녀.’ 해가지구. 저절로 소문이 퍼져서 저절루 없어졌다. 고려쟁이. 고려쟁이라 그러지.

30 처녀 원귀로 망한 신립장군

정봉해(79, 남) / 초부리T 2뒤3앞

[초부리 자택 대문]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할 것이 없으며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달라고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주시겠다고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야기의 구성이나 전개가 책에서 읽었던 누구한테 들었던 잘 정돈된 이야기라는 느낌이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신립이란 신립, [조사자 : 예, 신립장군.] 신립장군. 신립장군 유명한 분이시. 그 분이 저 충청도 탐금대에서 전사했지?

에 그 낭반이 이 강원도 그, 또 원래 장군이구 하니까 마 사냥 삼아서 말이지 이 강원도를 간겨여. 으, 뭐 말타고 말이지. 뭐 창, 칼 가지고 말이지. 뭐 가다가 사슴 있으면 잡고, 뭐 호랑이 있으면 못 잡어, 그분들이. 으 그래. 근데 강원도 가서, 강원도 산이 깊잔어.

강원도 산골 아녀. 그러니까 뭐, 어둠 속에 가서 해는 저물었는데 말이지. 어디로 나오는 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 지도 몰라. 길을 잃어 버렸어, 신대장이. 어둠긴 허구. 큰 일 아녀? [조사자 :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냅다 그냥 산세 구경 허면서, 그냥 또 짐승 있으면 뭐 활로 쏘고. 뛰어 당기다 보니깐 말이지, 지가 어드루 온 것도 모르구. 해는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 길을 모르잖어. 으. 아 거 큰 일 났단 말여. 어둠긴 헌데. 그래서 그 어떡하. 그래 산에서 그냥 헤메는 거여. 으. 밤은 깊어졌는데 으트카. 아니 그런데 원 뜻밖에 그 산속에 말이지. 큰 깊은 산속에 불이 반짝반짝 하야. 보니깐 집, 반짝반짝 하니깐 집이 사람사는 집이 분명하거던.

“하, 여기두 저런 산 속에도 누가 사나 보다.”

거 반갑잖어. 그래 고길 찾아간 거여. 가 보니깐 진짜 큰 기와집이여. 집도 커, 한비짜이가. 큰 집이여. 그래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거여. 그때는 어떡허는 꿈은 에 남의 집에 가서,

“여보쇼,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는 거 아녀. 가서 그냥,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여. 으 그 왜 그런지
알어. 왜 ‘이리 오너라.’ 그러. [조사자 : 몰라요.] 어, 옛날에 대개 하인
들 있지, 하인. 지금은 다 읍어졌어. 하인들. 거 하인 부르는 거여. ‘이리
오너라.’ 하면,

“애! 누가 찾는다. 나가 봐라.”

하인 내보내는 거여. 어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러는 거여. 아 지금
가서 남에 집 가서 ‘이리 오너라’ 안 그러지? [조사자 : 안 돼요.] 하
게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큰 대 웅장한 큰 집인데. 딱 여자 하나 살어.
읍어 사람이. 달리 여자 하나여, 혼자 있어. 그 이상허잖여. 그 안팎이
큰 집이 말이지 그냥, 가면 뭐 하인들허고 해서 그 가족하고 말이지 수
십 명이 들끓 줄 알았는데, 딱 그 여자 처녀 하나뿐이 읍어. 거 물어
보고 어떻게 된거여 이거여.

“이런 큰 집에 말이지 어떻게 처녀 혼자 계십니까?”

이거여.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오라비허구 뭐 해서 열두 식구가 살었
다. 에 그런데 밤만 되면 으 여우가, 아 여우가 말이지, 한 천 년 묵었
는지 어떻게 묵었는지 여우가 도섭을 했어. 여운데. 여우 알잖어, 여
우. 그래 사람으로 변허여, 으 재주는 펄떡 부리면 사람이 됐다가, 뭐
어쩌구 여우가 됐다가 하는 거여.

아 그느므게 말이지 와서 식구를 저녁마다 잡어가. 죄 아버지, 그
다음날은 자기 어머니, 뭐 죄 오래비 말이지, 하인들 죄 잡어가는 거
여. 에 그러니깐 뭐, 아주 그 밤 되는게 미서워. 밤만 되면 와서 그냥
형체 잡아가닝간. 아 그 뭐 여우한테 끌려가면 그만여. 잡어 먹었으면
으떻게 된 건지 읍어. 그런게 어떡하. 그 여자 혼자 어떡하. 어디 갈
데도 읍구. 그냥 뭐,

“아! 오늘은 내 차례로구나!”

알겠어. 그래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신대장이 딱 와서 말이지, 으
“나 어떻게 여기 왔다가 길을 잃고,”

응 밤은 깊었는데 반가운 일 아녀, 큰 집이니깐.

“그 하룻밤만 좀 쉬어갈 수 읍소?”

허고 물으니까는,

“안 돼요.”

이거여. 아! [조사자 : 그렇죠.]

“안 되는 이유가 뭐요?”

이거야. 아 그 얘길 허능거여.

“오늘 저녁 내 차례요.”

이거여. 내 차례.

“그런데, 왜 손님이 내 집에 왔소 이거여. 다 당신, 손님이 오늘 저녁 내 대신 먼저 갈 일이지도 모르요.”

이거여. 응

“아니, 뭐한테?”

뭐 십 년 묵은 뭐 구미호라든가, 뭐 몇 천, 백 년 묵은 구미호한테
잡혀가는 거여.

“그랴. 거 걱정 마쇼.”

구미호고 뭐고 걱정 말라 이거야. ‘난 거기서 잔다.’ 이거야. 그러구
대청에다가 그냥 옛날에 그 저, 그도 있는 집이니깐 황초가 있지, 읍는
집에는 초도 읍어. 황초불을 죽 문간서부터 저 말채 죽 촛불을 켜 놓
고, 음 이렇게 딱 의자해서 뭐 장군이니깐, 딱 깔 차고 말이지 이려고
뭐 활 여기다 잡고 딱 앉아 있는 거야. 뭐 밤쯤 온다니깐, 인자 뭐가
오나. 진짜 그 여자 말마따나 그렇게 오나.

“흥, 올테면 오너라 말이야. 오면은 내가 한 대에 그냥 읍어버린다.”

얘기야.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런 데서 미서워서 도망가지 거기서 살
생각을 어떻게 하? 그러나 원래 장군이니까 그까짓 것 개의치 않거든.
응.

“무슨 소리냐?”

그래 딱하고 이려고 앉아 있는 거여. 그래 뭐 대강 몇 시에 온다니 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여. 아! 그랬더니 딱 그 시간이 되더니, 그냥 바람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냥 그러고 그냥 우루렁거리고, 하늘이 멀건 하늘에서 그냥 번쩍번쩍하고 야단이며 그냥.

“야! 이게 한 번 오나 보다.”

영. 내 얼마나 무지운 건지 그냥 그 걸어들어 오는데 말이지, 그냥 뭐 그냥 쿵쿵쿵쿵 허고 발소리가 들려.

“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로구나!”

응. 그 벌써 여우가 아녀. 이 사람으로서 오는 거여, 사람. 응 아 그러더니 그냥 대문이 그냥 열리락 닫히락 허고 외장창 허더니 말이지, 그냥 대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말이지 그냥, 딱 허니 들어와. 험상궂은 놈이. 아 와 보니깐 그 처녀 하날 잡으러 왔는데, 아 웬 사내, 참 대청에 이러구 앉아 있잖아, 여기다 칼을 차고. 그럴 거 아녀. 그래 딸썹,

“이거 웬 놈이냐! 이거 니가! 으 오늘 내 처녀 하나 남았어. 오늘 그 마지막 잡아갈려고 그랬는데, 너 웬 놈이 와서 버티고 앉아 있느냐?” 이거여.

“하, 이런 요망. 뭐 어째. 아니 네 놈이로구나! 이제 보니깐 네 놈이 와서 식굴 다 잡아 갔어. 그러잖아도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 거여, 이 놈아! 너 올 때를. 오노라.”

이거여. 아 우리 같으면 도망가지 여기서. 하 그런게 그것 뭐, 그게 츠그 여우가 아니고 사람으로 화해서 온거니깐. 그냥 뭐 똥똥하기는 장군처럼 돼가지고 들어온 거여. 그러니 사람이 보니 기절해서 놀래 그냥. 그것만 봐도 뭐 기절초풍할텐데, 죽어버려 기냥 놀래서. 그러니까 그저 여우허는 말이지.

“요런 맹랑한 놈 같으니, 내가 누구라 알구서 말이지. 딱 건방지게 앉아서 말해.”

“에이 이놈!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이집 식구 다 잡아갔데며, 내가 와서 얘기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임

마!” 으.

“해, 요놈! 내가 아이 내가 네 앞에 못 갈 줄 알아. 으.”

그러니까 뭐 여우도 말야, 그까짓 것 뭐 만만히 봤지. 아무리 이 칼을 차고 있어두. 그러니깐 그냥 탁 일어나더니 칼을 휘두르고 말이지 응, 그래 목에 칼이 번쩍허더니 그냥 그저 그 놈의 모가지가 땡땡 날라간 거여. 모가지가. [조사자 : 여우꺼요?] 응? [조사자 : 여우가요?] 사람이냐 목을 탁 쳐서 목이 떨어진 것 보니깐, 그가 기냥 여우여. 인자 죽으면 여우가 된거여. 여우여. 그게 변신헌 거여. 사람으루다가. 오래오래 묵어서. 알았어?

그 그래갖고 그건 마당에 죽었지. 으 죽어선 꼬리가 아홉여. 꼬리가 하날텐데. 알겠어? 그래 구미호여, 구미호. 꼬랭이 아홉이라 구미호이다 이거여. 그래 신대장이 이름을 지었어. 구미호. 알았어. 어 그래 그 여잔 살았지. 으 아 그놈 뭐 인제 잡았으니깐. 그래 그냥 뭐 사람으로 알구 잡고 보니깐 여우가 아냐, 죽으면 도로 그냥 본색이 드러난 거여. 그 그래 마당에 자빠졌지. 자기는 이제 날이 밝고 인제 집으로 와야 하잖어. 영. 그래,

“하룻밤 잘 쉬어가우. 난 인제 가야 겐소.”

인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깐 그 여자가 뭐래는 줄 알아? 여자도 잘 생겼어. 아주 천하미인여, 어

“장군 덕택에 이 참 이 목숨을 건졌는데, 게 날 버리고 가십니까 이거여. 날 데리구 안 가구.”

영 근데 집이 신장군은 그 당시에 말이지, 집이 저 마나님이 있는 분여. 아니 그런데 어디 산에 강원도에 갔다 와서 또 여자를 데리고 가봐. 집에 가는 날이면 이것 아버지한테 아주 그 야단맞을 거 아녀? 그 안 됐지.

“너 이놈! 어디 가서 이놈아! 여자 데리고 왔느냐?”

구. 자기 가서 부모한테 혼나, 혼날 판이거든. 그래,

“나는 엄부영시하에 안 됩니다. 난 또 처가 있는 사람ियो. 어떻게

내가 처녀를 데리고 가오. 응. 난 그러니 좀 박절하지만 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인제 괜찮어. 그 잡았으니깐,
“이제 와서 처녀를 잡아갈 여우는 없소.”

이거야. 내가 없애 버렸으니깐. 그리구서 이제 가는 거야, 응. 이제 이거 잘못 됐지. 그래 인제 가지. 말을 타고 가는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다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불러.

“장군님! 장군님! 나 좀 보라.”

는 얘기여. 그런게 이상허잖어. 그래 이것을 돌아다 봤어. 신장군이 말을 타고 뒤를 돌아다 보니깐, 그 저 그 여자가 지붕으로 올라갔어, 자 지붕으로. 그래 지붕에 올라가서 장군을 부르는거야.

“나 좀 보라.”

고. 그러더니 칼을 이렇게 빼들어서 여기다가 이 물고. 으 알았어 입으로 물고, 그리고서 땅으로 떨어진 거여. 아이 그래 칼을 여기다 입에 물고 떨어졌으니, 이거 뭐 죽었을 거 아녀? 으 그걸 보지 말았으면 되는데 그걸 봤단 말여. 그 여자가 칼을 입에다 물고 그냥 까꾸로 떨어져 죽더라 이거야. 그러니깐 자기도 마음이 좋진 않지.

“아! 잘못했구나! 그때 그 여자를 내가 데리구 와야 되는건데.”

적(겨우) 구했으니깐 끝끝내 참 구해줘야 말이지. 꺾 (다른사람과의 대화 생략) 그런데 얼마가 지나가지고 임진란이 났어. 임진왜란 몰라. [조사자 : 알아요.] 풍신수길이가 한국을 쳤지. 소서행정 가든청정이니, 뭐 군사 그때 십오만 명을 거느리고 온거여. 부산에 상륙한 거여. 에 부산첨사 정발장군 있었어. 우리 조상여. 그 낭반이 제일 먼저 전사했지. 어 그 낭반 추가 병사가 삼천이야. 삼천 가지고도 십오만을 어떻게 이겨. 응.

인제 그러가지고 여기를 델고 들어오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 저 우리 조선군은 계속 후퇴여. 에 그래 경상남북도 다 그냥 함락되야, 충청남북도 뭐 진주성 함락되야. 응 그러니까 계속 저 연전연승으로 들어

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말이지 어떻게 할 방비를 해야 되겠는데, 신립이 신대장을 나라에서 도, 도원수로 삼았어. 도원수. 그러면 지금 도원수 하면 지금 뭐 육군 참모총장급 될테지. 최고 책임자니깐. 알겠어?

“그래 나가서 왜적을 물리, 막으라.”

이거여. 왜적을. 으 그때 부대장이 저 이일 이대장이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을 한 분은 도원수, 하나는 부원수. [조사자 : 부원수가 누구시라고요?] 도원수 부원수? [조사자 : 부원수 이름이?] 이일씨. [조사자 : 이일.] 이일 이대장 [조사자 : 이리요?] 이일. 그 외자야. 그래 청주 (충주) 탄금대서 거까지 왜적이 올라왔으니깐, 알겠어.

그래 이걸 또 전혀 중과부족이여. 저긴. 여긴 가진게 뭐 무기란게 창하고 활뻑에 읊어. 저긴 총만 ‘팽’ 쏘면 여긴 죽어 그냥. 이 쏘기도 쉬어. 여기 활촉을 빼서 이래 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또 이것이 잘 맞거나 허여. 아무리 잘 쏘도 아 천성에 이래 대고 탁 그냥 어디 가서 숨어서, 엎드려서 그냥 쏘는데. 그냥 뭐 그냥 열이 열 방이면 아홉 사람은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뭐 신립 신대장도 뭐 자기도 예감을 한 거여. 자기 뭐 승산은 읊어. 그러나 어떡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 바쳐야지. 옛날에는 장군쯤 되면 자기 목숨을 안 애겨. 자기 몸 바쳤으니깐 죽을 몸 받쳐 죽을 각오하고, 전장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전쟁 나가서 살기를 어떻게 바라.

아하! 그런데 저녁에 인자 잠을 자는데, 이제 내일부턴은 인저 결전을 해야 할텐데. 아 꿈에 강원도서 그저 그 구헌 여자 꿈에 나타나 꿈에. 꿈을 꾸게 그 여자가 딱 나더니만,

“장군님! 내일 진을 쳐야 되텐데,”

옛날엔 이 진이라고. 진이 무슨 소린 줄 알어? [조사자 : 병력 배치하는 거요.] 병력 배치하는 걸 진이라고 허지.

“그런게 배수진을 치쇼.”

이거여, 배수진. 배수진이 무슨 소린지 알어? [조사자 : 물을 뒤에 다 두고.] 여기 강이 있지, 여기 강여. 여기다 강을 치지 말고 여기를 치라 이거여. 강을 깊어지고, '이 등 뒤에다가 강을 두고, 여기다 진을 치고 싸우소 이거여. 그래야 이긴다.'는 얘기가. 자기도 뭐 그럴 것두 같어.

으 왜 이쪽은 또 무기도 충분치 않고 숫자도 작고, 적이 무기도 좋고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일단 나가면 다 각오하고 싸워야 되야, 죽을라고. 살 생각을 말아야 돼. 그런게 강을, 여기가 강이면 여기다 진을 쳐야 하는데, 여기다 진을 쳤어, 이 앞에다가. 그래 뒤로는 후퇴를 못혀. 강이여, 강. 그런게 너희가 싸우다가 도망가지 말라는 이거여. 싸우다 싸우다 죽으라는 거여. 아 도망갈 때 어디가 있어. 뒤에는 강인데 도망가다 강에 빠져 죽으나, 싸우다 죽거나 마찬가지로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라 이거여. 그리고 또 그 여자가 그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꿈에. 아! 아침에 딱 인자 날이 밝았는데, 왜장이 딱 건너다 보니까.

“아! 조선에 신림에 신대장이 큰 명장이라더니, 해 명장 아니로구나!”

왜 진치는 거 보니까 틀렸어.

“아니 강을 깊어지고 진을 치다니, 저 사람이 저 장수냐?”

이거여. 그런데 신림이 신대장의 생각은 그게 아녀. 그런게 그냥 싸워라. 너희 후퇴할 길이 없잖느냐? 강이니까, 후퇴하다 강에 빠져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죽기 마찬가지로 그냥 끝까지 싸우다 죽으란 얘기가. 알겠어. 그것 들은 얘기가. 사람이란 이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도 해야지. 후퇴했다 전진했다 그러는 거지. 그냥 아 어디로, 아 뒤가 막혔으니 어디로 가. 그래 싸우는데, 그래 부장 그 이일 이대장이,

“이거 안됩니다. 만일에 전세가 불리하면 우린 뒤가 맥혀서 갈 데가 없지 안잖소 이거여. 싸우다 불리하면 후퇴도 허고 전진도 허는 거지 말이여. 이게 뭘니까?” 이거여.

“뭘, 이진 내 군령여. 내 명령했어. 누가 어기느냐?”

이거여. 만약 여기에 불응하면 죽인다는 얘기가. 칼을 적발해서 목

을 친다는 얘기에. 아무리 부장이라도 말이지, 어째 내 명령을 어기느냐 이거여. 내 명령으로 시행하라 이거여. 애 그건 뭐 틀렸어. 그건 뭐 진 친거 보니깐 그래 그날 짬이 벌어졌어. 안 돼지. 그냥,

“팡팡팡!”

허면 여기서 자꾸 쓰러지는데, 그놈의 활 가지고 안 돼잖아. 애 근데 이일 이대장은 벌써 뭐 처음부터 안거여. 지는 거 뻔하니깐, 그분은 그냥 싸우다 말이지 물로 기어들어 갔어. 물로 그냥. (Tape 3앞에 계속) 인제 왜장들은 말이지.

“저 이대장이 강물로 뛰어 뛰어들었는데, 물론 아래루 내려갈 것이다. 잠수해 가지고, 아래 가서 지켰다가 건져라.”

이거여. 으 벌써 이대장은 그거 알고 이미 위로 올라 갔어요. 물로 거실러 올라갔어. 그래 수행 삼십 리. 물로다가 삼십 리를 기어 올라 갔어. 아무나 삼십 리를. 어떻게 물속에 가서 삼십 리를. 그래 그분은 살아 났지.

신립 신대장은 뭐 자기가 원래 작전이 그러고 허니깐, 그냥 싸우다 전사했지. 신립이 신대장. 응 그것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니 왜 그 여자를 끝끝내 살려야지 말이지, 그래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그가 그 여자 나중에 원기(귀)가 됐어. 원기. 그러니까 신립이 망친거여.

그러니까 인자 신립이 신대장은 자기가 그 여자를 구했고, 그 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그 얘기를 허니까 믿은거여. 뭐 구하긴 뭘 구해. 안 데리구 가서 그냥 자기 돌아볼 적에 지붕에 올라가서 칼 메고 떨어져 죽었는데 말이지.

그 원귀가 그게 분하던 말여. 그냥. 으 그러니깐 그 나타나서, 죽은 원기가 나타나 가지고 그럭허슈, 그건 신대장이 죽을 거 아녀. 자기도 죽고 신대장 죽으면, 죽은 야중이 죽은 영혼이 만날 수도 있잖어. 알겠어. 그렇다는 얘기.

수수께끼

김봉용(68, 여) / 초부리T 1위

[초부3리 가게 앞] 박종수, 강현모, 권대한, 류태용, 이주영, 류은숙 조사 (1996. 6. 1)

안으면 한 아릅이요 쥐면 한 움큼이 뭐여?	솔뚜껍
뚝안에 뚝이 뭐냐?	뚝너머 솟돌
고석매 말로 들고 땡이란 걸으로 도리는 것은 뭐여?	맷돌

여

백

2. 갈달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갈달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갈월리와 파담리를 합하여 갈달리라고 하였다. 이곳은 용인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북쪽으로 와서 초부리와 면사무소가 있는 왕산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현재 1~3리까지 행정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자연 마을로 동쪽의 산간에 있는 갈울라고 하던 갈월리, 남쪽에 돌담이, 돌땀미라는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있는 돌담이, 독을 많이 구웠다는 독점, 그리고 북쪽에 비아수라는 남구만이 낙향하여 비파를 타며 경치를 즐겼다는 파담이라는 곳이 있다. 하천은 마을의 서쪽에 흐르고 있으며, 이곳도 용인의 도시화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2) 제보자

(1) 이병호(78, 남)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갈달리에 들어가서 노인정을 찾아갔을 때 계신 분이다.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데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채록하러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회한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판에 참가하였다. 더구나 대전에 이곳으로 채록하러 왔다는 것에 못마땅한 듯이, 조사자에게 집에 부모나 지방 사람들에게 채록하지 여기까지 뿔하러 왔느냐

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들에게 모든 일에는 기본을 알아야 한다며, 기본을 모르는 공부의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제공자료 : 설화 1~6, 민요 1.

(2) 강은실(68, 여)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노인정에서 이병호 할아버지에게 많은 설교를 듣고 더 이상 채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노인정을 나와 다른 제보자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는 중에, 동네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제보자택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제보자는 이 마을로 시집을 온 이후에 계속 살았으며, 조사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중간에 점심을 먹으러 온 할아버지보고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여기도 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7~10.

(3) 김영자(62, 여)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고향이 이북인 제보자는 조계종에서 십여 년 이상을 수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수도를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한다. 조사자가 강은실 댁에서 조사하는 중에 놀러 왔다가 만나게 되었다. 제보자는 북한에 있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으며, 어린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농촌 생활이 아닌 신식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모님 댁이 두만강 유역에서 공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자주 놀러갔다가 겪었던 귀신이나 도깨비 이야기를 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1~12.

3) 설화

① 흥철이 움터

이병호(78, 남) / 갈담리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갈담리에 들어가서 곧바로 노인정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2~3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조사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가 선뜻 나서 구술하여 주었다.

흥철이란 사람이 고려적 사람인지 이조적 사람인지, 그거는 전설로 내려오니깐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애 임금님이 정치를 잘못해설랑은 그짓(거짓) 미쳐가지고설랑은 저기 골짜구니 떡갈봉이라고, 봉두아지가 세 갠데, 저 초부리하고 경계따면은 떡갈봉이고, 한복판은 이박봉이고, 요쪽에 왕산리하고 경계따면은 노고봉이거든.

그런데 떡갈봉 밑에 고기 요렇게 장등이 내려왔는데, 지금도 가면은 흥철이 움터라고 우묵하게 패었다고. 애 그거설랑은

“임금님 마음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정치를 잘 해 달라.”

고. 그래구선 이제 도를, 기도를 허다가는 그 사람이 먹지도 않고 살았대여. 먹지도 않고.

② 유담의 묘(1)

이병호(78, 남) / 갈담리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의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듯한데, 그래서 연상이 된 것 같다.

그랬는데. 요 아래 들어오는데, 그 밭 가운데 묘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담 묘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균관 진사로, 긴(진)사로 초시 합격해서 성균관에설랑은 공부하고 있는 성균관 긴산데, 그 사람이 진주 유썬데.

그게 샘이 나서, 거기 올라가설랑은 흥철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돌부처처럼 있는게 샘이 나설랑은, 그래 장님을 수십 명을 데리고 와서 경을 읽었대여. 그 끄떡을 안하거든. 그러니깐 나중에는 인자 무당을 수십 명을 데려다 인자 굿을 했다네. 그래도 꿈쩍도 안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난중에는 그 우리나라 기생들을 주워 모다가는 빨겨 벗겨가지고 춤을 추었다네. 그래 여자가 빨겨벗겨 가지고 대낮에 춤을 추는 걸 보니 희안하거든. 그래 픽 웃고선 그냥 까만 연기 하나 푸쩍 날라가더니 고만이래요.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는데, 유담이라는 사람은 지금 조(저) 아래 묘이가 있는데,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도,

“유담 묘이, 유담 묘이”

그런단 말이여. ‘유담 묘이, 유담 묘이’ 그러고 있어 지금도, 희양을 지내도. 그 저기 가면은 ‘흥철이 움터’ 거기 가르쳐 줄테니 가 볼래요. 거기 내 여기서 가르쳐 주게 응. 그런데 거기 지금도 호랭이가 있어 가지 못할 걸. 호랭이가 지금도 있는데, 거기를 가나 못 가지. 그 끝이여.(웃음)

그 못된 짓을 하면, 못된 짓을 하면 수백 수백 년을 가도 이름을 불러게 마련이여. 그래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못된 짓을 하면 못 쓴다고. [조사자 : 네, 그래.] 그래 요걸 널라고.

③ 유복자 공자의 일화

이병호(78, 남) / 갈담리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의 나온 취재 목적을 다시 한 번 듣고는 이상한 듯이 물었다. 그래서 조사자가 나쁜 일을 하면 이름이 남겨 진다고 하자, 착한 일을 하여도 이름이 남지 않느냐고 하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조사자 : 또 없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해도 이름이 남잖아요?] 착한 일을 해도 이름이 남겨지지. 아 중국의 공자가 뭐여 유복자거든. 공자님 아버지가 공자님 뱃속에 넣고선 죽었거든.

그래 공자의 어머니 안씨거든. 그러니깐 인제 공자의 어머니가 공씨를 공자를 낳아가지구설랑은, 옛날 지금처럼 발달 돼서(되지 안해서)서 살기 어렵지. 그래 인제 그 노자가 뭐여 학식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인제 노자한테 가서 공불시켰지. 그래 인자 공자의 선생님이 노자란 말이여.

그런데 인제 자공이란 분이 공자님보다 열 살이 원데, 게 공자님한테 그 인·의·예·지 그 덕망을 배울라고 하는데, 공자님이 집도 없는 거지여. 그러니 어떻게 해여. 그래 자공이가 자기네 집에다가서는 공자님을 모셔다 놓고설랑은 공자님한테 배우는 거지. 그래서 그래도 공자가 자공이한테 저 얻어 먹어가며 공부시켰어도 제자들한테 풀전한 폰 안 받았거든.

그래서 그 역사책에는 이구산, 공자님이 중국의 이구산이라는 산 밑에서 태어났는데, ‘이구산 대생인이 3천 제자 거느리고’ 이게 역사책에 나오지. 그런데 인자 그 중에서 제일 수제자가 안자·증자란 말이여. 공자님의 제일 수제자가. 그래고 인제 십철이 있는데, 자공이 선두름 해서 십철이 있는데, 그 공자님이 돌아가지구설랑은 다른 제자들은 삼년 밖에 공자님의 복을 안 입었거든. 자공이는 6년을 입었어. 메기고 재우고 그래 쫓어도.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의 좋은 말을 한데 모아서 해 놓은 책이 논어여. 그 공자님의 말씀들을 의논한 책이라 이런 뜻이여. 논어 7권이여. 공자님 대생인 대생인 하는 뜻이 그 까닭이여.

그런데 지금 뭐 예수니 저기서 석가니 이 사람들 제자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해 놓은 거 하나도 없어. 뭐 전수한 말 한 마디도 읊고. 그건 성인이 아니여. 지금에 불교를 믿고 십자교 이래지만, 그건 성인이 아니여. 그걸 알아 뒤. 그래고 성인을 갖다가 누가 봐. 미륵이고 뭐고 이런 거 사극팔방 꺾어서는 비 맞히고 뭐 눈 맞히고, 누가 거 성인을 그렇게 대접 해여. 아 열십자 해가지구선 지붕 꼭대기에 해 놓고. 사주 팔방 그렇게 성인 대접을 해 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거 못 쓴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며 그런 못된 말 하지 말라고.

④ 공자 때문에 나쁜 사람 된 도척이

이병호(78, 남) / 갈담리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공자와 관련된, 나쁜 사람이란 의미에서 생각이 난 것이 구술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에게 남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이걸 알아뒤야 돼여. 사람이 태어날 적에는 다 똑같은 마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랄 적에 배우기를 많게 배워가지구서 성질이 변질돼서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걸 알아도.

그래 도척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까 하고설랑은 태어났는데, 공자가 먼저 태어나서가지구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도척이는 돌아다니며 못된 짓만 했어. 그래 그래설랑은 준나라 그 임금께설랑은,

“부모한테 제사 지내라.”

구. 아 저기 제수들 장만해서 즐라고 헐 것 같으면 돌아댕기며 술 먹어 읊애고 별짓을 다 하거든.

“예이, 도척같은 놈! 세상에 못된 놈이라구!”

그래 지끔도 사람이 못 되면, 이 도척, '도척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는 거여.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짓을 해도 이름을 전해구, 좋은 일을 해도 이름을 전해는 거여 응.

그러니까 나쁜짓을 하려면 아주 나쁜짓을 하란 말이여, 도척이처럼. 뛰어난 놈, 나쁜짓을 한다고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돼. 도척이가 그래도 사람은 안 죽였어. 어떤 놈들은 뭐 이 세상에서랑은 뭐 충청도 어디 놔. 뭐,

“제일 사람을 한 번 많이 죽인다.”

고. 그래가지고 무고한 사람, 죄 몇 놈들이 잡아다가설랑은 그냥 때려 죽이고, 그거 낭중에 올려 들어가. 그제 그제 될 일이 아니며, 그제. 그제 서양놈의 풍속이여. 그러니깐은 나보담두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구, 제 집안 어른들 계실텐데, 그 낭반들한테 좋은 말씀 듣지 뭐 나한테 찾아와.

5 방아타령의 내력

이병호(78, 남) / 갈담리 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에게 조사 목적을 묻고는 참 회한한 사람들이란 뜻이 가뭇거리며 들려준 것이다. 이 노래는 노래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방아타령이 옛날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투로 설명한 것이다.

[조사자 : 더 아시는 얘기 없으세요. 많이 아신다고 들었는데.] 별 회한한 사람들, 참 회한한 말.

지금 방아타령이라는게 방아타령이 아니며. 옛날에 어른들 방아타령 허신 거는 팔도의 명산을 가지고 방아타령을 했는데. 그래 인제 방아타령이라고 했지.

에헤라 방ايا

그럼은

울저라(울지마라) 방ايا

인제 그러지. 그러면 인제 경기도부터 나가는 거여.

여주.이천 대태방아

광주.분원 사기방아

안성.음랑 화약방아

이조시절에는 안성에서 화약을 만드는 몬양이여.

김포.통진 밀다리방아

이 이게 옛날 방아타령이여. 지금 이 방아타령 하는 사람 읍어.

김해.창원 보리방아

응 김해.창원 보리방아

김제.만제 멧살방아

연안.백천 밀가루방아

선수.갑산 귀지방아

저기저

정선.평천 모밀방아

그런데 충청도 허구 평안도 허구는 무슨 특산물이 없나 봐. 그런 방아가 방아타령이 안들어 갔어. 이런 노래 들어 봤어? 옛날 이조시대 시절의 방아타령이여. 그런게 충청도에는 무슨 방아가 안 나오구, 평안도에는 무슨 방아가 읍어. 오이것어? 지금 방아타령 한 거 오이것냐고? [조사자 : 네.] 그럼 오여 봐. 지금 방아타령이 방아타령이여. 그 저기 저기 구조불능은 다 왜놈 시절에 8.15해방 되기 전에 나온 것이 그게 무슨 방아타령이여.

청산읍네 물레방아

그게 끝이지. 청산이 충청도지 어던지, 청산읍네 물레방아라고 그랬는데. 옛날 이야기를 거기서 다 하지, 뭘 여기 와서 어떻게 험다고 찾아와서 그려. 회안한 사람들이네.

6 석슬거의 그림

이병호(78, 남) / 갈담리 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방아타령의 내력을 마치고, 공부는 기본을 알아야 한다며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는 슬거의 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슬거, 승(성)이 속(석)가여. 속슬거여.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슬거, 슬거’ 하지. 그 사람의 승을 안 가르쳐 주니 그게, 내가 지금 얘기현대 로 기본을 모르는 거다 이런 얘기,

그래 속슬거 말이여. 그 벽화 그린 것. 새가 진짜 나무인가 허고는 앉았다가 대가리 부딪혀 떨어져 죽는 거. 그런게 도를 통했지. 그림에 도를 도를 통했지.

남의 그림 그린다고 승내 내서 그린 것은 못 쓰는 거여.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허러 다녀도 도를 통해야 된다 말이여.

7 호랭이를 끼고 잔 여인

강은실(68, 여) / 갈담리 T 1앞

[갈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나와 동네에서 이야기를 잘 한다는 할머니를 물어 제보자택으로 찾아갔다. 이야기를 부탁하자 자신이 6·25때 경험한 이야기라 하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추우니까 저 그냥 저기 가서 산에 가서 바위돌 틈바구니에 가서 난 릴 꺾었어. 그래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 애들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중국놈이 낮에 왔어. 그래서 중국놈이 낮에 와서, 그 게 중국놈이, 밤에 뭐가 버석버석 내려 와. 그래서 ‘인자 중국놈이 우

리 죽일라고 하나보다. 나 혼자 죽지' 내가 그랬거든.

그래구서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호랭이가 그냥 쾅쾅쾅 뛰어들어 오드니 여기를(허리부분) 그냥 시감는 거여. 그래도 난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게 오니까 오히려 더 춥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하하 그런데 낮에까지 안가. 그런데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누구나?” 그래

“아휴, 몰라요. 개가, 개가 왔나 봐요.”

난 그랬지. 갠지 뭘지 그냥 밤에 오는데, 그래서 인제 식전에 인제 흰히 밝았어. 그때까지도 안 간 거여. 호랭이래요. 호랭이래요 그게. 그래 안 갔는데, 그냥 아이 윗사람들이, 노인네들이 호랭인가 갠가 본다고들 오드라고. 그러더니 범이래. 범인데 우리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드니 저기,

“큰 짐승이 인간의 눈에 뜨지 말고 가시라고. 인간의 눈에 띄면 안 된다고, 가시라.”

고 그러니까. 기지개를 쭉 펴드니 그냥 어실렁 어실렁 가드라고. 그나저나 그게 무섭지 않았어. [조사자 : 보셨어요?] 그래서 호랭이를 여기다 끼고 잤다니까. 호랭이를 끼고 잤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나 하지 뭐. 옛날 얘기 뭐 할게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나오니까 그 이튿날 나오니까,

“아휴, 저기 집이는 호랭이를 끼고 잤대매. 호랭이를 끼고 잤대매.”

“아휴, 호랭인지 뭘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를 여기 안에 감고 잠을 뭐 잤잖어. 또 1·4후퇴 때 잠도 못 잤지. 그냥 이렇게 애를 안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그렇게 1·4후퇴 때 그렇게 넘졌어. 그렇고 넘기고 내려와서는 내려왔었지 뭐. 그리고 도 거기 몇 일 있었어. 녹음을 하는데 잘 해야 하는데.

8 유담의 묘(2)

강은실(68, 여) / 갈담리T 1앞

[갈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이야기를 마치고,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를 녹음해서 들려주니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앞의 유담의 묘에서는 대상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곳이 단지 도를 닦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유담 묘이라고 요 아래 묘를 썼어. [조사자 : 아! 묘요.] 응. 그 사람이 심청(심술)이 하두 많았요. 그런데 여기 절이 있는데, 절을 있는데 그냥 하나 이전에 절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백일 기도를 드리는데, 사흘만 하면 그 사람이 참 잘 될 텐데, 이거 심청을 놓을라고, 유담이가 유담이라는 사람이 심청을 놓(놓)을라고 그 절에 가서 그 시님을 웃겨야 되는데 웃길 수가 없거든. 참선하느라고.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가서 그냥 사흘을 놀았어. 거기서 여자를 유담이라는 사람이 사흘을 놀았는데, 그 시님이 아무리 봐도 안 웃을래야 안 웃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웃었지 뭐여. 그래서 그 시님이 망했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었네.

[조사자 : 심청이 뭐예요? 심청이??] 심청이 망해서. 심청이 심보 망한 것도 몰라. [조사자 : 아! 심청이 심보 망할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응. 심청이 심보를 망하게 하면은 이런 사람도 왜 심청 놀잖아. 그래니까, [조사자 : 심청 논다 그래요?] 앵. 그래니까 그 시님이 웃지 않았으면, 그 시님이 잘 될텐데. 웃은 사흘, 웃음 사흘만에 웃는 까닭에.

그 유담이라는 묘이라 여기 있어. 그런 얘기 들었네.

9] 뼈국새의 유래

강은실(68, 여) / 갈담리T 1앞

[갈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리이러한 이야기면 된다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뼈국새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술하면서 이것도 되느냐 하였다. 좋다고 하자 웃으면서 구술하여 주었다.

거는(그것은) 이웃 집에서 떡국을 가져 왔대여. 그런데 개가, 부뚜막에다 놓고 덮은 걸 개가 먹었다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먹었다고 그냥 어떻게 구박을 하고 그냥, 저기 해구 때려 죽였대여. 그러니까 때려 죽였대나 절구갱이로 지져(짚어)서 죽였대. 죽으면서,

“아! 개 개 개.”

그러구 가서 뼈꼭새가 됐대. 개가 먹었는데, 그 뼈꼭새. [조사자 : 개가 먹었는데 자기가.] 며느리가 먹었다고 인제 시어머니가. 그래서 떡국새. 그래서 뼈꼭새, ‘뼈꼭! 뼈꼭!’ 그러잖아. 그런 소리 들었네 난.

10] 도깨비 불

강은실(68, 여) / 갈담리T 1앞

[갈담리 제보자택]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이야기 중간에 제보자의 남편이 들어와서 조사자가 조사나온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제보자가 다시 이야기 해 준 것이다. 이미 채록한 유담이 묘에 관한 이야기를 대화식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조사자가 도깨비나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추녀 끝에 불두 나구 그랬었다. 그러면 이젠 불이 나면 경찰이 오잖

아. 경찰이 오면 꺼진대. 그리 갑작 같으데. 또 그래든 사람을 붙잡아 가고. 사람을 붙잡아 가며는 아 말짱한데 뭐 붙어가서 뭐라고 허졌어. 그래 붙잡아 갔다고 이상하다고 하든. 또 추녀 끝에 그냥 밤이면 그냥 또 나. 그래구서 그게 도깨비래 그게. [조사자 : 근데 안 탔어요?] 타 지도 앓어. [조사자 : 그냥 붙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구설라무니 그냥 소당에서 술을, 술을 뒤집었다 빼 놓았다 그냥 밤이면 그런데. 그런데 여자는 방에 있는데 그러거든. 여자는 방에 있는데. 그러는, 그러니까는 겁이 나잖아.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된건가 하구 여자를 보냈대. 여자를 보내두 여직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갔다 또 오잖아. 갔다 또 오면 더 해구. 하기사 그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인제 여기다 해 앓았어 아주.

터주가리를 해가지고 해 앓혔는데, 앓히고서 그것을 위해온 거여 그냥. [조사자 : 그집 잘 되게. 해하지 않게 비는 거예요?] 응 그랴. 딱 해다, 가을에는 딱 해 놓고 그냥 빌구 그러. 여태까지 그걸 빈다구. [조사자 : 아직 들여 놓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더니 또 그 사람이 이제 그러고 읊어졌지. 인제 읊어.

읊어졌는데, 경수네가 또 그 아들이 미쳤어. 뒤에 아들이 미쳤는데 그냥 다락에다 그걸해 놔있지. 다락에다 도깨비를 해 앓혔는데, 아들이 미치니까 인제 그걸 내다 났어. 내다 났는데 또 그래구 또 그래더니, 인제 내다놓고 그것을 붙잡는 거야 그냥. 지켜도 막무가네이고, 뭐 사람들이 무여도 막무가네여. 순경만 오면 또 괜찮데야. 그랬는데 그것을 요새, 요근래까장 연전에, 작년 그러께까장 했는데, 어떤 미친년이 와 가지구 그것을 그냥 들러 앓았어. 그냥 탁 터주를 이삭같은 것을 해서 불을 놓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해여. 인제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조사자 : 그 집에 뭐 그 원한 산 것 있나?] 그러니까 그 집은 원한 산지 모르지. 그런데 그 여자가 도깨비래요. 열 여섯살 먹은게. 그 경수 아버지이란 이가 총각인데, 16살 먹은 것을 데릴사위로 데려 왔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었어 대체. [조사자 : 데릴, 민며느리요?]

그라 민며느리. 데릴사위이라, 민며느리로 데려 왔는데, 그게 그게 있었데. 그런데 그러고서는 그것도 가고, 그래 해 았혔었는데. 그러고 그 사람은 딴 데로 장가 가 가지고 아들 딸 낳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 그 건. 그 전설이지.

㉫ 산신에게 약을 받은 사람

김영재(62, 여) / 갈담리 T 1와

[갈담리 강은실댁]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강은실 댁에서 조사할 때, 마실을 온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제보자의 고향은 두만강이 보이는 곳으로 그곳에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제보자가 구술한 이야기는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다.

겪은 일인데, 나는 지금 조계종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고, 한 지가 10여 년 됐어요. 이제 생각이 나네. 내가 겪은 일이에요. 당한 일인데, 어려서 5살인가 6살인가 이때 홍역을 했다고 해요, 늦게. 쪼그마할 때 지.

그러는데 야밤에 잠을 그렇게 안 자고, 비몽사몽 간이라고 하거든요.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산신할아버지가 머리맡에 오셔가지구 이렇게 약을 주시더라구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얀 산신할아버지가 오셔서 약을 주면서,

“너! 이 약을 받아 먹어라. 그러믄 낫는다.”

고 해서. 저는 실지처럼 그렇게 먹은 일이 있어요. 어려서 잉. [조사자 : 일어나 보니까 손에 있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약을 주드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 비몽사몽 간이라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듯, 이렇게 비몽사몽 간에 이렇게 수도를 하면은 많이 그렇게 보여요. 수도를 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12 하늘까지 닿는 바퀴 도깨비

김영자(62, 여) / 갈담리T 1앞뒤

[갈담리 강은실택] 박종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하여 준 것이다. 이것은 어렸을 때 고향에서 경험한 도깨비 이야기라 한다. 중간에 내용상 귀신이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이라 설명하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산만하여 생략하였다.

한 번 또 국민학교 땡기는데 이북에서, 어려서 국민학교 땡기는데, 우리 이모네 집이 두만강 고 옆이었어요. 우리는 또 시내에서 살고, 거리가 좀 이렇게 있구. 이 기차길이 뭐 후미길이라고 허데. 건네는 사람이, 건네는 거. 차 오면 인제 딱 이렇게 스톱되고 이러는 것요. 그랬는데 거기를 우리 언니랑 사촌 언니랑 이렇게 나까지 세 사람이 갔어요. (집안과 지역에 관련된 설명 부분 생략, Tape 뒷면 계속)

근데 저는 그리를 지나가는데, 이모네 집을 셋이서 가는데, 나는 굉장히 어려서 겁이 많았나 봐요. 이런 좀 신식 생활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신식생활을 시골 이런 데서 그런 것 모르고 그랬는데. 가는데 그 후미길인데, 거기서도 많이 기차에 멩겨 죽었데요. 그 저수, 그 개울이 바로 옆이, 큰 개울이 그것도 두만강에 연결되는 개울이예요.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거기서 많이 죽고. 그 후미길이 지나가다가도 많이 죽고 이랬데요. 거기 물탱크가 있어요. 무슨 물탱크인가 기차에 보내는 물탱크가 있거든요. 이 특별히 외따른게. 거기 근처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리 가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아! 대단합니다. 하늘 닿는 구루마가, 이 바퀴(바퀴) 있잖아요. 철바퀴 하나가 하늘을 닿더라구요. 근데 도깨비 같이 이 뭐라고 할까, 영화에도 나오고 만화에도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렇게 빼쪽한 그런 모자를 쓴 그런 새까만 귀신이라구요. 저는 몰랐죠. 그랬는데 올려다 보니깐 구루마도 소리 없이

오고, 우리 그 쪽으로 오고. 저만 봤대요.

그 사람 들이, 저기 같이 간 사람은 못 보고 나만 봤대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하늘, 하늘, 하늘 닿드라고요. 그러면서 쭉 와.

그 다음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나는 무서워서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언니랑은 모르니까 여사로 그냥. 나는 겁이 먹고 한판에 서서, 따라서 따라서 그렇게 온 일은 있어요.

그런 것은 봤어요. 그렇게. [조사자 : 할머니의 눈에만 보인 거예요?] 예. 내 눈에만 보인 거죠.

4) 민요

1 방아타령

이병호(78, 남) / 갈담리 T 1앞

[갈담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김현정, 정순옥, 신선화 조사 (1996. 6. 1)

이 민요는 방아타령의 내력 이야기에서 민요의 가사만을 옮겨 놓은 것이다.

에헤라 방아야	울져라(울지마라) 방아야
여주 이천 대태방아	광주 분원 사기방아
안성 음랑 화약방아	김포 통진 밀다리방아
김해 창원 보리방아	김제 만제 뽕살방아
연안 백천 밀가루방아	선수 갑산 귀지방아
정선 평천 모밀방아	청산읍네 물레방아

3. 왕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조사 (1996. 6. 1)

모현면 왕산리는 1리에서 8리까지 있는 큰 마을이다. 왕산리는 모현면의 면소재지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왕곡, 관청리, 모산리를 합하여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왕산리는 용인시내에서 버스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북쪽에 있다. 조사자들은 일단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일정을 세웠다.

왕산리는 우리가 느꼈던 농촌과 같은 전원적인 느낌보다 근대화된 건물과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강했다. 건물들도 도로변을 따라서 있었고, 그 뒤쪽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택들도 대부분 현대화된 양옥의 형태를 띄고 있었고, 빌라도 몇 채 있었다. 이곳은 대학 주변의 마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취나 하숙을 하는 곳이 많았다. 마을의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다는 것과 동네분들이 모두 친절하고 좋았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선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그 변화의 움직임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도로의 확장, 포장공사와 건축공사가 많이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상당히 살기 좋고 인심좋은 마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지금은 인심이 많이 각박해졌다는 아쉬운 소리를 듣기도 했다.

2) 제보자

(1) 정석영(75, 남)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소개받은 곳이 경로당이었다. 경로당에 찾아 가서 조사나 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조사자의 조사 목적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구술하여 준 할아버님이다. 나이는 75세로, 이곳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른이다. 제보자는 상당히 조용한 성품에 마음씨도 매우 자상하신 할아버님이셨다. 이야기 중에 담배를 계속 들고서 차분히 말씀하여 주었다. 경로당의 다른 할아버님들도 제보자를 이야기꾼이라 할 정도로 이야기꾼이 무르익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제공자료 : 설화 1~3.

(2) 윤병찬(80, 남)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처음 방문한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동네에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을 묻자 할아버님들이 추천한 분이였다. 조사자는 윤병찬 할아버님을 소개받고 물어 물어 때까지 어렵게 찾아갔으나, 약주를 한 잔 하러 나가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약주를 마시러 간 곳을 물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제보자는 80세라는 연세에 비해 매우 정정하였고 구술하는 발음도 정확하였다. 제보자는 이곳 왕산리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80년을 살아온 왕산리의 터줏대감 할아버님이였다.

제공자료 : 설화 4~9.

(3) 맹복순(66, 여)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도착한 왕산 4리에는 가게 앞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주변에 마루 세 개에 의자가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조사자들은 우선 가게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계시기에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제보자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휴식처로 마을의 제2의 경로당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는 험렁한 주름바지에 꽃무늬 티를 입었고, 허리엔 짝을 매고 있다.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참이나 조르고 조르다, 동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신 걸 먹고 나서야 이야기 해주셨다. 녹음을 하고 난 뒤 그것을 들려 주었더니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매우 좋아하셨다.

제공자료 : 설화 10.

(4) 박길한(58, 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가게에서 채록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몇 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여 계셨다. 그래서 쉬는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을 때 제보자가 지나가다가 조사자 곁에 와서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면서 물었다. 조사 나온 목적을 말하자 조사자들에게 '더운데 멀리 와서 수고한다'며 가게에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사 주었고,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에 응하여 주었다. 제보자는 큰 눈에 쌍꺼풀이 젖고, 양복 바지에 하늘색 티를 입고 있었다. 어려운 사람에게 자상한 제보자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었다.

제공자료 : 설화 11~14.

3) 설화**① 유식한 사둔 혼내준 삼촌**

정석영(75, 남) / 왕산리T 1호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이 왕산리에 도착하여 마을의 경로당을 찾아갔다. 그 경로당 앞 정자나무 밑에 많은 할아버지들이 나와 쉬면서 화투놀이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여러 할아버지가 제보자를 소개하였다. 그러자 제보자는 빙그레 웃다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학자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고. 고씨라는 학자가 집이 전부 유식해서 그냥 양반집이라 그거여. 혼인을 하는데, 이것 참 저 신랑 집에서 장가를 보낼 거 아니야 신부집으로, 예전엔 신부집으로 갔어. 가갓구 거기가 제를 지내고 여기 오는 거지, 구식.

제를 지내러 갔더니, 가는데 아 신부집은 천부 학자털이구 신랑집은 그냥 무식하다 이말이여. 영? 그래 신랑 아버지가 떡 허는 소리가, 거 신랑을 데려갈 후행이라고 있었어, 전에는. 영? 후행이 데려가야 할텐

데, 아 신부집은 전부 무식한, 저 유식한데 아 자기 집안 무식한 대부분 말 한 마디도 못 한다 이 말이여.

그러니깐 먼 촌 일가 양반한테 가서설라믄, 그 유식한 분한테 가,
“아, 우리 아들 장가를 좀 데리고 갔다 오너라.”

이말이야. 아 그러니깐,
“그래라.”

구. 아 그래구. 마침 그런 얘길 삼촌한테, 동상들을(에게) 하는 거지. 아 동상이 들더니 벌쩍 뛰면서,

“삼촌이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후, 조카 후행을 삼촌이 가는 거지 누가 가느냐?”

구. 아 그 야단치구 그러니깐. 아 형이,

“아, 너는 무식해서, 에 판무식이 어떻게 거 유식한 집에 가서 대꾸를 하랴. 아 사둔을 어떻게 대꾸를 하니?”

그러니깐.
“걱정 말라.”

구.(조사자 웃음) 아 이 큰소리 치구 그냥 어찌튼지 그때까지,

“내가 딱 조카를 데리구 가야지 누가 가겠느냐.”구.

“아따. 아 그럼 할 수 없지.”

보냈단 말이야. 보냈더니, 이놈은 뭐 초저녁에 으째던지 사둔, 여자 사둔 측에서 워낙 문자를 으째튼지 써서, 초저녁이부터 으째튼지 냅다 쓰는데, ‘한 마디도 알아 들을 수 있는 것은 어떻느냐.’ 아 고개만 끄떡 끄떡 하다가, 아 이놈이 하두 얘기를 하라구 하는데 문자를 써서 대꾸가 있어야지, 한 마디나. 대꾸가 없으니깐, 이젠 술을 주드라 이말이여. 술을 주니깐,

“에 사둔가 유식하니, 내가 글자 한 자 물어 봅시다.”

이래거든.

“아 사람 인 밑에 한 일 한 자가 무슨 자요?”

이말이야.(웃음) 어? 아 그거 아주 문장 능해도, 한문에서 암만 찾

아봐두 그 사람 인 밑에 한 일 한 자는 읍단 이말이여.

“아, 몰르것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런 애길 무식 거 나만도 못하다고. 뭐이 유식하냐고. 판무식 나만도 못하다고. 아 그 은문에 스자.”

응? 스자는, 스자 그렇게 하문(손으로 써 보임 : 웃음) 거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한테 그렇게 맥 못추고 몰린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 임시변통이 있는거지. 그렇지 않아? 스자가 국문에 스자가 한문에는 읍거든, 그 자가. 절대. 그러니까 ‘사람 인 밑에 한 일 한 자가 무슨 자요’ 이러니까, 아 이래 한문을 금방 열심히 더듬어 생각을 해두 한문엔 그런 자가 읍단 말이여. 아 은문 생각 못했지. 국문 생각은.(웃음)

그냥 유식한 사람이 그 어찌튼 무식한 사람한테 그냥 혼독줄이 났지 될 그래. 아 그래 이놈이 얼짜 좋지. 그러군 이걸 토대로 이젠 얘기 꽤나 하구 이랬으니깐, 목이 켄켄하니깐,

“거 물 좀 먹을 수 없소?”

이라구. 주인더러 청구할 꺼 아니야? 그러니깐 주인이 하인더러 허는 소리가,

“그 냉수, 냉수 좀 떠 오너라.”

이 말이여. 그러니깐 아 거 하인이 와서는 물을 떠가지고 와서,

“냉수요.”

이말이여. 응 그러구 디밀거든. 그러니깐,

“아이 거 참 유식하게 배서 종년까지 문자를 쓰나 보다. 찬물이면 찬물이지 냉수냐?”

아주 종년까지 문자를 쓴다 그래. 아 종년까지 혼난 났다 이거여.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 유식하긴 참 유식하구나! 종년까지 문자를 쓰는구나!”

그러드래. [조사자 : 그게 끝이예요.] 글을 잘 배웠다고 난척하지 말구. 그저 이 머리가 좋으면은 어디 가든지 뭐든지 해먹는 거구 그런 거야. 공부를 잘만 하면.

② 똑똑한 색시 길들이기

정석영(75, 남) / 왕산리T 1앞

[왕산리] 박종수, 강현호,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하여 주었다. 장가를 가서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잘난 척하지 못하게 지혜를 발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장가를 갔더니, 이젠 장가를 가서 처가집에, 지금 안가다던든, 처음 갔지. 갔더니 첫날 사위를 딱 맞이해태가지군. 자 이젠 사위를 데리고 저녁에 얘기얘기 하면서, 예전엔 신부집에 가서 사흘만에 왔어, 장가 들러 가서.

그래 사위가 앞에 이제 똑 같이 앉아서 배우면서,

“너, 그래 뭘 보고 배웠니?”

지금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댕겼데나믄, 예전엔 어 논어까지 배웠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응, 그려. 너 배웠어도 암만 배웠어두, 우리 딸만은 못할꺼다.”

응? 아 이 영감쟁이가 딸에 칭찬을 사위더러 엄청하거든.

“그러냐!”

구. 그 자기 색시더러 인저, 저녁에 이젠 똑 자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

“하늘이여. 저 산이 높아도 저렇게 안 무너지는 뜻이 뭐고?”

이래니까는. 여자가 딱허거와 여자가 아주 문자를 써서 잉.

“산이 높아도 안 무너지는 건 돌이 많아 안 무너지는 거지.”

그리구 똑 대답을 한다 말이여. 아주 그래, 아 또 그렇게 대답을, 그래도 배운 여자니까 척 대답을 하는데.

“대나무는 저렇게 우거지면, 날마다 푸르고 키가 크니 언젠 뜻인고?”

아 대나무는, 아 소나무는 저렇게, 참 대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는 매

일 저렇게, 소나무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맨날 푸르잖아? 아 그래 '소나무는 왜 저렇게 푸른고?' 그러니깐. 여자가 딱 대답을 답을 쓰기를,

“소나무가 저렇게 푸른 건 속이 꼭 찬 탓이지. 지가 이렇게 푸르지.”

그 대답을 딱 이렇게 하거든. [조사자 : 속이 꼭 찬 사람이요?] 소나무는 속이 꼭 차서 푸르다 이말이여.

“아 그러냐!”

구. 저녁에 이제 자다가는 보니까는 신부가 잠이 들었어. 글을 쓰기를 뭐라고, 저녁에 남자가, 지금들은 시라고 하잖아? 시를 써서는 논 반지그릇에 딱 담어 놓는거야.

산이 높아도 안 무너지는 건, 다섯 고개라도 돌이 많아서 안 무너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했으니, 또 소나무가 저렇게 푸른 건 속이 꼭 차서 푸르다고 이랬으니. 하늘이 높아도 안 무너지는 건 돌이 많아 안 무너지니?응? 신랑이.

“대나무가. 키가 커 커두 정차 푸른게 태평 푸르잖아? 그것두 속이 꼭 차 푸르냐?”

말이야. 또 거 그러구 신랑이 이젠 세 개를 물어야지.

“길가에 버들은 왜 크질 못하고 저렇게 응 키가 적은고?”

그러니깐. '노리장화'라고 여자가, 색시가 딱 대답을 하기를,

“노류장화 인게유지라 사람을 많이 꺾어설라든 객여설라든 키가 못자란거라.”

그래 세번째 이젠 답을 또 쓰거든. 에 장모가 키가 적던지,

“아 장모쟁이 키 적은 것도 사람을 많이 꺾어서 키가 적으냐?”

말이야. 아이 뭐 욕을 다 했던 말이야. 당채 남자 앞에서 배운 체도 못하더란 거야. 그런데 길가에 버들을 노리장화인게지를 사람을 많이 꺾어서 못자란다고 했으니, 장모쟁이 키 적은 것도 사람을 많이 꺾어 키가 적으냐 이말이야. (웃음) 아 그냥 코 죽어서 증말로 다시는 배웠단 소리를 못한다네. [조사자 : 그냥 이젠 그 얘기는 그러면은?]

시절! 그 여자 그 장인이 저희 딸을 잘 배워 가르쳤다고 흰소리를

하니까는 잉? 가만히 가 시험해 보니까는 배우기는 잘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깐 아 잘못하다간 여자한테 먹고재(좆히니깐) 한 번 거시기 해야지. [조사자 : 아 알겠어요. 할아버님은 이런 옛날 얘기들을요 다 어디서 들으시는 거예요?] 거 살다보면 그렇구 그런거지.

③ 모자란 바보 신랑

정석영(75, 남) / 왕산리T 1앞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면 세 마디를 하여 한다’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세 마디는 해 줘야지.(웃음)

예전에 늦도록 장가를 못 가는, 지금은 없나? 지금도 농촌 총각 장가 못 가는 사람 많지? 장가를 참 못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이젠 처가살이를 갔더라 이말이여.

신랑이 그뎨 이제 똑똑하면 장가를 일찍 갔지만, 인저 처가살이까지 갔을 정도면 좀 모자란 건 사실이지. 아이 그 놈 가서는 일만 직살라게 하고, 이쪽까지 잉 장모가 대접하는게 당채 부실하다 이말이여. 그 딸이 보니깐.

그래도 딸은 자기 남편이니깐 어떻게 하여. 안 됐지. 그래 가을 농사짓고는 가을고사를 했는데, 아이 장모가 이제는 이웃집에도 돌르고, 어디 갔다 봐라 이래서는 심부름을 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분배하구선 딸더러,

“이 떡함지 갖다 뒤라.”

그러니. 아 신랑이 떡 쪼끔 주는 거 그냥 넌름 집어 먹구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 됐지 뭘. 그래 부모도 몰래 슬며시 거기다 놀, 떡조각을 슬며시 하나 남편 앞으로 내던져 주는거지? 내던져 주니깐,

이놈아 얼마나 모자라면.

“아이구, 뜨거워! 아이구, 뜨거라!”

아무 말도 먹었으면, 안하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구 뜨거워.’ 이 떡을 저게 준다 이거지. 그런데 색시가 또 미안할 것 아니야? 제 부모 보기도.

“에이 암말도 말고, 그러 죄끔한 부슬기 하나 내던졌기니 뭘 그렇게 뜨겁다.”

구. 아 이게 한술 더 떠서.

“장모님! 이것 좀 보쇼! 이게 부스러기 떡이요? 이게 큰떡 조각이지?”

(웃음)벌씩 벌씩 갖다 디밀더라네. 그만큼 모자란 사람도 있다는 거야. 응. 그렇지 않아. 아무 말도 말고 배고픈 놈이 먹었으면 됐지만 글썄, ‘아이구 뜨거워. 아이구 뜨거워.’ 아이구 유난도 떨어. ‘그 떡 부스러기 죄끔 떨어졌기로 뭘 그러느냐?’고. ‘아이 이게 떡 부스러기요?’ 큰떡조각을 갖다가 불쑥불쑥 장모한테 갖다 내밀더라네, 그 사람이. 그만큼 모자란 놈이 있더라.

4 독산의 유래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앞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해박한 지식으로 역사의 시간 순서에 맞는 서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의 답사의 목적을 설명해 드리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곳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이라는 건 거 별거 없어. 그 무슨 별게 있어.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여기가 독산이라고 그러거든. [조사자 : 독산요?] 독산. [조사자 :

여기를 독산이라고 그래요.] 독산이 왜 독산이냐. 그럼 새겨서 말하자면 판모이여, 판모이. [조사자 : 판모이?] 에, 왜 독산이냐 판모이가 왜 판모이냐? 에 모이 산짜거든. [조사자 : 매산요?] 모이 산짜. 에 모이 산짜.

에 그럼 산이 장산에서 내려오다가 끊어졌다는 얘기여, 끊어졌어. 끊어져서 이것이 홀로 독자 홀로 있다는 얘기지. 그래 독산여. 그래서 그렇게 독산이 판매라고 그러는데, 판매가 아니고 판모이여. 모이 산짜.

5 매산의 유래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뒤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곳 지명의 유래답에 대해 계속하여 구술하였다.

그러면 동네에, 위째서 위째서 이렇게 이 동네가 위째서 이렇게 됐느냐? [조사자 : 그런 얘기도 괜찮아요.] 그런 것이 여기가 뭐냐면 아까는 여기 판모이다. 에 이 산이 따로 떨어져 홀로 독자로 홀로 떨어져 있다고 독산이라 그러는 거여.

매산이다. 매산. 매산이라는 것은 저기 저기 저 큰산, [조사자 : 저산 이름이 매, 그 독산이예요?] 저기 큰산이, 저기 신매산이라고 해. 신매산. 신매산 지하에 에 매화낙지혈 있어.

그럼 매화낙지혈이 뭐냐. 에 매화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열매 맺는 자리이다. [조사자 : 저기는 그럼 매화피?] 그렇지. 매화 매자가 매화꽃여. 영. 매화꽃이 피었다가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리여. 매화낙지혈이여. 꽃이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맺는다. 그래 매화낙지혈이라고 그래.

⑥ 삼색 실과의 의미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뒤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민속에 대해 말씀하여 주었다. 유교적인 예법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에 제사상을 차리는 법을 말하게 되었다. 이 도중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채록하였다.

삼색을 대추부터 놓고, 밤 놓고 배 놓는 원인이 왜 그렇게 놓느냐? 그 왜 그렇게 놓는 걸 알아야지. [조사자 : 그거는 유가 격식에 의한 거지요.] 그게 그것이 있어.

왜 그렇게 놓는 걸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돼잖아. 그러면 왜 대추부터 놓느냐. 에 대추는 씨가 하나야. 대추는 씨가 하나야. 그런게 왕이거든. 밤은 씨가 셋이야. 세 틀백이. 그런게 삼정승여. 배는 씨가 여섯백에 읍거든. 육판서여. 응 그래서 대추 먼저 놓고, 밤 놓고, 배 놓는 원인이 그것이고.

실과라는 것은 삼색이라고 그러지. 삼색이 그거여. 세 가지 색. 세 가지 색, 세 가지 색.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놓느냐? 대추는 씨가 하나이니까 왕이다. 밤은 씨가 셋이니까 삼, 정승이 셋이거든. 삼정승. 배는 씨가 여섯이여요. 판서 여섯이거든. 판서가. 육판서. 그래서 그렇게 놓는 원인도 있어.(웃음)

⑦ '설을'로 터를 잡은 무학대사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뒤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인물들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를 요청하자 해 주신 것이다. 조선 건국 초기의 도성 건설에 관한 이야기로, 녹음기 작동의 불량으로

앞부분이 녹음되지 못하였다.

처음 조선되면서, 처음 조선 되면서, 임금 노릇한 사람이 이태조 이성계거덩. 그때는 서울이어도만 지금은 개성 판문점 있는 데가 송도라고 그랬거든, 송도 서울여. 그래서 이성계가 처음 왕노릇 할 때가 송도로 들어 앉았거든. 그믐 태조 태종 문종 세종 단종 세존데, 그이 이씨 오백 년여. 그래서 이씨가 태조 태종 문종 세종 단종 세조여. 이씨가 오백 년 해 먹은 거여, 독재지.

그러다가 이성계가 그래 그런 말이 있어. 야 에 그래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고 그랬거든.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 송도 망할 적에 이성계가 다 털어먹은 거여. 지금 저 무슨 뭐 저 대통령마냥 송도 말년에 이성계가 다 털어 먹었어요. 모래, '농바위 쥐(주어) 먹고 모래똥 눈다'고 그랬어. 농바위가 뭐여 큰바위를 쥐 먹고, 똥을 모래똥을 눈다고 그랬어. 알어?

그러다가 한양으로 한양을 지키라고 그랬거든. 한양으로 앵겼을 적에 저 탑골공원 있잖아, 탑골 공원. 탑골 공원에 경복궁 대궐 있잔아? 그 대궐을 인제 짓구서 한양으로 앵겨 앉은 거지. 앵겨 앉은 거여.

앵겨 앉을 적에 어떻게 했느냐? 그 대궐터를 잡으러 땡기는데 누가 잡으러 땡겼느냐 그러믄 옛날 얘기지. 잡으러 땡겼느냐믄 무핵이라는 양반이 있어 무핵이. 무핵이라는 거 아주 땅속을 들여다보고, 으 무핵이라는 사람이 대궐터를 잡는데 어따 잡았느냐 하면은 왕십리다 잡았거든. 왕십리.

아 왕십리다 잡으니까, 아 이노므 대궐 기둥이 세(세우)면 쓰러지네. 세면 쓰러져요. 아 이 무핵이라는 양반이 아 이것 몸이 달아 돌아 땡기는데, 땡기다 보니까, 그 서울 저 아 저기 저 서울 안산의 거기서 어떤 양반이 껌정소를 가지고 응달에서 밭을 갈면서,

“이 우라질노므 소! 무핵이보다 더 미련하다.”

고 그랬거덩. ‘어, 이 우라질노므 소 무핵이보다 더 미련하다’구. 아 그랬더니 무핵이가 들었지 뭐여. 내가 무핵인데. 쫓아 갔어. 쫓아가서 물어봤

지. 가니까는 발 갈던 양반이,

“뒤편하는 사람이냐?”

이러니까.

“내 가다가 들은 말씀에 있는데, 에 한 번 여담을 헐라구 왔습니다.”

“게 무슨 말이냐?”

그랬거든. 아 그랬더니,

“아 지나가다 들으니까, 아 ‘무핵이보다 더 미련하다구, 무핵이보다 더 미련하다’구 그래서, 어 그래서 듣고설라문 지가 무핵입니다 그말여. 게 워째 무핵이가 이렇게 미련합니까?”

“아, 임마! 니가 미련허지 글썸, 왕십리다가 어따 대궐터를 짓니. 왕십리 해라 그랬어. 왕 십리. 왕십리서 십리를 더 들어가라.”

그랬어. 왕 십리 해라. 왕십리서 십리를 더 들어가거라. 그래고 이제 왕십리에서 십리를 더 들어가는데, 지금 탑골 공원에 거기 경복궁 새 대궐이 있거든.

“그러믄 이 대궐터가, 여기가 혈이 무슨 혈인지 아느냐?”

발 갈던 양반이, ‘혈이 무슨 혈이냐’ 그랬거든. 무핵이라는 양반이 모르지 뭐여.

“여기는 학에 혈이다. 학에 혈이니까 학에 날개꼭지부터 눌러 놓고 설라문해 기둥을 세야지. 날개 꼭지를 안 눌러놓고 기둥을 세니까 쓰러진다.”

는 얘기여.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날개꼭지 눌러 놓는 법을 내가 가리켜 줄 것이니 가거라.” 그 말여.

“그 가면 어떻습니까?”

이랬거덩. 가서 잠을 자고 나오믄. 지금 삼각산이라고 그래지. 삼각산.

“삼각산 줄기로 에 눌러놓는 벼슬을 해 줄께, 벼슬을 해 줄께 가거라.”

그랬어. [조사자 : 눌러놓는 벼슬이 뭐예요?] 에 글썸에. 그래서,

“가서 인저 자구서 내일 나와라. 내일 나와서 보른 날개 꼭지 눌러 놓는 벼슬을 내가 해 준대니까. 나와서 보른 안다.”

그랬거든. 게 이렇게 더운데 오뉴월 뒤편인데. 아 자고 나와보니까 지금 성 쌓잔어. 삼각산으루 돌린, 에 이 성쌓은 거리(거기)로다가 눈 이 왔어요, 눈이. 눈이 하얗게 돌리 왔거든. 하얗게 돌리 왔어. 그럼 그리로다가 성을 싸라는 거지. 에 그래서 서울 그 삼각산부터 성 째는 것이, 그 에 게 서울이 아녀.

지금 서울, 서울 그래잖어. 설을여 설을. 눈으로 올타릴 했다는 거여. 서울이 아네요. 설을. 눈 설자 설을. 눈으로 올타리를 했다는 그 말여. 에 그래서 서울 이름이 서울이 아녀 설을여. 눈으로 올타릴 했다는 거여. 설을이라고 그래는 거여.(청중 웃음)

그래서 새 대궐이 이성계가 와서 짓는데, 그것이 진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녀. 에 임진왜란 때 왜놈이 들어올 적에 다 타버렸어. 다 타버렸는 데 그걸 누가 다시 개척을 했느냐문 고종왕 왕이 있슈. 고종왕. 고종왕이라는 낭반이 지금 대궐을 다시 개척한 거여.

8 동양 삼국의 형성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뒤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무학도사와 설을(서울) 이야기가 끝나자 마자 숨도 쉬지 않고 이어서 구술하여 준 이야기이다.

그래고 이게 있어요. 대국은 큰 집이다. 조선은 둘째 집이다. 일본은 셋째 집이다 그랬거든.

그럼 대국은 왜 큰 집이냐? 그거는 이 이성계씨 허구 주천자 주대명씨 허구 두 분이, 두 분이 대국을 침범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이래지만, 두 분이 가다가는 소색 별판에 가

니까 인가도 읊고 배는 고프구 목은 말르구, 어 큰일 났다는 얘가지.

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불이 뽐뽐뽐 해. 게서 두 분이,
“저기 불이 뽐뽐뽐 하니까, 게도 불이 있을 적에는 인가가 있을 거
다. 찾아가 보자.”

그래 두 분이 찾아 갔거덩. 아 찾아 가서 인제 권을 찾으니까, 안노
인네 하얀 노인네가 내다보면서,

“누구나 그말여. 어서 왔느냐.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 낭반은 벌써 아름짱 해 주는 낭반여. 에 ‘누구나?’
그래니까,

“이래저래 해설라মন해 이렇게 해서 목도 말르고 배도 고프고 이래설
라몬에 불이 반뽐반뽐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 말이며.

“에 들어오라구. 에 들어오라.”

구. 그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인제 목이 말르니까,

“물 좀 달라.”

고 그랬거든. ‘물 좀 달라’고 그래니까.

“에 물보담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 먹을 줄 아느냐?”

그말이며.

“네! 막걸리 주면 좀 먹을 줄 알어요.”

게 막걸리를 큰 방구리, 그게 금방구리이라나 뭐래나 한 방구리씩 뷔 놓
더래요. 아 그런데 두 분이 한 방구리씩 드러 마셨잖어. 아 드러 마셨는
데, 이 낭반이,

“더 먹을래느냐?”

그말여. 아 이성계는 못 먹는다는 게지. 에 주천자 주대명씨는,

“살아 삼 잔 죽어서도 삼 잔인데, 석 잔은 먹어야죠.”

에. 아 이 낭반은 세 방구리를 들어 마셨지 뭐여.(웃음) 아 세 방구리를
들어 마시구는 난 뒤에 이 이진 주모도 아니구, 그 낭반이 이렇게 아름짱
알이켜 주는 낭반여. 먹은 뒤에,

“당신네들! 내가 올 줄 알구 기둘리고 있었다. 기둘리고 있었으니까, 이 이게 주씨는 주대명씨거덩. 주대명씨는 깃발을 날리구 기둘리는 데가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말여, 대국으로. 이성계씨는 퇴장해 나가거라 그말여. 나가서 한양이나 지키라.”

그랬어. 어 그래서, 그때 서울은 송도가 서울이거든. 이 이성계는 송도 와서 처음 조선에, 처음 임금노릇 한 사람은 이성계여. 그래서 주씨 주대명씨는 대국 들어가 천자노릇 했잖어. 대국 천자. 에 대국 천자노릇 했으니까 큰 집이다 그말여. 조선 사람이니까 여기는 둘째집이구.

일본놈들은 셋째 집인데, 일본놈들은 왜 셋째 집이 됐는지 알어? 어 모르지. 이 만리성을 누가 쌓는지 알어? 어. [조사자 : 만리장성요?] 에. 통일 전에 진시황이라고 그러거덩. 에 진시황이 들어가서 만리성 짚거여. 만리성을 쌓구설라르는 육국을 달렸거든. 그때 여섯 갈래로 갈라졌었슈 대국이. 그때 그거를, 육국을 합쳤어. 만리성을 쌓구. 그래구 삼천 궁녀를 데리구 있네. 궁녀, 으 여자를 삼천을 데리구 있어.

그러다가 동남동녀라는데 뭐냐 하믄 것도 당여. 지금 무슨 야당이 다. ‘무슨 국민당이다. 신한국당이다.’ 이 당과 마찬가지로. 어,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그계 그때사, 자 이 신선이 그 동남동녀 오백인이라고 그래지. 오백인을 삼신산, 삼신산이 일본에 있대거든. 삼신산에 불사약, 좋은 약이 많대요. 불사약을 구허구 오라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일본은 임금도 읍구, 누구 책임자도 읍구 무법천지여. 어, 무법천지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거 구해가지구 나오믄, 여기서 하대만 받구 천인만 되거든. 하대 받구.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으 소식조차 돈절하대는 거지. 불사약 구해러 간 사람들이 소식조차 돈절하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씨를 빼치구 사는 게 일본놈들여. 게서 일본놈들두 조선씨다 그말이지. 게 거기 셋째집여. 그래서 동양 삼국이래는게, 그래서 동양 삼국여.(웃음)

9 대국의 사신을 혼낸 꼬마

윤병찬(80, 남) / 왕산리T 1취

[왕산리] 박종수, 강현모, 윤상민, 이현주, 김광중, 김영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또 한 가지 내가 얘기해 줄까? 이 부처님이 운제, 예 인도 당나라에서 최치원이라는 양반이, 사월 초파일에 부처님을 모셔온 날이거든. 모셔 왔는데 거기는 돌부처가 읊어요. 여기 나와서 돌부처가 생긴 거여. 그래서 인제, 여기 돌부처가 있다 허니까는 인도 사람들이 인도 사신이.

“야, 조선에 그렇게 좋은 돌이 있다. 예 그렇게 좋은 돌이 있다.”

하구선, 인제 인도서 조선으로 으 뭐라고 했느냐 하믄,

“조선에 그렇게 좋은 돌이 있으니, 이 에 두만강 물을 응 다 담을 그릇을 맹기려 뇌라. 예 또 그 돌로다 배를 하나 맹기러서 건너 보내다 오.”

그랬거덩. 아 근데, 이거 이 나라에서 이거이 내려왔는데 이거 큰일 났거든. 으 원 세상에 돌로 배를 맹긴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말여. 어. 지금은 뭐 그것도 뭐 비행기두 실구 갈 수 있구 그렇지만. 또 두만강 물을 다 담을 그릇을 맹길라니, 이노므 두만강 물이 노 바다 내려오는 데 그걸 어떻게 다 담느냐 그말여.

아 그래서 나라에서 야단났거덩. 아 암행어사를 내보내면서 그냥, 그냥 덮어놓고 맹기면서 기냥 물어보는 거여.

“우똥하믄 좋으냐 그말여. 우똥하믄 좋으냐?”

맹기믄서 물어보는데, 자 아 이거 기한 날짜는 가까와오지 야단났거덩. 어딘가 가니까, 한 여나믄 살 먹은 놈이 책보를 끼고 가네. 그냥 덮어놓고 애들보구두 물어보는 거여. 예 그 놈더러 물어보니까,

“뭘 그래세요.”

“사실 이래저래한 게 있다.”

그래니깐.

“아이그 아저씨는! 그거 뭘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들어가서
요.”

“아 임마! 걱정이 뭐냐, 내일 모레가 기한인데. 어땡힐라구 그래니?”

“그제 염려 마세요. 지가 다 멩그려 줄 수 있어요.”

아 이놈이 그라거든. ‘아 그거 이상스럽다.’ 아 그래도 가라니 왔잖
어. 게 기한이 났는데 이제 개를 데릴러 갔잖어. 개를 데릴러 갔지. 데
릴러 갔더니 개가 뭐라구 허느냐 허문,

“야! 이저 당나라 사신이 왔는데, 사신이. 그럼 여기 배를 멩기려 났
느냐?”

“네 멩기려 났습니다.”

그랬거든.

“그문 두만강 물을 담을 그릇을 멩기렸느냐?”

“그건 못 멩기렸습니다.”

“거 우째 못멩기렸느냐?”

그럼은 두만강 물이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두만강 물을
되 달라고 그랬어요.(웃음)

“두만강 물을 되 주시우?”

노바닥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되 쥐. 그냥 그걸로 폼쳐 버렸지.

“이젠 배는 멩그려 났느냐?”

“멩그려 났습니다.”

“그럼, 배를 갖다 쥐야지.”

“갖다 드려야 할텐데 끌어갈 줄이 없습니다.”

그말여. 모사, 냇물께 모사(모래) 예,

“모사로다 줄을 틀어 주슈.”

모사로 무슨 줄을 틀어 쥐. 게 그러고 나니까 당나라 사신이 뭐라고
폼짝 못했지 뭐. 두만강 물을 어떻게 다 담어. 그걸 되 달라니 어떻게

되 쥐, 글썽 노바닥 내려오는 걸. [조사자 : 글썽요.] 그래 꼼짝 못하고는,

“아, 조선도 참 이런 인재가 있구나!”

꼼짝 못하고 돌아 갔어.(웃음)

10 호랑이와 동행한 사람

맹복순(66, 여) / 왕산리T 3앞

[왕산4리 가게마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이 왕산 4리에 도착하였을 때, 가게 앞에는 3~4명의 어른들이 모여서 담소를 하고 계셨다. 그래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 들려 주실 것을 부탁하였지만, 조사에 응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뒤의 제보자가 지나기에 아이크림을 사 주며 이야기를 해 주라고 하자, 비로소 구술을 해 준 것이다.

이 동네서 또 집이, 그러니 여기를 그러는데, 여기서들 거기를 저녁에 밤중에 가서서 할아버지가 나오니까는 할아버지여. 그런 양반이 저녁에 이렇게 딱 가시면 여기 개울이 있어. 요러케, 요러(앞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또랑이 있거든.

거기를 딱 건너면 벌썸 호랭이가 나와서 나타난대요. [청중 : 어마! 호랭이가 나오 것어라. 깊이 가꼬라.] [청중2 : 옆에. 아이구 그전에 저그 와서 저그와서 많았어. 많이 있었지.] 그래가꾸 그 할아버지가 (청중이 이야기와 상관 없는 대화 생략) 가시다가, 개우쟁이 딱 가시면 호랭이가 나와서 옆에 가다가, 또 거의 인저 집에 가시면 슬쩍 쓰러(없어)진데.

그래 그 할아버지는 말꾸나한 왔자 벗이래, 그계. [조사자 : 네?] 마을. 마을 왔다 가시면 그계 버어(벗여). 벗이라고. 옆에서 그래 같이 도향(동행)을 해 준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여기 호랭이 뭐 여우 그런 것들 많이, 옛날에 많았지.(청중이 개에

게 한 말 생략)

내가 한 사십육 년 전인데, 그때 내가 처녀 시절 스무 살 먹어 여기 왔는데, 그래가지구 그렇게 하면 이 호랭이가 이러키 저러키(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려가구 그래서. 옛날엔 이러키 집이 읍었어. 이기 여이리 요러기 신작로 쪽 가면 읍로(요기로)는 다 개울이었어. 그냥 아주 개울로 아름다리 밤나무 뭐 이런 기냥 거런기 있었구.

II 돌장의 유래

박길한(58, 남) / 왕산리T 3앞

[왕산4리 가게 마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한 사람이 우스개 소리를 하라고 하자, 지나가던 제보자는 조사자들에게 수고한다며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 이야기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었다. 그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뭐야, 그 앞치마에다가 뭐 싸가지고 왔데나 뭐 이고 왔데요. 여기, [청중 : 돌을? 그 돌을?] 응. [청중 :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 치마 자락에. [청중 : 제무시 차로도 들어도 못 드는 놈의 돌을 앞치마다 싸 갖고 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옛날 그렇게 장수지.

그 아줌마가, 그 노인네가 치마 앞에다가 뭐 이것, 뭐다가 자갈 돌맹이를 이걸 한 아툼 이러케(손으로 흉내를 내며) 치마에다가 이고 와가지구 쏟아부으니까, 뭐 논 서 마지기를 덮더라요. [청중 : 흥.] 참 그전에 그 유래가 있더라구.

[청중 : 그래서 여가 돌장이었나?] 여기 돌이 많아서 돌장이여. [청중2 : 돌이 많아 돌장이예요, 여긴. 돌이 많아서 돌장이예요, 진짜. 그러케 냈어요, 돌이 많아서.]

12 경단같은 붉어진 혹

박길한(58, 남) / 왕산리T 3앞

[왕산4리 가게 마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하여 구술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바보담의 일종으로, 맛있는 떡 이름을 잊어버렸다가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옛날에 옛날에 그 장가를, 그 가난한 집이서 장가를 들은 거여. 장가를 들어가지고 뭐 사는데, 인제 이놈이 처가집에 간거지.

갔더니 아 장모가 그냥 별식을 해 준다고 이 경단을 해 줬네. 조금 저 수수를 찢라다가 이러케 해가지구 팔고물 묻혀가지구 해 줬는데, 아 먹으니깐 얼마나 맛 있는지 아주 잘 먹었던 말여.

아 집에 와 가지고 인제 자기 부인보고 그걸 해 달라고 이럴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이름을 알아야 해 달라고 그러지.

“아, 그거 모르느냐?”

고 말여. 아니 이 여자가 봤어야 알지? 모르잔어. 그러니까.

“에, 그것도 모르느냐.”

구. 니미 주먹으로다가 니미 마빡(이마)을 한 대 후려 갈겠네. 아 마빡이 툭 빨거졌지, 이 여자가. 그러더니 이 여자가 이 툭 만져보더니,

“아, 이것 경단같이 붉어졌네.”

이러니께.

“아 참, 경단!”

그러니 경단. 나이구(웃음) 경단같이 붉어졌다고.

13 귀가 밝아지는 동정을 안달은 옷

박길한(58, 남) / 왕산리T 3앞

[왕산4리 가게 마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것을 요청하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미루고 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 제보자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구술하여 주었는데, 이 이야기는 아내의 잘못을 막아줄 수 있는 남편의 아량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라 하겠다.

아무 것도 아는 거는 할 줄 모르는데, 이 영감이 딱허니 인저 어떻게 갔냐 하면, 큰집에 지사(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혹은 마누라가 딱 인저 그 요결, 동정을 안 달은 거여.

동정을 안 달은 걸 입고 인저 딱허니, 인저 거 여러시 인저 거 지사 지내러 갔는데. 여러 집안들도 오고 딴 사람들도 왔더라 그거여. 인저 그러니까,

“아 그렇게, 쌤님은 어떻게 동정을 안 달으신 걸 입었느냐?”

그러니까,

“허 이 사람아! 내가 귀가 증충하지 않나. 이리면서 아, 우리 이게 동정을 안 달은 걸 입을 것 걸으면 귀가 밝아진다고 그래서 입었네.”

이러더라. 그래서 그 자기 마누라를, 그러케 그 그렇던단 소리를 안 하고 그걸 치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주는 거지.

14 꼬마 신랑(남자는 남자)

박길한(58, 남) / 왕산리T 3앞

[왕산4리 가게 마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와 유사한, 아내의 잘못을 감추어 주는 남자의 아량이란 측면에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구술해 주었다.

그러면 옛날에 그 그랬잖아. 그 뭐야, 신랑은 나이가 적구 여자는 나이가 많구. 이러면 때려 주고 인저 특하면 지붕에다 찌뜨려 버리면 올라가서 이러면. 뭐야, 그 아버지가, 저 어머니 죄 아버지가 보고,

“왜 거기 올라 갔냐?”

고 그러면.

“아, 이런 제기 마누라가 지켰다고, 지붕에다가가 던졌다.”

고 그랬다.

“아 이걸 딸까요, 저걸 딸까요.”

말야, 호박을. [칭중 : 박이지, 박.] 영. 허허.

“남자는 남자구나!”

그러더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여

백

4. 일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일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개일리와 하마산을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산리는 옛지명의 하나인 개일리란 해돋이가 빠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을이 정동향을 하고 있어 해가 빨리 뜨는 곳이다. 그리고 하마산은 마을 동쪽에 자리잡은 산의 형국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면소재지인 왕산리 서쪽에 있는 도로가에서 조금 들어간 마을로, 큰 도로와 개울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다. 일산리는 왕산리보다 전원적이었다. 논과 밭들도 많이 보였고, 모내기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농사철이라 그런지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주택은 왕산리보다 덜 현대적이었지만, 다른 농촌과 비해서는 현대적인 편이었다. 일산리는 앞에 개울이 하나 흐르고 있었고, 왕산리처럼 이 개울과 도로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마을은 배산임수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2) 제보자

(1) 박봉식(82, 남)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아, 김운형 조사 (1996. 6. 1)

충남에서 태어난 제보자는 어린 시절과 청장년 시절을 그곳에서 지냈다고 한다. 뒤에 아들이 이곳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에서 살게 되어, 이곳으로 이주하여 왔는데

아주 오래 되었다고 한다. 조사자가 제보자를 만나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흔쾌히 응하여 주었다. 그런데 필기도구와 녹음기를 꺼내 녹음을 하려고 하자, ‘공산당이 아니냐’고 기겁을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여 간신히 한 마디를 들을 수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1.

(2) 이기창(71, 남)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아, 김운형 조사 (1996. 6. 1)

이곳 모현면에서 출생한 제보자는 이곳에 4대째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40여 년 간 이곳 모현면에 교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곳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거주해 왔다고 한다.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퇴직한 후 용인유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보자가 구술하여 준 이야기는 남녀의 성문제, 열녀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사자들이 직접 찾아왔다면 대단히 좋아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2~7.

(3) 박운섭(80, 남)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머리가 희고 짧게 깎았으며, 메리야스에 바지를 입은 차림이었다. 아랫니 두 개가 빠져 있어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였다. 조사자가 왕산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일산리로 넘어와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에, 제보자는 조사자 일행에게 나무 밑에 앉아서 쉬라고 하면서 이것 저것 물었다. 그래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자진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하여 주면서 술을 드셨고, 중간중간에 다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제보자는 3남 6녀를 두었지만, 자녀들의 모두 출가시켜 내보내고, 집에는 두 내외 분만 사신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8~11.

3) 설화

① 씨내리의 이야기

박봉식(82, 남) / 일산리 1앞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제보자가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흔쾌히 응하여 주었다. 그런데 조사자가 메모를 위해 필기도구와 녹음기를 꺼내자 ‘공산당 아니냐’며 기겁을 하셨다. 자세히 설명드리고 간신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은 죽구, 아니 죽은게 아니지. 남편은, 그것두 솔직해야지. 효부, 효녀라고 할까, 뭐 열녀까지는 모르겠구먼. 그렇게 될 거 아녀. [칭중 : 그런 소리는 마.] 응? [칭중 : 그런 소리는 마. 그래가지구 애 낳아가지구, 아들 낳아가지구 이살 가빠리는 거지.]

그렇게 허면 못 쓰지. 이사 가면 안 되지. 승이 나커던, 그래 그거 내 아들인데, 이거 욕심을 내니께. 아, 그럼 낳아준 사람이 내 꺼라고 할 거 아녀. 그러니께 도망가지. 그렇게 그런 건 아니구.

옛날에는 종이 있잖아. 종. 종을 그 매누리에다가 씨를 붙이는 거여. [조사자 : 종ियो?] 종. [조사자 : 종ियो?] 으. [조사자 : 어. 하인?] 종. 하인.

꼼짝 못하니까는 그거는. 그런게 어린애 낳으면 이걸 죽여버리지. 그까진 것. 생매장 시켜버려. 그렇게 종이, 옛날에 종은 부잣집이라든 지 그, 귀부인 있는 집에서는 꼼짝을 못하는거지.

“이놈아!, 옆드려라.”

하면 꼼짝 못하고 옆드리고.(웃음)

② 남편따라 죽은 열녀 강화 최씨

이기창(71, 남) / 일산리 1앞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와 마을을 돌아다닐 때, 마을 사람들이 제보자를 소개하여 주었다. 그제 제보자 댁을 찾아가자, 반갑게 맞아주면서 남녀의 성문제 등 유교적 도리에 대해 장광설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부탁하자 해 준 이야기이다.

아 요기 요렇게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다가 여기 열녀비 비석 봤을 거야. [조사자 : 예, 봤습니다.] 왜, 길가 야트막한 재에 비석 있지. 내 집안 열녀비여, 그게. 우리 집안. 거기 강화 최씨라고, 거기 이따 나가다가, 걸어 나가다가 봐요. 강화 최씨 열녀비라고 있어. 그런 점에서 내가 저 분을 예로 들어 이야기 할꺼여. 그 열녀비.

저 남편되시는 분은, 마 내 집안 분 되시는 분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의 함자도 다 알고, 전부 다 알지. 선자 양자 되시는 분이시고, 할아버지의 내가 되시는 분이데, 그 할아버지의 부인되시는 분이데, 그 정치는 강화 최씨라는 분이예요.

그런데 남편되시는 분께서, 젊어서 한 그때 서른하나인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못된 풍, 중증이 있다는 그 풍진병이라고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그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그때 몇 살 먹었으면 3살 짜리 딸이 있었어요. 3살짜리 딸을 7살까지 키워가지고,

“너는 이제 7살까지 되었으니까, 네가 인자 네 나름대로 판단해서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당신이 참 천자문도 가르쳐 가지고 한문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외가집에 보내서 살아도 된다.” 고. 해서 외가집에 내려 갔어. 그러니까 당신네 친정이지. 친정이다 보내 놓고, 당신께서는 유서를 써 놓고 그 바로 그 밑창이 그 개울인데, 옛날에는 아주 깊은 웅덩이지. 웅덩이데 그 바위돌에서 치마를 들쩍(뒤집어) 쓰고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유서에가 써 놓은 것이 무엇이나면, 마- 딸은 이미 7살을 되어서 조흔해서 성장할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9살에서 10살 때 쯤 출가를 했어요.(이야기와 상관없는 개인 가정문제 생략) 나는 영이 아

들도 없는 몸이니까 남편을 따라 가겠으니, 남편이 저승에 먼저 가서 있으니, 남편을 잘 맞이하고 살라고 하는 그 유서를 써 놓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후 따님은 나이가 13살에 자라나가지고 요 등성이 넘어 지금 문화 유씨네로다가 출가를 하셨는데, 그 분 바로 아든님이 한글학자 유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저 최씨, 저 최씨 할머니의 외종손이지. 종손이. 한글학자 유희 선생님들 배웠지. 한글학자 유희 선생님. 그래 갖고 그 유희 선생님을, 어머니가 되셨어요.

저런 열녀비를 세우는 것도 자기 문중에서 세우지 않아. 그를 잘 알아 뒤. 열녀로 세상을 떠는데, 그 집안에서 열녀가 이렇게 났다고 자랑스럽게 집안에서 세우는 게 아녀. 그 외종손이, 그 외종손 집안에서 유씨라고 그 집안에서 그 외종손의 한글 종제가 열녀비를 세운 거야. 그래서 나라에다가 상채(상소)해가지고, 유희 선생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조판서가 아니라 이조참판까지 지내셨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 나라에다 진언해가지고 열녀비를 세울 수 있는 허가까지 받았어요.

인자 그 허가라는 게, 지금으로는 열녀 정문이라고 해. 정문. 내릴 정자 글월 문자, 나라에서 세워도 좋다라는 승낙서가 내려오는 거지. 그래 갖고 그 열녀정문을 세워 놓고, 그 열녀비가 있는 데는 홍살문, 이렇게 홍살문을 해 세워 놓고, 기기다 비각을 해 세울 수가 있고, 마 그 집안에는 3대에 두고 나라에서 부역도 안 시키고 세금도 안 내게 해요.

그래 그렇게 된 우리 집안도 그런 열녀되시는 분이 계셨다. 그래가지고 정문까지 세웠었는데, 그 할머니 자손이 쪽 내려오다가 안 계시다 보니까, 마 대를 이어올 땐 다른 자손이 대를 이어서 나가지도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나에게 몇 대조가 되시는 분이시냐 헐 께 같으면 9대조 아니 11대조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야. 그래 그렇게 내려오는 사이에 자손도 읊으니까 제사도 못 받아. 못 받드라고. 그러다가 심지어 그 외손들이 제사를 4대씩이나 내려오면서 제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후손이 산소에 별초를 해드리고 마 그저 그

정도이고, 자손이 읊으니까 시제사도 안 지내고, 마 산소를 보관되어 있으나 그런 바람되었고. 강화 최씨의 정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 동안 시간이 지나다보니 후손이 읊어졌다.

③ 열녀 해주 오씨

이기창(71, 남) / 일산리1 앞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같은 열녀에다 집안의 일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또 내 큰어머니도 열녀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내 큰어머니는 해주 오씨서. 해주 오씨신데, 마 이 양반은 어느 때 돌아가셨느냐 할 꺼 같으면 한국허고 일본허고 합방되려고 하는 일한합방 때여.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 경기도 제찰사, 도지사한테 열녀 정문을 허가가 신청해서, 어 선비들이 해서 올라갔는데, 그것 인가하기 이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치는 바람에, 나에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며느리를 ‘일본놈한테 열녀 정문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빼꾸해서 받아가지고 오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분 그냥 산소로 모시기가 뭐 해서 앞으로 10여 년 뒤쯤, 내가 80~90쯤 해서 그때쯤 가서 내 스스로 마 열녀비를 만들어 드릴 계획이고.

내 큰어머니도 남편이 24살 때, 26살 2살 더 잡으셨어요. 그래 26살 때 큰어머니는 큰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폐결핵였던가 봐. 그냥 인천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천시장이지. 인천시장을 가서 24살에 다니시다가 병이 나서서, 폐결핵 병을 들어가시고서 그만 두시고 그냥 25살에 집에 오셔서, 10달 동안 치료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돌아가신 연후에 큰어머니께서 역시 그 양반도 ‘고결서’라고

허는 옛 참 한글로다가, 우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겠습니다’고 허는 고결문을 쓰고, 시동생, 동생에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버리고 가니 이 집안을 잘 지켜 달라’는 내용을, 또 돌아가신 당신 남편한테는 ‘부모님을 받들 바로 시동생이 있으니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나는 당신을 따라 가니 걱정 말고 내 저승문을 열어 달라’고 허는 그런 고결문을 써 놓으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래 돌아가신 난 후에, 그 때까지 우리나라가 왜놈하고는 합치지 않을 때야. 고 중간에 일한합병이, 그 인가날 고 중간에 일어났던 바람에 정문을 받지 못했지.(이후 현대적인 문제 생략)

4] 열녀 효부

이기창(71, 남) / 일산리T 1왕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열녀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유형이라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또, 여기 모현면에 아 그런 예가 있군. 여기 모현면 효열부, 지난 74년, 아니 94년도에 성균관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 94년, 이 94년에 열녀비를 세워준 일이 있는데.

거기는 18살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과부가 된 연후에 조카를 양자로 했었어요. 양자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남편을 따라가기 전이지. 그래서 열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양자가 들어오니까, 그 부인이 73살까지 끝끝내 살았어요.

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받들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사실 때까지 사시게 해. 허고, 그 아들이 일흔, 나보다 4살이니까 75살이군. 75살인데 직쟁이 나가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같이 살다가 그제사 돌아가셨어.

그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열녀가 되었고, 대를 이을 자식

을 키워 냈으니가 열녀가 되었고. 또 그 부모에게는 아주 효부가 됐어.

그래 열녀 빨라스 효부 해서 열부비를 세워서 지금 부락민에게 추앙을 받고, 성균관에서 사람이 내려오셔서 열비 정문, 성균관에서 내리신 정문이지. 정문을 내려 주시고, 성균관에서 하사금까지 내려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5 사람이 죽는 상가집 터

이기창(71, 남) / 일산리T 1앞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열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민담을 요구하자 학술적으로 고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양하였다. 조사자가 조사 목적을 다시 설명하자 지명전설에 대해 해주신 것이다.

여기서 내려오는 것 중에 상가집 터라는 것,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상가집터? [조사자 : 상가집터?] [조사자3 : 그 집에 들면 사람이 죽는 거요.] 응. 그것 아네.

그런데 계속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그런게 대개, 사람만 들어가면 계속 다 죽어빠리고, 죽고 다 죽어빠지고 죽고 이래서 상가집터라고 그래. 상가집터. [조사자2 :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보던 못했었다. '여긴 상가터다' 해가지고, 아 거기.(테이프의 끝부분으로 끝남.)

6 석왕사의 유래

이기창(71, 남) / 일산리T 1뒤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토주거리 등 민속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조사자가 석왕사에 대해 묻자 조상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① 전주 이씨의 내력

그라. 그게 성자 계자 되시는 분은 나에게 19대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셔. 그래 학생들은 함자를 부르지만, 나는 함부로 못 부르고 태조 할아버지라고 해요. 태조 할아버지가 바로,

전주 이씨의 시조가 누구이신가 하면 날개 함자라고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조자같은 이렇게 쓰고 여기다 사람 인변에 귀두 이렇게 쓴 분이 전주 이씨의 시조 할아버지요. 이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라 무열왕 시절에 왕 사공이란 벼슬을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몇 대가 되시는 것 같으면은 42대조 할아버지가 되셔. 그럼 태조 할아버지에게도 몇 대조가 되시는가 하면 22대조가 되여.

그러면 그 전주 이씨 이태조라는 분이, 바로 그 전주가 원 그곳에서 승(성)이, 살적에 성이 생긴 거고. 삼국시절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시절에 성이 생겨만 말이여. 마- 전라도 전주에서 나에게 42대조 할아버지께서 사셨는데, 그 때 인저 전주 이씨라고 이렇게 내려와 살어.

그래 계속 내려 17대조 할아버지까지 그곳에서 군수 뭐, 도지사 그 정도의 벼슬을 하다가, 그 17대손 되시는 용자 부자 할아버지가 그 전주 고을. 원허고 고을 관기 관계로 의사 충들이 생겼어요. 그래 의사 충들이 생겨가지구서 전주에서 못 살고,

“애, 여기서 살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볼까.”

봐, 어디로 옮긴고 허니 삼척으로 옮겼어요. 삼척으로 옮길 적에 170호가 전주에서 떠나서 삼척으로 갔다 이거야. 삼척에 갔더니, (웃음) 아니 전주에서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시장이겠지. 시장허던 사람이 거기를 또 따라 왔드랴 이거여. 거기서 인자 또,

“너하고 또 만나기 싫다.”

고.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느냐면 함경도로 올라가신 거여요. 그래가지

고서 그 함경도로 가서 그 이태조 할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분이, 고려 쌍성부의 그 책임자를 하시는 가운데, 고려가 어디 하고의 이 침략을 받았느냐 하면 몽고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국권을 다 빼앗기고.

② 고려말의 상황

공민왕의 부인이 바로 몽고국의 따님이니까, 노국공주여. 아마 들었을 거야. 공민왕의 부인이 몽고 임금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제 고려라는 이름만 있었지, 모든 실권은 원나라로다 넘어 갔어요. 특별히 왕권만 남아 있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 그때에 태조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냥 원나라로다 귀향을 가가지고 원나라의 달호부적이란 벼슬을 했어요.

그래 벼슬을 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벼슬하고 있는 사이에 자꾸 고려 공민왕이란 사람이 정치를 해 나아가는데, 자기 처가집 되는 원나라 자꾸 쇠퇴하거든. 자꾸 약해져 가. 변방에서는 자꾸 반대 쫓기가 일어나고, 자꾸 나라가 쪼그마한 나라가 생기고, 인제 아주 피폐해져 간단 말이야. 그래 그 무렵에 그 공민왕이 이태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에게,

“당신!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이 고려하고 한데 합쳐서 살어.”

그러니까. 그때 귀가 솔깃해 가지고 있을 무렵인데, 그때 공민왕이, 애- 공민왕의 얘기를 들었는 것 같어. 남자가 아니라 내시였었어, 내시. 그 얘기 들었나? [조사자 : 처음 듣는데요.]

그래가지구서 우왕 창왕 있잖아. 우왕 창왕이, 왜 신우 신창이란 소리 못 들었나. [조사자 : 예, 못 들었는데요.] 애, 이런 공민왕에 아들을 낳지 못 해. 출산을 못해. 그래가지구서 그때 신돈이라는 편저, 중 얘기 들었나. 신돈이 편저(웃음)

그래서 신돈이가, 일개 중이, 그냥 공민왕이 인물을 보니까 잘 생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불러 들여가지고 지금과 같으면 뭐 국

무총리, 그래서 금방 주어 버렸어. 그래가지구서 자기 부인하고 막 내 통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왕 창왕이야.

그래서 그것이 모든 국가 나라 안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 이런 얘 기 이렇게 저분들이 인제 저기해서, 그런게 그때에 국왕이. 그러한 정 도가 되면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야. 뭐, 남녀의 그 성이란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성스럽고 참 하느님이 조물주가 지녀 준 무기인데, 그게 흐려진다 할 꺼 같으면 벌써 다 된거여. 그런 세상이니께, 그런게 내가 아까 얘기한 바로 요즘 여성들이 내가 빨가벗고 다닌다니는, 그 령게 될 거 같으면 세상 말세라고 허는 것이야.

그래 그렇게 이 나라 안에서 어지러운게 국민들이 왕씨를 신봉하는 다소 정신이 자꾸 흐려져 가. 바로 그 무렵에 이태조 되시는 그 양반 이, 내가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레 이야기를 얘기허는 다음에 꼭 들 어가서 얘기가 들어가야만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내 얘기 범위를 넓 게 잡어.

③ 왕 되려는 이성계의 포부

그래가지고 그때 이태조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마 환조라고 이름하 고 있지만, 그 양반께서 어느날 참 내외분이 꿈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정말 구름을 뚫어서 이렇게 참, 저 선녀같은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 가 지고 아 복숭아 갖다가, 복숭인지 뭐 과일 갖다가 그 이태조의 어머니 이 되시는 분한테 ‘잡으시라’고. 아마 주는 동시에 꿈에 깨고 난 뒤에 잉태한 분이 바로 태조라 이거여.

그런데 그 태조라는 분이, 인제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 람보다 이게 기골이 달브고,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뭐 허는 그러는 교육이, 특기가 있듯이 예뻐져간다 이거. 그러니께 그 무렵인데, 어느 날 그 태조 그 분이 대낮에 졸려서 마 집을 갖다가 주변주변해서 참

낮잠을 자는데, 역시 그 양반 꿈에, 역시 꿈에 구름에, 구름을 타고 어느 선관같은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이태조한테 와서,

“너 지금 이렇게 꿈을, 뭐여 낮에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느냐? 너 지금 요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 니 평생에 다시 못 만날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만나갖고 의형제를 맺고 끝끝내 그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라.”

는 그러한 말을 허드라 이거여. 그러니까 그 이태조 되시는 분이야 남가 일몽이지 뭐. 꿈을 깨는 즉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치면서 들어가서,

“어머니! 저 요 동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어느 친구라도 만나가지고 데리고 내려오면, 뭐 아이 데리고 내려올테니, 어머니! 그를 박대하지 마시고 맞이해서 제 친구 대접을 해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아 그럼, 그래라.”

그러고 인제 그 태조 그 양반이 말을 타고서 저 활을 둘러 메고 그 산에, 가끔 산에 올라가서 사냥 겸 무술 연습 겸 산에 오르는데, 아 그런데 어쩡던 사슴이가든 뛰어오더니 그냥 그 이태조 그 양반 참 말 앞에 가서 푹 꺼꾸러지드라 이거여. 그래 보니까 사슴이가 어디서 맞았는지 활을 맞고서 그냥 그 태조 그 양반 발 밑에서 죽어. 그러는 데 난데없이 머리예다 이렇게 꿩 깃털같은 털을 꽂고 모자같은 걸 이렇게 쓴 젊은이가 비호같이 말을 타고 내려오더니, 온다 준다 말없이 사슴을 이렇게 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하, 너로구나!’ 그래가지고 저 회 이태조께서,

“그대로 누구인지 날 좀 잠깐 보쇼.”

그러니까, 이게 싫어 하드라 이거야.

“당신! 그렇게 하. 산에서 사슴 사냥질 말고, 뭐- 나라를 위해서 사

냥질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소.”

하고서 한 마디 이렇게 던진거야. 그래 그 옛날에 큰 사람을 보면, 말 한 마디를 끄내도 이렇게 뜻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말을 끄낸단 이말야. 그런데 이렇게 좁은 산속에서 사슴이나 사냥질 말고 더 큰 사냥질을 할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그런게 태조가, 인자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허니까, 그 젊은이도 그 말을 듣더니, ‘어이, 이것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서 하이 그래서 됐어.

“어이, 이 아래에 우리 집이니 같이 내려 가자.”

그래가지고서 그 데리고 내려온 사람이 이성계와 같은, 이태조가 건국할 때, 조선을 건국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을 준, 짐작해요? [조사자 : 정도전이요.] 통두란이. [조사자 : 네?] 통두란이. 못 들었어들? [조사자 : 예.] 통두란이라 하는 것은 통자라고 인 변에 겨울 동자한 것, 통두란이. 이 말 두자에 난초 란자야. 통두란인데. 나중에 이태조께서 건국하고 난 뒤에,

“너는 참으로 내 일평생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될 때까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같이였다.”

해가지고 승을 임금님께서 내려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무슨 이름으로다 성을 바끼었는가 같으면 이씨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지란이라고 이름이 됐어. 그래 그 이씨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청해 이씨야. 이 모현면에도 청해 이씨가 2집이 살아요. 마- 대한민국에 청해 이씨 통털면 아마 한 30만 될 걸. 30만 되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그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그 어디 사람인고니 여진족여. 여진족. 통두란이.

그래가지고서 그 통두란이를 만나가지고 내려와서 그 어머니하고는 또 약속을 허고 올라간 거니까, 내려와서 그냥 사슴을 잡아서 그대로 그냥 날 고기를 그냥 그대로 썰어서 안주로 허고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럼 너하고 나하고 의형제를 맺자.”

해가지고, 옛날에 의형제를 맺을 때에는 무얼 가지고 맺었느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뺏어요. 짐승의 피로 내어가지고 그걸 한 사발씩 마신다든지 이를 마셔요. 마시면서,

“만일에 너하고 나하고 의형제를 맺었는데, 나중에 이 의형제의 의를 끊으면 개 피를 먹었으면 개자식이고, 사슴의 피를 먹고 맹세를 한 사람들 있으면 넌 사슴의 새끼다.”

이러고 육을 한다 이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 짐승에다 비교해서 얘기하는 걸, 큰 최고의 육으로 알은 것니까. 그 지금도 대뜸 잘못하면, ‘이 개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하지 마. 그런 육을 먹었다라고 옛날에 험다라면, 그 육은 기가 막힌 육이여. 물론 ‘개자식’ 이것 남 앞에 보통갈게 이야기 하지만, ‘네 아버지 어머니 개다’ 이말이여. 이것은 새끼고 그러니 그냥 한 대, 양대를 통털어서 그냥 육알, 육을 하는 것이니까. 그 할아버지까지도 개가 다 되는 것 아니여. 그러니까 그 이상의 육은 읊다는 것이야. ‘개자식’이니 ‘쇠자식’이니 뭐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피 가지고 의형제를 맺었을 때, 의를 끊었을 때 나온 육이 지금 요즘 보통 쓰는 ‘개자식’ ‘쇠자식’ ‘개새끼’ ‘쇠새끼’ 하는 예가 그렇게 나온 것이야.

그래 통두란이 허고 그렇게 피를 의해 의형제를 맺었어요. 맺어가지고서 들어서 날마다 그냥 산에서 전투 훈련이야, 노다지. 그래가지구서 노다지 뭐, 또 이태조 그 양반은 함흥 쌍성부에 성장이고.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육군 대령쯤 되겠지. 뭐 그러한 계급을 갖고 있는 편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읊고 그러니깐, 그냥 전쟁 연습을 하는데.

④ 석왕사의 유래

그 이태조 그 분이 바로 꿈 얘기를 아까 하니까 얘기지만, 어느 때에 그런 야심을 품에는 품고 있었느냐 헐까 같으면은, 어느 날 안대에 갔다가 꿈을 꾸시니까, 꿈을 꾸었는데, 그 어떻게 저 임야부터 산으로 도는 걸 좋아했던 터인데, 그때도 그렇게 말을 타고 산으로다가 이렇

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어느 절, 참 절 가니까 주막집 같은 이렇게 서 있는데, 꿈을 꾸니까 그냥 집이 굉장히 큰 집인데 다 허물어졌다 이거야. 그냥 이렇게 에 무너져. 그런데 그 집에서 태조 그 양반이 석가래 셋을 지게에다 짊어지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 못 들었나? 그런 얘기 못, 처음 듣는 거지? [조사자 : 예.] 그럼, 얘기하는 보람 있네.

그래서 등허리에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그 이태조 그 양반께서 나오셨다 이거야. 그래 ‘꿈이 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마음에 걸려서, 집이 다 무너지는데 그 석가래 셋을 짊어지고 나온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일화 내려,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연줄 연줄이 그런, 아까도 이야기 한대로 무슨 이상한 구렁이 터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바로 이어져 오는 것처럼, 그런 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나온 거 뭐가 이어져.

그래 꿈을 꾸어가지고 늘 아침부터 이상한데, 어느 산중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느 늙은이가 앉아서 요기서 이렇게 이를 잡아가면서, 뭐- 저 꼭 만주 사람처럼, 만주 사람을 지금도 그래. 나 해방될 무렵에 만주 한 번 갔다가 그 내 눈으로 봤지. 자기 몸에 있는 이를 잡아가지고, (웃음) 중국 떼놈들의 이는 굵어, 더 굵어. 그냥 그 저 떼(뛰)놈은 목간하면 때도 많지. 목간도 안 하나 봐. 목간 안 하, 떼놈들. 그냥 그 옷이, 옷 있잖아, 옷 이렇게 입으면 그 안에 기름이 번들 번들 해. 그냥 하두 안 빨아 입어서. 그래 이가 이거만큼씩 해. 그래서 이를 잡아가지고 ‘푹’ 터지며는 피를 빨아 먹어요, 그걸. 근게 지(자기) 피 지가 먹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그거야. ‘내 피를 왜 내버리느냐!’ 이거야. 내 피니까 빨아 먹어야요, 빨아. 우리 그 소리 들으면 어찌께 먹은 밥까지 넘어오려고 하지.

그래 어떤 늙은이 이를 잡아먹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늙은 늙은이야. 그래 태조 그 양반이 말을 타고 가다가, ‘아, 저 늙은이는 꿈을 얘기하면, 좀 꿈을 해몽해 줄만한 사람 아닌가’ 히고서. 거기 내려가지고 그 늙은이한테,

“영감님!”

“왜, 그래?”

그러면서 그, 그냥 놓으면 금방 돌아갈만한 정도가 된 그런 늙은이 인데,

“이 사람이 지난 저녁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이리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저 아래 가면 저 굴이 있으니까, 굴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께.”

그러고서 그 안, 옛날에는 그 사람이 살던 데도 전부 다 집이 굴이었으니까. 아마 거기 석굴이 있었는가 봐. 거기 석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 자네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해.”

하면서, 종목은,

“그 석가래 3개가 있지 않은가?”

“예!”

“그 가운데 지게 이렇게 깊어진 거 아녀. 이거 무슨 자여.”

[조사자 : 임금 왕자.] 임금 왕자지.

“자네는 이 나라에 임금이 될 사람이여. 그런게 그런 줄 알아.”

그때 고려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망그려 가는 때고. 공전제가 무너져 노비 저 뭐여 노비해방 관계가 이루어져. 그냥 왜구, 몽고, 뭐여 이 원나라에서 그냥 100여년 동안 그냥 나라를 주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어. 등등 그냥 말할 수 없어. 그런게 원나라에서,

“고려 색시 바쳐라.”

그러면. 또 또 뽑아다가 바쳐야 하고. 또 그냥 아 임금님 마루라 갖다가 그냥 강제로 그냥 자기네 사람 갖다가 보내고 이러는 판인데 뭐. 주권이란게 없어. 그러니까 아 그런 판국인데, 그때 이 양반이 꿈풀이를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태조가,

“아, 내가 이 땅에 왕이 될 꿈을 꾸었구나!”

그래가지구 임금이 되셔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고 바로 뛰여, 이 잡고 있던 늙은이가 앉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절을 짓어준 그 절이 땡고 허니 석왕사야. 석왕사 이야기 들어 봤나? [조사자 : 아니요.] 그때 아주 옛 책들을 아직 안 봤네.

석자가 풀 석자여. 석가모니라는 그 석자. 그것이 풀 석자. 그리고 임금 왕자, 그리고 절 사자여. ‘임금의 꿈이 되는 것을 풀어 주었다’ 해서 석왕사 절. 바로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함경남도 안변에 석왕사가 있어요. 지금도 내려오는데, 마 김일성이 집권하고 난 연후에 그 자리, 자리 어떻게 됐는지 몰라. 석왕사가 있어. 음 그래 이태조 꿈풀이 해준 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늙은이로 보였던 그 사람이 누구냐 허면 무학선생이야. 무학 선생하면 알지. [조사자 : 예.]

그래 태조에 무학선생이야. 그래 그렇게 빈승이라고 해서, 그래 무학이라는 사람이 야심을 갖고, 거기다가 꿈풀이를 한 것이 아니느냐는 하는데, 뭐 나중에 임금이 됐은게 뭐 알게 뛰여. 그런 꿈풀이 있단 얘기가. 그래 내가 얘기는 그걸 얘기를 하라고 허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서문이 많은 거야. 그래가지구 내 요거 이야기 하나는 끝마쳐야지.

7 이지란과 이성계

이기창(기, 남) / 일산리T 1뒤2앞

[일산리] 박종수, 강현모, 이경연, 김선하, 이영하, 김운형 조사 (1996. 6. 1)

앞의 석왕사의 유래에 대해 다양한 일화를 엮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그런 중에 튼두란에 대한 일화가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래 튼두란이 허고, 이태조허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제 내려오는 가운데 별 얘기가 다 많지 뛰.

어찌나 그 두 사람이 활을 잘 쏘았던지, 시골 부인네가 이렇게, 그 우리집에 내려오는 치급이 있었다. 어그제께 우리 종중을 전라도 전주까지 갈적이,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그 동사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산에서 시골 부인네가 물 양동이 다 물을 이고 가. 이렇게 가면은 이태조 그 양반은 활을 이렇게 당겨서 ‘뽕’ 쏘. 그러면 등에 구멍이 그냥 뽕 뚫릴 것 아니며. 그럼 그 물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저 이지란이, 통두란이 보고,

“넌, 막아!”

그래가지고 화살촉에다 흙을 갖다가 붙여가지고서 고대로 갖다가 딱 맞춰. 그래 물 하나(이하 녹음 되지 않은 부분) 흐르지 않게 활 정도로 활 솜씨가 두 사람 모두 훌륭했지. 하루는 이태조 그 양반이(이상 녹음되지 않은 부분. Tape 2 앞에 계속)

대변을 보러 변소에 들어간 사이에 튼두란이가 장정 셋이 잡아대니는 활-에다가 화살을 3개를 한꺼번에 물러가지고 변소, 대변을 보러 들어간 이태조의 변소에 대고서 ‘뽕’ 쏘니까, 그걸 몇 번이나 쏘느냐 3번이나 쏘어. 그랬는데 크게 될 사람은 근력이 영 다른가 봐. 그 화장실에서 태조되실 분이 화살 9개를 다 이렇게 들고서 딱 꺾어가지고 들고 ‘결결’ 웃으시면서,

“그 아우! 어찌 버르장머리가 그래. 근께 형이 이거 하나 못 받을까 봐. 그래 낮짝에 이렇게 활을 쏘는 법이 있어!”

그러면서 ‘결결’ 웃는거라. 그래 이 튼두란이가 생각할 적에 어떤거나 말이며. ‘나보다 사람 됨됨이가 열 갑절 이상은 크다’ 말이며. 그리고 난 연후에 화살도 9개를 꺾어가지고 나오면서 ‘결결’ 웃으면서,

“예이 못 뺐다고 말이며. 그런 실험이 어디 있느냐?”

고 말이며. 그러고서 걱정을 하니까, 튼두란이 영 그날은 아주 모든 걸 다 행복이여.

“나 사실 형님을, 내가 이 화살로 내가 목숨을 노린거요. 영 노려가지구 형님을 아주 없애버리면, 내 고려는 내 장준(손)에 들어오는 것

같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형님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꺾어가지고 나오면서, 나를 모든 걸 밟쳐 다 알고, 내가 그런 마음 먹은 것도 다 알고서 용서해 주는 형님의 도량에 내 그대로 모두가 고두백배라. 그리하여 앞으로는 내 형에 수족이 되고, 가족이 에 참 일분지 희생이 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생각 버릴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달라.”

고 허니까. 이태조가 그걸 보고,

“알았어. 이제 됐어.”

그러고서 허락받고 난 후에, 태조 그 양반이 통두란이가 아주, 가장 책임자로 이끌고, 끝끝내 건국하는 데까지 이끌어 갔다는 이야기여. 내가 바로 무슨 얘기가, 꿈 얘기를 허길래 석왕사 이야기를 허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절스러운 얘기를 여기다 풀어 놓았던 것이야. 그래 갖고 태조 그 양반에 대한 얘기, 건국한 얘기를 다 할라면 그걸 오늘 하루 쟁일 해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석왕사라는 절이 하나 생길 때, 그런 꿈풀이 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줄가지, 태조 그 양반이 어디서 살다가 어디 살고 어디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지란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났을 무렵에 좋은 절을 이루어나는 좋은 꿈 얘기를 하나 결말을 냈다고 허는 그 얘기가 길어졌어. 이런 얘기를 한 것 이야.

8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

박윤섭(80, 남) / 일산리 3앞

[일산리 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일산리에 도착하였을 때,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제보자는 조사자들에게 그늘에 들어와 쉬라며 이것저것 물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하기를 해달라고 하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청중 : 그때는 60만 되면 갖다 묻었어. 지금부터 한 백 년 뉘테 지.]

쪼그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청중 : 여기다 이것 좀 해 여.] 그래설랑은 파묻고. 파묻고 지게를 내버리고 온다 말이지. 그런게 아들이,

“그것 도로 가져 가자. 지게를.” 그런게.

“이 다음에 아버지 때에 또 써야 된다.”

는 얘기여. 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했다는 얘기여. [조사자 : 그, 그 아들이 또 그랬다고요?] [청중 : 그러.] 그러. [조사자 : 손자가?] [청중 : 이 여 손자가 나 갖다 또 써 먹을데 있으니까 갖다 두어야 한다고.]

9 삼부팔모(三父八母)

박윤섭(80, 남) / 일산리T 3앞

[일산리 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지만, 금새 생각이 나지 않는지 술을 한 잔 마셨다. 그러다가 생각이 나셨는지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삼부팔모(三父八母)라는데 별거 아니지. 아이 하나가 아베 하나 어매 하나지. 삼부팔모가 될 일이 뭐 있어.

그러나 옛날엔 돈으로 지나기 때문에, 어매가 음 갖다가 못생기며는, 아 못 낳고 오며는 또 쫓겨나. 또 하나 얻으면 또 쫓겨나. 돈 있는 아버지는 버터, 이거(남자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하나 가지구. 그래서 삼부팔모가 생기는 거. [조사자 : 삼부팔모가요?] 어.

아버지는 셋이구, 어매는 여덟이여. 그러키 옛날에 많이 했다가. 그러나 지금은 어림이야 있다. 어, 지금은 옛날 같지 않구우. 으, 삼부팔모라 이부팔모라도 이부, 이부, 이부이모라도 안 돼잖아.

10 맹모삼천지교

박윤섭(80, 남) / 일산리T 3앞

[일산리 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부모를 끝시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자신의 가족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앞의 것에 이어서 구술하여 주었다.

시 번을 잉겨가지고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 [조사자 : 예.] 그것 알지. [조사자 : 아니, 그것 해 주세요. 얘기 해 달라구요.] 했더니, 얘 자식을 데리고 이사를 했더니, 하필 상여 때에는 디로 갔어. 상여 때에는 디로 가니께,

“어허어, 어허어 어.”

만날 가서 그 소리만 배운다고, 자식이. 음.

“어이구, 그놈 자식 버리졌다.”

그래 두번째는 가마, 가마 떼미는 데 갔어. 가마 떼미는 데. 그런데 그 그 돈이 없으께, 옛날에 그랬어. 그래 가꾸서 인자,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 글방 있는 디다, 글방으로 이사했어. 글방으로 강께,

“천지호낭허고 우주호행이라”(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글 읽는 소리허고,

“하늘천 따지허고, 맹자유양이라.”

그러기 옛날에 맹자님이- 시 번을 잉겨(옹겨) 가주고서, 옹겨서 맹자님이 되써-. 그렇게 맹자님이 글을 삼천지교여. 시 번 잉겨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배운 사람이여.

그러니께 상여 떼미는 데 가 보야고, 가마 떼미는 데도 가 보야 하고. 가마도 하이애야잖어? 하야 되고. 야중 가지고 글방에 가니께, ‘하늘천 따지’ 어찌고 허거든, 글을 배니께 그때서야 그제 알았다니는 겨.

그래 삼천지교가 뭐이나, 학교에서 시험문제 나오며는(좀 뜬을 들이다가) 맹자여, 맹모라고도 허고. 맹모지? 맹자 어머니가 했싱께.

Ⅲ 민며느리 제도의 잘못

박윤섭(80, 남) / 일산리T 3앞

[일산리 큰나무 밑] 박종수, 강현모, 김혜영, 이미숙, 이소영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스스로 생각이 나셨는지 계속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설화라기보다 민속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 살, 여덟 살 먹은 디러났거든. 디러 났어(데려 왔어). 디러 놓머는 예가 저 성기가 아무래도 십삼 세, 십사 세 되야 부부 생활 허잖어. 잉? 옛날엔 그러키 구여워서 민며느리로 데려다 났거든.

건디 이저 남자하고 인저 첫날밤에 통하잖어. 통허머는 그것이어 민며느리가 원 큰며느리 아녀? 남자가 남자가 여 민며느리 디러노면 고사하고, 그계 식몬(식모인) 줄 알고, 어디 가 또 이쁜 색시하고 또 통해여. 그계 그래 또 나가주고(넣아가지고) 들(들어)와. 그 그때는 그러. 집이선 그거 식몬 줄 알고, 어린애 애 보는 줄 알고, 그계 제 마누란 줄 몰루고.

그러키 되서 옛날에 장가를 시 번씩 든다는 그계여. 원인은 그기여. 거젠가?(조사자의 노트를 가리키며) 여이 거기다 써도 괜참어? 어머니가 민며느리 구여워서 데려다 났는다. 그거를 기두르지(기다리치) 못하고. 또 한 번 또 어디 가서 나쁜짓을 허구. 또 한 번 나쁜짓을 허구서 나중에 예식을 헐라니께 민며느리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께 민며느리 보다 먼저 성생활을 했다 그 얘기여. 그래서 옛날부터 민며느리는 게 못 쓴다는 겨.

민며느리라게 뭐이간. 우리 아들은 구엽구 아주 저거는 명치기가 났구. 그러니께 한 여덟 살이나 아홉 살 먹은 거 민며느리 데려다 났어.

데려다 노면(놓으면) 뭘 혀. 남자는 자, 몇 살 더 먹었는데. 이게 이저 성기가 되니까 딴 여자 보구서 행동을 허는 거지.

여

백

5. 매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매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고매곡과 상마산이 합하여 된 마을이다. 일명 이곳은 매화꽃이 떨어진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 매산리는 면 소재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일산리를 거쳐 가야만 한다.

조사자들은 모현면 일산리에서 내려 걸어 들어 왔으면 한 시간을 족히 걸릴 거리인데, 지나가는 자가용의 뒷자석에 좁게 몸을 움츠리고 매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내린 곳은 큼직한 다리가 보였고, 부근에 작은 공장들과 건물이 들어서서 공사가 한창이었다. 많은 시골이 그러하듯 이곳도 근대화·도시화로 도시적인 냄새가 나는 마을이었다. 이곳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요즘은 인심이 나빠져 걱정이라는 분도 있었다.

다리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수퍼가 있고, 다리 밑의 큰 개울가를 중심으로 논들이 펼쳐져 있다. 산밑 부근에 있는 집들 사이에 밭이 있다. 시골의 푸르름이 정겨움을 더욱 북돋아 주어 처음 밝아보지만 낯설지 않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착한 시기가 농사철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에 매달려 바쁜 모습이었다. 그리고 모내기가 한창이라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도 바빠 어쩔 수 없다며 아쉬워 하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시골의 상징인 커다란 나무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며 잔돈을 수북히 쌓아놓고 화투를 치시던 토박이 할머니들도 계셨다. 이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 갔지만, 냉정하게 거절 당할 때의 설움이란 말할 수가 없었다.

2) 제보자

(1) 이정희(71, 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할머니는 처음에 싫다고 하시다가 집안까지 쫓아가 요청하여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제보자는 조사자들이 관심있는 태도를 보이자, 말씀을 잘 해 주시고 사진도 보여 주었다. 또한 점심도 주는 인정이 많은 분이였다. 집이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으며, 자녀는 1남 6녀를 두었지만 결혼하거나 직장을 따라 떠나고, 막내마저 춘천에서 대학을 다녀 주말에나 집에 온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환갑이 지난 후 돌아가서 혼자 살고 계셨다. 제보자는 근처 마을에서 이 동네로 시집을 오셨다는데, 특별히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으며 다른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몇 가지 짧은 이야기를 성의를 다하여 해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5.

(2) 정광시(73, 남)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마을을 돌아다니며 제보자를 찾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곤한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 정류장에 왔는데 깨끗하게 옷을 입으신 부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 제보자는 성남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온 지 두 달 밖에 안 된다고 하였다. 처음엔 말썸하기를 꺼렸으나, 이야기를 시작하자 열심히 해 주었다. 이야기 도중에 버스가 와서 뛰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어서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조사자들은 도로가에서 녹음하였기 때문에, 차소리가 걱정이 되어 녹음기를 끌어안고 가까이 서서 녹음하였다.

제공자료 : 설화 6~7.

3) 설화

① 호랑이 잡은 지혜

이정희(71, 여)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중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조사자 일행은 매산리에 들러 나무밑에서 화투를 치시는 할머니들에게 1차로 거절당하고 난감한 마음으로 옆에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모른다고 하며,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조사자들도 제보자를 따라 집안에 들어가서 조사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자신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조사자 : 호랑이 얘가요?] 옛날에 얘기, 현재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호랑이가 저 광주군 쑥굴이라는 데가 있어, 쑥굴. 대원(지명인 듯). 대원이라는 데, 쑥굴이라는 데 사람이 사는데, 호랑이가 그냥 밤이면 그냥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잠을 못 잤대.

동네 사람이 아이 무엇을 이렇게 빨리 잡든지, 고생을 해야. 잠을 못 자서, 그 호랑이를 잡아야 할텐데, 원약 여간 아니라서 못 잡았대, 못 잡는데. 그래서 표(포)수가 그냥 총에다 화승불을 켜 가지고, [조사자 : 화승불요?] 화승불이라고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총알을 대지만, 옛날엔 화승불이라고 뭐 있다. 몰라.

켜 가지고 마을에서 인차 표수가 인차 지키고, 골목 구녕을 지키고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하고서 인차는 그러는데, 중간에서 호랑이가 어디로 올 데 갈 데가 없어. 잘못하면 인제 사람도 죽고.

그래 인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호랑이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려니까는, 아래 있는 사람더러 그랬다.

“정신들 차리라구. 난 여긴 지금 화승불이 꺼져서 총을 못 쏘니까, 그 아래설랑은 총을 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화승불이 꺼졌다니깐 그냥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그냥. 거기 불이 꺼졌으니깐 지가 가도 안 죽거던. 그래 올라

가니까 그냥 방아쇠를 잡아 당겼지, 그냥. 그러니까 호랭이가 맞았어.

그래서 이냥 다들 인제 나가서 자고, 인자 주막에 가서 지구선 아침에 올라가니까, 밤새도록 이놈의 호랭이가 그냥 요만한 들맹이를 물고 서는 그냥, 입에다 물고 밤새도록 깨물다가 죽었다.(웃음) 그렇게 호랑이가 영특하다. 말 뜻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저 숫놈이 죽었다나 암놈이 죽었다나. 그러니까 또 한 놈이 그냥 울고 그냥 돌아댁기는 거지. 저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또 다시 표수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설랑 그걸 잡아서, 대황, 대황이라는데, 대황이면 저 어디지, 대황이면 저 거기가 저기 모란이로 그 들어가는데, 말죽거리 가는 디 거기 어딴냐? 썩굴. 대황. 썩굴이래, 썩굴.(웃음)

② 호랑이를 만난 아버지

이정희(71, 여)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계속 구술하였다. 같은 호랑이 이야기로 친정 아버지가 따라온 호랑이에게 집안에 와서 개를 잡아가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① 호랑이를 만난 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 선지굴이라고 다니는데 가서, [조사자 : 선지굴이요?] 선지굴이야. 저 갈월 덕담 밑에 거기 가 밭을 가는데, 소를 소를 가지고 밭을 갈으셨는데, 소가 그냥 냇대 쟁기를 끌고서 그냥 뛰어 가더라. 그래서,

“왜? 왜 가느냐? 왜 가느냐?”

고. 소를 붙들러 뛰니까는 호랭이가 쫓아와. 호랭이가 무서워 소가 내뛰

는 거여. 그냥 호랭이가 얼마나 무서운대. 거기 가면 지금도 있어요. 저기 가면. [조사자 : 선지굴이요?] 호랭이가 가면은 있어.

그런데 매산리 가면, 저 사람이 마음이 저기, 무서움을 안타나 타나 하고 나무 막대기를 딱딱 꺾고, 흙을 파 획획 던지고 그런다고. [조사자 : 호랑이가요?] 그럼. 흙을 파서 던져요. 그러면은 나물, 나물 하다, 지금 저 지금 나물하러 갈 때면, 지금 나물하다가 그냥 나물 보따리를 내버리고 뛰어와, 무서워서. 신발짝도 다 벗어지고 그냥 내 버리고 뚫다구, 그냥. 호랭이가 있어. 지금도 있어 무서워.

② 개를 업고 도망간 호랑이

저 이천에서 저 고개를 넘어서 오시니까, 호랭이가 줄렁줄렁 쫓아오더라. 그래서 오다가 거 저 상양군 밑에 저기 부잣집 행랑채가 있어. 행랑.

행랑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인은 이렇게 잘 살고. 거기다 집 하나를 짓구설랑은 거기다 일하는 사람을 살려. 일하는 사람을. 그 집에 들어와 내가 잘 살면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서, 그 일하는 사람을 안팎을 인자 거기에 가서 살면은, 애들 데리고 인제 살면은 안에 들어와서 상전 집에 가 일하고 먹고 살고 하면서 묵는, 허는 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를 오다가 그 집을 들어갔지. 호랭이가 자꾸 쫓아 오니까.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아, 여기 손님 오시니까 손님 대접 잘 하라.”

고. 그래고 그냥 그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 개를 그냥 업고 도망가. [조사자 : 호랑이가요?] 그럼. 사람 대신 개를 업고 도망가지.(웃음) [조사자 : 그럼 잡아 먹어요?] 그럼 갖다가 잡아 먹지. 갖다가 사정없이 동맹이를 쳐다가서는, 쳐다.

인자 모가지는 잘라서 바윗돌에다 올려놓고, [조사자 : 어머.] 고사를 지내지. 산에 바위가 많거든. 바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구설랑은 저

기 고사를 지내지. 그래서 몸뚱이만 먹는거야. 대가리는 안 먹어. 대가리 놓고. [조사자 : 대가리는 왜 안 먹어요? 왜요?] 대가리는 저기 저, 집 짓구 고사할 때 돼지 대가리로 고사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거 대가리 놓고 고사하지.

③ 조정암을 낳은 어머니

이정희(71, 여)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다. 그리고 조사자들의 성씨를 물다가 한양 조씨가 있다고 하자, 조봉암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봉암이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조정암 조광조를 가르키고 있는 듯하다. 이야기는 어려서 할머니한테 들었다고 한다.

인제 조봉암이, 조 봉, 조봉암이래. 조봉암이 자손.

옛날에 한양 조씨 저 조봉암이라고 여기서, 저기 가면 서원이 있어. 조봉암의 서원. 저 이제 숙사 서울 차 타고 가면은, 저기 저 풍덕천, 정자뜰, 정자동, 이제 정자동 지나서 저기 너머 가면은 저기가 중간에 있는가. 저 하여간 조봉암 서원이 있어.

조봉암 서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조봉암이가, 조봉암의 할머니가 손자 불려고 저기 위해대. 위해는데 조봉암 어머니,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와가지구선 저기 새색시를 부엌에다가 갔다가 절을 시키고, 그 위해 놓는, 위해 논 토치가리에 갔다가 절을 시키고 그랬대.

그런데 안했대. 조봉암이의 어머니가 절을 안 했대.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시어머니가 그냥,

“인자 우리 집은 망했다.”고.

“위해기는 뭘 위해느냐?”

고 그리고는.

“망했다.”

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사는데, 조봉암의 어머니가 첫 아들을 낳았대요.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조봉암이가 셋째데. 꿈에 하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하면서,

“나를, 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내가 니 아들을 잡아간다.”

그랬대. 그러니까 조봉암 어머니가,

“잡아 가라.”

고 그랬대. 그랬더니 진짜 죽더라. 그랬는데 인자 또 졸지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또 앓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선물을 하면서,

“이 자식마저 내가 잡아간다.”고.

“에, 잡아 가라.”

고. 그랬더니 또 죽더라. 그랬는데 인제 셋째가 또 앓는데, 셋째 저기가 저기,

“또 잡아 간다.”

고 그러더라. 그래서,

“잡아 가라.”

구. 그 얘기니까 그렇지. 그 사람도 꽤 억새, 억졌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인제 집에서 난리가 났지. ‘잡아 가라’고 그랬더니,

“아유, 지독한 년! 정승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잡아다니!”

그러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더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벼슬을 해서 정승이 해가지고, 지금 저기 돌아가는데 저 옆에 서원을 해 놓고.

거기다가는 조봉암 서원에 일 년이면은 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가을에 제사 지내고. 저기 팔도 사람이 다 와. 거기로 제사 지내러, 가을 봄으로. 제는 아무 때나 제사 지내는가 거기 가면 별묘가 있다.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서원이 이렇게 잘 지어놓고, 아주 느티나무가 그냥 크다란 느티나무 있거든. 그런데 거기 그 뒤로 지금 길을 뚫려다가 아주 말았는데, 거기는.

④ 정몽주 서원과 일화

이정희(71, 여)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중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는 마을 근처에 생긴 절의 유래와 그곳에 발행하는 부적에 관한 것, 시조에 관한 것 등에 이어서 정몽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어려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들은 것이라 한다.

가는데 거기 있어. [조사자 : 정몽주 서원요?] 정몽주 서원. [조사자 : 정몽주 서원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요?] 응? [조사자 : 정몽주 서원에 대해.]

정몽주 뭐 옛날에 뭐 쇠도끼에 맞아 돌아갔다고 그러데. 거기 가면은 정몽주는 자식이, 손이 읊어. [조사자 : 손이 읊어요?] 자식이 읊어. 딸만 하나야. 딸이 하난데, 딸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나도 연암 이가거든. [조사자 : 연암 이?] 연암 이씨래. 그래서 그 딸님이 우리 연암 이씨 정암 자손인데, 정암 자손에 그리 정몽주의 손주 복상사 하는 것은 외손자 딸이 해 왔다고, 옛날에는 나 쪼그말 적에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몰라.

그래서 연일 정씨지. [조사자 : 연일 정요?] 연일 정씨. 거기 가. 지금도 가면 거기 있다는데. 돌다리에 저기 강원도. 강원도 어디에서 쇠도끼에 맞아 돌아갔잖아, 정몽주가. 그래서 [조사자 : 피!] 응. 피 흘린 자리도 있디야. 어딘지 돌다리에.

거기다가 할머니들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도 몰러. 그 춘분 제사 지내고, [조사자 : 무슨, 뭐라고요? 춘분 때 지내고요 추분 때 지내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을 봤는데, 말하자면 서원이 여러 군데니 끼는 언젠은 어디, 어느 날은 어디를 가고, 어느 날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다 옮겨져 있잖아. 고속도로. 그래 아마 여기서 가면 시흥리, 시흥리 조금 더 가면 있어, 정몽주 서원이. 제사 지내는데

거기서 더 가면 조봉암 서원이 있고.

⑤ 수수깡을 도깨비로 본 사람

이정희(71, 여)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도깨비에 대해 묻자 해 준 이야기이다.

옛날이 아냐. 우리 저기 사촌 시동생이 저기 저 정미(지명)가 처갓집인데. 정월 초하룻날 세배를 가는데 술을 잔뜩 잡숫고 저녁 때 갔대. 가셨대.

그랬는데 주책같은 놈이 텨버서 그냥 쥐패대기를 쳤대요. 쥐패대기를 치고 처갓집에 들려서 지내시고서, 그 이튿날 오다가 보니까는 수수깡 묶어서 이렇게 세워서, 수수깡 묶어설라드는 그 이파리로 수수단 이어가지고 이만큼씩 묶어서 요렇게 동글해가지고 세우거든, 봄이면. 왜 가을에 그거 말려서 땄라고.

그래 세웠더니, 그걸 가서 쥐패대기를 쳤어. 술 잡수시고 그게 도깨비로 보여서 쥐패대기를 친거여.(웃음) 아이구 술도 그렇게 잘 잡숫고 그 양반, 한참이니까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냥 저기 그리 올라가며는 거기 옛날에 뭐 배바위 옆에 있잖아. [조사자 : 배바위요?] 배바위라고 바위가 이렇게 괴팍스럽게 생긴게 있는데, 그 배바위 있었거든. 거기서 개상으로 해서 능골로 해서 수원 가는 것이고, 이 밑으로 복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그렇게 가시다가, 술 잡숫고 가다가 도깨비하고 씨름을 했대지 뭐.

그때 그게 도깨비가 아니고 술을 먹으니까는 그렇게 흘려서 보인거지. 도깨비가 어땀어. 수수깡을 쥐패대기 쳐서 죄 패 났드랴 이거. 주책, “그까짓 거 내가 그냥, 그놈들 그냥 이런 것 다 되지는 막 때리고 왔다.”

고 그러드래. 수수깡을 죄 둘러엮었다는 걸 뒀. 도깨비가 어디 있어.

⑥ 사람 잡아 먹는 호랑이

정광시(73, 남)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앞 제보자의 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제보자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조사에 응하여 주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쉬겸 정류장에 나왔을 때 제보자가 부인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조사 나온 목적을 말하자, 광주를 가야한다며 거절하여 차가 올 때까지만 해달라고 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 이주머니가 저 강안도에서, 우리 강안도 사람이거든. [조사자 : 강원도요?] 강안도에서 깊은 산중으로, 강안도 산내 가 봤지?

그 산골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호랭이가 내려와 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냥 그 양반이 그 길로 와서 돌아가서 가지고, 6월 며칠 날, 날은 잘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그날 저녁에 오뚝 제사 시간에, 거기 배나무가 들배 나무가 있거든. 그 시간에 꼭 호랭이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돌아가셨어. 옛날에 허고, 옛날에.

⑦ 호랑이가 지켜 준 황효자

정광시(73, 남) / 매산리T 1앞

[매산리] 박종수, 강현모, 송윤경, 유희경, 조윤경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이야기를 요청하자 시계를 자주 보면서 망설였다. 이때 버스 한 대가 와 제보자는 달려갔다 방향이 다른지 다시 와서 이야기를 구술하여 준 것이다.

이 저 강원도 원성군 [조사자 ;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돌무내기라고 있어. 돌무내기. 돌무내기. [청중 : 돌무내기 있어.] 거가 가면 황효자가 있어. 황효자. 황효자. 그 황효자가 어떻게 부모한테 그 잘 하는지, 아주 음 옛날에 이름난 편인데. 그 분이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참기름을 한 되를 짜 오라.”

고 했거든. 그때 참기름 한 되 짜려면 힘들어. 그게 간편하고 쉽게 보아야. 그런데 그 황효자 부인이 남편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참 그거를 모아가지고선 참 시잡쇠에 놔 참기름을 짜 냈어. 한 말을.

근데 그 짜놓은 걸 어머니가, 그걸 거름방에 갖다 두었는데, 그것을 오줌인지 알고 겨울에 보리밭에다 갖다 췌어. 아 나라에서는 올 때 기다리는데, 황효자가 올 때 기다리는데 벌써, 황효자는 그냥 간 거야. 가서 벌써 임금님이 벌써 그걸 알고서는,

“안 가져 와도 좋다. 가시거라.”

그랬어,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그 자기 부인보구,

“그 참기름 어쨌느냐?”

그러니까.

“그 거름방에다 뒀는데, 그 어머니가 몰르고, 오줌인 줄 알고 보리밭에다 갖다 끼었었는데, 그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머님한테 절대 알리지 마라. 알리면 근심하니까 어머님께 알리지 마라.”

그런게, (제보자가 서울을 가야한다 걱정) 어떻게 했냐면, 황효자는 나라에를 갔다 왔어. 와가지구서 4일 만에 황효자는 원주 원주시 어디에, 지금 군청에, 옛날 감찰사, 감찰사는 지금 경찰서야. 황효자가 어디 갔느냐며는 그 원성 군청으로 감찰사가 멩겼어.

근데 그 호랭이가 하루는 와가지고, 그래 몇 시에 출발하, 거기서 4시에 출발해. 거기가 40리야 원주까지. 호랭이가 짜구 와가지구선 지

를 기울인다 이거여, 전부터. 그러니깐 타래는 애기라 이거여. 근께 황효자가 그 호랭이를 타고 감찰사를 땡겼어. 참 계속.

그래가지고서는 황효자가 인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뒤로다가 4년 동안을, 4년 동안을 그 돼지 고기를 그 산에 놓으면은 그것이 읊어지는데, 4년 후에는 그게 안 읊어졌어. 그래가지고서는,

“아, 인제 호랭이가 죽었다.”

고. 이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잖니.

그 인제 그런데 그거를 원주 아이 문막면 근동리라고 있어. 거기에 내 고종사촌 형님이 우리 조합장으로 가 있었어. 그 인제 고기 계량과에 가서 그 수리 조합에 수로를 내 주는데,

“그 황효자 밑으로다가 수로를 내야지만이 예산이 되지, 딴 디로다 가는 예산이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냥 황효자 산소 밑을 파서 그 대로 수로를 내라.”

그래 인제 수로를 냈잖아. 냈는데 수로를 낸 뒤로 딱, 그 이튿날로 호랭이가 그 동네에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이 마실을 못 땡겼어. 그래서 우리네 고종사촌 형님이 다시 도에 계량과에 가 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니깐. 그래 도에서도,

“안 된다. 다시 물어라.”

그래 그걸 묻은 뒤로는 호랭이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야. 그런 역사도 있는 거야. 그게 황효자야. 그래 부모한테 위한 거야.

6. 동림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동림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동산리와 왕림리를 합쳐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의 자연마을인 동산은 일명 동미로, 포은 정몽주의 묘소가 있는 문수산의 동쪽에 있다. 왕림은 이곳에서 살며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열중한 이행상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동림리는 면소재지인 왕산리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용인시의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성남이나 분당 생활권에 속하는 마을이다.

조사자는 아침 일찍 출발하였지만, 예정보다 조금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마을 앞에는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조그만 하천이 마을을 가로질러 나 있었다. 전형적인 시골이기보다는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심의 변두리를 연상케 하는 마을이었다. 이곳 저곳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다른 여러가지 소음으로 소란했다. 동네 한 가운데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한 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다. 이곳은 농사와 작은 공장들이 산재해 있는 시골의 푸근함을 느끼기엔 너무 많이 현대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마을을 한바퀴 돌고나서 노인을 찾았다.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그늘 아래에서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2) 제보자

(1) 이돈(76,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생각보다 2시간 정도를 늦게 도착해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노인정을 찾았다. 노인정 앞에 다섯 분의 노인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청하자 서로 미루고 선뜻 응하지 않았다. 조사자가 자꾸 부탁하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말하여서 구술하여 주었다. 첫번째 제보자는 연안씨이며 일제시대 때 고생한 것을 특히 강조했다.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했으며 이 마을에서 몇 대째 대를 이어 현재 아들과 살고 있다. 나이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했으며, 이야기를 구술할 때의 모습이 아주 호뭇해 하는 표정이었다. 다른 제보자에 비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하여, 계속하여 이야기를 청하자 여러가지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일제시대의 탄광에서 고생한 경험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3, 민요 1~2.

(2) 배진선(94,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조사자는 이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고 배씨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소개하여 주며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 배씨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도중에 제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제보자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밀짚모자를 쓰고서, 지팡이를 잡고 조사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연세가 많아서 인지 걷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그래 조사자들은 음료수를 대접하고서 이야기를 청하자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보자는 조사자가 녹음을 한다고 말하자 '상부에 올려서 큰일 나는 거 아 니여' 하며 거절하였다. 그래서 시대와 관련이 없는 동물이야기나 마을 전설에 관해 묻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고, 지금의 대통령을 옛날의 임금님 정도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4~6.

(3) 배준상(88, 남)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배진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 채록을 마치고, 첫번째 제보자인 이돈 할아버지가 소개하여 준 배씨 할아버지를 찾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다. 조사자들은 근

처에 있는 수퍼에 들어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을 때, 그 가게 앞에서 앉아 있는 제보자를 우연하게 만났다. 그제 조사자 일행이 다가가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청하자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들으니 이야기도 아주 잘하고, 알고 있는 것도 많다고 소문이 나 있는 분이였다. 제보자는 이야기 중간에 빼놓은 이야기를 다시 구술하여 줄 정도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제공자료 : 설화 7~9.

3) 설화

1 할아버지를 모면시킨 손자

이돈(76, 남) / 동림리T 1앞

[동림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노인정 앞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청하자, 지팡이를 한쪽 손에 들고 다리를 꼬개 앉아 있던 분이 다른 청중들의 권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 신이 나면서도 조금은 부끄러워 하는 모습이였다.

옛날에 저 큰 절에서 말야, 그 주지, 절 주인 아주 [조사자 : 주지승요.] 응. 응, 한 팔십 갑 됐어요. 그러는데 그 양반이 장기를 아주 유명하게 잘 뒤요. 응, 장기를 아주 유명하게 잘 두는데, 예 장기를 잘 둔다는 말을 듣고서 한 사십된 사람이 장기를 그리 두려웠다고. 두려웠는데,

“아, 으르신네! 장기 두신다죠?”

“아, 장기를 둔다고. 그러나 나 내기성으로다 두지 빈내기루는 안 둔다.” 고.

“아 그러면 내기성을 두시지요. 거 무슨 내기성을 두실랍니까?”

“코 짤루기 내기를 두자.” 고.

“아, 그럼 그러십쇼.”

“그러면 바로 아, 12시 지나서 1시쯤 되서 양당간 누가 지던지 질
꺼니깐 코를 짤루기로다가 아주 약속을 허고 두자.”고.

“아, 그러면 그렇게 허시지요”

그래 인자 장기를 둔단 말여. 장기를 두는데, 수구추궁 먼저 코 짤
루기 내기 장기를 두자고 그 노인네가 그러고 했으니꺼는, 그러나 그
노인네가 졌단 말여. 응, 장기를 뒤서 졌단 말여. 지니까는 쓰, 그래
인제 약속을 했으니깐, 밤 1시쯤 해설랑은 코 짤루기 내기, 코 짤루기
로다 약속을 했으니까는 인제 헤졌다가 도로 모이는, 모이게 된거지.
어느 주막에서 인제 장기를 두다가.

인제 이렇게 됐는데 쓰, 그래 인제 이 노인네가 자기네 집에 가설랑
은 항상 그렇지 않더니만, 일곱 살 먹은 손자가 있는데 즈이(저희) 할
아버지란 말여. 그 이렇게 같이 꼭 잤거든. 같이 잤는데, 그날은 이상
시럽게 그 일곱 살 먹은 애, 아이가 보니까는 잠도 안 자고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허고 쓰, 이려고 그냥 허니까는,

“아, 할아버지! 왜 잠을 안 주무시고 왜 그렇게 괴면이 있으시냐?”
고 이러니까는. 그 애가 영리해요. 아 그래 인저,

“아이, 너 알 거 읊다.”

이려고 자는데. 시간이 인저 됐단 말여. 인저 한 12시쯤 됐거나 1시
에 거기서 만나기로 됐으니깐. 인저 문을 부시시 열고서 인저 나간단
말여.

“아, 할아버지! 어디 가시냐?” 고.

“아이, 너 알 거 읊다.”

아, 그 물론 그렇게 아녀. 인저 허, 허 그 나가니까는, 즈이 할아버
지가 나가니까는 애가 쫓아간단 말여 아.

“아이, 할아버지! 어디 가시냐?”고.

“아이, 너 알 거 읊다. 알 거 읊다.”

아, 자꾸 쫓아 가니까는 호초리를 꺾어가지고는,

“아이. 너 이눔으 자식! 너 가지 못하느냐?”

고. 호초리 찜질을 해도 자꾸 쫓아가. 허, 허 자꾸 쫓아가니까는 성가시니
간 할 수 없이 일러줬단 말야.

“아, 그런게 아니라, 내가 한 사십 된 사람하고 장기를 내가 두구 두
충수로 먼저 코 짤루기 내길 장기를 두자고 해가지고, 밤 12시 지나서
1시에 만나서 짤로기로다가 아주 약속을 했기때문에 내가 가는 거다. 그
러니까 너 들어 가거라.”

이러거든.

“아, 할아버지! 그걸 뭐 걱정하시냐고. 응 염려 마시라.”

고. 아, 이러면서 애가 쫓아간단 말야. 쫓아가니까는 인자 거기서 서루(서
로) 만날 것 아냐. 장기두던 사람. 아, 거기서 약속을 했으니까 인제,

“아, 할아버지하고 장기 코 짤루기 내기를 장기를 두셨다지요?”

“아, 그랬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셨죠?”

“암, 졌지.”

“아, 그럼 우리 할아버지 코를 짤루셔야지요.”

그러더니만 부엌으로 가더니 식칼하고 도마를 가지고 들어오더라.
갖다가 인제 거기다 놓고서,

“할아버지! 코를 이 도마에다 푸십시오.”

이거요. 이걸 코집이에요.(코를 만지며) 이걸 코집이고.

“코를 여기다 푸세요. 그리고 코를 짤, 짤르셔.”

그렇게 모면을 허더라 그거지. 그래 인제 한 사십 된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대인자리다.”

고. 그러니 그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아주 크게 해 먹었지. 그렇게 영리하
지. 그래 그 영리한 사람은 그랬다고.

②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

이돈(76, 남) / 동림리 T 1앞

[동림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들이 한 마디 더 해 줄 것을 청하자,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사양을 하다가 ‘허허’ 웃더니만 다시 구술을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남편을 효자로 고친 이야기의 변형이다.

한 번은 아들을 한 삼사 형제 됐는데, 그 뭐 지내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에- 안노인네데 그 남편이 돌아가고, 그 참 고상 고상해서 아덜들을 그게 공부를 시키고, 참 살게끔 해주고 했는데.

이 부락에서 안노인네들이 어디 관광을 간다고, 관광을 간다고 이제 그러고 허니깐, 그 만약에 돈 달라는 거지 뭐야.

“관광을 간댄다.”

그리고 보면은

“그러시냐?”

고. 돈을 좀 드리면 좋은데,

“아, 돈 없는데요.”

이러고선 안 중단 말여. 그래 인제 둘째 아들, 셋째 아들헌테꺼정 해도 안 중단 말여. 그런 얘기를 해도.

“애이 경칠놈으 거, 여 자식 믿고 살어야 아무 소용 읊다.”

고. 그리고 그냥 보따리를 옷보따리를 그 냥 싸질머, 싸서 들고설랑은 행방없이 그냥 돌아댁기는 거여. 돌아댁기는데 어디쯤 가니까는 잔치집이 있더라. 응, 잔치. [조사자 : 잔치집요?] 응, 잔치집.

잔치집인데, 에- 인자 시장도 허고 뭐 하니까는 문간에 가서 이렇게 앉았으니까는 한 사십된 사람이 허는 말이,

“아, 아주머니! 어디를 가시다가 쉬시는 거냐?”고.

“아, 그렇소.”

“아, 그런데 그 시장한테 들어가서 뭘 좀 잡수시죠. 내일이 우리 아버님 회갑이신데, 우리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되요. 그러나 예, 제가 말씀을 드리되 섭섭히 생각지 마세요.”

“아, 그 무슨 말인지 험테면 허라.” 고.

“아 그러나, 우리 뉘 아버님허고 상을 같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것다.”

고 그러니까.

“아, 뭐 어려울 게 뭐 있냐!”

고. 허, 허 인자 자고서 상을 이렇게 받는데, 아 그 환갑쟁이 손자허고 말여. 이 안노인네 손자허고 학교를 댕겨요. 학교를 댕기는데.

“애, 내일 모래 우리 할아버지 환갑인데, 너 그날 놀러 오너라.”

그거지. 허, 허. 그러니깐 애가 놀러 갔단 말여. 놀러 가니깐 즈(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그 제 학생 친구지.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허고 상을 받거든. 거기서 내설을 안했지, 애가. 인제 즈이 아버지는 즈이 삼촌들은 뭐해서 즈이 할머니 찾아 댕기느라고 메산을 매고 댕기는데. 인제 애가 가서 저이 아버지보고 그런 말을 했단 말여.

“아이 할머니, 저 이 내 친구의 할아버지 회갑에 가서 같이 앉아서 상을 받으시더라.”

고 그러니까는. 허 허, 인제 그래서 거길 갔잖어. 인제 즈 어머니를 인제 같이 인제 모시러 간거지. 같이 올라고. 갔는데.

“아, 어머니! 여 와 계시냐고. 가십시다.”

하니까는.

“내, 뭐허러 가냐? 느 집을. 내 느 몇 형제를 갖다가 느이 살게끔 해주고 말여. 동네에설랑 안노인네가 관광을 간다고 해서, 나 느이 보고 돈 달라는 거지 뭐, 너 보고 무슨 자랑하는 거냐? 너희 무슨 돈 한 푼 췌니. 나 여기서 호의호식허고 잘 사는데, 너이 뭐, 뭐러 왔느냐. 너이 가거라.”

허허, (조사자 웃음) 그런 말이 있어.

3 백 일 기도로 얻은 큰 인물

이돈(76, 남) / 동림리 1앞

[동림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청하자, 이제는 정말 할 것이 없다며 사양하였다. 지나가던 아들이 '뭐 하시냐'고 하자 그냥 웃더니, 우리 선조 내력에 관한 이야기나 한 번 하자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난 우리 세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는데. 내 연안 이가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태조 셋째 아드님이신가. 예- 셋째 아드님, 태조왕 이태조, 저 전주 이씨. 근데 그대 우리 선조가 아주 선조는 아니지, 인제 석자 향자 그 할아버지가 내 15덴데, 그 할아버지가 그전에 탄생이 어떻게 되야면, (조사자가 흙바닥에 앉는 것에 대한 대화 생략) 현몽으로 탄생되었어요. [조사자 : 현몽요?] 예. 응 꿈으로. [조사자 : 꿈으로요.] 꿈. 응 꿈을 가지고 현몽이라고 하지. 강양, 강양도(강원도) 금강산 도읍을 하셨어요, 그전에.

그래 축지법을 하시고 참 뭐했는데 그래 손(孫)이 없어요, 손이. 손이 없어서 서울에 삼각산 나랭이 그 창동이라는데, 거기 우리 사패가 거기 있는데, 그래 인제 그때말로다가 참 종도 부리고 뭐 살림이 뭐 부자고, 살기가 예- 넉넉한데, 한 가지 그저 손이 없어서 그 향상 그냥 뭐 하셨는데. 이러니 인제 부부간이 허신 말씀이지.

“아, 이거 성을 떨어진다니 산이나 위허자.”

고. 그래 삼각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 밤 12시쯤 되며는 쌍춧불을 해, 다량 해가지고 두 분이 인제 거길 땡기시는 거요. 땡기, 백 일을 땡기셨다고. 백 일 기도를 허시고서, 아, 참 아마 현몽을 허셨나 봐. 꿈을 구셨나 봐. 아, 인자 백 일을 마치고 했는데, 인제 진지상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각각 이렇게 그 종이 인제, 각각 다량을 해서 했는데, 그거서 인제 할아버니께서 현몽 얘기를 허신다 이거죠. 그 때는 부부간에도 대감

으로 이렇게 생기였는지.

“아, 대감님! 저도 현몽을 했다.”

고. 현몽에 동품을 했다는. 허 허,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인제 태기가 있어졌다고. 태기가 있어가지고 인제 수태를 허셨는데, 밤에 수태를 허셨어요. 밤에 수태를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형용이 다르단 말이지. 예 형용이 다르다 이거여.

그래 할머니께서는 그때 말로 참 양반의 가문에서 무슨 변으로만 아셨다 이거여.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관복을 입으시고 참, 이 인자 들어 오시래 해가지고, 퍼데기 이렇게 덮어 놓는데 이렇게 처차 보더니만,

“아, 대인자리가 낱구나! 아므쭈룩 잘 길르라.”

고. 이렇게 한 마디 하시고 그냥 사랑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인저 한 살, 두 살, 한 연일곱 살, 아 이렇게 된게 선생님을 앉쳐놓고서 공불 시켜 줬어요. 공불 시키는데 한 자를 일러주면 석 자 녀 자를, 무슨 자라는 걸 터득을 허고, 물리로다가 터득허시고 이리셨는데.

그래설랑은 그 에- 백일기도를 그 응 큰 바위면 석 아녀. 응 돌 석자 형통할 형자로다가, 내 16대 할아버님이 아드님의 함자를 지셨어요. 그 석자 형자로 지셨는데 인제 아주 참 유명하셨지. 인제 공부도 잘 하시고 참 인제 나라에서도 인저 다 아주 알게 되고 뭐하게 되니까는, 그때 말로다 과거, 지금 무슨 이 국회의원을 뽑던지 뭐 허머는 그 시험치득기 예날에는 이 필적으로다 시험을 봤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가서 참 과거를 해서, 그냥 과거에 붙어가지고서 인제 참 지금 국회나 인제 나가는 쪽으로다 인제 나가신겨요. 나가는데 어떻게 참 에- 유식하신지 말이지. 그때 국회에 가서 인저 이 으른 이 문관으로 계셨다고. 문관으로 계셨는데 이 외국에서, 각국나라에서 문답하러 문답을 오신 거여. 알라고 응.

그랬는데 대국천자가, 대국천자가 아 그때 조선시대데, 조선에 인재가 있나 없나, 아 그 대국천자가 문자로다가 서신을 이 조선임금 앞으로로다가, 세종대왕 앞으로 떠왔단 말여. 떠왔는데 임금님이 받아가지고

서는 풀질 못하신단 말여. 아 이거 나로서는, 그러니 지금 국문, 그전 이는 언문이라고 했어요. 그 그걸 세종대왕이 연구하신 분 아니셔. 응 예- 이런 어른도 그걸 터득을 못허신다 이거여.

“아, 이거 나로서는 이거 터득을 못허니 문관이 좀 터득 하느냐?”
고. 그러니까.

“저 임금님이 그걸 터득을 못허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때 임금님한테 굽히지 않은 분은 석자 형자 이석형씨 밖에 읊다는 거여. 지금 이저 그래가지고 인저 답서를 했다고. 대국천자한테 했는데, 예- 조선에도 이런 인재가 있다 있다고.(웃음) 역사에 이제 그러 저기가 내려온다.(웃음)

④ 정성이 중요한 제사

배진선(94, 남) / 동림리T 1뒤

[동림리 수퍼 옆]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수퍼 앞에서 만난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청하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음료수라도 사드리고 해 달라고 해야지’ 하여 음료수를 대접하고서 다시 청하였다. 그러자 ‘왜 나이만 먹으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여?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여? 원제 부텨’ 하고 질문을 먼저 던지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옛날에 한문 글방 하고서 한문을 가르쳤거든, 선상님이. 한 계자(제자)가 와서 뭐라 허냐면,

“선상님!”

“왜 그러냐?”

“저희 닭이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제사 못 지내죠?”

그러거덩. 그러니까 선상이 있다가.

“못 지내지.”

그랬단 말야. 한 계자가 있다가,

“선상님!”

“왜 그러냐?”

“저희 개가 새끼를 낳는데, 피 몹시 흘리고 낳았요. 지내도 괜찮죠?”

“괜찮지.”

말이 도동단찮어.

“계란은 닭, 제사도 쓰는건데 왜, ‘제사 못 지내죠’ 하는 것은 못 지낸다 그러고. 개는 피를 흘리고 새끼를 낳는데 ‘제사 지내도 괜찮죠,’ 그러니까 ‘괜찮지’ 으쓱하란 말씀여요.”

물었단 말여.

“너 모르는 소리다.”

제사는 매사 다 응 정성으로 지내는 거여. 돌아간 분이 먹고 가니 잡스고 가니. ‘지가 잡습시쇼’ 하고 봉하는 그런 맘인데, 계란 난 거는 계란은, 닭머리를 제사로 쓰는데, 안 지낼 맘이 있으니까 ‘못 지내죠’ 그런 거여. 개는 피 흘리고 새끼를 낳아도 ‘지사 지내도 괜찮죠’ 그 맞는 말여.(웃음)

5] 덕 본 지네를 도운 사람

배진선(94, 남) / 동림리T 1위

[동림리 수퍼 옆]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녹음을 한다고 하자, 제보자는 ‘어이구, 그럼 이거 상부에 올려서 큰일 나는 거 아녀!’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제보자에게 지네나 여우 이야기를 해 달라고 유도하자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고, 금이야 옥이야 길르단 말여. 자식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마구새기는 시골로 보내라. 마구새끼는 시골 부러먹으니까두루 가 일 해라. 사람은 서울 가야 사람이 된다. 서울가

보내야 한다.

그래 그 과부가 한 삼사백 석 하는 부자 소리를 듣고 사는건데, 돈은 얼마든지 들던간 자식을 보내겠다고 서울로 보냈단 말여. 보내서 그저 편장 한 장이면 돈을 보내는 거여. 이놈이 막 화류계 기생첩대를 똥똥거리고 먹으니까, 즈 아버지가 어머니가 모은 재산을, 혼자 모은 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 아냐. 막 휘둘러 쓰고서.

한 삼사 년을 해설나문 엄청 괴서 뜯어 먹고서, 핀지 한 장이럼 돈이 그냥 지금 그때 대는 그냥, 지금은 차나 있지만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막 허니까, 서울서 아주 제일 일류가는 거사 부자로 알아. 그래 몇해 인제 다 뜯어 먹고, 그놈은 재산이 바짝 쪼러 붙었네. 헐 수 읍이 이들에 이 핀지하기를,

“난 인제 가져갈 것도 아무 것도 읍다. 애미 피묻은 속것 밖에는 읍다.”

아 이걸 보니까두루 기생 참 얼굴 쳐다볼 면목이 읍잖어.

“세상에 이럴 도리가 있다. 나가 아버지 어머니가 모은 재산을 없애다 하기루 이 처차 망신이지. 이거 어디 기상 손을 쥐고 이렇게 볼 수가 있냐?”

고. 뒤간에 가서 뒤를 보다가 손바닥 딱 드러다 보니까, 가슴하고 기가 막혀. ‘내 이럴 도리가 읍는데, 자식을 나 하나 나가지고서 어머니가 여 일굴에다 동칠을 하나!’ 잔뜩 약이 올라가지고설라문 시골로 내려가서 즈 집을, 방향이 틀려서 어디가 어디 모르것단 말여,

“여 아무 집, 집 거기가 어디요.”

그러니까.

“그거 아들 서울 공부시킨다고 그, 다 재산 까먹고서 저 뒤, 뒤에 하꾸막에 거적 치고서 움 속에 살우.”

거 가보니까 나(남)뿌끄럽지. 가버니까두루 짚시기 짝을 들고 박바 가질 들고 윈, 마누라가 어디가 밥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여. 뭇 거적문을 두드리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냥 하염없이 울어. 어머니에게,

“도대체 어찌 하셨습니까? 어머니!”

“난 몰라. 누군지 몰라. 아무개 어딴어?”

어찌 눈이 비쩍 떠, 눈이. 그래가꾸 짐 싸 들고 이 사람은 그냥 도망가는 거여. 그거 있어야 부끄러우니까. 서울로 가자 어디로 가자. 서울 가면 돈이 있어야 기상첩도 사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두루 기상첩도 못사고.

“에이 이 이런 목숨을 죽어야겠다.”

한강을 건너서 십인유일를 건너서, 남산 꼭대기 가서 그 북악산 꼭대기가 큰 바위 밑에가 불효하는 거지.

“나 같은 인물은 호랭이가 물어시오. 부모의 재산 다 없애고, 어머니 한 분 남은 거 다 이거 망신을 하는 거지. 어느 기상첩이라고 얼굴을 쳐다보고서. 호랭이나 물어 가쇼.”

눈을 꾸덕꾸덕하고 앓아서도 안 물어 간단 말여. 그래서 인제 해가 일몰을 돼서 밤중이 됐는데, 여기선 먼 저 북악산 꼭대기서, 그냥 불이 전기불이 별베긴 듯 한데, 그 중 돌덩이만한 불덩이가 있는데, 실 저노마가 무슨 불인고 허니, 가만히 보니까는두루 아 그 불이 ‘차차차차차차’ 자기 앞으로 오는 모양여. 오는데 보니까 하얀 소복한 여자가 뒤에 싣고(싣고). 한 시 여자가 식기를 덮어서 뭐이 밥인지 뭐지 해이고,

“아이 서방님!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대접한단 말여.

“도대체 니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으로써 이 산중에 범이나 물어가라고 앓았는데 뭐이냐?”

그러니까.

“아, 실례 말씀씀을 허시지 말고 시장허길 오죽 시장하시겠습니까? 잡습지요?”

아 입을 떠서, 밥을 떠서 입에, 입에 너니까, 아 내내 굶은 속에 여간 빨려. 한 술 들고서,

“참 고맙네!”

그러고서 상을 물리고서,

“아, 댁으로 모셔라.”

아니 잘 먹었으면 그만이지, 댁이로 모시라는 거 귀신같은 일 아녀.

“아이, 서방님! 가시자.”

고. 불을 앞세우고 가서 보니까는 이 골목 저 골목해설라문 금포 화정하고 돌아가는데, 어느 산골짜인지 어딘지 그냥 무주구천같은 놈을 들어가니까두루 큰 계와(기와)집이 그냥 제다(전부) 지르르한데, 자객이 그냥 막다고 장기 바둑을 두고, 당나라 나팔 끽끔씩 하는데 그냥 으리으리하단 말야. 그래 쓱 들어가니까,

“거돘바! 거돘바!”

그래, 그 부인이.

“이왕 팔자를 보러 오셨으니, 저 아래 여 손님들이, 많이 과객이 있으니까 인사나 드리고 오시오.”

그래 가서,

“아, 처음 뵙겠습니다. 나 이씨(배짱 두둑하게) 이집 주인되는 사람요.”

“아, 어디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째이지요.”

서로 유쾌히 놀다가(기침을 하면서) 신방을, 거름방을 자기 자석으로 들어갔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 다 사람이지. 서로 회로 해달라는 몇 달간을 지냈는데. 몇 달간을 지냈는데, 선달 그믐날이 됐는데 그 부인이 그러는 거여.

“오늘 그믐날꺼정 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내일이 초하룻날 아녀,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종들을 밥을 대접함이 어떠요?”

“아, 당신 생각해서 하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고. 그렇게 해 냈는데. 나 한 가지 빼 먹었어. 그 자기 어머니 있는 데를 땡기려고 왔더니문서도 큰 개울을 건너, 개울 건너설라문 기 먹탕관한 남자가 스윽 단장을 집고 일어설람은,

“어딜 갔다 오는고?”

“네, 어머니 계신데 갔다 옵니다.”

“갔다 오는 건 잘 하는데, 이걸로다가 자기 가는 길도 내가 아는데, 칩한테 가는 거여. 칩한테 가는건데 가면은 쪽제비 명신명반 사는 얘기, 내가 일러 줄테니 나는 죽어서 용, 용이 되고, 너의 아버지는 죽어서 신선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내려 보내서 이것 참 일러 주냐. 그래가지고 명심을 다해서 들어라.”고 해여.

“그래 무슨 말씀인지 해 해보세요?”

“그래 일루 들어가머는 더 더욱 그 과객이 많고 집이 으리으리 크고 좋고, 당나귀가 마굿간에 살고, 또 그 부인 와서 ‘정월 초하룻날이면 밥을 해서, 우리가 해서 종 주고 같이 먹지. 여태 중한테 얻어 먹은 거 뭐 허는 얘기할 거 아냐. 그러면 첫순갈 입에서 떠 넣을 적에 질경질경 씹어서 이 여자 얼굴에 닥 뺨어라. 그리 하겠느냐 안하겠나?”

이거 험다 할 수 없고, 안할 수도 어안이 병병한다 말여. 그래 초하룻날이 딱 났는데, 입을 입에다 밥을 넣어 주는 거여. 탄화공작허고 꽃 본 나비같다고, 주라질 새몽을. 꽃방석 같은 여자 얼굴에다 밥을 탁 뺨을 맘이 읊단 말여.

“애라, 우라질 것 죽으면 죽었지.”

참 먹다가 꿀떡 삼켜. 꿀떡 삼켰더니 그 여자가 그냥,

“입자는 그러면 그렇지. 인정미라.”

고. 나가서 바깥 마당을 한 걸음 뛰더니마는 안개가 그냥 자-욱 하고 훔 나 가빠리면 고만이란 말여. 그랬는디, 췌꿈 있더니만 그 장안이 부글부글 끓는데, 특배기가 비지장 끓듯 끓는데, 그러니까 새끼 참 꼬리 아홉가진 여우가 죽었다. 그걸 씹어다 뺨었으면 지네가 죽어서 못될 건대. 그 지네가.

여자가 지네여. 지네가 용이 되어가지고, 저기 여우가 꼬리 아홉 가진 여우가 죽었던 말여. 그래서 덕을 보고 그랬대.(웃음)

6 원실을 죽이려 한 장희빈

배진선(94, 남) / 동림리T 1뒤

[동림리 수퍼 앞]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이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을 이야기해 달라고 청하자, 그런 것은 없다면서 조금 쉬었다가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람에 약 두 마디 정도 채록하지 못함) 그길로 돌아가서 아들 하나 탄생했거던. 탄생해 금이나 옥이나 길르는데 아 원실을 초당에다 우에서 농구설라문 하는데, 사진에서 보니까 몸이 그냥 통통 붓고 맨 부스럼이고 그려. 무당을 드려도 굿을 해도 범인을 못 잡고,

“우째 일인지 장안으로 병어리 범인 못 잡나?”

애 터져가지고, 이거 참 이상허긴 이상헌 일이라. 그래 거 나줄(잡을) 중놈을 하나 알거덩.

“네가 잡아 봐라.”

“잡긴 잡건는데, 참 목가질 베쇼.”

“그럼, 베지 시러헐달 모가지 이놈무 거 무슨 까닭이 있어야 목을 베지.”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이러는 거여. 뭐 임금을 원실을 갖다가 초당에다 모신 되다가 뺨 때리다가 줄빠다가 고여가지고, 밤새도록 쏘단 말이야. 쏘니까 살이 살에 가 뺨에 옷에 부시럼이 그냥 덕지덕지 하. 그래 석달 열흘 백 일을 기도 하구서는 인제 백 일이 왔는데,

“들어 오라.”

그러니까.

“잡았느냐?”

“잡긴 잡았습니다만서두, 제 목부터 베 주십시오.”

“얘기나 하구서 목을 베두 베지. 잘못하니 무정한 목 벨 일 읊다.”

그러니까. 그런 얘길 했어.

“원실이 몸에다가 소실이, 장희빈이 활을 가 썩서 그랬다.”

고 하드니.

“내일 아침에 몰고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장희빈을 잡아들이나.

“너 무슨 까닭으로다 원실의 몸에다 화살루 썩가지고 몸이, 그냥 몸이 움적거리면 부서름이 덕지덕지하며 죽것니디 무슨 까닭이냐”

“그 분이 돌아가 죽어야 내가 원실로 들어가 앓지. 살두고는(살려두고는) 원실로 못들어가 앓습니다. 그래 제 속으로 지식 하나 넣고 또 나라에 바치고 어여 죽여 줘쇼.”

아 그러니까.

“죽긴 죽것는데 내 혈색이나 좀 면할 수 있게 해 주쇼.”

그래가지고, 저 세 살 먹을 걸 댐버서 부자지를 거저 비틀어 버렸어. 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묻었어. 그렇잖으면 능인데 묘소를 못했어. 묘를 모시고 지살(제사를) 잘 해 냈지. 잘 해 놓고, 왜 몇 백 년, 오백 년인가 벼. 오백 년도 넘었어.

그대 아 모기 도둑놈이 됐대. 모기라면 그 옛날에 고물 갔다가 묶어 났걸루다가 기계로 파설라면, 금을 캐 갈라고 가 보니까, 어마 어마하게 파냈어. 그래 금을 못 끄내 샀어. 그냥 회루다 절벽을 해 논 거니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산소를 파다가 광주 큰고개로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하고서 김녕장터 남상혁이, 남이장군이 여기 묻혔다고 보니까, 남상혁이라는 분이 묻혔어. 거기.

7 뚫린 구멍 뚫은 죄인

배상준(88, 남) / 동림리T 1뒤 2앞

[동림리 수퍼 옆] 박중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소개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슈퍼에서 음료를 사 마셨다. 그 가게 앞에 한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근처에 가서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이야기를 청하자, 담배 한 개비를 물더니 꽤히 승낙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야기는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였다.

아 예전에 황이 황정승이라는 분이 빈(貧)해요, 엄청 가난해라고. 그런데 빈해서, 하인은 그래도 양반의 집이라 하인을 뒀어. 하인을 뒀는데 그 승전 내시한테로 편지(편지)를 쓰는거여. 편지를 써서,

“너 승전 내시댁에 갔다 줘라.”

하고. 그 하인이 그것을 들고 가서, 내시 마누라를 찾아서 주니까 떡 받더니, 내시 부인이 손을 손목을 잡어. 손목을 잡고(조사자의 손목을 잡으며)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덩. 아이 이 사람은 겁이 나니까 떨리지.

“어,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안심하고, 우리 영감이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사흘만이면 오실 거여. 그러니까 괜찮어. 이리 들어 와.”

들어갔지 뭐여. 들어가서 참 젊은 애들보고 이런 얘기 하기도 뭐하나. 아 일을 치뤘지 뭐여. 일을 치뤘는데, 아 그때서 내시가 왔단 말여. (이상은 처음에 녹음을 하지 못하여 Tape2 앞에 다시 녹음하여 붙인 부분임.)

내시가 들어오란 말여. 들어가니깐두루 꼭 죽었지 뭐여.

“너 어서 온 놈인데, 이 방이 어떤 방인데 들어와 앉았는나?”

하니까두루,

“아, 그 약하 이만저만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무데에서 편지를 가지 오래서 써서 갔다 드리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왕 편지 가져왔으면 너 두고 가는 거지, 어째 이 방에서 있느냐? 밤중에.”

“아이, 적적하시다고 아씨께서 무섭다고 해서, 마지 못해 여기 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러데니까두루 헐 수 없는 말인데, 멀건 그짓 말여.”

그러더니 벽장문을 열더니 돼지 대가리, 돼지 다리, 허벅지 다리를 이것만한 걸(손으로 크기를 보이며) 끄내 놓고서는 칼로 그냥 쓸어, 자기 손으로. 쓸고서내 자기가 좋은 약주 술을 독하거든. 그걸 한 대접을 자기가 먹더니 한 대접을 뷔서 그 사람을 주는거여. 그 심부름 간 사람을. 주는데, 주는데 불불 떨리지. 그 먹으래니까 아니 먹을 수 없으니까두루 한 대접을 먹었다 말여. 먹고 나니까그 피기점을 칼 끝으로 푹 찢러서,

“너, 입 벌려라.”

그런 말여. 그 받아먹기가 어렵지 않아.

“에이, 이판 사판이다.”

죽어. 여기서 천상 죽는 사람이니까 입을 딱 벌렸단 말여. 그다가 그 칼 끝에 피기를 뺏지 뭐. 그래 슬며시 빼거덩. 이러니까 이 놈이 남 무 집이 하인으로 있을망정 배짱은 두겁거덩. 그 이튿날 새벽에 나라에 들어 갔어.

“그 약쳐 이만저만 해서 내 마누라를 그 하인 놈이 와서 겁탈을 했으니, 그 놈을 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여. 그 이 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도 참 못할 짓을 했거덩, 그 놈이. 참 직여야 것거덩.

“그래 네 맘이 직여야 좋겠니?”

“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시로 직이기로, 그냥 별안간 신하를 죄 불렀지 뭐여. 조회를 했지. 조회를 했어. 조회를 해가니까두루 황이 황정승이 한테도 기별을 했는데, 황이 황정승이 안들어 와. 영. 안들어오는데 황이 황정승이 말을 들어야 그 놈의 목을 벨텐데, 황이 황정승이 영 안들어와.

그 그때 직이길 발령이 어떻게 헛고 하면, 그날 오시면 직이기로 발령을 한게란 말여. 그래 인제 황이 황정승이 사랑계를 타고서내, 하인

을 데리고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두루 오시가 거즘 되거덩.

“여기 멈춰라.”

내려. 거기서 내려서 왔다갔다 가거덩.

“아, 가시죠?”

하인들이.

“응 가야졌다.”

그때서 인제 올라타고서내 나라에 들어갔단 말여.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두루 상께서 화를 내셔.

“너, 뭐하게 인제 오는 거냐?”고.

“아이, 오다가 별 구경을 다 했습니다. 거 구경하다 늦었습니다.” 그러.

“아, 무슨 구경여?”

“아, 그 시골에 진데기, 진데기허고 동애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진데기가 허는 소리가, ‘나 똥구녕 똥어라, 똥구녕도 똥어라’ 그러거덩. 그래 등에 말이 ‘아 똥어진 구멍도 똥다가 오시에 죽는데, 나는 사시에 죽자고 네 똥구녕을 똥어 줘.’ 허, 허 그랬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그 구경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께서 벌써 알아 듣고, 내시를 보고서 딱 치면서 그랬데니까,

“그 놈 줘 보내고, 내시 부인은 그 놈 줘 보내고 또 장가 들어.”

그랬다는 얘기여. 허, 허.

⑧ 상부할 팔자 면하게 한 점쟁이

배상준(88, 남) / 동림리T 1앞

[동림리 수퍼 앞]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이야기 하나를 빼먹어 얘기가 안 된다면서, ‘그봐 정신이 없어서 얘기도 이젠 못혀.’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야기는 유명한 점쟁이에 관련된 것이다.

① 강간 당하고 상부 먼한 여인

예전에 핏병, 핏병쟁이가 있어. 핏병쟁이가 있는데, 남편은 꼭 죽거 거덩. 그 금(근)방에서는 참 아는 양반이 있어서 거길 갔다 그런 말여. 거길 갔더니,

“우리 남편이 죽을 병(병)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살리는 회책이 없습니까?”

그런 말여. 기려고 그걸 물어서 인자 두루 응,

“살리는 회책이 있긴 있는데, 내 말을 꼭 들을 거여.”

그런 말여.

“아, 듣지요.”

“아, 널, 널 땃 시 가랑에, 땃 시 가랑에 예- 상제가 산에서 내려와서, 부관지복하고 상제가 내려오면서 자기를 겁탈하려 들거여, 그런 말여. 그런 그 겁탈하려 들면 말을 들오 쥐야지, 아니 들어줄 것 같으면 자기 남편이 죽는다.”

그런 말여. 아 그 얘기 듣고 보니까두루 저 분이 아는 일은 많은데 아니 들을 수가 없단 말여. 그래,

“널 땃 시 가랑에 그런 양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깐두루.

“지금 올라가는데로 상제가 산에서 내려올 거여. 내려오면 당신을 겁탈하려 들리니까두루 말을 들어 쥐라.”

그런 말여. 그 자기 남편을 살릴라고 과연 그 상제가 겁탈을 하려든 단 말여. 욕을 보였지 뛰여. 욕을 비고 나니까는 이놈이 상제가 펄펄 뛰서 바로 거기서 죽어요. 상제가. 상제가 그렇게 죽는데, 아 집이 와서 이전 그런 소문이 죽였테니까두루.

② 대낮에 빨가벗고 상부 면한 여인

그 소문이 그 동네간이니까 그게 뭐해서,
“그 으른이 그렇게 아는 일이 많으니 나도 좀 가서 좀 알아봐야 것
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집이 가서 있는데, 그 여자가 살
기가 가득해요, 얼굴에. 그래 그 아는 이만큼 얘기했다 그런 말여. 아
까 현 얘기여 그건.(앞에 빠진 이야기를 가리킴.)

“당신네 남편이 응 이따 낮에면 죽어, 까딱하다가. 그러니 자네가
상부할 팔자니까두루, 죽을테니 내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
대로 앓을 것 같으면 자기 남편이 죽어.” 그래.

“아, 그럼 시키는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낮에 천둥번개를 허고 소내기가 쏟아지는데, 빨가벗고
뒹(두엎)자리에 올라가서, 너 거기서 춤을 춰라. 춤을 추고 소리를 해
라.”

그럼 말여. 그래 인제 아 그때가 되니까는두루 천둥번개하고 그냥
베락을 칠 것 같이 허거덩. 아 그 그 으른이 원래 아는 일이 많으니가
두루, 그대로 빨가벗고 가서 춤을 추는거지.

그래 저그녀만큼(앞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며) 저 짐을 매다가 베란
간 소내기가 쏟아지니까두루, 자기 남편이 소내기가 쏟아지니까두루
그 일꾼들이 바위 속이로 들어갔어, 우산바위 속이로. 아이 바위 속이
서 이렇게 웅크리고 내다보니까두루, 자기 여편내가 그냥 빨가벗고 춤
을 추고 소리를 허거덩. 그 자기 친구 보기가 미안하단 말여. 아 베락
은 여차 해놓고 화가 치미니까두루,

“이런 년 뭐 허것다.”

허고서 뛰어나오니까두루 베락을 치는거지 뭐여. 바위로 베락을 쳐.
그래 자기 사내는 살렸지 뭐여. 그랬다는 얘기여 허, 허,

9 강태공의 일화

배상준(88, 남) / 동림리 T 2와

[동림리 수퍼 앞]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99. 6. 1)

조사자들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 달라'고 한참 즐라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극구 거절하였다. 담배 한 대를 권하자 못 이기는 척 이야기를 시작했다.

① 5대조 후의 일을 안 강태공의 조상

우리 5대조 할아버지가 아는 일이 많고 글이 좋아. 그런데 그 5대조 할아버지가 그 아들이 외독자로 내려오는데, 어려서 아 어린 거 요런 거, (크기를 손으로 표시하며) 서너살 먹은 것들이 즈이끼리 놀다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했는데, 그것 맞아서 애가 죽었거덩. 그러니 어린애 잃어버린 사람만 억울했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거덩.

“그래, 이거 남무 자식을 어떻게 우리 자식이 직였으니, 이것이 아무 때라도 앙아리를 받겠다.”

자신이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아는 일이 많으니까두루 지옥팔괘를 내놓고 죄 뜯어보니까두루 5대에 가서 손이 끊어지것단 말야. 그때 인제 강태공이 날 때여. 그때 5대에 가서.

아 5대에 가서 강태공이가 낳는데, 강태공이가 예전에 양반에 집이 서는 도포라는 것, 지금 모를 거여, 도포. [조사자 : 도포요?] 응. 도포를 입고 글방을 땡기는 겨요. 지금 핵교처럼 그때는 뭐야면 예전에 책을 이 겨드랑이(그곳을 가리키며)에다가 끼고 땡겼어. 가서 글을 배는데, 도포는 벗어서 막고지에 걸어 놓고, 걸어 놓고 인제 장구, 길게로 저렇게 인제 길게로 땡기는데 거기 우물, 우물이 있거덩. 한데 우물이 있어. 그 동네 처녀가 있는데, 물댕이 그루 물을 길러 땡긴다 그런 말여.

아 처녀도 강태공을 생각한 바 있고, 강태공도 그 처녀에 맘을 거기다 두고 댕긴다 그런 말여. 그래 예전엔 내외법이 무서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인자 장 댕기는데, 그 맘이 있는 데는 눈이 자꾸 가느니 허, 허. 새악시한테 잘 하드기,

그 방을 갔다 오다보니까두루 그 우물에 쳐다보니까두루, 그 댕이 (동이) 내려놓는 물들에 핀지 한 장이, 핀지 봉투지 거기 있단 그런 말여. 그때 양쪽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그걸 집어서 훗주머니다 집어넣고 들어 왔다 그런 말여.

호주머니 놓고 와서 뜯어보니까두루 호적 적(籍)자 하나여, 호적 적자. 호적 적자 하나여. 그런데 그놈으 걸 터득을 해야할텐데, 영 터득이 나와야지 안 나온단 말여.

아이 이놈이 글을 안 읽고, 글 읽다가 애들 한 축이, 한 축에 글 읽는 애가 있어요. 한 축을 읽고서는, 그래 이놈은 책 하나 드러다보지 않고 호적 적자 하나만 드러다 보고 영울영울 하는 거여, 그냥.

그래 선생이 가만히 보니까두루 저놈은 글을 걸헐로 여기고, 그 뉘를 그렇게 얼울거리나 하고 슬며시 어깨넘머로 냉겨다 봤다 그런 말여. 어깨넘머로 냉겨다보니까 호적 적자 하나만 드러다 보고 그러거덩. 응,

“이놈이 이렸구나!”

선상은 그걸 터득을 했거덩. 호적 적자가 대죽 밑에 옛석하고 올래자 했거든. 스무하룻날 대밭으로 오라는 거여 그계. 그렇게 아이 선상은 그걸 터득을 했거덩. 그것을 터득을 해가지고내 선생이 응큼한 생각이 들어서 스무하룻날 대밭에를 갔다 그러 말여.

아 그 처녀가 거기 그 대밭에 웅크리고 앉았어, 올때를 바라고. 강태공이 올 때 바래고. 아 이렇게 가서 선생이 가서 손목을 쥐니까, 아 이렇게 보니까는두루 강태공이가 아녀. 강태공이가 아니니까두루 말을 들어, 안 듣지. [조사자 : 그렇죠.] 죽거라 하고 말을 안 듣거덩, 아 밑에서래도 말을 들어 췌으면, 영 안 들어. 아주 끈기가 무섭게 끈은 여자거든. 참, 정부인이지 뭐여. 그거. 아 도가리나 나니까두루 예전에

장도 칼이란게 있어. 여기서(허리를 가리키며) 장도칼 빼서 목을 콕 찢렸지 뭐여. 콕 찢르니까,

“악!”

하는 바람에 도포자락에 손을 쥐고서 잡아당기니까 도포자락이 찢어졌단 그런 말여. 그래 도포자락을 쥐고 죽었지 뭐여. 아 인제 그래가지고서내 으 그 새악시 집이서 찾지니까두루 새악시가 대밭에서 죽었어. 누 도포자락을 쥐고서내 죽었다 그런말여. 그래 인제 도포자락을 조사를 허니까는 두루 강태공이 도포라 그런 말여. 그래 강태공이를 원이 잡아들이는 거지.

“이거 그 이거 네 도포라는데 어, 어떻게 해서 새악시 처녀를 죽였느냐?”

응. 아, 그러니까두루, 어- 진부하니까두루 얘기가 자꾸 잊져버려. 그런데 강태공이 5대조 할아버지가 아는 일이 많아가지고, 여 얘기가 제대로 또 안 났어. 5대조 할아버지가,

“5대만에 손이 끊어질테니까두루 기 속 장을, 기 속 장을, 황기 속 장을 해서 집이 매느리고 아들이고 이걸 대대 내려가다가, 5대에 가서 손이 끊어지게 되니까두루 이걸 잘 위해 뒤라. 그러니까두루 으짜면 이 기로 해서 살거니까두루 이걸 잘 위해 뒤라.”

그런 말여. 아 이 양반이, 참 시아버지가 참 아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는 싸고싸고 해서 농속에서 꼭 났지 뭐여. 그래 5대 가서 강태공이가 참 나가지고 손이 끊어지게 됐는데, 어 얘기가 요거 바뀐 났지 뭐여.

아 그래가지고서는 강, 도포자락을 조사를 허는데, 강태공이 도포라고 그러거든. 5대에 가서. 강태공이를 잡아, 원이 잡아들이어서 문책을 하니까두루 까물어졌지 뭐여. 그래 목이 떨어질 거여. 그거 기 석 장만 내놓고 그냥 가물어졌단 말여.

그래 이거를 저 사람이 깨나가지고서내 이걸 파곡을 해야 직여야겠는데, 파곡 못해가지고서내 직일 수가 없거덩, 기 석 장 땀에. 아 근심이 태산갈단 말여 원. 그래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참 신수가 좋지가

않고 이러니까. 원 마누라가,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런 말여.

“그렇지 않아요, 이면에 이 아, 참 이 군에, 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제 터득이 영 안 나는구려!”

“그 뭔데 그렇게 터득이 안 나오.”

“기 석 장을 내놓고서 그냥 까물어졌으나, 이걸 터득을 해야 공사를 허지 않느냐! 공사없이 어떻게 사람을 직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터득이 않나서 그러는 거요.”

아 그 원에 마누라는 그제 발써 터득이 됐단 말여.

“그러면 내가 내일 식전에, 당신이 그 관복을 나를 벗어 줘요. 내가 공사를 헐텐니.”

“아, 당신이 공사를 허것소?”

“아, 공사 여부 있지요.”

그 날짜를 연기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식전에 가서 원에 마누라가 가서, 가니까두루 아 그 원이 관복을 벗어서 자기 마누라를 주는 거여.

“입고 공사를 허라.”

고. ‘공사를 허라’고 그러니까, 아 원의 마누라가 그걸 입고서 공사를 허는데,

“황지 석 장이니까 거기 황지삼이라는 사람이 그 근방이 삶, 삶니까? 그거 조사를 허십시오.”

그런 말여. 아 그런 거기서 바로 통설이 나지 뭐여.

“강감철(강태공을 혼동한 것 같음)이 선생이, 선상님이 황지삼입니다.”

이래서 터득을 했다는 그런 말여. 그래서 황지삼이를 잡아들렸지 뭐여. 선상을. 그 죄진 놈이 거기 가서 잡혀갔으니, 지가 사람을 죽였으니 살려. 살 수가 있어.

“그럼, 으짜자고 사람을 그렇게 사람을 직였느냐?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두루.

“엄침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죽여 주십시오.”
고 허거든. 그래 거기서 황지삼이가 잼혀 죽었지 뭐여. 그래 강감철이는
살아나고 음.

② 무릉도원에서 공부하고 나온 강태공

살아나고서내 강감철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두루 자기로 인연해
서, 자기 선생도 죽고 새악시도 죽고 이렇게 됐다 그런 말여. 이렇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단 그런 말여, 체면상에.

“에-, 내가 지훈 산중에 찾아가서 도사, 도사 중을 찾아가서 재 거
기가 공부를 허야겠다”

개나리 붓짐을 해 질머지고서는 산중을 찾아가서 도사 중한테 공부
를 허는 거여. 거기가 신선 노는데야. 신선놀음에 또끼 자루 썩는다는
얘기 들었지. 그 신선 노는 데거든. 거길 찾아가서 공부를 몇 해를 허
는 거지. 그 인제 몇 해를 허고 난, 났는데 그 도사 중이 허는 소리가,
“인저 공부혈만큼 했으니까, 느 고향으로 가거라.”

그런 말여. 그 고향, 공부를, 선생이 내보내니까는두루 왔다 그런 말
여. 와서 자기 고향을 찾아오니까두루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읍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읍는데, 그전에 참 같이 공부한 친구를 찾으니까.

“아, 그 으른 돌아가신 지가 은젠(언제)데 찾아요?”

“아, 아, 증말 그러냐?”

“아, 그 으른 돌아가신 지가 한 몇 십 년 됩니다.”

허, 허. 이런단 말여. 아 다른 데가 물으니까두루 다 그 모양여. 하
나 아는 사람 읍어요. 한 군데 물으니까두루,

“노인 한 분이 거기 그러 살아계시니까, 그 으른을 찾아갑시쇼.”

그러드랴. 거길 찾아갔지. 거길 찾아가니까두루,

“그 아무개 집에 있나?”

하고 찾으니까두루 그 늙은이는 살았어. 이 으른(옆에 앉은 청중을 가리키며)처럼 오래 살았던지. 그래서 모르지 뭐여 서로가.

“아니 누구냐?”니까는

“나는 아무개, 아무개! 산 중으로 내가 공부하러간 강감철이다.”

“아 그러냐!”

고. 손목을 턱 잡고서는 아 여간 반가와. 아 인제 거기 들어가 저녁 으더 먹어, 아침 으더먹어. 몇 칠 거기서 으더먹는 거여. 며 칠을 으더먹고 나서 염치가 없잔어. 아주 툭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보게? 나는 산중에 가서 공부를 헛했네!”

그런 말여.

“왜?”

“어느 때 콩이고 참깨고 팥이고 심는 걸 아나, 쌀김이 시 쌀김이고 튀고 시세를 아나, 공부를 헛했지 뭐가?”

아 사실은 그랬거든. 어느 때 콩을 심는 것도 모르고 공부를 했던 말여. 그 주인이 듣고 보니까.

“그랬것네. 그래 인제 어떻게하냐?”

“헐 수 읍이 자네가 나를 먹여줄 수백이 읍네.”

“아, 맥여주기를 어렵지 않으나, 나도 매느리 자식 으더먹고 있는데, 그렇게 썩 허대기도 어렵고 헌테 어찌던지 있게, 집이.”

③ 갱피 훑는 여인

아 으더먹고 나니까두루, 한 날은 주인이 자기 매누리 자식보기, 보기가 접직하니까두루 강태공이더러 허는 소리가.

“자네 마누라 하나 읍을래냐?”

그러는 거여.

“마누라를 엇다 갔다가 은냐?”

“내가 하나 은어 줄테니, 은게.”

“아, 그럼 그러게.”

그 주인이 참 마누라를 은어 찻단 말여. 마누라를 얻어주고 사는데 세간을 냈지 뭐여, 세간을.

“인제 마누라를 얻었으니 내가 곡식 몇 말만 줄테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살아라.”

그래 사발하고 용달술하고 해서 세간을 내보냈단 말여. 그래 인제 나가서 사는 거지. 나가서 살고 보니까는, 그 뭐 양식이 자꾸 허, 허, 먹어대니까는 다 떨어지지 않았어.

다 떨어지고 나니까두루 예전에 이렇게 개울가에 갱피라는게 있어 갱피. [조사자 : 갱피요?] 응, 갱피. 그거래도 뽑아다가 술에 볶아서 먹어야겠거던. 그 이 강태공이 마누라가 그걸 뽑아서 술에다 볶아서 영감, 마누라가 먹고서 그걸로 사는게지. 사는데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날마두 책만 들러다 봐요. 책만 드려다보니까 마누라가 보기가 답답하기가 한없어. 집이 양식은 다 되고 책만 드려다 봐. 그래 마누라가 강태공이 보고 허는 소리가,

“그 당신은 그 책에서 짚이 나오 돈이 나오. 그 책만 그렇게 드려다 보요.”

“헐 수 있소. 난 배운 거라고 그것 백이 없는데.”

이라. 그것 백이 없어. 아 그 답답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사는게다. 아 그래 인제 먹고 살래니까두루 개울가 가 갱피를 또 뽑아다가, 그걸 술에다 볶아서 영감, 마누라가 먹지. 인제 그걸 먹고 나니까,

“여보!”

영감더러 하는 소리가,

“거 허다못해 가서 낚시도 못허요?”

그런 말여. 낚시질.

“아, 낚시질 허지.”

“그럼, 가서 물괴기라도 잡아 와요.” (웃음)

“그럼, 그래지.”

뉘시대를 해가지고 뉘시, 개울가로 뉘시질을 허러 갔다 그런 말여. 며칠을 뉘시질을 해도 송사리 하나 붙들어 가지고 오는게 읍어.

“아, 여보! 어떻게서 그래 송사리 하나가 안 얹히우?”

“아, 안 얹히니, 헐 수 있소.”

철부지 영감 만났다고 딱허기가 한없단 말여.

“여보! 널은 점심 먹으러 오지말고 내가 점심을 해가지고 갈테니, 점심 때꺼정 기들르고 있오.”

“그럼, 그래리다.”

점심 때 이놈무 밤을 해가지고 갔지. 그런게 참 뚝에서 뉘시를 몰에 다 집어넣고 뉘시질을 해여.

“아 여보! 여보! 아 여기 와서 진지 잡스시오?”

아, 배는 고프니까두루 그 갱피가 무슨 힘이 있어. 아 그래 그걸 먹지. 먹구서내 뉘시질을 허는데 가서 그 뉘시대에, 고자농걸(꼬자 놓은 걸) 번쩍 들고 보니까두루 곧은 뉘시여. 이렇게 이렇게(손가락을 구부리며) 꼬부러지야 얹히잖아. 곧은 뉘시에 그 밥알이고 파리고 그렇 걸 그것만 따 먹었지, 생전가면 그거 얹혀, 곧은 뉘시에 피기가.

“이런 작자허고 살았으니, 이런 영감을 뿌리치고 가야겠다.”

가서 영감한테 그러는 거여.

“여보!”

“왜 그라?”

“당신하고 나하고 오늘 갈라 습십시다.”

“아, 그럼 생각해 해요, 가던지.”

“난 가겠소. 당신 마누라로는 살 수가 없소.”

갔지 뭐여. 헤졌지. 들이 헤지고 보니까두루, 이놈으 마투라는 영감을 읍어 간다는게 그눔으 집도 어렵기가 한 없거든. 그 늬으 집도 어려워서 갱피를 또 뽑으러 땡겨, 개울계로. 이걸 뽑아다가 해 먹고 해 먹는데, 응.

그래 자 한날은 과거령이 내려서 나라에서, 과거령이 내려가지고서

는 과거를 보인다 하나까두루 강태공이가 과거를 과거를 보러 갔어. 아 과거를 왔는데 장원급제를 했지 뭐여. 아 금방 올라섰지. 아 그래서 금방 올라서가지고서 사랑계 타고서는 구러구러 멩태갓 쓴 놈 보고,

“역(이렇게) 하라. 적(저렇게) 허라.”

하고, 이고서는 이런 길로 내려가는 거지. 아 그 강태공이 마누라가 그걸 보니까두루.

“어떤 사람은 팔자가 저렇게 좋아서 허기께 뻘치고 가는데, 나같은 팔자는 왜 이 문양인가. 허구헌 날 이 갱괴를 뿔으로 땡기니.”

아 그러고 탄복하는 게야. 탄복하면서 신작로계로 나오는 거지 뭐여. 신작로계로 나오니까는 저만치 오는데 사랑, 사랑계 문을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니 자기가 데리고 살던 영감이라 말여. 가서 길을 꼭 끌어 막었지. 손을 그냥 활개를 벌리고 꼭 끌어 막었지. 강태공이는 자기가 데리고 살던 마누라 모르것씨. 호령을 허는 거여.

“아 그 어떠한 여자가 남이 누하고 가는데 가러 막고 그러느냐?”

고. 굴복을 했지 뭐여.

“내가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뻘었으니까 살려 주쇼.”

“아 비껴 서.”

아 썩 띄버리고서는 그냥 벼슬을 해가지고, (웃음) 강태공이 갔다는 그 얘기여. 팔자가 사나우면 헐 수가 없는 거여. 그래 강태공이가 그래서 벼슬에 올라섰지 뭐여.

4) 민요

① 복남아

이돈(76, 남) / 동림리T 1앞

[동림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이야기를 한 마디 더 해 주시길 청하자 자청해서 참가를 한다고 했다.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주책이 아닌가 모르겠다면서 어렸을 때 들은 노래라면서 눈을 아래로 뜨고 지팡이를 이리저리 흔들며 ‘이게 슬픈 창가여’ 하며 부르기 시작했다.

복~ 남아	우지말고	어서 자거라
너를 업고	배 주리는	나도 있단다
전일에는	니가 울면	엄마 젖 주지
극락가신	어머니여	이 애 젖좀 쥐
복남이는	등에 업혀	울고 있어요
복남~아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니가 울면	내 눈에서	피가 흐른다
다른 아해	팔자 좋아	엄마 손 잡고
오색~을	영롱하게	때때 웃입고
가는 것을	바라보는	요 내 신세요
이리갈까	저리갈까	가이 없구나
우리 들은	담 밑에서	거적 잠자요
황천이여	우리 남매	굽어 보서요
부모없는	우리 남매	함께 울면서
남쪽나라	옛 고향을	찾아를 가자

② 친구 집을 찾아

이돈(76, 남) / 동림리T 1앞

[동림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민수, 김상우, 최문철 조사 (1996. 6. 1)

창을 한 마디 더 청하자 한참을 ‘이걸 해서 뭐 하느냐’고 거절하였다. 조사자들이 반복해서 청하자 한 마디만 한다면 속스러워 하며 부르기 시작하였다.

옛세 동안에 곤한 몸이	오늘 일을 당하고 보니
지나간 일은 꿈결 같고	상쾌한 마음 뿐 ~ 일세

이~른 아침 조반 후에
손님 이끌고 썩~ 나스니
산에 올~라 샘물 먹고
해는 서산에 넘어 가고

친구 집이를 찾으러 가서
가는 거 참~ 좋~ 다
모든 구경을 다하고 나니
동천 철길 기차 온다

여

백

7. 능원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능원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시에 우명동, 원촌, 능곡 마을이 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자연마을인 능곡은 정몽주의 산소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고, 원촌은 역시 정몽주를 모신 충렬서원이 있어 붙여졌으며, 우명은 능골이 발달하였을 때 소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면소재지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용인에서도 무척 멀리 떨어진 곳이다. 이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전혀 시골이란 느낌을 받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5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 서 있었으며, 차량의 통행량이 무척 많았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바로 앞에 있는 다리 하나를 건너면 능원리라 하였다. 각종 유락시설과 식당, 심지어 골프장까지 있는 개발된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능골”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양쪽에 산을 두고, 가운데의 도로를 따라 마을이 일렬로 펼쳐져 있었다. 산자락에 “충렬서원”이 눈에 띄었으며, 도로의 중간 정도에 커다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그 옆에는 효자 정한영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하나 있었으며, 옛 정취를 느낄만한 오래된 건물은 하나도 없었다. 건물들은 모두 현대식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은 원래 민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정몽주의 산소가 생기면서 그 후손들이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따르는 것처럼, 증중에 대한 이야기 외에 전설이나 민담 등은 전혀 구술하지 않으려 하였다.

2) 제보자

(1) 정연설(77, 남)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마을에 도착하여 이장님을 찾아갔다. 조사나온 목적을 말씀하고, 마을에서 이야기 해 줄만한 사람을 소개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장님은 마을의 어른 중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택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제보자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굵은 목소리를 지니고 계셨다. 집안을 살펴보니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식도 풍부하여 보였다. 나중에 여쭙어 보니, 정씨 종종 일을 보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셨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시작하면 무척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며, “영일 정씨” 종가에도 살펴볼 수 있게 배려하여 주었다. 할아버지는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 등 조상에 관한 이야기만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1~2.

(2) 김선호(50, 남)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정연설 할아버지 택에서 나와 마을에 있는 능원초등학교를 찾았다. 조사자들은 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을 뵙고 조사 나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러자 교감선생님께서 조사자에게 자리를 앉으라고 하신 후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교감선생님은 고향이 경기도 안성으로 이곳은 학교에 근무하는 관계로 오게되었다고 한다.

제공자료 : 설화 3~4.

(3) 김은식(80, 여)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능원초등학교에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경로당에 들렀더니 공사 중이었다. 조사자들이 경로당 앞에서 서성거릴 때 한 아저씨가 와서 마을 앞의 효자비에 대해 물었

으나, 별로 아는 것이 없는지 말씀이 없었다. 조사자들은 마을 경로당 뒷편으로 가 보니, 7~8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계셨다. 그레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한 할머니께 이야기를 부탁드렸더니 자상하게 구술하여 주었다. 할머니는 충남 예산이 고향이라고 하시며, 15세 때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외모는 80세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60대 정도의 나이로 보일 정도 젊어 보였다. 이 마을이 정씨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실적으로 설명하여 주기 시작하여, 민속적인 것 등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 구술하여 주었다.

제공자료 : 설화 5~13.

(4) 김정분(71, 남)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능원1리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능원2리 노인정을 찾아갔다. 이곳의 경로당은 능원1리의 것보다 협소하고 어두웠다. 이 노인정에는 10여 명의 할머니가 앉아서 담소하고 계셨다. 그래서 조사자들이 조사나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제보자가 이해하고 이야기판을 형성하는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제보자는 약간 몸집이 통통하고 머리도 희끗희끗이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구술하는 동안에 아주 즐겁게 말씀을 해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14~15, 18~19.

(5) 김언년(68, 남)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김정분 할머니가 이야기를 구술하는 것을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할머니가 제보자였다. 그레 김할머니가 이야기 끝나자마자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부탁하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생각이 났는지 사양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조그마한 체격에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였으며, 발음은 정확한 편이어서 듣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제공자료 : 설화 16~17, 20.

3) 설화

① 포은 정몽주

정연설(77, 남) / 능원리T 1앞

[능원리]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이장님에게 조사나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 줄 마을 어른을 부탁하자,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 주어 제보자 댁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할아버지는 두꺼운 안경과 굵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집안에 많은 책을 가지고 계셨다. 학식도 풍부해 보였는데, 종종 일을 보다가 얼마 전에 그만 두었다고 하셨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며, “영일 정씨” 종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었다. 할아버지께서는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응 번역자니까 그냥 효수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 참 무인들이 그냥 우선 쇠도리개로 쳐서 그냥 땅에 잉 돌아가신 것을 누가 들보는 사람도 없잖아.

들보는 사람이 없이 뭐 하다가, 결국에선 우현보라고 허는 양반이, 잉 저어 단양 우씨에 그 어른이 같이 벼슬했던 분인데, 중을 데리고 와서 어른의 시신을 응 수습을 해 가지고, 요새 개성 근처겠지, 개풍 땅. 과거에는 그 경기도 개풍군이지만. 지금 이북으로 들어간 개풍 땅에다가 우선 수시를 해다가 모셨다 이런 얘기여.

그런 후에 인제 나라가 결국에선 서가지고 잉, 현인들이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통 와서 벼슬을 헐려고 들지 안잖아. 그래서 별루 그냥 다 얘기해 가지고 해도 안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선 두문동 72현에 뭐 불을 싸질렀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런 거 들었어? [조사자 : 그것 불 놔서 그랬다는며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왔는데, 포은을 따라서 죄 산속에 가서 숨고 통일, 나라 건국하려니까 당채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제 그 황희 황정승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때 거기서 잉.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결국 나가서 벼슬을 해라.”

해가지고 황희 황정승은 나왔다는 거고. 포은은 역시 돌아가셨으니까, 포은은 그 절개를 갖다가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산속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저기 정종 이후에 그 잉 국가에서 뭐가 됐느냐 하면, 서로 형제 짝이 되지 않았어, 태종하고.

그 태종이 인제 집권해 가지고 보니까, 결국에선 이 포은은 참 충절과 잉 저것이 참 현찰시켜야 할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선 이 포은을 충절을 갖다가 찬양해가지고서 복원을 시켜가지고 인저, 태종 원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인제 그렇게 되니까, 개풍 땅에서 인제 고향으로 모셔야 되겠거든, 우리 포은 선조를. 그러니까 인저 그때 그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인제 말하자면 특사를 준게 아녀 잉. [조사자 : 예, 그렇죠.] 그렇게 됐으니까 결국에선 해가지고 가다가, 이저 지금 이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도 그게 아마 삼남대로여.

우리 풍덕천이라는 나무, 여기 수지면 풍덕천이라는 데가 인제 주막 거린데, 주막거리에 인제 운구를 해가다가 쉬었는데 별안간에 잉 바람이, 회오리바람 비슷한 게 날라와가지고 명정, 요새 잉 거 앞에 빨건 저절로 해가지고 모시는게 있잖어, 어. 가령 예를 들어 얘기할 거 같으면, 오천 후에 뭐 누구누구 정공이라든가 지구라고 해가지고 써서 앞에, 제일 상여 앞에 나가는데, 그걸 명정이라고 하는 거여. [조사자 : 상여를 이렇게 들고.] 아니. 상여 아니라, 앞에 이렇게(깃대를 들고 있는 모양을 취하며) 기갈이. [조사자 : 아 이렇게.] 그렇잖여. 가령 연안 이씨 하면 연안 이씨, 전주 이씨하면 전주 이씨 지구라고. 그게 휘 날라가지고 여기를 그냥 왔데는 거여.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하늘에서 계시한 잉, 저거니까 묘지니까 결국에선 영천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여기다 모셨다고 하는데 이건 풍문이고. 그런 후에 여기다 모셔가지고, 자손들은 그때 죄 인제 피신했을 거 아녀. 우리 정가들은. [조사자 : 예 그렇죠.] 응. 뭐 아직 그랬다 하더라도, 아직 세상이 암만 바뀌어서 뭐

했는데, 이 양반이 신원이 복천이, 복원됐다 하더라도, 바로 가서 저 벼슬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 이 동생은 나갔었어요.

아드님이 두 분 있었는데, 포은 선조에. 거 나가서 진사과에 뭐 합격을 하고, 이 형님은 응 아직도 피신하시다가 그 후에 몇 대 후에 인제 결국에서 우리 동네를 선산이 계시니까, 그냥 잉 와서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인제 그후에 우리 여기 여 역사로 말하자면 우리 정가에 전참이라고 하는 양반이, [조사자 : 정참이요.] 전참이라고 하는 벼슬여. 그 휘자로는 그냥 요술 인변에 이렇게 새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헨잔데.(손바닥 위에 글씨를 쓰다가 머뭇거림) 글자를 내가 써 줄까.(가지고 있던 우리 수첩에 한자를 쓰면서) 이이 이상하네 이게, 이렇게 쓴 자가 아마 있을 거여. 이 호 틀리는데.(혼잣 말투로)

그런 어른이 여기 와서 인제 조상을 받들고 사셨다 하는 이런 전설도 내려오는 건데. 그전에도 딴 사람들이 살았겠지. 타성들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여기가 우리 정가의 집승촌이다 유지해 내려왔지.

[조사자 : 그 때가 언제 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병자호란 당신데, [조사자 : 모여 살을 때?] 인조, 인조대왕 시절여. 거 그전에는 서울 들 사셨고, 그냥 뭐 또 포은 자손으로 말하면 몇 집 안 됐을 거 아녀. 그때로 말하면 한 사오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대대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집성촌으로 돼가지고 살다보니까, 지금 뭐 여기 동네는 지금도 그래요, 뭐 우리 정가가 한 30호도 못 사는데, 인제 요샌 세상이 바뀌지니까 최근에 30여 호가 외지 사람이 살아서 아주 인심이 좋지 않지. 잉.

[조사자 : 정몽주 선생님께서요, 그 시조할 때 파시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파시조? [조사자 : 거기서 어떠한 정몽주 선생님 때문에 문파의 한 계류가 생겼습니까?] 아 그러야. 파시조라 할 거 같으면 뭐. 글씨 여기는 그냥 포은이 중시조지. [조사자 : 중시조!]

우리 원 시조는, 시조는 습자 병자 해가지고 저 결국에선 영일 저 남성대라고 하는 데다 모시고, 포은 이하의 우리 자손들만 여기 사는데. 우리 저 저 포은 이상에서 갈린 뒤, 지금 뒤여 육군 참모총장 지낸 지금 응 5·18 때문에 야단치는 정승화, [조사자 : 아 정승화.] 그이는 포은 지상에서 갈린 집들인데, 금천 김천 집들에서 살고, 여러 가지.

[조사자 : 그러면 거기는 총렬서원인가요.] 총렬서원은 글썽 포은을 모시고, 또 우리 그 설곡이라고 하는 그 포은 손자를 모시고, 그 밑에는 세 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죽창이라고 시자 직자하는 양반이 있어요. 이 시자도 때 시자 풀 직자, [조사자 : 여기다 좀.](수첩을 건네주면서) 응, 막 써도 되는지. [조사자 : 괜찮습니다.] 이게 직잔데. 이 당채 잊어버렸네 또. 이게 하여간 직자, 풀 직자라고 하고, 이게 당채 인제 나이가 늙으니까.

죽창이라고 해서, 이분은 병자호란 때 저 강화에서 돌아가신 분이예요. 강화에서, [조사자 : 강화에서요?] 강화에 저기 그 저기 모셨던 곳이야. 내가 가 보니까. [조사자 : 저기 서원을 질 때는 다른 얘기 없습니까?] 서원요. [조사자 : 서원을 질 때?]

뒤, 기 이 서원이 원래가 총렬서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초래된 역사가 있는데, 이 대지에다가 죽전 죽전이라고 있어요. 용인에 인제 북쪽 한 10리 되는 죽전이라고 하는 데다, 우리 포은하고 어이 조 조정암, 정암이라고 요새 저 조광조 나오잖아. 그 으른하고 합장 했었는데, 병자호란 때 인제 불타니까 결국에선 다시 거기에다 복사하는 거보다 그 으른은 그 으른 산하(山下)루 묘하루 가고, 포은은 포은 묘 하(下)루 왔던 거예요.

옛날에 참 그런 소리하면 안 됐지만, 그 아마 권력들을 썼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결국에서 이것 대원군이 그 회철하실 당시에,

“야 이것 회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회철을 시켜서 황폐했던 저건데, 이 일정 시대에 인제 건물만을 졌다가, 아 얼른 허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선 이

해방 후에 위패를 모시고서 받들고 있는 거죠. [조사자 : 위패가 봉안.] 그렇죠. 위패도 봉안되고 영정도 봉안되고, 거 안 가봤어요. [조사자 : 안으로 못 들어가고.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데.] 뭐 허가는 무슨, 누구한테 허가를. [조사자 : 곁에만, 밖에서만 보고 왔어요.]

② 포은 묘소로 인한 능골

정연설(77, 남) / 능원리T 1앞

[능원1리]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정몽주 선생에 관한 것 이외의 이야기를 부탁하자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고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묻자,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준 것이다.

글쎄 전설은, [조사자 : 고인들도 있고.] 고인들은 읍지. 고인들은 여기 왕산리 여기 우리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지. 여기는 글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능골이라고 하는 동네, 잉 저거가 결국에선 선조 대왕의 초치 왕후이신 의인왕후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의인왕후가 돌아가셨는데, 포은 산소 옆에 이쪽 내륙에 지끔두 거길 참 능골이라고 하는 잉 그 지명이 있어. 이렇게 산골짜구니 그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인제 지관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나라에다 상소하니까, 응 선조 대왕이,

“아 이, 그 포은 선생을, 응 태종께서 결국에선 그냥 복헌해 드렸는데 그 산소를 갖다가 꽤 웅겨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때는 아 왕에, 결국은 묘술 쓰게 될 것 같으면, 1 한 2킬로 내에 있는 산소는 전부 파 웅겨야 된단 얘기가 되 있거든. 그런 게,

“그럴 수야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어른은 그렇게 국장으로 지내다시피 하는 건데 그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판 데로 웅겨 갔다 해서 여기가 능골이라 그런 하는 전설. 그거지 뭐 결국. (산신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서) [조사자 :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요 여기 능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조사자 :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능원리라고 돼 있거든요.]

능원리에요. 그래 능원리 능골이지. 그러니까 잉 말하자면 능이라는 게 그 언덕 능자 그래 능 아녀. 게 이제 서원이 계시다고 해서 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인제 능 서원 이렇게 해가지고 능원리로 만들은 거지. [조사자 : 원래는 능골인데.] 그렇지. 그냥 능골이지 뭐. 여기 옛날에는 한강 이 이 저쪽이 서울 가도 능골이라고 있지. 지금도 능골이라고 하면 수원서도 능골이라구, 능골해야 알구. 저기서두 능골이라야 알구. 저 그 저 근처 동네는 잉 광주촌이니 왕림이니 무슨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그의 능골이 저 아래 교통 삼거리가 되니까 거기가 능골이 됐어요. 이 동네가 원, 지금 저 행정명으로도 능골인데, 이 광주 능골이 되어버렸어 그냥. 교통이 거기 이 자꾸 발달되니까.

[조사자 : 저쪽이 능골이 되고, 이쪽이 능원리라고 한다구요?] 아니. 여기가 능골여, 원래는. [조사자 : 저쪽에서 물어 보니까.] 아니 글세.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를 광주촌여. 쪼그만 동네였는데, 아 글세 능골이라는게 교통 중심지가 안 되고 하니까, 이 수원서도, 서울서도, 성남서도 능골이라구 하면 그냥 그 능골이 광주 능골이라구 그전에 하구 다녔는데, 능골이 거기가 됐어요. 능골은 원 여기가 능골이구.

③ 능골에 정씨가 많은 이유

김선호(50, 남) / 능원리T 1앞

[능원리 능원초등학교]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1996. 6. 1)

능원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감선생님을 뵙게 되었다. 조사자들이 이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교감선생님께서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후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교감선생님은 고향이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였다.

정씨 문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 왜 정씨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는가 하는 유래 그런 것은 좀 있어요. 요 도로 건너편에 정몽주 선생묘 묘소가 있거든요. 고건 아세요. [조사자 : 예 그것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정몽주 선생님은 예 살아계실 생전 당시에는 여기 지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이거든, 여기가.

그런데 왜 여기에 그 분의 묘소가 있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 [조사자 : 아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그렇게 묘소가 생기게 된 이후부터 여기에 정씨 후손들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고 쉬운 말로 조선 초기에 돌아가신거죠. 그 분이, 정몽주 선생님이 원래 고향은 뭐 저 경상북도 영, 영일인가, 영일 정씨라고 그러죠. [조사자 : 예 영일 정씨요.]

그쪽이 본래 고향이시라, 개성에서 돌아가시고 장례 행렬이 글루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에 풍덕천이라고 하는 곳이야. [조사자 : 풍덕천요?] 풍덕천. 지금 수지지구라고 하는데 있죠.

그 장례 행렬이 거기쯤 도달했을 때에 갑자기 뭐 회오리 바람같은 것이 불어가지고 만장이라고 그러죠. 왜 깃발같은 거 그런 거. 그것이 그냥 하늘로다 날려가지고, 그래 장례 행렬이 지나가다가 그것이 읊으면 안 되잖아. [조사자 :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날라가는 데를 쫓아가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람에 날리는 방향으로, 날라가는 곳이 이쪽으로 날라온 거여. 그러니까 수지지구에서 이쪽이 동쪽이 되거든요. 그 인제 큰 고개를 넘어서 막 날라가는 걸 인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찾아갈려고 하는데, 그냥 이놈이 땅에 떨어진 자리가 바로 지금 묘소자리예요, 고개.

자손들이 인제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 묘를 쓴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그 묘를 뭐 관리한다고 할까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영일 정씨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역사 이야기 속에 뒀 이야기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등에 그 분과 이 지역과는 깊은 연관이 없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왜 고향도 아닌 타향 쪽에다가 묘

를 썼는지.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연유로 해가지고 여기에 묘가 있게 되었고, 또 그 후손들이 여기에 많이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도.

④ 사랑해야 할 동물

김선호(50, 남) / 능원리T 1와

[능원1리 능원초등학교]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정씨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조사자에게 음료수를 하나씩 권하였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들은 이야기라며 구술하기 시작하였다. 이 이야기는 고향인 안성에서 할머니들한테 들은 것이라 한다.

① 구렁이의 복수

경상도에 애길 하나 들은 것이 기억에 좀 나는 거 같은데, 저 우리들이 어렸을 때 보재기예다가 책 들들 말아가치고 허리에 차가지고 책교에 다니고 그랬죠.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길에서 뱀이 지나가면은 대개 인제 막대기나 돌맹이를 가지고선 잡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도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지 어른들이 그런 것하고 관련지어서 옛날 얘기식으로 한 번 해주시는 이야기 속에, 어떤 아이가 인제 길을 가다가 뱀이 그렇게 길에서 지나가는 걸 보고서 들로 때려서 죽였다 그런 얘기도.

아이가 인제 무심코 징그러운 뱀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생각없이 집에 갔는데, 이 뱀이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뱀이 다시 목숨이 소생 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한 아이를 쫓아가서 나중에 뭐 복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뱀같은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것이 무서우니까 ‘뱀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

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런 정도 얘기 기억나는 거 하나 하고.

② 집 나간 고양이

그리고 또 고양이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고양이가 새끼를 나면은요, 어 다른 동물하고 좀 특이하게 새끼를 보호를 하는 모양예요.

그래 집주인이 길러던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새끼를 낳는데, 집주인이 무심코 그 새끼 고양이를 이렇게 인자 보고서 혼잣 얘기로, 안 좋은 뜻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은 어떤 식의 얘기를 혼자 중얼거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은,

“왜 이렇게 귀찮게 새끼를 많이 낳는가. 저걸 무얼 가지구 먹여, 먹여 살릴까.”

하는 이런 얘기 같기도 했고,

“그 뭐 새끼가 왜 저렇게 못생겼나.”

뭐 하여튼 이런 얘기 같기도 했고. 그런데 고양이 에미가 그 이야기를 주인한테 들고 난 뒤에, 새끼들을 모두 데리고 그 집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것 참 사람 얘기를 알아듣는 고양이도 있는가 보다. 고양이가 주인한테 실망을 해서 그냥 그렇게 어딜 몰래 떠났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인저 얘기를 들었던 기억같은 것이 나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에 어른들의 맘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요.

5] 처녀가 죽은 손각시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1리 노인정 뒤]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능원초등학교를 나와 경로당에 들렀더니 공사 중이었다. 그곳에서 한 아저씨를 만나 마을 앞의 효자비에 대해 물었으나, 별로 아는 것이 없는지 말씀이 없었다. 조사자는 경로당 뒷편에 가 보니, 7-8명 정도 할머니가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조사자들의 설명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자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할머니는 충남 예산이 고향으로, 15세 때에 이곳으로 시집을 왔다고 한다. 외모는 80세라는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60대 정도로 보였다. 이 마을에 정씨가 많은 이유에 대해 사실적으로 설명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귀신 얘기라던지.] 애? [조사자 : 귀신 얘기라던지?] 귀신이요? 귀신은 옛날에는 뭐 귀신이 있다고 뭐 그랬지만은 그런 걸. [조사자 :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런, (웃음) 귀신 그런 걸은 알 수 없어요. 그전에 인제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가지구.

그 뭐이 뭐 성각시(손각시)니 뭐 그런게, [조사자 : 성각시요?] 그 처녀 저기 헌 거를 옛날엔 성각시라고 그랬데요. [조사자 : 처녀가 죽으면 성각시라고 했다고요?] 애. 그랬다는 거길루 집안이 안 좋다는, 우리가 일찍 여기 결혼해서 왔는데, 그때는 그 문앞을 지날 적에 그냥 무섭다 하구 이렇게 살았지. 뭐 특별하게 귀신을 보구 뭐 한건 없잖아요.

6] 성황당 형겅으로 만든 옷 입고 망한 집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1리 노인정 뒤]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셨는데, 아마 대신 이야기를 해 줄 사람을 찾으신 것 같다.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자 제보자는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딴 얘기 뭐 헐 말이 있다구 뭐가 있어요. 그러구 그전에 여기 양신부님이라고 여기서 저 위에 올라가면 소우리라는 데가 있는 데요. [조사자 : 소우리요?] 소우리라구. 저기, [청중 : 동네 이름이 소우리야. 소우리.] 애 저기가 우명동이라고 애, 애, [청중 : 골프장 있는데.] 이 위루 올라가면 골프장 있는 밑이거든요.

그랬는데 옛날에 그 성황당이라구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잔뜩 모아노쿠 나무 위에다가 흥겘가튼 걸 이런 걸 이렇게 매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저기 어느 할아버지가 지나실려니깐, 아주 비단이 이렇게 펠루펠루 많이 해서 고투짜에서 담아서 하날 갖다 놔두래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이젠 예날에 천주교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미신이 어딘냐구. 아 기까짓 꺼 저기 그거 갖다가 옷 해 입이 두 괜찮다.”

구. 그전엔 옷 그런게 구(귀)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거를 갖다가 인제 손주 매누리니, 며누리니 집안 식구들이 다 옷을 해 입었대요. 아 그랬더니 그냥 그 집안이 아주 몰락해 버렸대. 아주 그냥 다 돌아가구 뭐, 모두 변사가 일어나가지구 집안이 아주 여기서 못 사시구서, 모두 삼지세면으로 헤어져 가지고 있다구.

거기 신부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 양신부님이라구. 양썸데 그런 일이 있다구 그러드라구요. [청중2 : 시방은 죄 없었잖어.] 지금은 성황당두 읍잖아요. 그때는 있었다구 그러드라구요. 그래가지구 그 신부님이 조카들을 공부 시키구, 그냥 뭐 집안이 다 아주 아무꺼두 없이 됐으니까,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다구. 모두들 지내신다구 그러드라구요. 뭐 그런 소릴 들었어요.

⑦ 도깨비의 행패

김은식(80, 여) 능원리T 1위

[능원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 주변의 고인들에 대해 묻자, 그에 대한 말은 없고 옛날에 생활 도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 조사자가 이야기 해 줄 것을 재촉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그 전에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웃음) 진짜 우리 할머니가 얘기 하셔.(청중의 말 청취불능) 아 그랬다구 그러는데. 집에 도깨비가 그. [청중 : 얼른 도깨비 이야기 좀(좀) 해서.] 아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심해가지구 그 그랬데.

그전에 할머니가.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장력(답력)이 시셔가지구 서는, 다른 할아버지는 꿈쩍두 못하시더라. 바깥에서 무슨 소리만 나문 나가시지도 못하시는데,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냐?”

구. 막 소리를 지르시구 이렇게 나가시구, 그렇게 독을 다 깨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자 : 도깨비가요?] 애. 그랬다구 그래요. [청중 : 술당을, 술안에다가 집어넣는다데잖아.] 아니 술당 집어넣는 거 모르는데. 막 광에 있는 항아리를 다 막 깨뜨리고 그랬다구. 애.

[청중2 : 이렇게 들판에 돌아다니는 것 보니까 반짝반짝 하더라, 밤에. 아침에 별것두 아니래.] [조사자 : 도깨비를 술안에 집어넣요?] 아니, 술을, 술뚜껑을, 술뚜껑이 술 안으로 들어갈 수 읍는데, 술뚜껑을 갖다가 술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랬다구 그러드라고요. 그전에. [조사자2 : 도깨비가요.] [조사자 :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어요?] 애. 난중에 어떻게 나왔겠쥬 뭐. [청중 : 난중에 인저 떠주加里(토지가리) 끌고 맹기면.] 애? [청중 : 끌고 맹기지 않으면 그 이튿날 저녁에 빼놓는대요.]

그전에는 또 토주도 있었어요. 이렇게 짚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구, 거기다가 쌀 그런 걸 너 놓구선, 이렇게 짚으로 이렇게 덮어놓구서 그것 향시 위했어. 떡을 해다 놓구 절을 하구 그랬다구 해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런 터주가리가 있었어. [조사자 : 그 도깨비가 어떻게 됐데요?] 그런게 그 후엔 몰루죠. 난 도깨비 보진 못허구, 할머니가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지. 우리는 애. [조사자 : 들었다고요.]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저길 몰르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구요. 그런게 심해 가지구 아주 무서웠다구 그러시더라구요. 그런 얘기만 들었지 뭐. 우리는 그런 거를 몰르지.

⑧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1)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1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제보자는 옛날의 민속에 대해 말씀하였다. 그러다 다시 화투 치시는 것을 보시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 조사자가 다른 이야기를 재촉하자 풍속에 대해 말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효에 관한 옛날 얘긴 없어요?] 애? [조사자 : 효, 효성심 같은.] 효 허는 옛날 얘기? [조사자 : 효에 관한 옛날 얘기?] 있지. (반가운 듯한 표정으로) [조사자 : 그것 좀 해주세요](웃음)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서 한국을 칠러구 사신을 보냈데. [조사자 : 사신이요?] 사신이라는게 중국을 여기 여탐해서 내, 중국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서 전해서,

“한국에서 그거를 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은 안 치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면은 한국을 쳐들어 가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예날에는 노인이 70만 되면은 고려장을 지냈대잖아, 고려장을. 그래서 향시 이렇게 산에 갖다가, 산에 갖다가 인

제 이렇게 사신 양반을 갖다 놓구서는 밥을 매(몇) 칠 잡술 거를 해다 놓구, 그러커구서 이 거기 인제 그냥 돌아가시겠끔 그렇게 했었대, 옛 날에. 그런데 그 하루는 할머니가 이렇게 마루에 앉으셨으니깐, 음 할머니,

“어머니! 어머니! 산에 좀 가지자.”

구. 그러니까 어머니는 벌써 생각을 허시구.

“달은 이 마루에 앉아서두 볼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그래두, 어머니!”

인제 그 사람은 인제 몹시 무, 그 마음이 괴롭지만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안 하면 법에 위반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구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솔나무를 ‘뚝 뚝’ 이렇게 꺾어 놓시더라고. 그 등 위에서. 아들 인제 등 위에서 업혀 가시면서 그 솔나무를 뚝뚝 꺾어 놓시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구 가서 앉으면서,

“잘 가는데, 내가 솔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왔다. 그러니깐, 밤이 되니깐 이제 표를 해서 가거라.”

인제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아들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아마 저 소(솔)를 저렇게 표시해서 해놓셨다가 오실라구 그러나부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한테,

“얘! 너는 그 솔나무를 꺾어 논 거를 표준해서 가거라.”

그러는 생각을 하니깐 몹시 괴롭더라고. (손수건을 끄내시면서)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 나는 어머니를 갖다가 내버린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인제 그 후에 한 사흘쯤 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를 찾아서 산엘 가니깐, 어머니 돌아가실 때를 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머두 저기해서,

“어머니! 가지자구. 어머니를 갖다 집에다가 모셔야지, 내가 피로워서 뜨뜻한 방에 잠을 자구 밥을 먹구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깐 내가 음 지하, 마루밑에 지하를 파 놓구 어머니를 거기다가 모실, 모실테니깐 가지자.”

구.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구서는, 업구서는 밤중에 몰래 와서 지하에다 어머니를 갖다 모시구, 날마다 밥을 갖다 드리구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제 한 번은 중국서 사신이 왔는데,

“재루 새끼를 파 와라.”

[조사자 : 재루요?] 잉. ‘재루 새끼를 파 와라’ 그러더라. 그래서 재루 새끼를 팔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런데 그 이가 어머니한테 그 가서 여쭙 봤어.

“어머니! 저렇게 중국사신이 왔는데, 재루 새끼를 파 오라니, 어떻게 하든 좋겠습니까?”

그러니깐. 어머니가 허시는 말씀이,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깐.

“저기 새끼를 소금에다 푹신 재려서, 새끼를 소금에다가, [조사자 : 재놔서.] 예. 소금에다가 이렇게 많이 재놔다가 그거를 말려가지구 불을 때면, 그 새끼 끈 것 같이 고대루 있느니라.”

그 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그래서 인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새끼 끈채루 그대로 있더라, 진짜. 그래서 인제 그거를 갖다가 내 뵈었다잖아. 아 그랬더니, 또 낭중에 또 왔더라. [조사자 : 사신이요?] 예. 또 와서, 또 인제 트집을 하는거야.

“인제 이런 일이 있다. 이거를 당신네서 못힐 것 같으면은 음 또 오겠따구, 쳐들어 오겠다.”

구. 그러니깐 음,

“어떻게, 뭐를 어떻게 허라는 거냐?”

하니까. 구슬이 있는데, 큰 이런 구슬이 있는데, 그 속이 이렇게 똑바루 뚫어져 있으면은 실이로 꼬이기라도 했지만은, 이게 속이 높구 얇구 높구 얇구 그렇데. 그래서 그러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 실을 꼬일 저기가, 그런데,

“어떻게 허느냐?”

하니깐. 그 어머니한테 또 가 얘기 했어.

“어머니! 이러 저러 한 일이 있으니깐 어떻게 하든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렵지 않지.”(웃음)

그래구서,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개미, 왕개미를 잡아다가 명주실을 거 다리에다가 감구 나가는 방향에다가, 거 가는 방향에다가 꿀을 발라 놔라. 그러면은 그 꿀냄새를 맡구 그 개미가 높구 야즌 거를 찾아서 나간다구. 그러하구서는 실이 꼬여질꺼라.”

구. 그래서 저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인제 꼬여지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내놔대지.(기침. 힘이 드신 듯 코를 푸신다) 아이구, 인자 그렇게 여러 번을 저기 하니까는 이제, 음 그 아들을 갖다 놓구,

“무엇을 상을 주랴?”

[조사자 : 왕이요?] 이젠 그렇지.

“무엇을 상을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밋 번씩이나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무엇으로 공을 갚겠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하나두 그런 거 받지 않구요. 우리 어머니를 불법으로 모신 죄가 있으니까 그것만 사해 주신다면은. 음 자기는 바랄 것이 읍다.”

구. 그래서,

“어뜨게 되냐?”

하니깐. 그래서,

“어머니를 몰래 모셨다구. 위법인데 모셨다.”

구. 그렇게 얘길 하니까. 어 그러니까,

“노인이 지혜가 많으니깐,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더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구서, 그담부텀은 노인 고려장이라는 거 없애버렸대.
인제 그거.(웃음)

9] 시아버지 대신 자식을 준 효부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이야기를 마치고 그만 하자는 제보자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부탁하였다. 조사자가 자꾸 해 달라고 자꾸 졸라댔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 생각이 났는지 계속 구술하여 주었다.

(옛날에는)청결이라는 게 있었어. [조사자 : 청결이요?] 인제 그 청소하는 거. 대청소 하는 거. 대청소 하는 게, 음 그거는 오래 전 얘기가 아니지.

그 대청소 하는 게 있어가꾸, 이렇게 그냥 저기 집안을 그냥 다, 그 전에는 이런 장판이 아니구, 음 비죽자리라는 것을 했어. 왕굴, 왕굴이라는 걸 심어가지구 그걸 벗겨서 자리를 만들었어. [조사자 : 왕겨요, 왕겨?] 왕굴이라는게 있었어. 왕굴. 거기 그렇게 자리 만드는 거걸 심어가지구, 그거를 뺏겨 가지고서는 이렇게 돌을 달아서 그거를 만들었어. 이렇게 짜는 거를. [조사자 : 돛자리요?] 애. 그래서 돛자리마냥.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인제 그렇게 청결, 저기가 나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입을실게 두루마기가 읊어서 장엘 못 가서, 시아버지가. 장이 있어. 이렇게 5일만큼, 이렇게 6일만큼 시골에 장이 스는데, 할

아버지가 두루마기가 없기 때문에, 옛날 음 으른은 두루매기를 못 입으면 아주 행세를 못하거든?

그래서 두루매길 입으셔야 할텐데, 영 두루매기가 읊어서 갖구, 으며느리가 가마니 생각해 보니까, ‘음 아버님이 인제 연세가 많아 자시는데 두루매기가 읊어서 장엘 영 못가시니까 음 우리 이 시아버님을 두루매길 해 드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시집을 째 치마를 해 가지고 온 거를, 다 만들어 가지구 두루매기를 해 드렸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게 좋으셔 갖구.

“에이, 오늘은 친구도 만나 보구 장예를 좀 가야 짓다.”

그러구 가서갖구 장엘 가셨는데, 인제 여러 친구가 많아서,
“자네! 오늘 만났으니, 오늘 술이나 한 잔 먹게.”(웃음)

그래 이 낭반이 술을 사드리구 저 사람이 사주기로 해서 취해셨거든. 그런데 고개를 넘어 오시는데, 인제 한 고갯, 두 고갯 넘어 오시는데, 노인네가 그냥 드러누신 거야. [조사자 : 할아버지가요?] 애. 산에 가서.

그래서 드러누셔 갖구, 이낭 집을 못오시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이때나 오실까 저때나 오실까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아 큰일 나서서 얘기를 엮고선 살살 아버지 오시는 방향, 시아버지 오시는 방향을 갔어.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달빛에 보니까 호랭이가 물을 축여다 할아버지 얼굴에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름을 엮질러서 바지가 이마만큼 기름이 묻었대, 바지가. 한대 그 달빛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바지더래. 근데 할아버지는 누워 계시는데, 호랭이가 이렇게 얼굴에다가 자꾸 물칠을 하구하구 그러더래.

술이 깨야 호랭이가 잡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얘기를 엮고 바짝 가 보니까 시아버지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시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얘기 엮고간 얘기를 그냥 신,

“산신령님이 이 얘기를 좀 보호해 달라구. 얘기는 죽으면 또 날 수

가 있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안되니까.”

애기를 산에다가 버리구 그 시아버지, 술취한 시아버지를 업고 왔대요. 그래서 업구 와가지구, 집에 와서 인제 채워 놓구 낫는데, 아침에 인제 시아버지 술국을 끓여다 드린 거야.

“아버님! 속이 쓰리실테니까 술국을 잡수시라.”

구. 그래 끓여다 드리니까,

“애기를 데려 오라.”

구. 자꾸 그러시더래.

“애기도 국 좀 맥이게 데려 오라. 데리 오라.”

구.(웃음) 그래서 애기가 있어야지. 애기는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인제 할아버지 술국을 끓여다 드리구 난 다음에, 인제 끓여다 드리구 갔어, 산에를. [조사자 : 애기 데리려요?] 응. 애기 데리러 갔어. 어떻게 됐나 보게. 죽었든 살었든 가 볼라니까, 호랭이가 이렇게 품고 있더라. 그래가지구 그이가 가니까 슬그머니 어디를 도망 가더라. 근데 애기는 따뜻하더라. 그래서 업고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업고온 다음에, 인제 그 신랑이 너무도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아무 것두 몰랐는데, 그렇게 당신이 아버지를 그렇게 업어 모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면하구 그랬다.”

구. 절을 꾸벅꾸벅 하더라. 그래서 그 천, 저기 인제 그 왜정 때 순사라고 인제 경찰이지 지금 말하든. 경찰이 와서,

“왜 그러느냐? 응. 당신은 어떻게 되서 마누라한테 절을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마누라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절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드래잖아. 그래서 상을 많이 타구 그런 일이 있대.(웃음)

10 효자 정한영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래 마을 앞에 있는 효자비에 대해 묻자 구술하여 준 것이다.

(산소에서) 응 삼 년을 살았다. 그 돌아가실 때 입은 거상 옷을 벗지두 았구. 또 깨끗하게 빨아 입지두 았구.

그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애기가 있다 하면은, 내외 저기해서 애기가 있다 하면은 아주 몹시 저기가 되는 걸루, 불효가 되는 걸루. [조사자 : 아아, 유복자라구 해가지구.] 유복자가 아니라 아주 두건둥이라구. 그 권 쓰는 일일에 애기를 낳다구, 두건둥이라구 이름을 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지.

지금은 먹구 살아야 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세묘만 살면 되겠어? 근까 그런 거는 할 수 없으며, 될 수 없는 일이지. [조사자 : 그게 세묘예요? 세묘.] 응. 세묘. 세묘라구 막을 치구서는 거기 가서 노다지자구, 거기서 먹구, 그렇게 했다. [조사자 : 3년 동안요?] 응? [조사자 : 3년 동안인가?] 3년 동안. [조사자 : 세묘에 대한 다른 얘긴 없어요? 삼 년 동안 살았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붉은 예복을 했잖아. 지금은 양복에다가 이젓만 했지만. 그때는 이렇게 붉은 예복을 다 했다구. 그렇게 하구 그걸 벗지 았구, 그게 나달나달 떨어지도록 입었다구 그것. 그렇게 입구서 그 세묘에 삼 년을 지냈다구.

그전에는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했지. 지금은 부모에게 그런 방 저기가 없잖아. 그치만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를 굉장히 모셨다구.

㉫ 효심에 감동한 이적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뒤

[능원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효자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라고 하고서는 바닥에 누웠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자, 생각이 났는지 일어나며 이야기를 구술하여 주었다.

① 산삼 동자

“저 애를 과서 잡서야 사신다.”

구. 그런 저기가 있었대. [조사자 : 애기를 먹어야 산다구요?] 잉잉. ‘과서 드리면 산다’ 구. 그래가지구 그 이렇게 저기에 오는 거를, 인제 글방이지 옛날에는.

글방에 갔다 오는 아들을 솔에다 잡아 넣구 그렇게 저기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난중에 솔이 어찌 됐나 하구 떠들어 보니까, 애가 아니구 삼이더라, 삼. [조사자 : 아아, 애를 삶았는데 그게 삼이 됐다.] 애, 삼이야.

근데 그 그게 지금은 뭐 별루 저기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효가 지극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기한 걸루다가 그 삼을 동자삼이래. 사람같이 생긴 삼을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구 부모를 그렇게 살렸다는 그런 전설이지. [조사자 : 아, 지성이면 감천이다.] 애. 그런 일이 있어.

② 잉어 구하기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같이 산삼같은 것두 흔허지 않구, 고기같은 것두 흔허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되갓구서는,

“그 생선을 잡으시라.”

고 자꾸 그러시더래. [조사자 : 생선이요?] 응 생선. 그런데 생선이 있어 야지, 읍지. 생선을 살 수도 읍구, 구할 수도 읍는데.(들어온 할머니에게 인사말 생략.) 그랬는데, 그냥, 그냥 빌었어.

그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언데 가서 막 빌었더니, 그 얼음 구멍이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잉어가 나오더래, 빨긴 잉어가. 그래갖구 그거 를 해드려서 사셨다는 그런 전설두 있다구. [조사자 : 사셨다구요?] 응. 과 드려서 사셨다는 그런 전설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얘기가 다 그전에는 부모에게 효하는 얘기가. 전부 그런 거. 에 지금은 효라는게 아주 희박해 가지구, 애 희박해 가지구 부모에게 효가 읍이, 그저 아무렇게나 왜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 노인 지금 다 양로원에게 갖다 모시구, 또 부모를 내버린다는 그런 말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도대체루 부모를 위한 세상이 아닌데, 그게 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거를 아주 잘 생각해.

12 고려장이 없어진 유래(2)

김은식(80, 여) / 능원리 1뒤

[능원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친 후, 새로 오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더니 효도와 관련된 유형이라 생각이 나셨는지 스스로 구술하여 주었다.

할머니를 갖다가 그렇게 버리구 오니까, 아들이 지계를 두더래. 그래서,

“그 지계는 거기다 뒤 뭐하냐?” 하느간,

“요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또 모셔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더래, 그 아들이. [조사자 : 아,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응. 손자지 말하자면. 그 손자가 인제 할머니를 아버지하구 갖다 그렇게

버리구 오니까, ‘그 지계를 뭐하러 거기다 두냐?’ 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계는 똥다 이 다음에 아버지 저기 하시면 모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더라.(웃음)

13 집 지키는 업 구렁이

김은식(80, 여) / 능원리T 1위

[능원1리 노인정 뒷]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서 조사자가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며 사양하였다. 그러다가 구렁이 이야기로 유도하자 해 주신 것이다.

내버리구 그러면은 그 집안에 막 좋지 않았대. [조사자 : 구렁이를요?] 구렁이. 큰 구렁이가 있는 거를 떼다가 죽여 버리던지 하믄. [조사자 : 집안에 있는 구렁이를요?] 응. 그렇게 하믄 원수를 갚구 그랬었대, 옛날에는. [조사자 : 구렁이가요?]

[청중 : 구렁이가 인자 집 지킨다는 구렁이거든. 큰 구렁이가 나오면. 죽으면 인자 집안이 망해.]

14 딸을 챙피하게 만든 친정아버지

김정분(71, 여) / 능원리T 2앞

[능원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능원1리에서 조사를 마치고 능원2리 노인정에 도착하였을 때 10여 명의 할머니가 계셨다. 이곳의 경로당은 능원1리보다 협소하고 어두웠다. 그 중에서 약간 통통하시고 머리가 희끗거리는 제보자가 즐겁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데,

“아휴, 우리 딸은 워디루 시집 보내서 밥을 좀 실컷 먹구, 배 불러게 밥 먹는데루 보낸다.”

구. 딸을 부자집으루 보냈다구. 부자집으루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인자 인제 딸 보낸지 삼 년이 됐는데, 가 보지도 않고 있다가 딸네집에 가야겠는데, 옷이 없는 거여. 갓을. 입구 갈 옷을 읊어 갖구서는, 인저 옆집이 가서 두루매기 입구, 은구. 또 이렇게 그리 옛날에는 갓을 이렇게 갓을 썼거던. 그 갓을 은어서 쓰구. 또 지팽이두 갖구 그래구 인제 딸네집을 갔어요. 딸네집을 갔는데, 딸이 보구서는 아버지가 오니께 반가우니께,

“아유, 아버지 오세요.”

“그래느냐!”

구. 반갑게 하니께. 반갑게 맞아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허는 소리가,

“애, 니 아버지가 이렇게 먼데서 오셨으니께 죽을 썬 드러라.”

그래더라. 그러니께 이 아버지가 생각허기를, ‘집이서두 죽이 진질 머리가 났는데, 내가 여길 딸네집이를 처음 왔는데 이렇게 죽을 썬 주래나.’ 인저 내가 속이루 그래구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인자 참 저녁에 죽을 썬 왔다. 죽 썬기 전에 참 저기 그랬대. 며느, 딸더러,

“애, 죽 썬거든 나 꼭 한 그릇만 다구. 난 죽 잘 안 먹는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죽을 썬서는 인자 참 꼭 한 그릇 딸이 갖다 주더래. 그 한 그릇을 먹으니까 잣죽이래. 잣죽인데 으똥게 맛 있는지, 그를 잡숫구 더 먹구 싶은데, 사둔덜 있구 창피허니께 달래지두 못허구 가만히 인제 그것만 먹구 있는데, 아이 더 먹구 싶어 죽겠더라.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허는 소리가,

“애, 옷방에 저기 다락이 있으니께 거기다 갖다가 죽그릇을 뒤라.”

그래더래요. 그래서 인제 그 소리를 듣구 있다가, 자다가 아버지는 인제 옷방에다가 저기 따루 모셔 났다구.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옷방

이 있구 아랫방이 있구 그랬는데. 그래 인제 ‘죽 그릇을 갖다가 옷방 다락에다 넣어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자다가,

“아이, 내가 저 죽을 가서 어떻게든지 더 먹구 가야겠다.”

이러구. 죽이 먹구 싶어 잠이 안와서는 그 죽을 먹으러 갔대요. 꼬네 먹으러. 꼬내러 그 다락 옷방에 가서 다락을 열구 들어 갔대요. 옷을 다 찾아 입구, 인제 먹구 도망갈라구, 쟁피허니까.

그래 인제 그 죽을 인제 옷방 다락에 가서 그 죽을 가지구 내려올라구 인제 이렇게 움푹이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 다래를 이렇게 갖이, 못이 다락에 못이(못에) 갖이 이렇게(손짓) 걸러갖구, 내려오지를 못 해구 이놈 주걱베기를 놓면은 땅에다 떨어져서 깨져서 업질러지구. 이놈을 그 갖을 쓰구 고개를 이렇게(고개를 들고 채치고 있는 모양)허구 있으니까, 딸이 밝아서 밥을 허러 오는. 밥상을 가질러 옷방으루 오는 데, 아 그냥 아버지가 그러구 있으니까 얼마나 놀랄 꺼여.

“아유 아버님! 이게 웬 일이세요?”

그래니까.

“죽이 먹구 싶어서 이걸 먹구 갈라구 옷을 입구 저기 했더니, 이렇게 걸려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딸이 내려와 쫓아. 내려와 주서는 인제 아버지를 옷방에다가 놓구서는,

“아버지! 여기 계세요.”

그래구서는 시아버지더러,

“아버님! 우리 친아버지가 아버님이, 저기 병환이 나서서 옷방에다가 따루 모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라.”

그래더라. 그래 옷방에다 모셔놓구, 그 죽을 그냉 실컷 잡숫게, 자기 친아버지께,

“실컷 잡수꾸 가시라.”

구. 많이 갖다 드렸대. 많이 갖다 드렸는데, 그 죽을 자꾸 잡수시니까 그

냥, 벨안간 많이 잡수시니께 구두 설사가 나서,(웃음) 구두 설사가 나서 옷에다가 똥을 샜으니 입구 갈 수가 있어야지. 입구 가지를 못 해구, 가지를 못 해구. 인저 이 딸이 또 어떻게, 아버지 빨래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인저 거기 저기 아버지더러,

“아버지가 병환이 나서서 옷방에다가 그냥 계시게 뉘야 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어. 빨개 벗겨서 이불을 이렇게 덮어두리고서는, 그 빨래를 빨아서 췌 꼬매서 드렸으니 얼마나 딸이 고낙스러울 거여. 그래갓구서는 그걸 해드리구서는, 인저 아침을 인저 옷을 다 입혀 놓고 인저, 사빈허고 그 아버지허고 인자, 시아버지 허구 친아버지 허구 인저 겸상을 해다 드렸대요. 겸상을 해서 밥을 드렸는데, 진지를 잡수시면서 보니깐, 그냥 그 주발이 자기는 사발인데, 옛날 그 놋그릇 주발 그 주발이 참 좋더라.

“그냥, 아이 이 주발을 어딴게 갓구 가냐?”

이래구 생각허구서는 인저, 밥을 먹구 그 주발을 어딴게 인저 훔쳐갓구, 그 주발을 어때 가지구 들구 가는데, 갓 속에다 쓰구, 망태 쓰구 가셨었다.(웃음) [청중 : 갓 속에다 집어 넣구 가셨데.] 이 훔쳐가지구 갈래니께. 그래 갓구서는 인저 집으루 올라구 인저, 부르나듯 영감허구 인저 서루 사둔끼리 인사를 해야잖아.

“아버님! 안녕히 가시라.”

구 허구, 사둔 영감두 인저 아이

“사둔님! 안녕히 가시라.”

구. 꿈벽 절을 허는데, 갓이 주발이 툇 떨어져서(웃음) 얼마나 망신스러워. 인저 훔쳐 갔으니. 훔쳐다가 그랬으니께. 그래니께 그냥 두 말두 안허구 냅다 도망을 갔대. 집이루. [조사자 : 애기 잘 하시네요.] 우습쥬. 끝났어.

15 담력이 커 부자된 사람

김정분(71, 여) / 능원리T 2앞

[능원2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 이야기를 마치고 조사자가 이야기를 잘 하신다며 계속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났는지 한 가지만 더 하신다며 구술하여 주었다.

[조사자 :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누가 잘 해나?(두리번 거리심) 그래 인저 그냥 사는데, 어떻게 어렵구 저기 현지 인자 서울루 가면은 잘 산다구, 애덜을 죄 인자 이렇게 옛날에 옷을 뚱구 해구 방공 모자마냥 애덜을 해서 썩워 갖구 서울을 갔대요.

서울을 갔는데, 아 서울 좋아서 갔는데, 집 팔아서 갔는데, 가니께 좋다구 해서 갔는데 잘 데가 없대. 잘 때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냥 길가 가장자리에서 가서 인자 어린애덜, 마누라 이렇게 놓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와 있느냐?”

고. 교통순경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더래. 그래서 인저,

“갈 때가 읊어서 이렇게 있는 거라.”

고. 그랬더니 어떤 사램이,

“당신 그러면 갈 때가, 잘 때가 읊으면은 저기 빈 집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 자라.”

구 그러드래요. 거기 가서 자면은 거기 먹을 것도 있고, 별거별거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라고 그러드래요. 그래 인저 그 집이를 갔대요.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마다 죽는데. 죽는데 그 사람은 장골이 세야 한대. 아 근데 인제 거길 갔대. 갔더니 그냥 구참허는 사람이 그냥 이레구 저기허구 있는데, 무서워서 마누리는 영감뒤루 돌아가면서, 영감더러,

“먼저 가라.”

구 하구. 또 영감은,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이게 뭐지? 뭐지?”

이래구 그냥. 거기만 가면 죽는데.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금이 도섭을 해서 그렇대요. 금이 도섭을 했는데 그냥. [조사자 : 금이 도섭이 뭔대요?] 금이 병각이 되갓구, 그 금이 오래 되면 [청중 : 금이 요술을 부린거지.] 요술을 부린거지. [조사자 : 아아, 예!] 금이 요술 부려갓구 그랬는데.

아 이냥 한쪽에 가 보면 쌀두 있구, 한쪽에 보면 김치두 있구, 그냥 먹을 것두 펍 많은데 거기만 가면 그 도술을 부려서 죽는 거여, 사램이. 아 그런데 이를 어떻게 허면 좋은가 허구 있는데, 그냥 궁리를 허는 거여. ‘저걸 어떻게 허면 꺾어 냉기나’ 허구 궁리를 허구 있다가 그냥,

“내가 죽으나, 저 사람이 죽으나 해 본다.”

구. 그냥 야중에 무서워서 피하 땡기구 그냥 죽을라구 저기 했다가 그냥, 크게 그냥 잔뜩 마음을 먹구, 그냥 그 금을 냅다 뭇루다 후려쳤대 그냥. 쳤더니 그냥 냅다 썩러지더라. 썩러지는데 그게 누렇게 황금이더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팔아서 부자가 되구. 거기서 쌀 있어서 밥 두 잘 해 먹구 부자가 돼서 잘 살았대요.

16 양반집 재산과 바꾼 돌노적

김언년(68, 여) / 능원리 2와

[능원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김정분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옆에서 열심히 듣고 있었던 제보자였다. 그래서 이야기 끝나자마자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해 줄 것을 부탁하자 사양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제보자는 조그마한 체격에 머리가 약간 희끗 희끗 하였다.

옛날에는 옛날에요, 옛날에 옛날에는 왜 빨랑 안해나 주지. 예날에

있는 사람은 양반이었고, 없는 사람은 쌍놈이었어요. 그런데 저 건너 집은 양반 집이고, 여기는 종에 집이구 그런데, 맨날 그 양반 집이가 일허구 인자 품삯을 받아다가 먹구 사는데.

인저 이 종에 집이서 아들을 낳어요. 그런데 인저 그 얘기가 세 살 이 됐거든. 그래 가만히 그 세 살 백이가 보니깐, 맨날 양반의 집에가 종 노릇을 허고 설움을 받거든. 아버지가. 그래 그 세 살 백이가,

“아버지! 어머니! 집안 식구 나가는데루 나갔다 들오올 적마다 들을 가져 오래.”

는거여. 어 나갔다가 집에 들오올 적엔 들을 하나씩 갖다 놔. 안 가져오면 막 심술을 부리구 그냥 땡강을 놔서 꼭 가지구 와야 허. 막 갖다가 인저 막 쌓은 거여. 날마두 갖다가 집안 식구대루. 쌓는데, 땡 돌려 싸으며 쌓은 거여. 종에 집이서.

땡 돌려 돌담을 쌓는데, 양반이 한날 딱 사랑방에서 문을 열어놓구 보니깐, 그 종에 집에서, 거 돌담에서 큰 황개수닭, 빨긴 황개수닭 그 게 그냥 풍질 ‘탁탁’ 치구 울더래요. 그래 그 양반이 건너다 보구.

“아 저놈이 살 때가 됐구나, 인저. 저 황개수닭을 내가 뺏어와야 할 텐데. 저걸 어떻게 해서 저 황개수닭을 뺏어오나.”

연구를 한거여, 인제 양반이. 그래 인제 어느 날 종을 불러다 놓구.

“야, 너 집이 거 돌담허구 우리 쌀가마니 허구 바꾸자.”

이런 거여. 그래.

“쌀을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열 가마허구 바꾸자는 거여. 그래 열 가마두 자게가 갖다 뵈지만은, 임자는 그 세 살 배기가 임자거덩. 세 살 배기가 일곱 살 될 때꺼정 갖다 쌓은 거래요. 그러니 여러 해 쌓지. 그래 인저,

“그저는, 돌담은 제 꺼가 아니구 임자는 따루 있습니다. 하두 어린 게 울구 갖다 싸래서 쌓지, 임자는 어린앵니다. 그래구 아무잡니다.”

그래니까.

“개를 데려다 놓으라.”

구 헌거여. 그래 아버지가 참 그 일곱 살 배기를 데려다가 그 양반 앞에다
떡 놓으니깐, 애길 인저 양반허구 그 애기 일곱 살 배기 허구 애기를 헌거
여.

“아가! 너의 돌담허구 우리 쌀가마 허구 바꾸자.”

옛날엔 양반에 집에 사랑방에 쌀가마가 엄청 쌓였거든. 그래니깐,
“안 됩니다.”

입곱 살 배기가,

“안 됩니다. 우리는 통채산이라 그것 안 됩니다. 돌이 재산입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나오거덩. 그러니까 양반이 더 기가 맥혀서,

“그러믄, 우리 논허구 바꾸자.”

“그래두 안 돼요?”

“우리 그럼, 논 두 자리허구 바꾸자?”

그래두 안 된다는 거여.

“그래 밭허구, 논허구 많이 주게 바꾸자.”

구 해서 인자 바꿨는데. 바꾸는데,

“그러믄 우리가 먼저 가져 가겠습니다. 쌀가마니 아니, 쌀가마 허구
땅허구 먼저 가져갈테니 돌담을 양중 가세요. 가져 가세요.”

그랬커덩,

“그럼, 그렇게 허마.”

허구 인제 바꿨는데, 이 양반이 인 저 어떻게 됐나, 내가 또 잘못했
나. 양반이 그렇게 약속을 허구, 제게가 줄 적에 쌀 한 가만 위에 있는
걸 걷어 놔대요, 맨침. 위에 있는 걸.

“이거는 맨침 가져가면 안 되니깐, 이거 하난 내가 털어 놓으마.”

그래구 한 가만 돌려서 땅에다 놓구,

“쌀가마를 다 가져가라.”

그랜 거여. 인저 사랑방에 있는 걸 다 가져가구. [청중 : 시골에는
먼저 본 거는 집에다 두는 거야.] 그래 인저 쌀가마 다 굴러가구. 논
문서 다 가져가구. 애기가 일곱 살 배기 애가 다 가져간 거여. 그러믄

양반네 집은 빈거여. 집백이 없는 거여. 그런데 인저 종들을 시켜서 그 담을 헐어 가는 거여, 뺨들려 썩 담을. 그런데 그 일곱 살 배기가 나오더니,

“나두 이거 하나 들어 놓겠습니다. 쌀가마두 하나 들어냈으니깐, 둘두 하나 들어 놓겠습니다. 아버지! 나오셔서 이 돌, 큰거를 들어 내놓으세요.”

이러거덩. 무슨 병랑이라 안 들어 내 놔. 약속을 했는데 다. 그러니깐 그 일곱 살 배기 아버지가, 일곱 살 배기 아버지가 큰 돌을 들어 놓으라는 걸 번쩍 들어서 땅에다 놓구,

“빈 돌덜만 가져 가세요.”

그래서 그냥 종을 시켜서 맨날 매칠 저다가 쌓구 보니깐, 아유 이 양반이 보니깐 종에 집 용마루가 황개수닭이 나와서 풍깁길 친구 울더래요. 그래서 종(양반의 잘못)은 거지가 되구. 그 돌 하나가 황개수닭여 바루. 어 그래 그 황개수닭을 꺼내 났으니깐, 담이 없으니깐 올라갈 데가 없으니깐, 지붕에 올라가서 우는 거여.

그래 인저 양반은, [청중 : 그지가 됐지.] 땅과 밭을. 쌀가마가 지상다 들어 내렸으니깐, 빈 돌만 중더러 시켜 갖다가 응 쌓아 놓구 보니깐 그지가 됐더라. 그게 옛날 말이예요. 예, 이상해요?

17 처가집 재산을 빼앗은 사위

김언년(68, 여) / 능원리T 2앞

[능원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조사자가 또다른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자, 생각이 났는지 계속하여 스스로 구술하였다.

아니 이 얘기를 갖다 쓸려는 지는 몰러두 허긴 허지, 내가.

인저 옛날에 살기가 괜찮은데, 딸을 둘을 뒀대요. 그래 사위 둘을

얻은 거여. 하나는 서울서 밥술이나 먹는 사위를 얻구, 하나는 시골서 어려운 집이루 보내구. 그래서 그럼 서울 사위는 잘 살구, 시골 사위는 못 살잖어.

그런데 인저 무슨, 처가집이 무슨 때문에 두 사위가 다 뭘 것 아니 오. 그러면 서울 사위라 돈이 있구 서울서 사니까 미끔하게 허구 오지. 시골 사위는 돈두 없구 시골서 사니까 감장 쪽재비마냥 그지꼴을 허구 온단 말여. 그러믄 장모님이 두 사위를 한 상에다 이렇게 겸상을 해주 구두, 이 서울 사위 서울서 사는 사위헌테,

“어이 여보게! 반찬없어 뭘 어떻게 먹나? 여보게 집이서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인데 뭘 해 먹지.”

이래구. 또 시골 사위헌테는,

“자넨 아무 거나 많이 먹게. [청중 : 옛날 얘기해야.] 배 불르게 먹 어. [청중 : 이거 옛날 얘기 해주는 거지.] 아무 거나 먹어.”

그랬커덩 참.(들어오는 사람과 대화 생략) 그래 인저 그렇게 장모님이 줄창 해 나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깐 인간 차별을 속상 하거덩. 한 상에다 놓구 그렇게 인간 차별허니 속상허지, 시골 사위가. 그래 한날 집에 가서 하루 저녁내에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서든지 해서 이걸 좀 어떻게 밀, 미는 방도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인저 머리에서 짜서 나온 거여, 그 방도가. 그래 인저 저기 어디 이웃 집에 가서 인자 빛을 은은 거여. 어려운 사위가. 빛을 은어다가 옷을 한 벌 사 입구, 강아지를 쟈그만 발발이를 하나 샀던가 봐요. 장날 나가서. 그래 그 발발이를 사 가지구서 와서 굶긴거여, 발발이를.

굶겨가지구서는 인저 노랑물을 멕이구 나서, 인저 감장물을 풀어 멕이구. 또 거 다음에 [청중 : 쌀 멕이지.] 쌀 멕이구. 그렇게 채곡채곡 멕여 놓은 거여. 그래 인저 아이 창호지, 하얀 창호지를 갖다 놓구,

“금 놓라.”

허구. 배때기를 짹 쥐니깐 노랑물을 짚끔 싸거덩. 또,

“똥 뉘라.”

그래니깐. 꼭 짜니깐 껌정물을 찢끔 싸. 조금 있다가,

“쌀 뉘라.”

그리고 꼭 짜니깐 쌀이 비질비질 나왔단 말여. 인저 그 다음에는 신이 나는 거여. 어려운 집 사위가. 신이 나 죽겠지. 그래 인저 여자보구,

“우리두 인저 살게 됐으니깐, 당신 저기 누구네 집이 가쁜 빛을 얼마 쫄테니깐 그 집에 가서 무슨 수단을 쓰던지 빛을 좀 은어 오라.”

그랬거덩. 그래 인저 이 닥네가 가서 참 그 집이가 인저 구구사정을 해서 빛을 얻어다가, 닥내가 쫄쫄 흘리게 입구 뉘 신랑두 입구 인저, 아이 그래구선 친정에 간 거여, 두 내우가. 그래니 인저 장인 어른이 깜짝 놀랜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허구.

“아이. 여보게! 자네 참 고마우네. 자네가 이렇게 내 앞에 떨쩍하게 참 이렇게 행복한 생활허는 걸 봐 줘서 참 고마우네.”

고래구서는. 딸보구 물어본거지.

“애! 어떻게 돼서 너희가 이렇게 부자가 됐니?”

그러니깐.

“아유! 애비더러 물어보세요.”

그랬나봐. 인저 사위보구.

“여보게!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별안간 됐나?”

그러니까.

“아이 말씀 마세요. 장인 어른! 우리두 우리두 살 때가 돼니깐 이런 좋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

이래믄서 그런 얘기를 헛거여. 인자 강아지 얘기. 그러니깐 장인어른이,

“그래!”

그리구 보내 놓구. 그날 저녁이 생각을 허니깐 큰일 났거덩. 자기네 보덤 딸이 부자가 된 것 같아서. 그래 인저 밤새도록 생각을 헛거여, 장인이 또. 이 사위를 갖다 주물러 거려서 피가지구 강아지를 데려 와

야 것거덩. 그래 이 사위를 그 이튿날 불른거여. 딱 잘 입구선 떡 장인 허구 마주 앉아 이제 상대를 허는거지.

“여보게! 거 강아지 어디서 샀나?”

“아이 장인어른은! 일러드려두 못 사십니다. 우리는 운이 다서 살 때가 돼서 이 강아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믈서. 그렇게 얘기를 아주 허덥게 했거덩. 어이 장인 홀리도록 허는거여. 사위가. 그래서 인저 장인이,

“그럼, 가게.”

그래구 또 밤을 샌거여. 또 생각을 짜낸 거여. ‘이거를 내가 쌀을, 쌀을 땀 가마 주구 바꾸던가, 논을 한 자리 주구 바꾸던가 해야지. 이 거 안 되겠구나!’ 이러구 생각을 했는데. 사위를 떡 불러다 칠첩반상을 해서 늘어지게 해서 두 겸상을 해서, 두 내우를 주구는 다 먹구 나니깐,

“여보게! 쌀을 몇 가마허구 강아지허구 바꾸세.”

그런거여.

“아유, 안 됩니다. 장인 어른! 우린 총 재산이예요 그게. 그거 하나만 가지구 우리는 놀구 먹구 우리 자식 때꺼정 아주 누구 부럽지 않게 살텐데, 왜 그걸 쌀 몇 가마허구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러거덩. 그래서 인저 장인어른이 안 되겠거덩.

“가 자게.”

그러구 보냈다가, 그 이튿날 또 불러다가 인저 반찬을 해다가 잔뜩 먹여 놓고는,

“여보게! 우리 땅을 줄테니깐, 저기 어디 그물 논을 줄테니깐 바꾸세.”

“안 됩니다.”

“그럼 개똥 발허구 그물 논을 허구 다 줄테니 바꾸세.”

그래두 안 되다구 해. 인저,

“재산 남은 것을 다 줄테니 바꾸세.”

그랬커덩.

“그래. 그럼 그렇게 허겠습니까. 강아지를 천천히 가져 가세요. 재산을 내가 먼저 가져 갈테니.”

거 좋거덩 장인이. 농사 안 저도 먹구 사니깐.

“그럼, 재산을 다 가져가게. 쌀가마구 뭐구 쌀가마구 뭐구 다 가져가게.”

땅문서두 뭐구 다 내주구 쌀가마 다 집어간 뒤에, 가서 인저 장인이 강아지를 가지고 온 거여. 그래서 인제,

“장인! 흔쳐 가지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서 해야지 안 됩니다.”

그랬커덩. 그래 인저 사위가 가지구와서 인저 바꾸재는 시간에 그렇게 맥여 낫겠쥬? 인저 노랑물, 금물허구 까망물 허구 채곡채곡 맥여 농구. 하얀 쌀을 잔뜩 맥여서 배를 불르게 해 농구서는, 장인 어른 장인네 집이 가지구 가서,

“장인 어른! 여기다 하얀 종이를 갖다 깔으라.”

구. 옛날에 문 발르는 창호지가 있어요. 그거 젖어두 안 찢어지거든. 그래 그걸 두어 장 깔구 사위가 앉아서,

“너, 금 도라.”

그래구 잡아댕기른 노랑물을 싸거덩. 또 까망물,

“똥 뉘라.”

그래구 꼭 만지른 까망물 나오구.

“쌀 뉘라.”

그러니깐 하얀 쌀이 똥구녁으로 비질비질 막 나온 거여. 그래 인저,

“장인 어른! 이만하믄 됐쥬?”

그러니깐,

“됐다. 가라.”

그랬거덩. 그래 강아지를 거기다 농구 왔는데, 그렇게 먹여야지, 굶겨가지구. 맥여야 나오지. 장인 어른이 그걸 헐 줄 아나. 그냥 놔두구 왔는데 그 이튿날 장인이 와서,

“아이, 이눔아!”

사위보고.

“이거 암만 짜두 안 나오니 이걸 어떻게 허느냐구. 이 도둑놈아! 이 놈아! 어떡 허느냐?”

구. 막 야단치거덩 장인어른이.

“장인 어른이! 나 내가 헐 적엔 성헌 강아지를 잘 했는데, 장인 어른이 잘못 해서 병이 났으니, 장인 어른 뭐 어떻습니까. 이왕 약속은 약속이구. 강아지는 장인 어른이 재주가 읊어 병 낸거니깐 헐 수 없습니다. 난 그 강아지 안 맡아요.”

내던졌거든. 그냥 내던져서 저 처가집이다. 그러니깐 처가집 재산을 뺏어다 잘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옛날 얘기 한 토막이에요. 끝났습니다.

18 방귀 못 낚 며느리(1)

김정분(71, 여) / 능원리 2앞

[능원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전에 들었던 <방구 잘귀는 처녀>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노래지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노라지나 노라지나’ 허구 인저 걱정들을 허고 있었대. 식구들이 걱정을 허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래지구 이렇게 말느냐?”

그러니까,

“아버님! 방귀를 못 꺼서 그러합니다.”

그래더라.

“그래, 방구를 실컷 꺼라.”

그러니까. 방귀를 꾸면은 아버님이 뭐, [청중 : 방문 잡아라. 창문

잡아라.) 응. 아녀.

“방귀를 끼면은 아버님은 그 말 내외, 거 저기 그 저기 기둥 있잖어. [칭중 : 상기둥 말여.] 말 내외 상기둥 큰거 그거를 붙들구 계시구. 어머니는 솔가마를 쥐구 계시라.”

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자 방귀를 인자 끼기 시작했는데, 방귀를 어떻게 잘 끼는지 그렇게 허는데.(웃음) 시아버지는 그 기둥을 붙들구 ‘뽕뽕 뽕뽕’ 돌구, 시어머니는 가마솔을 때갓구 뽕뽕뽕뽕 돌구.

19 방귀 못 낀 며느리(2)

김정분(71, 여) / 능원리T 2앞

[능원2리 노인정] 박종수, 강현모, 김종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생각이 났는지 곧바로 이어서 계속 구술하였다.

또 가다가 또 인저 그런 탄 얘기구. 또 탄 얘긴가. 방귀가 신랑허구 색시허구 친정 처가집을 가는데, 그 색시가 허는 소리가 신랑더러,

“아이, 여기 저기 저 배를 하나 따 먹구 싶은데, 저 배를 좀 어떻게 따 먹겠느냐?”

신랑더러 그러니께.

“그걸 무슨 수루 따 먹느냐?”

구 그래더래.

“내가 따올게 절구쟁이 하나만 얻어 오라.”

고 허드래. 그래 절구쟁이를 얻어다 쫓더니,

“그걸 어떻게 헐라구 그래느냐?”

허니께.

“가만히 구경만 허구 있으라.”

구 그래.(웃음) 그걸 뒤에다 대구 방귀를 끼니꺼,(웃음) 절구쟁이가 배나

무에 가서 배를 푹 띠어서 부러뜨려서 떨어놓더라.(웃음) 아 그래, 그래 가지구 배를 먹었나 갖구 왔나 그래구 말았대.

20 양반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중

김언년(68, 여) / 능원리T 2앞

[능원2리 노인정] 박중수, 강현도, 김중삼, 박범용, 양광모 조사 (1996. 6. 1)

옆에 있던 제보자가 앞의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마치자 곧바로 이어서 구술하여 준 것이다.

옛날에, 옛날에 양반집 쌍집이 사는데요. 양반집이 가서 그냥 맨날 머슴살이만 해주구 먹구 사는데, 저녁두 못 먹었어. 양반집두 어려워 서 인저 중두 저녁을 굶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눈이 오는 거예요. 내다 보니깐 기가 막히거덩. 그냥 애기덜을, 종이 애기덜을 죽 있는데 바깥을 내다 보니깐 눈이 펄떡펄떡 오구. 애기덜은 굶겨 있구. 내일 아침거리두 없는 거여. 인저 아침거리두.

그래 인저 가만히 짚을 축여가지구 가서 새끼를 꼬며 생각을 허니까 안 되거드래요. 그래 짚을 나가서 많이 몇 단을 가지구 동아발을 틀은 거여. 동아발을 트는데 대가리는 이렇게(손짓) 굵다라게 틀고. [조사자 : 동아발요?] 응. [청중 : 새끼.] 새끼 굵게 트는게, 이렇게 굵게 트는 거. 대가리는 이만허게 허구, 몸뎡이는 요만허게 해서는 그냥 길게 틀어서, 쫑지는 그냥 째매서 지푸라기루 났두구.

그래서는 상전에 집이 양반네 집이 광에, 광에다가 그냥 쑥 띠밀었다가 잡아 뎡겨서 자기네 집이루 끌어온 거여. 동아발을. 그래서 불을 뎡 거여. 그날 저녁이루 불을 때구는 한나절꺼정 안 일어난 거여. 종이.

그런데 상전이 일어나 보니깐, 아이 해가 뜨드록 굶어서래두, 종이

와 눈을 쏘어야 하는데 눈을 안 썰로 오거덩. 그래서 상전이 이렇게 내다보니까 해는 빨갛게 떴는데 안 오구.

이렇게 보니까 재계네 광에서 업이 나가가지구 종에 집이루 들어 갔거덩. 구랭이 업이 나와서. 상전에 집이 광에서 구랭이 업이 나와서 종에 집이루 들어간 거여. 확실히 그냥. 동아발을 끌었으니깐, [청중 : 오늘 학생들 수지 맞았어. 옛날 얘기 그냥 듣구.] 그게 나왔지. 그래 인저 상전이 전에 같음, ‘이놈! 눈 썰어라.’ 그럴텐데 와서,

“여보게! 여보게!”

불드더래. 벌써 그만해두. 어 그거 자국을 보구. 그래 인저,
“네!”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눈 썰러갈건데 그만 잠이 깜박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눈은 무슨 눈을, 자네 우리집이 건너오게. 쌀낭 갖다 엇저녁 두 굶었을 것 아녀. 쌀 좀 많이 못 쥐두 죄금 줄테니까 갖다가 아침 애덜 해 주구, 해 퍼지른 쓸던가 말던가 하게.”

그래드래요. 그래 인저 허래는대루 해야지, 양반이 허래니가. 그래 인저 자루를 들구 갔는데, 쌀을 한 댓 말 주더래. 댓 말을 두구, 종두 굶구 상전두 굶구 다 굶은 거여, 그날 저녁에 뒹다 먹을라구. 그래 인저 가 쌀을 댓 말 주서 가지구 와서 그걸, 참 얼마나 좋았겠수? 좋아서 인자 아침을 끓여 주구. 인저 상전에 집이 가 키를 들구 쓸을라니깐, 상전이 못 쓸게 허는 거여.

“아이 여보게! 눈을 못 쓸데래두 몸조심하구 집이루 가게. 인자 해 퍼지른 녹겠지.”

그래구 상전이 허드래. 그리 허래는 대루 허는거여 그냥. 집이 와 떡 드러누서 발장구를 치구 있는데, 인저 한 점심 때쯤 넘으니깐, 상전이 또 저덕저덕 제계 발루 걸어 온거여, 종에 집에. 걸어 와서.

“여보게! 여보게!”

“네!”

그래니까.

“여보게! 우리집이 와서 쌀 한 가마 갖다가, 한 가마 갖다가 떡하구, 한 가마 갖다가 술 담그게. 그래서 동네 사람두 맥이구, 자네 여태꺼정 자네 친구덜 대접두 못했지 않은가?”

그래믄서 그러드래. 얼마나 좋아요. 가서 쌀 두 가마니를 저다가, 한 가마니는 물에다 술 담그구, 한 가마니는 떡살 담그구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풀어서 인저 전엔 절구질을 했거덩. 떡방아를 낚다 빵구 해가지구 떡을 해가지구, 인저 술을 한 가마 담근 거 해고 해서 인저 동네 사람들 죄 불러 맥이구 그냥 그 상전두,

“오라.”

구. 허니깐 왔더래요. 그냥 네 쪽자리에다가 쪽다리가 네 개가 있어 시루가. 옛날에는 이렇게 여럿이 드는게, 무거운 거. 거기다가 하나를 찌서는 갖다 놓구는 막걸리를 이런 양푼이루 하나를 부어 놓구 인자 비는 거여. 종이.

“이 업이 오셨으면 우리집을 도와 달라.”

구 그래구. 막 빌구 절을 허는 거여. 상전이 보니깐 눈이 뒤집이지. 저희 업이 왔는데. 그래 인저 그렇게 허구서는 동네 사람을 죄 풀어 맥이구 그러는데, 상전에 집이서는 맨날 앓어 우는 거여.

이 업이 나가지두 앓았는데, 나간 줄 알구 업을 떡두 안 해 주구, 술 두 안 해 주구. 맨날 울구 앓았으니깐 이 업이 종에 집은 맨날 떡을 해 놓구,

“업 오라.”

구. 그냥 글루 대구 절을 허구, 술두 부어 놓구, 떡을 해 놓구 그래니깐 업이 기냥 술술, [청중 : 종이 집이루 가는 거.] 웃구 그냥 풍부헌 집이 종에 집이루 가버리더래. 그래 사람은 맨날 웃어야 허구, 울면 안 된대는 게 그런 데서 다 흘러나온 말이에요.

그래 또 한 토막 했으니 어떻게.(웃음) [조사자 : 감사합니다.] 짝 막허게.

여

백

8. 오산리

1) 마을개관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오산리는 병자호란 때의 순절한 오달계의 묘소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교통이 불편해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사자들이 오산리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 두 대에 많은 할아버지들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중앙에 위치한 해주 오씨의 사당에서 행사가 있었다 한다. 사대부들의 본거지로 유학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오산리 마을은 국도를 경계로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동을 조사하였다. 건너편의 노인정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본동의 노인정만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았다. 노인들도 낮에는 일터에 나가고, 4시나 5쯤 되어야 노인정에 나와 쉬는다고 하였다. 나이든 어른이 많지 않다고 하셨지만, 12명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오시고 여자도 몇 명 있었다. 이 마을의 노인정은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다.

큰 정자나무를 가운데 두고 주변에 주택이 위치에 있었으나, 이 마을의 주택은 거의 옛날집이었다. 마을에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으나, 눈에 띄게 현대식으로 개량된 집들은 보이지 않았다. 보통 시골 마을 중앙 흐르는 냇가는 볼 수 없고, 조그만 도랑만 있었다. 마을의 안쪽에는 비닐하우스에 많은 꽃들을 재배하고 있어 마치 화훼단지와 같았다. 이 동네에는 천주교인들의 공원 묘지가 조성되어 있어, 꽃이 필요한 방문객들을 위한 것이라 한다. 이곳의 주 생산은 농사다. 마을 전체가 논과 밭이었다. 발전이 안된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을 갖고 있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시기가 그러하듯 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에 한참이었다. 그리하여 조사자들은 농사일에 분주하신 농민들께 과연 어떻게 조사에 협조를 요청

할지 막막 했었다. 한 농부를 만나서 이야기 잘하는 노인을 찾자, 고개를 저으며 농사철이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도 사람들이 없어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에 잠시나마 의기소침 해졌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리고 마을로 들어갔다.

2) 제보자

(1) 김용준(80, 남)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김용준 할아버지는 댁으로 찾아가서 만나뵙게 되었다. 댁에 갔을 때, 할아버지는 문간방에서 혼자서 누워 더운 날씨를 식히고 있었다. 방안에 들어섰을 때, 여느 노인의 방과 다를 바 없이 초라해 보였다. 흰티에 바지를 입은 할아버지는 머리가 백발이셨고, 윗니와 아랫니가 거의 빠진 상태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보이셨다. 방안에는 성모마리아 상과 촛대가 놓여 있었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말하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꺼려하시다가 나중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제보자는 아들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딸자식과 함께 사셨다. 나이로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이 고향으로, 오산리에서 사신 것도 약 20여 년이 된다고 하니, 회갑 전부터 정착하였다. 제보자는 천주교 신자로 부인이 10여 년전 세상을 떠났고, 농사에서 손을 놓은 후로 간단한 집안 일을 소일거리 삼아 시간을 보냈다. 제보자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았고, 국민학교를 나온 듯 하였다. 구술한 자료는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 같았다.

제공자료 : 설화 1~4.

(2) 신옥자(53, 여)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제보자는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손자로 보이는 한 아이와 함께 쉬고 계셨다. 조사자들이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부탁하였더니 휴식 시간에 방해받는 것을 짜증스러워 하고,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하였다. 조사자들이

양해를 구하여 협조를 부탁하자 조금씩 말을 시작하셨다. 제보자는 충남 공주가 고향으로 이곳에 시집을 오신 후로 계속 살아왔다고 하셨다. 제보자는 오산리에 관한 설화를 알지 못하였고, 고향에서 어린 시절에 본 무당굿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 주었다. 자녀는 4남매로 큰아들은 서울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작은 아들은 정비업소를 경영하며, 미혼인 두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몇 년 전에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현재 농사일과 가축을 기르고 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고, 발음은 정확하고 목소리는 경쾌하였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되자 구술에 정성을 다하여 주셨다.

제공자료 : 설화 5.

3) 설화

① 삼복에 얼음 어는 한양지

김용준(80, 남) / 오산리T 1와

[오산리 본동]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조사자들은 노인정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어 이야기를 잘 하신다는 제보자를 찾았다. 제보자를 찾아 이야기를 요청하자,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옛날에 직접 들었던 이야기라며 시작하셨다.

내가 거 있었는데 거 그 저 금수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금수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한양, 한양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름이 한양진데.

근데 그 바짜치기로 여름에 더워서 삼복지경이든 그 산 산에서 얼음이 나거든요, 그 돌만 뜯쭈시면 얼음이 나오고 그래. 또 겨울에는 겨울에 또 소한 대한 쫘에는 거서, 후 후(훈)기가 나와서, 거 전부 아무리 쩌통 추운날은 거기 가문 춥지 않고, 그 그 더운 김이 나오고. 그 한양지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전에 거게 그 정원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이 4형제고 딸이 형제

육남매를 키워가주구, 그 아들이 그 아들 딸이 다 죽고, 그 만득으로 하나 늦게 늦게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두 다섯 살 먹어서 그 죽은 걸 가주구. 그 인제 그걸 어린애를 해서, 죽은 거를.

그이께 자기 정신이 아니지. 환 환전이 되서, 등어리다가 업고서는 돌아댱기다가, 머 굵기도 굵고, 머 뭇 낭구무께 낭구 열매라도 따 묵고 이래 돌아댱기다가, 그께 그 한양지라는데 거게 가서, 아매 한 달포도, 그래 거 멀 좀 먹으며 굵므민 돌아댱기다 보이께로, 아가 다 죽, 다 살이 옹고 뼈(뼈)만 남은 걸 질머지고 갔어.

그래 거서, 그 자리에서 거따(거기에다) 묻고서는, 토막집을 이렇게 낭글(나무를) 미서루(베어서는) 이렇게, 사뭇 이렇게 낭구로 토막집을 해서, 흙을 조금 그 물이 있어서 이겨가주곤, 고 틈 나오는 데는 막고. 그래고선 그거 다 어떻게 자기 뜻대로 그 구들을 놓고 그 불을 때고, 거기가.

우리가 그 굴, 그 핵교, 내가 거 거 그 때가 일정 댜데, 핵교 소사로 내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전달부를 소사라고 했다고. 그 소사로 있을 쩍에 7월달에 그 풀, 이상한 풀거튼 거 뜯어서, 그 선상이 그 실습 뭐라 해서, 그래 그런 걸 구한다고, 그 뜯을라고 그 인제 밥을 싸가주구 거게를 샀는데.

거 참 그 날이 저물어서 어데 때이 잘 때가 옹어서, 한동을 하기가 됐는데, 그 그런 집을 만나서는, 그 정원무를 만나서, [조사자 : 정원 구요?] 정운무. 그래 만나가지곤 거게서 밤을 지내는데, 그래 거 인제 거 얼음 나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는, 그때가 가 근방에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래가주구 그 노인말을 듣고서는 거길 가니까, 도서인이 요그만큼 한게 쪽 깔렸는데, 둘 그때가 날이 더웠어. 그런데, 날이 된통(매우) 더우만 거죽까짐 나오구, 쪼끔만 들 더우만 쪼끔 쪼끔 파야 나오구. 얼음이 그 지경이라구. [조사자 : 땅속에서요?] 그런 이 얘길 해서, 그래 그걸 우리가 거 발견을 해 가지구, 그래 거,

“한양지에 거기가 얼음 난다.”

해서 그게 또 어떻게 돼서 말이 전달이 돼서,

“복을 삼복을 넣기는데, 그 얼음을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

해서. 삼복지경에는 거 아주 거 지끔은 거 아주 질을 딱졌어요, 그 질을. 질을 딱고서는 그래 땡졌는데, 삼복지경엔 굉장히 얼음 먹으러 많이 땡기는데.

그거 우리가 발견을 했어, 발견을 해 가지구 그곳 지끔은 그렇게 거 거게 크게 번성을 해가지구르. 삼복지경에는 얼음 먹으러 땡기구.

그래서 정운무라는 사람 얘길 들으잉. 그렇게 참혹하고, 그르 그래, 그 사람이 일생을 사는데 그렇게 참혹할 수가 없더구먼. 그래가주군 그 하룻밤 그래 그 자구, 그래 집에 와가주구 그 적성, 그 매기 국민핵, 그 매기국민핵교라고 이렇게 핵교 이름이 그런데. [조사자 : 매기요?] 매기. 그래가지구는 그 핵교서 쪼끔 뭐 어뜨케 주글(죽을) 꿔여, 얘기를 하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핵교 자본하고 해서 그 그 그 노인 자본을 조금 갖다 준 일이 있다구.

그래서 그 영감이 죽었지. 벌써 거서 죽었는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거서 그양, 기양 고만 그 자리 되고 묻었는지 어떻게 되서 죽었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나 본 역사가 있는데.

② 호랑이가 갖어다 준 선물

김용준(80, 남) / 오산리T 1앞

[오산리 본동]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앞의 설화를 마치고, 생각이 나셨는지 요청도 하기 전에 구술하여 주었다. 이야기는 시아버지 대신에 아들을 호랑이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로 장황한 서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자 : 적성요?] 그거 단양 내 살다운 데가 이름이 적성인데, 적

성면인데 거게 최씨라는 분이, 최씨라는 분이 불쌍하게 커, 커가주구 결혼을 해가주구 아들을 하나를 낳는데, 낳고서는 그 안에서 고만, 안에서 고만, 그저 사망을 했단 그 말이야.

안에서 사망을 했는데, (조사자에게 사오지 말라고 함) 그래 가지구는 그 어린애를, 다시 장개 갈라니 아무 것도 읊는 집에 오도 안하고, 그래가 아를 키워서 그 할아버지가, 그 그 아들이 열아홉 살 먹어서 장개를 갔다고. 장개!

장꺄 잤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주 승악한 산골로, 산골에 가서 낭글 비서 솥을 꾸가주구, 수꺼명을 꾸서 솥장사를 해서 인제, 자기 아버지는 그 때 뭐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하고. 그래 그 인제 솥장사를 해서 그래 인제 먹는데.

그이 참 손자가 하나가 낳어. 그래 가주구는 좋아서 워쩔 줄을 모르는데, 하루는 겨울인데 눈이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솥을 미칠(몇 일), 미칠 못 꾸가주군 참 뭐 좀 곤란이 되는데. 이 노인네가 술을 그렇게 잘 먹으니까, 그 미누리가 효부래서, 그때 술을 맘대로 못해 먹었잖어요. 그 쇠시 무서워서. [조사자 : 쌀로 동동주 같은 거요?] 응.

그래가주구 못 해먹게 하이께네, 부뚜막 솥 있는 테를 어떻게 파고서는 거그다 요만한 항아리 둘을 묻어 놓고, 가마이 해서 이짜 항아리에다 술을 여서 대만, 고거 인제 한 잔씩 식후에 먹을 동안에 이짜에 금방해 연기(계속) 또 대문, 아주 노인네를 장복을 씌이다시피 그랬다고.

그랬는데 한 분(한 번) 고만 솥을, 날이 꺄어서 못하잉게로, 쌀이 읊어서 그걸 못 해였어. 술이, 술이 떨어졌다 이말이야. 떨어졌는데 이 노인네가 하루는, 그 고개 너머에 아룻마 한 이십 리 되는 동네를 내려가면, 자기 사촌 누이께로 이 사람한테는 고모되지, 고모되는 사람이 거게 사촌누이가 있었어.

“야야 아가! 내 오늘 저 널 고모한테 잠깐 좀 놀러갔다 오는 오겠다. 왔으믄 안되겠나?”

히. 그 하매 미느리 마음에 아 약주를 미칠 못 드렀지만 술이 잡숫

고 싶어 그런가 보다고.

“아부지! 갔다가, 갔다가 갔다 오시요.”

갔다오는데. 그 뉘편네는 솥을 그걸 솥을 꾸기주구 불땡거리러, 솥을 꺼내로 가서 그날 적(저녁)에 안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마약에 혹시 약주를 잡숫든지 그래거든 오지말고 고모네 집에 주무시고 와요.”

그랬거든.

“아이 야야! 응 우리 언내길 보고 싶어 내가 우땡키 거길 자나. 도대체 너 혼잘 놔두고. 밤중이래도 온다.”

이래고선 갔는데. 아 그 미칠 술을 안먹다가 고만 그거 그 누이가, 그거 동상이 ‘모처럼 왔다’고 좋은 웃국(술의 일종)을 몇 잔을 먹었던 말이야. 자꾸 권해서니. 술이 까빠 취했어, 고만. 그래 그 잘 줄 알고서 그랬는데,

“아, 간다.”

는구만, 집에. 그래 술 취한 사람이. 아 그러이 못 가게 해도. 자꾸,

“간다고. 내 손자도 거 하나 있고, 그 얘기를 산골에 놔두고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있소. 아이구 내가 그 잠깐 누이를 보로 와서 만났으면 고만이지, 가야 댄다.”

고. 아 붙잡다 못해서 고만,

“그래, 혼자 가겠느냐?” 니께

“염려 마라고. 간다.”

고. 오다가 그 재말랑을 넘어오는데, 그 시신에 모이가 있는데 모이, 모이 이 잔대미가 있는데, 그 잔대미에 털썩 앉아서, 쪼끔 앉아 쉬 간다고 마음에, 그런기 술에 취해서 고만 이래 드러누서 잠이 들었다고.

잠이 들었는데, 거기 역사는 보만 거짓말은 아닐텐데, 똑 거기 고지 안 들릴 일도 없고, 범이 큰 놈이 하나 와서, 이전부터 말하기를 그,

“범은 술 취한 사람, 술 깨면 몰래도 술 취한 사람은 안 건드린데.”

안 건드린데. 그런 말을 있었어. [조사자 : 저희들도 들었어요.] 그

래서 아 그르 그 옆에 앉아서 꿩대기다 물을 찍어 거주구는, 와가주구는 얼굴에다가 자꾸 이래 툭툭 털고 이랬는데, 아 이 미누리가 자기 시 아버이를 배래다 볼 때, 암만 암만 바래이 와야지.

“이 이 양반이 자고 오던 안 한다. 아버님이 무조건 온다는 뭐 틀림 없는데, 여지껏 뭐 자고 오던 안 하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고 어린애를 업고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

고. 그 어린애를 해 업고, 짚을 요마춤 자꾸 새끼를 가늘게 짜서 도입을 묶어가지고 불을 지르고. 지금은 후라쉬라도 있지만, 그전에 끄드메기 지르면 불이 이래 타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냥 ‘후르르’ 타는 게 아니고, 새끼로 돌렸으니께 마디게 타고, 그 한참 가요.

그래가지고 질게 해 가지고는 이놈을 해서 쳐들고, 어린애를 업고 그 재를 넘어 갔어. 재를 넘었어. 재를 넘는다, 아이 모이, 모이 뺨전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나 드러누웠는데, 아이 깜짝 놀래서 아버님이 아니가 허고서 가 뿔 가는데, 그 옆에 범이 앉았거든. 큰 범이.

그 생각시히고 어린애는, 어린애는 무서울게 없지. 범이 앉어 있는데 놀래가지고는, 아이 이렇게 범이 이렇게, 이려고 앉어서 사람이 가니까, 물그러미 보고 앉았던 말이여. 아니 색시, 그 젊은 여자가,

“우리 아버님이다. 아버님인께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으니 젊잖으신 범은 몸을 감추고 어디로 좀 피해줄 수 없는가?”

소리 소리를 한 질러도, 아니 이 들은, 들은 체도 안 해.(일동 웃음) 들은 체도 안하고 앉았어.

“니가 사람을, 그 그 아번님 주무시는데, 공맹이 물을 축여가지고 이렇게 체하는 것은 아버님을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해롭게 해는 그런 정심으로 너 그러는 거냐? 그러하면 너, 대신 밥을 줄테니까, 가져가서 가지고 가서 그 자리를 비우다고.”

그러고서, [조사자 : 애기?] 등어리 업었던 애를, 그것 보통 애기, 보통 일 아니여. 알겠어요. 그 업던 애기를 끌어서 이렇게 밀어서 넘겨다 주었는데, 그 어린애를 잔다 말이여. 자는 걸 이래 밀어 주었는데,

이 이놈이 보니 뜨섬뜨섬 이놈이 옷을 이래 물고, 어린애 그것을 물고, 아이 그만 꼬리 감추고 그만 내뻘어. 그래 아버지 흔들어 가지고 집에 왔어. 그래 집이를 와서, 아 그러니께 술이 깨이지. 날을 춥고 고기서 좀 자고 뭐 이랬으니께.

“애기 어디 가느냐? 애기, 애기 데리고. 애기 다고. 애기 다고.”

“애기를 누굴 좀 봐 달라고 쫓는데, 내일 아침에 와요.”

아 그랬어. 자꾸 애기를 말을 하는 거야.

“그 애기 내일, 내일 아침에 온다고. 주무시라고. 주무시라.”

고 하니까. 그러니께 이제 자는데. 그래 새벽에 요 노인네를 술국을 좀 끓일까 하고서 날도 안 새서 불을 부엌에 나가서, 지끔이야 그 좋은가 곤로에 뭐 끓여 오면 되는데 뭐, 국을 끓일라고 하는데 남편네가 왔어. 숯숯을 다 끄내고.

“아이 뭐 불을 한 밤중에,”

“이리 오라.”

고. 그 불 때는 곳을 들어가니, 아이 눈이 뚱뚱 붓고, 그 밤밤새로 어린애를 그 호랭이 주었으니, 그 저것 뭐 기가 맥히지.

“얼굴이, 눈이 그리 부었네?”

“그 떠들지 말고 내 말 들으라.”

고. 그래 그런 얘기 죽 했어. 울며 불면 그런 얘기를 했어. 하니깐 이 남자가 입을 딱 벌리고 한참 있더니,

“나는 오늘 저녁에 당신을 얹혀 놓고, 당신한테 큰 절을 올려야 되겠으니 얹어 절 받아라.” 고.

“그게 뭐 말이냐?” 고.

“아하 절 해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날 키워주라고, 어머니는 돌아가지고 그건 음편 녀씬 추워서 용함을 못허고, 이렇게 추워서 일을 못했는데, 내 할 일을 당신이 했으니 이런 고마울 데가 읍고, 이런 가락할 데가 읍으니 내가 이것 절을 안 올리서는 불효막대할께니, 날 살리라거든 절을 받으라.”

고. '아이, 그만 두라.'고 허거니, '절을 한다.'거니. 둘, 둘이 도투는 질인디. 그전에 순행을 둘 돌았어요. 도둑놈 뭐 때문에. 그 안마 순행, 술행꾼이 순행을 돌고 그 재를 넘어가는데, 그 집이 불이 불, 불 때랏고 연기가 나니께 불 좀 째우고 갈까 하고 그 친구가 들어오니까, 그 지경을 하고 앉어 있어.

“너 뭇 때문에 그랬냐?”

허니께. 그래 이 사람이 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 허니까 그 친구 말이.

“야! 참 희안 일도 있다. 어저께 우리가 순행을 도는데, 이천 석 받는 그 김동기가 순행방에 쫓아, 쫓아오더니만, '오백 석 쌓아놓은 그 노적거리 위에서 아가 울어서, 이게 웬 일인지 내가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니께, 순행꾼이 좀 가서, 좀 가서, 좀 그 무슨(무서운) 생각도 들고 허니 좀 가 보자.'고 해서 우리가 가 보니까, 그 꼭꼭, 꼭대기 꼭석 가리 위에 어린애가 울어서, 어린애 데려다가 순행방에다가 눕혀더니만 자는데, 그게 그 니 아들인지 혹시 모르겠다. 그 희안 일 너 그런 일이 있자, 야(아이) 하나 있으니까 가 보라.”

고. 그래 허둥지둥 두 내외가 들고 뛰어서 거기 가 보니께, 아 그 어린 애기, 자기 어린 어린해여.(웃음) 그 얼마나 황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김동기가 그 이튿날 와서, 그래 그 분도 자각이 있는 사람이지.

“산진, 산진 영웅이라. 산 지일 큰 영웅이 호랑인데, 호랑인데, 그것이 산 지킴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텔 다 놔두고 내 노자거리 오백 석지기에다 갖다가 올려놓은 거는 이거는 내가 건들면 안 돼. 이걸 그 산 산신령이 너를 준거여. 그러니께 그 비(벼)를 너가 팔어서 연명을 하고, 그 보채가지고 살지. 나는 그걸 건디릴 수가 읊다.”

[조사자 : 조 얘기한테요?] 응. 얘기는, 얘기네 그 그렇지. 얘기네. 말하자면 얘기를, [조사자 : 얘기한테 오백 석을 줘요.] 얘기를 준거지 말하자면. 응. 어 그러니 뭐 그거 싫다고 해도, 그카문 그러니 관가에 그런 얘기가 발설이 됐는데, 그전에 원이 있을 적에,

“아 그게, 참 김동기 말씀이 옳다. 그것 그리하라.”
 고. 그러니 그서 오백, 읊던 사람이 오백 석이 얼마여. 그래가지고 그 끈
 으로 그 부자가 됐어. 살았다 하는 그 끈이 부자된 밀천이 그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우리가. 그건 보던 못허고 들었는데, 그 부자된 밀천이
 그렇게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허는 얘기.

3 주인 아기를 살린 어씨네 개 무덤

김용준(80, 남) / 오산리 1뒤

[오산리 본동] 박중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눈을 뜨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이것저것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부탁하는 도중
 에 생각이 잘 나시지 않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구술해 주었다.

옛날에, 그 나 참 들은 얘기를 하라이께, 들은 얘기를 하나 하께, 어
 한림이라고 있었는데, 그가 한림꺼정 지내고 사람이 재물도 꽤참고 그
 냥 사는데. 자석을 못 뒤가주구 애를 쓰는데.

그러이 인제 자석을 불라고 사방 칠립을, 여서 말하자면 죽은 마느
 래 부인 있고, 그 자석 불라고 마느래 하나 음으만 죽은 마느래라고 그
 래잖아요. 그 적은, 그 첩을 하나 얻은, 얻어서 자석 불라고 했는데.
 첩을 하나 얻으니까, 큰니가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가라.”

고. 내쫓기도 그것 곤란한 일 아니요. 그래가주구 이래 있다가, 언내가 놀
 놀달이 시월, 이제 음력 시월 달인데, 시월 달이만 아들이고 딸이고 뭐가
 낳든지 낳는데. 시월 중신쯤 되서 나라에서,

“올러, 올러, 올러 오라.”

고. 기벌이 왔다고, 그 전달을 해서. 그이 지금, 지금으로 말해 그전에는,
 전화, 지금으로 말하든 전화도 있고 뭐하지만, 그전에는 그거 편질 가주

구 사람이 일부로 걸어서 그렇게, ‘오라’고 했으니, 그 안 갈 수도 없구. 나라에서 오라고 하니. 그이가 딱 시 식구지 말해서. 측은 마누래를 불러 앉혀 놓고,

“너, 마약에 이 이 여자가, 아들을 놓든지 딸을 놓든지 나쁜 놈만, 니가 내가 미칠 못와서, 못을 적에는 몸 몸조리를 잘 해줘. 잘 해, 잘 해주면 내가 그 공을 알고 너는 아 못날도 괜찮다. 우리 그거 시 식구 아주 한 덩거리가 되서 잘, 사이 살면 되니까, 언내를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가 가겠다.”

“염려 마라.”

고 이랬다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지금 보다가 인제 음력 유월달쯤 한창 더울제, 그 그 이참 시월이 아이라 유월이다, 유월달이여. 그래 인제 유월달쯤 그랬는데, 아 그랬는데 올라 갔어, 유월달에. 올라갔는데.

그 영, 그 한림, 그 어한림 올라가고서는 이틀만에 아 몸을 풀었어. 몸을 풀었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낳으니 그거 뭐 그가 어한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하겠소마는, 그 영 영감이 읍고, 이 여 여지는 고만, ‘순전히 자식 불라고 내가 들어 왔는데, 본 마느래가 아들 낳으니 나는 뭐 염체여, 여 살 수도 읍고 가야 되겠으니까.

“저게 원수다. 아가.”

이런 못된 마음이 들어, 자꾸. 자꾸 못된 마음이 들어서, 그날 저녁 밤새두룩,

“아를, 이걸 어떻게 해꼬질 해서 없애야 되겠다.”

그런 못된 마음뻘이 안들었는데. 아 밥도 잘 안해 주구 고만 툄툄거리고 뭐 꼴을 내고 막 이러이까. 아 아 어머니가 배가 고프고 이러이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 그러이 인제 뭘라고 나와서는, 자기 손으루 기어와서 뭘 좀 물에다 놔서 먹고. 핏빨래를 여름이니까 개울에 가서 좀 빨라고, 이래 흔들어 기주구 비누칠 해서 대강 주물러 기주구 들어 오니까 언내가 읍단 말이여. 애가 없으니 이 여자가 그만 빈 빈속에 그

질로 미쳤어. 미쳤어. 자꾸 아(아이) 아 이래 보만,

“아(아이) 내노라고. 우리 애기 내노라.”

고. 막 매달리고. 미쳤는데 그러니 그 이우지(이웃)서 봐도 그러니 아는 없어지고 그거 참 딱한 노릇이 꼭 그 마느래 꼭 소행 같은데, 그 본인이 없으니 어떻게 그 뭐 생부지로 보지는 건 말할 수도 없구.

근데 그 마리 밑에 개가 새끼를 낳아서, 일곱 마릴 낳아서 강아지가 눈뜨게 되서 버글버글한데. 아니 피빨래를 빨러간 고 상간에 아를 끌 어다가 엇다 갖다 죽은 걸, 죽어도 안하고 산걸 갖다 내 곤질라이, 어디 내 곤질 데가 마땅치가 않아. 그래 그 그전에 보리를 갈라만 그전엔 비료가 없으께, 풀을 비서 썰어서 썩어가지구 거름을 해선 퇴비를 해서 보리 갈었는데. 그 풀을 퇴비할라고 비서 이우제 쳐무지났는데, 풀 티미를 허치고 풀티미 속에다 아를 우선 이래 갖다 놓고 풀을 조금 빼서 좀 덮어놓고 밤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있는데 아이 그 새끼는 개가, 그 언내를 물어 물어다가 지금 그건 거짓말 아녀. 개가 영리합니다. 영리한 거는 물어다가 고 뒤에 쪼만한 굴이 있는데, 굴 굴에다가 뭘 끌어다가 놓고, 포대길 물어다가, 뭘 헌 걸 물어다 놓고 거기다 눕혀놓고. 아이 날마둥 하루 세 분(번) 네 분씩 드가서 젖을 먹였어. 젖을 먹였어.

[조사자 : 개가요?] 개가. 아 개 그런기 있어요. 개 그거 무시 못해. 그러니 먹었는데, 그 꿈자리도 뭐하고 하이께, 고만 한 열흘 안 되서 쫓아내리 왔단 말이야, 어한람이. 어한람이 와 보이께 아 막고,

“아, 내 놓으라.”

고. 막 영감한테 달가들어. 막 매달리고 옷을 막 잡아뜯고 이 야단을 허 이.

“아 마누라가 이거 우쨌 일이나?”

고 하이께. 이우제서 그런 애길 죽 한단 말이야. 그래 거주구 그.

“실성이 되서 그렇다.”

아 그이 고만 뭐.

“아이 이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 간신 간사이(겨우) 떼서 얹히 놓고, 우선 정신 채리서 우똥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읊어서 이래 어병병하고 쫘는데,
개가 쫓아오디만 막 중 중우를 끌고, 물구 끌구 조금 가다가 안 따라오
만 또 그래고 그래고 그래. 그 따라 오라는 눈치가 아주 완연하다구.

“그 개가 따라오라는 그러구 거이께 개를 따라가 보라.”

구. 그 개를. 그 시마리(힘이) 읊지만, 그거 하도 그러니, 이상하니까 따
라 가니까, 아 고 고 뒷산에, 바로 고 산 주위인데 요 바로 된데. 아 고
산 너굽이 있는데, 너굽 그 굴 걸튼기 있었는데. 그이 있는 줄 알아, 자기
두. 아 그 그리 끈단 말이여. 끄는데, 아 거기 가이께 애 우는 소리가,

“앵앵앵!”

나. 그래 가이께, 그 개가 필씩 들어누우께, 들어누우가지고 그러이께, 아
가 꼬불꼬불 하는 기 쫘을 빨아 먹을라고. 그래 그걸 가주고 왔는데, 키!
뭐 애가 지실이 들고 매란 읊지 흥몽테이고. 그래 그걸 주가지고 와서 아
무튼지 눈치를 보이께 눈치가 좀 뭐가 달라도 다를 거 아니요. 그래 고만
여자를 고만 조쫘어.

“바른말을 쉽게 하만 너를 내가 찍이든 안하고 내 보내. 넌 내 보내긴
보내. 내 보내는데 너 바른말을 안 하든 내 손엔 죽는다. 바로 해라!”

그래 그런 얘기를, 그래가주구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하나에
하나에 똑바로 얘길하거든. 그래가주구,

“아를 죽일라고. 밤이 어두면 갖다 내곤질라고 그랬는데, 그 어둡기
전에 어두와서 가 아를 찾으니까 없더라. 그 그 뒤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개가 보고서 끄내간 거여. 끄내 끄내간 거는 그렇게
개가 끄내 갔다는 걸로 보든 못했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가주
구 그 집 손을 살았다고 해서, 그 어씨네 손이 잇었다고 해서 개무덤이
거 있어요. 지금.

[조사자 : 어씨네 무덤 있는 데요?] 그께 그 친산 있는데. 개무덤이
거기 있어. 개무덤이 개를, [조사자 : 성씨가 어떻게 돼요?] 어씨. 어

씨. 근데 그 개를 죽을 때까지 잘 먹이가주구, 죽은 뒤에 산 그 자기네 그 조상 발치에 사람과 같이 장사를 지냈어. 그 개젓 묵고 우뚝게든지 살았잖어. [조사자 : 대를 이었으니까.] 대를 잇었어.

④ 형의 말을 따라 부자 된 삼 의형제

김용준(80, 남) / 오산리T 1위

[오산리 본동]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앞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요청하자, 앞에서 말하였던 한양지에 관한 것이라든가, 천주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였다. 민담을 요청하자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사양을 하였다. 조사자들이 그러한 내용도 아주 유의하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자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 주시겠다며 구술하였다.

그 전에 한 동네서 아주 의리가 있고, 화목있는 형제가 3형제가 있었는데. 그 인제 만형이라는 사람이 뭐든지 한 마디만 말하면 거역하는 법이 없어. 뭐든지 꼭 숙명하고 성이 시키는 데로 꼭 말을 하기가 돼 있는데.

하루는 별안간 동지선달에 동상들을 들을 불러놓고, 허이! 성질이 다 그 아주 그 다 좋은 사람인데.

“부잣집, 오늘 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러 가자!”

는 거여.(웃음) [조사자 : 형이요?] 응, 성이. 아이 망녕도 아니고 기가 맥힌 일인데. 여적 우리가 결합하기는 성님 말을 조금도 거역하기 없기로 아주 사생을 결단 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도둑질을 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빨턱 자빠질 수도 없고, 자빠지면 그거 맘 먹은게, 그 말한게 거 허사가 되고. 그 동상들이 서로 들이 앉아서 얼굴을 이래 쳐다보고, 기가 맥혀서 앉았다. 그래 그 중간치가 끝에 동상 보고.

“할 수 읍지. 우리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 할 수 있나! 가서 우리가 맞져 죽더라도 가 갈 수백에 읍다. 갈 수백에 읍다.”

그래 인제 동상한테, 성,

“성들이, 성들이 돌이 다 그러니 내가 마다고 할 수는 읍는 일이고, 죽드래도 갈 수백에 읍다.”

고. 그래 나서는데, 그럼, 그럼 성이, 성이 망성 보고선,

“도독질을 하러 가 가기는 성님이 말씀했으니, 그럼 앞에 서서 인도 해머는 저는 따라 가겠으니 인도하시오.”

그러니. 그래 말이가 하 나서는 겨여. 신발을 해 신고. 겨울인데 옷 을 두둑하게 입고 나서는데. 그 성을 따라 나서니, 그 한 십리 배갈에 큰 부갓집이 있는데, 그 집에 월담을 넘어서 자기가 넘어가는데.

“너도, 넘어 오너라.”

아 벌벌 떨지만, 그래 그걸 넘어가지. 넘어가니까 광을, 그 비, 비 (벼)를, 쌀을 갖다가 썩 그 곡간을 한 짝을 뜯는단 말여.

“너도 좀 뜯어라.”

어이 맞아 죽을 판인디 이겨 참, 거이 그만한, 그만한 효성이 서로 있다는 것지. 거 이름난 겨.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서 가니까,

“가서 쌀을 한 가마니씩 저라.”

하고서는 쌀을 한, 한 가마로 담은 것을 하나씩 인제 꼬잡어 내 질라고 하니께 불이 확 켜져버려. 깜짝 놀래지거든. 그런데 불이 벌떡 일어나는데, 이래 보니께 자기 눈, 자기네 눈에 허연 영감이 하나 앓았어. [조사자 : 형제 눈에요?] 응. 하면서,

“너! 그거 가져 갈라고 그러지.”

“예!”

“예이 안 된다. 못 가져 간다. 이 재물이 이집 해가 아니여, 이집. 재 물의 임자가 여계 이십 리 백갈(바갈)에 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승 낙을 얻어야지. 그 사람이, ‘가져 가라’고 해야 되지. 나는 이 집 지킴 여, 그 재물을 보호하는 그 신이다. 그런데 못 가져 가. 못 가져 가니

게, 거게 가서 거게 대만 고을이라는 데를 찾아가며는, 그게 저게 그 낫 같은 거, 칼 같은 거, 이래 망치로 두드리는 대장간이 있어. 그런데 대장질 하는 사람이 차씨라고, 아주 어려운 옷을 헐벗고 대장질을 하는데 그 사람 재물이여. 거기 가서 너희가 무릎을 꿇어, 꿇어서, 너희 맘대로 열매든지 ‘백 석이면 백 석, 이백 석이면 이백 석 좀 봐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 사람이 백 석 주겠다고 서류를 쓰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찍으면 찍어가지고 있으면 너의 해가 되는 거여. 그런데 거게 가서 얻어라! 그리고, 어른 나가! 쯤, 쯤 좀 있으면 큰일 나.”

어그 그러니까 찌겨 나와. 아이 그 이튿날 아침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대만 고을을 갔어. 대만 고을을 가니까, 가서 그걸 돌아다니다 이렇게 참 비람, 비람간을 정해 놓고선, 낫을 이래 두드리고. 그래 그 승 승을 물으니까,

“차씨라.”

고 그래.

“아이 참, 차선생님! 저희는 아쉬워서 여쭙 말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구! 나같은 사람에게 뭘 여쭙 말이 있느냐?”고.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곤고해요. 3형제가 의리가 있고 이런데. 곤고하는데 선생님한테 하나에 백 석씩 3백 석지기를 그 땅문서를 은으러 왔으니께 3백 석지기를 저희를 좀 도와 주시요. 한 2천석, 이태(2년) 안에서 할테니까 봐 주시요.”

“원 별소리를 다 하네. 여보! 나 이 아침거리를, 오늘 지어 먹을 것도 없오. 여 이것 풍구질 이것 벌어가지고 가서 쌀 한 되 사가지고 가야 밥을 해. 그렇게도 여해해 주요?”

“어 죽은 사람 원도 풍다는데, 그까짓 거 내가 그리키 내가 준다는 거, 준다고 쓰고 도장만 찍어 달라.”니께

“그거야 못하겠냐!”

고 그래.

“3백 석을 내가 너희, 당신네들 주겠소.”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러면 됐나?”고.

“감사하다.”

고. 그래 가지고 왔어. 가져왔는데 그리고선 성이,

“이제 몇 해 안 있으면, 우리가 살 수가 살기가 돼. 그러니 너희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적질까정도 하라고, 가자’고 했는데, 거역치 않은 그 성의가 뺏어가지고, 하늘에서 정해진 일인 게, 우리가 백 석씩 받는 부자가 될테이니 그리 알라.”

“아이! 성님 말씀도 허황된 얘지요.(웃음) 허황된 얘지요.”

그래 웃고 말았다. 그 문, 문틈에니게. 그런데 아이 그 장작집에, 아이 그 몇 해 안 가서 그만 망하고, 그 그 차씨가 재, 그 땅덩어리까장 집까정 전부 샀어. 어떻게 되서 샀는지 그 내막은 모르고 그 샀어. 그 사람이 해라니게, 그 사람 뭘 복을, 복을 썼지 뭐. 그래가지고서는, 사 가지고는 아 그냥 딱 그런 소문이 사방에 짝 났다고. 아 그러니 이 사람들, 셋이 갔어. 그걸 내 놓고,

“택에서 이걸 주신다고 했으니젠 이걸 주세요.”(웃음)

아 그것이, 자기도 기억이 있거든.

“이거 뭐 자기가 용한 은인인지 천우신조인지. 보통으로 볼 수 없어. 이걸 그 뭐 내가 안 주려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당신네 그냥 운이 뺏혔으니게, 삼백 석지기는 그렇게 말과 같이 되는 거라.”

고. 그래가지고 그 의리 있으니게 그래 살았다는 얘기에. 그 싱거운 얘기 아니여. [조사자 : 재미있는 데요.] 그래 싱거운 얘기, 그래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의리가 있고 화목이 있으면 뭐든지, 뭐든지 돌봐 주는 거.

⑤ 죽을 병을 고친 무당굿

신옥자(53, 남) / 오산리T 2앞

[오산리 본동] 박종수, 강현모, 백순일, 안승용, 최왕 조사 (1996. 6. 1)

김용준 할아버지 댁을 나와 노인정에 들렀다가 채록하지 못하고, 이연화 할머니 댁에 갔지만 채록하지 못하고 나왔다. 그러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제보자에게 이야기를 요청하자, 약간 귀찮아 하였다.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자, 다 잊어버려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처녀적에 본 것이라며 구술하였다.

그 무당에 대한 얘긴데, 그것 해도 될라냐 모르겠네. [조사자 : 편찮습니다. 그것 그것도 얘기해주세요?] 내가 저기 시집오기 전이, 지금 한 40년 전인가 그렇게 됐는 거.

그 우리 동네에서 참 어떤 아저씨가 아주 참 대단히 아팠다고. 아퍼가지구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인제 낫지를 않는 거여, 치료를 받아도. 그래가지구서는 인저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구 허고, 인자,

“효과가 없으니까 퇴원하라구. 가망이 읍다.”

구. 그래서니 이 그 부인되는 사람이, 그 아픈 사람 부인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점을 쳐봤는데. 점을 쳐 보니까,

“긋을 해야, 긋을 하면은 낫는다.”

고 그라더래. 그래서는,

“그럼,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이나 풀어 준다구.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구. 그렇게 하구서는, 인자 긋을 시작 시작해가지구, 인저 한 사흘인가 그렇게 정을 읽었다고. [조사자 : 사흘내내 긋을 한 거예요?] 긋을. 그래가지구 나도 구경을 갔었지. 동네 사람들 여럿이. 그랬더니 참! 사흘째 되는 날인가 그날이라. 그래서 그 날 갔는데, 뭐 대를 잡는 다나, 그렇게 대를 잡는디야. 그러난디 점쟁이가 구신, 구신이 붙었다, 그 아픈 사람이. 그런디 구신을 잡는디야. 구신을 잡는다는데 그 점쟁이가 막 인자,

“구신을 잡는다”

고. 막 뭐라고 삼우 무슨 얘기를 막 하는 거여. 정을 읽는 거여, 뭐를. 그러니까는 정을 읽는 사람이, 그 ‘구신을 잡는다’고. 병 속에다 잡아 넣는다. 그 구신을. 그래가지고서는 막,

“빨리 그 병 그 병 속으로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가면 참 좋은 데라

고. 세상 살기 좋고 막 그런 디라.”

고. 막 그것말을 막 하는거여, 점쟁이가. 거기 들어가면 좋은 디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서 참 끌리 들어가디야. 들어갔데 그 구신이. 우리는 그냥 봤는디, [조사자 : 병은 술병인가요?] 술병. 그 옛날에 술병. 그 대 병 소주병. 거기다가니 인제 그 구신을 잡아 넣는디. 그래가지구서는 구신을 그 점쟁이가 뭐라고, 뭐라고,

“거기 들어가면 좋다.”

고. 사무 이렇게 하면. 막,

“안들어 간다”

고. 막 허는 거여. 막 그 그러니까는, 그 점쟁이가 막 무슨 축원이라나 똥을 하닌게, ‘좋다’구 막 그렇게 하니께 거기를 잡, 들어 갔어. 들어 들어 갔디야. 우리가, [조사자 : 병 속에는 아무 것도 없었죠?] 아무 것도 없었지. 그러는디 들어 들어 갔다고 인자 하.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디, 그래가지고서는 인제,

“들어 갔다.”

고. 하면서 그 병을 꼭 막대, 그 점쟁이가 막 봉하는 거여. 그렇게 해놓구서는 그 병을 인제 고 땅바닥에 났어. 났는디, 그 병이 막 ‘때꿀 때꿀’ 막 둥그는 거여. 그러니까, 점쟁이가 말하는대로 막 점쟁이가 그 ‘구신이 실렸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그 구신이,

“아이고, 나 이곳이 좋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답답해 못 살겠다.”

고 그러면서. 그 병이 때꿀때꿀 둥그는 거여. [조사자 : 병이 혼자서요?] 혼자서. 병이 땅바닥에다 났는디, 인제 거 대를 잡는 사람이, 그 병 들고 있는 사람이 땅바닥에다 났는디, 꼭 막어서 그 점쟁이가 났어. 그랬는디 병이 때꿀때꿀 둥글면서, 그 점쟁이가,

“아이 답답해 못 살겠다고. 좋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막 답답하다.”

고. 그러게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인제 그 점쟁이가 또 얘기하는 거여.

“좋은 디로 보내 준다.”

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어디로, 좋은 데로 저기 보내 준다.”

고 그러니까. 그 병이 간, 저기,

“좋은 데로 간다.”

는겨, 그 구신이. 그 병 속에 들은 구신이. 그양 막 그 어떤 한 사람보고,

“병을 잡으라.”

고 하데. 그러니까 그 병을 잡고 있는 막 장정, 막 청년이 잡고 있는데, 그 병이 막 움직이는 거여, 사람이 잡고 있는데. 그런데 점쟁이가 그러는 데,

“이 병 들고, 병 가는 데로 가라구. 그러면 병이 가며는 거기 가서 멈추는 데가 있을 거라구. 그러며는 그 병을 거기다가니 파구서 병을 물어 주라.”

고. 그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 해가지구. 그 청년 막 시시(셋이) 그 병을 들구 삼을 들구, 글썽하게 해가지구서는 인저 그 병 가는 디루 막 가는 거여. 그러디 그 병이 막 이렇게 그 사람 손 손을 끌는 식으루, 병이 이렇게 막 간다. 막 땡긴다. 땡기는 디까지 갔는데, 그 앞산 산이 있는데, 그 앞 이 산고랑이 있는데, 그리 들어 가더라 그 병이.

그래가지구 그 청년 시시 막 그걸 따라 갔어. 병 들구서 간 사람하구.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가더니 병이 딱 이렇게 땡기는 기가 읊구 멈추더라. 그래서는 거기다가 파묻어 주구서는 왔어. 왔더니 오구. 그 점쟁이는 막 뭐 우리네는 무슨 소린지 몰러. 인저 막 똥 정(경)을 읽는다는데, 정을 읽더라구.

“좋은 디루 인제 보내 줬다구. 갔다.”

구. 구신, 그래 이제 구신을 그렇게 띄워서 갖다 묻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구 인자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인저 전정하니 저, ‘죽는다’ 소리가 다 낮고 그랬는데. 그 곳을 허고서는 차츰차츰 나서져가지구 진짜 살았어. 그래갖고 그이가 저기 80살을 넘게 살았어.

[조사자 : 그 아픈 사람이 무슨 병이었던가는 알았어요?] 무슨 병,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조사자 : 병명을 몰랐다고요?] 몰러. 병명이 있어나 몰러라. 우리는 그때 녀의 일이니께 모르는다, 뭇 병인가는 모르것어. 그런디 병원에서도 '가망이 읍다고. 그냥 나가라'구 그래가지고 퇴원해 가지구서 그렇게 정을 읽고서 차츰차츰 나아가지구, 밥같은 것도 차츰차츰 먹기 시작해 갖고, 그 뒤로 그것 하구서 오래오래 살어, 살았어.

그서 내가 진짜 실제로 봤다니께. [조사자 : 이게 실제로 보셨다고요?] 응. 그 그렇게, 인저 그 할아버지가 인제 그 아저씨가 그래 낫어 가지구 오래오래 살었어.

龍仁文化院 郷土文化資料叢書

- 1983. 내고장 民謠 (李仁寧, 洪順錫)
- 1984. 내고장 龍仁 (李仁寧)
- 1984. 내고장의 얼·人物編 (洪順錫)
- 1985. 내고장 옛이야기 (李仁寧, 洪順錫)
- 1986. 내고장의 얼·遺物遺蹟編 (李仁寧)
- 1987. 내고장 民俗 (河周成)
- 1989. 내고장 龍仁·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 (李仁寧)
- 1991. 내고장 龍仁 地誌總覽 (李仁寧)
- 1994. 龍仁郡 時事年表 (李仁寧)
-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共編)
- 1996. 내고장 용인·동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이용준)
- 1997. 내고장 龍仁·文化遺産總覽 (李仁寧)
- 1997. 내고장 용인·북부지역의 구비전승 (박종수, 강현모)

저자 약력

박중수(朴鍾朱)

- 광주사대 국문과 졸업
- 문학박사(단국대)
- 현재 용인대 교수
- 주요논저

『대학한문』 『문학과 인생』 『문장과 언어』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1-82권』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보경문화사)
『조선조 기류 문학의 연구』(학위논문)
『충남 연기지방의 설화연구』 등 다수의 논문

강현모(姜賢模)

- 한남대학교 졸업
- 문학박사(한양대)
- 현재 한양대, 한남대, 용인대 강사
- 주요논저

『부여지방의 구비전승』(1)(2)(보경문화사)
『용인 동부지역의 구비전승』(보경문화사)
『비극적 장수설화의 연구』(학위논문)
『이몽학 설화의 연구』 등 다수의 논문

향토문화자료 13

내고장 용인 북부지역의 구비전승

1997년 5월 10일 인쇄

1997년 5월 30일 발행

엮은곳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지은이 : 박 중 수 · 강 현 모

발행인 : 송 재 권

인쇄처 : 태 학 사

발행처 : 용 인 문 화 원

(우) 449-800 경기도 용인시 김양장동 133-61

전화 : (0335) 35-2033 FAX : 33-3318

(비매품)

여

백

